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Ⅰ

임 진 강

Vol.1 임진강의 환경과 삶

경기도박물관

발 간 사

경기도에는 한강, 임진강 등 대 하천들이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자연환경으로서 식수를 공급하고 풍부한 식량자원을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상 주요 정치세력의 출현과 성장이 하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하천유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우리 도의 문화적 ·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존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도내 3대 하천인 임진강과 한강, 안성천 유역을 연차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순서로 2000년에 실시한 임진강 유역 조사의 결과물입니다.

임진강 유역은 한반도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이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간 문화유적의 조사가 미비했던 곳이었고, 또 근년에는 잦은 홍수로 인한 범람으로 문화유산의 파괴가 매우 심각하였기 때문에 시급한 조사가 절실히 요망되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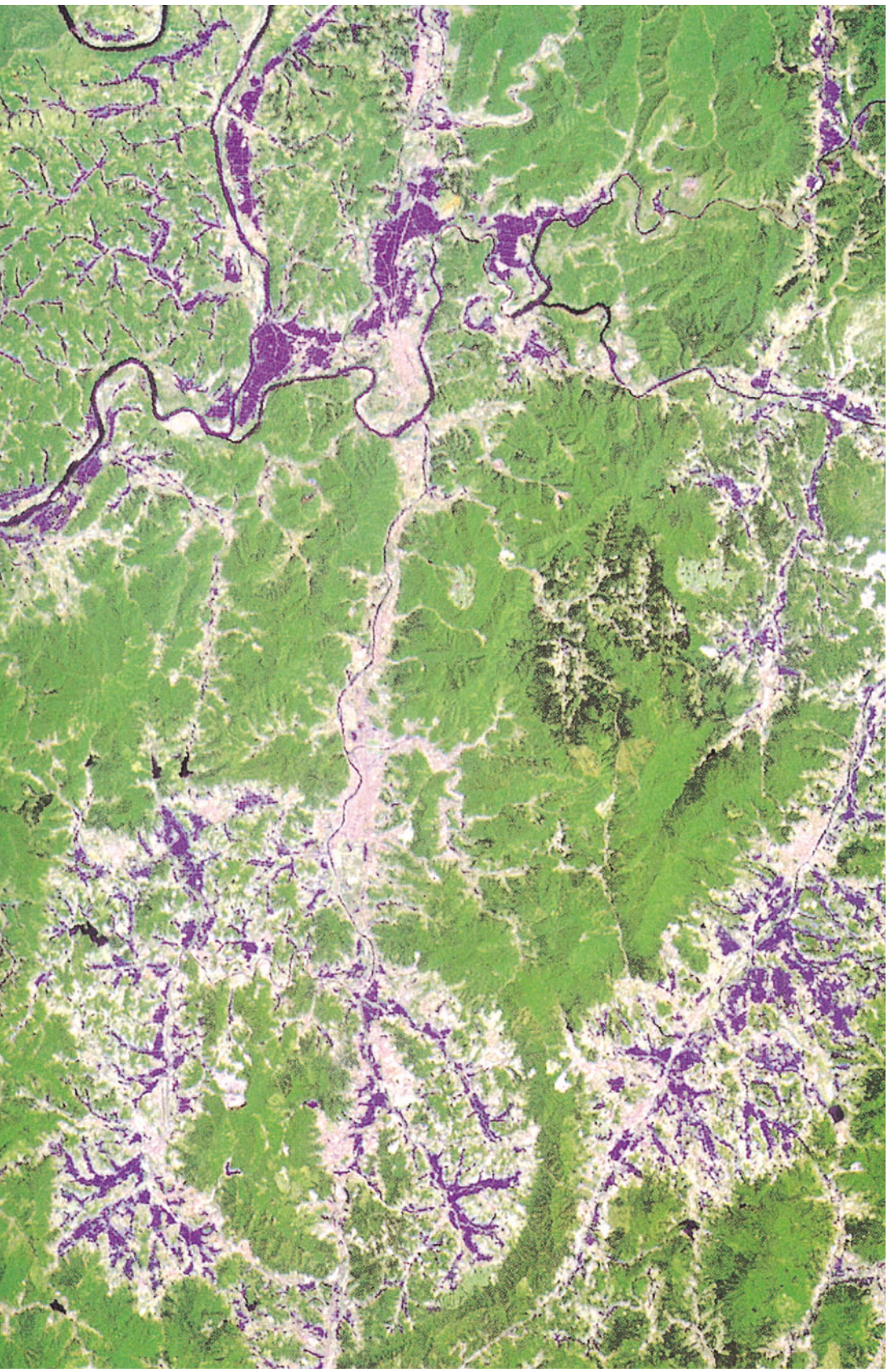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하천유역의 생활상과 문화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새로운 자료도 다수 확보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히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조사가 미비하였던 민통선 내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조사기간이 충분치 못하고 또 군사보호구역이 많아 제한을 받았기에 완벽하게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번에 확보한 기초자료들은 향후의 정밀조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시도된 문화권역별 조사는 앞으로 행해질 학술조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 결과가 보다 심도있는 정밀 학술조사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 통일시대 문화정책의 입안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현지조사에 기꺼이 참여하시고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 집필자 선생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며 군사보호구역 내의 현지조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군 당국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때 맞추어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을 전합니다.

2001년 2월 일

경기도박물관장 李仁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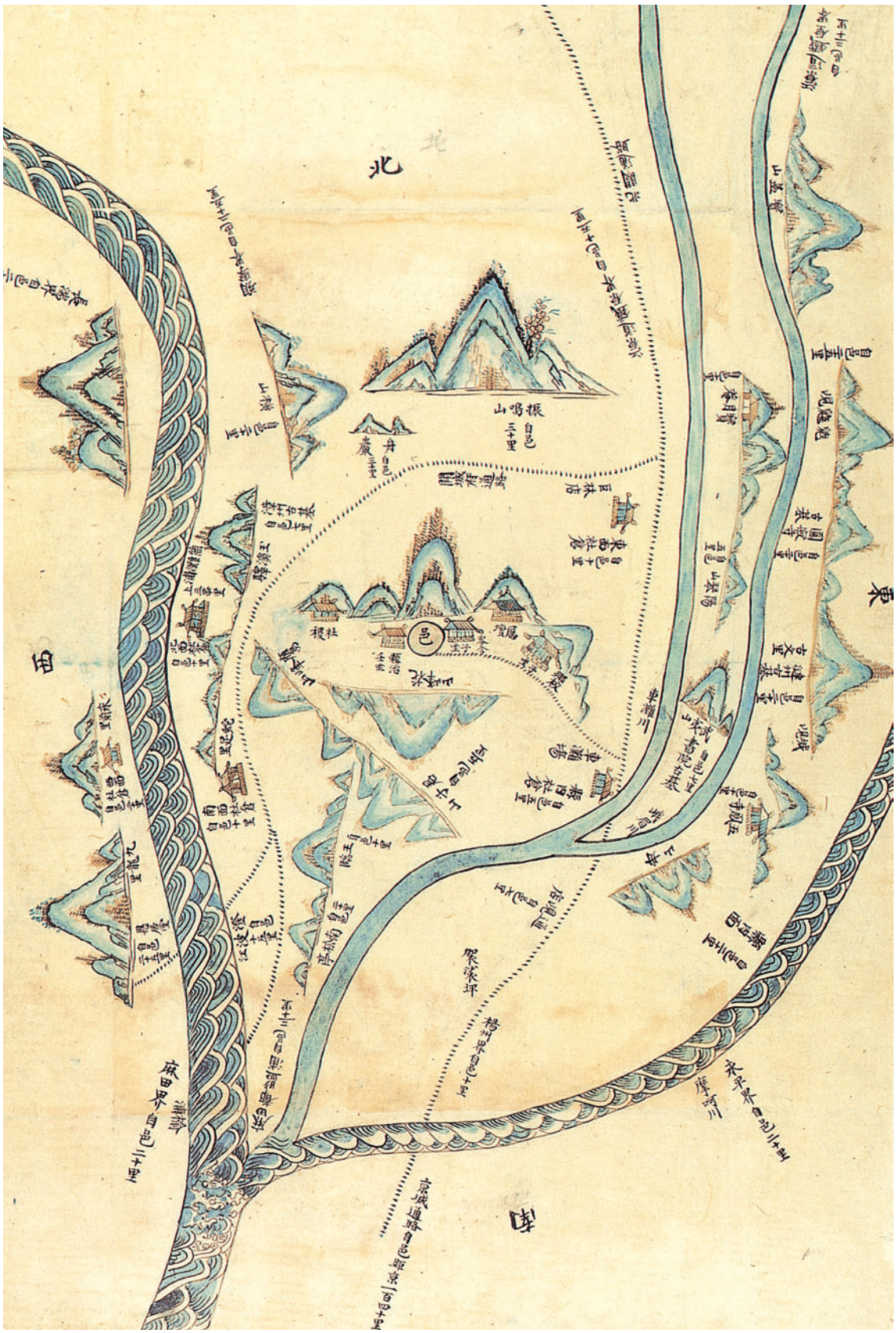
임진강 일대 위성사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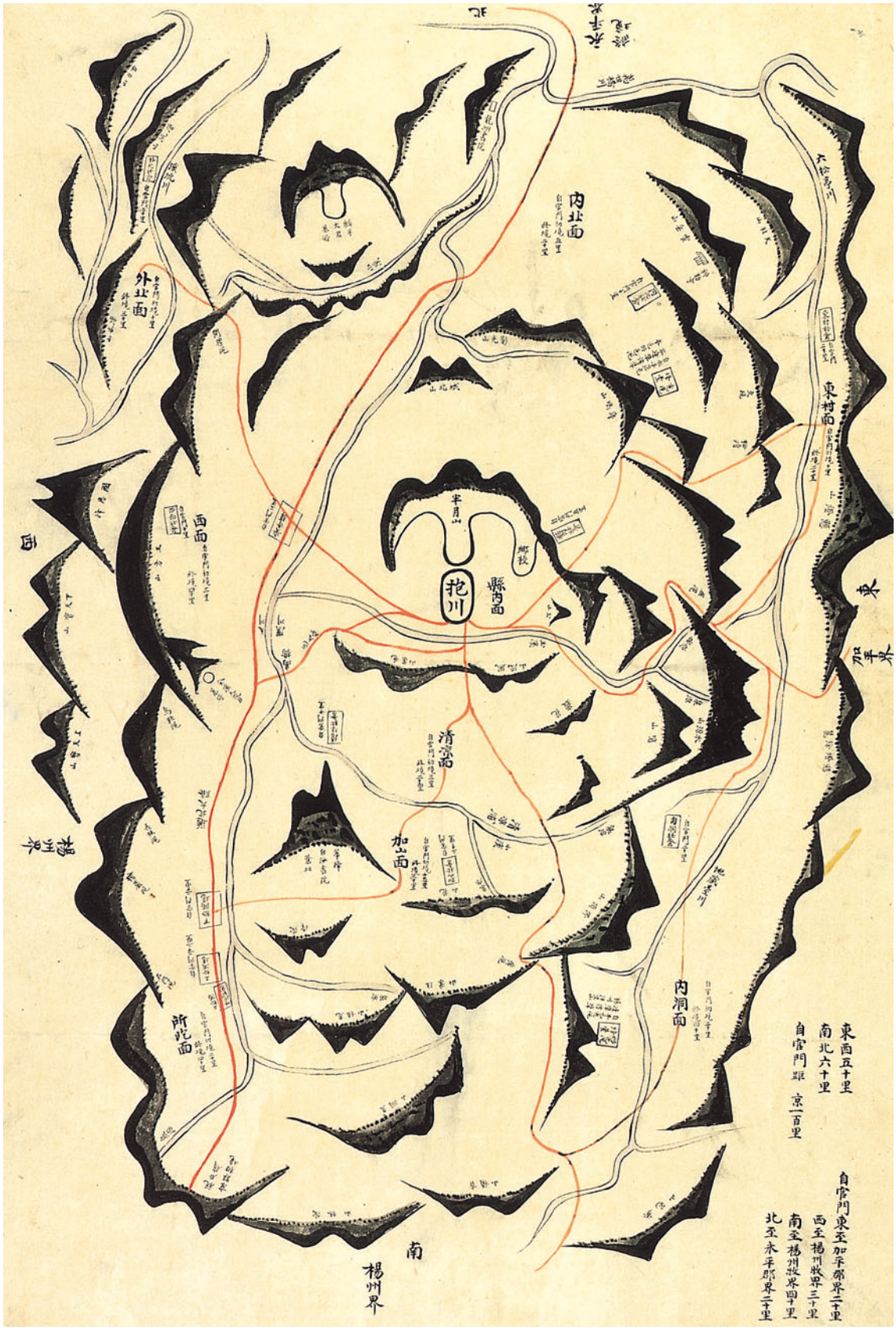
경기도 고지도 『동여도』(19세기 중엽)



파주지도(1872년)



연천현 지도(1872년)


內北面
外北面
東村面
西面
縣內面
抱川
清宋面
加山面
內洞面
所沱面
南
楊州界
東西五十里
南北六十里
自官門距 京一百里
自官門東至加平郡界二十里
西至楊州牧界三十里
南至楊州牧界四里
北至永平郡界二十里

포천현 지도(1872년)



임진강



임진강 전경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



화석정 전면의 임진강



임진리 임진나루 전경



연천의 장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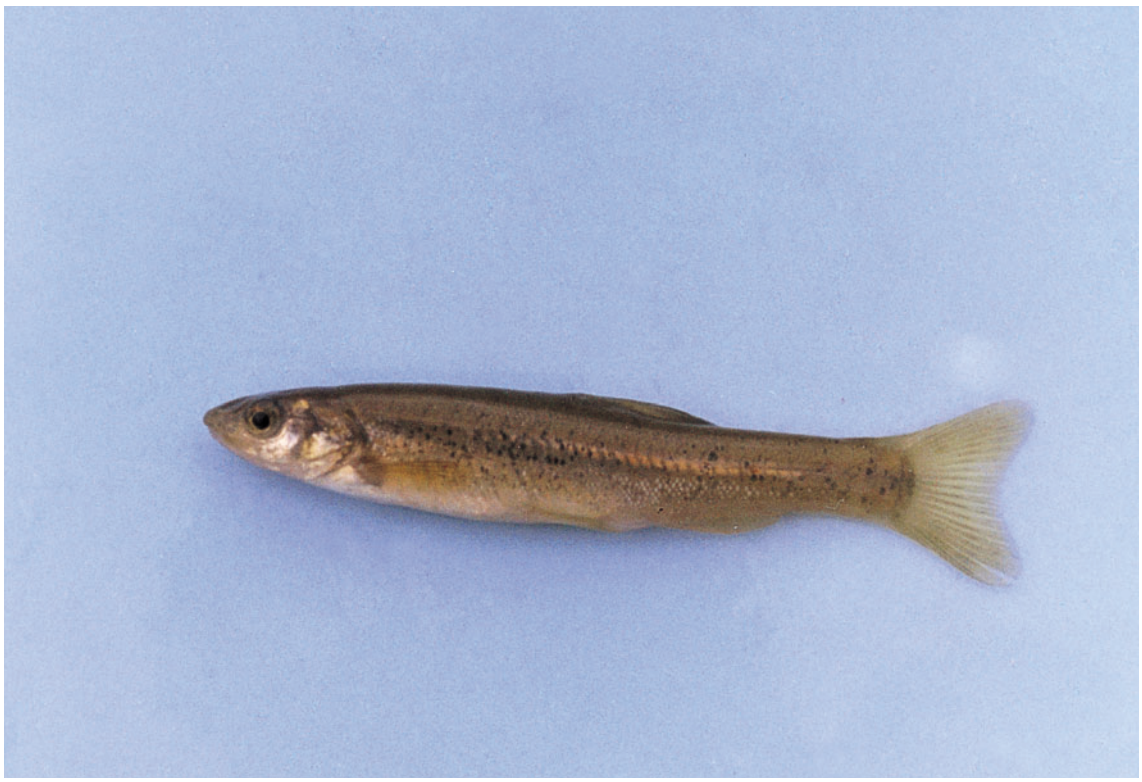
백연리 통일촌 전경



맹꽁이



구렁이



버들개



꺽지(한반도 고유종)



전곡읍 은대리의 물거미 서식지(천연기념물 제412호)



물거미



사슴벌레



거사2리 거사울의 돌탑



영중면 거사2리 천제사 바위



포천 영북면 신정리 신목과 금줄



전곡읍 신답리 당집

제1권

제1장 조사개요 ····· 25

제2장 임진강의 자연환경과 생태 ····· 39

제1절 임진강 유역의 지형과 지질 ····· 41
제2절 임진강 유역의 동물상 ····· 71
제3절 임진강 유역의 식물상 ····· 157

제3장 임진강의 인문환경 ····· 221

제1절 임진강 유역의 인문지리 ····· 223
제2절 교통로 및 시장의 형성과 발전 ····· 285
제3절 임진강 유역의 촌락 ····· 327
제4절 임진강 유역의 集姓村 ····· 349

제4장 임진강 유역의 민속문화 ····· 367

제1절 조사지 종합개관 ····· 369
제2절 표본조사마을 개관 ····· 379
제3절 민속신앙 ····· 417
제4절 세시풍속 ····· 459
제5절 생활풍속 ····· 469
제6절 민속놀이 ····· 491
제7절 구비전승 ····· 507
제8절 임진강 유역의 어로생활사 ····· 525

제2권

제5장 불교유적 ····· 29

제1절 고고유적 ····· 31
제2절 관방유적 ····· 243

찾아보기 ····· 519

제3권

제3절 불교유적 ····· 31
제4절 임진강 유역의 陶窯址 ····· 105
제5절 선현묘역 ····· 159
제6절 정려 · 태실 ····· 403
제7절 금석문 ····· 415
제8절 전통가옥 ····· 441
제9절 傳統建造物 ····· 485

부 록 ····· 501

1. 지도별 유적목록 ····· 503
2. 지역별 유적목록 ····· 560
3. 종류별 유적목록 ····· 579
4. 시대별 유적목록 ····· 595
5. 문화재 지정별 유적목록 ····· 612

찾아보기 ····· 615
별지 : 임진강 유역 문화유적 분포도(1/100,000)

제 1 권 차례

발간사
화보

제1장 조사개요 ····· 25

1. 조사목적 및 추진경위 ····· 27
2. 조사방법 ····· 30
3. 조사성과 ····· 34

제2장 임진강의 자연환경과 생태 ····· 39

제1절 임진강 유역의 지형과 지질 ····· 41
1. 임진강 유역의 자연환경 ····· 41
2. 지질과 지형 ····· 43
3. 기상 · 기후 ····· 55
4. 하천과 수계 ····· 61
5. 결론 ····· 68

제2절 임진강 유역의 동물상 ····· 71
1. 개요 ····· 71
2. 임진강 유역의 양서 · 파충류, 조류 ····· 74
3. 임진강 유역의 어류 ····· 94
4. 임진강 유역의 곤충상 ····· 133

제3절 임진강 유역의 식물상 ····· 157
1. 서론 ····· 157
2. 재료 및 방법 ····· 159
3. 결과 및 고찰 ····· 162
4. 결론 ····· 216

제3장 임진강의 인문환경 ····· 221

제1절 임진강 유역의 인문지리 ····· 223
1. 임진강 유역의 자연환경 ····· 223
2. 정치 · 행정의 변천 ····· 227
3. 취락의 발달 ····· 234
4. 인구의 성장 ····· 246
5. 농 · 산촌 경제의 발달 ····· 250
6. 교통과 상업의 발달 ····· 263

제2절 교통로 및 시장의 형성과 발전 ····· 285
1. 서론 - 임진강 유역의 지리적 특징 ····· 285
2. 본론 ····· 286
3. 임진강의 수로와 나루 ····· 305
4. 결론 ····· 324

제3절 임진강 유역의 촌락 ····· 327
1. 서론 ····· 327
2. 邑聚落 ····· 328
3. 同族村 ····· 332
4. 交通村 ····· 345
5. 결론 ····· 346

제4절 임진강 유역의 集姓村 ····· 349
1. 抱川地域 ····· 350
2. 漣川地域 ····· 353
3. 坡州地域 ····· 356

제4장 임진강 유역의 민속문화 ····· 367

제1절 조사지 종합개관 ····· 369
1. 조사개요 ····· 369
2. 임진강 유역의 사회 · 문화적 특성 ····· 370
3. 유역별 일반 현황 ····· 373

제2절 표본조사마을 개관 ····· 379
1. 상류지역 ····· 379
2. 중류지역 ····· 392
3. 하류지역 ····· 406

제3절 민속신앙 ····· 417
1. 마을신앙 ····· 417
2. 가정신앙 ····· 451

제4절 세시풍속 ····· 459
1. 임진강유역의 세시풍속의 현황 ····· 459
2. 상류지역의 세시풍속 ····· 460
3. 중류지역의 세시풍속 ····· 462
4. 하류지역의 세시풍속 ····· 465

제5절 생활풍속 ····· 469
1. 강과 함께한 연중생활 ····· 470
2. 임진강의 배들 ····· 475
3. 어로도구 ····· 479
4. 배부리기와 관련된 신앙 ····· 483
5. 나루터 풍속 ····· 484
6. 사금채취 ····· 485
7. 어촌계 생활 ····· 486

제6절 민속놀이 ····· 491
1. 머리말 ····· 491
2. 세시풍속에 따라 연행되는 놀이 ····· 492
3. 노동에 따라 연행된는 놀이 ····· 497
4. 의례와 관련된 놀이 ····· 501
5. 무속과 관련된 놀이 ····· 502
6. 기타놀이 ····· 503
7. 마무리 ····· 506

제7절 구비전승 ····· 507
1. 전설 ····· 507
2. 민요 ····· 519
3. 마무리 ····· 522

제8절 임진강 유역의 어로생활사 ····· 525
1. 임진강 유역의 어로생활사 조사에 들어가며 ····· 525
2. 조사자들의 이야기 ····· 527
3. 임진강 유역 어로생활사 조사를 마치며 ····· 557

제 1 권 사진·그림·표 목록

사진 목록

● 임진강의 자연환경과 생태

〈사진 1〉 화석정 전면의 임진강
〈사진 2〉 철원평야
〈사진 3〉 재인폭포
〈사진 4〉 직탕폭포
〈사진 5〉 맹꽁이
〈사진 6〉 붉은귀거북
〈사진 7〉 아무르산개구리
〈사진 8〉 표범장지뱀
〈사진 9〉 구렁이
〈사진 10〉 남생이
〈사진 11〉 까치살모사
〈사진 12〉 다묵장어(보호어종)
〈사진 13〉 잉어
〈사진 14〉 붕어
〈사진 15〉 각시붕어(한반도고유어종)
〈사진 16〉 납줄갱이
〈사진 17〉 납자루
〈사진 18〉 납지리
〈사진 19〉 누치
〈사진 20〉 참마자
〈사진 21〉 모래무지
〈사진 22〉 돌마자(한반도고유어종)
〈사진 23〉 버들매치
〈사진 24〉 긴몰개(한반도고유어종)
〈사진 25〉 줄몰개
〈사진 26〉 버들개
〈사진 27〉 버들치
〈사진 28〉 피라미
〈사진 29〉 갈겨니
〈사진 30〉 미꾸리
〈사진 31〉 쌀미꾸미
〈사진 32〉 참종개(한반도고유어종)
〈사진 33〉 퉁가리(한반도고유어종)
〈사진 34〉 대륙송사리
〈사진 35〉 꺽지(한반도고유어종)
〈사진 36〉 얼룩동사리(한반도고유어종)
〈사진 37〉 밀어
〈사진 38〉 민물두줄망둑
〈사진 39〉 민물검정망둑
〈사진 40〉 밀들이메뚜기
〈사진 41〉 비단노린재
〈사진 42〉 알락수염노린재
〈사진 43〉 사슴벌레
〈사진 44〉 연노랑풍뎅이
〈사진 45〉 뾰족날개길쭉비구미
〈사진 46〉 먹가뢰
〈사진 47〉 별쌍살벌
〈사진 48〉 임진강 유역 식물플랑크톤 주요종의 형태

● 임진강의 인문환경

〈사진 49〉 징파도
〈사진 50〉 경원선 급수탑
〈사진 51〉 포천현의 읍취락
〈사진 52〉 파평윤씨 성지 龍淵
〈사진 53〉 골짜기 입지인 골말
〈사진 54〉 빙곡마을의 노거수
〈사진 55〉 오금리 도곡동

● 임진강 유역의 민속문화

〈사진 56〉 용정 2리 요물동 전경
〈사진 57〉 거사 2리 거시울 전경
〈사진 58〉 거사 2리 거시울의 돌탑
〈사진 59〉 산정리 국민관광지 전경
〈사진 60〉 산정리 하동 전경
〈사진 61〉 중 3리 윗심재 전경
〈사진 62〉 삼곶리 전경
〈사진 63〉 선곡리 개무더미 전경
〈사진 64〉 신답리 쇠촌 전경
〈사진 65〉 신답리 아우라지 전경
〈사진 66〉 동이리 큰배울 전경
〈사진 67〉 동이리 임진강의 봉바위
〈사진 68〉 노곡 1리 진목동 전경
〈사진 69〉 두지리 뒤기 전경

〈사진 70〉 임진리 인진동 전경
〈사진 71〉 임진리 임진나루 전경
〈사진 72〉 문산 2리 하동 전경
〈사진 73〉 백연리 통일촌 전경
〈사진 74〉 군내출장소 광장의 망향제단
〈사진 75〉 성동리 큰말 전경
〈사진 76〉 영중면 거사 2리 천제사 바위
〈사진 77〉 병풍바위
〈사진 78〉 포천 영북면 산정리 신목과 금줄
〈사진 79〉 관인면 중 3리 노제터
〈사진 80〉 중면 삼곶리 부군굿터
〈사진 81〉 전곡읍 신답리 당집
〈사진 82〉 백학면 노곡 1리 산단제사터
〈사진 83〉 적성면 두지리 산신제터
〈사진 84〉 문산읍 임진리 산신제터
〈사진 85〉 문산읍 문산 2리 도당 정면의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86〉 도당 내부
〈사진 87〉 요풍동 대감
〈사진 88〉 탄현면 성동리 큰말 산신제터
〈사진 89〉 김학순 보살 불당 내부
〈사진 90〉 유옥례씨(김만석씨 부인)댁 현관문의 부적과 북어
〈사진 91〉 민병옥씨댁 대감
〈사진 92〉 군남면 선곡리 이영궁씨댁 대문의 엄나무
〈사진 93〉 김창숙씨댁 성주
〈사진 94〉 김창숙(박태하씨 부인)씨댁 제석
〈사진 95〉 1940년대에 사용한 새우젓독
〈사진 96〉 현재 사용하는 0.5톤 고기잡이 동력선
〈사진 97〉 고기잡이배의 송판 틈새 막음질 재료인 삼나무 껍질
〈사진 98〉 1930년대에 사용한 뭇
〈사진 99〉 1930년대에 사용한 쓰리날
〈사진 100〉 쓰리날의 옆면
〈사진 101〉 1930년대에 사용한 그물빗
〈사진 102〉 자살바위
〈사진 103〉 주람산
〈사진 104〉 철새 청둥오리(장파리)
〈사진 105〉 고랑포 나루에서 본 풍경
〈사진 106〉 김기돌씨
〈사진 107〉 김기돌씨댁 우편함
〈사진 108〉 김기돌씨와 부인 하장순씨
〈사진 109〉 숭어를 보는 김기돌씨
〈사진 110〉 생선을 손질하는 김기돌씨
〈사진 111〉 김기돌씨댁의 가축
〈사진 112〉 김기돌씨의 상점
〈사진 113〉 이형배씨의 식당
〈사진 114〉 이형배씨와 딸
〈사진 115〉 이형배씨
〈사진 116〉 배 한척 있는 풍경사진
〈사진 117〉 이형배씨가 잡은 참게
〈사진 118〉 이형배씨의 식당 표지판
〈사진 119〉 이형배씨의 배
〈사진 120〉 북삼리 느티나무
〈사진 121〉 북삼교
〈사진 122〉 유흥렬씨의 배
〈사진 123〉 게이트볼을 하는 유흥렬씨
〈사진 124〉 둔밭나루
〈사진 125〉 유흥렬씨
〈사진 126〉 북삼교
〈사진 127〉 오토바이를 타는 유흥렬씨
〈사진 128〉 유흥렬씨와 부인 박순복씨
〈사진 129〉 최영선씨
〈사진 130〉 최영선씨 어업허가증
〈사진 131〉 찌낚시
〈사진 132〉 그물을 손질하는 최영선씨
〈사진 133〉 최영선씨의 배
〈사진 134〉 임진나루 입구

그림 목록

● 임진강의 자연환경과 생태

〈그림 1〉 임진강 유역 지형도
〈그림 2〉 임진강 유역 지질도
〈그림 3〉 임진강 유역의 등고선도
〈그림 4〉 임진강 유역 남한부분의 등고선도
〈그림 5〉 한탄강변 용암대지 곡의 형태
〈그림 6〉 철원의 기온과 강수량
〈그림 7〉 철원의 연도별 하루 최대강수량
〈그림 8〉 하계망 패턴
〈그림 9〉 도로옆 배수로에 설치할 이동통로
〈그림 10〉 임진강 유역 관속식물 조사지
〈그림 11〉 임진강 유역의 담수조류 조사지점
〈그림 12〉 경기 북부 임진강 수역에서 식물플랑크톤 조사 정점
〈그림 13〉 경기 북부하천에 있어서 식물 플랑크톤군집의 종조성

● 임진강의 인문환경

〈그림 14〉 임진강 유역의 하계망
〈그림 15〉 임진강 유역의 행정구역(고려말~조선초)
〈그림 16〉 임진강 유역의 행정구역(18세기)
〈그림 17〉 임진강 유역의 행정구역(19세기)
〈그림 18〉 임진강 유역의 행정구역(1914)
〈그림 19〉 이천 廣福洞
〈그림 20〉 임진강 유역의 인구분포(1789)
〈그림 21〉 임진강 유역의 인구분포(1910)
〈그림 22〉 임진강 유역의 인구밀도(1930)
〈그림 23〉 이주 인구의 출신지별 분포(1930)
〈그림 24〉 임진강 유역 취락체계의 변천 (1789~1944)
〈그림 25〉 철원평야
〈그림 26〉 곡물생산면적(1925)
〈그림 27〉 생산지별 곡물생산량(1925)
〈그림 28〉 임진강 유역의 도로(조선후기)
〈그림 29〉 임진강 유역의 도로망(1930)
〈그림 30〉 임진강 유역의 장시(1770 · 1830)
〈그림 31〉 임진강 유역의 장시(1914)
〈그림 32〉 임진강 유역의 장시(1938)
〈그림 33〉 임진강 유역의 지리적 위치
〈그림 34〉 자연제방에 입지한 장마루 · 아랫장마루
〈그림 35〉 임진강 유역의 도진 · 하항취락과 성의 분포

● 임진강유역의 민속문화

〈그림 36〉 하동 산신제의 제물 차림
〈그림 37〉 겨울철 언 강에서 고기잡이를 위해 짠 그물 구조

표 목록

● 임진강의 자연환경과 생태

〈표 1〉 서울의 기후요소(1960~1990)
〈표 2〉 철원의 기후요소(1991~1999)
〈표 3〉 1996년 7월 임진강 유역 지점별 강우량 현황
〈표 4〉 임진강의 지류와 그 특성
〈표 5〉 채집 및 확인된 양서 · 파충류 목록
〈표 6〉 각 조사지역의 조류 목록 및 특이상항
〈표 7〉 임진강 유역의 어류상
〈표 8〉 조사지점 중 파주시 일대의 어류상
〈표 9〉 조사지점 중 연천군 일대의 어류상
〈표 10〉 조사지점 중 포천군 일대의 어류상
〈표 11〉 조사지점 중 철원군 일대의 어류상
〈표 12〉 각 조사 지점의 우점종
〈표 13〉 현지조사 일정
〈표 14〉 조사지역의 곤충상
〈표 15〉 곤충종 목록
〈표 16〉 임진강 유역 일대의 관속식물 목록 비교
〈표 17〉 임진강 유역 관속식물 목록
〈표 18〉 임진강의 이화학적 특성분석
〈표 19〉 임진강 수계 6개 정점별 출현 담수조류
〈표 20〉 경기북부 하천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종별 세포수 (봄철)
〈표 21〉 경기북부 하천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종별 세포수 (여름철)
〈표 22〉 경기북부 하천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종조성
〈표 23〉 경기북부 하천에서 정점별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표 24〉 경기북부 하천에 있어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우점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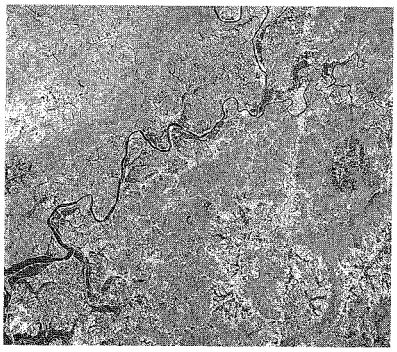
● 임진강의 인문환경

〈표 25〉 임진강 유역의 주요하천
〈표 26〉 토성의 분포
〈표 27〉 임진강 유역의 유명 동족촌(1930~1933)
〈표 28〉 임진강 유역의 경지분포(15세기)
〈표 29〉 임진강 유역의 전답분포(18세기 말)
〈표 30〉 임진강 유역의 농업현황(1918)
〈표 31〉 임진강 유역의 수리조합
〈표 32〉 임진강 유역의 역원
〈표 33〉 임진강 유역의 교량과 도진
〈표 34〉 임진강 유역내 주요시장의 출시 품목(1830)
〈표 35〉 임진강 유역의 지력별 상업인구 비교(1930)
〈표 36〉 임진강 수위표
〈표 37〉 임진강 내륙수로의 운영(1915)
〈표 38〉 임진강 유역 역참조직
〈표 39〉 임진강의 구간별 명칭
〈표 40〉 임진강 유역의 장시
〈표 41〉 임진강 유역의 시장권
〈표 42〉 임진강 유역 각 군현 주요시장의 거래물품
〈표 43〉 임진강 · 한탄강 우역 각 군현의 특산물
〈표 44〉 임진강 유역 각 군의 포사세 추이
〈표 45〉 일제시대 임진강 유역의 시장 개설상황
〈표 46〉 임진강 유역 읍취락의 위치
〈표 47〉 임진강 유역 읍취락의 공간구조

〈표 48〉 임진강 유역의 역과 그 위치
〈표 49〉 주막촌 지명의 분포
〈표 50〉 임진강 유역의 집성촌

● 임진강유역의 민속문화

〈표 51〉 상류지역 주요현황
〈표 52〉 중류지역 주요현황
〈표 53〉 하류지역 주요현황
〈표 54〉 용정 2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55〉 거사 2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현황
(1999.12.31. 현재)
〈표 56〉 신정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57〉 중 3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58〉 삼곶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59〉 선곡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0〉 신답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1〉 동이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2〉 노곡 1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3〉 한국전쟁 이전 고랑포리 직업별 호수
〈표 64〉 자작리 및 원당 3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5〉 두지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6〉 임진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7〉 문산 2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8〉 백연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69〉 성동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
(1999.12.31 현재)
〈표 70〉 임진강의 선단별 현황(2000. 5 현재)



제1장 조사개요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추진경위

근래 들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은 '세계화'라는 도도한 물결 속에 휩쓸리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명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손쉬운 것은 보편타당한 원리나 가치를 표방하기 보다 오히려 지역적인 특색과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것임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세계화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에 대한 밀도있는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즉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 중에서도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정리하기 위한 지표조사 사업을 학술기관에 의뢰하여 2000년 말 현재 17개 시 · 군에 대한 지표조사결과가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면적인 학술조사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은 공장이나 아파트, 축사 등을 신축하여 문화유적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근래 들어 나타나는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역시 문화유산 훼손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들어 하천유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그 모습을 미쳐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사라진 유적이 허다한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우리 박물관에서는 우리 도의 문화정체성을 규명하고 그간 실시된 지표조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유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기로 기획하였다. 사실 그동안 실시된 많은 지표 및 발굴조사는 대부분 인위적인 행적구역별 조사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경기도는 산악과 하천, 해안지역이 모두 공존하고 있

으며, 우리 선조들은 각기 이들 지역에 의지하여 나름대로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면서 생활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한강을 비롯하여 임진강, 안성천 등 대하천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문화중심지로 오래 전부터 자리해왔기 때문에 하천유역의 문화상을 파악하는 것은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천은 인간의 활동에 제약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자연환경으로서 농경에 필수적인 충적층을 형성하고, 관개수와 식수를 공급하며, 풍부한 식량자원을 제공한다. 하천은 배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범람시에는 부유하중의 형태로 운반된 물질의 일부를 하천 양안에 퇴적시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건설적인 역할도 담당한다. 하천에 의해 형성된 계곡은 산업시대에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흔히 하천유역권의 규모는 정치력과 경제력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한국사에서 주요 정치세력의 출현을 하천유역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기 실시된 조사자료를 기초로 도내 해당 하천유역별 문화권 파악 및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도의 문화정체성을 규명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기획, 실시하게 된 것이다. 즉 이번 종합학술조사는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의 범주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도내를 흐르는 주요 하천은 경기북부를 아우르는 임진강을 비롯하여 경기동북부와 중부를 관통하는 한강과 경기남부 평야지대를 흐르는 안성천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학술조사는 3개년으로 나눠 매년 1개 하천유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였다. 우선 제1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비교적 지표조사 성과가 빈약하고 민간인통제구역이 있어 유적에 대한 이해가 넓지 않은 경기북부지역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년도에는 한강유역, 제3차년도에는 안성천의 순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는 크게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민속문화, 각종 문화유적 등 4개의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인 조사분야는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년도 조사지역인 임진강유역은 한반도의 중부와 북부지역의 점이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5년 광복 이전의 행정구역에 따르면 연천군 · 철원군 전체와 양주, 포천, 파주, 장단, 개성, 금천, 곡산, 회양, 김화, 평강, 이천, 덕원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14개군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유역면적 8117.5㎢의 대하천유역으로 함경남도 덕원군 풍상면 두류산에서 발원한 임진강 본류와 크고 작은 많은 지류에 의해 관개 · 배수된다. 임진강유역은 규모로 볼 때 한반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강이다.

조사지역의 범위는 임진강과 이 강으로 흘러드는 주요 지류인 한탄강, 차탄천, 영평천, 포천천, 사미천, 문산천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와 포천군, 연천군 일대의 임진강유역으로 계획되었으나 유적의 특성상 이 범주에서 벗어난 유적도 있다.

현지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상 제1차 조사는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기간은 3월 20일부터 시작하여 5월 12일까지이며, 제2차 현지조사는 5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마쳤다. 이어 11월에는 1 · 2차 조사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한 달간 원고작성을 마치고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본 조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 조사단장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김용철(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사총괄 : 최근성(경기도박물관 민속미술부장)

○ 자연환경 분야

• 조사위원

김두일(육군사관학교 교수, 하천환경)
윤일병(고려대학교 교수, 동물생태 전반)
변화근(한국자연보전협회 연구원, 동물-어류)
심재한(한국자연보전협회 연구원, 동물-조류)
김정규(한국자연보전협회 연구원, 동물-곤충 및 기타)
이인규(서울대학교 교수, 식물생태 전반)

○ 인문환경 분야

• 조사위원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인문지리)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교통로 및 시장)
정치영(고려대학교 강사, 촌락)

• 조사원

최근성(경기도박물관 민속미술부장, 집성촌)

○ 민속문화 분야

• 조사원

김지욱(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준권(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홍원의(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문화유적 분야

• 조사위원

이 재(육군사관학교 교수, 관방유적)
심광주(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관방유적)
김주홍(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학예연구사, 봉수)
장남원(이화여대박물관 연구원, 도요지)
장동철(서울시립대 강사, 도요지)

- 조사원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고고유적)
  이소희(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고고유적)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관방유적)
  심영신(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불교미술 및 묘역석물)
  장덕호(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선현묘역 및 금석문)
  곽창호(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선현묘역 및 금석문)
  양상훈(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선현묘역 및 금석문)
  이경미(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지 및 전통가옥)

현장조사는 유적별로 각 분야별 조사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의 진행과정은 이경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발간에 따른 원고의 수합과 교정 · 교열 등 실무작업은 장덕호가 담당하였다. 화보의 사진촬영은 안장헌(사진작가)이 맡아주었고, 유물의 촬영은 정종원(사진작가)이 담당하였으며, 보고서의 교정과 교열은 김지희(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가 도움을 주었다.

본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파주시와 연천군 북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의 출입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육군사관학교의 이재 교수님과 김기훈 박물관장님, 그리고 민통선 출입을 위해 도움을 주신 육군 제1사단 · 25사단 · 28사단 · 5사단의 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조사단의 현장 수행을 위해 애써 주신 국군장병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민통선내의 현장조사를 함께 수행해주신 (주)대주지리정보의 고백규 상무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 각 마을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도 친절한 현장 안내자와 제보자가 되어 주셨다. 보고서가 간행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 조사방법

1) 자연환경과 생태 분야

자연환경분야는 임진강유역의 지형과 지질, 동물상, 식물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연환경분야 중 동물상 조사는 임진강유역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파충류, 조류, 어류와 곤충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식물상은 관속식물과 담수조류, 식물플랑크톤으로 나누어 현지조사와 더불어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양서류와 파충류의 경우 채집이나 확인 등의 직접적 방법과 청음을 통한 간접적 방법을 이용하여 종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조류의 경우 쌍안경을 이용한 관찰과 청음에 의한 확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어

류는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 일대의 하천에 34개 지점을 설정하여 각종 그물을 이용하여 채집 후 실험실에서 생태구분 등을 실시하였다. 곤충은 파주시와 연천군, 양주군, 포천군 일대에서 포충망을 이용하여 관찰포획 및 쓸어잡기를 실시하여 표본을 채집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식물상의 조사연구는 파주시와 연천군, 포천군 일대 하천유역의 14개 정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을 채집하고 실험실에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임진강 유역의 생태계 조사의 목적은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타지역과의 생태비교는 물론 향후 생태보호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 조사를 계획하였다.

2) 인문환경 분야

인문환경에서는 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연조건과 임진강유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삶을 문헌을 통해 밝히려 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택리지』 등의 지리서에서 임진강유역의 자료를 찾고, 이를 고증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장의 형성과 발달, 집성촌, 촌락의 형성 등을 고찰하려 하였다. 또한 촌락이나 집성촌의 경우는 현지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촌로와의 대담을 통해 마을의 유래와 변천, 성씨의 이주와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3) 민속문화 분야

이번 조사에서 민속분야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닌 지리적 ·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문화적 특징과 하천관련 민속을 파악하고 상 · 중 · 하류별 민속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사마을도 임진강과 한탄강의 본류에 접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의 22개 읍면에 한정하였으며, 22개 읍면을 상류와 중류, 하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본조사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22개 읍면에 속한 행정리의 이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신앙을 중심으로 민속의 전승현황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화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15개 마을을 표본조사마을로 선정하였다. 유역별로는 상류지역 5개 마을, 중류지역 6개 마을, 하류지역 4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표본조사마을 선정은 첫째, 이번 조사가 하천민속과 각 유역별 민속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에 강에 접한 마을을 조사마을로 선정하고, 둘째, 현재까지 마을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조사마을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강의 양안에서 마을을 고르게 선정하였다.

표본조사마을에 대한 조사는 일차적으로 민속신앙과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타 분야의 경우엔 표본조사마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민속지적 현재는 마을생활에서 하천이 차지하던 중요성이 컸던 한국전쟁 이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4) 문화유적 분야

① 고고유적 분야

고고유적의 조사 지역은 크게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임진강 · 한탄강유역과 더불어 여기에 유입되는 소지류인 차탄천, 영평천, 포천천유역으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방법은 우선 시군지,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유적의 목록을 작성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지조사는 1/5,000 및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선별한 지점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유적이 있을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천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하천 좌우 1㎞ 지점까지 조사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으나 실제 조사 지역의 지형에 따라 조사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조사는 기존에 알려진 유적에 대한 재확인 작업과 더불어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 그리고 유적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새로운 유적에 대한 조사는 하천 주변의 취락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기타 분묘유적, 건물지, 유물산포지 등을 조사하였다.

② 관방유적 분야

관방유적의 조사는 현장조사에 앞서 『삼국사기』·『고려사』의 사료와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 등과 조선시대에 간행된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근래 학술조사보고서 등을 정리하여 조사지역에 대한 전체 유적목록을 작성하였다. 현장조사는 현재 지표상에 노출된 성벽이나 건물지의 흔적을 찾고 유물채집에 주안점을 두었다.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은 둘레를 계측하였으며 잔존성벽에 대한 조사를 하여 성곽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축조방법을 살펴보았다. 채집된 유물은 탑본과 도면실측을 하였으며 분석을 통하여 성곽 사용시기를 추정하는데 참조하였다. 확인된 유적은 지형도에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유적에 이르는 정확한 행로를 내용에 서술하였다. 이후 전체 유적에 대해서 자연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각 유적간의 분포현황과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관방체계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③ 불교유적 분야

임진강 유역의 불교유적 가운데 사찰 · 사지에 남아있는 불상을 비롯한 각종 석조물과 불교관련 동산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연천, 양주, 파주, 의정부, 포천 등지의 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 분야에 대한 불적조사가 고고나 민속 등 다른 분야에서는 조사하지 않은 내륙지역을 조사범위에 넣게 된 것은 임진강의 근접지에 분포하는 불교미술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강안을 끼고 형성된 지역적인 특성이 불교 신앙이나 그 미술에 특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우선 옛 문헌과 근대의 조사연구를 통해 보고된 자료들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이미 알려진 유적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유적을 찾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에서 참고했던 문헌으로는 『伽藍考』와 『梵宇考』, 『韓國寺刹全書』(權相老, 1979) 및 『畿內寺院誌』(경기도, 1988), 『京畿道佛蹟資料集』(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재대관 도지정편』(경기도, 1998), 『문화유적총람 cd롬』(문화재관리국, 1998)이나 연구 및 조사보고, 그리고 각 박물관 등에서

발간한 지표조사보고서와 해당 시군 및 문화원에서 발간한 군지 및 시지나 향토사료집 등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조사 범위가 넓은 관계로 새로운 유적을 찾기 보다는 이미 알려진 유적에 대하여 그 현상을 꼼꼼하게 보고하는 쪽에 조사의 중점을 두었다.

서술방식은 유적의 현재 위치와 사찰 및 사지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유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다. 우선 유물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각 유물이 보여주는 특징을 토대로 제작시기를 추정하였다. 특히 불화의 설명에는 각 불화들이 도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나서 화면구성, 필선, 색조에 대한 특징을 밝히면서 제작연대를 추정하였고 다행히 화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작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몇몇 작품은 불화를 그렸던 금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되도록 그 현상을 자세히 서술하여 불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유물에 대한 설명은 주로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에 한하였으나 불화의 경우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세기 초반의 작품도 서술목록에 포함시켰다.

④ 도요지 조사 분야

도요지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임진강유역인 연천군 · 포천군 · 파주시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도요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민통선내 지역에서는 도요지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민통선내에서는 도요지가 존재할 수 있는 지형인 산지의 대부분이 지뢰매설지역이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또 민통선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많은 지역이 군부대의 사격장, 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 많아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 지역의 도요지에 대한 조사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지표조사를 통하여 간행된 보고서에 기재된 유적지를 중심으로 유적지를 현지조사하고, 요지의 현상과 유물을 채집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조사된 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고려시대의 도기가마터와 조선시대의 백자 · 분청사기 · 옹기가마터로 파악되었고, 도자기의 품질도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도요지가 대체로 민수용의 가마터가 주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간의 조사가 유물의 제작시기와 유물의 특징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 조사에서는 요지의 위치 및 현상, 유물의 특징, 유물의 제작시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가마터의 보존상태와 주변환경을 자세하게 조사하고자 하였다.

⑤ 선현묘역, 정려 · 태봉, 금석문 분야

선현묘역, 정려 · 태봉, 금석문 분야의 조사는 먼저 이미 조사된 문헌을 중심으로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1999년도 말까지 간행된 시군지,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향토지 등을 모두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임진강과 한탄강, 차탄천, 영평천 유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파주시의 경우는 한강의 지류지역인 금촌읍과 법원읍, 교하면과 조리면, 광탄면 등 5개 읍면지역을 제외한 9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천군은 연천읍 등 10개 읍면 전지역을 조사하였으며, 포천군은 영평천유역인 관인면, 영중면, 창수면 등 3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할 유적의 선정은 선현묘역의 경우 조성 당시의 석물 등이 남아 있거나, 묘비, 묘표 등이 보존되어

있어 피장자의 신분이 확인되는 묘, 석물이나 묘표 등은 새로 조성하였으나 역사적으로 중요 인물의 경우 조사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묘역에 조성된 문인석이나 무인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금석문은 주로 묘역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일제강점기까지의 기록이면 조사하였고, 단 최근에 비를 새로 건립하면서 이전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경우는 조사에 포함하였다. 충신 · 효열유적은 보호각의 건립연대와는 관계없이 모든 유적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강안지역 즉 하천유역이라는 환경 속에서 유적은 어떤 특수성을 지니는가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⑥ 전통가옥 · 전통건조물 분야

전통가옥은 하천 주변에 소재한 마을을 방문하여 한국전쟁 이전에 지어진 가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가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지역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에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는 거주자를 통한 탐문, 현상 촬영, 평면도 위주의 간이실측을 실시하여 간략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전통건조물에 대한 조사는 주로 향교나 서원, 정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문헌조사시 본 조사지역의 전통건조물은 대개 한국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두 소실되어 최근에 복원한 것으로 파악되어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 조사성과

경기도는 북쪽에서부터 임진강과 한강, 그리고 안성천 등의 3대하천이 크고 작은 지류를 아우르고 있으며, 이들 3대 하천은 경기도가 한반도에서 정치 · 경제 · 사회 · 군사 ·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 하천유역의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경기도 문화의 특징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또 이곳을 통해 그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천을 이용하고 어떠한 혜택을 입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 지역인 임진강은 자연적으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점이지대로서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지역이었으며, 현재는 남과 북의 경계지점을 이루는 지역으로 정치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이지만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사람의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간 이 지역은 학술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지역이기도 하다.

금번에 실시된 임진강유역 종합학술조사는 자연환경분야, 인문환경분야, 민속문화분야, 문화유산분야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조사는 대체로 파주시 · 양평군 · 포천군 등의 행정구역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학술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실시되었으나 이러한 행정구역별 조사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일별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으로 본 조사는 문화권역별 위주의 조사를 계획하게 하였고 그 단초로서 경기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하천문화의 특

징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조사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분야의 조사는 이 지역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으므로 자연환경생태가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물상의 조사 중 어류의 경우 임진강과 한탄강에서 천연기념물인 어름치가 소수 발견되었고, 환경부 지정보호야생동물에 속하는 묵납자루와 두우쟁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양서 · 파충류는 멸종위기 종인 구렁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보호야생동물인 남생이와 맹꽁이를 발견하였다. 특히 맹꽁이가 파주시 군내면 백련리의 통일촌 일대 저습지에서 집단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라 하겠다. 조류는 파주 군내면에서 천연기념물인 황새와 원앙, 큰고니, 독수리, 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 등 5종의 희귀한 맹금류가 발견되었으나, 1970년대 이 지역이 철새들의 대규모 도래지였으나 현재는 그 위치를 점차 상실해 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대책이 요망된다.

식물상의 조사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이나 보호식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강이나 금강 등 타 하천에 비해 그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관속식물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그 보존이 긴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문환경분야에서는 임진강은 한반도의 남북을 가르는 점이지대였으며 임진강유역을 따라 추가령 구조곡의 발달로 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오래 전부터 삶의 터전으로서 수운의 발달과 그로 인한 시장과 촌락의 형성이 활발하였음이 고찰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남북의 분단을 간직한 선으로서 정치적 · 군사적 긴장감으로 인간의 삶을 거부하는 곳으로 변하였다. 최근들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로 점차 옛 명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속문화 분야의 조사는 임진강유역의 22개 표본마을을 신앙과 세시풍속, 놀이, 생활풍습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지역 대부분이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이 살 수 없었던 지역이었고, 이후 점차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이곳을 고향으로 대대로 거주한 토박이가 많지 않고 외지인들의 수가 많은 점 등이 전통민속문화의 부재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파주의 문산리 등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산신제 등은 그 전통의 맥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금번 조사에서는 임진강에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체로 부모의 직업을 물려 받았거나, 젊은 시절부터 이 일에 종사한 사람들이지만 대체로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예전을 회상하여 강이 오염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고, 군사적 목적에 의한 어로생활의 규제가 해제되어 예전과 같은 어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문화유산의 조사는 첫째 고고유적 분야로 임진강 · 한탄강 · 영평천유역에서 새롭게 발견한 유적은 구석기시대 유적 6개소, 신석기시대 유적 1개소, 청동기시대 유적 9개소, 원삼국시대 유적 22개소, 삼국시대 유적 2개소, 조선시대 건물지 및 유적 5개소 등 총 45개소이다.

우선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파주 노상리 · 장산리 · 동파리 · 가월리, 연천 원당리 등 6개소에서 새롭게 유적을 발견하였다. 임진강변, 특히 곡류하는 강안의 충적대지에 구석기유적이 형성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노상리와 같이 비교적 내륙에 속하는 지역에서도 석기를 수습하여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경기

북부 전역에 골고루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천 고릉리유적의 발견으로 신석기시대 유적을 1개소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고릉리에서는 다량의 빗살무늬토기 및 석기 등을 채집하였는데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근 경기도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연천 삼거리유적의 토기양상과 매우 흡사하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전곡 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후기 및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마을유적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모두 9개소를 새로 찾았는데 파주 하포리 고인돌을 비롯하여 석촉, 반월형석도, 무문토기 등을 채집한 유물산포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임진강 · 한탄강 유역에는 본격적인 조사가 있기 전부터 구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선사시대의 유적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22개소에 이르는 원삼국시대 유적을 새롭게 확인한 데 있다. 이미 조사된 파주 주월리, 연천 학곡리 주변 외에도 연천 구미리, 동이리, 우정리, 북삼리 등은 입지조건이나 다량의 채집유물로 미루어 대규모의 마을유적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평천 유역과 포천천 유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유적은 1개소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조사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유적의 분포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단국대학교박물관에서 1998년에 발견한 자작리유적에서는 다량의 중도식무문토기편 및 타날문토기편을 채집하여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방유적은 파주시 · 연천군 · 포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총 49개의 유적을 조사하였다. 이를 유적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곽 24개소, 보루 13개소, 돈대 1개소, 진 2개소, 봉수 10개소이며, 지역별로는 파주시가성 10개소, 보루 7개소, 진 2개소, 봉수 5개소를 가장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연천군에는 성곽 6개소, 보루 6개소, 돈대 1개소이며, 포천군에는 성곽 7개소, 봉수 5개소가 조사되었다. 금번 조사지역이 주로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유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진강 유역은 더 많은 관방유적이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 임진강 유역이 고대로부터 역사 ·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유적들은 대체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이전의 유적들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쟁패가 벌어지고 있었던 각종 사서의 기록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포천군에서 조사된 궁예의 전설이 전해지는 운악산성과 보개산성은 앞으로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전된 궁예의 역사를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임진강 유역의 관방유적은 군사시설과 최근의 통제 완화로 많은 유적들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원형이 변경되고 있어 보존의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교유적의 조사에서 임진강유역의 사찰과 사지 등에 전하는 불상은 마애불을 포함한 고려시대 석불 8점과 조선시대 석불 1점, 고려시대 부도 2점과 부도비 2점, 조선시대 부도 8점과 부도군 1곳, 부도비 2점, 고려시대 및 고려말 조선초 석탑 각 1점, 고려시대 석등 2점과 조선시대 석등 1점, 그리고 고려시대의 석부재 및 조선시대 당간지주와 고려시대 맷돌, 조선시대 동종 1점도 조사하였다. 이외에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불화 12점도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이미 알려진 유적들에 대한 확인조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각 유적 · 유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려 노력하였으며 특히 이전의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불화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보고 하였던 점은 큰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도요지 조사에서는 총 34개소의 요지가 조사되었으나, 이 중 9개소는 군부대 시설물 · 사방공사 · 골프장 · 어린이집 등이 세워지면서 완전히 파괴되어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천군의 연천읍, 신서면, 전곡읍, 청산면 일대에서 23개소를 조사하였고, 포천군에서는 창수면, 일동면, 이동면 일대에서 5개소를, 파주시에서는 적성면에서만 6개소를 조사하였다.

금번조사의 성과는 연천읍 도신리 가마터에서 13~14세기의 많은 도기를 채집하였고, 특히 고려시대의 도기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도기매병을 채집할 수 있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채집한 유물들은 고려시대인 13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채집되어 그 제작시기의 폭이 길었으며, 특히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어 굽는 17~19세기의 백자 · 옹기의 제작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선현묘역 · 금석문 · 정려 및 태봉 · 태실의 조사는 총 181개소로 선현묘역은 145개소, 금석문은 25개소, 정려는 6개소, 태봉 · 태실은 5개소가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통선지역에서 고려말 조선초의

〈임진강유역의 문화유적〉

지 역 / 종류별	계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의정부시	양주군
계	474	175	205	74	6	14
선사고고유적	13	4	4	5		
선사분묘	14	1	12	1		
역사고고유적	4	1	2	1		
고분	7		7			
유물산포지	68	15	40	13		
성곽	40	19	14	7		
봉수	10	5		5		
사지	24	8	13	3		
불교유적	46	16	3	8	6	13
도요지	35	6	24	5		
분묘	1	1				
선현묘역	145	71	62	12		
금석문	25	7	10	8		
정려	6	3	3			
태봉 · 태실	5	1	3	1		
민속자료	1					1
전통가옥	19	11	5	3		
전통건조물	11	6	3	2		

선현묘역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아직 개발로부터 보호가 되고 있는 까닭에 비교적 조성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묘역이 많이 조사되어 이미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조선초기의 사대부 묘역의 실상을 다소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수확이라 하겠다. 그러나 민통선지역도 묘역의 변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음은 서문중의 묘에서 확인되었듯이 조사단의 1차 조사시 존재하였던 문인석과 무인석이 불과 6개월후에 실시한 2차 조사시에는 새롭게 교체된 것은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호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선현묘역 조사에서는 그간 도외시 되었던 문인석과 무인석에 대한 조사가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 묘역 석물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 민통선 일부지역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조각수법, 형태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전통가옥 및 건조물 조사는 금번 조사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본 조사지역의 대부분이 한국전쟁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대부분의 가옥들은 한국전쟁이후에 새롭게 지은 집들이며, 전통건조물 또한 전쟁 중에 모두 파괴되어 이후 새롭게 복원된 것들이었다. 가옥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에 지어진 경우라도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생각되는 가옥들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였고, 직접 집을 지은 목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임진강유역의 종합학술조사는 위의 성과와 같이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본 조사는 이 지역이 아직까지 군사보호시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전체지역을 포함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조사단이 조사를 수행하면서 항상 느낄 수 있었던 점은 현재의 상태로만이라도 이 지역이 보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특히 민통선내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경우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온 미개발지역의 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민통선내에 많은 영농인들의 출입과 다양한 이유로 출입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보존관리의 시급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임진강의 범람은 강변을 따라 조성되었을 선사유적을 모두 파괴하고 있으며, 또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공사 역시 그러하다. 여하튼 본 조사로 인해 그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은 조사성과의 결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리라 보여진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2장 임진강의 자연환경과 생태

1절 임진강 유역의 지형과 지질

2절 임진강 유역의 동물상

3절 임진강 유역의 식물상

제1절 임진강 유역의 지형과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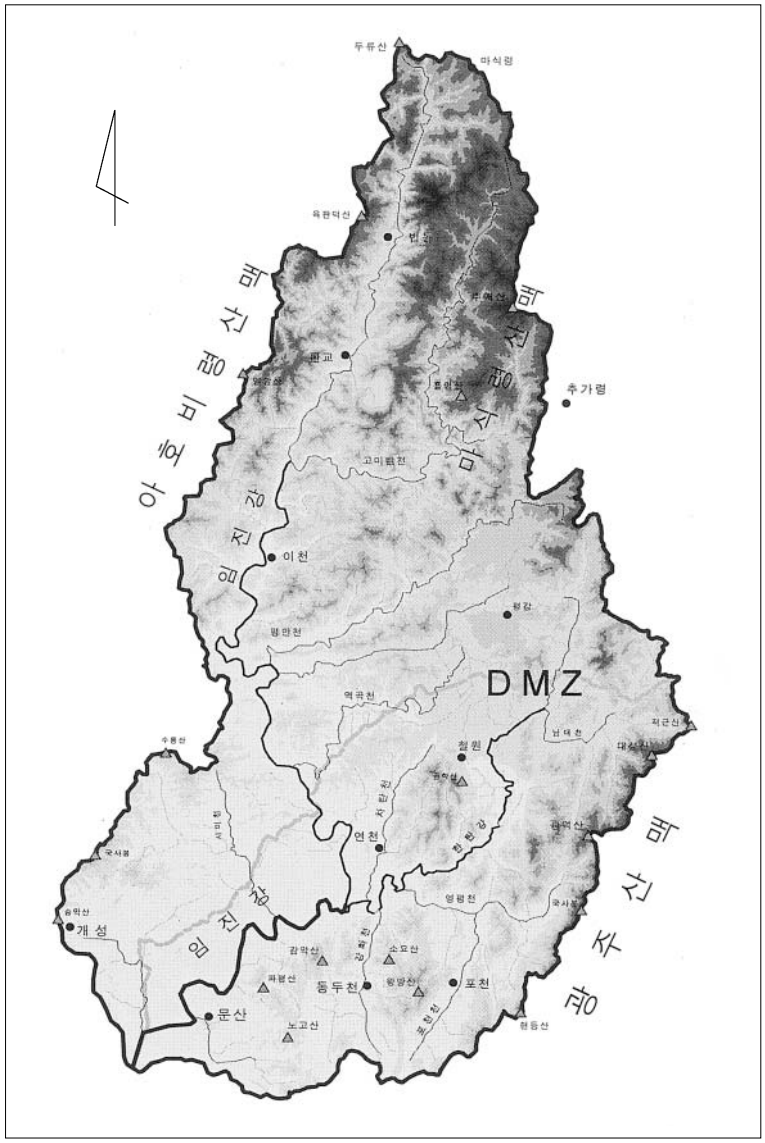
1. 임진강 유역의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하나는 자연환경을 자연 그 자체 즉 무생물적인 대상으로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생활과 문화의 토대로서, 즉 인간이 거주하는 무대로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관점이 적절히 조화되어 상호보완적 입장을 이룰 때 자연환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연 자체의 형상을 조사하고 자세히 기술하는 첫 번째 관점에 중점을 두며, 두 번째의 관점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자연환경이 인간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도 이해하여야 한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자연환경도 그 쓰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임진강 유역은 자연환경 그 자체로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서울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독특한 쓰임새를 더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근세까지는 북방 대륙과의 교류가 많았고 임진강 유역은 이러한 교류의 교통로 상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강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진강은 마식령산맥의 頭流山(1,324m)에서 시작한 후 남서방향으로 254㎞를 흘러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남동부는 광주산맥, 북서부는 아호비령산맥, 북동부는 마식령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를 유역으로 하며 면

* 김두일(육군사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그림 1〉 임진강 유역 지형도

적은 8,118㎢나 된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는 임진강 유역에는 경기도의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과 강원도의 철원군 등 2시 4군이 있다. 북한쪽에는 개성직할시의 개성시와 장풍군, 판문군의 일부, 강원도의 철원, 김화, 평강, 이천, 세초, 판교, 법동군 등 1시 9군이 속한다.

임진강은 건너기 어려운 강이 되었다. 원래도 강이란 배가 없이는 건너기 어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임진강은 특히 그렇다.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강 건너 북쪽은 북한 땅이거나 대부분이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사람도 얼마되지 않고 안보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 건너 본 사람도 적고 건너기도 어려운 강이 되었다. 최근에는 민통선 지역의 축소와 출입제한의 완화, 판문점 방문과 통일에의 열기 등으로 거주민의 수도 증가하고 관광 목적 등으로 건너는 사람도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건너본 사람은 얼마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강가의 수직단애로 인해서 아무데서나 강을 건널 수 없다는 점이다. 문산 이하의 하류로는 용암이 흐른 흔적이 없지만 그 상류로는 玄武岩의 柱狀節理에 의한 수직절벽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어서 길이 아닌 곳에서는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임진강은 그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강이 되었다.

임진강 유역의 자연환경은 일반적인 구분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질과 지형이고 둘째는 기상과 기후이며 마지막은 하천과 수계이다. 지질과 지형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대지이며 생명의 모체인 땅을 이룬다. 그 땅으로부터 우리의 양식이 나오고 그곳에 우리 삶의 터인 주거지가 만들어진다. 기상과 기후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이고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다. 하천과 수계는 우리 생명체가 마시는 물의 공급원이다. 이들 자연환경의 각 요소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가능하게 하고

안락하게 한다. 여기서도 이들 세 부분이 각각 별개로 조사되었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기술되었다.

2. 지질과 지형

1) 서 론

임진강 유역에 대한 지질과 지형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질 및 지형조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가 있어야 하는 데 안보상의 이유로 인하여 상세한 조사가 오랫동안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다. 조사가 된다고 하여도 강 유역의 많은 부분이 휴전선에 걸쳐 있거나 북한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으며 조사된 자료도 절반의 지역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만이 완전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철원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지역은 지질구조적으로 특이한 추가령곡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원지역은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단편적인 자료들만이 존재하는, 절반만이 이해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간의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된 자료들을 보완한 후 임진강 유역의 관점에서 새로이 설명하였다.

지질과 지형편은 지질, 지질구조, 지형 그리고 용암대지의 4부분으로 나누었다. 광의로 보면 지질과 지형편은 전자의 두 부분을 지질, 후자의 두 부분은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중요성 때문에 각각 별도의 부분으로 기술하였다. 지질에서는 지체구조와 암석이 다루어졌다. 암석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지형과 토양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된다. 지질구조는 이 지역에서 용암대지와 더불어 특징적 지형을 형성하는 한탄강 유역의 추가령곡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지형부분에서는 하천의 유수에 의한 침식에 중점을 두고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 변성암 지대에서 형성된 산지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용암분출에 의해서 형성된 용암대지는 그 다음에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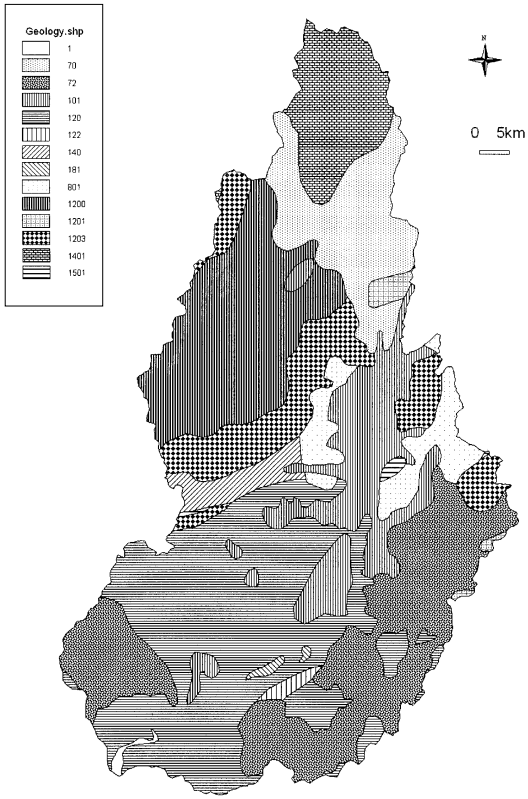
2) 지 질

지질에 관한 부분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분되어 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암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암석은 우리가 固體의 지구로 분류하는 부분으로서,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 뼈에 해당한다. 골격을 이루는 기본은 이러한 뼈대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질구조는 뼈대의 구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질구조에 따라서 지형의 발달도 달라지는데 임진강유역은 이러한 지질구조의 영향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암석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암석은 지질의 이해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암석

중에서 풍화와 침식에 강한 곳은 남아서 산이 되고 약한 곳은 깍이어서 평지나 계곡이 된다. 암석으로부터 풍화된 물질이 토양이고 토양은 농경의 기초가 된다. 구석기나 신석기시대란 말 그대로 생활의 도구로서 석기를 사용하던 시대이다. 석재는 우리 주변의 여러 곳에서 사용된다. 집을 짓기 위한 건축의 재료로도 쓰이고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한 무덤의 조형물에도 사용된다. 암석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임진강 유역의 지질분포는 복잡하다(그림 2 참조). 이 지역은 地體構造的으로는, 상류의 일부에 해당하는 평안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京畿陸塊에 속한다. 경기육괴는 대단히 오래된 육지로서, 우리나라의 중부인 경기도와 충청남도 서부 및 강원도 중북부에 걸쳐 분포한다. 이에 반해 平安盆地는 퇴적층으로서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경기육괴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친 지각변동의 영향을 받아서 복잡한 지질 및 지질구조의 양상을 띄고 있다. 선캠브리아기의 층서에 대해서는 최근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임진강 유역에는 基底를 이루는 선캠브리아기(5억 7천 만 년 이전)의 변성퇴적암류가 주를 이루는 경기 변성암 복합체가 넓게 분포하지만 화성암과 퇴적암도 함께 나타난다.[1)]



1:화강암류(시대 미상), 70:화강암 및 섬록암류, 72:대보화강암류, 101:현무암류, 120:경기 기저 변성암 복합체, 122:연천층군, 140:양덕통, 181:하부 남포층군, 801:불국사 화강암류, 1200:기저 변성암 복합체, 1201:마천령층군, 1203:상원층군, 1401:하부 대석회암층, 1501:상부 대석회암층. 출처:한국동력자원연구소, 대한지질도, 1981.

〈그림 2〉 임진강 유역 지질도

변성암으로는 경기육괴의 바탕을 이루는 경기 변성암 복합체(metamorphic complex) 외에도 연천층군, 상원층군, 마천령층군 등의 변성암 지층이 분포한다(그림 2 참조). 경기 변성암 복합체는 매우 복잡한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으로서 변성도가 높은 호상 편마암과 화강암질 편마암, 흑운모 편암, 규암 등이 분포한다. 변성암은 변성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압축되었기 때문에 입자들이 작고 단단하다. 따라서 풍화와 침식에 강하여 높고 험한 산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변성암이 풍화되면 진흙 크기의 입자가 많은 토양이 된다.

파주의 감악산과 동두천의 소요산은 대표적인 변성암 산지이다. 紺嶽山(675m)은 임진강 하류 부분에서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소하천들과 양주를 중심으로 하는 강화천의 분수계를 이루며 파주시 관내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정상 부근의

1) 장재훈, 「경기지역의 위치와 지형적 환경」,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5~75쪽.

능선에는 침식에 강한 암석들이 노출되어 한쪽은 암벽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쪽은 식생으로 덮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逍遙山(535m) 일대도 변성도가 심하고 풍화에 강한 규암이 많아서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다.

임진강 유역에 나타나는 화성암의 주요 종류는 화강암과 현무암이다. 이들 화성암은 유역의 동쪽 경계부인 한탄강 유역을 따라서 주로 분포한다. 화강암 중에서는 대보화강암이 가장 넓게 분포한다. 대보화강암은 중생대 쥬라기(1억 4천 4백 만 년 전 ~ 2억 8백 만 년 전)에 일어난 대보조산운동에 의해서 지하에 관입된 마그마가 식은 후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다. 이들 대보화강암은 오랜 기간에 걸친 풍화를 받고 차별침식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강한 곳은 산지를 형성하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평지를 형성하였다. 대보화강암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의정부와 양주에서 포천을 거쳐서 김화에 이르는 지역으로 추가령곡의 동측에 해당한다. 그 외에 대보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으로는 북한의 개성 일대와 이천군과 안변군의 경계 지역이다. 불국사 화강암은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6천 6백 만 년 전 ~ 1억 4천 4백 만 년 전)에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으로서, 평강-철원 일대에 분포하는 현무암의 주변부를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화강암은 규산염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조건에서는 쉽게 풍화된다. 대보화강암이 분포하는 양주와 포천 일대는 넓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풍화에 약하기 때문에 화강암 지역에서는 변성암 지역에서보다 일반적으로 풍화층이 깊은 것이 특색이다. 화강암의 구성광물의 하나인 석영입자 때문에 화강암이 풍화하면 모래가 많은 토양이 된다. 반면 화강암 중에서도 풍화와 침식에 강한 부분은 남아서, 돔(dome) 형태의 절경을 만들어 낸다.

임진강 유역에 있는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용암으로 흘러 내리면서 식어서 된 암석이다. 검은 색이며 분출시 팽창으로 인하여 공기구멍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원지방에서는 곰보돌이라고도 불린다.[2] 현무암은 연천, 철원 및 평강으로 이어지는 추가령곡을 따라서 분포하며 분출한 용암이 낮은 곳을 메우면서 흘렀기 때문에 한탄강과 임진강 주변의 평지에도 현무암이 분포한다. 중부 내륙지방에서 최대의 평야인 철원평야, 전곡 일대의 평지들은 이렇게 하여서 형성된 것이다. 현무암은 용암이 지표에 분출하면서 갑자기 식어서 결정이 형성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구성광물의 입자 크기가 매우 작으며, 따라서 현무암이 풍화되면 진흙 성분이 많은 토양이 된다. 용암은 식을 때 표면부터 식으면서 주상절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주상절리는 절리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을 따라서 쉽게 풍화와 침식을 받는다. 주상절리면을 따라서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수직단애는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이다.

퇴적암으로는 현재 북한에 있는 임진강 최상류의 평안분지에서 나타나는 고생대의 오도비스기(4억 3천 8백 만 년 ~ 5억 5백 만 년 전)의 하부 대석회암통 외에 상부 대석회암통, 양덕층군, 하부 남포층군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뿌리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 강원도』, 뿌리깊은 나무, 1983.

3) 지질구조

지질구조는 지각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며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넓다. 대표적인 지질구조로는 단층과 습곡이 있으며, 그외에 구조운동과 연관된 열곡과 같은 것이 있다. 지질구조는 상당한 지역적 범위에 걸쳐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지형을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특히 추가령곡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楸哥嶺谷은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는 골짜기이다. 곡의 방향은 대체로 북북서-남남동이며 남한에서는 철원에서 시작하여 서울을 향하여 뻗어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서울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는 교통로의 역할을 한다. 임진강 유역에서 서울로의 교통을 보면 임진강 하류는 낮은 구릉이어서 서울로의 교통이 편리하며 한탄강 유역인 연천, 전곡, 철원, 포천, 김화 등지에서는 추가령곡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그 중간지대인 은현이나 적성 등지에서는 감악산에서 파평산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들을 횡단하여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

추가령곡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복잡한 지질작용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는 여러 개의 단층과 여러 시대를 걸치면서 분출된 다양한 종류의 화산암이 분포하고 있어서 그 형성과정의 일면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용암분출의 분화구로 알려진 오리산(452m)을 비롯하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도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에 있기 때문에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남한지역에서도 휴전선에 인접한 관계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부분적인 연구만이 되어 있다.

추가령곡의 명칭은 성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가 제시되었다. 추가령지구대라고 불리게된 것은 1903년 최초로 여기를 연구한 일본인 학자 고또(小藤文次郎)가 서울-원산간의 골짜기 지형을 지구대로 보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며 그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추가령지구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地溝帶란 일반적으로 평행하게 발달한 2조 이상의 정단층이 상하 단층운동으로 인하여 단층 가운데 부분이 내려 앉아서 이루어진 골짜기 형태의 지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길주-명천 지구대가 대표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지구대라는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단층선곡 또는 열곡 등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斷層線谷은 김규한 등[3]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들은 서울-원산 간에서 "구조적인 陷沒地(tectonic trough)인 지구나 열곡의 특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하고 지질조사 및 지형분석에 의거하여 단층을 따라 차별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단층선곡이라는 명칭을 주장하였다. 裂谷이라는 명칭은 원종관이나 이대성 등[4]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열곡이란 rift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적으로 길고 좁은 함몰

3) 김규한 · 김옥준 · 민경덕 · 이윤수, 「추가령 지구대의 지질구조, 고지자기 및 암석학적 연구」, 『광산지질』, 17권 3호, 1984, 215~230쪽.

4) 원종관 · 나기창 · 이문원, 「민통선 북방 지역의 지질」, 『민통선 북방 지역 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지질』, 강원도, 1988, 109~143쪽.
원종관 · 김윤규 · 이문원, 「추가령 알칼리 현무암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26권 1호, 1990, 70~81쪽.
이대성 · 유기주 · 김광호, 「추가령 열곡의 지구조적 해석」, 『지질학회지』, 19권 1호, 1983, 19~38쪽.

지역으로서, 원종관 등은 "고기 지층 사이에 있었던 차별침식에 기인된 대상의 분지지형 또는 단층계곡"으로 해석하고 따라서 열곡 또는 裂線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령 열곡대라고 호칭하였다. 이대성 등은 이곳을 지각의 확장적 구조운동에 의한 것으로 보아서 열곡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는 '추가령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추가령곡이 지구대, 단층선곡, 열곡 등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것은 추가령곡의 명칭이 성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령곡의 성인에 대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명칭에 대한 혼란도 정리될 것이다. 성인에 대한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명칭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 또 여기서는 성인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령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추가령곡의 지질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단층이다. 철원에서 전곡, 포천을 거쳐서 서울에 이르는 구간에는 연천단층, 동두천단층, 포천단층, 김화단층 등 여러 단층선이 평행하게 배열된 일명 '대단층'[5]이 분포한다. 이러한 단층은 지질구조, 수계 패턴 조사 등에 의해서 여러 학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임진강곡의 성인에 관련된 또다른 흥미있는 연구도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추가령곡의 성인이 판구조론과 관련있다는 주장이 비교적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대성 등[6]은 고지자기 및 지질구조 연구에서 추가령 열곡을 원산을 중심으로 한 원산-단천 선, 원산-고성 선, 원산-서울 선으로 이어진 세갈래의 하나인 아울라코겐(aulacogen)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원산-서울 선을 실패한 아울라코겐으로 주장하고 있다. 원종관[7]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원종관 등[8]은 최근에 이곳의 현무암을 연구하여 추가령 현무암이 "해양도나 호상열도와는 달리 내륙에서 구조선과 관련된 열점(hot spot)에서 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에는 임진강대가 충돌대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9] 여기서 말하는 임진강대와 추가령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임진강대란 연천-전곡을 중심으로하고 동-서 방향으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최소한 15㎞ 이상의 폭을 가진 지대를 말한다. 이 임진강대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가 충돌하였다는 것이 이 학설의 요지이다. 이에 따르면 임진강대는 습곡-단층대로서 중국대륙에서의 충돌대인 친링-다비-산동(Quinling-Dabie-Shandong) 대륙 충돌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연천, 전곡 일대의 변성암속에 포함된 광물, 특히 각섬석의 변성도를 연구하여 이들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고 변성되었다는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나라의 지구조사의 규명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부분이며 임진강 지역이 지질구조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또 다른 관심을 끌 수 있는 학설임에는 틀림없다.

추가령곡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김규한 등[10]은 이 지역이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의 구조운동을 거쳤

---

5) 원종관 · 김윤규 · 이문원, 상게서.

6) 이대성 · 유기조 · 김광호, 「추가령 열곡의 지구조적 해석」, 『지질학회지』, 19권 1호, 1983, 19~38쪽.

7) 원종관, 「한반도에서의 제4계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추가령 열곡내에서-」, 『지질학회지』, 19권 3호, 1983, 159~168쪽.

8) 원종관 · 김윤규 · 이문원, 「추가령 알칼리 현무암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26권 1호, 1990, 70~81쪽.

9) 조문섭 · 권성택 · 이진한 · Nakamura, E., 「연천-전곡 지역에 분포하는 임진강대의 고압 각섬암」, 『Jour. Petrol. Soc. Korea』, 4권 1호, 1995, 1~19쪽.

10) 김규한 · 김옥준 · 민경덕 · 이윤수, 「추가령 지구대의 지질구조, 고지자기 및 암석학적 연구」, 『광산지질』, 17권 3호, 1984, 215~230쪽.

다고 주장하면서 3개 단계로 구분하였다. 제 1단계는 중생대 쥬라기로서 대보조산운동이 있었으며 대보화강암이 분출하였다. 대보화강암은 서울-의정부-양주-포천-김화에 이르는 지역에 북동-남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다.

제 2단계는 중생대 백악기 말기와 신생대 제 3기의 古 제 3기(Paleogene, 2천 4백 만 년 전 ~ 6천 6백 만 년 전) 시대로 추정되는 시기로서 지장봉 산성 화산암류와 古期 현무암이 생성된 시기이다. 산성 화산암류는 응회암이나 응회각력암으로 많이 나타난다. 고기 현무암은 통현현무암 및 장탄리 현무암으로 명명되었다.[11] 이 시기에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주향 이동성 단층운동이 있었다.

제 3단계는 신생대 제 3기(Tertiary)의 플라이오세(Pliocene, 1백 6십 만 년 전 ~ 5백 3십 만 년 전) 또는 제 4기(Quaternary)의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 1만 년 전 ~ 1백 6십 만 년 전)에 생성되었다.[12] 이 시기에는 다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단층운동이 있었으며 화산분출에 의한 현무암이 생성된 시기이다. 현무암의 연령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탄강에서 2.9±0.3m.y.(백 만년 전)이라는 연령의 현무암이 존재하며, 이것은 지질시대로 볼 때 제 3기 말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무암의 대부분은 현재의 철원평야를 덮고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 유로를 따라 분포하는 전곡현무암이며 이것은 K-Ar 연대 측정에 의하면 0.7m.y. 이후에 해당한다.[13] 그러나 전곡리 선사 유적지의 홍수 퇴적물 아래에 있는 현무암의 생성 연대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27 만 년전이라는 연령을 얻었다.[14]

임진강 유역 중 남한에 분포하는 주요 암석은 경기 변성암 복합체, 화강암 그리고 현무암이다. 경기 변성암 복합체는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강 유역의 서부에 널리 분포하며, 동부에서는 유역 경계부의 산악지대를 따라서 분포한다. 화강암은 양주, 포천, 김화 방향으로 방향성을 보이면서 帶狀으로 분포하고 있다. 현무암은 철원평야와 한탄강 및 임진강변을 따라서 분포한다. 암석에 따라서 지형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특히 현무암의 분포지역은 다른 두 암석의 분포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4) 지 형

지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육지 자체는 대개 조산운동이나 융기 또는 화산 분출에 의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지질작용에 의해 그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암석들은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깍이고 쓸려 나가면서 풍화나 침식에 강한 암석은 남아서 산지를 형성하였고 약한 곳은 계곡이나 평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형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에서의 침식작용은 주로 流水 즉 하천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임진강 유역의 지세는 상류인 북쪽이 높고 하류인 남쪽으로 오면서 점점 낮아진다. 북한에서는 상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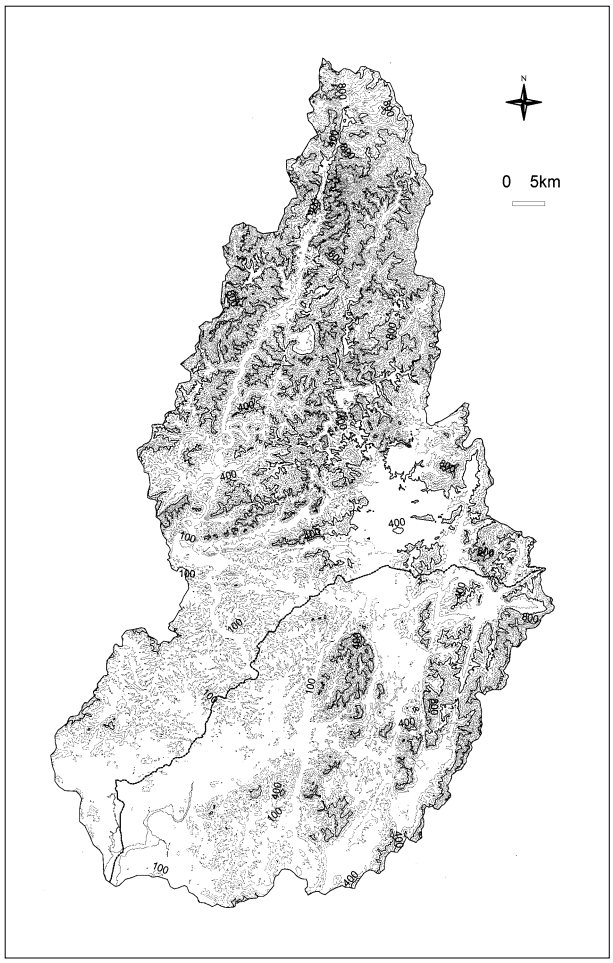
11) 이대성 · 유기주 · 김광호,「 추가령 열곡의 지구조적 해석」, 『지질학회지』, 19권 1호, 1983, 19~38쪽.

12) 지질시대구분에 대해서는 Press, F. and Siever, R., Earth, W.H. Freeman, New York, 1985 참조.

13) 이대성 · 유기주 · 김광호, 「추가령 열곡의 지구조적 해석」, 『지질학회지』, 19권 1호, 1983, 19~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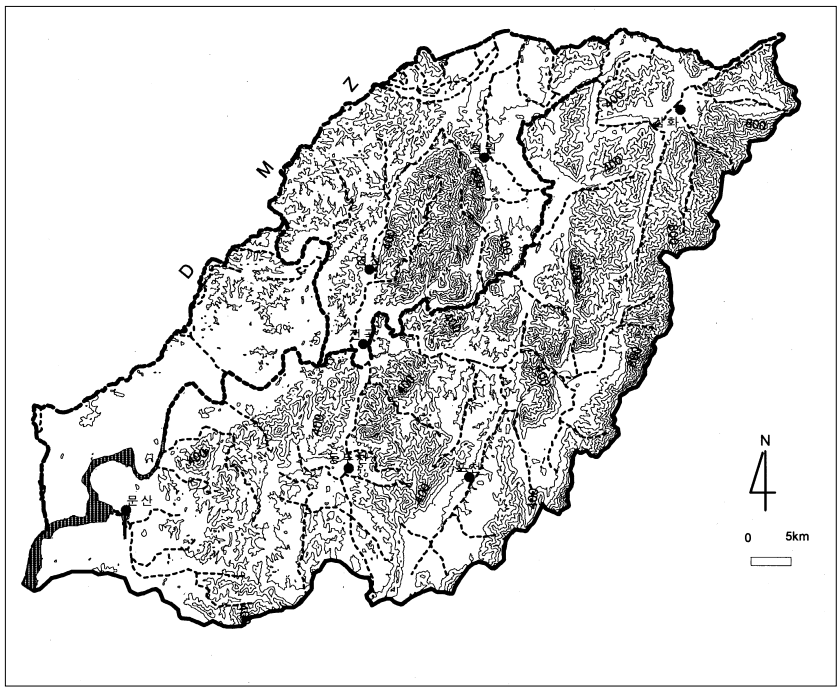
14) Takayanagi, A., 원종관 · 이문원 · 우준기, 『추가령구조대의 지형발달과 화산활동 -민통선 부근을 중심으로-』; 조규송 외(편), 『휴전선 일대의 자연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11~45쪽에서 재인용함.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오면서 낮아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강은 대체적으로 남방으로 흐른다. 남한에서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東高西低의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은 전체적으로 남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그림 3 참조). 북동쪽의 한탄강 유역은 철원평야의 용암대지의 고도가 평강 부근에서 300m를 넘으며 동쪽의 분수령인 강원도에서는 1,000m 이상의 고도를 가진 산들도 많다. 반면 임진강 하류인 적성 부근에서는 하천 주변의 고도가 20~30m로 낮아지며 주변의 산들도 감악산에서 파평산까지가 높을 뿐 그보다 하류에서는 구릉성 산지들이 분포한다(그림 4 참조).



〈그림 3〉 임진강 유역의 등고선도

임진강 유역의 지형은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분출된 용암에 의해서 형성된 용암대지와 이것이 하천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수직절벽과 협곡 형태의 지형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 변성암 복합체나 화강암 등의 암석이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다. 후자의 지형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과 유사한 반면 용암대지의 지형은 남한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나 울릉도에서도 용암이 분출하였지만 이들은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산을 형성하였고 대지와 같은 평지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그림 4〉 임진강 유역 남한 부분의 등고선도

변성암이나 화강암에서의 지형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의 지형과 유사하다. 이들 암석은 생성된지가 매우 오래이기 때문에 지표에 노출되면서 장기간의 풍화 및 침식작용을 받았다. 따라서 강한 암석은 남아서 산지가 되고 약한 곳은 씻겨 내려가서 평지나 계곡이 되는 차별침식의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화강암이란 마그마(magma)가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은 것이다. 이처럼 깊은 곳에 있던 암석들이 지금은 지표에 드러나서 산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은 수 ㎞ 이상의 깊이에 달하던 암석이 풍화와 침식에 의해 깍이고 운반되어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천 만년에서 수 억년 동안에 일어난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재의 지형경관이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반면 현무암의 용암대지 지형은 다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용암대지는 마그마가 지표에 분출된 후에 지표를 흘러내리면서 식어서 형성된 넓고 평탄한 지형을 가리킨다. 점성이 낮은 액체 상태의 용암이 흘러 내렸기 때문에 낮은 곳을 우선 메꾸었고 따라서 용암대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게 된다. 용암이 높은 산에서 분출하면 경사면을 따라 흘러 내리면서 비교적 경사가 급한 화산을 형성하기도 하며 제주도의 한라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용암이 식으면서 주상절리가 발달하고 하천 침식에 의해서 이러한 주상절리면을 따라 수직의 단애가 형성되었다. 철원지방의 용암대지의 지형은 바로 이러한 용암분출에 의한 대지의 형성과 하천을 따라서 나타난 주상절리면의 침식이라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하천의 流域이란 分水嶺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분수령은 높은 산맥일 수도 있고 낮은 언덕일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지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볼 때 유역은 주변의 높은 곳으로 둘러 싸인 분지의 형태를 띄게 되고 이 분지의 가장 낮은 곳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며 강의 하구는 유역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된다.

분수령을 살펴보는 데는 조선시대의 신경준이 정리한 『山經表』의 개념을 인용하는 것이 이해가 용이하다. 『산경표』는 분수령에 따라서 산맥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분수령의 형태를 잘 표현한다. 이에 따르면 임진강 유역은 북으로는 臨津北禮成南正脈과 海西正脈, 동으로는 白頭大幹 그리고 남으로는 漢北正脈으로 둘러 싸여 있다. 해서정맥과 백두대간의 길이는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역은 나머지 두 정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셈이다. 해서정맥은 대동강과의 분수령으로서 임진강 유역에서는 두류산에서 화개산 사이의 구간에 불과하다. 임진북예성남정맥은 말 그대로 임진강과 예성강간의 분수령이고 화개산에서 시작하여 개성의 송악산을 거쳐서 하구 북쪽의 진봉산까지 이어진다. 백두대간은 안변 남대천과의 분수령이고 한북정맥은 한강과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데 백두대간의 백봉에서 시작하여 서울시의 북쪽 경계를 따라서 이어진다.

현대의 산맥 분류체계와 북한의 산맥분류체계를 참조하여 분수령을 설명한다면 임진강 유역은 阿虎飛嶺山脈, 馬息嶺山脈, 그리고 廣州山脈으로 둘러 싸여 있다. 아호비령산맥은 낭림산맥의 끝부분인 두류산에서 시작하여 남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산맥으로서, 황해도와 강원도의 경계를 따라서 개성의 송악산까지 이어진다(그림 1 참조).[15] 여기에는 육판덕산(1,325m), 입암산(1,107m) 등의 높은 산들이 솟아 있다.

15) 통일원, 『북한의 자연지리와 사적』,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

『산경표』의 정맥과 비교하면 해서정맥의 일부와 임진북예성남정맥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마식령산맥은 두류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마식령(788m)을 거쳐서 북한의 강원도 이천군 동부에 있는 기대봉(552m)까지 이어지는 산맥이다.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높은 추애산(1,530m)과 홀령산(1,345m) 등을 지난다. 마식령산맥의 북부는 백두대간에 속한다. 광주산맥은 태백산맥의 철령(685m) 부근에서 시작하여 적근산(1,073m), 대성산(1,175m), 백운산(904m), 국망봉(1,168m), 현등산(936m), 주금산(814m)을 지나며 서울 남쪽의 관악산으로 뻗어 내린다. 대성산에서부터는 한탄강과 북한강의 분수령 역할을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산경표』에서 지칭하는 한북정맥에 속한다. 광주산맥의 방향은 남한에서는 추가령곡의 방향과 유사하다.

임진강 유역 내부에도 높은 산들이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철원 서쪽의 金鶴山(947m)과 高臺山(832m)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地藏峰(877m), 種子山(643m), 鍾懸山(588m), 소요산(526m), 旺方山(737m), 天寶山(336m)으로 이어지는 험한 지세이다. 이들의 서쪽에는 연천에서 동두천을 거쳐 의정부에 이르는 단층곡을, 동쪽에는 철원에서 포천을 거쳐 의정부에 이르는 단층곡을 두고 있다. 이들 골짜기를 따라서 전자에는 3번 도로가 후자에는 43번 도로가 달리고 있다. 이 산지는 전곡과 영중을 연결하는 영평천에 의해 부분적으로 단절되기는 하지만 매우 험산 산세를 이루고 있으며 동-서 방향의 교통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김화 남쪽으로 43번 도로와 47번 도로 사이에 있는 大得峰(628m), 鳴聲山(921m), 觀音山(732m), 金珠山(560m) 등으로 이어지는 산세도 대단히 험하다. 사실 종자산, 명성산, 백운산 등은 동서방향으로도 연결되는 산세이지만 단층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발달한 골짜기가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었고 이들을 따라 교통로도 발달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방향의 산세로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산지로는 파주시 적성면 남쪽에 있는 감악산(675m), 坡平山(495m), 錦屛山(293m)으로 이어지면서 남쪽으로는 北漢山(837m)까지 연결되는 산세이다. 높은 곳은 600m 이상이고 낮은 곳은 300~400m 정도이지만 평지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대단히 험한 산세로 인식된다. 이들 산세로 인해서 적성방면에서 서울로의 교통이 불편하게 된다. 감악산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략적 요충지이자 치열한 격전지였다. 감악산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남북으로, 특히 북쪽으로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평지와 구릉을 敢制할 수 있는 유일한 산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까운 임진강을 남쪽에서 방어하는데는 이처럼 좋은 요충지는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북방에 대한 전략적 거점이 되어 왔다. 임진강변에 남아 있는 각종 성이나 임꺽정의 전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철원 서측에 발달한 고대산에서 지장봉에 이르는 산지는 지질학적으로 관심있는 지역이다. 이들 산지는 화산암으로서 화산재가 분출된 후 퇴적된 응회암이 주를 이룬다. 고대산과 지장봉의 정상은 응회암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멀리서 보면 이들이 마치 정상 부근을 절벽처럼 둘러 싸고 있다. 정상에는 이러한 응회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풍화가 많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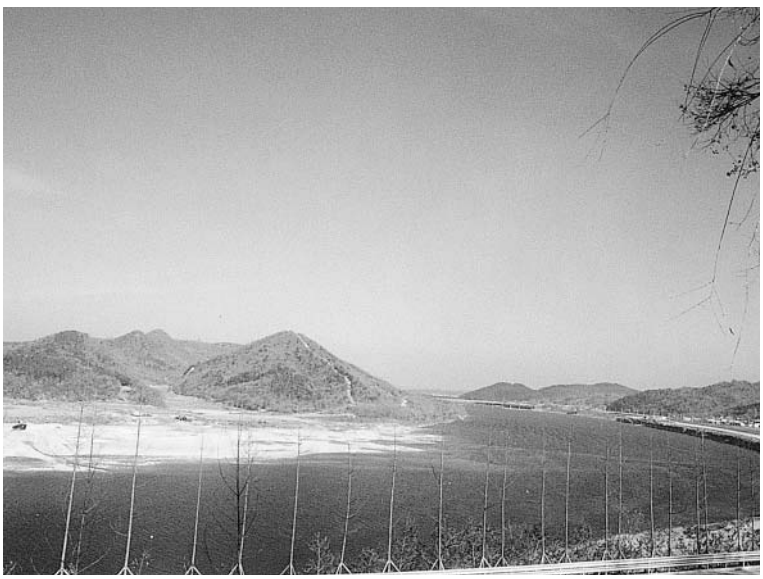
임진강 하류에 해당하는 파주시의 대부분은 감악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낮은 구릉성 산지들로 되어 있다. 높은 산도 300m 이하이며 대부분의 산들은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100~200m에 불과한 구릉성 산지로 변하였으며, 풍화층이 깊게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들로는 월롱산(246m), 봉서산(216m), 심학산

(193m) 등이 있다. 이들 산지 사이로는 산록완사면과 구릉성 침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침식평야가 있어서 경지로 사용된다. 하천 주변에는 넓은 충적지가 발달되어서 논으로 이용된다.

5) 용암대지

용암대지는 임진강 유역에서의 또 다른 지형적 특색이다. 철원을 중심으로 한 넓은 평야와 한탄강과 임진강의 주변부에는 용암대지가 분포한다. 철원 부근에서의 화산활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2번 있었으나 서로 다른 지형을 형성하였으며 용암대지로 남아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난 화산활동이다. 이때의 화산활동은 신생대 제 4기 화산활동으로 27만년 이전에 있었으며,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이곳의 저지대를 차례로 메우면서 한탄강을 따라 흘러 내려온 후 임진강으로 흘러들면서 내륙지방에 넓은 평야를 만들고 하천에 단애를 만드는 등 특이한 지형경관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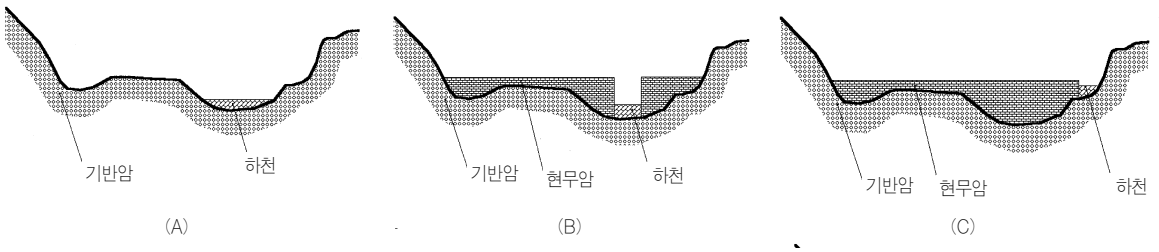
용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대단히 넓다. 북한지역은 물론이려니와 남한지역에서도 철원평야의 넓은 범위와 함께 한탄강 유역과 임진강 하류의 상당한 부분까지도 용암이 분포한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산에 가까운 율곡리 화석정 바로 윗 부분의 임진강에도 주상절리의 현무암 곡벽이 존재한다(사진 1에서 강 우측의 절벽 부분). 이렇게 볼 때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은 무려 96㎞ 이상을 흘러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 화석정 전면의 임진강

용암대지에서의 특징 중 하나는 하천 양쪽의 경사가 절벽을 이룬다는 점이다. 용암은 지표를 흐르면서 식을 때 수직으로 주상절리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 화산지대나 용암이 흐른 곳에서 이러한 주상절리를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남한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용암대지가 하천의 유수에 의해 침식을 받으면 주상절리면을 따라서 침식되어 절벽을 이루는 깊은 峽谷을 형성하게 된다(그림 5 참조). 하천의 양쪽 측면이 모두 용암대지이면 양측면 모두에 수직절벽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B), 한쪽은 용암대지이고 다른 쪽은 변성암이거나 화성암이면 한쪽은 수직절벽이고 다른 쪽은 완만한 경사를 가진 비대칭곡이 많이 형성된다(C). 용암이 하천을 메웠을 당시에 형성된 새로운 하천은 용암대지와 구 지형간의 경계선을 따라 흐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16] 이러한 비대칭의 곡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16) 원종관 · 이문원 · 우준기, 『추가령구조대의 지형발달과 화산활동 -민통선 부근을 중심으로-』; 조규송 외(편), 『휴전선 일대의 자연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11~45쪽에서 재인용함.



〈그림 5〉 한탄강변 용암대지 곡의 형태

임진강 특히 한탄강변에 형성된 수직단애의 하천은 홍수시 범람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하천의 양쪽 측면은 오랜 침식과 퇴적작용의 영향으로 〈그림 5〉의 (A)와 같이 하천 곡의 바닥으로부터 위로 올라올수록 폭이 급속히 증가하는 반원형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퇴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반원형의 끝에 자연제방 또는 인공제방이 있어서 홍수의 범람을 막고 있다. 그러나 용암대지의 하천에서는 곡이 전혀 다른 형태를 띤다.

한탄강변의 수직단애가 발달한 곳에서는 골짜기의 형태가 U자형 협곡이 되어서(그림 5 B) 하천의 바닥으로부터 위로 올라와도 곡의 폭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홍수시에 하천의 유량이 증가하면 반원형 곡에서는, 유량이 일정한 양으로 증가한다면 수위가 상승할수록 수위의 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U자형 협곡에서는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위의 상승률이 항상 일정하게 되고, 따라서 수위가 반원형의 계곡에 비해 급속히 상승하게 되어 범람을 하기 쉽게 된다. 이것은 용암이 과거의 하상을 메우면서 단면적을 좁혔기 때문이다. 하곡의 깊이가 깊고 하상의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홍수의 염려가 없지만 협곡의 깊이가 얕아지고 경사가 완만해지는 평지에서는 범람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전곡에서는 최근 자주 홍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용암대지의 주상절리가 발달한 곳에서는 수직단애를 따라 폭포도 발달하고 있다. 용암대지상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폭포가 직탕폭포와 재인폭포이다. 반면 변성암이나 화강암 지대에서 발달한 폭포로는 三斧淵폭포(용봉산), 선암폭포(복주산), 무지개폭포(운악산) 등이 있다.



〈사진 2〉 철원평야

용암대지에서의 논농사를 위해서는 관개를 필요로 한다. 용암대지의 철원평야는 평탄하기 때문에 논농사에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진 2〉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는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

되고 있다. 그러나 용암대지 표층의 현무암은 다공질이 많으며 또 주상절리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투수성이 높아서 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든다. 또한 하천의 표면이 용암대지의 표면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양수를 하지 않고는 관개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관개시설이 발달하기 전에는 논농사가 어렵게 된다.

용암대지 위에는 현무암의 풍화층이나 하천 충적물이 덮여 있다. 1984년에서 1989년 사이에 철원군 동송읍 일대에서 시행한 암반지하수 굴착 자료에 따르면 동송읍의 10개 정에서는 1.5~5.7m 깊이의 토사가 있었으며 평균 깊이는 3.7m이다. 이 지대에서의 측정자료는, 토사층 아래로 연암층의 평균 두께가 73.2m, 그리고 그 하부로 경암층이 나타나고 있다. 연암층의 표면은 현무암지대로 기록하였지만, 연암층 전체가 현무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곡읍 시가지 남단의 구석기 유적 발굴지점의 발굴조사보고서[17]에 따르면 기반암인 현무암까지의 깊이는 1.8~2.4m에 불과하다.

철원평야 용암대지의 토지이용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18] 1916년경에는 현재의 학저수지 남방에 있는 동송읍 일대는 용암대지의 대부분이 밭으로 이용되었고 논은 대교천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을 뿐이었다. 밭은 콩이나 옥수수 등과 뽕나무 재배에 이용되었으며 그대로 버려진 황무지도 많았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서 일본의 미곡증산계획 시행으로 저수지와 洑, 관개용 수로가 건설되면서 밭이 논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한국을 여행한 독일 지리학자는 철원지방을 기술하면서 현무암의 분포와 함께 수리시설을 특징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이러한 관개시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19] 이러한 관개의 노력으로 현재는 용암대지의 대부분은 논으로 이용되고 밭은 주변 산지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

6) 소결론

임진강 유역의 지질과 지형은 현무암의 용암대지와 기타 지역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암석, 지질구조, 용암대지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자연경관, 토지이용 등에서 차이를 가져 온다. 특히 지질구조와 산지에 의해 서울로의 교통로 발달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질이나 지형이 토양이나 평야의 발달과 같은 요인 외의 다른 요인으로도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좋은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용암대지는 한탄강 유역과 임진강변을 따라서 분포하며 남한의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이 지역의 가장 특징있는 지형이다. 특히 넓은 평지에서 갑자기 아래로 펼쳐지는 좁고 긴 협곡지형은 강의 횡단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략적 관점에서도 흥미있는 지형이다.

17) Choi, M.C., 「Report of the Third Excavation in Cheon-kok Palaeolithic Site」, 『인문과학논집』, 제 14집, 1982, 207~238쪽.

18) 황성한, 『철원 용암대지와 그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19) 김종규 · 강경원 · 손명철(역), 『코레아 I, II』, 민음사, 1998, 521~525쪽(Lautensach, H., Korea: Eine Landeskunde Auf Grund Eigener Reisen Und Der Literatur, K.F. Koehler Verlaf, Leipzig, Germany).

3. 기상 · 기후

1) 서 론

기후란 대기의 오랜 기간에 걸친 평균적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30년 기간을 평균하여 기후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반면 기상이란 대기의 순간적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후를 알기 위해 이처럼 오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상이란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느 해는 가뭄이 심하던 기간이 다른 해에는 홍수가 나는 기간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의 평균만이 날씨 변화의 경향을 얘기해 줄 수 있다.

기상과 기후는 인간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온이 높아지면 활동량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줄어들게 된다. 그런가하면 열대와 같이 기온이 아주 높아지면 활동량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한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온대가 인간의 활동에 가장 적합한 기후이다. 기상과 기후에 따라서 자라는 식물도 달라지고 인간이 입는 옷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인간의 의식주와 생활은 기후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임진강 유역은 한반도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중간인 점이적 특성을 나타낸다. 한반도는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북부는 대륙성 기후를, 그리고 남부는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는데 중부지방에 속하는 임진강 유역은 그 중간을 나타낸다.

기후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방법의 기상관측은 1904년 인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20] 기상관측의 통계치는 측후소가 있는 대도시에는 잘 측정되고 보존되어 있지만 임진강 유역의 파주, 연천, 철원 등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기간의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는 서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임진강 유역의 기후특성을 기술하고 임진강 유역의 시군에서 측정된 자료는 보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임진강 유역인 철원의 기상대에서 자료를 측정하여 공표하고 여러 곳에 자동기상측정기가 설치되었지만 측정기간이 10년이나 그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후특징을 전형적으로 나타내주지는 못한다.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가까운 측후소는 서울과 강화 그리고 인천이다. 육지와 해양의 분포와 같은 지표의 피복 상태와 지형에 따라 기상상태가 달라지고 이는 기후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 중에서 임진강 유역과 지형적인 조건이 가장 유사한 서울을 선택하였다. 서울은 임진강 유역에 접하는 바로 남쪽에 있으며 남한 부분에서 볼 때 임진강이나 한탄강과는 가깝게는 35㎞, 멀어도 80㎞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후요소에 대한 약간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기후 특성의 설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한국기후표 (1961~1990)』[21]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지표를 보완하여 기후요소를 기술한다.

---

20) 김종규, 「경기지역의 기후와 문화의 토대」,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09~129쪽.
21) 기상청, 『한국기후표 Ⅰ』, 기상청, 1991.

2) 기 후

우리나라의 기후를 간단히 말하면, 중위도의 온대기후로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은 고온 다우, 겨울철은 한냉 건조한 특징을 가진다. 기압, 바람, 기온 및 강수량의 4가지 중요한 기후요소를 중심으로 서울의 기후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반면 〈표 2〉는 최근 기상청에 의해 철원의 기상현황이 측정된 1991년 이후 9년간의 평균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과의 대비를 위하여 이 기간의 서울의 평균을 함께 수록하였다. 여기서는 이 표를 중심으로 임진강 유역의 기후를 설명하고자 한다.

〈표 1〉 서울의 기후요소(1960~1990)

요소\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계	단위
기 압		1024.3	1023.2	1019.7	1015.8	1011.4	1007.7	1006.2	1007.6	1013.4	1019.4	1023.0	1024.3	1016.3	hPa
바	방향	서북서	서북서	서	서	서	서	동북동	동북동	동북동	동북동	서북서	서북서	서	16방위
람	속도	2.5	2.7	2.9	3.0	2.6	2.3	2.3	2.2	2.0	2.0	2.4	2.4	2.4	m/s
기 온		-3.4	-1.1	4.5	11.8	17.4	21.5	24.6	25.4	20.6	14.3	6.6	-0.4	11.8	℃
강수량		22.9	24.6	46.7	93.7	92.0	133.8	369.1	293.9	168.9	49.4	53.1	21.7	1369.8	㎜

출처: 김종규, 「경기지역의 기후와 문화의 토대」,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09~129쪽.
여기서의 기후요소별 표들을 다시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표 2〉 철원의 기후요소(1991~1999)

(A) 기압, 풍속, 기온, 강수량

요소	철 원													서울	단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전년	위
기 압	1023.4	1021.4	1019.2	1013.9	1009.9	1006.3	1005.5	1007.6	1012.3	1018.0	1021.8	1024.4	1015.3	1016.5	hPa
풍 속	1.4	1.6	2.2	2.4	2.2	2.0	2.1	1.9	1.5	1.5	1.5	1.3	1.8	2.2	m/s
기 온	-5.6	-2.8	3.3	10.5	15.9	20.7	23.6	23.6	18.5	11.2	4.1	-2.4	10.1	12.7	℃
강수량	15.2	25.6	34.4	56.4	121.3	117.9	360.1	333.4	114.8	55.6	51.5	24.9	1311.0	1456.7	㎜

(B) 풍향

지역 \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철 원	NW	WNW	SW	WSW	SW	W	W	WNW	WNW
서 울	WNW	WNW	W	WNW	W	WNW	WNW	NW	WNW

출처 : 기상청, 『기상연보』, 기상청, 1991~1999.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임진강 유역의 기압은 겨울에는 높고 여름은 낮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12월과 1월에는 1,024.3 hPa까지 높아지며, 여름으로 갈수록 서서히 내려가서 7월에는 1,007.6 hPa까지 낮아진다. 겨울에는 고기압권에 속하는 날이 많고 여름에는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거나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9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철원지방의 기압이 오히려 서울보다 1.2 hPa 정도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서울은 0.2 hPa 높은 수치를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 철원이 서울보다 기압이 약간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날씨와 관련된 기압은 우리나라와 그 주변부인 동아시아에서의 氣團의 배치와 관계가 깊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西高東低형의 기압배치가 되는 반면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부가 오히려 기압이 높고 북부는 낮아지는 남고북저형으로 된다. 그러나 여름에는 기압의 남북차이가 겨울보다 훨씬 작아진다. 기압과 기단의 배치는 바람과 관계된다.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볼 때 편서풍대에 들기 때문에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탁월하다. 그러나 여름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탁월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내륙에서는 지형의 영향으로 인하여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많은 변화를 받기도 한다.

임진강 유역은 연간으로는 서풍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11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의 8개월 동안에는 서 또는 서북서 방향의 바람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세분하면 한겨울에는 서북서 방향의 바람이 그리고 봄에는 서풍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그리고 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7월~10월에 이르는 여름과 초가을에는 동북동풍이 탁월하게 나타난다. 여름에는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잡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지형의 영향으로 인한 풍향의 변화로 해석된다. 〈표 2〉의 (B)를 보면 철원이 서울보다 풍향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은 서북서 방향을 중심으로 하여 서-서북서-북서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철원은 남서(2)-서남서-서(2)-서북서(3)-북서 방향[22]의 바람이 우세함으로서 풍향의 변화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북서의 풍향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는 않다. 지형조건을 고려할 때 임진강 본류에 있는 지역들은 서울과 같은 풍향을 그리고 한탄강 유역은 철원과 유사한 성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에서의 연평균 풍속은 2.4m/s, 철원에서의 풍속은 1.8m/s로서 철원이 서울보다 바람이 약함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하여도 철원이 0.4m/s 정도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륙에서 산지가 많아서 풍속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풍속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과 일치한다.[23] 철원에서는 봄과 여름에 풍속이 강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약한 반면 서울에서는 겨울과 봄에 강하고 여름과 가을에 약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바람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여름의 돌풍이거나 태풍에 동반되는 강풍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강

22) 괄호 속의 숫자는 나타난 해를 의미하며, 숫자가 없는 경우는 한 해를 의미함.

23) 김종규, 「경기지역의 기후와 문화의 토대」,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09~129쪽.

풍과 통계적인 수치상의 풍속과는 차이가 있다.

기온은 가장 중요한 기후요소의 하나이다.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11.8℃이다.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북쪽인 철원의 경우는 서울보다 80㎞ 정도 북쪽에 있고 내륙이기 때문에 기온이 훨씬 낮게 된다. 〈표 2〉의 최근 9년의 자료에 의하면 철원의 기온은 10.1℃로서 같은 기간의 서울의 기온보다 2.6℃ 낮다. 이 차이를 30년 통계치에 적용한다면 철원의 30년 평균 기온은 9.2℃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임진강 유역은 9℃ ~ 11℃의 기온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에서도 하류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고 비슷한 지형적 조건이기 때문에 위도차에 의한 약간의 온도 차이만이 나겠지만 철원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북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남한에서 임진강 유역의 대표값을 얻기 위해서는 중간지점인 전곡에서의 관측치가 요청된다.

기온의 연교차는 서울에서 28.8℃로서 큰 편이다. 월 평균기온이 最寒月인 1월의 -3.4℃에서부터 최난월인 8월의 25.4℃까지 분포하여 기온의 계절적 변화가 심한 편이다. 철원에서의 연교차는 29.2℃로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과 일치한다. 기온의 계절적 분포를 보면, 1월에 가장 낮아진 기온은 여름으로 갈수록 서서히 상승하여 3월과 4월 사이에 가장 많이 상승하며 8월에 최고에 달하였다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며 10월과 11월 사이에 가장 많이 하강하며 1월에 최저기온에 도달한다(그림 6 참조). 여름에는 고온 습윤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겨울에는 한냉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철원의 연교차를 비교하면 최난월인 8월에는 철원이 1.8℃가 낮으나 최한월인 1월에는 2.2℃가 낮아서 여름보다 겨울에 기온차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최저 기온이 0℃ 이하인 달을 서리가 내릴 수 있는 有霜月이라고 할 경우 경기도의 내륙지방에서는 10월에서 3월 까지의 6개 월 간이 여기에 해당한다.[24]

임진강 유역은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섬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육지부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은 남해안 지방, 한강 중상류와 추가령곡 그리고 청천강 하류의 적유령 산맥 남사면이다.[25]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369.8mm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편에 속한다. 철원의 연 강수량은 1,311.0mm이며 이 기간에 서울은 1,456.7mm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철원보다 무려 145.7mm가 더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최근 9년간 서울의 강수량이 많이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30년 평균치에 의한 철원의 강수량은 1,300mm에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의 연변화는 여름에는 많고 겨울에는 적은 패턴을 나타낸다. 가장 적은 1월에는 15.2mm인 반면 가장 많은 7월에는 360.1mm에 달하여 그 차가 작은 달의 23배에 달한다. 6월에서 8월에 이르는 여름 3개월 간에 연 강수량의 62%가 내리며, 100mm가 넘은 5월에서 9월까지의 5개월 간에는 무려 80%가 집중되는 셈이다. 강수량이 이렇게 계절적으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임진강변에서 종종 수해를 입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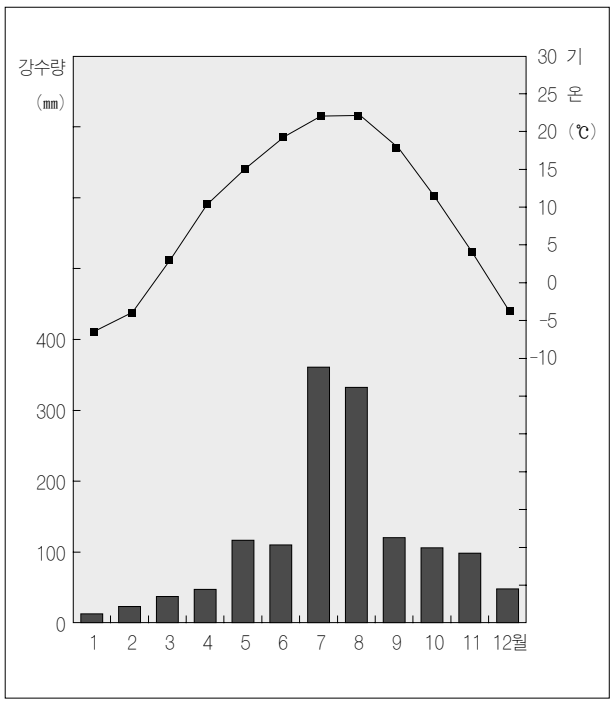
---

24) 위의 책.

25) 임덕순, 『우리나라 국토 전체와 각 지역 (I)』, 법문사, 1992, 44쪽.

강수량은 월변화가 매우 크다. 30년간의 통계에서 보면,[26] 서울에서 연 최대 강수량은 연 평균 강수량의 170%에 달하는 해가 있는 반면 연 최소 강수량은 연 평균 강수량의 50% 수준에 그치는 해도 있었다. 연 강수량의 변동이 이처럼 큰 것은 비가 적게 오는 달의 강수량이 심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름의 가뭄보다는 봄이나 겨울의 가뭄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비가 많이 오는 달에 강수량이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저기압의 활동, 장마의 시작 그리고 태풍의 통과 등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장마는 대개 6월 하순에 시작하여 7월 하순에 끝나지만 해마다 차이를 보인다.

기후는 여러 기상요소를 오랜 기간동안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의 상태이다. 여러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들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고 지역간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후요소 중에서 인간의 생활이나 식생의 성장에 관련이 깊은 기온과 강수량의 연변화를 많이 고려한다. 철원지방에 대하여 이 두가지 요소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며, 이것을 보면 기온과 강수량의 연교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에는 고온 다우이고 겨울에는 한냉건조한 특성이 그대로 이 하나의 그림으로 드러난다.



〈그림 6〉 철원의 기온과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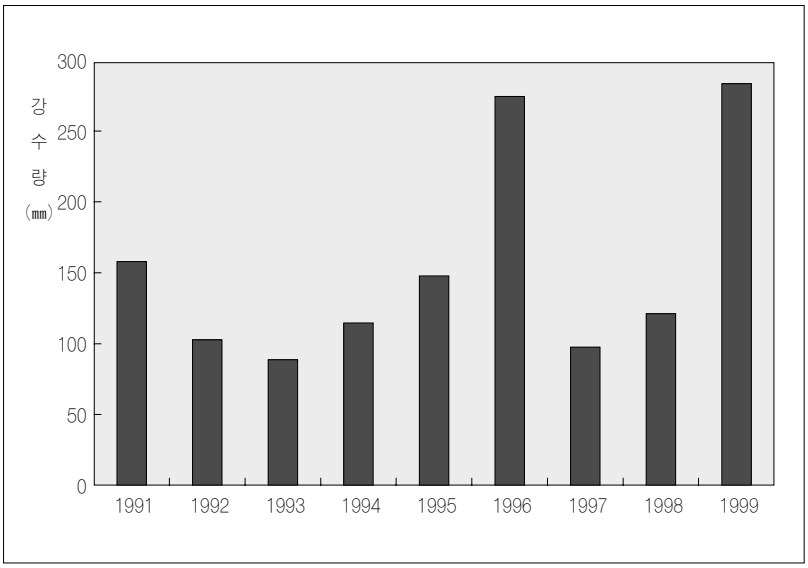
겨울철이 다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눈, 서리 그리고 얼음이다.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첫눈은 11월 29일에 내리고 마지막 눈은 3월 23일에 내린다. 평균 강설일수는 27.4일이며 10월에는 0.1일, 11월 1.9일, 12월 6.8일, 1월 8.5일, 2월 6.2일, 3월 3.8일 그리고 4월 0.1일로서 1월에 눈 오는 날이 가장 많다. 1961년에서 1990년 사이에 눈이 가장 오래 계속된 기간은 69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로서 8일간 계속되었다. 서울에서 하루 동안에 눈이 가장 많이 온 것(일 최심 신적설량)은 25.6cm이며 눈이 가장 늦게까지 내린 기록은 1911년 4월 19일이지만, 평균적으로는 3월 23일이면 끝난다. 서리는 30년 평균으로 10월 11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4월 6일까지 내리며,[27] 얼음은 10월 28일에 시작해서 4월 5일에 끝난다.

눈과 서리 그리고 얼음의 관계를 보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한 후에 눈이 내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반면 끝나는 시기는 그와 반대이어서, 눈, 얼음 그리고 서리의 순서로 끝난다. 끝나는 시기의 시간

26) 김종규, 위의 책.
27) 김종규, 위의 책. 서리의 평균은 1951년부터 1980년까지의 30년간이다.

간격은 시작할 때 만큼 길지 않은 데 그것은 3월과 4월의 급격한 기온 상승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상현상 중에서 많은 것이, 열 변화에 따라서 대기중에 있는 물이 相變化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비, 눈, 서리, 얼음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눈, 서리, 얼음은 기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3) 기 상



〈그림 7〉 철원의 연도별 하루 최대 강수량

기상은 대기의 순간적인 상태이다. 기상의 장기적인 평균이 기후이며 이미 앞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기상에서는 기상현상 중에서 특이하게 발생한 철원을 중심으로 한 1996년의 폭우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수량은 시간적, 공간적 변이가 큰 기상현상이다. 1996년 7월 26일에서 28일의 3일간에 경기와 강원의 북부에서는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홍수의 피해가 대단히 컸다. 이 기간에 철원 기상대에서 측정한 일일 최대 강수량은 27일의 268.1mm이며 3일간의 총 강수량은 527.2mm이었다. 연천군에서는 27일에 무려 448.0mm가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때 임진강 유역에 있는 각 지점에서의 3일간의 강수량 현황은 〈표 3〉과 같다. 3일 동안 임진강 유역 전체에 370~680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인하여 27일에는 연천군의 연천읍과 전곡읍 시가지가 물에 잠겼으며 파주시의 문산읍도 홍수의 피해를 당하였다.

〈표 3〉 1996년 7월 임진강 유역 지점별 강우량 현황

단위: mm

지점 \ 일자	26일	27일	28일	합 계	연평균강수량	비 고
철 원	224.7	268.1	34.4	527.2	1256.6	기상대
포 천 군	184.0	162.0	28.0	374.0	1402.3	
연 천 군	162.0	448.0	77.4	687.4	1249.7	
파 주 시	206.0	170.0	67.0	443.0	1253.3	
양 주 군	190.0	137.0	60.0	387.0	1302.6	
평 균	216.8	251.1	51.3	519.2	1292.9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6년 7월 임진강 유역 대홍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6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함.

이러한 폭우는 1996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연천군과 철원 일대에서는 1999년에도 재현되었다. 철원 기상대의 측정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간의 1일 최대 강수량은 〈그림 7〉과 같다. 여기서 보면 1996년과 1999년에 폭우가 있었으며 1999년의 것은 3년 전의 것을 능가하는 폭우가 되었다.

4) 소결론

철원의 기온과 강수량 도표에서 보듯이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고온 습윤한 여름은 열대의 기후조건과 유사하며 한랭 건조한 겨울은 한대기후와 유사하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 역시 여름과 겨울의 우기와 건기로 구별된다. 반면 봄은 온화하고 가을은 서늘하여 생활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름철의 고온 다우는 벼농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벼농사를 위해서는 벼의 성장기에 기온이 높아야 하고 물이 풍부하여야 하는 데 여름철의 고온 다우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벼농사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벼농사 지역은 농업지대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4. 하천과 수계

1) 임진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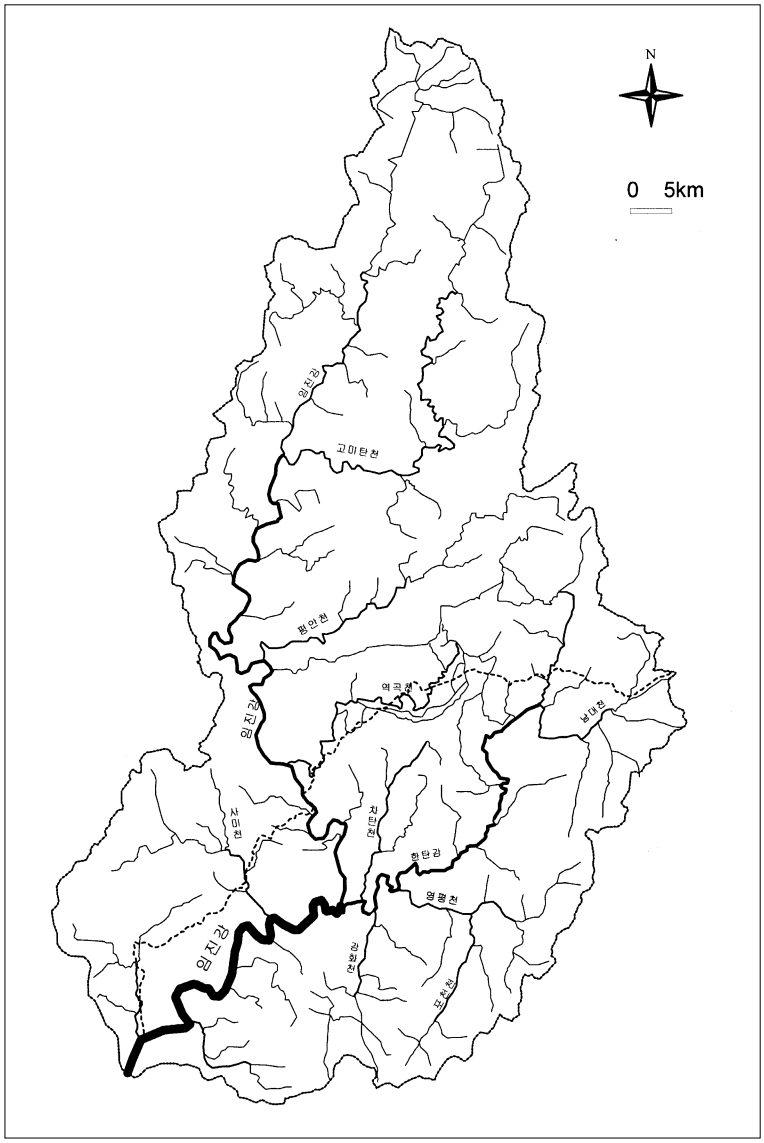
임진강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긴 강이다. 총 길이는 254㎞이고 유역 면적만도 8,118㎢에 달한다. 상류의 대부분은 북한에 있으며 유역면적으로는 63%를 차지한다. 연천군 중면에서 DMZ를 횡단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후 연천군 군남면과 미산면을 거쳐 파주시와의 경계를 이루며 흐르다가 파주시 관내로 들어간 후 탄현면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남한에서 임진강 본류의 길이는 92㎞로서 상당히 긴 편이지만 휴전선 바로 남쪽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과 관심에서 멀어진 강이다.

임진강은 북한의 두류산에서 발원한 후 평안천의 합류지점까지 거의 절반의 구간은 동쪽에는 마식령 산맥이 있고 서쪽에는 아호비령산맥이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흐른다. 반면 한탄강과 합류한 하류에서는 100m 이하의 구릉과 평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철원에도 고도는 높지만 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임진강 유역의 고도는 하구의 해수면으로부터 추애산의 1,530m까지 분포한다. 평균고도는 507m이며 800m 이상의 지역이 16.8%, 200m 이하가 13.9%에 달한다.[29] 유역의 평균 경사는 0.2682이며, 50% 이상이 0.30 이하, 11%는 0.10 이하의 경사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완만하다.

---

29)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유역 종합수문관측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1997.

주요 지류로는 북한에서 고미탄천, 평안천, 역곡천, 사미천, 사천이 있으며 남한에는 한탄강과 그 지류인 차탄천, 강화천, 영평천, 남대천 등이 있다(그림 8).



〈그림 8〉 하계망 패턴

임진강과 한탄강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주상절리로 된 하천 양쪽 측면의 수직단애이다. 임진강에서는 한탄강과 합류하는 미산면에서부터 하류쪽으로는 강의 한쪽 또는 양쪽 측면 모두가 수직단애로 된 지역이 곳곳에 나타난다. 용암에 의한 주상절리의 수직단애는 화석정이 있는 바로 상류의 율곡리에서도 발견된다. 〈사진 1〉에서 하천의 우측으로 제방처럼 보이는 부분이 현무암의 수직단애이며 높이는 4~5m에 이른다. 현재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용암대지 위로 다시 제방을 건설하고 있다. 중간에 분출한 지점이 없다면, 철원평야에서 시작된 용암이 최소한 이곳까지 흘러 내려왔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수직단애는 임진강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서는 ㅗㅗㅗ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적성면에서 백학면으로 연결되는 비룡대교의 상하류쪽은 강의 양측면 모두가 현무암의 수직단애로 되어 있으며 단애면의 높이도 상당히 높다.

임진강은 강 폭이 상류로 갈수록 상당히 일정하게 감소하는 편이다. 강폭을 범람원이 흐르는 강에서 양쪽 자연제방 사이의 구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임진강이나 한탄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하천 양측의 수직단애이다. 한강과 합류하는 오두산성 부근에서의 강 폭은 무려 2㎞에 이르며 넓은 곳은 2.8㎞나 된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강 폭은 하구로부터 겨우 4㎞ 구간에 불과하고 그 상류에서는 강폭이 줄어 들어서 400~500m에 불과하다. 임진강 하류 구간에서는 곡류하는 곳의 포인트 바(point bar)[30]가 발달한

30) 예를 들면 〈사진 1〉에서 강 건너로 보이는 모래 퇴적물 부분이 포인트 바이다.

곳이 있어서 그래도 강 폭이 비교적 넓은 곳이 나타나지만 용암층이 두꺼운 곳에서는 강 폭이 그리 넓지 않고 폭의 변화도 심하지 않다. 강의 양 측면이 모두 주상절리의 수직단애로 되어 있고 비교적 폭이 넓은 비룡대교 하류에서도 강 폭은 450m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다른 하천과 마찬가지로 임진강도 감입곡류의 형태를 띤다. 嵌入曲流란 범람원에서 蛇行을 하던 하천이 지반의 상승이나 해수면의 하강으로 인하여 원래 흐르던 河道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下方浸蝕을 하여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곡류하는 하천을 말한다. 임진강 하류 구간에서 처음 만나는 사행구간은 문산읍을 북으로 휘돌아 내려가는 부분이다. 판문점으로 가는 통일대교와 자유의 다리가 놓여서 강을 건너게 되어 있는 이곳의 포인트 바에는 퇴적층이 넓게 발달하여서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다른 사행구간은 파주시 적성면의 주월리-장좌리에서 나타난다. 이곳의 포인트 바에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지만 용암대지가 있어서 그 범위는 그리 넓지 못하다. 이곳에서는 공격사면쪽에 변성암의 기반암이 분포한다. 주월리의 임진강변 남측에는 용암대지가 형성되어서 평지가 상당히 넓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휴전선 바로 남방에 위치한 중면 횡산리, 왕징면 강내리도 전형적인 사행 하천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곳은 감입곡류이기 때문에 공격사면은 잘 발달하였으나 반대편의 포인트 바는 그렇지 못하다. 감입곡류의 형태는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한탄강 유역에서도 발견되는데 용암대지가 넓게 형성된 전곡읍 일대가 대표적이다.

용암대지를 흐르는 구간에서의 공격사면은 주상절리의 수직단애로 형성된 곳이 많고 포인트 바는 잘 발달하지 않았다. 포인트 바 부분 역시 주상절리의 단애이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흘러드는 홍수시 유수의 침식으로 인하여 주변의 평지보다는 조금은 낮아지고 경사가 수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용암대지가 아닌 곳의 포인트 바에는 모래가 상당히 퇴적되어 있다. 〈사진 1〉에는 공격사면인 화석정 쪽의 반대편 포인트 바와 상류의 하천이 나타난다. 포인트 바는 모래로 퇴적되어 있으며 갈수기에는 이러한 백사장이 넓게 드러나고 있다. 화석정 아래에는 공격사면이지만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위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고 물살은 세지 않다. 건너편 포인트 바에는 백사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강을 건너고 배를 대기에 안성맞춤이다.

강의 하구 부분은 조석의 영향을 받는다. 만조시에는 해수가 밀려 올라오면서 강물이 역류하기도 하고 흐르던 물이 멈추면서 하천의 수위를 높인다. 이처럼 조석의 영향을 받는 하천의 부분을 感潮 구간이라고 한다. 임진강의 감조구간은 하구로부터 40㎞ 떨어져 있는 고랑포까지로 알려져 있다.[31]

임진강의 수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수심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朝鮮地誌資料』에 의하면 강원도 안협까지 124㎞의 거리에 배가 다녔다고 한다.[32] 이곳까지는 수심이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당시의 治水관리와 지형, 식생과 경작상태가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탄강으로는 현재의 연천군 청산면에 이르는 11㎞ 구간에 배가 다녔다고 한다. 임진강에서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渡涉 가능한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행을 하

31)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유역 종합수문관측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1997.
32) 이형석, 『한국의 산하』, 홍익재, 1990, 112~116쪽.

는 하천에서는 沼와 여울〔灘〕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여울에서는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도섭은 이부분에서 가능해진다. 임진강 본류 구간에서 볼 때, 율곡리나 장파리에서는 도섭이 가능하지 않지만 상류로 54㎞ 떨어진 연천군 미산면 가월리 일대에서는 갈수기에 여울 부분에서는 도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강수량이 계절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심도 계절에 따라 많이 달라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임진강에서의 어업도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쇠퇴하였다. 연안의 주민들이 소규모 어선으로 어획에 나서서 뱀장어, 황복, 잉어, 붕어, 참게 등을 어획하였다. 그중에서 금액으로 가장 많은 것은 뱀장어이지만, 최근에는 강의 오염으로 인하여 어획이 많이 줄어 들었다.

2) 임진강의 지류들

임진강은 여러 지류들로 나뉘어져 있다. 지류 중에는 큰 강도 있고 작은 천도 있으며 길이와 유역면적도 다양하다. 이들은 임진강 본류와의 합류 또는 지류들 간의 합류 상태에 따라 제 1차, 제 2차, 제 3차 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산천이나 한탄강은 제 1차 지류인 반면 차탄천이나 영평천은 한탄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제 2차 지류로 구분된다. 남한지역에서 흐르는 임진강의 주요 지류들을 구분하면 〈표 4〉와 같다. 문산천은 길이도 짧고 유역면적도 좁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진강 유역은 크게 임진강 본류 유역과 한탄강 유역의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임진강의 지류와 그 특성

본류	제 1차 지류	제 2차 지류	제 3차 지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상 평균경사
임 진 강				8,118	254.6	0.00197
	문산천			185.0	30.1	0.00569
	한탄강			2,436.4	133.4	0.00392
		차탄천		186.8	36.8	0.00307
		강화천		339.3	37.5	0.00266
		영평천		565.7	40.6	0.00576
			포천천	239.5	30.5	0.00353
		남대천		414.4	39.7	0.00418

출처: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유역 종합수문관측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1997의 자료를 재편집하였음.

(1) 한탄강

한탄강은 임진강의 최대 지류로서 유일하게 강이라는 명칭이 붙은 하천이다. 북한의 평강군 현내면 백자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전곡읍의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합류하며, 길이는 133.4㎞이다. 연천,

철원, 동두천, 양주, 포천 등의 시 · 군들이 한탄강 유역에 있으며, 유역면적은 2,436.4㎢에 달한다. 지류들이 많으며 차탄천, 강화천, 영평천이 전곡 부근에서 갈라지고 남대천은 김화에서 갈라진다. 전곡읍 일대에서는 한탄강의 세 지류가 합류하기 때문에 유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홍수시에는 범람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한탄강은 전곡읍 일대에서 감입곡류의 특징을 나타낸다. 전곡읍 시가지를 휘감아 도는 물길이나 영평천과 합류하는 지점인, 전곡댐이 있던 아우라지 일대는 곡류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한탄강에서의 특징은 용암대지와 수직단애의 하천이다. 사실 임진강 주변에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만 하류의 단애들은 먼저 한탄강을 따라 흘러 내린 용암이 한탄강을 메우고 나서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강으로 치자면 한탄강이 용암대지와 수직단애의 원조인 셈이다. 한탄강을 따라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신철원에서 고문리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용암대지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신철원에서 연천읍 고문리까지의 한탄강 구간은 높은 산지 사이의 계곡을 흐른다. 이 계곡은 철원 서쪽의 고대산에서 시작해서 남쪽의 종현산과 소요산으로 이어지는 험한 산세를 횡단하는 계곡이다. 바로 5~6㎞ 남쪽에서 역시 동-서로 흐르는 영평천이 주변 산지를 많이 開析하였음에 비하여 한탄강 구간은 아직도 양측에 높은 산지와 좁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대조를 이룬다.

용암대지로 이루어진 철원평야는 지도로 확인할 때 가장 넓은 중심지가 용암이 분출된 평강 부근의 오리산 일대이다. 이곳에는 거의 평탄한 평지가 넓게 나타나며 1:50,000 지형도에서 확인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網流河川이 나타난다. 망류하천은, 자연적으로는 용암대지가 평탄하기 때문에 유수가 하천쟁탈을 하면서 흐른 결과이기도 하고, 인공적으로는 저수지를 축조하고 수로를 건설하여 관개를 하면서 수로를 서로 연결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휴전선 남쪽에서도 이러한 망류하천의 형태가 나타난다.

철원읍과 동송읍 일대의 철원평야에서는 하류로 갈수록 용암대지의 경사가 점차 급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형도를 이용하여 동송읍 장흥리에서 측정한 용암대지 상의 경사는 0.002273이지만 그보다 5㎞ 정도 하류인 냉정리에서 측정한 경사는 0.003704이고 그보다 6㎞ 하류인 운천 서쪽의 용암대지에서 측정한 경사는 0.004348이다. 하류로 가면서 용암대지의 경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용암의 분출횟수, 용암의 점성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상의 경사도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구간에서 하류로 갈수록 용암대지 표면으로부터 하상까지의 깊이가 약간씩 줄어 들기는 하지만 대단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동송읍 오덕리 일대에서 용암대지 표면의 해발고도는 180m 정도이며 남쪽인 운천읍 서쪽의 용암대지에서는 120m까지 낮아진다. 경사가 이처럼 급하기 때문에 동송읍의 순담계곡은 급류타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고 있다.

철원평야를 벗어난 하류에서 용암대지가 넓게 형성된 곳은 전곡읍 일대이다. 전곡읍 황지리의 322번 도로에서 도감포까지 이르는 황계리와 장계리 일대에는 직선거리로만도 4㎞에 달하는 거리에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한탄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으로서 합류지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긴 삼각형의 형태로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용암대지의 동측은 한탄강의 협곡, 서측은 임진강 본류의 협곡으로 둘러 싸여 있다. 전곡읍은 시가지 구간과 북쪽의 연천읍으로 이어지는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용암대지의 표면

은 현재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차탄천

차탄천은 한탄강의 5㎞ 지점에서 합류하는 지류이다. 최대 길이는 36.8㎞이며 유역면적은 186.8㎢이다. 본류는 철원읍 금학산 북쪽 계곡에서 발원한 후 신탄리, 대광리 및 연천읍을 거쳐 전곡에서 한탄강으로 흘러 들며 추가령곡의 '대광리 단층'을 따라서 거의 일직선으로 흐른다. 좁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지류들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지류들에 비할 때, 유역면적이 길이에 비해서 좁은 편이다. 연천읍 이하의 하류구간에서는 평탄한 용암대지가 펼쳐져 있으며, 연천읍 이상의 상류에서는 하천 주변에 폭 0.5~1㎞ 정도의 침식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한탄강과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주상절리의 단애가 잘 발달하여 있다.

(3) 영평천

영평천은 한탄강의 지류 중에서 가장 크고 비교적 큰 포천천을 지류로 가지고 있다. 길이는 40.6㎞이고 유역면적은 565.7㎢에 달한다. 포천군 이동면에 있는 광덕산(1,046m) 남쪽의 백운고개 부근에서 발원하여 남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영중으로 들어온 후에는 서쪽 방향으로 흘러서 전곡의 아우라지에서 한탄강에 합류한다. 영중-전곡구간에서는 하천의 폭이 상당히 넓은 곳도 나타난다.

영평천에는 백의리 일대에서도 현무암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이 영평천을 만나면서 역류하여 이곳까지 올라오면서 생긴 것이다. 이선복[33]은 용암류가 영평천을 따라서 5㎞정도 역류하였다고 판단한다. 백의리에서는 현무암층 아래로 원마도가 비교적 좋은 礫層이 드러나 있다. 이는 용암 분출 이전에 흐르던 강의 바닥에 있던 자갈로서, 현무암층과 구 河道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한편 이러한 관계는 또한 현재의 하상이 구 하도의 하상보다 깊게 침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4]

포천천은 포천읍 남단의 소흘읍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면서 포천읍을 지난 후 영중에서 영평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길이는 30.5㎞, 유역면적은 239.5㎢이다. 포천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분지를 유역으로 하며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4) 강화천

강화천은 한탄강의 지류로서 양주군 백석면 호명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면서 양주와 동두천을 거쳐서 전곡에서 한탄강에 합류한다. 하천 길이 37.5㎞, 유역면적 339.3㎢이다. 전곡에서 동두천까지는 '동두천단층'을 따라서 거의 일직선으로 흐르며 양주군 일원의 원형의 분지지형에서는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흐른다. 분지에서 여러 개로 갈라진 지류들이 합쳐지면서 동두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홍수시 일시에 유량이 집중하여 범람의 위험이 커진다. 강화천을 강화천과 그 지류인 신천으로 구분한다면, 감악산에

33) 이선복, 「임진강 유역의 고생태학」, 『동북아시아 구석기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9, 122~157쪽.
34) 김봉균 · 나기창, 「추가령지구대의 지질구조」, 『지질학회지』10권, 1974, 20~27쪽.

서 발원한 후 동두천을 지나서 한탄강에 합류하는 구간은 강화천이라 하고, 신천은 양주군 백석면 호명산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에서 강화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이 경우 강화천은 25.5㎞, 신천은 24㎞의 길이를 가진다.

3) 폭 포

하천을 따라서는 폭포가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폭포는 하상의 경사 급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대부분의 곳에서 침식에 강한 硬岩이 존재하는 경우에 생긴다. 하류지역에 속하는 남한 구간에서는 대규모 폭포가 형성될 지형적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큰 폭포는 없지만 소규모의 폭포들은 여러 개가 알려져 있다. 현무암의 주상절리면을 따라서 형성된 재인폭포와 직탕폭포 외에도 주변 산지의 산록에 있는 삼부연폭포, 매월대폭포 등이 유명하다.


〈사진 3〉 재인폭포

才人瀑布는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에 있으며, 높이 18m에 달하는 폭포이다(사진 3). 현무암의 용암대지 표면과 한탄강 본류의 하상에 이르는 고도차에 의해서 형성된 수직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이다. 폭포에는 잘 발달된 육각형의 주상절리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直湯瀑布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탄강의 현무암 하상에 형성된 폭포이다(사진 4). 주상절리의 단애면을 떨어지는데 높이는 3m에 불과하지만 강 폭 80m 전 구간이 폭포로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사진 4〉 직탕폭포

三釜淵瀑布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있으며, 명성산 북쪽으로 4㎞ 정도 떨어져 있는 용봉산에 있다. 변성암 지대에서 오랜 침식

을 받았기 때문에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마솥 모양의 3개의 폭포가 늘어서 있다고 하여서 삼부연이라고 한다.

4) 소결론

임진강은 우리 나라의 7대 강이고 경기도에서는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이다.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주변 경관이 특이하여서 관심을 끌고 있는 강이다. 하류의 평지와 용암대지는 농경에 적합한 지형이다. 상류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댐 건설, 홍수 예방 등의 치수문제에서 북한과 협의를 요하는 강이기도 하다. 수량도 풍부하여 과거에는 소형 배가 안협까지도 드나 들 수 있었다고 한다. 임진강을 따라가면 문산 상류에서부터는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드러나는 수직단애를 만나게 되고, 한탄강에서는 본류를 따라서 거의 전 구간에서 이러한 지형이 나타난다. 이 지역의 지형적 특징이자 하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우리 나라 중부지방을 흐르는 강들이 그렇듯이 감입곡류의 구간도 많이 나타난다.

임진강의 지류는 남한에서는 많지 않다. 문산읍으로 흘러드는 소규모의 문산천과 임진강 최대의 지류인 한탄강이 전부이다. 한탄강은 여러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연천, 포천, 양주, 철원의 넓은 지역을 유역으로 하고 있다. 추가령곡의 단층대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일직선의 유로가 많이 나타나는 한탄강은 지질구조가 하계망에 영향을 미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강이다.

5. 결 론

농경시대에 하천 유역은 그대로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강이 흐르는 곳이 평지이고 그곳이 농경지이고 생활의 터전이었다. 강은 이러한 농경지의 관개를 위한 수로의 역할을 하였다. 강은 또한 유역내의 각 마을을 이어주는 교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교통의 수단으로서 배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강은 편리한 길이 되었고 유역내의 지역과 사람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역의 경계인 분수령은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역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하나의 생활권이자 문화권이 경우가 많았다.

임진강 유역은 분수령을 이루는 험준한 산맥들로 둘러 싸인 하나의 생활권이다. 상류쪽의 아호비령산맥과 마식령산맥 그리고 광주산맥은 임진강 유역을 둘러싸고 있는 분수령인 산맥들이다. 이들은 다른 지역과의 교통을 불편하게 만들고 임진강과 그 지류들은 유역내의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임진강 유역의 분수령은 다른 강의 유역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 동두천에서 의정부 사이의 구간은 한탄강의 지류인 강화천과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의 분수령이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분수령은 그리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임진강과 한강의 분수령보다는 오히려 임진강 본류와 강화천의 분수령이 훨씬 더 높은 지세이다. 주변 산지보다도 분수령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추가령곡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단층을 따라서 침식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 부분이 낮아지고 따라서 험한 것이라는 분수령의 특징을 잃은 것이다. 지도상으로 볼 때 이러한 특색은 추가령곡이면서 임진강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평강 북쪽의 검불랑 일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임진강의 지질과 지형경관은 크게 현무암지대와 기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강의 하류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현무암이 용암대지라는 특징적인 지형을 만들어 내었다. 용암분출 이전의 골짜기를 메운 평탄한 용암대지는 침식에 의해서 평지보다 낮은 곳에 하천을 만들었고 이러한 자연환경은 배수를 용이하게 하였지만 관개는 어렵게 하였다. 기존의 침식지형에서는 하천변이 좁은 평지와 산록완사면으로 되어 있으며 하천은 이러한 지역과 고도가 같았다.

임진강의 위치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다. 임진강 유역은 서울의 주변이자 북방교통의 길목이다. 삼국시대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는 세력에 의해 한강과 동일한 지역의 범위에 들면서 중요한 지역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중국이나 북방세력과 왕래하는 교통로에 있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현대에서도 임진강 유역은 안보의 현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있는 한 임진강 유역이 가지는 위치적 특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Choi, M.C., 「Report of the Third Excavation in Cheon-kok Palaeolithic Site」, 『인문과학논집』, 제 14집, 1982.

Press, F. and Siever, R., Earth, W.H. Freeman, New York, 1985.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유역 종합수문관측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1997.

건설부, 『한국하천일람』, 건설부, 1991.

기상청, 『한국기후표 II-월별 평년값(1961-1990)-』, 기상청, 1991.

기상청, 『한국기후표 I』, 기상청, 1991.

김규한 · 김옥준 · 민경덕 · 이윤수, 「추가령 지구대의 지질구조, 고지자기 및 암석학적 연구」, 『광산지질』, 17권 3호, 1984.

김두일 · 이형호 · 한욱, 『서울-철원간 추가령곡의 군사지리적 분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3.

김종규, 「경기지역의 기후와 문화의 토대」,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김종규 · 강경원 · 손명철(역), 『코레아 I, II』, 민음사, 1988.(Lautensach, H., Korea: Eine Landeskunde Auf Grund Eigener Reisen Und Der Literatur, K.F. Koehler Verlaf, Leipzig, Germany)

박종관, 「경기지역의 하천유역과 인간활동」,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 - 강원도』, 뿌리깊은나무, 1983.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 —경기도』, 뿌리깊은나무, 1983,

양보경, 「경기지역 향토문화의 이해」,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원종관 · 김윤규 · 이문원, 「추가령 알칼리 현무암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26권 1호, 1990.

원종관 · 나기창 · 이문원, 『민통선 북방 지역의 지질, 민통선 북방 지역 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지질』, 강원도, 1988.

원종관 · 이문원 · 우준기, 『추가령구조대의 지형발달과 화산활동 - 민통선 부근을 중심으로-』, 조규송 외(편), 『휴전선 일대의 자연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원종관, 「한반도에서의 제 4계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추가령 열곡내에서-」, 『지질학회지』, 19권 3호, 1983.

이대성 · 유기주 · 김광호, 「추가령 열곡의 지구조적 해석」, 『지질학회지』, 19권 1호, 1983.
이선복, 「임진강 유역의 고생태학」, 『동북아시아 구석기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9.
이형호 · 한욱 · 김동진 · 김두일, 『철원일대 추가령 구조곡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지질 및 지형분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2.
임덕순, 『우리나라 국토 전체와 각 지역(I)』, 법문사.
장재훈, 「경기지역의 위치와 지형적 환경」,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조문섭 · 권성택 · 이진한 · Nakamura, E., 「연천-전곡 지역에 분포하는 임진강대의 고압 각섬암」, 『Jour. Petrol. Soc. Korea』, 4권 1호, 1995.
철원군, 『통계연보 1999』, 철원군, 1999.
최영준 · 김종혁, 「경기지역의 교통로와 교통의 발달」,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통일원, 『북한의 자연지리와 사적』,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
황성한, 『철원 용암대지와 그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제2절 임진강 유역의 동물상*

1. 개 요

경기도 북부는 북한과 접해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많은 군인과 군대와 관련된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 또한 많다. 이러한 민간인 통제구역 때문에 그나름대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것은 사실이나, 그 반대로 군 주둔지내의 환경오염 및 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임진강 지역은 많은 전문가에 의해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부 자연환경전국조사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및 임진강 일대의 조사가 1999년에 이루어졌으며, UNDP에서 경기도 장단지역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지역 일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수계망을 살펴보면 북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조사지역의 북쪽을 경계지으며 관통하여 흐르는 임진강이 가장 큰 하천으로 침식과 운반, 퇴적작용 등 하천 고유의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조사지역의 동쪽 경계는 동두천에서 유하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신내천으로 의정부-동두천-연천-철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선의 일부구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곡류하는 임진강과는 달리 거의 직류하천의 형태를 띠고 있다.

---

* 윤일병(고려대학교 교수 - 동물생태 전반)
심재한(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양서, 파충류, 조류 분야)
변화근(상지대학교 교수 - 어류 분야)
김정규(고려대학교 한국곤충연구소 - 곤충 분야)
서종수(한국자연보호협회 연구원)
송재영(한국자연보호협회 연구원)
이성진(한국자연보호협회 연구원)

파주시의 강수량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가 심했던 연도인 1996년, 1998년, 1999년도에는 우리 나라의 평균강수량인 1174㎜보다도 더 많은 양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의 7월 26일~7월 28일까지 3일간 지속되었던 임진강대홍수나 1998년의 경우 8월 5~6일 2일간의 집중호우, 1999년의 7월 31일~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에 의해 문산읍의 대부분과 파주시의 상당 지역이 수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산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신문,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분류, 보도하고 있지만 학문적 입장에서는 결코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도시화와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자연파괴 및 자연현상에 대한 안이한 대처방식 등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수해를 야기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또 다른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파주일대는 자유의 다리 북서쪽 방면의 점원리 일대, 자유의 다리 남서쪽방면 창하리 일대, 임진각의 정개다리 상부의 용산리와 일학산, 점원리, 대성리 사천강 일대 그리고 장단반도 일대이다. 철원평야는 강원도의 중부내륙에 위치하는 盆地지역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평야지역은 남 · 북으로 약 40㎞, 동 · 서로 15㎞의 광활한 면적으로 중간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다. 총 면적 2,300㏊의 분지내에는 한탄강과 남대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학저수지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삼명호 북쪽으로는 토교저수지가 위치한다. 水資源이 풍부한 평야지대의 대부분이 경작지로 개발되었고, 곳곳에 산재 되어있는 구릉과 일부 미확인된 지뢰지대만이 자연 그대로의 습원을 이루고 있다. 연천군 지역은 북 · 동에서 동 · 남방향의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의 일부에 속한다. 이들 산맥의 동부는 해발 800~900m로부터 서부로 갈수록 낮아져 서해안에서는 100m 내외이고 오랜 기간의 침식작용에 의한 완사면 내지 구릉성 사면도 나타난다.

임상은 주로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및 아까시아나무군락이 형성되어있다. 포천과 철원은 광덕산, 백운산, 국망봉, 강씨봉 그리고 서면일대는 경기도의 포천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강원도 철원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가평군 등을 포함한다. 광덕산과 백운산은 포천군 행정계의 맨 북쪽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며, 일명 카라멜고개로 불리는 광덕고개와 양평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백운동 계곡은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는 그 경관의 수려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조류조사 지역인 한강하구 및 임진강하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파주시 문산읍, 파주시 탄현면 및 파주시 장단면 일부이며, 37° 37′N~37° 55′N, 126° 30′E~127° 50′E에 위치한다. 임진강은 이 곳에서 한강과 합류하여 경기만으로 흘러간다.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되는 지점에는 강물과 바닷물에 의해 운반된 토사가 충적되어 넓은 면적의 삼각주와 사주가 형성되어 있다. 사주에는 크고 작은 물골이 있으며, 만조에 의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경우 사주가 침수되기도 한다. 강을 건너면 북한지역인 DMZ지역으로 강둑을 따라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군 작전지역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 1975년 2월 21일 파주군 교하면 일원 381㏊를 천연기념물 250호로 지정하였고, 1987년 9월 21일 김포군 하성면 한강 삼각주 일원 1,145㏊를 조수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오두산 정상에는 통일전망대가 설치되어 안보관광을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 군내면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백련리 일대의 37° 52~57′N, 126° 40~45′E에 위

치한다. 조산리의 조사구역은 비무장지대에 포함된다. 조사지역 인근에는 판문점이 위치하며 넓은 농경지와 곳곳에 갈대 숲, 초지가 산재되어 있고, 임진강과 직선거리로 약 10㎞에 위치하고, 서쪽에는 임진강으로 흐르는 사천강이 있으며 2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

이 지역의 생물상을 살펴보면 우선 어류는, 임진강유역에서 총 19과 70종이 출현하였다. 법정보호종에 속하는 어름치(천연기념물)가 발견되었다. 어름치는 임진강과 한탄강 본류역에서 소수 출현하였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은 없었고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은 묵납자루, 두우쟁이 2종이 발견되었다.

출현한 어종을 생활형으로 구분하면 일차담수어 52종, 주연성 어류 17종, 이차담수어는 대륙송사리 1종으로 일차담수어가 가장 많았으나 주연성 어류의 출현도 많았다. 이는 임진강 하류역이 조사 지점에 포함되어 있고 하류에 대형 댐이나 보가 없어 기수역이나 연안에 서식하는 각종 주연성 어류가 자유롭게 하류역으로 회유하여 서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도입어종인 떡붕어, 파랑볼우럭, 큰입우럭 등 3종 출현하였는데, 앞으로 도입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반도고유종은 각시붕어, 줄납자루, 묵납자루, 가시납지리, 쉬리, 중고기, 참중고기, 가는돌고기, 몰개, 긴몰개, 어름치, 돌마자, 배가사리, 경모치, 돌상어, 새코미꾸리, 참종개, 퉁가리, 눈동자개, 꺽지, 얼룩동사리 등 21종이 발견되었다.

양서 · 파충류를 살펴보면 파주 일대에서는 양서류는 9종, 파충류는 12종, 총 21종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 종은 산개구리이고, 산개구리 못지 않게 청개구리와 참개구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멸종위기종으로는 구렁이 1종이 발견되었으며, 보호야생동물로는 남생이와 맹꽁이가 발견되었다. 특이한 것은 보호야생동물인 맹꽁이가 통일촌 일대 저습지에서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연천군 일대에서 관찰된 양서류는 9종, 파충류는 8종이었다. 양서류는 참개구리가 우점종이고 다음으로 청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옴개구리 순이었고 산개구리는 희소하였다. 파충류는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등이 관찰되었고, 유혈목이, 누룩뱀, 쇠살모사, 무자치, 살모사, 능구렁이 순으로 우세하고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가 발견되었다.

포천 · 철원지역에서 관찰 및 확인된 양서류는 10종, 파충류는 9종이었다. 양서류의 경우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식함이 확인되었으나 전 지역에 고루 서식하는 종은 없었다.

한강 · 임진강 하구일대에서 관찰된 조류는 65종으로 한강하구는 1970년대까지는 1,000여개체 이상의 재두루미가 월동 또는 통과장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인위적인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그 월동지를 우리 나라에서 일본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다.

파주 군내면에서는 39종으로 이중에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 고니 그리고 독수리(천연기념물 243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호),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호) 등 5종의 희귀한 맹금류들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두루미 뿐만 아니아 다수의 맹금류가 관찰되어 도래지로서 매우 가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곤충상은 딱정벌레목, 벌목, 나비목, 파리목, 메뚜기목등의 순으로 높은 종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분류군의 일반적인 동태를 살펴보면, 딱정벌레목의 경우, 대형 교목을 주서식지로 이용하는 대형의 종보다는 키가 낮은 관목이나 초지에서 쉽게 발견되는 잎벌레, 무당벌레, 바구미와같은 종류들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술한 현지조사시 발달된 수림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제한요인과 금년의 조사가 대부분 수계의 주변부에서 이루어 짐으로서 수변의 초지 혹은 관목림서식 곤충종에 집중적인 채집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목의 경우, 식식성인 넓적허리벌류와 좀벌류, 고치벌, 맵시벌류와 같은 기생벌류 및 대모벌, 쌍살벌, 말벌, 호리병벌, 구멍벌과 같은 포식성벌류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분류군들이 고르게 출현한 것으로 보아 이지역의 곤충상은 비교적 안정적인 먹이망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해주고 있다.

조사지역의 곤충상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곤충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매미목, 잠자리목 및 파리목과 같은 곤충류는 금년의 현지조사 및 과거의 기록에서도 매우 채집이 빈약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조사활동시의 다양한 제한요인에 의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조사지역의 자연환경 상황을 시사해 주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현재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종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간섭, 즉 민간인 통제지역이 점점 많은 비율로 해제되고 있고 이 곳이 많은 휴양지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되리라 판단된다.

2. 임진각 유역의 양서 · 파충류, 조류

1) 서 론

최근 생물종 보전에 대한 공감대는 하나의 국가단위 차원이건 지구 차원이건 형성되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개발위주의 경제논리와 보전목표와 전략적 개념의 부재 등으로 그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전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며 보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보전해야만 하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결국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계획 또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전략(Strategy)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비무장지대 인접지역(민통선지역)은 한반도 중부지방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48㎞ 길이의 휴전선을 따라 남 · 북으로 각기 폭 2㎞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있고, 남방한계선에서 다시 남쪽으로 10~20㎞의 지역이 민간인 출입통제 관리지역으로 설정 · 관리되어 옴으로서 이 구역내의 일부 지역은 그간 인간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채로 유지되어왔다.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적인 특성은 당연히 많은 관계 학자와 관계 기관의 관심을 모으게 되어 1966년부터 1968년까지 한국자연보존협회가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지역 자연생태계에 관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한 이래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

은 연구 ·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최근에 들어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영농의 확대 등 이 지역내에서의 민간인 활동이 점차 증대되고 민간인 통제구역 자체가 부분적으로 축소 · 조정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남 · 북관계 변화 분위기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 조사가 시급하게 되었다.

비무장지대 또는 비무장지대와 인접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의 지역은 휴전이후에 오랜 기간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으며, 일부 지역은 자연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최근 민간인에 의해 각종 영농이 실시되어지고 있다. 본 조사 · 연구는 광대한 비무장지대와 인접된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의 遊休國土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계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2) 본 론

(1)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조사하였다.

(2) 조사지역의 개황

파주일대는 자유의 다리 북서쪽 방면의 점원리 일대, 자유의 다리 남서쪽방면 창하리 일대, 임진각의 정개다리 상부의 용산리와 일학산, 점원리, 대성리 사천강 일대 그리고 장단반도 일대이며, 철원평야는 강원도의 중부내륙에 위치하는 盆地지역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평야지역은 남 · 북으로 약 40㎞, 동 · 서로 15㎞의 광활한 면적으로 중간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다. 총 면적 2,300㏊의 분지내에는 한탄강과 남대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학저수지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삼명호 북쪽으로는 토교저수지가 위치한다. 水資源이 풍부한 평야지대의 대부분이 경작지로 개발되었고, 곳곳에 산재 되어있는 구릉과 일부 미확인된 지뢰지대만이 자연 그대로의 습원을 이루고 있다. 연천군 지역은 북 · 동에서 동 · 남방향의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의 일부에 속한다. 이들 산맥의 동부는 해발 800~900m로 부터 서부로 갈수록 낮아져 서해안에서는 100m 내외이고 오랜 기간의 침식작용에 의한 완사면 내지 구릉성 사면도 나타난다.

임상은 주로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및 아까시아나무군락이 형성되어있다. 포천과 철원은 광덕산, 백운산, 국망봉, 강씨봉 그리고 서면일대는 경기도의 포천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강원도 철원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가평군 등을 포함한다. 광덕산과 백운산은 포천군 행정계의 맨 북쪽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며, 일명 카라멜고개로 불리는 광덕고개와 양평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백운동 계곡은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는 그 경관의 수려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조류조사 지역인 한강하구 및 임진강하구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신리, 시암리, 마조리, 후평리, 석탄리, 마곡리, 전류리), 파주시 문산읍, 파주시 탄현면(대동리, 성동리, 만우리), 파주시 교하면(문발리, 신촌면, 송촌리, 산남리) 및 파주시 장단면 일부이며, 37° 37′N~37° 55′N, 126° 30′E~127° 50′E에 위치한다. 임진강은 이 곳에서 한강과 합류하여 경기만으로 흘러간다.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되는

지점에는 강물과 바닷물에 의해 운반된 토사가 충적되어 넓은 면적의 삼각주와 사주가 형성되어 있다. 사주에는 크고 작은 물골이 있으며, 만조에 의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경우 사주가 침수되기도 한다. 강을 건너면 북한지역인 DMZ지역으로 강둑을 따라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군 작전지역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 1975년 2월 21일 파주군 교하면 일원 381㏊를 천연기념물 250호로 지정하였고, 1987년 9월 21일 김포군 하성면 한강 삼각주 일원 1,145㏊를 조수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오두산 정상에는 통일전망대가 설치되어 안보관광을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 군내면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백련리 일대의 37° 52~57′N, 126° 40~45′E에 위치한다. 조산리의 조사구역은 비무장지대에 포함된다. 조사지역 인근에는 판문점이 위치하며 넓은 농경지와 곳곳에 갈대 숲, 초지가 산재되어 있고, 임진강과 직선거리로 약 10㎞에 위치하고, 서쪽에는 임진강으로 흐르는 사천강이 있으며 2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① 양서 · 파충류

가. 직접확인 방법

양서류 중에서 有尾目(도롱뇽類)의 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유속의 흐름이 완만한 곳을 찾아 작은 바위를 들추어 유생을 확인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 작은 웅덩이에 산란한 알을 찾아 종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성체는 고지대의 활엽수림이 있는 음지쪽에 쓰러져 있는 고목을 들추거나, 바위틈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無尾目(개구리類)은 등산로를 따라 좌 · 우 10m 간격으로 이동중인 개체와 계곡의 바위틈 혹은 논, 수로 그리고 저습지 주변에서 포충망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그리고 파충류 중에서 장지뱀류와 도마뱀류는 묵정밭 주변, 도로변과 등산로 주변의 햇볕이 잘드는 곳에 쌓여 있는 돌을 들추어 확인하였고, 뱀류(蛇類)는 저지대의 임연부일대, 묵정밭, 등산로 주변에서 뱀집개와 포충망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② 간접확인 방법

양서류(개구리類)는 주간보다 야간에는 논이나 밭 근처, 수로 그리고 웅덩이 등지에 모여 집단으로 울기 때문에 울음소리로 종을 식별하였다. 본 조사 기간 중에 채집 및 관찰이 불가능하였던 종들에 대해서는 백 · 심(1999)의 뱀(지성자연사박물관 ①)을 이용하여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청문을 통하여 종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③ 조류상

등산로와 계곡, 경작지 주변 그리고 하천과 호수 일대를 이동하면서 정점센서스(Point census)와 선조사법(Line census)에 의하여 좌우 폭 25m 범위내에서 쌍안경(Nikon 10x40 5.9°, 8x32 10°)을 사용하여 관찰하거나, 울음소리로 서식조류를 확인하였다. 한편 원거리의 조류는 Fieldscope(ED II, 30 x 60

Nikon)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4) 조사결과 및 고찰

① 양서 · 파충류상

각 3개 조사지점 중에서 파주에서는 양서류는 9종, 파충류는 12종, 연천에서는 양서류 9종, 파충류 8종 그리고 포천과 철원에서 양서류 10종, 파충류 9종을 확인하였으며, 그 목록과 개체수는 〈표 5〉와 같다.

양서 · 파충류 목록

Class 1. Amphibians(兩棲綱)
  Order 1. Caudata(有尾目)
    Family 1. Hynobiidae(도롱뇽科)
      1. *Hynobius leechii* (Boulenger) 도롱뇽
      2. *Onychodactylus fisheri* (Boulenger) 꼬리치레도롱뇽
    Order 2. Salientia(無尾目)
    Family 2. Discoglossidae(무당개구리科)
      3.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무당개구리
    Family 3. Hylidae(청개구리科)
      4. *Hyla japonica* Guther 청개구리
    Family 4. Bufonidae(두꺼비科)
      5. *Bufo bufo gargarizans* Cantor 두꺼비
      6. *Bufo stejnegeri* Schmidt 물두꺼비
    Family 5. Microhylidae(맹꽁이科)
      7. Kaloula borealis (Barbour) 맹꽁이
    Family 6. Ranidae(개구리科)
      8. *Rana nigromaculata* Hallowel 참개구리
      9. *Rana dybowskii* Gutherr 산개구리
      10. *Rana rugosa* Temminck & Schlegel 옴개구리(주름돌기개구리)
      11. *Rana amurensis coreana* Okada 아무르산개구리

Class 1. Reptiles(爬蟲綱)
  Order 1. Testudinata(거북目)
    Family 1. Emydidae(남생이科)
      1. *Chinemys reevesii* (Gray) 남생이

2. *Trachemys scripta elegans* 붉은귀거북(청거북 : 도입종)

Order 2. Squamata(有鱗目)

Suborder 1. Lacertilia(도마뱀亞目)

Family 2. Lacertilidae(장지뱀科)

3. *Takydromus amurensis* Peters 아무르장지뱀

4. *Takydromus wolteri* Fischer 줄장지뱀

5. *Eremias argus* Wiegmann 표범장지뱀

Family 3. Scincidae(도마뱀科)

6. *Scincella laterale laterale* (Say) 도마뱀

Suborder 2. Serpentes(뱀亞目)

Family 4. Colubridae(뱀科)

7. *Elaphe dione* (Pallas) 누룩뱀

8. *Elaphe rufodorsata* (Cantor) 무자치

9. *Elaphe schrenckii* Strauch 구렁이

10. *Di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Cantor) 능구렁이

11.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Boie) 유혈목이

12. *Amphiesma vibakari ruthveni* (Van Denburgh) 대륙유혈목이

Family 5. Viperidae(Crotalidae : 살모사科)

13. *Agkistoddon brevicaudus* Stejneger 살모사

14. *Agkistrodon ussuriensis* (Emelianov) 쇠살모사

15. *Agkistrodon saxatilis* Emelianov 까치살모사

파주 지역의 조사지점의 일대는 주로 저습지와 논이 형성되어 있어서 청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가 우점종을 이루고 있고, 이 3종에 의하여 차지하는 것은 이 3종의 양서류는 파충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원이되므로, 이 지역의 뱀류(蛇類)가 풍부하다고 판단된다. 이 조사대상지역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출입이 적고 농약에 의한 피해가 적어 전국적으로 희소한 무자치를 간혹 발견할 수 있어, 이 일대의 청정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1998년 1월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구렁이 1종이었고, 보호야생동물은 남생이(거곡리 어룡개저수지 일대)와 맹꽁이 2종이 출현하였다. 특이한 것은 보호야생동물인 맹꽁이가 통일촌 일대 저습지에서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외래도입종인 붉은귀거북이 임진강을 따라 장단반도 하류부에 까지 서식처를 넓혀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천군 일대에서 채집 및 관찰된 양서류는 9종, 파충류는 8종, 총 17종이었다. 민통선 이북 경기도지역의 양서 · 파충류의 서식현황을 조사한 바 강원도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종류가 경기도에서 관찰되지 않은 종류로는 꼬리치레도롱뇽으로 본 종은 고산지대의 산림이 무성한 계류에서 유생이 서식하며, 산림이 벌채

〈표 5〉 채집 및 확인된 양서 · 파충류 목록

종 명		조사지역별 개체군 현황			비 고
학 명	국 명	A지역	B지역	C지역	
Rana rugosa	옴개구리	A:5	A:7	-	
Hynobius leechii	도롱뇽	E:12	A:5	A:3,J:11	
Rana nigromaculata	참개구리	A:22	A:8	A:5	
Rana amurensis coreana	아무르산개구리	A:3	A:21	A:3	
Rana dybowskii	산개구리	A:10	A:32	A:31	
Hyla japonica	청개구리	S:23	S:7,A:4	A:5,S:4	
Bombina orientalis	무당개구리	A:4	A:49	A:56	
Kaloula borealis	맹꽁이	S:11	S:6	S:2	보호종
Onychodactylus fisheri	꼬리치레도롱뇽	-	-	A:3	
Bufo stejnegeri	물두꺼비	-	-	A:6	
Bufo bufo gargarizans	두꺼비	A:1	A:5	A:2	
Trachmys scripta elegance	붉은귀거북	A:4	-	-	
Chinemys reevesii	남생이	A:1	-	-	
Scincella laterale laterale	도마뱀	-	-	A:1	보호종
Takydromus wolteri	줄장지뱀	A:2	A:2	-	
Eremias argus	표범장지뱀	-	A:3	-	
Takydromus amurensis	아무르장지뱀	A:4	-	A:6	
Elaphe dione	누룩뱀	A:3	A:1	A:1	
Elaphe rufodorsata	무자치	A:1	A:2	A:1	
Elaphe schrenckii	구렁이	A:2	-	H:1	멸종위기종
Dinodon r. rufozonatus	능구렁이	A:1	H:1	-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유혈목이	A:1	A:4	A:6	
Amphiesma v. ruthveni	대륙유혈목이	A:1	-	-	
Agkistrodon brevicaudus	살모사	A:1	H:1	A:1	
Agkistrodon ussuriensis	쇠살모사	A:2	A:1	A:1	
Agkistrodon saxatilis	까치살모사	-	-	H:1	보호종
총 계		21종	17종	19종	

10 〈 : Below 10 individuals(10개체 이하), 10 〉 : Above 10 individuals(10개체 이상)
A:Adult(성체) T:Tadpole(올챙이) J:Juvenile(유생) H:Heard the evidence(청문) S:Heard the song(울음소리)
※ A지역:파주일대, B지역:연천, C지역:포천 · 철원

되어 계곡의 물이 마르게 되면 유생은 많은 산소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살 수 없으므로 자연림이 벌채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종류가 경기도에는 서식하고 있는 종은 맹꽁이로 본 종은 탐문조사에 의하면 여름철 첫 장마기에 도로변 수로나 밭주변의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파충류는 고산성인 까치살모사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희소종

에 속하는 대륙유혈목이와 실뱀도 관찰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양서류는 참개구리가 우점종이고 다음으로 청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옴개구리 순이었고 산개구리는 희소하였다. 파충류는 타지역에서는 희소종에 속하는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등이 관찰되었고, 유혈목이, 누룩뱀, 쇠살모사, 무자치, 살모사, 능구렁이 순으로 우세하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구렁이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포천 · 철원지역에서 관찰 및 확인된 양서류는 10종이었고 파충류는 9종이었다. 양서류의 경우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식함이 확인되었으나 전 지역에 고루 서식하는 종은 없었다. 파충류의 경우 청문조사에 의해 누룩뱀, 유혈목이, 까치살모사 등이 서식함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지역에 출현한 종 중에서 멸종위기종은 구렁이 1종이었으며, 보호야생동물은 맹꽁이와 까치살모사 등 2종이었다. 한편 3개 조사지역의 출현종을 비교하여 보면 까치살모사, 꼬리치레도롱뇽, 물두꺼비 그리고 도마뱀 등 4종은 포천과 철원지역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들 4종은 산간 고지대형으로 여타의 지역에 비하여 해발고도가 높은 포천과 철원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다. 또한 붉은귀거북, 남생이 그리고 대륙유혈목이는 저지대의 저습지와 호수에 서식하는 종으로 파주지역에서만 발견되었으며, 표범장지뱀은 연천 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② 조류상

조류상은 한강하구와 임진강하구, 철원 그리고 파주시 군내면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의 결과는 겨울철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사결과와 임업연구원(1997, 1998)의 겨울철 조사결과를 종합 · 정리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체수의 기록은 결과분석을 위하여 생략하였으며, 확인여부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한강 · 임진강 하구일대에서 관찰된 조류는 65종이었다. 한강하구는 1970년대까지는 1,000여개체 이상의 재두루미가 월동 또는 통과장소로 이용하였으나, 한강상류에 팔당댐의 건설과 홍수시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둑으로 인하여 유량 및 염도의 변화에 따라 식생이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두루미가 월동할 수 있는 서식지로서의 조건들이 상실되어 이 지역에 도래하는 대규모의 재두루미는 우리 나라를 떠나 먼 일본의 이즈미지방으로 월동지를 바꾸게 되었다. 조사기간 중에 관찰된 맹금류는 흰꼬리수리, 흰죽지수리, 검독수리, 독수리, 말똥가리, 새매,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등이었으며, 맹금류는 전세계적으로 총기의 개발과 성능 개량으로 감소되고, 농약 등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죽은 먹이를 먹고 2차 피해를 받는다. 중독, 중금속과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체내 축적으로 인한 번식력 저하, 서식처 파괴 등으로 최근에 이르러 많은 종의 밀도가 격감하고, 일부 종들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들 맹금류를 관찰하기가 어렵지만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서는 많은 종과 개체수를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이 총과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 왔으며, 1997년 2월 2일 파주 임진강변에서 독수리 29마리가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에 의하여 중독되어 2마리는 극적으로 회생하였으나, 나머지는 희생되었다. 철원지역에서는 95종의 조류가 기록되었으며, 철원의 아이스크림고지에서 천연기념물 324호인 소쩍새가 확인 되었으며, 토교저수지 산림내에서 희귀한 여름철새인 삼광조를 확인하였는데, 이 조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Data

〈표 6〉 각 조사지역의 조류 목록 및 특이사항

종 명	조사지역별 조류 현황			비 고
	한강 · 임진강하구	철 원	파주 군내면	
논병아리	●	●	●	
뿔논병아리	●	●	-	
왜가리	●	●	●	
쇠기러기	●	●	●	
큰기러기	●	●	●	
개리	●	-	-	천연기념물 325호
카나다기러기	●	-	-	
황오리	●	-	-	
청둥오리	●	●	●	
흰뺨검둥오리	●	●	●	
쇠오리	●	●	●	
홍머리오리	●	-	●	
고방오리	●	-	-	
넓적부리	●	-	-	
흰죽지	●	-	-	
흰뺨오리	●	-	-	
흰비오리	●	●	●	
흰꼬리수리	●	●	●	천연기념물 243호
새매	●	-	-	천연기념물 323호
말똥가리	●	●	●	
잿빛개구리매	●	●	●	천연기념물 323호
꿩	●	●	●	
재두루미	●	●	●	천연기념물 203호
댕기물떼새	●	-	-	
재갈매기	●	-	-	
괭이갈매기	●	-	-	
멧비둘기	●	●	●	
박새	●	●	●	
쑥새	●	●	●	
노랑턱멧새	●	●	●	
참새	●	●	●	
어치	●	●	●	
까치	●	●	●	
까마귀	●	●	●	
큰부리까마귀	●	●	●	

종 명	조사지역별 조류 현황			비 고
	한강 · 임진강하구	철 원	파주 군내면	
흑두루미	●	●	-	천연기념물 228호
쇠백로	●	●	-	
댕기흰죽지	●	●	-	
비오리	●	●	●	
개꿩	●	-	-	
학도요	●	-	-	
마도요	●	-	-	
붉은부리갈매기	●	-	-	
황조롱이	●	●	●	천연기념물 323호
직박구리	●	●	-	
때까치	●	●	-	
후투티	●	●	-	
알락할미새	●	-	-	
노랑지빠귀	●	●	-	
굴뚝새	●	-	-	
멧종다리	●	●	-	
쇠박새	●	●	●	
진박새	●	●	-	
오목눈이	●	●	-	
오색딱다구리	●	●	-	
쇠딱다구리	●	●	-	
아물쇠딱다구리	●	-	-	
긴꼬리양진이	●	●	-	
홍방울새	●	-	-	
콩새	●	●	-	
방울새	●	●	-	
되새	●	-	-	
중백로	-	●	-	
중대백로	-	●	-	
검은댕기해오라기	-	●	-	
흰날개해오라기	-	●	-	
흰기러기	-	●	-	
큰고니	-	●	●	천연기념물 201호
쇠물닭	-	●	-	
뜸부기	-	●	-	
두루미	-	●	-	천연기념물 202호

종 명	조사지역별 조류 현황			비 고
	한강 · 임진강하구	철 원	파주 군내면	
검은목두루미	-	●	-	
검독수리	●	●	-	천연기념물 243호
흰죽지수리	-	●	-	
조롱이	-	●	-	
쇠황조롱이	-	●	-	
꼬마물떼새	-	●	-	
청다리도요	-	●	-	
파랑새	-	●	-	
흰눈썹황금새	-	●	-	
뻐꾸기	●	●	-	
두견이	-	●	-	
매사촌	-	●	-	
개개비	-	●	-	
청호반새	-	●	-	
호반새	-	●	-	
물총새	-	●	-	
청딱다구리	-	●	●	
칡때까치	-	●	-	
노랑때까치	-	●	-	
할미새사촌	-	●	-	
소쩍새	-	●	-	천연기념물 324호
종다리	-	●	●	
물까마귀	-	●	-	
쏙독새	-	●	-	
곤줄박이	-	●	-	
울새	-	●	-	
흰배지빠귀	-	●	-	
삼광조	-	●	-	
되지빠귀	-	●	-	
검은딱새	-	●	-	
딱새	-	●	●	
큰유리새	-	●	-	
쇠유리새	-	●	-	
숲새	-	●	-	
산솔새	-	●	-	
제비	-	●	-	

종 명	조사지역별 조류 현황			비 고
	한강 · 임진강하구	철 원	파주 군내면	
귀제비	-	●	-	
붉은머리오목눈이	-	●	●	
꾀꼬리	-	●	-	
북방검은머리쑥새	-	●	●	
찌르레기	-	●	-	
멧새	-	●	-	
물까치	-	●	-	
큰부리까마귀	-	●	-	
독수리	●	●	●	천연기념물 243호
황새	-	-	●	천연기념물 199호
원앙	-	-	●	천연기념물 327호
고니	-	-	●	천연기념물 201호
메추라기	-	-	●	
알락오리	-	-	●	
쇠검은머리쑥새	-	-	●	
총 계	65종	95종	39종	

Book)에 등재된 희귀한 조류이다. 파주 군내면에서는 39종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 고니 그리고 독수리(천연기념물 243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호),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호) 등 5종의 희귀 맹금류가 관찰되어 이곳이 두루미류 뿐만 아니라 맹금류의 도래지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3) 보호 및 관리방안

(1) 양서 · 파충류

① 산란지 유지 및 보호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생물이 속한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전제조건이었으나, 무엇보다 식물과 동물의 큰 차이는 자연상태에서 식물은 정주성인 반면 동물은 이동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학술적인 연구나 야생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접근방법에 상당한 차이를 초래한다. 즉 동물은 일정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먹이나 번식을 위해 서식지를 달리하여 생존의 필요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한다. 생태계에서 동물은 소비자로 그 먹이를 생산자인 식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식생형이 같다고 반드시 동물상이 같은 것은 아니어서, 동물

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물상까지도 대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해서는 종의 분포지에 관한 자료이외에 지형적인 분포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양서 · 파충류는 생태계내에서 식물연쇄, 에너지의 흐름과 개체군의 크기조절 등에서 서로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들의 생태적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식지에서는 해충을 포식함으로서 인간에게도 유익한 역할을 하여 상당한 보호가치가 있다. 양서 · 파충류의 주요 서식지는 종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서류의 경우 평지의 밭, 논과 수로, 풀밭과 저지대의 물이 고여 있는 곳, 그리고 자연림이 잘 보전된 계류가 있는 곳이며, 파충류는 저지대 인간 부근의 돌담과 초원, 잡초가 무성한 곳, 그리고 고지대의 바위가 있는 곳으로 대부분 서식지가 인간이 생활하는 곳과 인접하고 있어 항상 인간의 위협에 도사리고 있다. 주요 감소원인은 농약과 비료사용에 의한 산란지의 오염과 유생의 감소, 도시팽창에 따른 토지개량과 도로확장에 의한 서식지 감소, 쓰레기의 습지 매립, 식용과 약용을 목적으로 한 포획 등이다. 특히, 양서 · 파충류는 야생동물 중에서 환경변화에 가장 위약하여 최근 급속한 농지와 습지 및 산림에서의 토지 용도의 변경에 의한 서식지 제거나 분할은 양서 · 파충류의 생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하천의 개 · 보수(하천정비)로 인하여 유발되는 생물다양성의 감소(곤충상과 먹이사슬 붕괴)는 수변을 주거지로 서식하고 산란하는 양서류와 파충류의 서식공간의 파괴는 실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들의 알이나 유생들은 그러한 서식지 변화로부터 피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서 수로나 저수지의 수위변경과 같은 일시적인 서식지 상실에서 산란지를 상실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서 · 파충류는 생태계의 먹이연쇄에서 서로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을 같고 있어, 생태계 전체에서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이들의 서식지는 필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들의 생존은 서식지에 좌우된다. 서식지 보전의 1차적인 목적은 토지의 사용에서 유해한 변화를 최소화 하기위한 서식지의 안전조치이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오염에 의한 서식지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인간에 의한 답압이나 침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행로의 보호방책설치와 산란장소의 출입금지, 서식지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둑의 설치 그리고 새로운 산란장소의 제공 등이다.

② 이동통로 조성 : 도로옆 배수로에 이동통로 조성

도로가 논이나 하천구간을 통과할 때 콘크리트 구조물이 쌓이게 되어 도로 상 · 하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생물이동에 장애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도로개설시 주로 하천변을 따라 설치되어 있어 집중 강우시 토사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계 전체의 생태변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3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경에 2차례에 걸쳐 산개구리 그리고 두꺼비가 산란을 위하여 동면장소에서 적당한 웅덩이 혹은 수계의 정체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동면장소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포장된 도로위에 치어 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포장과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시에는 필히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이동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설도로 설치에 있어서 완화(Mitigation)하는 접근방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을 조사하고 노선을 우회하거나 터널화,


〈그림 9〉 도로옆 배수로에 설치할 이동통로

교량화를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개별적 생물서식공간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기능에 따라 큰 핵(Core), 작은 거점(Point), 연결통로(Corridor), 이동을 위한 디딤돌(Stepping stone), 그리고 생태적인 섬(Ecological island)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결통로에는 중심서식지(Core habitat)가 없는 선형통로(Line corridor)와 내부에 풍부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중심서식지를 포함할 수 있는 대상통로(Strip corridor)로 구분되어 진다. 양서류와 파충류는 선형통로의 유형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나 생존률 효과면에서도 유용할것이다(그림 9).

(2) 조류

한강하구 및 임진강하구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완벽하게 통제된 지역이므로 특별한 방해요인이나 위협요인은 찾을 수 없었으나, 파주는 최근 경의선 국도와 철도 복구를 위한 공사로 지뢰제거를 위한 거대한 굉음과 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겨울철 두루미류의 월동에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철원분지는 1988년 안보관광지로 개발되어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3번 국도가 준공되었고, 기존 도로의 확충 및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어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등 여러가지 잠재적인 방해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조류의 월동 시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조류의 주 먹이먹는 장소와 휴식지부근에 대한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규제해야하고 도로와 두루미의 서식지사이에 관목이나 키가 큰 초본을 식재하여 은폐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철원지역의 경우 세계적인 희귀조인 두루미, 재두루미가 월동하며, 이동경로상 재두루미의 중간 기착지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이 지역에 불고 있는 개발과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보호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두루미류와 기러기류의 보호시설인 보호지역 조성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1) 양서 · 파충류상

① 파주일대에서는 양서류는 9종, 파충류는 12종, 총 22종으로 청개구리, 참개구리 그리고 산개구리가

우점종을 이루고 있었다. 멸종위기종은 구렁이 1종이었고, 보호야생동물은 남생이와 맹꽁이 2종이 출현하였다. 특이한 것은 보호야생동물인 맹꽁이가 통일촌 일대 저습지에서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② 연천군 일대에서 채집 및 관찰된 양서류는 9종, 파충류는 8종이었다. 파충류는 고산성인 까치살모사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희소종에 속하는 대륙유혈목이와 실뱀도 관찰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양서류는 참개구리가 우점종이고 다음으로 청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옴개구리 순이었고 산개구리는 희소하였다. 파충류는 타지역에서는 희소종에 속하는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등이 관찰되었고, 유혈목이, 누룩뱀, 쇠살모사, 무자치, 살모사, 능구렁이 순으로 우세하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구렁이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③ 포천 · 철원지역에서 관찰 및 확인된 양서류는 10종이었고 파충류는 9종이었다. 양서류의 경우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식함이 확인되었으나 전 지역에 고루 서식하는 종은 없었다. 파충류의 경우 청문조사에 의해 누룩뱀, 유혈목이, 까치살모사 등의 3종이 전 조사지역에 서식함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지역에 출현한 종 중 멸종위기종은 구렁이 1종이었으며 보호야생동물은 맹꽁이와 까치살모사 2종이었다.

(2) 조류상

① 한강 · 임진강 하구일대에서 관찰된 조류는 65종이었다. 한강하구는 1970년대까지는 1,000여개체 이상의 재두루미가 월동 또는 통과장소로 이용하였으나, 한강상류에 팔당댐의 건설과 홍수시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둑으로 인하여 유량 및 염도의 변화에 따라 식생이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두루미의 월동서식지로서의 조건들이 상실되어 이 지역에 도래하는 대규모의 재두루미는 우리나라를 떠나 먼 일본의 이즈미지방으로 월동지를 바꾸게 되었다.

② 철원지역에서는 95종의 조류가 기록되었으며, 철원의 아이스크림고지에서 천연기념물 324호인 소쩍새가 확인 되었으며, 토교저수지 산림내에서 희귀한 여름철새인 삼광조를 확인하였는데, 이 조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에 등재된 희귀한 조류이다.

③ 파주 군내면에서는 39종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 고니 그리고 독수리(천연기념물 243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호),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호) 등 5종의 희귀 맹금류가 관찰되어 이곳이 두루미류 뿐만 아니라 맹금류의 도래지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5) 법적보호종, 희소종 및 유해종의 현황

이름 맹꽁이
(환경부 보호야생동물)
학명 *Kaloula borealis*
영명 Narrow-mouth frog
형태 주둥이는 짧고 작으며, 맨 끝이 약간 둔하면서 뾰족하게 되어있고 아래입술보다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어있다. 울음주머니는 현저하며 아래턱의 앞쪽 가까이에 1개의 울음주머니가 있다. 동공은 흑색이며 타원형이고, 홍채는 흑색이며 황금색의 가루를 바른것 처럼 보인다. 각막은 은백색이다. 전체 몸의 형태는 팽배되어 있다.


〈사진 5〉 맹꽁이

크기 45㎜.
생태 이 종의 알과 생태에 대하여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만 산란된 알덩어리는 4개 정도가 서로 붙어있다. 과거 도시 근교와 농촌 등지에서 장마철이 되면 "맹 맹"하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으나, 도시화와 농지의 개량으로 논둑 및 웅덩이가 없어지고 농약의 살포 등으로 급격히 감소 되어 최근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들은 구멍을 파고 살거나 흩어진 낙엽 속에 산다. 이 개구리들은 큰 비가 내리면 번식을 시작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늪지에 알을 낳는다. 올챙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만약 충분한 양의 먹이가 공급되면 12일 만에 완전히 자란다.
분포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과 만주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 파괴로 점차 개체군이 줄어들어 비무장지대와 몇몇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
방언 쟁기발개구리

이름 붉은귀거북(유해 동물)
학명 *Trachemys scripta elegans*
영명 Red-eared turtle
형태 어린 유생이나 성체의 눈뒤 머리측면 양쪽에 선명한 붉은 반점과 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붉

은귀거북"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사진 6〉 붉은귀거북

크기 등껍질의 길이는 12~20㎝이며, 최대 28㎝정도 되는 것도 있다.

생태 몸무게는 1년생은 30g정도이지만 성체가 되면 1.4㎏ 내외가 되며, 몸집의 크기도 20배 이상이 된다(이 정도로 성장할려면 얼마 만큼의 먹이를 먹어야 할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등껍질의 색은 녹색이며, 배껍질은 황색의 검은 반점이 있다. 상악골 앞의 V자 모양의 윗입술판은 아래입술을 덮고 있으며, 수온이 18~28℃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연못, 저수지 등지에서 주로 소형어류, 수서곤충, 수초 등을 먹고 살며, 사육시에는 인공사료도 먹는다. 산란시기는 4월에서 7월까지이며, 2~22개의 타원형의 알을 1~5회 걸쳐 모래 혹은 연한 토양을 파고 그 속에 산란한다. 수명은 20년 내외이고, 사육실에서는 37년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다.

국내분포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 어느 곳이나 하천, 호수, 저수지 그리고 도심공원내의 연못 등지에 살고 있다. 붉은귀거북은 내성이 강하여 3~4급수의 수질에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전역에 분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외분포

원래 미국 미시시피 계곡일대가 이 종의 원산지이며, 미국 동 · 남부에 걸쳐서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방언 청거북

참고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후반에 애완용과 불교신자들의 방생용으로 수입되면서 전국에 걸쳐 분포하면서 국내에는 천적이 없는 관계로 서식처내에서 우리 나라 고유 어류와 수서곤충, 미국붉은가재(용산가족공원에 서식) 등을 잡아먹고 있어, 호소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붉은귀거북의 분포를 우리 근처에서 둘러보면 서울도심의 비원, 경복궁, 국립묘지 등지의 호수와 연못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에는 20~30마리가 서로 일광욕을 하기 위하여 호수 한가운데 돌위에 무더기로 올라온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난지도를 중심으로 하류지역(방화대교 공사장 일대)에의 저습지 웅덩이에는 하루에 50여 마리를 관찰 할 수 있다.

이름 아무르산개구리
(한국 고유아종)
학명 *Rana amuriensis coreana*
영명 Korean redfrog
형태 몸은 진한 갈색이고 앞 · 뒤 양다리는 색이 연하다. 뒷다리에는 흑색 띠모양의 무늬가 가늘개 여러개가 있는데 넓적다리에는 7~8줄, 정강이에는 6~8줄이 있다. 고막은 원형이며 눈지름의 2/3보다 작다. 흡사 산개구리의 유생처럼 착각할 정도로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산개구리보다는 체구가 적다.


〈사진 7〉 아무르산개구리

크기 20~25㎝.
생태 몸은 진한 갈색이고 앞 · 뒤 양다리는 색이 연하다. 뒷다리에는 흑색 띠모양의 무늬가 가늘개 여러개가 있는데 넓적다리에는 7~8줄, 정강이에는 6~8줄이 있다. 고막은 원형이며 눈지름의 2/3보다 작다. 흡사 산개구리의 유생처럼 착각할 정도로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산개구리보다는 체구가 적다. 배는 진한 갈색이고 가장자리에 검은색의 무늬가 있으며 고막에서 코밑까지 검은 줄이 있다. 등옆의 튀어나온 부분은 윗거풀이 뒤쪽을 향하여 솟아나 고막이 있는 등쪽에서 약간 구부러져 있으며 뒤쪽 가장자리에서 다기 정가운데 선을 향하고 항문 바로 앞에 나란히 뻗어 있다. 산개구리와 모양이 비슷하나 크기가 작고 몸이 날씬하다.
분포 한국에서는 남서부에서는 산지, 북부에서는 평지의 습지 부근에 서식하며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다.
방언 붉은개구리

이름 표범장지뱀(희소종)
학명 *Eremias argus*
영명 Korean tiger Lizard
형태 몸 등면의 비늘은 작고 알맹이 모양이며, 표면이 평활하다. 등쪽은 호랑이 무늬 모양으로 얼룩반점이 8~14개 정도 나있고 네다리에도 동그란 얼룩무늬가 퍼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윗입술판은 8개이고, 아래입술판은 6개이다. 머리의 양쪽에는 황색의 가는 줄이 있다. 비늘에는 용골이 없다. 발톱은 끝이 날카롭고 잘 발달되어 있다. 서혜인공은 좌우 11쌍이다. 몸통 비늘줄은 46~62개이며, 전항판은 불규칙한 모양으로 작으며 여러개가 있다.
크기 성체가 되면 15~20㎝ 정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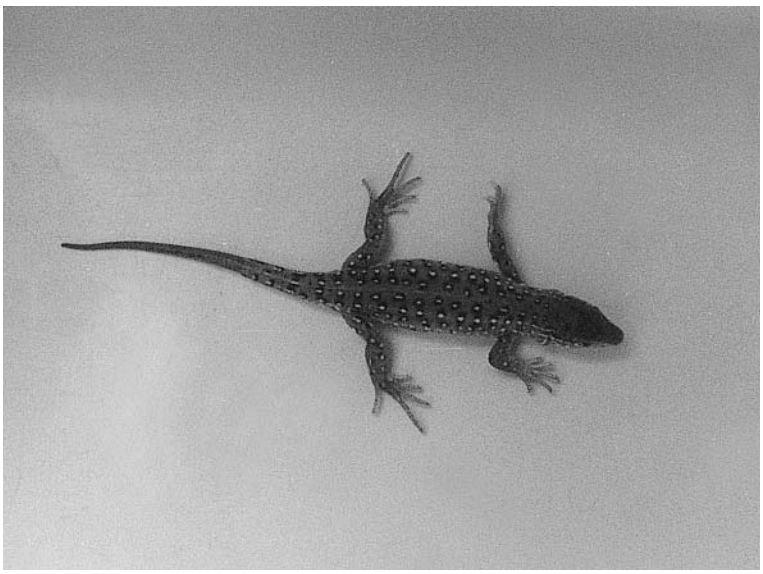
생태 주로 강변의 풀밭, 모래, 돌밑 혹은 흙속에 구멍을 파고 생활한다. 행동이 민첩하며 소형 곤충을 포식한다.

국내분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모래땅으로 된 넓은 경작지 그리고 해안사구 등지에서 드물데 발견되는 우리나라 희소종이다.

국외분포

한국, 만주, 몽고, 중국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사진 8〉 표범장지뱀

참고 최근 해안개발과 서식처 파괴로 점차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름 구렁이
(환경부 멸종위기종)

학명 *Elaphe schrenckii*

영명 Rat snake

형태 보통 등면은 녹색을 띤 황갈색으로 중앙부분에서부터 점차로 흑갈색의 가로무늬가 발달하여 뒤쪽으로 갈수록 뚜렷하여 진다. 이들 가로 무늬는 3~4개의 비늘에 걸쳐 비스듬이 이루어져 있다. 배면은 황색이고, 흑색 점무늬가 산재되어 있다. 몸통 비늘은 목부분에서 몸통부분 중앙에 이르기까지 23줄이 있고, 뒤쪽에는 21줄, 꼬리 부근에는 19줄로 된다. 등면중앙에서 용골은 현저하며, 점차로 소실되어 바같족의 4~5줄은 평활하다. 배판은 208~226개이고, 꼬리판은 61~76쌍이 있다.



〈사진 9〉 구렁이

크기 110~200㎝.

생태 구렁이(Elaphe schrenckii)는 한국에서 서식하고 있는 뱀 중에서 가장 크고, 서식지가 주로 민가 부근이기 때문에 남획으로 인하여 매년 그 수가 격감되고 있는 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2가지 형

태의 구렁이가 발견되는데, 한 종을 먹구렁이(Black type rat snake)라고 하며, 다른 한 종을 황구렁이(Yellow type rat snake)라 한다. 이 type의 유전적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나, 서식장소(먹구렁이:야산일대, 황구렁이:민가근처)의 서식처 차이로 보아 생식적격리 및 종분화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 분류학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沈, 1997). 食性조사(Stomach contents) 결과 월별로 차이는 있으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이고 조류의 번식기인 5월에는 포유류 57%, 조류 43%였고, 6월은 포유류 83%, 양서류 17%였고, 7~10월에는 포유류 100% 뿐 이었다. 구렁이의 먹이를 총계 한 결과 설치류 86%, 참새 11%, 개구리 3%로서 농사에 해를 주는 참새, 설치류를 구제해 줌으로서 그 역할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분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개체수는 적은 편이다

국외분포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중국북부, 러시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방언 진대, 흑질백질, 황구렁이, 먹구렁이, 흑지리

이름 남생이
(환경부 보호야생동물)

학명 *Chinemys reevesii*

영명 Reeve's turtle



〈사진 10〉 남생이

형태 등껍질은 진한 갈색이고, 각 껍질의 가장자리는 황색의 가는 띠로 되어 있으며, 부분에 따라서는 뚜렷하지 않은 흑색의 무늬가 있다. 등쪽의 껍질은 긴 타원형이며, 네다리에는 폭이 넓은 비늘조각이 있다. 알은 백색 혹은 황백색이다. 갑의 언저리는 약간 매끄럽게 되어있고, 뒷 가장자리는 요철이 있다. 네 다리에는 폭이 넓은 비늘조각을 가지고 있으며, 물갈퀴는 잘 발달하였다. 특히 뒷다리는 각 발가락의 끝부분에 도달하고 있다. 꼬리는 앞끝 부분이 약간 세로로 길게 되어 있다.

크기 성체의 껍질 길이는 15~25㎝ 정도이며, 간혹 30㎝ 정도도 발견된다.

생태 6~8월경에 물가의 모래위에 구멍을 파고 5~15개의 알을 낳는다. 성질이 온순하여 사람에게 길이 잘들어 애완동물로도 이용되지만, 겨드랑이밑샘(腋下腺)이나 사타구니밑샘(鼠蹊腺)에서 악취가 난다. 잡식성으로 어류, 수서곤충, 수초 등을 먹고 산다.

국내분포

우리나라 모든 하천, 강 호수 등지에 살고 있으나, 최근 하천개발에 의한 하상구조의 변화 모래와 자갈채취 등으로 산란장소의 붕괴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종이다.

국외분포

구북구계에 속하며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등지에 서식하고 있다.

방언 민물거북

이름 까치살모사
(환경부 보호야생동물)

학명 *Agkistrodon saxatilis*

영명 Short tailed viper snake

형태 살모사(Agkistrodon brevicaudus)나 쇠살모사(Agkistrodon usssuriensis)에 비하여 몸이 굵고 꼬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등에는 황갈색 바탕에 42~60개 정도의 암갈색의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에는 대리석상의 무늬가 있다. 정수리에는 거꾸로된 V자 모양의 무늬가 있고, 눈에서 목까지 흰선이 없는 것이 살모사와 구별된다. 배의 비늘수는 142~160개, 꼬리밑의 비늘수는 41~47개 정도이다.



〈사진 11〉 까치살모사

크기 80~90㎝.

생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안면도, 제주도에는 서식하고 있지 않다. 주로 산림주변의 계류나 고산지대에 서식하고 있으며, 야행성으로 들쥐, 다람쥐, 개구리 등을 포식한다. 살모사, 쇠살모사와 마찬가지로 맹독성의 독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결과 두 종의 살모사類와는 달리 수 분내에 치사되는 투명하고 하얀색의 신경성독(Neurotoxin)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살모사類들 중에서 가장 개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뱀 수집상들에게 고가에 매매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 남획되어 가고 있어 개체군이 점차 줄어들어 절대적인 보호를 요하는 종이다.

국내분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골고루 고지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국외분포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중국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방언 칠점사, 칠점백이

3. 임진강유역의 어류

1) 서 론

하천 생태계는 육상생태계와는 다르게 물 요소에 의한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 생태계이다. 물은 비열이 높아 온도의 변화가 적고 각종 물질을 녹이며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하천 생태계는 바닥에 암반, 돌, 자갈, 모래, 뻘 등의 구성비를 달리하며 서식처 환경이 매우 다양한 여울과 소의 연결체이며 그 속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요소 또한 종다양성이 높은 생명체의 요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먹이 단계가 매우 복잡하며 그 결과 자정작용은 매우 높으나 서식처 파괴나 수질오염 등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생물군집 구조가 쉽게 변화하게 되는 역동적인 생태계이다. 또한 어류는 하천생태계의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 단계에 위치하므로 환경파괴에 따른 생물군집 변화를 가장 민감하고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어 줌으로서 환경평가의 지표가 되는 생물분류군이 되고 있다. 어류는 하천 유역에 생활하는 사람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조 때부터 전해오는 식생활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하천 유역에 펼쳐지는 유적과 어업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조사는 임진강 유역의 어류상, 각 어종의 개체수 구성비, 우점종, 희귀종, 보호를 요하는 종 및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조사 기간

조사기간은 2000년 4월에서 2000년 11월까지이며 각 조사지점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지점

임진강 유역의 어류상과 어류군집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강원도 철원군 일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은 다음과 같다. 파주시에서는 임진강 본류, 문산천, 곡릉천,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규모 지천을 함께 조사하였다. 연천군의 경우 한탄강 본류, 차탄천,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규모 지천을 조사하였다. 포천군의 경우 영평천, 한탄강 본류을 조사하였고 철원군의 경우 한탄강 수계, 김화 남대천 수계를 조사하였다. 조사 지점은 총 34개 지점이었다.

① 파주시 권역

문산천 수계

지점 1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지점 2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지점 3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백석리
지점 4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곡릉천 수계
지점 5 :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지점 6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지점 7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규모 지류
지점 8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운리
지점 9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지점 10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지점 11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지점 12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읍내리
지점 13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임진강 본류
지점 14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② 연천군 권역
한탄강 본류
지점 15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문리

차탄천
지점 16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지점 17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지점 18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신탄리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규모 지류
지점 19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③ 포천군 권역

영평천 수계

지점 20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지점 21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야미리

지점 22 :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오주리

지점 23 :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

한탄강 본류

지점 24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리

지점 25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지점 26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

④ 철원군 권역

한탄강 수계

지점 27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지점 28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지점 29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동막리

지점 30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김화 남대천 수계

지점 31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지점 32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지점 33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지점 34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도창리

3) 조사방법

(1) 어류 채집

어류의 채집에는 각 조사정점의 특징에 따라 각종의 그물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그물의 종류와 망목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투망(망목 6×6㎜), 족대(망목 4×4㎜), 정치망(20×20㎜) 등을 이용하였다.

(2) 종의 동정

채집된 어류는 채집 즉시 현장에서 10% 포르말린용액으로 고정한 다음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어종의

동정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검색표(內田, 1939; 정, 1977; 김, 1984, 1988; 김 등, 1985; 이, 1988; 손, 1987; 정, 1977; 전, 1980, 1983, 1984, 1986, 1987, 1989; 최 등, 1990; 김 · 강, 1993)에 의거하였으며 학명의 적용과 어류목록의 배열순서 및 생태구분 등은 97 환경부 제 2차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지침에 따랐다.

4) 결과 및 고찰(본론)

(1) 어류의 분포 및 서식현황

① 어류상

임진강 유역의 각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된 어류는 총 19과 70종이 출현하였다(표 7). 이 중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종은 어름치 1종(1.4%)이 출현하였다. 어름치는 임진강과 한탄강 본류역에서 소수 출현하였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은 없었고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은 묵납자루, 두우쟁이 2종(2.9%)이었다. 묵납자루는 한탄강 본류역에 소수 출현하였고 김화 남대천의 본류역과 지류에서는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였다. 환경부 조사지침서에 명시된 희귀종에 속하는 종은 돌상어 1종이었다. 돌상어는 한탄강 본류역 중 유속이 매우 빠르고 하상에 자갈과 돌로 구성된 곳에서 소수 출현하였다. 출현한 어종을 생활형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차담수어 52종(종구성비; 74.3%), 주연성 어류 17종(24.3%), 이차담수어는 대륙송사리 1종(1.4%)으로 일차담수어가 가장 많았으나 주연성 어류의 출현도 많았다. 이는 임진강 하류역이 조사 지점에 포함되어 있고 하류에 대형 댐이나 보가 없어 기수역이나 연안에 서식하는 각종 주연성 어류가 자유롭게 하류역으로 회유하여 서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입어종은 떡붕어, 파랑볼우럭, 큰입우럭 등 3종 출현하였다. 떡붕어는 1970년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어종으로 임진강을 포함한 전국의 호수와 저수지 등 남한 전 수역에 분포하고 있다. 본 종은 토착어종인 붕어와 먹이 경쟁에서 유리하고, 성장이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또한 수질악화와 수환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임진강 수역에서는 본류를 중심으로 토착어종인 붕어의 개체군이 감소하고 떡붕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수량이 적고 유속이 다소 빠른 소규모 지류에서는 아직까지 붕어가 우세하게 서식하고 있다. 파랑볼우럭(블루길)은 1969년 수산청에서 일본 Osaka로부터 시험양식을 위해 치어 510 마리를 도입하였다(鄭, 1977). 그 후 팔당호에 방류한 후 급격히 서식처를 넓히고 개체수를 증가하여 지금은 팔당호(20.6%), 소양호(14.6%), 안동호(24.23%), 대청호(20.1%) 등지에서 우점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도서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하천수계에서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孫, 1991; 변과 전, 1987; 양 등, 1997). 본 조사에서는 한탄강 본류에서 소수 출현하였다. 큰입우럭(배스)은 북미원산으로 1973년 미국 Louisiana로부터 치어 500마리를 도입한 것이 최초이며 현재에는 스포츠 낚시 대상어종으로 전국의 대형 댐이나 저수지, 하천 하류 등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본 종의 생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호수의 수심이 얕고 수초가 무성한 가장자리와 하천에서는 유속이 느리고 수초가 무성한 곳에 서식한다. 어릴 때는 주로 동물성플랑크톤을 먹으며 성체가 되면 수서곤충, 새우류, 연체동물, 어

류 등을 먹으며, 먹이 중 어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강한 육식성이다. 체장이 10㎝ 정도가 되면 어류의 새끼를 잡아먹기 시작한다. 산란시기는 3~4월, 수컷은 수심 1~1.5m 깊이의 모래나 자갈 바닥에 사발 모양의 산란장을 만들며 알과 치어를 보호한다. 식성에 있어 강한 육식어종(어식성)으로 토착 소형 어종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개체군 동태 파악이 중요시된다. 본 조사에서는 한탄강, 영평천, 김화 남대천 본류역에 분포하며 임진강 수계에 있어 최근 들어 분포지와 서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고유종은 각시붕어, 줄납자루, 묵납자루, 가시납지리, 쉬리, 중고기, 참중고기, 가는돌고기, 몰개, 긴몰개, 어름치, 돌마자, 배가사리, 경모치, 돌상어, 새코미꾸리, 참종개, 퉁가리, 눈동자개, 꺽지, 얼룩동사리 등 21종(30.0%)이었다. 한반도고유종은 현재 49종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강에서 출현한 21종은 전체 고유종의 42.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고유종의 존재는 해당 지역의 생물상을 특징짓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조사 지역은 임진강 유역의 반적인 어류상 특징을 판단하기에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전, 1980). 각 조사 권역별 출현 어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임진강 유역의 어류상

표 준 명	학 명	파 주 시	연 천 군	포 천 군	철 원 군	구성비 (%)	비 고
칠성장어과	Petromyzonidae						
다묵장어	*Lampetra reissneri*				2	0.02	주, 보
뱀장어과	Anguillidae						
뱀장어	*Anguilla japonica*	6				0.1	주
멸치과	Engraulidae						
웅어	*Coilia ectens*	17				0.2	주
잉어과	Cyprinidae						
잉어	*Cyprinus carpio*	10	9	4	6	0.3	일
붕어	*Carassius auratus*	231	28	2	42	3.3	일
떡붕어	*Carassius cuvieri*	74		6		0.9	일, 도
피라미	*Zacco platypus*	554	477	787	829	28.8	일
갈겨니	*Zacco temmincki*	89	174	72	168	5.5	일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19	8	7	1	0.4	일
버들개	*Moroco(Phoxinus) lagowskii*				101	1.1	일
버들치	*Moroco(Phoxinus) oxycephalus*	35	18	164	105	3.5	일
흰줄납줄개	*Rhodeus ocellatus*	25				0.3	일
각시붕어	*Rhodeus uyekii*	8				0.1	일, 고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5	59	198	153	4.5	일, 고
납줄갱이	*Rhodeus notatus*		2			0.02	일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1		124	1.4	일, 고, 보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us*	16	24	35	9	0.9	일

표 준 명	학 명	파 주 시	연 천 군	포 천 군	철 원 군	구성비 (%)	비 고
납지리	*Acheilognathus rhombea*	1	4	1	26	0.3	일
가시납지리	*Acheilognathus gracilis*	2		2	26	0.3	일, 고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108	30	34	120	3.2	일
누치	*Hemibarbus labeo*	214	41	50	43	3.8	일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37	42	20	52	1.6	일, 고
중고기	*Scrcocheilichthys nigripinis morii*	2	1	2	2	0.1	일, 고
참중고기	*Scrcocheilichthys variegatus*	19		1		0.2	일, 고
새미	*Ladislavia tazanowskii*				2	0.02	일
돌고기	*Pungtungia herzi*		50	179	252	5.2	일
가는돌고기	*Pseudopungtungia tenuicorpus*			26	20	0.5	일, 고
줄몰개	*Gnathopogon strigatus*	1				0.01	일
몰개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8			0.1	일, 고
긴몰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15	73	2	76	1.8	일, 고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12	101	8	116	2.5	일
어름치	*Hemibarbus mylodon*	1	14	6	22	0.5	일, 고 ,천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81	60	98	231	5.1	일
두우쟁이	*Saurogobio dabryi*	4				0.04	일, 보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149	34	9	89	3.1	일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2	64	1	281	3.8	일, 고
배가사리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14	10	8	0.3	일, 고
됭경모치	*Microphysogobio tungtingensis*		56	175	84	3.4	일, 고
돌상어	*Gobiobotia brevibarba*			17	6	0.3	일, 고, 희
왜몰개	*Aphyocypris chinensis*	42				0.5	일
살치	*Hemiculter leucisculus*	11		2		0.1	일
강준치	*Erythroculter erythropterus*	6				0.1	일
기름종개과	Cobitidae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40	12	10	35	1.1	일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4	2			0.1	일
새코미꾸리	*Cobitis rotundicaudata*		2	23	7	0.3	일, 고
참종개	*Cobitis koreensis*	17	60	9	70	1.7	일, 고
쌀미꾸리	*Lefua costata*	4		12	6	0.2	일
종개	*Nemacheilus toni*		15	15	32	0.7	일
메기과	Siluridae						
메기	*Silurus asotus*	7	1	3		0.1	일
퉁가리과	Amblycipitidae						
퉁가리	*Liobagrus andersoni*		1	18	10	0.3	일, 고

표준명	학명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	구성비(%)	비고
동자개과	Bagridae						
동자개	*Pseudobagrus fulvidraco*	1			3	0.04	일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1	2	16	0.2	일, 고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17		2	1	0.3	일
은어과	Plecoglossidae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1				0.01	주
숭어과	Mugilidae						
숭어	*Mugil cephalus*	2				0.02	주
가숭어	*Mugil haematocheila*	16				0.2	주
송사리과	Adrianchthyoidae						
대륙송사리	*Oryzias sinensis*	110	1		67	1.9	이
둑중개과	Cottidae						
꺽정이	*Trachidermus fasciatus*	2				0.02	주
농어과	Serranidae						
농어	*Letaolabrax japonicus*	1				0.01	주
꺽지과	Centropomidae						
꺽지	*Coreoperca herzi*		1	15	15	0.3	주, 고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2	1	7	6	0.2	주
검정우럭과	Centrachidae						
파랑볼우럭	*Lepomis macrochirus*		1		1	0.02	일, 도
큰입우럭	*Micropterus salmoides*		1	8	8	0.2	일, 도
동사리과	Odontobutidae						
얼룩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7	5		4	0.2	주, 고
망둥어과	Gobiidae						
풀망둑	*Acanthogobius hasta*	2				0.02	주
갈문망둑	*Rhinogobius giurinus*	12				0.1	주
밀어	*Rhinogobius brunneus*	84	43	108	135	4.0	주
민물두줄망둑	*Tridentiger bifasciatus*	52				0.6	주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brevipinis*	4				0.04	주
참복과	Tetraodontidae						
황복	*Takifugu obscurus*	3				0.03	주
총 19과 70종	**종수**	**52**	**40**	**41**	**45**		

일 : 일차담수어, 주 : 주연성 어류, 이 : 이차담수어, 고 : 한반도고유종(한국특산종), 천 : 천연기념물, 보 : 보호야생동·식물, 희 : 희귀종, 도 : 도입종

가. 파주시 수계

파주시 일대의 수계는 임진강 본류, 문산천, 곡릉천,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지류 등이 분포한다. 문산천 4개 지점, 곡릉천 3개 지점,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지류 6개 지점, 임진강 본류 1개 지점 등을 조사하였고 총 15과 52종이 출현하였다(표 8).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종은 어름치 1종이 임진강 본류 적성면 주월리(지점 14)에서 희소하게 1개체가 출현하였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의 출현은 없었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 · 식에 속하는 종은 두우쟁이 1종이 임진강 본류(지점 14) 수역에서 4개체가 출현하였다. 이들 어종은 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임진강 본류 수역에서만 발견되었다. 도입어종은 떡붕어 1종이었다. 떡붕어는 곡릉천에 속하는 교하면 교하리(지점 6)와 임진강 본류(지점 14)에서 출현하였고 출현량은 비교적 풍부하였다. 한반도고유종은 각시붕어, 줄납자루, 가시납지리, 쉬리, 중고기, 참중고기, 긴몰개, 어름치, 돌마자, 참종개, 얼룩동사리 등 11종(21.2%)으로 종구성비는 매우 낮았다. 한반도고유종은 상류역, 소규모 지류, 하류역 보다는 규모가 비교적 큰 하천의 중 · 상류와 중류역 여울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조사는 임진강 하류역과 규모가 작은 지류이므로 한반도 고유어종의 분포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계별 출현 어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산천에서 5과 19종, 곡릉천에서 5과 19종,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규모 지류에서 5과 18종, 임진강 본류역에서 9과 28종으로 임진강 본류역의 어류상이 가장 풍부하였다. 이는 수량이 많고 여울과 유속이 느린 깊은 소, 하상이 뻘, 자갈, 암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다양한 서식 공간이 형성되어 출현 어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라미가 총 14개 조사 지점 전 지역에서 출현하여 분포역이 가장 풍부하였다. 지점별 출현 종수는 문산천과 곡릉천, 임진강 본류역에 속하는 지점에서는 5종 이상이 출현하여 출현종이 많았고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규모 지류에서 출현 어종이 빈약하였다. 특히 군내면 정자리(지점 9)에는 피라미 1종만 출현하여 가장 빈약하였다. 이는 수량이 적고 하상구조 및 하천 구조가 단순하여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뱀장어, 웅어, 두우쟁이, 강준치, 대농갱이, 숭어, 가숭어, 꺽정이, 농어 풀망둑, 민물두줄망둑, 민물검정망둑, 황복 등의 출현은 임진강 하류의 어류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어류는 기수역이나 연안에 주로 서식하며 먹이와 산란을 위해 하천 하류로 회유하는 생태적인 특징을 지닌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나. 연천군 수계

연천군 일대의 수계는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한탄강 본류, 차탄천,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지류 등이 분포한다. 본 조사에서는 한탄강 본류역 1개 지점, 차탄천 3개 지점,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규모 지류 1개 지점 등 총 5개 지점에서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어종은 총 10과 40종이 출현하였다(표 9). 출현 어종 중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종은 어름치 1종으로 한탄강 본류인 전곡읍 고문리(지점 15)에서 1개체가 출현하였고 차탄천에 속하는 신서면 내산리(지점 16)에서 13개체가 출현하였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의 출현은 없었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 · 식에

〈표 8〉 조사지점 중 파주시 일대의 어류상

표 준 명	학 명	문산천				곡룡천			임진강 유입 소지류						임본	구성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뱀장어과	Anguillidae																
뱀장어	*Anguilla japonica*				2										4	0.3	주
멸치과	Engraulidae																
웅어	*Coilia ectens*														17	0.8	주
잉어과	Cyprinidae																
잉어	*Cyprinus carpio*			5			2								3	0.5	일
붕어	*Carassius auratus*	3	42	72	43	46	6	17							2	10.9	일
떡붕어	*Carassius cuvieri*						59								15	3.5	일, 도
피라미	*Zacco platypus*	18	67	94	103	21	47	36	23	36	11	31	49	2	16	26.1	일
갈겨니	*Zacco temmincki*													89		4.2	일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19	0.9	일
버들치	*Moroco(Phoxinus)oxycephalus*								1		4	3	23	4		1.6	일
흰줄납줄개	*Rhodeus ocellatus*		8	4			13									1.2	일
각시붕어	*Rhodeus uyekii*			8												0.4	일, 고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5	0.2	일, 고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us*		12											4		0.8	일
납지리	*Acheilognathus rhombea*														1	0.05	일
가시납지리	*Acheilognathus gracilis*														2	0.1	일, 고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4		6	13	41	31	13								5.1	일
누치	*Hemibarbus labeo*			9	45		12								148	10.1	일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36											1		1.7	일, 고
중고기	*Scrcocheilichthys nigripinis morii*														2	0.1	일, 고
참중고기	*Scrcocheilichthys variegatus*														19	1.0	일, 고
줄몰개	*Gnathopogon strigatus*											1				0.05	일
긴물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14							1		0.7	일, 고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6	6	0.6	일
어름치	*Hemibarbus mylodon*														1	0.05	일,고,천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1					16		1				7	3	53	3.8	일
두우쟁이	*Saurogobio dabryi*														4	0.2	일, 보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34	13	89	5	7						1				7.0	일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2		0.1	일, 고
왜몰개	*Aphyocypris chinensis*							42								2.0	일
살치	*Hemiculter leucisculus*						11									0.5	일
강준치	*Erythroculter erythropterus*														6	0.3	일

표 준 명	학 명	문산천				곡룡천			임진강 유입 소지류						임본	구성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기름종개과	Cobitidae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1					1	4			13	8	13			1.9	일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1		3										0.2	일
참종개	*Cobitis koreensis*	8	2	1										6		0.8	일, 고
쌀미꾸리	*Lefua costata*											4				0.2	일
메기과	Siluridae																
메기	*Silurus asotus*												1		6	0.3	일
동자개과	Bagridae																
동자개	*Pseudobagrus fulvidraco*														1	0.05	일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17	0.8	일
은어과	Plecoglossidae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1	0.05	주
숭어과	Mugilidae																
숭어	*Mugil cephalus*														2	0.1	주
가숭어	*Mugil haematocheila*														16	0.8	주
송사리과	Adrianchthyoidae																
대륙송사리	*Oryzias sinensis*	2			18		7	64			6				13	5.2	이
둑중개과	Cottidae																
꺽정이	*Trachidermus fasciatus*														2	0.1	주
농어과	Serranidae																
농어	*Letaolabrax japonicus*														1	0.05	주
꺽지과	Centropomidae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2	0.1	주
동사리과	Odontobutidae																
얼룩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1	1		2				2		1			0.3	주, 고
망둥어과	Gobiidae																
풀망둑	*Acanthogobius hasta*						2									0.1	주
갈문망둑	*Rhinogobius giurinus*					12										0.6	주
밀어	*Rhinogobius brunneus*	27	32	2	17						5	1				4.0	주
민물두줄망둑	*Tridentiger bifasciatus*				48						1	3				2.4	주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brevipinis*						4									0.2	주
참복과	Tetraodontidae																
황복	*Takifugu obscurus*														3	0.1	주
총15과 52종	**종 수**	**9**	**8**	**12**	**10**	**6**	**15**	**6**	**3**	**1**	**3**	**8**	**6**	**10**	**29**		

일 : 일차담수어, 주 : 주연성 어류, 고 : 한반도고유종(한국특산종), 이: 이차담수어, 도 : 도입어종, 천 : 천연기념물,
보 : 보호야생동 · 식물, 임본 : 임진강 본류

속하는 종은 묵납자루 1종이 출현하였으며 한탄강 본류역 하류인 지점 16에서 1개체로 희소하게 출현하였다. 한반도고유종은 줄납자루, 묵납자루, 쉬리, 중고기, 몰개, 긴몰개, 어름치, 돌마자, 배가사리, 경모치, 새코미꾸리, 참종개, 퉁가리, 눈동자개, 꺽지, 얼룩동사리 등 16종(40.0%)으로 종구성비가 비교적 높았다. 특히 파주시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하천의 임진강 중류역에 해당하는 한탄강 본류역이 조사지점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입어종은 파랑볼우럭과 큰입우럭 2종이었다. 이들 어종은 한탄강 본류역에 속하는 전곡읍 고문리(지점 15)에서 각각 1개체씩 희소하게 출현하였다. 피라미, 돌마자, 참종개 등이 전 조사 지역에서 출현하여 연천군 일대의 조사 대상 지역에서의 분포역이 가장 풍부하였다. 지점별 출현 종수는 지점 15에서 26종, 지점 16에서 12종, 지점 17에서 12종, 지점 18에서 13종, 지점 19에서 18종이 출현하였다. 수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하상이 보다 다양한 한탄강 본류에서 가장 다양하게 출현하였고 그 외의 조사 지점에서도 10종 이상이 출현하여 출현 어종이 비교적 풍부하였다. 연천군 일대의 어류상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아 줄납자루, 묵납자루, 쉬리, 돌마자, 배가사리, 새코미꾸리, 참종개, 퉁가리, 눈동자개 등의 출현은 임진강 중류의 특성을 지닌 한탄강 하류의 어류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조사지점 중 연천군 일대의 어류상

표준명	학명	한탄강	차탄천			임 소	구성비	비
		15	16	17	18	19	(%)	고
잉어과	Cyprinidae							
잉어	*Cyprinus carpio*					9	0.6	일
붕어	*Carassius auratus*					28	1.8	일
피라미	*Zacco platypus*	146	48	138	98	131	36.9	일
갈겨니	*Zacco temmincki*	2	41	13	34		5.9	일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8					0.5	일
버들치	*Moroco(Phoxinus) oxycephalus*		7	8	3		1.2	일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59					3.9	일, 고
납줄갱이	*Rhodeus notatus*					2	0.1	일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1					0.1	일, 고, 보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us*	21				3	1.6	일
납지리	*Acheilognathus rhombea*					4	0.3	일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3			24	3	2.0	일
누치	*Hemibarbus labeo*	14				27	2.7	일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3	12	14	13		2.8	일, 고
중고기	*Scrcocheilichthys nigripinis morii*	1					0.1	일, 고
돌고기	*Pungtungia herzi*	12	8	12	18		2.8	일
몰개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8	0.5	일, 고
긴몰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2	1	17	42	11	4.8	일, 고

표준명	학명	한탄강	차탄천			임 소	구성비	비
		15	16	17	18	19	(%)	고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3		19	79		6.6	일
어름치	*Hemibarbus mylodon*	1	13				0.9	일 ,고 ,천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2	19	11	28		3.9	일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22	12	2.2	일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15	7	17	9	16	4.2	일, 고
배가사리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14					0.9	일, 고
됭경모치	*Microphysogobio tungtingensis*	56					3.7	일, 고
기름종개과	Cobitidae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12	0.8	일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2	0.1	일
새코미꾸리	*Cobitis rotundicaudata*		2				0.1	일, 고
참종개	*Cobitis koreensis*	1	6	12	17	24	3.9	일, 고
종개	*Nemacheilus toni*			15			1.0	일
메기과	Siluridae							
메기	*Silurus asotus*				1		0.1	일
퉁가리과	Amblycipitidae							
퉁가리	*Liobagrus andersoni*	1					0.1	일, 고
동자개과	Bagridae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1					0.1	일, 고
송사리과	Adrianchthyoidae							
대륙송사리	*Oryzias sinensis*					1	0.1	이
꺽지과	Centropomidae							
꺽지	*Coreoperca herzi*	1					0.1	주, 고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1					0.1	주
검정우럭과	Centrachidae							
파랑볼우럭	*Lepomis macrochirus*	1					0.1	일, 도
큰입우럭	*Micropterus salmoides*	1					0.1	일, 도
동사리과	Odontobutidae							
얼룩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1	3		1	0.3	주, 고
망둥어과	Gobiidae							
밀어	*Rhinogobius brunneus*	41				2	2.8	주
총 10과 40종	**종 수**	**26**	**12**	**12**	**13**	**18**		

일 : 일차담수어, 주 : 주연성 어류, 고 : 한반도고유종(한국특산종), 이: 이차담수어, 도 : 도입어종, 보 : 보호야생동 · 식물,
천 : 천연기념물, 임소 : 임진강 소지류

다. 포천군 수계

포천군 일대의 수계는 한탄강 본류와 영평천 수계가 분포한다. 본 조사 지역은 영평천 수계에서 4개 지점 한탄강 본류역에서 3개 지점으로 총 7개 지점을 조사하였다. 출현한 어종은 총 8과 41종이었다(표 10). 출현한 어종 중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종은 어름치 1종으로 관인면 중리(지점 24)에서 6개체가 출현하였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및 보호야생동 · 식에 속하는 종의 출현은 없었다. 환경부 조사지침서에 명기된 희귀종 등에 속하는 종은 돌상어 1종이었다. 돌상어는 한탄강 본류역인 관인면 중리(지점 14)와 영북면 자일리(지점 26)에서 총 17개체가 출현하였다. 본 종은 유속이 매우 빠른 여울의 자갈과 돌 밑에 서식하고 있었다. 본 종은 한탄강 전반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도입어종은 떡붕어와 큰입우럭 2종이 출현하였다. 떡붕어는 영평천 하류인 창수면 고소성리(지점 23)에서 6개체가 출현하였다. 큰입우럭의 경우 영평천에 속하는 창수면 고소성리(지점 23)에서 7개체, 한탄강 본류인 영북면 운천리(지점 25)에서 1개체가 출현하였다. 갈겨니, 쉬리, 가는돌고기, 배가사리, 돌상어, 새코미꾸리, 퉁가리, 눈동자개, 꺽지 등의 출현은 한탄강 중류역의 어류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고유종은 줄납자루, 가시납지리, 쉬리, 중고기, 참중고기, 가는돌고기, 긴몰개, 어름치, 돌마자, 배가사리, 경모치, 돌상어, 새코미꾸리, 참종개, 퉁가리, 눈동자개, 꺽지 등 17종(41.5%)으로 종구성비 높았다. 연천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조사 지역이 한탄강 본류 수역인 연천군 보다 다소 상방에 위치한 중류역 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고유종은 규모가 큰 하천 중 수환경이 잘 보존된 하천의 중 ·

〈표 10〉 조사지점 중 포천군 일대의 어류상

표준명	학 명	영평천 수계				한탄강			구성비	비
		20	21	22	23	24	25	26	(%)	고
잉어과	Cyprinidae									
잉어	*Cyprinus carpio*				4				0.2	일
붕어	*Carassius auratus*	1			1				0.1	일
떡붕어	*Carassius cuvieri*				6				0.3	일, 도
피라미	*Zacco platypus*	74	6		162	121	192	232	36.5	일
갈겨니	*Zacco temmincki*	7				31	15	19	3.3	일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7				0.3	일
버들치	*Moroco(Phoxinus) oxycephalus*	69	53	42					7.6	일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3	11	43	141	9.2	일, 고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us*				11			24	1.1	일
납지리	*Acheilognathus rhombea*							1	0.05	일
가시납지리	*Acheilognathus gracilis*							2	0.1	일, 고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32	2			1.6	일
누치	*Hemibarbus labeo*				8	21	13	8	2.3	일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13				7			0.9	일, 고

표준명	학 명	영평천 수계				한탄강			구성비	비
		20	21	22	23	24	25	26	(%)	고
중고기	*Scrcocheilichthys nigripinis morii*						2		0.1	일, 고
참중고기	*Scrcocheilichthys variegatus*				1				0.05	일, 고
돌고기	*Pungtungia herzi*				13	59	18	89	8.3	일
가는돌고기	*Pseudopungtungia tenuicorpus*					13		13	1.2	일, 고
긴물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2		0.1	일, 고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4	7		4	0.4	일
어름치	*Hemibarbus mylodon*					6			0.3	일,고,천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3		83	12	4.5	일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9			0.4	일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1				0.05	일, 고
배가사리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8		2	0.5	일, 고
됭경모치	*Microphysogobio tungtingensis*					43		132	8.1	일, 고
돌상어	*Gobiobotia brevibarba*					13		4	0.7	일, 고, 희
살치	*Hemiculter leucisculus*				2				0.1	일
기름종개과	Cobitidae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1	2	7				0.5	일
새코미꾸리	*Cobitis rotundicaudata*					9	8	6	0.9	일, 고
참종개	*Cobitis koreensis*	3	2	3	1				0.4	일, 고
쌀미꾸리	*Lefua costata*			12					0.6	일
종개	*Nemacheilus toni*	2	13						0.7	
메기과	Siluridae									
메기	*Silurus asotus*				3				0.1	일
퉁가리과	Amblycipitidae									
퉁가리	*Liobagrus andersoni*					3	9	6	0.7	일, 고
동자개과	Bagridae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1	1		0.1	일, 고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2			0.1	일
꺽지과	Centropomidae									
꺽지	*Coreoperca herzi*					3	7	5	0.7	주, 고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1	2	4	0.3	주
검정우럭과	Centrachidae									
큰입우럭	*Micropterus salmoides*				7		1		0.4	일, 도
망둥어과	Gobiidae									
밀어	*Rhinogobius brunneus*		2		12	51	34	9	5.0	주
총 8과 41종	**종 수**	**7**	**6**	**4**	**20**	**21**	**15**	**19**		

일 : 일차담수어, 주 : 주연성 어류, 고 : 한반도고유종(한국특산종), 천 : 천연기념물, 희 : 희귀종, 도 : 도입종

상류와 중류역 여울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조사는 한탄강의 어류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평천 수계에서 5과 25종과 한탄강 수계에서 7과 28종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총 7개 조사 지점 중 피라미가 6개 지점, 밀어가 5개 지점으로 포천군의 조사 대상 지역에서의 분포역이 가장 풍부하였다. 지점별 출현 종수는 지점 20에서 7종, 지점 21에서 6종, 지점 22에서 4종, 지점 23에서20종, 지점 24에서 21종, 지점 25에서 15종, 지점 26에서 19종이 출현하였다. 수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하상이 보다 다양한 한탄강 본류역과 영평천 하류에서는 15종 이상으로 다양 하였다.

라. 철원군 수계

철원군 일대의 수계는 한탄강 본류와 김화 남대천이 대표적인 수계이며 이들 수계는 임진강으로 합류된다. 본 조사 지역은 한탄강 본류역과 지류를 포함한 4개 지점과 김화 남대천 수계에서 본류역과 지류를 포함하여 4개 지점으로 총 8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8개 지점에서 총 9과 45종이 출현하였다(표 11).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종은 어름치 1종 출현하였고 갈말읍 군탄리(지점 28)에서 4개체, 김화 남대천에 속하는 김화읍 청양리(지점 31)에서 18개체가 출현하였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의 출현은 없었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 · 식에 속하는 종은 다묵장어와 묵납자루 2종이었다. 다묵장어는 김화 남대천 갈말읍 도창리(지점 34)에서 2개체로 희소하게 출현하였다. 1999년 필자가 갈말읍 토성리(지점 33)에서 다묵장어를 3개체 채집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김화 남대천 본류역을 중심으로한 수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묵납자루는 한탄강 본류 수계인 갈말읍 문혜리(지점 27)에서 22개체로 비교적 출현량이 많았고 김화 남대천의 경우 김화읍 청양리(지점 31), 김화읍 학사리(지점 32), 갈말읍 토성리(지점 33), 갈말읍 도창리(지점 34)에서 출현하였다. 김화 남대천의 경우는 본류역과 각 지류에서 광범위하게 다량 분포하였다. 환경부 조사지침서에 명기된 희귀종 등에 속하는 종은 돌상어 1종이었다. 돌상어는 한탄강 본류인 갈말읍 군탄리(지점 28)에서 6개체가 출현하였다. 도입어종은 파랑볼우럭과 큰입우럭이 출현하였고 파랑볼우럭은 한탄강 분류역인 갈말읍 군탄리(지점 28)에서 1개체가 출현하였다. 큰입우럭은 김화 남대천의 본류역인 갈말읍 토성리(지점 33)에서 8개체가 출현하였다. 조사 전 지점에서 출현한 어종은 피라미와 모래무지 2종이었고 7개 지점에서 출현한 어종은 갈겨니, 버들치, 돌고기, 미꾸리 등으로 이들 어류의 분포역이 광범위하였다. 한반도고유종은 줄납자루, 묵납자루, 가시납지리, 쉬리, 중고기, 가는돌고기, 긴몰개, 어름치, 돌마자, 배가사리, 경모치, 돌상어, 새코미꾸리, 참종개, 퉁가리, 눈동자개, 꺽지 얼룩동사리 등 18종(40.0%)으로 종구성비 높았다. 이는 조사 지역이 한탄강 중 · 상류와 김화 남대천의 중류역 여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사는 한탄강 본류와 김화 남대천의 어류상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탄강 4개 지점에서 8과 34종, 김화 남대천 4개 지점에서 9과 36종이 출현하여 2개 수역의 출현 어종수와 출현 어종이 매우 비슷하였다. 이는 2개 수계가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같은 수계로 연결되어 있고 조사 지점이 인접된 결과로 판단된다. 지점별 출현 종수는 지점 27에서 13종, 지점 28에서 26종, 지점 29에서 5종, 지점 30에서 11종, 지점 31에서 15종, 지점 32에서 18종, 지점 33에서 29종, 지점 34에서26종

출현하였다. 한탄강 수계(지점 27~30) 중 동송읍 동막리(지점 29)에서 출현 어종이 가장 빈약하였는데 이는 지류이기 때문이다. 김화 남대천 수계(지점 31~34) 중 소규모 지류에 속하는 김화읍 청양리(지점 31)에서 출현종이 가장 빈약하였다. 한탄강과 김화 남대천의 본류역은 수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하상이 보다 다양한 관계로 어류상이 비교적 풍부하였다.

〈표 11〉 조사지점 중 철원군 일대의 어류상

표준명	학 명	영평천 수계				한 탄 강				구성비	비
		27	28	29	30	31	32	33	34	(%)	고
칠성장어과	Petromyzonidae										
다묵장어	*Lampetra reissneri*								2	0.1	주, 보
잉어과	Cyprinidae										
잉어	*Cyprinus carpio*				2			4		0.2	일
붕어	*Carassius auratus*		6		17	8	2	9		1.2	일
피라미	*Zacco platypus*	19	158	2	143	48	74	206	179	24.4	일
갈겨니	*Zacco temmincki*	28	4	16		31	62	17	10	4.9	일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1							0.03	일
버들개	*Moroco lagowskii*					37		21	43	3.0	일
버들치	*Moroco oxycephalus*	4	2	27		24	23	13	12	3.1	일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126					13	14	4.5	일, 고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22				13	18	34	37	3.6	일, 고, 보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us*		9							0.3	일
납지리	*Acheilognathus rhombea*		7		5			8	6	0.8	일
가시납지리	*Acheilognathus gracilis*	6			9			11		0.8	일, 고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3		36	14	42	14	11	3.5	일
누치	*Hemibarbus labeo*		34					3	6	1.3	일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14	7					18	13	1.5	일, 고
중고기	*Scrcocheilichthys nigripinis morii*		2							0.03	일, 고
새미	*Ladislavia tazanowskii*								2	0.03	일
돌고기	*Pungtungia herzi*	21	94		16	27	25	43	26	7.4	일
가는돌고기	*Pseudopungtungia tenuicorpus*		4				16			0.6	일, 고
긴물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4		27		28	12	5	2.2	일, 고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19			19		17	27	34	3.4	일
어름치	*Hemibarbus mylodon*		4			18				0.6	일 ,고 ,천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12	41	4	63	30	12	56	13	6.8	일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3			18	13	9	14	32	2.6	일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21			187		34	39		8.3	일, 고
배가사리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8	0.2	일, 고

표준명	학 명	영평천 수계				한 탄 강				구성비	비
		27	28	29	30	31	32	33	34	(%)	고
됭경모치	*Microphysogobio tungtingensis*		84							2.5	일, 고
돌상어	*Gobiobotia brevibarba*		6							0.2	일, 고, 희
기름종개과	Cobitidae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2		9	3	6	2	11	2	1.0	일
새코미꾸리	*Cobitis rotundicaudata*		7							0.2	일, 고
참종개	*Cobitis koreensis*					17	12	23	18	2.1	일, 고
쌀미꾸리	*Lefua costata*							4	2	0.2	일
종개	*Nemacheilus toni*					4		15	13	0.9	일
퉁가리과	Amblycipitidae										
퉁가리	*Liobagrus andersoni*		7					3		0.3	일, 고
동자개과	Bagridae										
동자개	*Pseudobagrus fulvidraco*								3	0.1	일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7					3	6	0.5	일, 고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1		0.03	일
송사리과	Adrianchthyoidae										
대륙송사리	*Oryzias sinensis*				67					2.0	이
꺽지과	Centropomidae										
꺽지	*Coreoperca herzi*	6	2				3	2	2	0.4	주, 고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6							0.2	주
검정우럭과	Centrachidae										
파랑볼우럭	*Lepomis macrochirus*		1							0.03	일, 도
큰입우럭	*Micropterus salmoides*							8		0.2	일, 도
동사리과	Odontobutidae										
얼룩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3		1	0.1	주, 고
망둥어과	Gobiidae										
밀어	*Rhinogobius brunneus*		9		51	29	21	25		4.0	주
총 9과 45종	**종 수**	**13**	**26**	**5**	**15**	**15**	**18**	**29**	**26**		

일 : 일차담수어, 주 : 주연성 어류, 이 : 이차담수어, 고 : 한반도고유종(한국특산종), 천 : 천연기념물, 보 : 보호야생동 · 식물, 희 : 희귀종, 도 : 도입종

이상과 같이 임진강 유역의 어류상 조사는 총 34개 지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다. 파주시 일대의 어류상이 가장 다양하였다. 이는 임진강 하류역을 포함하므로 여러 종의 회유성 어류와 기수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주연성 어류가 다량 출현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임진강 유역에 대한 어류 조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 자료는『전과 변(1997, 1998)』등이 있다. 이들 조사는 비무장 지대 및 인접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된 것으로 조사 지점이 본 조사 지점과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조사는 임진강 본류, 한

탄강 본류, 문산천, 영평천, 김화 남대천 수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의 조사는 이들 본류역이 조사 지점에서 제외되어 있고 주로 소규모 산간계류와 소 지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조사 지점은 동일한 지점에 속한다. 이들 지점에 국한하여 비교한 결과 이들 조사 자료와 본 조사 결과 어류상과 어류군집의 특성이 거의 동일하였다. 따라서 임진강 수계의 어류상과 어류군집의 특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2) 각 어종의 개체수 구성비

본 조사에서 채집 확인된 어종은 총 70종이었으며 이들 중 개체수 구성비에 있어 피라미(28.8%), 갈겨니(5.5%), 돌고기(5.2%), 모래무지(5.1%), 줄납자루(4.5%), 돌고기(4.9%), 밀어(4.0%), 누치(3.8%), 돌마자(3.8%) 등이 높았다. 이들 어종이 임진강 유역의 수계를 대표하는 어종으로 생각된다. 이는 임진강, 한탄강, 김화 남대천의 본류역이 조사 지점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간계류역이나 소규모 하천의 상류역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하면 버들치와 갈겨니가 가장 풍부하게 출현할 것이다. 임진강 하역을 중심으로 누치, 버들매치, 한탄강과 김화 남대천의 본류역에서는 갈겨니, 돌고기, 모래무지, 밀어, 돌고기 각 조사 지점에서 우점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들 어종의 우점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종은 출현 개체수가 적었으며 특히 0.2% 이하를 차지하는 희소종은 다묵장어(0.02%), 뱀장어(0.1%), 웅어(0.2%). 각시붕어(0.1%), 납줄갱이(0.02%), 중고기(0.1%), 참중고기(0.2%), 새미(0.02%), 줄몰개(0.01%), 몰개(0.1%), 두우쟁이(0.04), 살치(0.1%), 강준치(0.1%), 미꾸라지(0.1%), 쌀미꾸리(0.2%), 메기(0.1%), 동자개(0.04%), 눈동자개(0.2%), 은어(0.01%), 숭어(0.02%), 가숭어(0.2%), 꺽정이(0.02%), 농어(0.01%), 쏘가리(0.2%), 파랑볼우럭(0.02%), 큰입우럭(0.2%), 풀망둑(0.02%), 갈문망둑(0.1%), 민물검정망둑(0.04%) 등이었다. 뱀자어, 웅어, 몰개, 살치, 강준치, 숭어, 가숭어, 꺽정이, 농어, 풀망둑, 갈문망둑, 민물검정망둑 등은 임진강 본류역의 기수역을 포함한 하류역의 조사 지점을 추가하면 많은 개체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이다. 다묵장어, 두우쟁이, 새미, 줄몰개, 중고기, 참중기, 눈동자개, 쏘가리 등은 전국적으로 서식 개체수가 적은 종이므로 본 조사 지역에서 희소하게 출현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납줄갱이는 임진강 수계 전체에서 희소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꾸라지는 임진강 하류역으로 유입되는 지천 중 수심이 얕은 농수로 형태의 소하천에 주로 분포하는 종이다. 도입어종인 파랑볼우럭과 큰입우럭이 희소하게 출현한 것은 이들 어종이 임진강 유역에서 급격한 개체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들 도입종이 토착어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주시 일대의 수계에서 우점적으로 출현한 어종은 피라미(26.1%), 누치(11.1%), 붕어(10.9%), 버들매치(7.0%), 대륙송사리(5.2%), 참붕어(5.1%) 등이었다. 누치, 붕어, 대륙송사리, 참붕어 등이 우점적으로 서식하는 것은 임진강 하류역에 위치한 수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희소하게 출현한 어종은 줄납자루, 가시납지리, 중고기, 줄몰개, 두우쟁이, 미꾸라지, 쌀미구리, 동자개, 숭어, 꺽정이, 농어, 쏘가리, 풀망둑, 황복 등이었으며 개체수 구성비가 각각 5개체 이하가 채집되어 0.2% 이하이었다.

연천군 일대의 수계에서 출현 개체수가 풍부한 어종은 피라미(36.9%), 참마자(6.6%), 갈겨니(5.9%), 긴몰개(4.8%), 돌마자(4.2%), 모래무지(3.9%), 참종개(3.9%) 등이었고 그 외의 종은 출현개체수가 적었다. 참마자, 갈겨니, 긴몰개, 돌마자, 참종개 등이 우점적으로 출현한 것은 한탄강 중류역이 조사 지점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끄리, 납줄갱이, 묵납자루, 납지리, 중고기, 몰개, 미꾸라지, 미꾸리, 메기, 퉁가리, 눈동자개, 대륙송사리, 쏘가리, 꺽지, 파랑볼우럭, 큰입우럭, 얼룩동사리 등은 0.5% 이하로 출현하여 희소종에 속하였다.

포천군 일대의 수계에서 출현 개체수가 풍부한 어종은 피리미(36.5%), 줄납자루(9.2%), 돌고기(8.3%), 경모치(8.1%), 버들치(7.6%) 등이었다. 줄납자루, 돌고기, 경모치가 우점적으로 출현한 것은 한탄강 중류역이 조사 지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희소하게 출현한 어종은 잉어, 붕어, 가시납지리, 납지리, 중고기, 참중고기, 긴몰개, 돌마자, 살치, 메기, 눈동자개, 대농갱이 등이며 이들 종은 개체수 출현빈도가 0.2% 이하이었다. 철원군 일대의 수계에서 출현 개체수가 풍부한 어종은 피리미(24.4%), 돌마자(8.3%), 돌고기(7.4%), 모래무지(6.8%), 갈겨니(4.9%), 줄납자루(4.5%), 묵납자루(3.6%) 등이었다. 돌마자, 돌고기, 모래무지, 갈겨니, 줄납자루, 묵납자루 등이 우점한 것은 임진강 중·상류역인 김화 남대천 본류 수역이 조사 지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희소하게 출현한 어종은 다묵장어, 잉어, 끄리, 중고기, 새미, 배가사리, 돌상어, 새코미꾸리, 쌀미꾸리,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파랑볼우럭, 큰입우럭, 얼룩동사리 등이며 이들 종은 개체수 출현빈도가 0.2% 이하이었다.

(3) 우점종

파주시 일대의 각 조사 지점에서 출현한 우점종은 다음과 같다(표 12). 문산천 중류에 속하는 광탄면 마장리(지점 1)에서는 버들매치가 제1우점종이었고, 지점 1보다 하방에 위치한 하류(지점 2, 3, 4)에서는 피라미가 높은 비율로 우점하였다. 곡릉천에 속하는 조리면 봉일천리(지점 5)에서 붕어, 교하면 교하리(지점 6)에서 떡붕어, 파주시 검산동(지점 7)에서 피라미가 각각 높은 비율로 우점하였다.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규모 지류 중 진동면 서곡리(지점 13)를 제외한 전 지점에서는 피라미가 우점종이었다. 지점 13에서는 갈겨니가 75.4%로 매우 높은 비율로 우점하여 조사 지역이 하천 중·상류역임을 반영하고 있다. 임진강 본류에 속하는 적성면 주월리(지점 14)에서는 누치가 38.2%로 우점종이었다.

연천군 일대에 속하며 한탄강 본류인 전곡읍 고문리(지점 15)에서는 피라미가 우점종이었다. 차탄천(지점 16, 17, 18)에 속하는 각 조사 지점에서는 피라니가 우점종이었다. 임진강 소지류에 속하는 백학면 전동리(지점 19)에서 피라미가 우점종이었다.

포천군 일대의 조사지점 중 영평천 지류의 상류역에 속하는 지점 21, 22에서는 버들치가 우점하였고, 지점 20과 본류역인 창수면 고소성리(지점 23)에서는 피라미가 우점종이었다. 한탄강 본류역(지점 24, 25, 26)에서는 피라미가 우점종이었다.

철원군 일대의 조사 수역 중 한탄강 수역인 갈말읍 문혜리(지점 27)에서 갈겨니(15.8%), 갈말읍 군탄리(지점 28)에서 피라미(24.9%), 동송읍 동막리(29)에서 버들치(46.6%), 동송읍 오덕리(지점 30)에서

〈표 12〉 각 조사 지점의 우점종

지 점	우점종 및 아우점종	지 점	우점종 및 아우점종
1	버들매치(Abbottina rivularis) 34.7% 밀어(Rhinogobius brunneus) 27.6%	18	피라미(Zacco platypus) 25.3% 참마자(Hemibarbus longirostris) 20.4%
2	피라미(Zacco platypus) 31.6% 붕어(Carassius auratus) 19.8%	19	피라미(Zacco platypus) 44.3% 누치(Hemibarbus labeo) 9.1%
3	피라미(Zacco platypus) 32.2% 버들매치(Abbottina rivularis) 30.2%	29	피라미(Zacco platypus) 44.0% 버들치(Moroco oxycephalus) 41.1%
4	피라미(Zacco platypus) 34.9% 누치(Hemibarbus labeo) 15.3%	21	버들치(Moroco oxycephalus) 68.8% 종개(Nemacheilus toni) 16.9%
5	붕어(Carassius auratus) 35.4% 참붕어(Pseudorasbora parva) 31.5%	22	버들치(Moroco oxycephalus) 71.2% 쌀미꾸리(Lefua costata) 20.3%
6	떡붕어(Carassius cuvieri) 26.0% 피라미(Zacco platypus) 20.7%	23	피라미(Zacco platypus) 56.3% 참붕어(Pseudorasbora parva) 11.1%
7	피라미(Zacco platypus) 20.5% 대륙송사리(Oryzias sinensis) 36.4%	24	피라미(Zacco platypus) 28.7% 돌고기(Pungtungia herzi) 14.0%
8	피라미(Zacco platypus) 92%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 4%	25	피라미(Zacco platypus) 44.7%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 19.3%
9	피라미(Zacco platypus) 100%	26	피라미(Zacco platypus) 32.5% 줄납자루(Acheilognathus yamatsutae) 19.8%
10	피라미(Zacco platypus) 25.6%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30.2%	27	갈겨니(Zacco temmincki) 15.8%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 12.4%
11	피라미(Zacco platypus) 59.6%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15.4%	28	피라미(Zacco platypus) 24.9% 줄납자루(Acheilognathus yamatsutae) 19.8%
12	피라미(Zacco platypus) 52.1% 버들치(Moroco oxycephalus)24.5%	29	버들치(Moroco oxycephalus) 46.6% 갈겨니(Zacco temmincki) 27.6%
13	갈겨니(Zacco temmincki) 75.4% 긴몰개(Squalidus gracilis majimae) 5.1%	30	돌마자(Microphysogobio yaluensis) 28.5% 피라미(Zacco platypus) 21.6%
14	누치(Hemibarbus labeo) 38.2%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 13.7%	31	피라미(Zacco platypus) 15.0%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 9.4%
15	피라미(Zacco platypus) 35.5% 줄납자루(Acheilognathus yamatsutae) 14.6%	32	피라미(Zacco platypus) 54.8% 갈겨니(Zacco temmincki) 15.4%
16	피라미(Zacco platypus) 29.1% 갈겨니(Zacco temmincki) 24.8%	33	피라미(Zacco platypus) 32.0%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 8.7%
17	피라미(Zacco platypus) 53.1% 참마자(Hemibarbus longirostris) 7.3%	34	피라미(Zacco platypus) 35.8% 버들개(Moroco lagowskii) 8.6%

돌마자(28.5%)가 각각 제1우종이었다. 김화 남대천 지류인 김화읍 청양리(지점 31)에서는 파라미가 우점종 이었고 본류역인 지점 32, 33, 34에서는 피라미가 더욱 높은 비율로 우점하였다.

이상과 같이 34개 조사 지점 중 제1우점종으로 출현한 어종은 다음과 같다. 버들치(3개 지점), 피라미(24개 지점), 갈겨니(2개 지점), 버들매치(1개 지점), 붕어(1개 지점), 떡붕어(1개 지점), 누치(1개 지점), 돌마자(1개 지점) 등이 각 조사 지점에서 각각 제1우점종이었다. 피라미가 가장 많은 지점에서 우점종으로 출현하였고 그 다음으로 버들치, 갈겨니이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본류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수역에서 피라미가 우점종이었으며 지류의 중 · 상류역에서는 갈겨니, 돌마자, 버들매치 등이 우점종이었다. 또한 지류의 상류역에는 버들치가 우점하고 있었다. 임진강 본류의 하류역에서는 누치, 하류로 유입하는 지류의 하방에서는 붕어, 떡붕어 등이 우점종이었다. 이러한 우점종의 출현은 임진강 전체 수역(상류에서 하류까지)의 어류군집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특별히 보호대책이 필요한 종 및 그 서식지

① 김화 남대천에서 채집된 버들개(*Moroco lagowskii*)

잉어과에 속하며 몸은 가늘고 길며 옆으로 약간 넙적하다.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며 하악이 상악보다 약간 짧다. 입수염은 없고 측선은 완전하다. 산간계류의 물이 맑고 용존산소가 많은 차가운 수역에서 큰 개체와 작은 개체가 떼지어 서식하며 유영생활을 한다. 수서곤충, 갑각류, 작은 동물 및 부착조류를 먹고산다. 산란기는 5~6월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 가운데 강릉 남대천과 그 이북에 있는 하천에 서식하고 국외로는 중국의 북부, 만주 및 일본의 북부와 연해주 등지에 분포한다. 이상과 같이 동해로 유입되는 중부 이북의 하천에서만 분포가 알려져 있었으나 전(1989)에 의해서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인 임진강수계의 김화 남대천(영서 측 하천)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버들치와 동소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김화 남대천에서 출현하므로 생물지리학적으로 주목할만한 어종이다. 본 조사에서는 철원군 일대로 김화 남대천 수계인 김화읍 청양리(지점 31), 갈말읍 토성리(지점 33), 갈말읍 도창리(지점 34)에서 다소 많은 개체가 출현하였다.

②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

잉어과(Cyprinidae) 어류로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체고는 비교적 높다. 입수염은 한 쌍, 옆줄은 완전하며 등지느러미의 바깥 가장자리는 밖으로 둥글고, 뒷지느러미는 거의 삼각형이다. 유속이 완만하고 수초가 많은 곳과 비교적 맑은 물에서 살며 잡식성이다. 산란기는 5~6월로 조개의 몸 안에 산란을 한다. 전장 6~7㎝되는 개체들은 흔히 볼 수 있으나 10㎝ 이상 되는 개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강, 임진강, 대동강, 압록강, 성천 및 회양에 분포하는 한반도고유종이다. 따라서 본 종은 한강이 분포 南限地이므로 한강과 임진강에 분포하는 개체군과 분포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보호야생동 · 식물로 지정하였다. 본 종은 하천 중 · 상류역 여울 가장자리의 웅덩이나 수초대, 수변식물대에 주로 분포한다. 수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낮으므로 특히 서식지를 중심으로 골재채취와 하상정비, 제방구축, 수질오염 등을 막아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한탄강 본류인 전곡읍 고문리(지점 15)에서 1개체가 출현하여 희소하였고, 갈말읍 문혜리(지점 27)에서 22개체, 김화 남대천에서 조사 전수역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구가 출현하였다. 임진강 유역에서의 본 종의 주요 서식지는 김화 남대천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는돌고기(*Pseudopungtungia tenuicorpus*)

몸은 가늘고 길며, 돌고기나 감돌고기처럼 배가 부르지 않고 입수염은 매우 짧고, 눈은 비교적 크다. 옆줄은 직선형이고 등은 암갈색, 배는 담색이다. 몸 옆면 중앙에 주둥이 끝에서 꼬리의 끝까지 달리는 흑갈색의 세로띠가 있고 등지느러미의 끝 부분에 흑색 줄무늬가 있다. 하천 중 · 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깔려 있는 곳에 살며 식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잡식성으로 추정된다. 생활사나 성장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산란기는 5~6월로 추정된다. 전장 80~100㎜ 정도는 볼 수 있으나 120㎜ 이상은 발견되기 힘들다. 한강과 임진강에만 분포하는 한반도고유종이다. 본 종은 최근 들어 수질오염과 수환경 파괴로 분포역과 서식 개체군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본 조사지역에서는 보호를 요하는 종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에서는 포천군에 위치한 한탄강 본류(지점 24, 26), 철원군에 위치한 한탄강 본류(지점 28) 및 김화 남대천 본류역(지점 32)에서 출현하였다. 수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여울에 주로 분포하며 한탄강과 김화 남대천 본류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나 서식 개체수가 적었다.

④ 어름치(*Hemibarbus mylodon*)

한반도 고유종으로 한강과 금강에서만 발견되는 잉어과 어류이며 전장이 200㎜가 보통이고 400㎜까지 달하는 대형 어종으로 최근에 들어 수질오염, 하상구조 변화, 남획 등으로 격감되어 금강 수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어종이다. 본 종은 물이 맑고 오염되지 않은 곳, 용존산소량이 비교적 높은 수역(10ppm 이상)에 서식한다. 수서곤충을 주로 섭식하지만 그 밖의 갑각류나 소형동물도 잡아먹는다. 산란시기는 4~5월로 수온이 17℃ 이상 올라갔을 때 산란한다. 산란장은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으며, 유속이 완만한 여울에 웅덩이를 파고 산란 후 자갈을 쌓아 산란탑을 형성한다. 성장도에 있어서는 만 1년에 전장 60~90㎜, 2년이 되면 140~160㎜, 3년이 되면 220~250㎜가 되고 전장 300㎜ 이상 성장하는 데는 만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종은 최근 들어 개체수가 격감하여 금강 상류역에서는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어 천연기념물 238호로 지정하여 보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 259호로 지정하여 포획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파주시 일대에서 임진강 본류의 하류역인 적성면 주월리(지점 14)에서 1개체, 연천군의 경우 한탄강 본류역인 전곡읍 고문리(지점 15)에서 1개체, 차탄천에 속하는 신서면 내산리(지점 16)에서 13개체, 포천군의 경우 한탄강 본류인 관인면 중리(24)에서 6개체, 철원군의 경우 한탄강 본류인 갈말읍 군탄리(지점 28)에서 4개체, 김화 남대천인 김화읍 청양리(지점 31에서)에서 출현하였다. 분포역은 수량이 풍부한 임진강, 한탄강, 김화 남대천의 본류 수역이며 출현 개체수는 적어 희소하였다.

⑤ 두우쟁이(*Saurogbio dabryi*)

본 종은 모래무지와 매우 유사하며 몸은 가늘고 길며 원통형이다. 큰 하천 하류의 모래가 깔린 바닥 가까이에 살면서 주로 부착조류와 갑각류, 수서곤충을 먹고 산다. 산란기는 4월경으로 알을 수초에 붙인다. 국내의 분포는 임진강(문산, 파주), 한강(행주, 서울, 광나루), 금강(부여), 대동강(평양) 등지이다. 두우쟁이의 서식지는 큰 하천 하류역을 중심으로 모래 바닥이다. 따라서 수질오염으로 하상에 유기물이 퇴적되어 뻘이 형성될 경우 본 종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대형 보나 수문을 설치하여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유수역이 정수역으로 변하게 되면 하천 바닥에 뻘이 쌓이게 된다. 두우쟁이는 최근 들어 수질오염과 하류역의 유속 감소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임진강 본류역 하류인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지점 14)에서 4개체가 채집 · 확인되어 분포역과 서식량이 매우 적었다.

⑥ 황복(*Takifugu obscurus*)

복어 종류로 몸은 유선형이고 머리 부분은 뭉툭하지만 미병부는 원통형이다. 소극은 등쪽과 복부에 발달되어 있다. 연안 주변에서 새우류와 게류 등의 작은 동물이나 어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며, 3~5월에 산란하러 강으로 올라온다. 알을 낳는 곳은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여울로 조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다. 부화한 어린 치어는 바다로 내려가서 성장한다. 분포는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임진강, 강화도, 한강(행주대교 하방), 삽교천, 금강(강경, 군산),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에 분포하고 또한 기수역에 분포한다. 국내 대부분의 강들이 오염되거나 개발되어 서식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본 종이 국내의 하천에서 출현량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하천 바닥에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야 하나 하류역의 수질오염, 골재채취, 유속감소(수중보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하천에 뻘이 축적되어 본 종의 산란장소를 상실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종은 맛이 좋아 높은 가격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개체수가 확보되면 어민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란장소와 본 종에 대해 보호를 요하는 종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는 임진강 본류역 하류인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지점 14)에서 3개체가 봄에 채집 · 확인되어 분포역과 서식량이 매우 적었다.

5) 결 론

2000년 4월에서 2000년 11월까지 임진강 유역의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 일대의 수역 총 34개 지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조사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된 어류는 총 19과 70종이 출현하였다. 이 중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종은 어름치 1종(1.4%)이 출현하였다. 어름치는 임진강과 한탄강 본류역에서 소수 출현하였다. 1998년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은 없었고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 · 식물에 속하는 종은 묵납자루와 두우쟁이 2종(2.9%)이었다. 묵납자루는 한탄강 본류역에 소수 출현하였고 김화 남대천의 본류역과 지류에서는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였다. 환경부 조사지침서에 명시된 희귀종에 속하는 종은 돌상어 1종이었다. 돌상어는 한탄강 본류역 중 유속이 매우 빠르고 하상에 자갈과 돌로 구성된 곳에서 소수 출현하였다. 출현한 어종을 생활형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차담수어 52종(종구성비; 74.3%), 주연성 어류 17종(24.3%), 이차담수어는 대륙송사리 1종(1.4%)으로 일차담수어가 가장 많았으나 주연성 어류의 출현도 많았다. 도입어종은 떡붕어, 파랑볼우럭, 큰입우럭 등 3종 출현하였다. 한반도고유종은 각시붕어, 줄납자루, 묵납자루, 가시납지리, 쉬리, 중고기, 참중고기, 가는돌고기, 몰개, 긴몰개, 어름치, 돌마자, 배가사리, 경모치, 돌상어, 새코미꾸리, 참종개, 퉁가리, 눈동자개, 꺽지, 얼룩동사리 등 21종(30.0%)이었다.

파주시 일대의 수계는 임진강 본류, 문산천, 곡릉천,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지류 등이 분포하며 총 15과 52종이 출현하였다. 연천군 일대의 수계는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한탄강 본류, 차탄천,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지류 등이 분포하며 출현한 어종은 총 10과 40종이었다. 포천군 일대의 수계는 한탄강 본류와 영평천 수계가 분포하며 출현한 어종은 총 8과 41종이었다. 철원군 일대의 수계는 한탄강 본류와 김화 남대천이 대표적인 수계이며 이들 수계는 임진강으로 합류되며 총 9과 45종이 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파주시 일대에서 가장 다양한 어종이 출현하였다.

본 조사에서 채집 · 확인된 어종은 70종 중 개체수 구성비에 있어 피라미(28.8%), 갈겨니(5.5%), 돌고기(5.2%), 모래무지(5.1%), 줄납자루(4.5%), 돌고기(4.9%), 밀어(4.0%), 누치(3.8%), 돌마자(3.8%) 등이 높았다. 그 외 종은 출현 개체수가 적었으며 특히 0.2% 이하를 차지하는 희소종은 다묵장어, 뱀장어, 웅어. 각시붕어, 납줄갱이, 중고기, 참중고기, 새미, 줄몰개, 몰개, 두우쟁이, 살치, 강준치, 미꾸라지, 쌀미꾸리, 메기, 동자개, 눈동자개, 은어, 숭어, 가숭어, 꺽정이, 농어, 쏘가리, 파랑볼우럭, 큰입우럭, 풀망둑, 갈문망둑, 민물검정망둑 등이었다.

각 조사 지점에서의 우점종은 버들치(3개 지점), 피라미(24개 지점), 갈겨니(2개 지점), 버들매치(1개 지점), 붕어(1개 지점), 떡붕어(1개 지점), 누치(1개 지점), 돌마자(1개 지점) 등으로 피라미가 가장 많은 지점에서 우점종으로 출현하였고 그 다음으로 버들치, 갈겨니이었다. 임진강 유역에 서식하는 버들개,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어름치, 두우쟁이, 황복 등은 본 조사지역에서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종으로 판단된다.



〈사진 12〉 다묵장어(보호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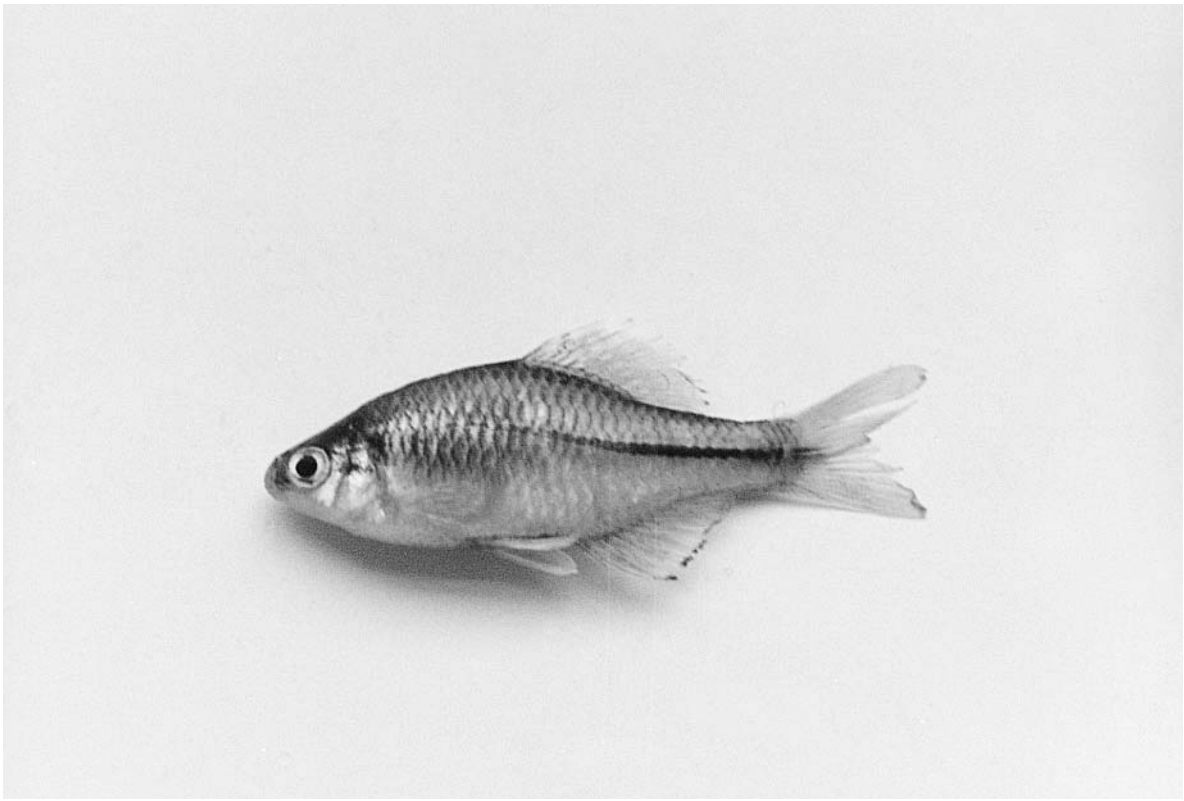
〈사진 13〉 잉어



〈사진 14〉 붕어



〈사진 15〉 각시붕어(한반도고유종)



〈사진 16〉 납줄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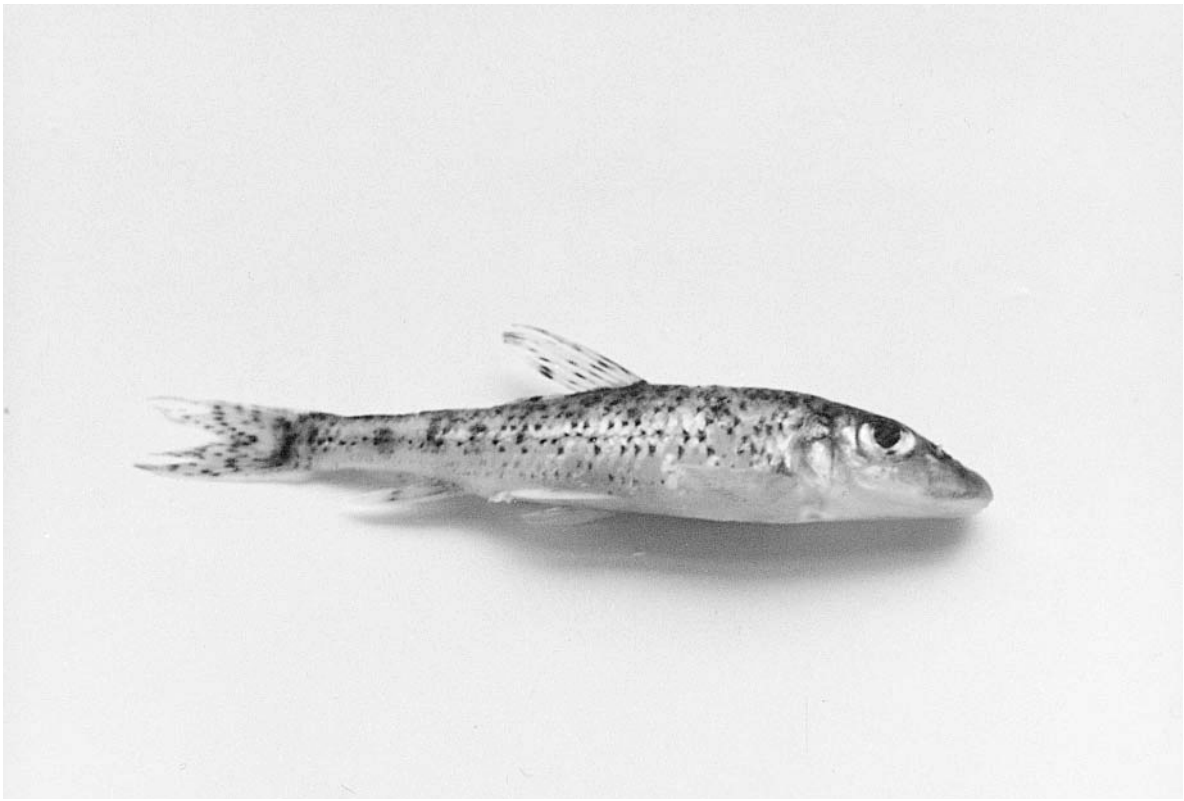
〈사진 17〉 납자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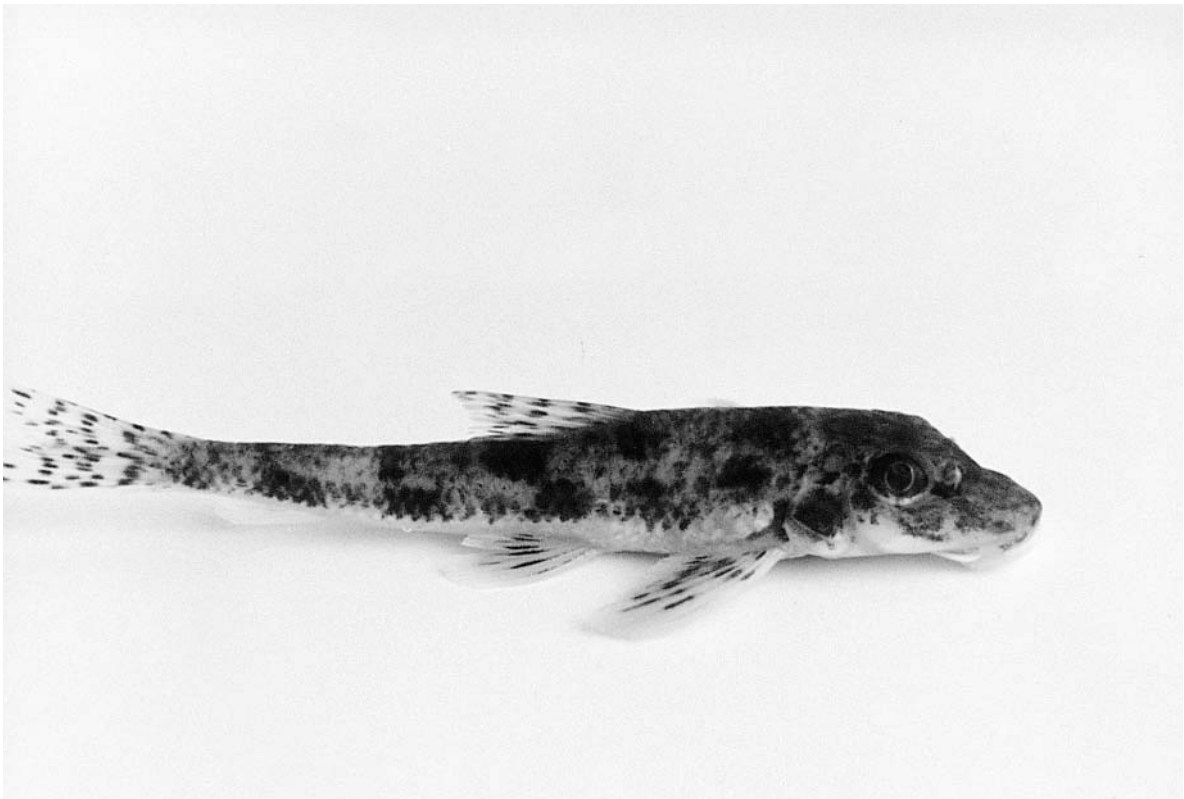
〈사진 18〉 납지리



〈사진 19〉 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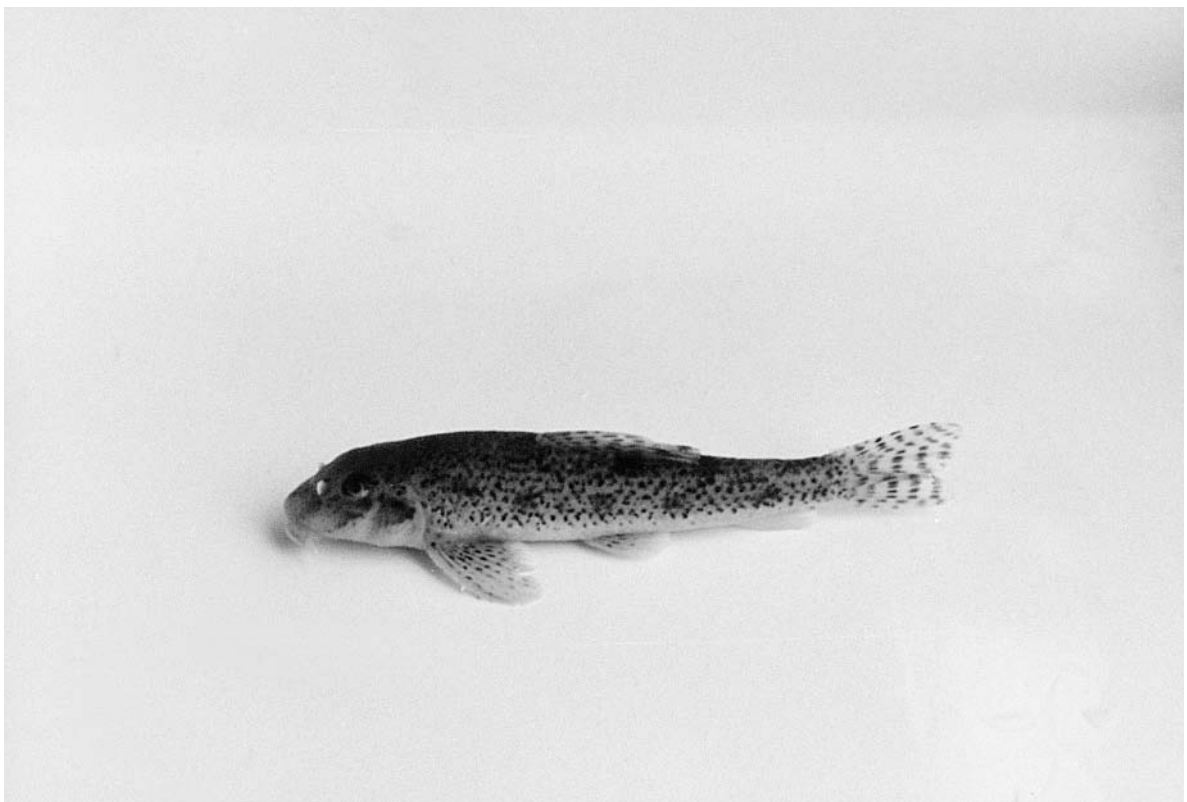
〈사진 20〉 참마자



〈사진 21〉 모래무지



〈사진 22〉 돌마자(한반도고유종)



〈사진 23〉 버들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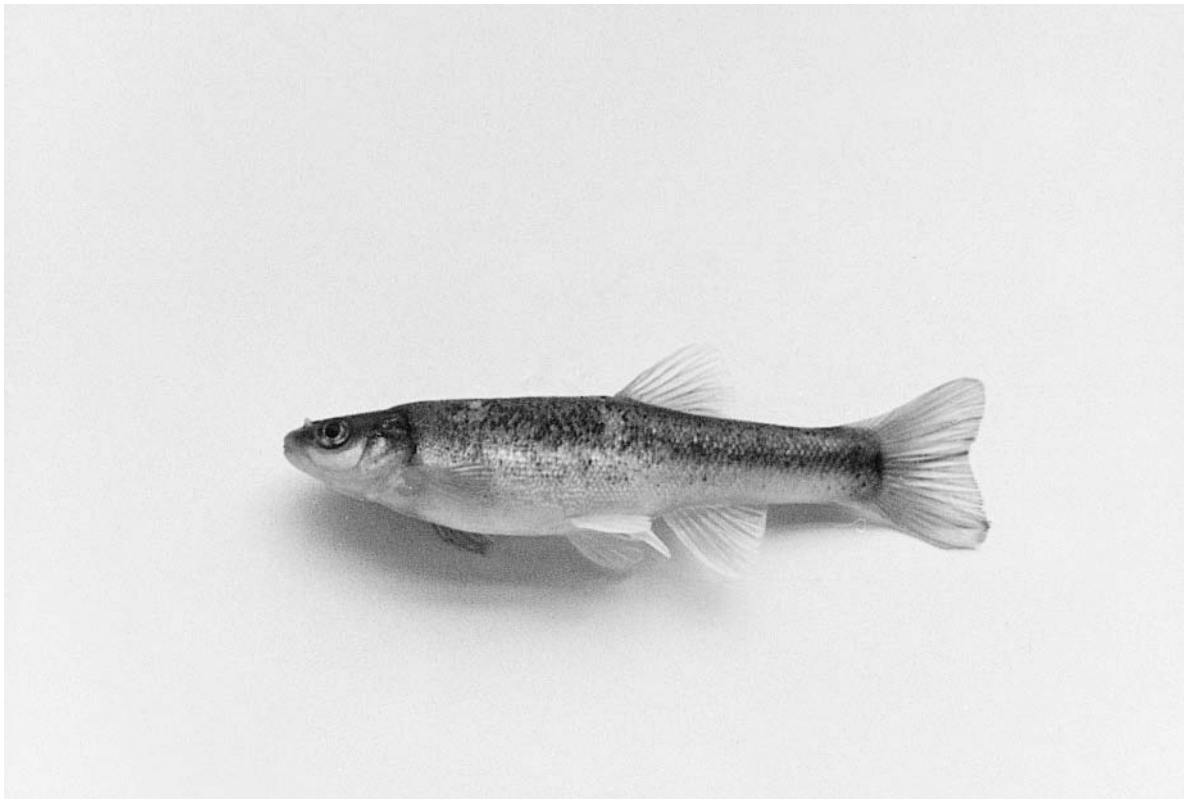
〈사진 24〉 긴몰개(한반도고유종)



〈사진 25〉 줄몰개



〈사진 26〉 버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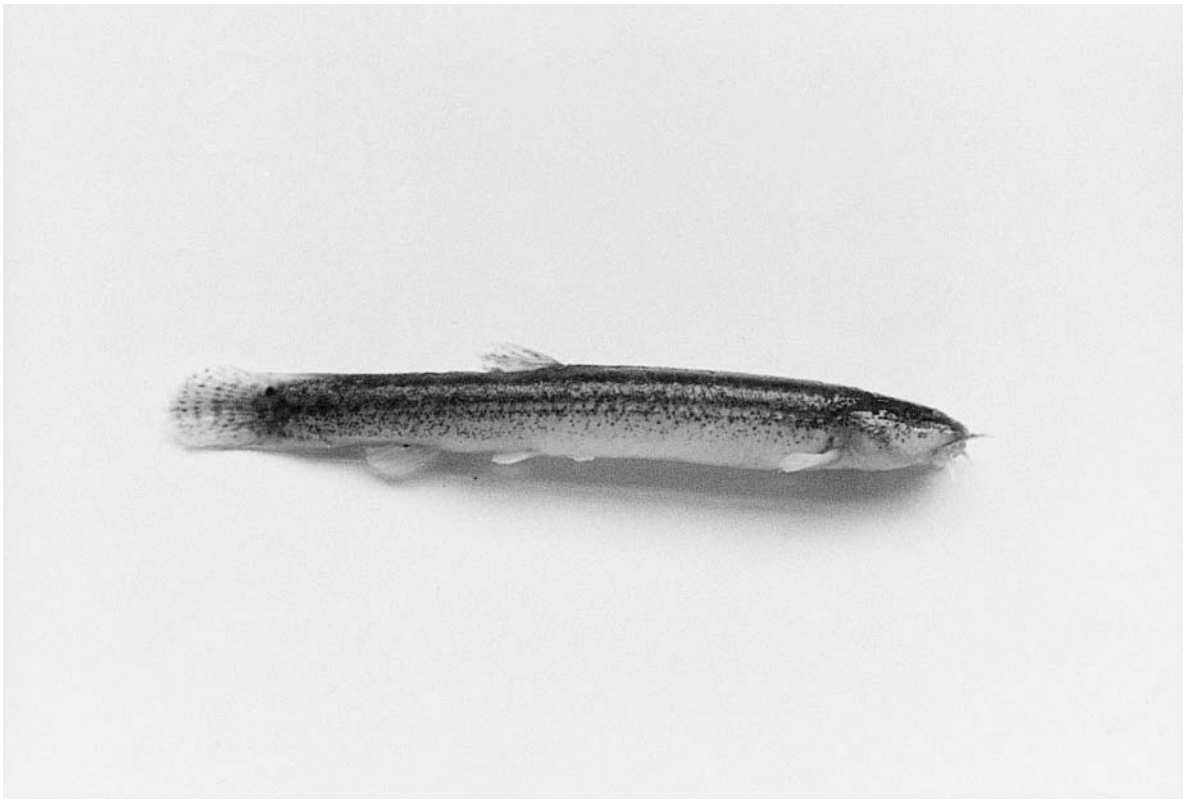
〈사진 27〉 버들치



〈사진 28〉 피라미



〈사진 29〉 갈겨니



〈사진 30〉 미꾸리



〈사진 31〉 쌀미꾸미



〈사진 32〉 참종개(한반도고유종)



〈사진 33〉 퉁가리(한반도고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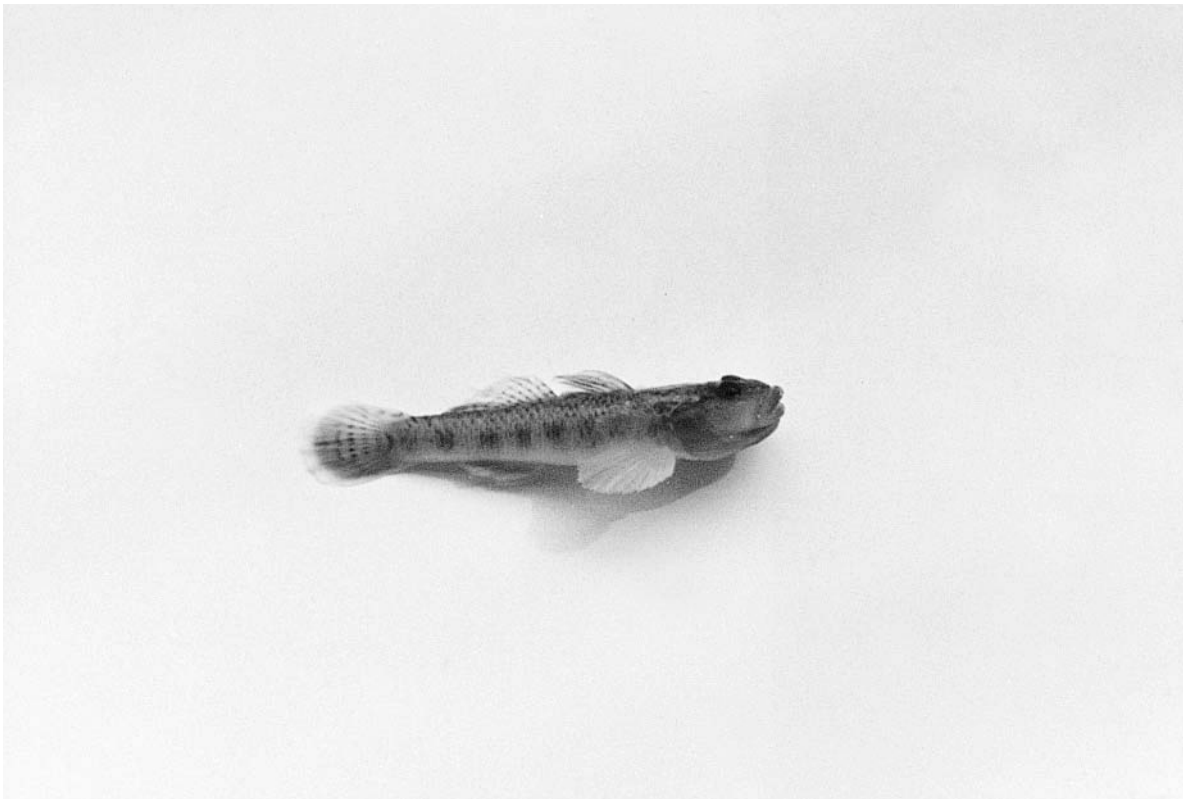
〈사진 34〉 대륙송사리



〈사진 35〉 꺽지(한반도고유종)



〈사진 36〉 얼룩동사리(한반도고유종)



〈사진 37〉 밀어



〈사진 38〉 민물두줄망둑



〈사진 39〉 민물검정망둑

참고문헌

백남극 · 심재한, 『뱀(지성자연사박물관 시리즈 ①)』, 지성사 출판사, 1999.
임업연구원,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3차 보고서』, 산림청 임업연구원, 1997.
임업연구원,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4차 보고서』, 산림청 임업연구원, 1998.
김익수, 「한국산 모래무지아과 어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한국수산학회지』 17, 1984.
김익수, 「한국담수산 골표상목과 극기상목 어류의 분류」, 『생물학연구연보』 8, 1988.
김익수, 『한국동식물도감- 동물편(담수어류)』 제37권, 교육부, 1997.
김익수 · 이금영 · 양서영, 「한국산 황어아과 어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한국수산학회지』 18, 1985.
김익수 · 강언종, 『원색 한국어류도감』, 아카데미서적, 서울, 1993.
변화근 · 전상린, 「국내에 도입된 파랑볼우럭(*Lepomis macrochirus*)의 식성」, 『한국환경생물학회지』 15(2), 1997.
손영목, 「한국산 퉁가리과 어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중앙대박사학위논문』, 서울, 1987.
손영목, 심재국, 김형기, 「대청호 호수생태계 조사연구」, 『대청호의 담수어류상』, 충청북도, 1991.
양홍준, 채병수, 「안동댐의 파랑볼우럭, *Lepomis macrochirus Rafineseque*의 생태학적 연구」, 『한국육수학회지』 30.
이충열, 「한국산 동자개과 어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전북대박사학위논문』, 전주, 1988.
田祥麟, 『韓國產淡水魚의 分布에 關하여』,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80.
田祥麟, 「韓國產 미꾸리科 魚類의 分布와 檢索에 關하여」, 『祥明女大論文集』 11, 1983.
田祥麟, 「韓國產 동자개科 및 메기科 魚類의 分布와 檢索에 關하여」, 『祥明女大論文集』14, 1984.
田祥麟, 「韓國產 농어科 周緣性淡水魚類의 分布와 檢索에 關하여」, 『祥明女大論文集』 18, 1986.
田祥麟, 「韓國產 둑중개科 및 큰가시고기科 周緣性 淡水魚의 檢索과 分布」, 『祥明女大論文集』 19, 1987.
田祥麟, 「한국산 황어속, 연준모치속 및 버들치속(황어아과) 어류의 검색과 분포」, 『상명여대논문집』 23, 1989.
田祥麟, 孫永牧, 金益秀, 楊洪準, 李忠烈, 崔忠吉, 『87 자연생태계전국조사(담수어류, 수서곤충)』, 환경청, 1987.
전상린 · 변화근,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삼림생태계 조사 3차 보고서-중 · 서부내륙지역-』, 산림천 임업연구소, 1997.
전상린 · 변화근,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삼림생태계 조사 4차 보고서-서부 해안 및 도서지방-』, 산림청 임업연구소, 1998.
鄭文基, 『韓國魚圖譜』, 一志社, 1977.
崔基哲 · 田祥麟 · 金益秀 · 孫永牧, 『原色韓國陸水魚圖鑑』, 鄕文社, 1990.
內田惠太郎(Uchida, K.), 『朝鮮魚類誌. 朝鮮總督府 水產試驗場報告』 6, 1939.
환경부, 「제2차 전국자연환경 조사 지침」, 1997.

4. 임진강 유역의 곤충상

1) 서 론

곤충은 전체 동물군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분화한 분류군으로서, 그들의 다양성과 상응하는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환경에 관한 생물학적 척도의 기초가 되는 생태계내 생물군 구성인자의 파악에 있어서 소장 곤충류의 파악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에 본 보고는 임진강유역의 파주, 연천, 포천, 철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곤충상을 파악하고, 아울러 확인된 종 중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한 종에 관한 고찰을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결과적으로 조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곤충종의 목록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그들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지역인 임진강유역의 파주, 연천, 포천, 철원지역은 전방지역으로서 군 작전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대체적으로 일반인의 통상적인 접근이 통제되어 레져 등을 위한 다양한 인간활동의 영향은 거의 없는 편이나, 군 작전상 요구되는 시계정리, 군 작전도로 등과 같은 특이한 인간활동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본 보고에서 다루는 곤충류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 결과이다. 본 지역의 특성상, 많은 지역에서 폭발물 등의 위험으로 인한 현지 접근과 야간유인채집에 필요한 야간활동이 제한됨으로서 현지조사의 경우 충분한 양의 곤충시료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기는 하나 오랜기간 다양한 분류군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온 과거 조사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현지조사 일정은 〈표 13〉과 같다.

〈표 13〉 현지조사 일정

일 정	장 소
2000. 4. 7 ~ 4. 9	경기도 파주시 일대
2000. 8. 5 ~ 8. 8	경기도 연천군 일대
2000. 8. 11 ~ 8. 17	경기도 연천군, 양주군, 파주군 일대
2000. 8. 26 ~ 8. 31	경기도 파주군, 포천군 일대
2000. 10. 7 ~ 10. 11	경기도 연천군 일대

현지조사시 포충망을 이용하여 관찰포획 및 쓸어잡기(sweeping)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 의하여 채집된 표본은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에 보관하였다.

2) 본론 및 결과

(1) 곤충상

문헌조사는 김등(1974), 김과 유(1987), 국토통일원(1989), 김등(1992), 신등(1993) 및 임업연구원(1998)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 보고에서 다루어진 분류군 중 학명 및 국명이 바뀐 것은 한국곤충명집(한국곤충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1994)과 각 분류군별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조사지역의 곤충은 총 11목 93과 444종 으로서 〈표 14 및 15〉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4〉 조사지역의 곤충상

분 류 군 (목)	분 류 군 수 (과 및 종)
잠자리목(Odonata)	1과 3종
사마귀목(mantodea)	1과 2종
집게벌레목(Dermaptera)	1과 3종
메뚜기목(Orthoptera)	6과 38종
노린재목(Hemiptera)	8과 13종
매미목(Homoptera)	1과 1종
풀잠자리목(Neuroptera)	2과 2종
딱정벌레목(Coleoptera)	29과 170종
파리목(Diptera)	15과 40종
벌목(Hymenoptera)	15과 88종
나비목(Lepidoptera)	14과 84종
	11목 93과 444종

딱정벌레목, 벌목, 나비목, 파리목, 메뚜기목 등의 순으로 높은 종다양성을 보여주고있다. 이들중 상위 3개목은 전체 확인된 종수에 대비하여 각각 0.38(170/444, 딱정벌레목의 종수/전체 채집된 종수), 0.19, 0.18의 값을 나타냄으로서 전체 분류군의 75%를 차지한다. 주요분류군의 일반적인 동태를 살펴보면, 딱정벌레목의 경우, 대형 교목을 주서식지로 이용하는 대형의 종보다는 키가 낮은 관목이나 초지에서 쉽게 발견되는 잎벌레, 무당벌레, 바구미와 같은 종류들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술한 현지조사시 발달된 수림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제한요인(이러한 사항은 과거 본 조사지역으로부터 연구를 수행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도 지적되었던 점이다)과 금년의 조사가 대부분 수계의 주변부에서 이루어 짐으로서 수변의 초지 혹은 관목림서식 곤충종에 집중적인 채집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목의 경우, 식식성인 넓적허리벌류와 좀벌류, 고치벌, 맵시벌류와 같은 기생벌류 및 대모벌, 쌍

살벌, 말벌, 호리병벌, 구멍벌과 같은 포식성벌류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분류군들이 고르게 출현한 것으로 보아 이지역의 곤충상은 비교적 안정적인 먹이망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해주고 있다. 특히 상위영양단계인 기생 및 포식성벌류의 대부분은 하위단계의 곤충류 개체군 조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식물개체군의 조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연상태에서 비교적 낮은 밀도로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비교적 높은 출현도는 분명 비교적 안정적인 서식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류군이 과거 기록에 의하여 보고된 종들이고 금년의 현지조사를 통하여는 매우 적은 종수가 관찰된 점으로 보아, 본 지역의 초기 연구시기보다는 교란에 의한 곤충종 조성 및 개체군 감소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 민간인의 출입이 적극적으로 통제되었던 대부분의 지역이 레져 및 농경과 같은 빈번한 인간간섭에 의한 이들 서식지의 교란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비목의 경우 야간채집의 제한에 의하여 주행성 나방류와 주간중 채집이 가능한 나비아목에 속한 종류가 중점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야간채집이 실시된다면 종 조성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고려된다. 파리목과 메뚜기목의 경우 확인된 분류군에 고른 종수를 보이고 있으나 파리목의 경우 들꽃에서 쉽게 관찰, 포획되는 꽃등에류가 조금 우세한 분류군으로 보여지나, 한국산 파리류에 관한 참고문헌의 부족 등에 의하여 대부분의 분류군이 미동정 상태에 있다. 따라서 파리목도 보다 충실한 동정작업이 요구되며 본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분류군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메뚜기목에 속한 출현종수의 경우에는 전체 한국산으로서 기록된 종의 30%정도가 확인되어 조사지역의 면적에 대비한 종수비에서 매우높은 출현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딱정벌레목의 고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지점의 대부분에서 관찰되는 키가 낮은 관목림이나 초지로 구성되어 식생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의 곤충상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곤충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식물이나 특별한 보존을 필요로 하는 주목 곤충종은 아래와 같다. 다만 매미목, 잠자리목 및 파리목과 같은 종류는 금년의 현지조사 및 과거의 기록에서도 매우 채집이 빈약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조사활동시의 다양한 제한요인에 의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조사지역의 자연환경 상황을 시사해 주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특이곤충류

조사지역으로부터 환경부 지정 보호 곤충(권등, 1998)의 발견은 없었으나 아래와 같은 분류군들은 각종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희귀성이 지적되었던 분류군이다.

① 꼬마길앞잡이(*Cicindela elisae koreanica Mandl*)

본종에 관한 서식처의 특수성 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정보와 서식실태에 관하여 박과김 (1993), 김등 (1994)에 의하여 논의 되었다. 대체적으로 서식처의 특수성 및 개체군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분류군으로 고려된다. 당시 덕적도의 서식처 보호추진이 논의 되었던 바, 본 조사지역으로부터도 서식처에 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되는 종이다. 주로 강가나 해안의 사지에 출현한다. 가장 최근의 조사기록으로서 임업연구원(1998)에 의하여 연천 사미천으로부터 1개체가 채집되었다.

② 톱사슴벌레(*Prosopocilus inclinatus (Motschulsky)*)

본 종은 환경부(1993)에 의하여 감소추세의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 고시된 종류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으로부터 보통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대형종으로서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교목림의 보호가 요구되는 종이다. 조사지역으로부터는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로부터의 기록이 있다.

③ 부산풍뎅이(*Mimela fusania Bates*)

김(1998)에 의하여 위급 혹은 위기종으로 분류된 종이다. 과거 대형의 개체군을 유지하였으나 1970년도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체표의 막질 및 웅성생식기의 경화상태가 빈약하여 종의 유지여부가 우려되는 종이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파주 임진면에서의 기록이 있다.

④ 큰수리팔랑나비(*Bibasis striata (Hewitson)*)

희귀종이다. 근년에는 채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낮은 산지의 풀밭에 서식하며 참나무의 수액에 모인다(신, 1990). 파주 임진면으로부터의 기록이 있다.

〈표 15〉 곤충종 목록

Order Odonata 잠자리목
Family Libellulidae 잠자리과
Lyriothemis pachygastra (Selys) 베치레잠자리
Orthetrum triangulare melania (Selys) 큰밀잠자리
Pentala flavescens (Fabricius) 된장잠자리
Sympterum depressiusculum (Selys) 고추좀잠자리
Order Mantodea 사마귀목
Family Mantidae 사마귀과
Mantis religiosa (Linnaeus) 항나사마귀
Paratenodera angustipennis Saussure 사마귀
Order Dermaptera 집게벌레목
Family Forficulidae 집게벌레과
Anechura japonica (Bormans) 좀집게벌레
Forficula scudderi Bormans 못뿜이집게벌레
Timmomenus komarowi (Semenov) 고마브로집게벌레
Order Orthoptera 메뚜기목
Family Tettigonidae 여치과

Elimaea grandis (Matsumura et Shiraki) 큰실베짱이
Phaneroptera falcata (Poda) 실베짱이
Phaneroptera nigroantennata Brunner 검은다리실베짱이
Mecopoda elongata (Linnaeus) 칠써기
Hexacentrus unicolor Serville 베짱이
Conocephalus gladiatus (Redtenbacher) 긴꼬리쌕새기
Conocephalus japonicus (Redtenbacher) 좀쌕새기
Gampsocleis sedakovi obscura Walker 여치
Gampsocleis ussuriensis Adelung 긴날개여치
Metrioptera bonneti (Bolivar) 잔날개여치
Tettigonia viridissima (Linnaeus) 중베짱이
Family Oecanthidae 긴꼬리과
Oecanthus indicus Saussure 긴꼬리
Family Gryllidae 귀뚜라미과
Loxoblemmus arietulus Saussure 알락귀뚜라미
Scapsipedus mandibularis Saussure 애귀뚜라미
Teleogryllus emma (Omachi et Matsumura) 왕귀뚜라미
Family Tetrigidae 모메뚜기과
Euparatettix insularis Bey-Bienko 장삼모메뚜기
Tetrix japonica (Bolivar) 모메뚜기
Family Pyrgomorphidae 섬서구메뚜기과
Atractomorpha lata (Motschulsky) 섬서구메뚜기
Family Acrididae 메뚜기과
Oxya chinensis (Thunberg) 잔날개벼메뚜기
Oxya japonica (Thunberg) 벼메뚜기
Oxya nakaii Furukawa 만주벼메뚜기
Mecostethus alliaceus (Germer) 벼메뚜기붙이
Anapodisma miramae Dovna-Zapol' skii 밑들이메뚜기
Calliptamus abbeviatus Ikonnikov 한국땅딸보메뚜기
Shirakiacris shiraki (Bolivar) 등검은메뚜기
Acrida cinerea (Thunberg) 방아깨비
Gonista bicolor (de Hann) 딱따기
Acryptera coreana Shiraki 참어리삽사리
Chorppus brunneus (Thunberg) 애메뚜기
Megaulacobothrus lattipennis (Bolivar) 폭날개애메뚜기
Mongolotettix japonicus (Bolivar) 섬나라메뚜기
Stethophyma magister (Rehn) 끝검은메뚜기
Celes skalozubovi akitanus Shiraki 홍날개메뚜기

Gastrimargus marmoratus (Thunberg) 콩중이
Locusta migratoria (Linnaeus) 풀무치
Oedaleus infernalis Saussure 팥중이
Trilophidia annulata Thunberg 두꺼비메뚜기
Bryodema tuberculatum dilutum (Stoll) 참홍날개메뚜기

Order Hemiptera 노린재목

Family Plataspididae 알노린재과
Coptosoma biguttulum Montandon 눈박이알노린재
Family Alydidae 호리리허리노린재과
Riptortus clavatus (Thunberg) 톱다리허리노린재
Family Coreidae 허리노린재과
Hygia lativentris (Motschulsky) 떼허리노린재
Molipteryx fuliginosa (Uhler) 큰허리노린재
Family Lygaenidae 긴노린재과
Nyssius plebejus Distant 애긴노린재
Family Rhopalidae 잡초노린재과
Rhopalus maculatus (Fieber) 붉은잡초노린재
Stictopleurus crassicornis (Linne) 흑다리잡초노린재
Family Reduviidae 침노린재과
Sphedanolestes impressicollis (Stal) 다리무늬침노린재
Family Pentatomidae 노린재과
Aelia fieberi Scott 메추리노린재
Carbula putoni (Jakovlev) 가시노린재
Eurydema rugosa Motschulsky 비단노린재
Dolycoris baccarum (Linnaeus) 알락수염노린재
Family Nepidae 장구애비과
Nepa hoffmanni Eversmann 메추리장구애비

Order Homoptera 매미목

Family Cicadidae 매미과
Platypleura kaempferi (Fabricius) 털매미

Order Neuroptera 풀잠자리목

Family Mantispidae 사마귀붙이과
Mantispa japonica Maclachlan 애사마귀붙이
Family Ascalapidae 노랑뿔잠자리과
Ascalaphus sibiricus Eversmann 노랑뿔잠자리

Order Cole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Cincindelidae 길앞잡이과
Cincindela elisae koreanica Motschulsky 꼬마길앞잡이

Cincindela gemmata Faldermann 아이누길앞잡이
Cincindela transbaikalia japanensis Chaudoir 뜰길앞잡이
Family Carabidae 딱정벌레과
Harpalus chalcentus Bates 가는청동먼지벌레
Harpalus sinicus Hope 중국머리먼지벌레
Harpalus tridens Morawitz 꼬마머리먼지벌레
Synuchus cycloderus (Bates) 검정목긴먼지벌레
Family Histeridae 풍뎅이붙이과
Atholus depistor (Maeseul) 어깨줄풍뎅이부치
Carcinops pumilio (Erichson) 모가슴풍뎅이부치
Hister japonicus Marseul 왜콩풍뎅이부치
Margarinotus sutus (Lewis) 꼬마좀풍뎅이부치
Margarinotus niponicus (Lewis) 좀풍뎅이부치
Family Helodidae 알꽃벼룩과
Scirtes japonicus Kiesenwetter 알꽃벼룩
Family Lucanidae 사슴벌레과
Lucanus maculifemoratus dyboeskii Rarry 사슴벌레
Prosopocoilus inclinatus (Motschulsky) 톱사슴벌레
Family Geotrupidae 금풍뎅이과
Chromogeotrupes auratus (Motschulsky) 보라금풍뎅이
Family Scarabaeidae 소똥구리과
Caccobius unicornis (Fabricius) 왜뿔애기꼬마소똥구리
Corpis ochus (Motschulsky) 뿔소똥구리
Corpis tripartitus Waterhouse 애기뿔소똥구리
Onthophagus japonicus Harold 소요산소똥풍뎅이
Onthophagus lenzii Harold 렌지소똥풍뎅이
Family Aphodiidae 똥풍뎅이과
Aphodius rectus (Motschulsky) 똥풍뎅이
Aphodius apicalis Harold 왕똥풍뎅이
Aphodius urostigma Harold 갓털똥풍뎅이
Aphodius uniplagiatus Waterhouse 띠똥풍뎅이
Aphodius sublimbatus (Motschulsky) 엷은똥풍뎅이
Aphodius sturmi Harold 애노랑똥풍뎅이
Family Melolonthidae 검정풍뎅이과
Apogonia cupreoviridis (Kolbe) 감자풍뎅이
Gastroserica herzi (Heyden) 줄우단풍뎅이
Heptophylla picea Motschulsky 긴다색풍뎅이
Holotrichia koraiensis Murayama 고려다색풍뎅이

Holotrichia pieca Waterhouse 꼬마검정풍뎅이
Maladera holosericea (Scopoli) 홀쭉우단풍뎅이
Maladera orientalis (Motschulsky) 애우단풍뎅이
Family Rutelidae 풍뎅이과
Adoretus tenuimaculatus Waterhouse 주둥무늬차색풍뎅이
Anomala daimiana Harold 벗나무풍뎅이
Anomala sievrsi Heyden 대마도줄풍뎅이
Anomala viridana Kolbe 애청동풍뎅이
Blitopertha pallidipennis Reitter 연노랑풍뎅이
Blitopertha orientalis (Waterhouse) 등얼룩풍뎅이
Mimela fusania Bates 부산풍뎅이
Mimela splendens Gyllenhal 풍뎅이
Mimela testaceipes Motschulsky 별줄풍뎅이
Popillia flavosellata Fairmaire 참콩풍뎅이
Popillia uchidai Niijima et Kinoshita 우찌다콩풍뎅이
Family Cetoniidae 꽃무지과
Cinterocera obsoleta (Fairmaire) 홀쭉꽃무지
Gametis jucunda Faldermann 풀색꽃무지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Kolbe) 흰점박이꽃무지
Protaetia cataphracta Arrow 말굽점박이꽃무지
Trichius succinctus (Pallas) 호랑꽃무지
Family Bprestidae 비단벌레과
Agrilus tibialis Lewis 풀색호리비단벌레
Trachys minuta (Linnaeus) 버드나무좀비단벌레
Family Elateridae 방아벌레과
Actenicerus pruinosus (Motschulsky) 왕얼룩큰뿔방아벌레
Agrypunus binodulus coreanus Kishii 녹슬은넓적방아벌레
Agrypunus fuliginosus (Candéze) 꼬마알락방아벌레
Dicronychus adjutor (Candéze) 홍다리꽃방아벌레
Melanotus cete Candeze 붉은다리빗살방아벌레
Melanotus restricus Candéze 검정빗살방아벌레
Neopristilophus serrifer (Candéze) 홍다리큰뿔수염방아벌레
Paracardiophorus pullatus (Candéze) 해변방아벌레
Family Cantharidae 병대벌레과
Wittmercantharis vulcana (Lewis) 붉은가슴병대벌레
Family Trogossitidae 쌀도적과
Leperina aqumulosa (Gebler) 얼러지쌀도적
Family Cleridae 개미붙이과

Opilo carinatus Lewis 얼룩이개미붙이
Tilloidea notata (Klug) 띠가슴개미붙이
Tillus igrashii Kono 갈색날개개미붙이
Family Helotidae 나무쑤시기과
Helota fulviventris Kolbe 고려나무쑤시기
Family Anobiidae 빗살수염벌레과
Stegobium paniceum (Linnaeus) 인삼벌레
Family Coccinellidae 무당벌레과
Aiolocaria hexaspilota (Hope) 남생이무당벌레
Coccinella septempunctata Linnaeus 칠성무당벌레
Harmonia axyridis (Pallas) 무당벌레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Motschulsky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Hippodamia tredecimpunctata (Linnaeus) 열석점긴다리무당벌레
Prophylea japonica (Thunberg) 꼬마남생이무당벌레
Scymnus dorotae Bielawiski 북방애기무당벌레
Family Corylophidae 고목둥근벌레과
Ancylopus pictus asiaticus Strohecker 무당벌레붙이
Family Oedemeridae 하늘소붙이과
Oedemera sieversii Seidlitz 시베르스하늘소붙이
Family Anthicidae 뿔벌레과
Pseudoleptaleus trigibber Marseul 끝검은뿔벌레
Family Meloidae 가뢰과
Epicauta chinensis taishoensis (Lewis) 먹가뢰
Schroetteria polita Gebler 네눈박이가뢰
Family Cerambycidae 하늘소과
Agapanthia pilicornis (Fabricius) 남색초원하늘소
Amarysius altajensis (Laxmann) 무늬소주홍하늘소
Anoplophora malaciaca (Thomson) 알락하늘소
Apriona germari (Hope) 뽕나무하늘소
Arhopalus rusticus (Linnaeus) 큰넓적하늘소
Asemum striatum (Linnaeus) 작은넓적하늘소
Asias halodendri (Pallas) 먹주홍하늘소
Dinoptera minuta (Gebler) 남풀색하늘소
Leptura duodecimguttata Fabricius 열두점박이꽃하늘소
Moechotypa diphysis (Pascoe) 털두꺼비하늘소
Prionus insularis Motschulsky 톱하늘소
Polyzonus fasciatus (Fabricius) 노란띠하늘소
Thyestilla gebleri (Faldermann) 삼하늘소

Family Chrysomelidae 잎벌레과

Agelastica coerulea Baly 오리나무잎벌레
Altica cirsicola Ohno 어깨벼룩잎벌레
Altica oleracea (Linnaeus) 작은벼룩잎벌레
Asiorestia obscuritarsis (Motschulsky) 큰골가슴벼룩잎벌레
Atrachya menetriesi (Faldermann) 닮은오이더듬이긴잎벌레
Aulacophora nigripennis (Gmelin) 검정오이잎벌레
Basilepta fulvipes (Motschulsky) 금록색잎벌레
Cassida fuscorufa Motschulsky 적갈색남생이잎벌레
Cassida nebulosa Linnaeus 남생이잎벌레
Chrysochus chinensis Baly 중국청람색잎벌레
Chrysolina aurichalcea (Motschulsky) 쑥잎벌레
Chrysolina ewanthematica (Wiedemann) 박하잎벌레
Chrysolina virgata (Motschulsky) 청줄보라잎벌레
Chrysomela vigintipunctata (Scopoli) 버들잎벌레
Clytharxeloma cyanipennis Kraatz 수중다리잎벌레
Clytra arida Weise 넉점박이큰가슴잎벌레
Cneorane elegans Baly 노란가슴긴잎벌레
Cryptocephalus bipunctatus cautus Weise 어깨두점박이통잎벌레
Cryptocephalus fortunatus Baly 황갈색다리통잎벌레
Cryptocephalus japanus Baly 팔점박이통잎벌레
Demotina modesta Baly 경기잎벌레
Galeruca extensa Motschulsky 파잎벌레
Gallerucida bifasciata Motschulsky 상아잎벌레
Gonioctena fulva (Motschulsky) 수염잎벌레
Hemipyxis plagioderoides (Motschulsky) 보라색잎벌레
Hispellinus moerens (Baly) 가시잎벌레
Lema concinnipennis Baly 배노랑긴가슴잎벌레
Lema diversa Baly 큰벼잘룩목잎벌레
Lilioceris scapularis (Baly) 등빨간긴가슴잎벌레
Lochmaea capreae (Linnaeus) 질경이잎벌레
Longtarsus succineus (Fabricius) 긴발벼룩잎벌레
Monolepta pallidula (Baly) 노랑발톱잎벌레
Monolepta quadriguttata (Baly) 점박이잎벌레
Nonarthra cyaneum Baly 점날개잎벌레
Ophrida spectabilis (Baly) 왕벼룩잎벌레
Pagria signata (Motschulsky) 콩잎벌레
Phyllotreta striolata (Fabricius) 벼룩잎벌레

Physosmaragdina nigrifrons (Hope) 밤나무잎벌레
Plagiodera versicolora (Laichartig) 버들꼬마잎벌레
Pyrrhalta maculicollis (Motschulsky) 띠띤수염잎벌레
Smargdina aurita (Linnaeus) 쪽동백잎벌레
Thlaspida cribrosa (Bohemann) 큰남생이잎벌레
Family Bruchidae 콩바구미과
Callosobruchus chinensis (Linnaeus) 콩바구미
Family Attelabidae 거우벌레과
Apoderus erythropterus (Zschach) 북방거우벌레
Paroplapoderus angulipennis (Kolbe) 어깨넓은거우벌레
Paracycnotrachelus longceps (Motschulsky) 왕거우벌레
Family Cuculionidae 바구미과
Asphalmus japonicus Sharp 윤줄바구미
Baris dispilota (Solsky) 흰점박이꽃바구미
Calomycterus setarius Roelofs 털줄바구미
Chlorophanus auripes Faust 홍다리청바구미
Chlorophanus grandis Roelofs 황초록바구미
Cleonus japonicus Faust 흰줄바구미
Enaptorhinus granulatus Pascoe 털보바구미
Episomus turritus (Gyllenhal) 혹바구미
Lixus acutipennis (Roelofs) 흰띠길쭉바구미
Lixus impressiventris Roelofs 길쭉바구미
Lixus maculatus Roelofs 점박이길쭉바구미
Lixus moiwanus Kono 뾰족날개길쭉바구미
Lixus subtilis Bohemann 채소길쭉바구미
Macrocorymus variabilis (Roelofs) 왕주둥이바구미
Mesalcidodes trifidus (Pascoe) 배자바구미
Myllocerus fumosus (Faust) 녹갈색바구미
Myllocerus griseus (Roelofs) 섭주둥이바구미
Phyllobius longicornis Roelofs 능금녹색가루바구미
Phyllobius rotundicollis Roelofs 큰녹색가루바구미
Pseudocneorhinus adamsi Roelofs 얼룩무늬가시털바구미
Pseudocneorhinus setosus Roelofs 가시털바구미
Rhynchaenus japonicus (Hustache) 떡갈나무벼룩바구미

Order Diptera 파리목

Family Bibionidae 털파리과
Bibio pseudoclavipes Okada 어리수중다리털파리
Bibio tenebrosus Coquillett 검털파리

Family Tipulidae 각다귀과
Tipula aino Alexander 아이노각다귀
Family Culicidae 모기과
Anopheles sineroides Yamada 가중국얼룩날개모기
Culex bitaeniorhynchus Giles 반점날개집모기
Culex sinensis Theobald 세점박이집모기
Culex vagans Wiedemann 줄다리집모기
Family Stratiamyidae 동애등에과
Ptecticus tenebrifer (Walker) 동애등에
Family Tabanidae 등에과
Chrysops japonicus Weidemann 검정대모등에
Chrysops suavis Loew 대모등에붙이
Family Nemestrinidae 어리재니등에과
Hirmoneura orientalis Lichtwardt 어리재니등에
Family Bombyliidae 재니등에과
Anthrax putealis Matsumura 끝붉은재니등에
Lygira tantalus (Fabricius) 검정날개재니등에
Systrophus nitobei Matsumura 나나니등에
Systrophus suzukii Matsumura 스즈키나나니등에
Family Asilidae 파리매과
Neoitamus angusticornis (Lowe) 광대파리매
Trichomachimus scutellaris (Coquillett) 검정파리매
Family Syrphidae 꽃등에과
Allograpta balteata (de Geer) 호리꽃등에
Chrysotoxum festivum (Linnaeus) 수염치레꽃등에
Chrysotoxum shirakii Matsumura 일본수염치레꽃등에
Eristalis arbustorum (Linnaeus) 덩굴꽃등에
Eristalis tenax (Linnaeus) 꽃등에
Eristalis cerealis Fabricius 배짧은꽃등에
Epistrophe balteata de Geer 꽃등에
Helophilus sapporensis Matsumura 삿뽀로수중다리꽃등에
Helophilus virgatus Coquillett 수중다리꽃등에
Melanostoma scalare (Fabricius) 광꽃등에
Sphaerophoria menthastri (Linnaeus) 꼬마꽃등에
Vollucella pellucens tabanoides Motschulsky 어리대모꽃등에
Family Conopidae 벌붙이파리과
Conops opimus Coquillett 검정가슴벌붙이파리
Conops santaroi Ouchi 산타로벌붙이파리

Physocephala obscura Matsumura 왕벌붙이파리
Family Scatophagidae 똥파리과
Scatophaga mellipes (Coquillett) 왕똥파리
Family Muscidae 집파리과
Hydrotaea dentipes (fabricius) 혹다리꽃파리
Family Calliphoridae 검정파리과
Calliphora lata Coquillett 큰검정파리
Lucilia porphyrina (Walker) 붉은등금파리
Family Sarcophagidae 쉬파리과
Kramerea schuetzei (Kramer) 검정쉬파리
Parasarcophaga harpax (Pandelle) 풀쉬파리
Parasarcophaga kanoi (Park) 가노오쉬파리
Family Tachinidae 기생파리과
Prosena siberita (Fabricius) 참풍뎅이기생파리
Order Hymenoptera 벌목
Family Argidae 등에잎벌과
Arge nipponensis Rohwer 왜장미등에잎벌
Arge similis (Vollenhoven) 극동등에잎벌
Family Cimbicidae 수중다리잎벌과
Abia iridescens Marlatt 구리수중다리잎벌
Cimbex femorata (Linnaeus) 수중다리잎벌
Pseudoclavellaris amerinae (Linnaeus) 버들수중다리잎벌
Family Tenthredinidae 잎벌과
Caliroa oishii (Takeuchi) 참나무잎벌
Dolerus armillatus Konow 어리노랑배잎벌
Pristiphora wesmaeli (Lepeletier) 낙엽송노란잎벌
Tenthredo nigropicta (Smith) 황줄잎벌
Family Chalcididae 수중다리좀벌과
Brachymeria fiskei (Crawford) 피스케수중다리좀벌
Brachymeria funesta Hebu 흑수중다리좀벌
Family Gasteruptiidae 곤봉호리벌과
Gastruption thomasoni Schletterer 곤봉호리벌
Family Braconidae 고치벌과
Bracon onukii Watanabe 명충살이고치벌
Cremnops atricornis (Smith) 먹고치벌
Glyptanteles liparidis (Bouché) 독나방살이고치벌
Iphiaulax imposter (Scopoli) 홍고치벌
Family Ichneumonidae 맵시벌과

Acroricnus ambulator Smith 긴꼬리뾰족맵시벌
Agrypon longipropodeum Lee et Kim 긴가슴자루맵시벌
Chlorocryptus coreanus Szepligeti 청뾰족맵시벌
Diphyus iwatai (Uchida) 이와타맵시벌
Diphyus suigensis (Uchida) 수원맵시벌
Echthrus reluctator sibericus Kokujev 껌둥이뾰족맵시벌
Exetastes ichneumoniformis Gravenhorst 긴수염어리뭉툭맵시벌
Heteropelma calcator Wesmael 긴기락지자루맵시벌
Hyposoter tagakii (Matsumura) 송충잡이자루맵시벌
Iseropus orientalis Uchida 배가시납작맵시벌
Lampronota obsoleta chosensis (Uchida) 털털이맵시벌
Metopius dissectorius rufofemoralis Kim 홍다리중뭉툭맵시벌
Neotypus nobilitator orientalis Uchida 등빨간맵시벌
Ophion orientalis Uchida 동양왕자로맵시벌
Polytribax penetrator (Smith) 검정배뾰족맵시벌
Pterocormus inqunatus (Wesmael) 빨간테맵시벌
Pterocormus sugiharai (Uchida) 스기하라맵시벌
Rhorus tagakii (Uchida) 타가기뭉툭맵시벌
Trachysphyrus albimandibularis (Uchida) 흰턱뾰족맵시벌
Tricholabus strigatorius coreanus (Uchida) 참줄맵시벌
Trogus bicolor Radoszkowski 두색맵시벌
Xylophrurus coreensis Uchida 코리아뾰족맵시벌
Xylophrurus melanius Uchida 멜란뾰족맵시벌

Family Chrysididae 청벌과
Chrysis cavaleriei Buysson 부이손청벌

Family Tiphiidae 굼벵이벌
Tiphia popilliavora Rohwer 왕굼벵이벌

Family Scoliidae 배벌과
Campsomeris annulata Fabricius 애배벌
Campsomeris prismatica Smith 금테줄배벌
Campsomeris schulthessi Betrem 배벌

Family Formicidae 개미과
Formica japonica Motschulsky 곰개미
Formica truncorum Fabricius 유럽홍개미

Family Pompilidae 대모벌과
Dipogon secundus Dalla Torre 애검정대모벌
Episyron arrogans (Smith) 허리무늬대모벌
Priocnemis mitakensis Ishikawa 미타케대모벌

Family Vespidae 말벌과

Anterhynchium flavomarginatum koreanum Yamane 한국황슭감탕벌

Eumenes punctatus Smith 점호리병벌

Oreumenes decoratus (Smith) 큰호리병벌

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Perez 두눈박이쌍살벌

Polistes mandarinus Sausure 어리별쌍살벌

Polistes snelleni Saussure 별쌍살벌

Polistes yokohamae Radoszkowski

Vespula flaviceps Smith 땅벌

Vespa mandarinia Linnaeus 장수말벌

Vespa simillima Smith 털보말벌

Family Sphecidae 구멍벌과

Ammophila atripes japonica Kohl 별나나니

Ammophila sabulosa nipponica Tsuneki 일본나나니

Cerceris arenaria Linnaeus 띠노래기벌

Cerceris hortivaga Kohl 노래기벌

Psen affinis Gussakovskij 쿠사코브스키꼬마구멍벌

Sceliphron deforme Smith 노란점나나니

Sphex occitanicus Lepeletier et Serville 홍배조롱박벌

Sphex subfuscatus Dahlbom 어리조롱박벌

Family Apidae 꿀벌과

Andrena pruniphora Hirashima 사과애꽃벌

Andrena knuthi Alfken 크누드애꽃벌

Apis mellifera Linnaeus 양봉꿀벌

Bombus hypocrita sapporoensis Cockerell 삿뽀로뒤영벌

Bombus ignitus Smith 호박벌

Ceratina japonica Cockerell 일본광채꽃벌

Colletes collaris Dours 어리꿀벌

Colletes pateratus Pérez 수중다리어리꿀벌

Crocisa emarginata Lepeletier 루리알락꽃벌

Dasypoda japonica Cockerell 털보꿀벌

Eucera spuratipes Pérez 수염줄벌

Halictus aerarius Smith 스미드애꽃벌

Lasioglossom duplex Dalla Torre 듀플렉스줄애꽃벌

Lasioglossom laeviventre Pérez 페레크줄애꽃벌

Lasioglossom mutillum Vachal 어리흰줄애꽃벌

Lasioglossom sabopacum Smith 흰줄애꽃벌

Megachile abluta Cockerell 화장가위벌

Megachile japonica Alfken 노란줄가위벌
Megachile rixator Cockerell 지나가위벌
Nomada galloisi Yasumatsu et Hirashima 갈로이시알락꽃벌
Xylocopa appendiculata circumvolans Smith 어리호박벌

Order Lepidoptera 나비목

Family Zygenidae 알락나방과
Pryeri sinica Moore 노랑턱알락나방
Family Pyralidae 명나방과
Mabra charonidae (Walker) 세점노랑들명나방
Oncocera semirubella (Scopoli) 앞붉은명나방
Family Tortricidae 잎말이나방과
Grapholita delineana (Walker) 네줄애기잎말이나방
Family Geometridae 자나방과
Abraxas latifasciata Warren 참빗살얼룩가지나방
Cystidia stratonica (Stoll) 잠자리가지나방
Family Lymantriidae 독나방과
Arctornis kumatai Inoue 점흰독나방
Euproctis similis (Fuessly) 흰독나방
Euproctis subfalva (Bremer) 독나방
Ivela auripes (Butler) 황다리독나방
Family Arctiidae 불나방과
Hyphantria cunea (Druny) 미국흰불나방
Miltochrista pulchera Butler 알락주홍불나방
Spilosoma lubricipeda (Linnaeus) 배점무늬불나방
Stigmatophora flava (Bremer et Grey) 알락노란불나방
Family Ctenuchidae 애기나방과
Amata germana (Felder et Felder) 노랑애기나방
Family Noctuidae 밤나방과
Calyptra thalictri (Borkhausen) 갈고리밤나방
Catocala electa (Vieweg) 회색붉은뒷날개밤나방
Family Hesperidae 팔랑나비과
Aeromachus inachus (Ménètriès) 파리팔랑나비
Bibasis striata (Hewitson) 큰수리팔랑나비
Carterocephalus dieokmanni Graeser 참알락팔랑나비
Daimio tethys (Ménèstriè) 왕자팔랑나비
Heterocephalus morpheus (Pallas) 동무늬팔랑나비
Erynnis montanus (Bremer) 멧팔랑나비
Leptalina unicolor (Bremer et Grey) 은줄팔랑나비

Lobocla bifasciata (Bremer et Grey) 왕팔랑나비
Ochlodes subhyalina (Bremer et Grey) 유리창떠들석나비
Family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Atrophaneura alcinous (Klug) 사향제비나비
Papilio bianor Cramer 제비나비
Papilio maackii Ménèstriè 산제비나비
Papilio machaon Linnaeus 산호랑나비
Papilio xuthus Linnaeus 호랑나비
Parnassius stubbendorfii Ménéstriè 모시나비
Sericinus montela Gray 꼬리명주나비
Family Pieridae 흰나비과
Artogeia canidia (Linnaeus) 대만흰나비
Artogeia meleta (Ménéstriè) 큰줄흰나비
Artogeia rapae (Linnaeus) 배추흰나비
Artogeia napi (Linnaeus) 줄흰나비
Colias erate (Esper) 노랑나비
Gonepteryx rhamni (Linnaeus) 멧노랑나비
Leptidea amurensis (Ménéstriè) 기생나비
Family Lycaenidae 부전나비과
Celastrina argiolus (Linnaeus) 푸른부전나비
Everes argiades (Pallas) 암먹부전나비
Favonius orientalis (Murray) 큰녹색부전나비
Fixsenia pruni (linnaeus) 벚나무까마귀부전나비
Japonica lutea (Hewitson) 귤빛부전나비
Lycaeides argyronomon (Bergstrasser) 부전나비
Lycaena dispar (Haworth) 큰주홍부전나비
Lycaena phlaeas (Linnaeus) 작은주홍부전나비
Maculinea arionides (Staudinger)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Plebejus argus (linnaeus) 산꼬마부전나비
Polyommatus eros (Oberthür) 사랑부전나비
Rapala caerulea (Bremer et Grey) 범부전나비
Scolitandides orion (pallas) 작은홍디점박이부전나비
Zizina otis (fabricius) 극남부전나비
Family Nymphalidae 네발나비과
Agryronome laodice (Pallas) 흰줄표범나비
Apatura ilia (Denis et Schiffermüller) 오색나비
Araschna burejana Bremer 거꾸로여덟팔나비
Clossina euphrosyne (linnaeus) 은점선표범나비

Clossina selene (Schiffermuller) 작은은점선표범나비
Cyntia cardui (Linnaeus) 작은멋쟁이나비
Demora sagana (Doubleday) 암검은표범나비
Eurodryas aurinia (Rottemburgh) 금빛어리표범나비
Fabricina adippe (Linnaeus) 긴은점표범나비
Kaniska canace (Linnaeus) 청띄신선나비
Melitaea diamina (Lang) 담색어리표범나비
Mellicta athalia (Rottemburgh) 어리표범나비
Nephargynnis anadyomene (C. et R.Felder) 구름표범나비
Neptis alwina (Bremer et Grey) 왕세줄나비
Neptis philyroides Staudinger 참세줄나비
Neptis pryeri Butler 별박이세줄나비
Neptis rivularis (Scopoli) 두줄나비
Neptis sappho (Pallas) 애기세줄나비
Polygonia c-aureum (Linnaeus) 네발나비
Vanessa indica (Herbst) 큰멋쟁이나비

Family Satyridae 뱀눈나비과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봄처녀나비
Kirinia epimenides (Ménéstriè) 알락그늘나비
Lasiommata deidamia (Eversmann) 뱀눈그늘나비
Melanargria epimede (Staudinger) 조흰뱀눈나비
Minois drtas (Scopoli) 굴뚝나비
Mycalesis francisca (Cramer) 부처사촌나비
Mycalesis gotame Moore 부처나비
Ninguta schrenckii (Ménéstriè) 왕그늘나비
Ypthima argus Butler 애물결나비
Ypthima motschulskyi (Bremer et Grey) 물결나비



〈사진 40〉 *Anapodisma miramae* Dovna-Zapol' skii 밑들이메뚜기



〈사진 41〉 *Eurydema rugosa* Motschulsky 비단노린재



〈사진 42〉 *Dolycoris baccarum* (Linnaeus) 알락수염노린재



〈사진 43〉 *Lucanus maculifemoratus* dyboeskii Rarry 사슴벌레



〈사진 44〉 *Blitopertha pallidipennis* Reitter 연노랑풍뎅이



〈사진 45〉 *ixus moiwanus* Kono 뾰족날개길쭉바구미



〈사진 46〉 *Epicauta chinensis taishoensis* (Lewis) 먹가뢰



〈사진 47〉 *Polistes snelleni* Saussure 별쌍살벌

참고문헌

권용정 · 김성수 · 김정환 · 김진일 · 남상호 · 문태영, 『한국의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곤충류』, 교학사, 1998.
김진일, 「한국산 딱정벌레목 곤충집단의 감소현상」, 『한국생물상연구지』 3, 1998.
김진일 · 김수연 · 남상호, 『곤충』:39,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지 자원조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4.
김진일 · 유혜정, 『민통선 북방지역자원 조사보고서』, 경기도, 1987.
김진일 · 이옥진 · 박해철, 「민통선이북지역의 곤충상에 관한 연구」,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자연종합학술조사보고서』, 1992.
김창환 · 김진일 · 오진국 · 노용태 · 신유항,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곤충상」, 『자연보존협회조사보고서』 제 7호 ; 비무장지대인접지역종합학술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박미정 · 김진일, 「한국산 곤충상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중부지역의 딱정벌레류 -」, 『한국자연보존협회 연구보고서』 12, 1993.
삼림청 임업연구원, V. 곤충, In: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삼림생태계 조사 4차보고서 -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 1998.
신유항,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실태조사연구 - 곤충류 -」, 『한국자연보존협회 연구보고서』 10, 1990.
신유항 · 이종욱 · 문태영 · 박해철 · 최세웅,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곤충상 조사 보고서』, 1993.
환경청, 『특정야생동식물해설집』, 1989.

제3절 임진강 유역의 식물상*

1. 서 론

본 장은 임진강 유역의 종합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생육하는 식물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본 조사 연구의 내용은 강 유역을 중심으로 육상 관속식물과 수계의 담수조류 및 식물플랑크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지의 육상 관속식물의 연구 대상지인 임진강, 한탕강을 중심으로 한 강변 및 산악지대는 북위 37° 49′31″~ 38° 03′18″, 동경 126° 40′38″~ 127° 07′04″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연천군에 속한다. 동쪽으로는 청산면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임진강을 경계로 파주시와 접경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서로 경계를 이루는 남계리가 위치하며, 남쪽에는 감악산이 위치한다(그림 10). 본 연구 지역내의 전곡 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질은 변성 퇴적암류가 동-서 방향으로 넓게 발달하였으며, 이 지대는 지질을 연구하는 데 하나의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조 등, 1995).

이 지역의 육상 관속식물상에 대한 연구는 정(1955)에 의한 경기도지 내에 식물상이 수행된 이후, 감악산(김과 한, 2000), 백운산(조와 이, 1985), 광덕산(홍과 최, 1997) 등의 인근 지역에 대한 식물상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육상 식물상에 대한 조사는 전곡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임진강 유역과 감악산, 백

* 이인규(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최홍근(아주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
이진환(상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이옥민(경기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운산(조와 이, 1985) 및 경기도내 식물상(정, 1955)과의 비교도 겸하였다.

한편 수계 생물상의 조사 대상지인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군에 위치한 마식령의 남쪽 경계부에서 발원하여 남남서향하다가 이천 북동부에서 고미탄천을 합류시키고 남남서향하면서 이천 남서부에서 평안천과 합류한다. 평안천을 합류한 후 방향을 바꿔 남남동향하며 연천과 동두천 중간부에서 서남서향하여 김포 북부에서 한강에 합류된다. 임진강 유역의 유역면적은 8117.5 ㎢이며 그 중 군사분계선(DMZ) 이남 지역이 3,008.7 ㎢으로 DMZ 이북 지역이 전체의 62.9 %를 차지하고 있다. 임진강의 하천 수계는 총 연장이 254.6 ㎞에 달하고 주요 지천으로 고미탄천, 평안천, 역곡천, 한탄강, 사미천, 문산천 및 사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진강의 최대 지천인 한탄강의 지천으로는 김화 남대천, 영평천, 포천천, 신천 및 차탄천을 들 수 있다. 본 유역의 지세는 험준한 산악구릉 지대이며, 일부 하류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본류 및 지류는 급류 하천으로 험준한 협곡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 많으며, 만곡부가 많으나 대체로 하폭이 일정하고 하안지가 협소한 편이다. 강원도 철원군 부근과 하류부에는 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하류부의 하상구배는 완만한 편으로 조위의 영향을 받으며 곳곳에 간척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 · 상류 부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하류 구간은 수해가 심한 편이다(Yun, 1999). 임진강 유역은 대체로 삼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고 임상이 좋아 수자원 부존량은 풍부하며 수질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수자원의 개발 가능성이 많은 유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통선 이북 지역에 군 부대가 상주하고 있고 군사 훈련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유역에 비해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유역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과 더불어 본 유역이 수도권 인접지역임을 감안하여 볼 때, 수자원개발의 여지가 많은 유역이므로 향후 남북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남북한 공동 수자원 개발 등의 대안이 필요한 유역이라 할 수 있다.

한탄강은 평강 동부에서 발원하여 김화 남서부에서 남대천과 합류하고 계속 남동향하다가 포천천과 합류한 영평천을 합류하여 연천에 이른다. 연천에서는 평강 남부에서 발원한 역곡천과 합류하여 남하하다가 연천과 동두천 중간 지점에서 동두천 남부에서부터 발원된 문산천은 서향하다가 문산서부에서 임진강에 합류한다. 영평천은 한탄강의 제 1지류로서 행정구역상으로 연천군 청산면 일부와 포천군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화현면, 신북면 등 2개 군, 1읍 및 11개 면에 접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광덕산에서 발원하여 남서류하면서 도평천과 합류한 후 수입천, 야미천과 합하여 영평천의 가장 큰 지류인 포천천을 유입하고 한탄강에 유입된다.

차탄천은 한강의 제 3지류로서 경기도 북부지역인 연천군 연천읍, 신서면, 군남면 및 전곡읍 등, 2군3읍 2 면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준용 하천이다. 유역 면적은 186.8 ㎢, 유로 연장은 36.8 ㎞, 유역의 농경지율은 약 20.1 %이고, 대부분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어 경사가 급한 편이다. 포천천은 서측으로는 한탄강 지류인 신천 유역과 북측으로는 포천천의 본류인 영평천, 동측으로는 영평천의 지류인 수입천 유역과 남측으로는 한강의 지류인 옥숙천 유역과 접하고 있다. 포천천의 유역 면적은 239.6 ㎢이고, 유로 연장은 30.5 ㎞이다. 하천은 가늘고 긴 구형으로 되어 있고 하천의 연안은 비교적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본류의 중앙부에는 포천읍이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은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강이며, 또한 북한과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좀더 거시적인 관점의 개발 정책과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진강 일대의 전반적인 하천 생태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된 바 없으며, 단지 지류인 광릉천에 대한 육수학적인 연구(Rim and Hong, 1964)와 포천천에 대한 연구(Kim, 1999; Kim et al., 1999) 등이 보고되었다. 이는 한강 본류에 대한 많은 연구와 비교할 때 매우 빈약한 편이어서 본 조사 연구가 갖는 의의는 한 층 더 크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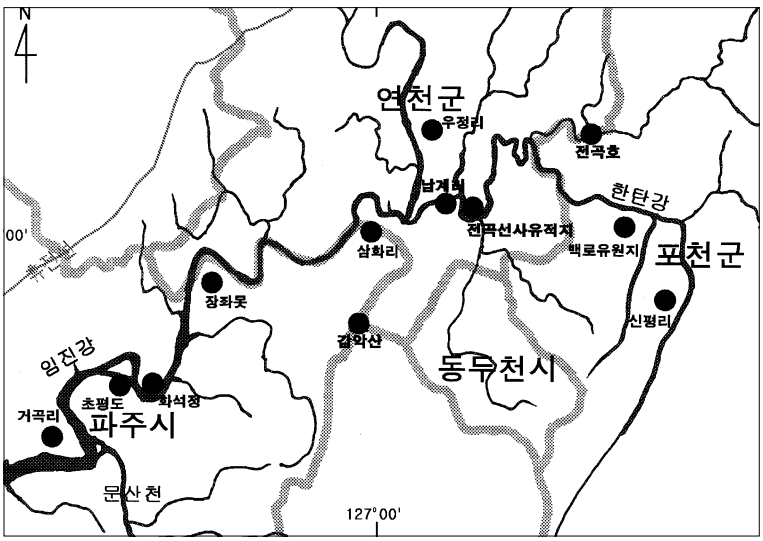
특히 수질 환경의 특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식물플랑크톤에 관하여서는 본 조사 지역이 군사안보 관계로 접근이 어려워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보고서는 대외비로 되어 있어 학계에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1995)에서 임진강 유역의 종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연보호와 자원의 이용이란 소제목 하에 일부 생물상이 밝혀져 있고, 동 수자원공사의 1997 보고서에서는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접경지역인 임진강을 중심으로 수자원과 부존자원을 조사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1996, 1997)에서는 임진강 유역을 정화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였고, 환경부(1999)에서는 임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현황과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수환경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보고서에 임진강 수계인 사미천, 눌로천, 한탄강, 신천, 영평천, 포천천에 관한 환경 요인의 기초 자료가 망라되어 있으나 식물플랑크톤에 관한 연구 결과는 없었다. 다만 김(1999)은 최근 포천천에서 부착 규조류에 의한 수질평가를 수행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조사 연구는 경기 북부에 산재해 있는 포천천, 영평천, 한탄강, 차탄천, 임진강, 눌로천 및 사미천에서 계절별 종조성, 대표종, 현존량, 우점종을 밝히고, 생태지수를 통하여 생태계의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점종 또는 대표종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는 일도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1) 관속식물 조사

본 연구를 위한 관속식물의 재료 채집은 2000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그림 1), 채집된 재료는 압착, 건조하여 석엽표본으로 제작한 후, 정(1956, 1957)과 이(1980)의 식물도감에 의해 동정하였으며, Tippo의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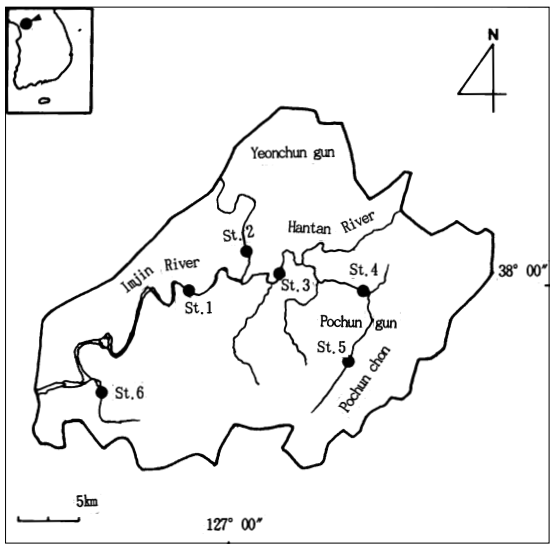


〈그림 10〉 임진강 유역 육상 관속식물 조사지

였다. 특히 본 연구 지역에서 채집된 분류군은 백운산(조와 이, 1985)과 경기도지 내에 수록된 식물상(정, 1955)과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아주대학교 석엽표본관(AJOU)에 분리, 보관하였다.

2) 담수조류 조사

담수조류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 내에 6개 정점을 설정하고 2000년 8월 하계와 11월 추계로, 2회에 걸쳐 조사 연구가 실시되었다(그림 11). 조사지의 범위는 임진강 유역의 파주, 연천, 포천, 철원을 포함하였고, 조사 정점 1은 적성면 구읍리의 삼화교로서 임진강 본류의 하류에 해당하는 수역이다. 정점 2는 군남면 우정리에 위치하는 화이트교 부근이다. 이는 임진강 본류가 한탄강과 유합되기 전의 지점으로 한탄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역이다. 정점 3은 한탄강의 하류 수역으로 한탄강 유원지 중 가장 상류 지점이다. 정점 4는 영중면 영평리의 영평천인데, 이는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한 지류이다. 정점 5는 포천읍의 포천천의 한 지점인데, 이는 영평천으로 유입되어 결국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이다. 특히 본 정점은 포천읍을 통과하며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흘러들어 수질이 심하게 악화되는 지점이다. 정점 6은 문산천의 은행철교로서 이는 임진강의 하류 지점으로 유입되는 지류이다. 임진강의 하류 수역은 휴전선과 멀지 않은 관계로 군인 초소와 함께 강 어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1〉 임진강 유역의 담수조류 조사지점

본 조사는 각 조사 정점별 담수조류의 현존량과 식물상의 특성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이 중 현존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수표면하 50 cm에서 담수 1 *l* 를 채수하여 현장에서 4%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24시간 이상 침전시킨 뒤 사이펀으로 상등액을 제거하고 농축 시료를 만들어 Sedgwick-Rafter chamber에 넣어 계수하여 현존량을 분석하였다(Sournia, 1978). 또한 식물상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서는 부유성 조류와 부착성 조류를 함께 채집하였다. 부착성 조류는 채집 정점의 가장자리에 있는 돌이나 물에 잠겨있는 육상식물을 훑는 방법으로 채집하였다. 본 수역은 부유물질이 많고, 수심이 얕아서 식물플랑크톤 네트를 사용하지 않고 채수된 시료를 침전시켜서 관찰하였다(Franson, 1981).

본 연구 결과는 전체적으로 Engler의 분류체계(Melchoir and Wedermann, 1954)에 따라 정리하였다. 분류군의 동정을 위하여서는 Hirose et al.(1971), Bourelley(1966, 1968, 1970), Prescott(1962), Prescott et al.(1975, 1981, 1982) 및 Patrick and Reimer(1966, 1975)와 Chung(1993)을 참조하였다.

3) 식물플랑크톤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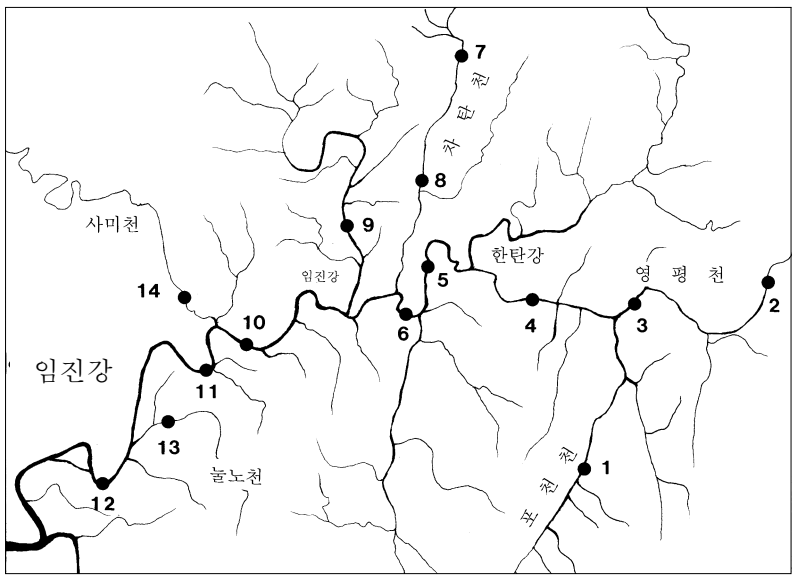
경기북부 하천에서의 식물플랑크톤 조사에서 제1차는 2000년 4월부터 8월까지 4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조사 정점은 아래와 같이 포천천 1개 정점, 영평천 3개 정점, 한탄강 2개 정점, 차탄천 2개 정점, 임진강 4개 정점, 사미천 및 눌로천 각각 1개 정점 등 총 14개를 설정하였다(그림 3).

정점 1 : 포천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경복대학 앞)
정점 2 : 영평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백운계곡)
정점 3 : 영평천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정점 4 : 영평천 (경기도 연천군 창수면 진군교 아래)
정점 5 : 한탄강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탄교 아래)
정점 6 : 한탄강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 유원지 사랑교 아래)
정점 7 : 차탄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용천교 아래)
정점 8 : 차탄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2교 아래)
정점 9 : 임진강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풍천농원 앞)
정점 10 : 임진강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비룡대교 아래)
정점 11 : 임진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지리)
정점 12 : 임진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정점 13 : 눌로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로리 덕천교 아래)
정점 14 : 사미천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경포교 아래)

식물플랑크톤의 조사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해진 14개 정점의 표층에서 시수 1 *l* 를 채수하여 현장에서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에서는 침전법에 의하여 시료를 24시간 이상 침전시킨 후 상등액을 siphon으로 버리고 150~200 *ml*로 농축하여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하여 농축된 시료를 균일하게 희석한 후 1 *ml*를 취하여 Sedgwick Rafter 계수판에 넣고 현미경(Nikon 115) 100배 하에서 3회 계수한 후 평균치를 구하여 단위 체적당 세포 수를 현존량으로 환산하였다. 정성분석을 위하여 농축된 시료를 적당량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Methylene blue 또는 Fuchsin으로 염색한 후 ×100~×1000배 하에서 검정 · 동정하였다. 한편 우점종과 광학현미경하에서 동정이 어려운 소형 표본은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 5600 LV)에서 동정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분류 및 동정은 도감 및 문헌을 참고하였다(정, 1968; 水野, 1981; 鈴木, 1991; 수자원연구소, 2000). 우점종 또는 출현빈도가 높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종은 도판(Plate)을 만들었다. 우점종의 결정은 각 정점의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중에서 어떠한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우점종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육상 관속식물 조사



〈그림 12〉 경기 북부 임진강 수역에서 식물플랑크톤 조사 정점

본 조사를 통하여 채집, 조사된 임진강 일대의 관속식물은 양치식물은 3과 3속 3종 1변종의 4종류, 단자엽식물은 11과 33속 43종 10변종의 53종류, 쌍자엽식물은 35과 67속 82종 17변종의 103종류로서 구성이 되어, 총 49과 103속 128종 28변종의 156종류이다. 이 중 전곡 지역의 관속식물이 양치식물은 3과 3속 3종 1변종의 4종류, 나자식물은 1과 1속 1종, 단자엽식물은 9과 26속 32종 4변종의 36종류, 쌍자엽식물은 29과 65속 74종 7변종의 81종류로서 구성 되어, 총 42과 95속 110종 12변종의 122종류이다(표 16 및 17 참조). 이러한 식물의 종 수는 인근 지역인 감악산, 한탄강, 백운산(조와 이, 1985)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탄강(40과 78속 93종 18변종의 111종류)보다는 많았지만 감악산(81과 194속 262종 1아종 30변종의 293종류)이나, 백운산(88과 239속 304종 1아종 42변종의 347종류)보다는 적게 조사되었다.

한편 임진강 일대의 관속식물의 구성비율은 2.57(양치식물) : 0(나자식물) : 33.97(단자엽식물) : 63.46(쌍자엽식물)이며, 전곡의 관속식물의 구성비율은 3.28(양치식물) : 0.82(나자식물) : 29.51(단자엽식물) : 66.39(쌍자엽식물)로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한반도 전체의 관속식물의 구성비율(이, 1980)인 7.09(양치식물) : 1.42(나자식물) : 23.19 (단자엽식물) : 68.21(쌍자엽식물)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단자엽식물은 출현 비율이 높으나 양치식물, 나자식물, 쌍자엽식물의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감악산(1.71 : 0.34 : 19.79 : 78.16), 한탄강(1.80 : 0 : 25.23 : 72.97)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양치식물, 나자식물, 단자엽식물은 높으나 쌍자엽의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조사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임진강 일대에서 조사 지소별로 밝혀진 관속식물상은 다음과 같다.

임진강의 하류지역인 장단면 거곡리에서는 갈풀(Phalaris arundinacea), 개망초(Erigeron annuus), 개별꽃(Pseudostellaria heterophylla), 개소시랑개비(Potentilla paradoxa), 괭이사초(Carex neurocarpa), 구슬갓냉이(Rorippa globosa), 금소리쟁이(Rumex maritimus), 나도개피(Eriochloa

villosa), 나도냉이(Barbarea orthoceras), 달맞이꽃(Oenothera odorata), 돌피(Echinochloa crus-galli), 뚝새풀(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메꽃(Calystegia japonica), 며느리밑씻개(Persicaria senticosa), 며느리배꼽(Persicaria perfoliata), 버들명아주(Chenopodium virgatum), 벌노랑이(Lotus corniculatus var. japonicus), 벌사상자(Cnidium monnieri), 뽕나무(Morus alba), 산새풀(Calamagrostis langsdorffii), 석잠풀(Stachys riederi var. japonica), 속속이풀(Rorippa islandica), 쉽사리(Lycopus ramosissimus var. japonicus), 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왕질경이(Plantago major var. japonica), 쥐깨풀(Mosla dianthera), 지칭개(Hemistepta lyrata), 참소리쟁이(Rumex japonicus), 취명아주(Chenopodium glaucum), 콩다닥냉이(Lepidium virginicum) 등이 조사되었다.

파평면 율곡리 초평도와 화석정에서는 개비름(Amaranthus lividus),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달맞이꽃(Oenothera odorata), 돌콩(Glycine soja), 딱지꽃(Potentilla chinensis), 망초(Erigeron canadensis), 미국가막사리(Bidens frondosa), 쇠뜨기(Equisetum arvense), 수크렁(Pennisetum alopecuroides), 여뀌(Persicaria hydropiper), 이고들빼기(Youngia denticulata), 장대여뀌(Persicaria posumbu var. laxiflora), 콩다닥냉이(Lepidium virginicum), 큰개여뀌(Persicaria nodosa), 패랭이꽃(Dianthus sinensis), 개구리자리(Ranunculus sceleratus), 돌피(Echinochloa crus-galli), 버들명아주(Chenopodium virgatum), 속속이풀(Rorippa islandica) 등이 자라고 있다.

적성면 장좌리 장자못에는 가락지나물(Potentilla kleiniana), 갈퀴꼭두서니(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개망초(Erigeron annuus), 개여뀌(Persicaria blumei), 개피(Beckmannia syzigachne), 갯버들(Salix gracilistyla), 골풀(Juncus effusus var. decipiens), 괭이사초(Carex neurocarpa), 꽃마리(Trigonotis peduncularis), 다닥냉이(Lepidium apetalum), 뚝새풀(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며느리배꼽(Persicaria perfoliata), 물수세미(Myriophyllum verticillatum), 미나리아재비(Ranunculus japonicus), 벌사상자(Cnidium monnieri), 벌씀바귀(Ixeris polycephala), 사상자(Torilis japonica), 새 콩(Amphicarpaea edgeworthii var. tris-perma), 쇠방동사니(Cyperus orthostachyus), 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마름(Trapa pseudo - incisa), 오리새(Dactylis glomerata), 젓가락나물(Ranunculus chinensis), 좀명아주(Chenopodium ficifolium), 좁쌀풀(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쥐깨풀(Mosla dianthera), 창포(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칡(Pueraria thunbergiana), 하늘지기(Fimbristylis dichotoma) 등이 조사되었다.

미산면 우정리의 우각호에서는 가래(Potamogeton distinctus), 강아지풀(Setaria viridis), 개갓냉이(Rorippa indica), 개구리자리(Ranunculus sceleratus), 개소시랑개비(Potentilla paradoxa), 개피(Beckmannia syzigachne), 검정말(Hydrilla verticillata), 골풀(Juncus effusus var. decipiens), 괭이사초(Carex neurocarpa), 구슬갓냉이(Rorippa globosa), 구슬사초(Carex tegulata), 금방동사니(Cyperus microiria), 길골풀(Juncus tenuis), 나사말(Vallisneria asiatica), 나자스말(Najas graminea) 네가래(Marsilea quadrifolia), 논뚝외풀(Lindernia micrantha), 눈비녀골풀(Juncus wallichianus), 단풍잎돼

지풀(Ambrosia trifida), 대가래(Potamogeton malaianus var. latifolius), 도루박이(Scirpus radicans), 두릅나무(Aralia elata), 들깨풀(Mosla punctulata), 말즘(Potamogeton crispus), 망초(Erigeron canadensis), 매듭풀(Kummerowia striata), 메꽃(Calystegia japonica), 명아주(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물꼬챙이골(Eleocharis mamillata var. cyclocarpa), 물수세미(Myriophyllum verticillatum), 물칭개나물(Veronica undulata), 미나리아재비(Ranunculus japonicus), 바늘골(Eleocharis congesta), 박주가리(Metaplexis japonica), 밭뚝외풀(Lindernia procumbens), 배암차즈기(Salvia plebeia), 병아리방동사니(Cyperus flaccidus), 부처꽃(Lythrum anceps), 석잠풀(Stachys riederi var. japonica), 설령개현삼(Scrophularia boreali-koreana), 세모고랭이(Scirpus triqueter), 속속이풀(Rorippa islandica), 쇠별꽃(Stellaria aquatica), 수염패랭이꽃(Dianthus barbatus var. japonicus), 실말(Potamogeton berchtoldii), 알방동사니(Cyperus difformis), 애기가래(Potamogeton octandrus), 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마름(Trapa pseudo - incisa), 애기부들(Typha angustifolia), 여뀌(Persicaria hydropiper), 왕김의털아재비(Festuca subulata var. japonica), 줄(Zizania latifolia), 중대가리풀(Centipeda minima), 질경이(Plantago asiatica), 질경이택사(Alisma plantago-aquatica var. orientale), 통발(Utricularia japonica)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전곡 일대의 조사지별 관속식물상은 다음과 같다.

전곡읍에 위치한 전곡리 선사시대 유적지에서는 가는갈퀴(Vicia angustifolia var. minor), 갈퀴망종화(Hypericum galioides), 개구리미나리(Ranunculus tachiroei), 개머루(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a), 개비름(Amaranthus lividus), 개쇠뜨기(Equisetum palustre), 광대싸리(Securinega suffruticosa), 금강아지풀(Setaria glauca), 깨풀(Acalypha australis), 꼭두서니(Rubia akane), 꿩의다리(Thalictrum aquilegifolium), 나도국수나무(Neillia uyekii),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닭의장풀(Commelina communis),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돌콩(Glycine soja), 땅비수리(Lespedeza juncea var. inschanica), 떡갈나무(Quercus dentata), 마(Dioscorea batatas), 망초(Erigeron canadensis), 메꽃(Calystegia japonica), 무릇(Scilla scilloides), 물오리나무(Alnus hirsuta), 박주가리(Metaplexis japonica), 방동사니(Cyperus amuricus), 버드쟁이나물(Aster pinnatifidus), 뽕나무(Morus alba), 사위질빵(Clematis apiifolia), 산꿩의다리(Thalictrum filamentosum), 산딸기(Rubus crataegifolius), 산쑥(Artemisia montana), 새 콩(Amphicarpaea edgeworthii), 선밀나물(Smilax nipponica), 술패랭이꽃(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실새삼(Cuscuta australis), 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메꽃(Calystegia hederacea), 어저귀(Abutilon avicennae), 왜박주가리(Tylophora floribunda), 익모초(Leonurus sibiricus), 젓가락나물(Ranunculus chinensis), 조개풀(Arthraxon hispidus), 조록싸리(Lespedeza maximowiczii), 조팝나무(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쥐깨풀(Mosla dianthera), 쥐손이풀(Geranium sibiricum), 진퍼리새(Molinia japonica), 짚신나물(Agrimonia pilosa), 찔레꽃(Rosa multiflora), 청가시덩굴(Smilax sieboldii), 칡(Pueraria thunbergiana), 큰달맞이꽃(Oenothera

lamarckiana), 털여뀌(Persicaria cochinchinensis), 털질경이(Plantago depressa), 피(Echinochloa crus-galli var. frumentacea), 하늘말나리(Lilium tsingtauense),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황새냉이(Cardamine flexuosa) 등이 자라고 있었다.

또한 한탄강과 임진강이 경계를 이루는 남계리와 삼화리에서는 개쇠뜨기(Equisetum palustre), 강아지풀(Setaria viridis), 개별꽃(Pseudostellaria heterophylla), 개소시랑개비 (Potentilla paradoxa), 괭이사초(Carex neurocarpa), 금방동사니(Cyperus microiria), 닭의장풀(Commelina communis), 뚝새풀(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메귀리(Avena fatua), 며느리배꼽(Persicaria perfoliata), 버들명아주(Chenopodium virgatum), 속속이풀(Rorippa islandica), 수염패랭이꽃(Dianthus barbatus var. japonicus), 오리새(Dactylis glomerata), 좀명아주(Chenopodium ficifolium), 지칭개(Hemistepta lyrata), 콩다닥냉이(Lepidium virginicum), 큰메꽃(Calystegia sepium var. americana) 등이 자라고 있었다.

전곡읍 신답리 전곡호에서는 개소시랑개비(Potentilla paradoxa), 개피(Beckmannia syzigachne), 금방동사니(Cyperus microiria), 닭의장풀(Commelina communis), 두릅나무(Aralia elata), 매듭풀(Kummerowia striata), 물피(Echinochloa crus-galli var. oryzicola), 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 속속이풀(Rorippa islandica), 알록제비꽃(Viola variegata), 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줄(Zizania latifolia), 차풀(Cassia mimosoides var. nomame), 창포(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청명아주(Chenopodium bryoniaefolium), 콩다닥냉이(Lepidium virginicum), 큰개여뀌(Persicaria nodosa), 피(Echinochloa crus-galli var. frumentacea), 하수오(Pleuropterus multiflorus),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16〉 임진강 유역 일대의 관속식물 목록 비교

지 역	목	과	속	종	아 종	변 종	계
전 곡	29	42	95	110		12	112
임 진 강	23	49	103	128		28	156
한 탄 강	21	40	78	93		18	111
감 악 산	33	81	194	262	1	30	293
배근산 *	33	88	239	304	1	42	347
경기도 **	39	111	372	573	1	87	661

* 배근산과 ** 경기도는 각각 Jo and Lee(1985) 와 Jung(1955)에 의함.

〈표 17〉 임진강 유역 관속식물 목록

〔전곡(A), 임진강(B), 한탄강(C), 감악산(D), 배근산(E), 경기도(F)〕

학 명	국 명	A	B	C	D	E	F
Subphylum 석송아문 Lycopsida							
Class 석송강 Lycopodineae							
Order 부처손목 Selaginellales							
Family 부처손과 Selaginellaceae							
Selaginella involvens (SW.) SPRING	바위손					○	○
S. rossii (BAKER) WARB.	구실사리					○	
Subphylum 속새아문 Sphenopsida							
Class 속새강 Equisetineae							
Order 속새목 Equisetales							
Family 속새과 Equisetaceae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	○	○	○	○	○
E. palustre L.	개쇠뜨기	○	○				
Subphylum 양치식물아문 Pteropsida							
Class 고사리강 Filicineae							
Order 고사리삼목 Ophioglossales							
Family 고사리삼과 Ophioglossaceae							
Botrychium strictum UNDERW.	긴꽃고사리삼						○
B. ternatum (THUNB.) SW.	고사리삼						○
B. virginianum (L.) SW.	늦고사리삼						○
Order 고사리목 Filicales							
Family 고비과 Osmundaceae							
Osmunda cinnamomea var. fokiensis COPEL.	꿩고비					○	○
O. japonica THUNB.	고비						○
Family 처녀이끼과 Hymenophyllac							
Gonocormus minutus (BL.) BOSCH	부채괴불이끼						○
Family 고사리과 Pteridaceae							
Dennstaedtia hirsuta (SW.) METT.	잔고사리						○
D. wilfordii (Moore) CHRIST.	황고사리					○	○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고사리	○	○	○	○	○	○
Cheilanthes argentea (GMEL.) KUNZE	부싯깃고사리						○
Family 넉줄고사리과 Davalliaceae							
Davallia mariesii MOORE	넉줄고사리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Family 면마과 Aspidiaceae							
Matteuccia orientalis (HOOKER) TREV.	개면마					○	
M. struthiopteris (L.) TODARO	청나래고사리						○
Onoclea sensibilis var. interrupta MAX.	야산고비					○	
Woodsia manchuriensis HOOKER	만주우드풀				○		○
W. polystichoides EATON	우드풀					○	○
Polystichum craspedosorum (MAX.) DIELS	낚시고사리						○
P. tripteron (Kunze) PRESL	십자고사리				○	○	○
Dryopteris bissetiana (BAK.) C.CHRIST.	족제비고사리						○
D. crassirhizoma NAKAI	관중					○	○
D. lacera (THUNB.) O.KUNTZE	비늘고사리						○
Dryopteris monticola (MAK.) C.CHRIST.	왕지네고사리						○
D. sacrosancta KOIDZ.	애기족제비고사리						○
D. tokyoensis C.CHRIST.	지느러미고사리						○
Lastrea thelypteris (L.) BORY	처녀고사리					○	
Cyclosorus acuminatus (HOUTT.) NAKAI	별고사리						○
Athyrium acutipinnlum KODAMA	섬고사리						○
A. alpestre (HOPPE) RYLAND	산고사리						○
A. brevifrons NAKAI	참새발고사리						○
A. concinnum NAKAI	광릉개고사리						○
A. henryi (BAK.) DIELS	곱새고사리						○
A. japonicum (THUNB.) COPEL.	진고사리					○	
A.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	
A. yokoscense (FR. et SAV.) H.CHRIST	뱀고사리					○	○
Family 꼬리고사리과 Aspleniaceae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	○
Family 고란초과 Polypodiaceae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일엽초				○	○	○
L. ussuriensis (REGEL et MAACK) CHING	산일엽초						○
Pyrrosia linearifolia (HOOKER) CHING	우단일엽						○
Family 네가래과 Marsileaceae							
Marsilea quadrifolia L.	네가래	○	○				○
Family 생이가래과 Salviniaceae							
Salvinia natans (L.) ALL.	생이가래						○
Class 나자식물강 Gymnospermae							
Subclass 구과식물아강 Coniferophytae							
Order 은행목 Ginkgoales							
Family 은행나무과 Ginkgoaceae							

학 명	국 명	A	B	C	D	E	F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
Order 구과목 Coniferales							
Family 주목과 Taxaceae							
Taxus cuspidata S. et Z.	주목						○
Cephalotaxus koreana NAKAI	개비자나무						○
Family 소나무과 Pinaceae							
Abies holophylla MAX.	젓나무					○	○
A. nephrolepis MAX.	분비나무						○
Larix leptolepis (S. et Z.) GORDON.	일본잎갈나무*	○			○	○	○
Pinus banksiana LAMBERT	방크스소나무*					○	
P. bungeana ZUCC.	백송*						○
P. densiflora for. erecta UYEKI	금강소나무*					○	
P. densiflora S. et Z.	소나무				○	○	○
P. koraiensis S. et Z.	잣나무					○	○
P. rigida MILLER	리기다소나무*	○				○	
P. thunbergii PARL.	곰솔						○
Family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Thuja orientalis L.	측백나무						○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				○	○
J. chinensis var. procumbens (SIEB.) ENDL.	섬향나무						○
J. rigida S. et Z.	노간주나무*				○		○
Class 피자식물강 Angiospermae							
Subclass 단자엽식물아강 Monocotyledoneae							
Order 부들목 Pandanales							
Family 부들과 Typhaceae							
Typha angustifolia L.	애기부들	○	○	○			○
T. latifolia L.	큰잎부들		○				
T. orientalis PRESL	부들						○
Family 흑삼릉과 Sparganiaceae							
Sparganium stoloniferum HAMILTON	흑삼릉						○
Order 소생식물목 Helobiales							
Family 가래과 Potamogetonaceae							
Potamogeton distinctus A.BENN.	가래	○	○				○
P. crispus L.	말즘		○	○			
P. berchotoldii RIEBER	실말		○				
P. malaianus var. latifolius NAKAI	대가래		○				
P. octandrus POIR.	애기가래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P. oxyphyllus MIQ.	말						○
Family 나자스말과 Najadaceae							
Najas graminea DEL.	나자스말		○				
Family 택사과 Alismataceae							
Alisma plantago-aquatica var. orientale SAMUELS.	질경이택사		○	○			
Sagittaria aginashi MAKINO	보풀						○
S. pygmaea MIQ.	올미						○
S. trifolia L.	벗풀						○
S. trifolia var. edulis (SIEB.)OHWI	소귀나물						○
Family 자라풀과 Hydrocharitaceae							
Blyxa japonica MAX.	올챙이솔					○	
Ottelia alismoides (L.) PERS.	물질경이					○	
Vallisneria asiatica MIKI	나사말		○				
Hydrilla verticillata CASP.	검정말		○				
Order 벼목 Graminales							
Family 벼과 Gramineae							
Cleistogenes hackelii (HONDA) HONDA	대새풀						○
Sasa borearis (HACK.) MAKINO	조릿대						○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뚝새풀	○	○	○			
Agrostis scabra WILLD.	긴겨이삭						○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개피	○	○	○			○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	○	○	○	○
C. langsdorffii (LINK.) TRIN.	산새풀		○		○		
Avena fatua L.	메귀리*	○	○				○
Trisetum bifidum (THUNB.) OHWI	잠자리피						○
Koeleria cristata (L.) PERS.	도랭이피						○
Stipa coreana HONDA	참나래새						○
S. sibirica (L.) LAMARCK	나래새					○	○
Phalaris arundinacea L.	갈풀		○				○
Hierochloe Odorata (L.) BEAUV.	향모						○
Agropyron chinense (TRIN. et BUNGE) OHWI	개밀아재비					○	
A. ciliare (TRIN.) FR.	속털개밀						○
A.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		○
A. yesoense HONDA	자주개밀						○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				○
B. remotiflorus (STEUD.) OHWI	꼬리새				○		○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	○	○			
Festuca Ovina L.	김의털				○	○	○
F. subulata var. japonica HACK.	왕김의털아재비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Poa annua L.	새포아풀						○
P. pratensis L.	왕포아풀*						○
P. sphondylodes TRIN.	포아풀				○		○
Glyceria leptolepis OHWI	왕미꾸리광이					○	○
Melica Onoei FR.	쌀새					○	○
Leersia Oryzoides var. japonica HACK.	겨풀						○
Zizania latifolia TURCZ.	줄	○	○	○			○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	○	○			○
P. japonica STEUD.	달뿌리풀	○	○	○		○	○
Diarrhena fauriei (HACK.) OHWI	광릉용수염						○
D. japonica FR. et SAV.	용수염						○
Molinia japonica HACK.	진퍼리새	○					○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	○	○
E. japonica (THUNB.) TRIN.	각시그령					○	
E. multicaulis STEUD.	비노리				○		○
E. pilosa (L.) BEAUV.	큰비노리						○
Eleusine indica (L.) GAERTNER	왕바랭이						○
Sporobolus japonicus (STEUD.) MAX.	나도잔디					○	
Muhlenbergia japonica STEUD.	쥐꼬리새					○	○
M. longistolon OHWI	큰쥐꼬리새						○
Arundinella hirta (THUNB.) NAKAI	새					○	○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	○	○	○	○	○
Z. sinica HANCE	갯잔디						○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	○		○		○
Setaria glauca (L.) BEAUV.	금강아지풀	○					○
S. viridis (L.) BEAUV.	강아지풀	○	○	○	○	○	○
Sacciolepis indica (L.) CHASE	좀물뚝새						○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바랭이	○	○	○	○	○	○
D. violascens LINK	민바랭이						○
Paspalum thunbergii KUNTH	참새피					○	○
Eriochloa villosa (THUNB.) KUNTH	나도개피		○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ROEM. et SCHULT.	주름조개풀	○			○	○	○
Echinochloa crus-galli (L.) BEAUV.	돌피		○		○		
E. crus-galli var. frumentacea (ROXB.) WIGHT	피	○	○	○			
E. crus-galli var. oryzicola OHWI	물피	○	○	○	○		
Isachne globosa (THUNB.) O.KUNTZE	기장대풀						○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TZ.) DURAND et SCHINZ	띠						○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억새					○	○
M. Oligostachyus var. longiberbis CHUNG	억새아재비		○				
Spodiopogon cotulifer (THUNB.) HACkEL	기름새						○
S. sibiricus TRIN.	큰기름새					○	○
Microstegium vimineum A.CAMUS	나도바랭이새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Bothriochloa parviflora (R.BR) OHWI	나도기름새						○
Arthraxon hispidus (THUNB.) MAKINO	조개풀	○	○	○	○		○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개솔새				○		○
Andropogon brevifolius SW.	쇠풀					○	○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MAKINO	솔새				○		○
Hemarthria sibirica (GANDOG) OHWI	쇠치기풀						○
Family 사초과 Cyperaceae							
Carex alterniflora FR.	선사초				○	○	○
C. bostrychostigma MAX.	길뚝사초						○
C. breviculmis R.BR.	청사초				○	○	○
C. ciliato-marginata NAKAI	털대사초				○		○
C. dickinsii FR. et SAV.	도깨비사초						○
C. dispalata BOOTT	삿갓사초					○	
C. doniana SPRENG.	흰사초						○
C. gibba WAHL.	나도별사초						○
C. humilis LEYSS.	산거울	○			○		○
C. jaluensis KOM.	참삿갓사초					○	○
C. japonica THUNB.	개찌버리사초						○
C.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	○	○	○	○	○
C. leiorhyncha C.A.MEYER	산괭이사초				○		○
C. maackii MAX.	타래사초						○
C. maximowiczii MIQ.	왕비늘사초						○
C. mollicula BOOTT	애기흰사초						○
C. neurocarpa MAX.	괭이사초	○	○	○			
C. Okamotoi OHWI	지리대사초					○	
C.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	○	○
C. tegulata LEV. et VNT	구슬사초		○				
Eleocharis acicularis for. longiseta (SVENSON) T.KOYAMA	쇠털골						○
E. congesta D. DON.	바늘골		○				
E. mamillata var. cyclocarpa KITAGAWA	물꼬챙이골		○				
Fimbristylis dichotoma VAHL	하늘지기	○	○	○	○		○
F. miliacea (L.) VAHL	바람하늘지기						○
F. pierotii MIQ.	들하늘지기						○
F. subbispicata NEES et MEYEN	꼴하늘지기						○
Scirpus fluviatilis (TORR.) A.GRAY	매자기		○				○
S. juncoides ROXB.	올챙이고랭이						○
S. karuizawensis MAKINO	솔방울고랭이						○
S. radicans SCHK.	도루박이		○	○			
S. tabernaemontani GMEL.	큰고랭이						○
S. triqueter L.	세모고랭이		○				○
S. wallichii NEES	수원고랭이			○			
Lipocarpha microcephala (R.BR.) KUNTH	세대가리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Cyperus amuricus MAX.	방동사니	○	○	○	○	○	○
C. flaccidus R.BR.	병아리방동사니	○	○	○			○
C. difformis L.	알방동사니		○				
Cyperus iria L.	참방동사니						○
C.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	○	○			○
C.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	○	○			○
C. orthostachyus FR. et SAV.	쇠방동사니		○	○			
C. serotinus ROTTB.	너도방동사니						○
Order 천남성목 Arales							
Family 천남성과 Araceae							
Pinellia ternata (THUNB.) BREIT.	반하				○		○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NAKAI	천남성				○	○	○
A. amurensis var. amurensis MAX.	둥근잎천남성				○		○
A. angustatum var. peninsulae NAKAI	점박이천남성						○
A. heterophyllum BL.	두루미천남성					○	○
A. robustum (ENGL.) NAKAI	넓은잎천남성						○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앉은부채						○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BESS.	창포	○	○	○			
Family 개구리밥과 Lemnaceae							
Spirodela polyrhiza (L.) SCHLEID	개구리밥		○				
Lemna paucicostata HEGELM.	좀개구리밥						○
Order 분질배유목 Farinales							
Family 곡정초과 Eriocaulaceae							
Eriocaulon parvum KOERN.	검은개수염						○
E. robustius (MAX.) MAKINO	넓은잎개수염						○
E. sieboldianum S. et Z.	곡정초						○
E. sikokianum MAX.	흰개수염						○
Family 닭의장풀과 Commelinaceae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	○	○	○	○	○
Aneilema keisak HASSK.	사마귀풀		○				○
Order 백합목 Liliales							
Family 골풀과 Juncaceae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	골풀		○	○			○
J. leschenaultii GAY	참비녀골풀						○
J. tenuis WILLD.	길골풀		○				
J. wallichianus LAHAR.	눈비녀골풀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Family 백합과 Liliaceae							
Heloniopsis Orientalis (THUNB.) C.TANAKAIA	처녀치마					○	○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T.SHIMIZU	여로				○	○	○
V. versicolor NAKAI	흰여로						○
Tricyrtis dilatata NAKAI	뻐꾹나리						○
Hosta clausa var. *normalis* F.MAEKAWA	참비비추						○
Hemerocallis fulva L.	원추리				○	○	○
H. lilioasphodelus L.	골잎원추리						○
H. middendorfii TRAUTV. et MEYER	큰원추리						○
H. minor MILL.	애기원추리						○
Gagea lutea KER-GAWL.	중의무릇						○
Allium grayi REGEL	산달래				○		○
A. monanthum MAX.	달래						○
Allium sacculiferum MAX.	참산부추						○
A. thunbergii G.DON	산부추				○	○	
Lilium amabile PALIBIN	털중나리	○				○	
L. distichum NAKAI	말나리				○		○
L. leichtlinii var. tigrinum NICHOLS.	중나리					○	○
L. tigrinum KER-GAWL.	참나리					○	○
L.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			○		○
Erythronium japonicum DECNE.	얼레지				○		○
Scilla scilloides (LIND.) DRUCE	무릇	○			○	○	○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			○	○	○
Polygonatum humile FISCH.	각시둥굴레						○
P. inflatum KOM.	퉁둥굴레						○
P. involucratum MAX.	용둥굴레				○	○	○
P. odoratum var. *pluriflorum* OHWI	둥굴레				○	○	○
Smilacina japonica A.GRAY	풀솜대				○		○
Disporum sessile D.DON	윤판나물아재비				○		○
D. smilacinum A.GRAY	애기나리				○	○	○
D. viridescens (MAX.) NAKAI	큰애기나리						○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	○	○
Liriope spicata LOUR.	개맥문동				○		○
Aletris spicata (THUNB.) FR.	쥐꼬리풀						○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			○		○
S. nipponica MIQ.	선밀나물	○			○		○
S. riparia var. ussuriensis HARA et T.KOYAMA	밀나물					○	○
S.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			○	○	○
Family 마과 Dioscoreaceae							
Dioscorea batatas DECNE.	마	○			○		○
D. japonica THUNB.	참마				○	○	○
D. nipponica MAKINO	부채마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D. quinqueloba THUNB.	단풍마				○	○	○
Family 붓꽃과 Iridaceae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창포						○
I. nertschinskia LODDIGES	붓꽃					○	○
I. pallasii var. chinensis FISCH.	타래붓꽃						○
I. rossii BAKER	각시붓꽃	○			○		○
I. savatieri NAKAI	금붓꽃						○
Belamcanda chinensis (L.) DC.	범부채						○
Order 난초목 Orchidales							
Family 난초과 Orchidaceae							
Cypripedium macranthum SW.	개불알꽃						○
Habenaria linearifolia MAX.	잠자리난초						○
Amitostigma gracilis (BL.) SCHLECHT.	병아리난초						○
Gymnadenia cucullata (L.) RICH.	구름병아리난초						○
Tulotis asiatica HARA	나도잠자리난						○
Platanthera metabifolia F.MAEKAWA	제비난						○
Pogonia minor MAKINO	방울새난						○
Gastrodia elata BL.	천마						○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	○
Epipactis thunbergii A.GRAY	닭의난초						○
Spiranthes sinensis (PERS.) AMES	타래난초				○	○	○
Liparis japonica MAX.	키다리난초						○
L. krameri FR. et SAV.	나나벌이난초					○	○
Subclass 쌍자엽식물아강 Dicotyledoneae							
Superorder 이판화군 Archichlamydeae							
Order 후추목 Piperales							
Family 홀아비꽃대과 Chloranthacoao							
Chloranthus japonica SIEB.	홀아비꽃대					○	○
Order 버드나무목 Salicales							
Family 버드나무과 Salicaceae							
Populus davidiana DODE	사시나무					○	○
Populus x tomentiglandulosa T.LEE	은사시나무*					○	
P. nigra var. italica (MUENCH.) KOEHNE	양버들						○
P. koreana REHDER	물황철나무						○
Salix hulteni Floderus	호랑버들					○	○
S. gracilistyla MIQ	갯버들		○	○		○	○
S. mytilloides L.	진퍼리버들						○
S. graciliglans NAKAI	눈갯버들				○		○
S. nipponica FR. et SAV.	선버들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S. hallaisanensis LEVEL	떡버들						○
S. purpurea var. *japonica* NAKAI	키버들					○	
S. pseudo-lasiogyne LEVEILLE	능수버들						○
S. koreensis ANDERSS.	버드나무					○	○
S. gilgiana SEEM.	내버들		○	○	○		
S. floderusii var. *glabra* NAKAI	산버들					○	
S. rorida LACHSCHEWITZ	분버들						○
Order 가래나무목 Juglandales							
Family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Juglans mandshurica MAX.	가래나무				○	○	○
Order 참나무목 Fagales							
Family 자작나무과 Betulaceae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HARA	자작나무					○	
B. ermani CHAM.	사스래나무					○	
B.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	○	○
B.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	○
B. chinensis MAX.	개박달나무					○	○
Alnus hirsuta (SPACH) RUPR.	물오리나무	○			○		○
A. hirsuta var. *sibirica* (SPACH) SCHNEID.	물갬나무						○
A. japonica STEUD.	오리나무						○
Carpinus coreana NAKAI	소사나무					○	○
C. tschonoskii MAX.	개서어나무						○
C. cordata BL.	까치박달				○	○	○
C. laxiflora var. *macrophylla* NAKAI	왕서어나무						○
C. laxiflora BL.	서어나무					○	○
Corylus sieboldiana BL.	참개암나무				○		○
C. heterophylla FISCH.	난티잎개암나무				○		○
C. heterophylla var. *thunbergii* BL.	개암나무				○		○
C. sieboldiana var. *mandshurica* (MAX.) C.K.SCHNEID.	물개암나무					○	○
Family 참나무과 Fagaceae							
Castanea crenata S. et Z.	밤나무*				○	○	○
Quercus aliena BL.	갈참나무				○	○	○
Q. × *dentato-mongolica* NAKAI	떡신갈나무*					○	
Q. × *urticaefolia* BlUME	갈졸참나무*						○
Q. aliena var. *acuteserrata* MAX.	졸갈참						○
Q. mongolica FISCH. .	신갈나무	○	○	○	○	○	○
Q. serrata THUNB.	졸참나무					○	○
Q. variabilis Biume	굴참나무					○	○
Q. dentata THUNB.	떡갈나무	○			○		○
Q.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			○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Order 쐐기풀목 Urticales							
Family 느릅나무과 Ulmaceae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for. subelosa* NAKAI	혹느릅나무					○	
U. davidiana var. *japonica* NAKAI	느릅나무				○	○	○
U. laciniata (TRAUTV.) MAYR	난티나무					○	
Hemiptelea davidii PLANCH.	시무나무						○
Zelkova serrata MAKINO	느티나무				○	○	○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
C. choseniana NAKAI	검팽나무						○
C. biondii var. *heterophylla* SCHNEID.	폭나무						○
C. aurantiaca NAKAI	산팽나무						○
C. sinensis PERS.	팽나무						○
Family 뽕나무과 Moraceae							
Cudrania tricuspidata BUREAU	꾸지뽕나무						○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	○		○	○	○
M. bombysis for. kase UYEKI	가새뽕나무*					○	○
Broussonetia kazinoki SIEB.	닥나무				○		○
B. papyrifera (L.) VENT.	꾸지나무						○
Fatoua villosa NAKAI	뽕모시풀				○		○
Family 삼과 Cannabinaceae							
Humulus japonicus S. et Z.	환삼덩굴	○	○	○	○	○	○
Family 쐐기풀과 Urticaceae							
Laportea bulbifera WEDDELL	혹쐐기풀						○
Pilea peploides HOOK. et ARN.	물통이					○	
P. mongolica WEDDELL	모시물통이						○
Achudemia japonica MAX.	산물통이					○	
Boehmeria spicara THUNB.	좀깨잎나무				○	○	○
Order 단향목 Santalales							
Family 단향과 Santalaceae							
Thesium chinense TURCZ.	제비꿀						○
Family 겨우살이과 Loranthaceae							
Viscum album var. *coloratum* (KOM.) OHWI	겨우살이						○
Order 쥐방울덩굴목 Aristolochiales							
Family 쥐방울덩굴과 Aristolochiaceae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				○	○	○
Aristolochi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				○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Order 마디풀목 Polygonales							
Family 마디풀과 Polygonaceae							
Rumex japonicus HOUTT.	참소리쟁이	○	○	○	○		○
R. maritimus L.	금소리쟁이		○	○			
R. acetocella L.	애기수영*						○
R. crispus L.	소리쟁이	○	○	○	○		○
R. acetosa L.	수영				○		○
Aconogonum divaricatum (L.) NAKAI	왜개싱아					○	○
A. polymorphum (LEDEB.) T.LEE	싱아						○
Pleuropterus multiflorus TURCZ.	하수오	○		○			
Bilderdykia dentato-alata NAKAI	큰닭의덩굴						○
B. convolvulus DUM.	나도닭의덩굴*						○
Persicaria cochinchinensis KITAGAWA	털여뀌*	○	○	○			○
P. hastato-sagittata NAKAI	긴미꾸리낚시						○
P. hydropiper (L.) SPACH	여뀌	○	○		○	○	○
P. fauriei (LEV. et VNT.) NAKAI	가시여뀌						○
P. sieboldii var. *aestiva* OHKI	민미꾸리낚시					○	
P. viscofera (MAK.) GROSS	끈끈이여뀌					○	○
P. blumei GROSS	개여뀌		○			○	○
P. thunbergii H.GROSS	고마리	○	○	○			○
P.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ARA	장대여뀌		○				○
P. lapathifolia S.F.GRAY	흰여뀌				○		○
P. senticosa GROSS	며느리밑씻개		○	○	○	○	○
P. nodosa OPIZ	큰개여뀌	○	○	○			○
P. filiforme NAKAI	이삭여뀌	○			○	○	○
P. perfoliata H.GROSS	며느리배꼽	○	○		○	○	○
P. debilis (MEISN.) GROSS	세뿔여뀌					○	
P. sieboldii OHKI	미꾸리낚시		○	○	○	○	○
P. bungeana (TURCZ.) NAKAI	바늘여뀌				○	○	○
Fagopyrum esculentum MOENCH	메밀				○		
Order 중심자목 Centrospermales							
Family 명아주과 Chenopodiacoae							
Chenopodium virgatum THUNB.	버들명아주	○	○	○			○
C.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	○		○	○
C. glaucum L	취명아주*		○				
C.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	○	○			○
C. bryoniaefolium BUNGE	청명아주	○	○	○			
Kochia scoparia SCHRAD.	댑싸리				○	○	○
Family 비름과 Amaranthaceae							
Amaranthus lividus L.	개비름*	○	○				
A. mangostanus L.	비름		○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Celosia cristata L.	맨드라미					○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			○	
Family 석류풀과 Aizoaceae							
Mollugo pentaphylla L.	석류풀						○
Family 쇠비름과 Portulacaceae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	○	○
P. grandiflora HOOKER	채송화					○	
Family 석죽과 Caryophyllaceae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		○	○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			○		○
P.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	○	○	○	○	○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MIZUSHIMA	점나도나물	○			○		○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OHWI	벼룩나물		○	○			○
S. media VILLARS	별꽃						○
S. aquatica SCOP.	쇠별꽃		○	○	○		
Dianthus barbatus var. *japonicus* NAKAI	수염패랭이꽃	○	○	○			
D. sinensis L.	패랭이꽃		○				○
D. superbus var. *longicalycinus* (MAX.) WILLIAMS	술패랭이꽃	○					○
Gypsophila Oldhamiana MIQ.	대나물					○	○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덩굴별꽃						○
Lychnis cognata MAX.	동자꽃					○	○
Melandryum sedulense NAKAI	가는장구채				○		○
Melandryum firmum (S. et Z.) ROHRB.	장구채	○			○	○	○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				
Order 미나리아재비목 Ranales							
Family 수련과 Nymphaeaceae							
Nelumbo nucifera GAERTNER	연꽃						○
Family 붕어마름과 Ceratophyllaceae							
Ceratophyllum demersum L.	붕어마름		○	○			○
Family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Clematis brachyura MAX.	외대으아리						○
C. heracleifolia DC.	병조희풀				○	○	○
C. mandshurica RUPR.	으아리	○			○	○	○
C. patens MORR. et DECNE.	큰꽃으아리						○
C. heracleifolia var. *davidiana* HEMSLEY	자주조희풀					○	○
C. apiifolia A.P.DC.	사위질빵	○		○	○	○	○
C. fusca var. *violacea* MAX.	종덩굴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C.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
C. koreana KOM.	세잎종덩굴						○
Pulsatilla koreana NAKAI	할미꽃					○	○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	○	○
Anemone raddeana REGEL	꿩의바람꽃						○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	○			○
R. tachiroei FR. et SAV.	개구리미나리	○					○
R.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			○	○
R. chinensis BUNGE	젓가락나물	○	○	○			○
Thalictrum aquilegifolium L.	꿩의다리	○				○	○
T. filamentosum MAX.	산꿩의다리	○			○		
Thalictrum uchiyamai NAKAI	자주꿩의다리						○
T. actaefolium S. et Z.	은꿩의다리				○	○	○
T. minus var. *hypoleucum* (S. et Z.) MIQ.	좀꿩의다리						○
Aconitum uchiyamai NAKAI	그늘돌쩌귀					○	
A. ciliare DC.	놋젓가락나물						○
A.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진범				○	○	○
Actaea asiatica HARA	노루삼						○
Cimicifuga heracleifolia KOM.	승마					○	○
Caltha palustris var. *membranacea* TURCZ.	동의나물						○
Paeonia japonica MIYABE et TAKEDA	백작약					○	
P. suffruticosa ANDR.	모란						○
Family 으름덩굴과 Lardizabalaceae							
Akebia quinata DECNE.	으름	○			○		○
Stauntonia hexaphylla (THUNB.) DECNE.	멀꿀					○	
Family 매자나무과 Berberidaceae							
Berberis koreana PALIBIN	매자나무					○	○
Caulophyllum robustum MAX.	꿩의다리아재비				○	○	○
Family 방기과 Menispermaceae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		○	○	○
Cocculus trilobus DC.	댕댕이덩굴				○		○
Family 목련과 Magnoliaceae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	○	○
Schisandra chinensis BAILL	오미자					○	○
Family 녹나무과 Lauraceae							
Lindera obtusiloba BL.	생강나무				○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Order 양귀비목 Papaverales							
Family 양귀비과 Pavaveracea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	○	○	○	○	○	○
Hylomecon vernale MAX.	피나물					○	
Family 현호색과 Fumariaceae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	
Corydalis turtschaninovii var. *fuamriaefolia* (MAX.) T.LEE	애기현호색						○
C. turtschaninovii var. *pectinata* (MAX.) NAKAI	빗살현호색						○
C. turtschaninovii var. *linearis* (REGEL) NAKAI	댓잎현호색						○
C. turtschaninovii BESS.	현호색				○		○
C. ochotensis TURCZ.	눈괴불주머니				○	○	○
Family 풍접초과 Capparaceae							
Cleome spinosa L.	풍접초*		○	○			
Family 십자화과 Cruciferae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	○	○			
L. apetalum WILLD.	다닥냉이*		○	○		○	○
Thlaspi arvense L.	말냉이*						○
Cardamine lyrata BUNGE	논냉이						○
C. flexuosa WITH.	황새냉이	○	○	○	○	○	
C. yezoensis MAX.	왜갓냉이					○	
C. leucantha O.E.SCHULZ	미나리냉이				○	○	○
Barbarea orthoceras LEDEB.	나도냉이		○				○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
R. globosa THELL	구슬갓냉이		○	○			
R. islandica (OEDER) BORB.	속속이풀	○	○	○	○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냉이	○	○	○		○	
Draba nemorosa var. *hebecarpa* LINDBL.	꽃다지	○	○	○			○
Arabis nipponica DE.BOISS.	털장대						○
Dontostemon dentatus (BUNGE) LEDEB.	가는장대						○
Berteroella maximowiczii (PALIBIN) O.E.Schulz	장대냉이						○
Order 장미목 Rosales							
Family 돌나물과 Crassulaceae							
Orostachys malacophyllus FISCH.	둥근바위솔					○	
O. sikokianus OHWI	난장이바위솔						○
O. japonicus A.BERGER	바위솔						○
Sedum aizoon L.	가는기린초				○		○
S. erythrostichum MIQ.	꿩의비름				○		
S. kamtschaticum FISCH.	기린초				○	○	
S. polyst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S. sarmentosum BUNGE	돌나물				○	○	○
S. viviparum MAX.	새끼꿩의비름				○	○	
Family 범의귀과 Saxifragaceae							
Rodgersia podophylla A.GARY	도깨비부채					○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FR.	노루오줌				○	○	○
Aceriphyllum rossii ENGL.	돌단풍				○	○	○
A. rossii var. *multiloba* NAKAI	큰돌단풍					○	
Saxifraga oblongifolia NAKAI	참바위취					○	
S. fortunei var. *incisolobata* NAKAI	바위떡풀						○
S. stolonifera MEERB.	바위취					○	
Chrysosplenium grayanum MAX.	괭이눈				○	○	○
Parnassia palustris L.	물매화						○
Deutzia glabrata KOM.	물참대				○	○	
D.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	○	○
D. prunifolia REHDER	바위말발도리					○	○
Philadelphus schrenckii RUPR.	고광나무				○	○	○
P. tenuifolius RUPR. et MAX.	얇은잎고광나무						○
Hydrangea macrophylla for. otaksa (S. et z.) WILSON	수국*						○
H. serrata for. acuminata (S. et Z.) WILSON	산수국					○	○
Family 조록나무과 Hamamelidaceae							
Corylopsis coreana UYEKI	히어리					○	
Family 버즘나무과 Platanaceae							
Platanus Occidentalis L.	양버즘나무*					○	
Family 장미과 Rosaceae							
Spiraea chamaedryfolia var. *ulmifolia* (SCOP.)MAX	인가목조팝나무					○	
S fritschiana SCHNEID.	참조팝나무					○	
S miyabei KOIDZ.	덤불조팝나무					○	
S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			○	○	○
S salicifolia L.	꼬리조팝나무						○
Neillia uyekli NAKAI	나도국수나무	○					○
Stephanandra incisa ZABEL	국수나무				○	○	○
Kerria japonica (L.) DC.	황매화*						○
Duchesnea chrysantha (ZOLL. et MORR.) MIQ.	뱀딸기				○		○
Potentilla dickinsii FR. et SAV.	돌양지꽃				○	○	○
P.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	○
P. paradoxa Nutt.	개소시랑개비	○	○	○			
P. fragarioides var. *major* MAX.	양지꽃		○	○	○	○	○
P. kleiniana WIGHT et ARNOTT	가락지나물		○	○			○
P. chinensis Ser.	딱지꽃	○	○	○	○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Geum aleppicum JACQ.	큰뱀무						○
G. japonicum THUNB.	뱀무				○	○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		
R.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			○	○	
R. idaeus var. *concolor* NAKAI	나무딸기						○
R. oldhamii MIQ.	줄딸기						○
R. parvifolius L.	멍석딸기	○			○	○	○
R. phoenicolasius MAX.	곰딸기				○	○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터리풀						○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	○	
S. tenuifolia var. *alba* TRAUTV. et MEYER	가는오이풀						○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	○	○	○	○	○
A. coreana NAKAI	산짚신나물					○	○
Rosa chinensis JACQ.	월계화						○
R. maximowicziana REGEL	용가시나무						○
R. multiflora THUNB.	찔레꽃	○			○	○	○
R. rugosa THUNB.	해당화						○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	살구*					○	○
P. glandulosa for. *albiplena* KOEHNE	옥매*					○	
P. leveilleana KOEHNE	개벚나무				○		○
P. mandshurica var. *glabra* NAKAI	개살구						○
P. mume S. et Z.	매실나무						○
P. padus L.	귀룽나무					○	
P. persica (L.) BATSCH	복사나무				○		○
P.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					○
P. serrulata var. *spontanea* (MAX.) WILS.	벚나무			○		○	○
P. tomentosa THUNB.	앵도*						○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				○	○	○
Chaenomeles lagenaria (LOISEL) KOIDZ.	명자꽃*					○	
Malus baccata var. *mandshurica* SCHNEID.	털야광나무						○
M. baccata Borkh.	야광나무				○	○	○
M. sieboldii (REGEL) REHDER	아그배나무				○		
Pyrus ussuriensis MAX.	산돌배			○		○	○
Pourthiaea villosa DECNE.	윤노리나무						○
Sorbus alnifolia (S. et Z.) K.KOCH.	팥배나무				○	○	○
Family 콩과 Leguminosae							
Albizzia julibrissin DURAZZINI	자귀나무						○
Gleditsia japonica var. *koraiensis* (NAKAI) NAKAI	주엽나무						○
Cassia mimosoides var. *nomame* MAKINO	차풀	○	○	○	○	○	○
Sophora flavescens AITON	고삼				○	○	○
S. japonica L.	회화나무*						○
Maackia amurensis RUPR. et MAX.	다릅나무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Lespedeza juncea var. *inschanica* MAX.	땅비수리	○					
L. maximowiczii SCHNEID.	조록싸리	○	○	○	○	○	○
L. cyrtobotrya MIQ.	참싸리				○	○	
L. tomentosa S.	개싸리						○
L. pilosa (THUNB.) S. et Z.	괭이싸리						○
L. cuneata G.DON	비수리				○	○	○
L. bicolor TURCZ.	싸리	○			○	○	○
Kummerowia stipulacea (MAX.) MAKINO	둥근매듭풀				○		○
K.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	○	○	○		○
Desmodium oxyphyllum DC. 도둑놈의갈고리				○		○	
D. oldhami OLIVER	큰도둑놈의갈고리						○
Aeschynomene indica L.	자귀풀					○	
Vicia amoena FISCH.	갈퀴나물				○		○
V. amurensis OETTINGEN	벌완두					○	
V. angustifolia var. *minor* (BERTOL.) OHWI	가는갈퀴	○					
V. nipponica MATSUMURA	네잎갈퀴나물						○
V. unijuga A.BR.	나비나물						○
V. venosissima NAKAI	노랑갈퀴					○	
La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
Phaseolus nipponensis OHWI	새팥						○
Pueraria thunbergiana BENTHAM	칡	○	○	○	○	○	○
Glycine soja S. et Z.	돌콩	○	○	○		○	○
Amphicarpaea edgeworthii var. *tris-perma* OHWI	새콩	○	○	○			○
Indigofera kirilowii MAX.	땅비싸리	○			○		○
Wisteria floribunda A.P.DC.	등*						○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	
Lotus corniculatus var. *japonicus* REGEL	벌노랑이		○				○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	○	○	○		
Crotalaria sessiliflora L.	활나물					○	○
Order 쥐손이풀목 Geraniales							
Family 쥐손이풀과 Geraniaceae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			○	○	○
G. nepalense subsp. thunbergii (S. et Z.) HARA.	이질풀				○	○	○
Family 괭이밥과 Oxalidaceae							
Oxalis acetosella L.	애기괭이밥				○	○	
O. obtriangulata MAX.	큰괭이밥					○	
O. corniculata L.	괭이밥					○	○
Family 운향과 Rutaceae							
Zanthoxylum schinifolium S. et Z.	산초나무				○	○	○
Z. piperitum A.P.DC.	초피나무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Evodia daniellii HEMSL.	쉬나무						○
Poncirus trifoliata RAFIN.	탱자나무*						○
Family 소태나무과 Simaroubaceae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	○	○
Ailanthus altissima SWINGLE	가죽나무						○
Family 멀구슬나무과 Meliaceae							
Cedrela sinensis A.JUSSIEU	참죽나무						○
Family 대극과 Euphorbiaceae							
Securinega suffruticosa REHDER	광대싸리	○	○	○	○	○	○
Phyllanthus ussuriensis RUPR. et MAX.	여우주머니						○
Acalypha australis L.	깨풀	○			○	○	○
Euphorbia humifusa WILLD.	땅빈대*						○
Order 무환자나무목 Sapindales							
Family 회양목과 Buxaceae							
Buxus microphylla var. *koreana* NAKAI	회양목*						○
Family 옻나무과 Anacardiaceae							
Rhus chinensis MILL.	붉나무				○	○	○
R. verniciflua STOKES	옻나무						○
R.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	○	○
R. sylvestris S. et Z.	산검양옻나무						○
Family 노박덩굴과 Celastraceae							
Euonymus sachalinensis (FR.SCHM.) MAX.	회나무				○	○	○
E. oxyphyllus MIQ.	참회나무						○
E. sieboldianas BLUME	참빗살나무				○	○	○
E. alatus (THUNB.) SIEB.	화살나무				○	○	○
E. bungeanus MAX.	좀참빗살나무				○		
E. japonica THUNB.	사철나무						○
E. alatus for. *ciliato-dentatus* HIYAMA.	회잎나무*					○	○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	○	○
C.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						○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et TAKEDA	미역줄나무				○	○	
Family 고추나무과 Staphyleaceae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	○	○
Family 단풍나무과 Aceraceae							
Acer mono MAX.	고로쇠나무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A. truncatum BUNGE	만주고로쇠				○		
A.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				○		
A. mandshuricum MAX.	복장나무				○		○
A. palmatum THUNB.	단풍나무					○	
A. ginnala MAX.	신나무				○	○	○
A. triflorum KOM.	복자기				○	○	○
A. barbinerve var. *glabrescens* NAKAI	개시닥나무						○
Family 봉선화과 Balsaminaceae							
Impatiens balsamina L.	봉선화*					○	
I*mpatiens textori* for. *pallescens* HARA	흰물봉선*					○	
I.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화	○			○	○	
I. textori MIQ.	물봉선		○		○	○	○
Order 갈매나무목 Rhamnales							
Family 갈매나무과 Rhamnaceae							
Zizyphus jujuba MILLER	묏대추						○
Z. jujuba var. *inermis* REHDER.	대추*						○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		○
Rhamnus davurica PALL.	갈매나무					○	○
R. koraiensis SCHNEID.	털갈매나무						○
R. davurica var. *nipponica* MAK.	참갈매나무						○
R.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
Family 포도과 Vitaceae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	○	
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a* (THUNB.) HARA	개머루	○			○	○	○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PLANCHON	담쟁이덩굴	○			○	○	○
Order 아욱목 Mavales							
Family 피나무과 Tiliaceae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	○	
T. mandshurica RUPR. et MAX.	찰피나무					○	
Family 아욱과 Malvaceae							
Abutilon avicennae GAERTN.	어저귀*	○				○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						○
H. trionum L.	수박풀*	○	○				○
Family 벽오동과 Sterculiaceae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수까치깨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Order 측막태좌목 Parietales							
Family 다래나무과 Actinidiaceae							
Actinidia polygoma (S. et Z.) MAX.	개다래				○	○	○
A. arguta PLANCHON	다래	○			○	○	○
A. kolomikta MAX. et RUPR.	쥐다래					○	○
Family 물레나물과 Hypericaceae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		○
H. japonicum THUNB.	애기고추나물				○		○
H. ascyron var. *longistylum* MAX.	큰물레나물					○	
H. ascyron var. *longistylum* MAX.	좀고추나물			○			
H. galioides LAM.	갈퀴망종화		○				
H. ascyron L.	물레나물				○	○	○
Family 제비꽃과 Violaceae							
Viola variegata FISCHER	알록제비꽃	○		○	○	○	○
V. kamibayashii NAKAI	광릉제비꽃						○
V. hirtipes S. MOORE	흰털제비꽃						○
V. mandshurica W. BECKER	제비꽃	○	○	○	○	○	○
V. variegata var. *ircutiana* REGEL	청알록제비꽃					○	
Viola dissecta var. *takahashii* (MAK.)T.Lee	단풍제비꽃						○
V. collina Bess.	둥근털제비꽃						○
V. rossii HEMSLEY	고깔제비꽃				○	○	○
V. selkirkii PURSH	뫼제비꽃						○
V. orientalis W.BECKER	노랑제비꽃	○			○	○	
V. seoulensis NAKAI	서울제비꽃						○
V. keiskei MIQ.	잔털제비꽃					○	○
V. phalacrocarpa MAX.	털제비꽃						○
V. dissecta var. *chaerophylloides* (Regel) MAKINO	남산제비꽃				○	○	○
V. albida PALIBIN	태백제비꽃				○		○
V.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			○	○	○
Order 도금양목 Myrtales							
Family 보리수나무과 Elaeagnaceae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		○
Family 부처꽃과 Lythraceae							
Rotala indica (WILLD.) KOEHNE	마디꽃						○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부처꽃		○				○
Family 박쥐나무과 Alangium							
Alangium platanifolium var. *macrophylum* (S. et Z.) WANRERIN	박쥐나무				○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Family 마름과 Hydrocaryaceae							
Trapa pseudo-incisa S.et Z.	애기마름		○	○			
Trapa japonica FLEROV	마름		○				
Family 바늘꽃과 Onagraceae							
Circaea quadrisulcsta (MAX.) FR. et SAV	말털이슬				○	○	
C. mollis S. et Z.	털이슬						○
Epilobium cephalostigma HAUSSKN.	돌바늘꽃						○
Ludwigia prostrata ROXB.	여뀌바늘						○
Oenothera lamarckiana SER.	큰달맞이꽃*	○	○	○			
O. odorata JACQ.	달맞이꽃*		○	○	○	○	
Family 개미탑과 Halorrhagidaceae							
Myriophyllum verticillatum L.	물수세미		○	○			
Order 산형화목 Umbellales							
Family 두릅나무과 Araliaceae							
Kalopanax pictus (THUNB.) NAKAI	음나무				○	○	○
Acanthopanax sessiliflorus (RUPR. et MAX.) SEEM.	오갈피					○	○
Aralia elata SEEM.	두릅나무	○	○		○	○	○
Family 산형과 Umbelliferae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	○	○
Anthriscus sylvestris HOFFM.	전호					○	
Torilis japonica (HOUTT.) DC.	사상자		○		○		○
Cryptotaenia japonica HASSK.	파드득나물						○
Oenanthe javanica (BL.) DC.	미나리						○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		○
P. gustavohegiana KOIDZ.	노루참나물				○		
Pimpinella Koreana NAKAI	가는참나물					○	
Cnidium officinale MAKINO	천궁						○
C. monnieri (L.) CUSSON	벌사상자		○	○			
Sium ninsi L.	감자개발나물						○
S. suave WALTER	개발나물						○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MAK. et YABE) NAKAI	처녀바디						○
A. polymorpha MAX.	궁궁이						○
A. decursiva (MIQ.) FR. et SAV.	바디나물				○	○	○
Ostericum koreanum (MAX.) KITAGAWA	강활						○
O. grosseserrata MAX.	신감채					○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HER	기름나물				○	○	○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어수리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Family 층층나무과 Coriaceae							
Cornus kousa BUERG.	산딸나무						○
C. officinalis S. et Z.	산수유	○					○
C. controversa HEMSLEY	층층나무				○	○	○
C. walteri WANGER.	말채나무						○
Superorder 합판화군 Metachlamydeae							
Order 진달래목 Ericales							
Family 노루발과 Pyrolaceae							
Pyrola japonica KLENZE	노루발				○	○	○
Family 진달래과 Ericaceae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	○	○
R. schlippenbachii MAX.	철쭉꽃	○			○	○	○
R. yedoense var. *poukhanense* (LEV.) NAKAI	산철쭉				○	○	○
R. mucronulatum var. *ciliatum* NAKAI	털진달래						○
Vaccinium koreanum NAKAI	산앵도나무					○	○
Order 앵초목 Primulales							
Family 앵초과 Primulaceaee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 R. KNUTH	좁쌀풀		○	○			
L. barystachys BUNGE	까치수영					○	○
L.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영				○	○	○
Primula sieboldi E.MORR.	앵초						○
Order 감나무목 Ebenales							
Family 감나무과 Ebenaceae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
D. kaki THUNB.	감나무*						○
Family 노린재나무과 Symplocaceae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			○	○	
S. paniculata MIQ.	검노린재				○		
Family 때죽나무과 Styracaceae							
Styrax obassia S. et Z.	쪽동백나무				○	○	○
S. japonica S. et Z.	때죽나무						○
Order 용담목 Gentianales							
Family 물푸레나무과 Oleaceae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	○	○
F. mandshurica RUPR.	들메나무				○	○	○
Ligustrum obtusifolium S. et Z.	쥐똥나무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Forsythia koreana NAKAI	개나리*	○	○	○	○		○
Syringa velutina var. *kamibayashii* T.LEE	정향나무					○	○
Family 용담과 Gentianaceae							
Gentiana scabra var. *buergeri* (MIQUEL) MAX.	용담				○	○	○
Family 박주가리과 Asclepiadaceae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	○		○	○	○
Cynanchum paniculatum KITAGAWA	산해박						○
C. ascyrifolium (FR. et SAV.) MATSUMURA	민백미꽃						○
C. wilfordii (MAX.) HEMSL.	큰조롱				○	○	
C. atratum BUNGE	백미꽃					○	
Tylophora floribunda MIQ.	왜박주가리	○					
Order 통화식물목 Tubiflorales							
Family 메꽃과 Convolvulaceae							
Calystegia sepium var. *americana* MATSUDA	큰메꽃	○	○	○			
C. hederacea WALLICH	애기메꽃*	○					
C. japonica (THUNB.) CHOISY	메꽃	○	○	○	○	○	○
Cuscuta japonica CHOISY	새삼					○	○
C. australis R.BR.	실새삼	○	○	○	○		○
Family 지치과 Borraginaceae							
Trigonotis nakali HARA	참꽃마리				○	○	○
T. peduncularis BENTH.	꽃마리	○	○	○	○		○
Family 마편초과 Verbenaceae							
Callicarpa didgotoma RAEUSCH.	좀작살나무						○
C. japonica THUNB.	작살나무				○	○	○
Clerodendron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	○	○
Vitex rotundifolia L.fil.	순비기나무						○
Caryopteris divaricata (S. et Z.) MAX.	누린내풀					○	○
Family 꿀풀과 Labiatae							
Amethystea caerulea L.	개차즈기					○	○
Ajuga multiflora BUNGE	조개나물						○
A. decumbens THUNB.	금창초	○			○		
Teucrium japonicum HOUTT.	개곽향					○	
Scutellaria fauriei LEV. et VNT.	그늘골무꽃					○	○
Agastache rugosa (FISCH. et MEYER) O.KUNTZE	배초향					○	○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			○	○	○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	○	○
Leonurus sibiricus L.	익모초*	○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L. macranthus MAX.	송장풀		○	○	○	○	○
Stachys riederi var. *japonica* MIQ.	석잠풀		○	○			○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		○		○
Salvia plebeia R.BR.	배암차즈기						○
Mosla punctulata (GMEL.) NAKAI	들깨풀						○
M. dianthera MAX.	쥐깨풀	○	○	○	○	○	○
Lycopus ramosissimus var. *japonicus* KITAMURA	쉽사리		○			○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KUDO) HARA	층층이꽃				○	○	○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RA	들깨						○
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MALINV.	박하						○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향유				○		○
Isodon japonicus (BURMANN) HARA	방아풀				○		○
I.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	○
I. excisus (MAX.) KUDO	오리방풀				○	○	○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
Family 가지과 Solanaceae							
Lycium chinense MILLER	구기자나무						○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 (Masters) HORT.	꽈리*						○
Solanum nigrum L.	까마중*				○		○
S. lyratum THUNB.	배풍등						○
Family 현삼과 Scrophylariaceae							
Paulownia tomentosa (THUNB.) STEUD.	참오동*						○
P. coreana UYEKI	오동*						○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토현삼						○
S. boreali-koreana NAKAI	설령개현삼		○				
Mazus japonicus (THUNB.) KUNTZE	주름잎		○	○			
Lindernia micrantha D.DON	논뚝외풀	○	○	○	○		○
L. crustacea (L.) F. MUELL	외풀			○			
L. procumbens PHILCOX	밭뚝외풀		○	○			
Veronica undulata WALL.	물칭개나물			○			
Veronica linariaefolia PALL.	꼬리풀					○	○
Siphonostegia chinensis BENTH.	절국대						○
Melampyrum roseum MAX.	꽃며느리밥풀				○	○	○
M. setaceum (MAX.) NAKAI	애기며느리밥풀					○	○
Pht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
Pedicularis resupinata L.	송이풀				○	○	○
Family 통발과 Lentibulariaceae							
Utricularia japonica MAKINO	통발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Family 파리풀과 Phrymaceae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ARA	파리풀				○	○	○
Order 질경이목 Plantaginales							
Family 질경이과 Plantaginaceae							
Plantago depressa WILLD.	털질경이	○	○	○			○
P. major var. *japonica* (FR. et SAV.) MIYABE	왕질경이		○				○
P. asiatica L.	질경이	○	○	○	○	○	○
Order 꼭두서니목 Rubiales							
Family 꼭두서니과 Rubiaceae							
Gardenia jasminoides for. *grandiflora* MAKINO	치자나무*						○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	갈퀴꼭두서니		○	○		○	
R. chinensis var. *glabrescens* KITAGAWA	큰꼭두서니						○
R. akane NAKAI	꼭두서니	○			○	○	○
Galium spurium L.	갈퀴덩굴					○	
G. dahuricum var. *tokyonense* MAKINO	흰갈퀴				○		
G. trachyspermum A.GRAY	네잎갈퀴	○	○	○	○	○	
G. kinuta NAKAI et HARA	민둥갈퀴					○	○
G. verum var. *asiaticum* NAKAI	솔나물		○		○		○
Asperula maximowiczii KOM.	개갈퀴				○		○
Family 인동과 Caprifoliaceae							
Sambucus sieboldiana var. *miquelii* (NAKAI) HARA	지렁쿠나무						○
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딱총나무				○	○	○
S. latipinna NAKAI	넓은잎딱총나무						○
Viburnum wrightii MIQ.	산가막살나무						○
V. sargentii KOEHNE	백당나무				○	○	○
V.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				○		○
V. carlesii HEMSLEY	분꽃나무						○
V. erosum THUNB.	덜꿩나무				○		○
Abelia mosanensis T.CHUNG	댕강나무		○				○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	○	○
W. subsessilis L.H.BAILEY	병꽃나무				○	○	○
Lonicera maackii MAX.	괴불나무						○
L.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
L. harai MAKINO	길마가지나무						○
L. japonica THUNB.	인동						○
Family 마타리과 Valerianaceae							
Patrinia scabiosaefolia FISCH.	마타리				○	○	○
P. villosa (THUNB.) JUSSIEU	뚝갈				○	○	○
P. saniculaefolica HEMSL.	금마타리					○	○
P. rupestris JUSS.	돌마타리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Valeriana fauriei BRIQ.	쥐오줌풀				○		
Order 박목 Cucurbitales							
Family 박과 Cucurbitaceae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하늘타리						○
Order 초롱꽃목 Campanulales							
Family 초롱꽃과 Campanulaceae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잔대						○
A. divaricata var. *manshurica* KITAGAWA	넓은잔대						○
A. remotiflora (S. et Z.) MIQ.	모시대				○	○	○
Phyteuma japonicum MIQ.	영아자					○	○
Codonopsis lanceolata (S. et Z.) TRAUTV.	더덕				○		○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
Family 숫잔대과 Lobeliaceae							
Lobelia chinensis LOUR.	수염가래꽃						○
Family 국화과 Compositae							
Inula britannica var. *chinensis* REGEL	금불초*					○	○
Carpesium divaricatum S. et Z.	긴담배풀					○	○
C. abrotanoides L.	담배풀						○
Leibnitzia anandria (L.) NAKAI	솜나물				○	○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	○	○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	○	○	○		
A. artemisiifolia var. *elatior* DESCOURTILS	돼지풀*		○		○	○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
Eupatorium chinense var. *simplicifolium* KITAMURA	등골나물				○	○	○
E. fortunei TURCZ.	벌등골나물				○		○
Solidago virga-aurea var. *asiatica* NAKAI	미역취				○	○	○
Aster incisus FISCHER	가새쑥부쟁이						○
A. pinnatifidus (MAT.) MAKINO	버드쟁이나물	○					
A.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		○	○	○
A. tataricus L.	개미취					○	○
A. ciliosus KITAMURA	개쑥부쟁이					○	○
A. yomena MAKINO	쑥부쟁이						○
A. scaber THUNB.	참취				○	○	○
Erigeron canadensis L.	망초*	○	○	○	○	○	○
E. annuus (L.) PERS.	개망초*	○	○	○	○	○	○
Callistephus chinensis (L.) NEES	과꽃*						○
Petasites japonicus (S. et Z.) MAX.	머위*						○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곰취					○	
Senecio integrifolius var. *spathulatus* (MIQ.)HARA	솜방망이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Cacalia auriculata var. *matsumurana* NAKAI	박쥐나물					○	
Syneilesis palmata (THUNB.) MAX.	우산나물					○	
Achillea sibirica LEDEB.	톱풀		○	○			○
Centipeda minima (L.) A.BR. et ASCHERS.	중대가리풀		○			○	○
Chrysanthemum indicum L.	감국				○	○	
C. boreale MAKINO	산국				○	○	○
C. zawadski var. *alpinum* KITAMURA	바위구절초					○	
C.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구절초				○		○
Artemisia montana PAMP.	산쑥	○	○	○			○
A. stolonifera (MAX.) KOM.	넓은잎외잎쑥	○	○	○	○	○	
A. apiacea HANCE.	개사철쑥		○	○			
A. iwayomogi KITAMURA	더위지기						○
A. rubripes NAKAI	덤불쑥					○	○
A. japonica THUNB.	제비쑥						○
A. feddei LEV. et VNT	뻥쑥						○
A. lavandulaefolia DC.	참쑥	○	○	○	○	○	○
A. annua L.	개똥쑥						○
A. keiskeana MIQ.	맑은대쑥	○	○	○	○	○	○
A. capillaris THUNB.	사철쑥		○	○		○	○
A. sylvatica MAX.	그늘쑥						○
Adenocaulon himalaicum EDGEWORTH	멸가치				○	○	
Siegesbeckia pubescens MAKINO	털진득찰				○		○
S. glabrescens MAKINO	진득찰					○	○
Rudbeckia bicolor NUTT.	원추천인국*		○		○		
Bidens parviflora WILLD.	까치발					○	○
B.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	○	○		○	
B. bipinnata L.	도깨비바늘	○	○	○	○	○	○
B. tripartita L.	가막사리						○
Atractylodes japonica KOIDZ.	삽주				○	○	○
Carduus crispus L.	지느러미엉겅퀴*					○	○
Cirsium setidens NAKAI	고려엉겅퀴					○	○
C. japonicum var. *ussuriense* KITAMURA	엉겅퀴	○	○	○	○	○	○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	○	○	○		○
Saussurea pulchella FISCH.	각시취						○
S. seoulensis NAKAI	분취						○
Rhapontica uniflora DC.	뻐꾹채						○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수리취					○	○
Echinops setifer ILJIN	절굿대					○	○
Cephalonoplos segetum (BUNGE) KITAMURA	조뱅이						○
Coreopsis tinctoria NUTT.	기생초					○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			○	
Scorzonera albicaulis BUNGE	쇠채						○
Picris hieracioides var. *glabrescens* OHWI	쇠서나물					○	○

학 명	국 명	A	B	C	D	E	F
Taraxacum mongolicum H.MAZZ.	민들레						○
T. coreanum NAKAI	흰민들레						○
Hieracium umbellatum L.	조밥나물				○	○	○
Ixeris dentata (THUNB.) NAKAI	씀바귀	○	○	○	○		○
I. chinensis var. *strigosa* (LEV. et VNT.) OHWI	선씀바귀				○	○	○
I. polycephala CASS.	벌씀바귀		○				
Lactuca raddeana MAX.	산씀바귀					○	○
L. indica var. laciniata HARA	왕고들빼기				○	○	○
Sonchus brachyotus A.P.DC.	사데풀						○
S.Oleraceus L.	방가지똥*					○	
Youngia denticulata KITAMURA	이고들빼기		○	○	○	○	○
Y. chelidoniifolia KITAMURA	까치고들빼기				○	○	
Y. sonchifolia MAX.	고들빼기				○		○
Y. japonica (L.) DC.	뽀리뱅이						○

* 재배 및 외래종 식물.
배근산[1] 및 경기도[2] 는 Jo and Lee(1985) 및 Chung(1955)을 각각 인용.

2) 담수조류 조사

담수조류의 현존량 조사 결과를 정점별로 비교하여 보면, 추계에는 정점 5인 포천천 수역에서 7,692×103 cells/ *l*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정점 4인 영평천에서는 286×103 cells/ *l* 로 조사 정점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표 18). 그 밖에 조사 정점 1인 전곡읍 적성면 구읍리의 수역에서는 5,011×103 cells/ *l* 로, 정점 2인 군남면 우정리 수역에서는 1,340×103 cells/ *l* 로 조사되었고, 정점 3인 한탄강의 하류 수역에서는 4,710×103 cells/ *l* 이었다. 특히 담수조류의 현존량이 가장 높은 정점 5는 포천읍을 통과하며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이어서 수질이 심하게 악화되어 있었다.

〈표 18〉 임진강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지 점	세포 수 x10^3 / *l*	수 온(℃)		pH	
	가 을	여 름	가 을	여 름	가 을
1	5,011	26.6	7.0	8.7	6.4
2	1,340	23.6	7.0	6.8	6.4
3	4,710		8.0		6.4
4	286		8.0		6.4
5	7,692	23.5	8.8	8.4	6.6
6		24.8		8.0	

〈표 19〉 임진강 수계 6개 정점별 출현 담수조류

정 점 / 분류군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S	F	S	F	F	S	S	F	S
Phylum Cyanophyta									
Cl. Cyanophyceae									
Ord. Chroococcales									
Fam. Chroococaceae									
Dactylococcopsis acicularis				+	+	+			
D. acicularis									+
D. rhaphidioides				+					+
Gloeocapsa arenaria		+							
Merismopedia convoluta					+				
Ord.Hormogonales									
Subord.Nostocinales									
Fam. Oscillatoriaceae									
Phormidium inundatum					+				
P. retzii					+				
P. subterraneum var.crassum					+				
P. tenue		++							
P. valderianum		++				+			
Oscillatoria angustissima						++		+	
O. constricta			+				+		+
O. geminata		+					+		
O. geminata var.subphurea		+		+					
O. princeps		+							
O. proboscidea				+					
O. profunda		+				++			
O. tenuis						+			

정 점 / 분류군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S	F	S	F	F	S	S	F	S
Spirulina laxa		+				+			
Phylum Euglenophyta									
Cl. Euglenophyceae									
Ord. Euglenales									
Subord. Eugleninae									
Fam. Euglenaceae									
Euglena geniculata		+							
E.gracilis								+	
E.limnophila								+	
E.proxima								+	
E.viridis								+	
Lepocinclis ovum								++	
Phacus orbicularis var.zmudae								++	
Phylum Chrysophyta									
Class Bacillariophyceae									
Subcl. Centricae									
Ord. Discales									
Fam. Coscinodiscaceae									
Aulacoseira ambigua							+		
A. distans var. alpigena					+				
Cyclotella meneghiniana				+	++	+++	+	+	+
C. stelligera		+							
Melosira zarians		+		+	+				
Orthoseira roeseana		+							
Fam. Actinodiscaceae									
Actinocyclus normanii							+	+	
Subcl. Pennatae									
Ord. Araphidales									
Fam. Fragilariaceae									

정 점 / 분류군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S	F	S	F	F	S	S	F	S
Asterionella formosa					+				
Diatoma vulgare		+		+	+				
Fragilaria capucina		+	+		+				
F.capucina var. *gracilis*			+						+
F.vaucheriae				+					
Synedra acus		+	+	+		+++	+	++	+
S.delicatissima var. *angustissma*		+	++			+			
S.fasciculata	+				+	+			+
S.ulna				+					
Subord. Raphidineae Fam. Achnanthaceae									
Cocconeis placentula		+		+	+				
C.placentula var.euglypta		+		+					
C.placentula var. *lineata*				+					
Achnanthes hungarica				+		+			+
A.lanceolata								+	+
A.minutissima									+
A.subhudsonia var. *kraeuselii*		+							
Ord.Biraphidales Fam. Naviculaceae									
Pinnularia gibba		+							
P.microstauron		+					+		
Navicula capitatoraduata									+
N.cryptocephala		+	+	++		+	+		
N.cryptotenella				+			+		+

정 점 / 분류군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S	F	S	F	F	S	S	F	S
N.decussis		+		+					
N.gregaria		+			+	+			
N.notha	+		+		+		+	+	
N.protracta			+		+	+			
N.pupula	+	+			+	+		+	+
N.pupula var. *elliptica*					+				
N.symmetrica		+			+				
N.tenelloides							+		
N.texana									+
N.viridula var.*rostellata*	+	+			+		+		+
Cymbella affinis		+	+	+	+				
C.minuta var. *silesiaca*				+	+	+			
C.proxima		+		+	+				
C.tumida				+	+	+			
C.turgidula				+					
Gomphonema angustum				+					
G.augur									
G.clevei		+	++	+	+				
G.parvulum		+			+	+		+	+
G.pseudoaugur						+			
G.quadripunctatum				+					
G.trucatum					+				
Fam. Nitzschiaceae									
Nitzschia amphibia				+					

정 점 / 분류군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S	F	S	F	F	S	S	F	S
N.denticula		+							
N.palea	+		+						+
Fam. Surirellaceae									
Surirella angusta				+					
S.splendida							+		
Phylum Chlorophyta Cl. Chlorophyceae Ord. Volvocales Subord. Chlamydomonadinales Fam. Chlamydomonadaceae									
Chlamydomonas globosa		+		+				+	
Subord. Tetrasporinales Fam. Palmellaceae									
Sphaerocystis schroeteri								+	
Gloeocystis vesiculosa						+		+	
Asterococcus superbus		+							
Palmella mucosa								+	
Ord. Ulotrichales Subord.Ulotrichinales Fam. Ulotrichaceae									
Klebsormidium subsecundum				+					
Ord. Chaetophorales Fam. Chaetophoraceae									
Stigeoclonium subsecundum					+				
Chaetophora elegans								+	
C.pisiformis								+	+
Protoderma viride								+	
Ord.Ulvales									

정 점 / 분류군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S	F	S	F	F	S	S	F	S
Fam. Ulvaceae									
Enteromorpha flexuose		+		+	+	+		++	
Ord. Chlorococales									
Fam. Chlorellaceae									
Chlorella ellipsoidea								+	
C.vulgaris		+	+		+			++	
Fam. Oocystaceae									
Westella botryoides					+				
Oocystis parva								+	
Fam. Selenastraceae									
Ankistrodesmus falcatus		+			+				
Fam. Characiaceae									
Characium ambiguum		+							
C.limneticum						+		+	
C.pringsheimii						+		++	
Fam. Hydrodictyaceae									
Pediastrum boryanum						+			
P.duplex var. *rotundatum*		+							
P.tetras				+					
Fam. Coelastraceae									
Scenedesmus acuminatus					+				
S.acutus f.costulatus		+		+	+	+			
S.arcuatus var.capitatus		++			+	+			
S.armatus		+				+			+

정 점 / 분류군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S	F	S	F	F	S	S	F	S
S.brasiliensis				+					
S.ecomis				+					
S.granulatus				+				+	
S.incrassatulus		+			+	+			
S.quadricauda		+		+	+	+			
S.soli					+				
S.spinosus		+		+	+	+			
S.spinosus var. *bicaudatus*		+				+			
Ord. Conjugatae Subord. uconjugatae Fam. Zygnemataceae									
Spirogyra inflata									+
S.scrobiculata									+
Subord. Desmidiinales Fam. Desmidiaceae									
Closterium moniliferum				+					
Cosmarium formosulum		+		+					
C.subcostatum				+					
Total	5	47	14	40	39	30	13	28	20

S: summer, F: fall +: moderately appear, ++: frequently appear, +++: blooming

한편 본 조사에서 밝혀진 담수조류는 총 120 분류군으로 이를 Engler의 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하면 4문 4강 2아강 12목 8아목 23과 46속에 속하는 104종 15변종 1품종으로 동정된다(표 19). 그 중 남조식물은 2목 2과 6속에 속하는 17종 2변종이 출현하였고, 유글레나식물은 1목 1과 3속에 속하는 6종 1변종이 분포하였다. 규조류는 3목 7과 17속에 속하는 46종 9변종이 동정되었다. 또한 녹조식물은 6목 13과 20속에 속하는 35종 3변종 1품종의 식물이 출현하였다.

정점별로 출현 빈도가 높은 종들을 보면, 정점 1에서는 Oscillatoria geminata, O. geminata var. subphurea, O. princeps 등의 흔들말과 녹조류의 Scenedesmus arcuatus var. capitatus, S. armatus

등의 뗏목말, 그리고 규조류의 Navicula cryptocephala 등의 소형 규조류가 빈번히 출현하였다. 정점 2에서는 Melosira varians와 Cymbella affinis 등 부착규조류가 풍부하게 나타났다. 정점 3에서는 Cyclotella meneghiniana가 빈번히 출현하였고, 정점 4에서는 Cyclotella meneghiniana와 Synedra acus가 수화현상을 나타냈고, Oscillatoria angustissima와 O. profunda 등이 빈번히 출현하였다. 정점 5에서는 Lepocinclis ovum, Chlorella vulgaris, Characium prinsheimii 등이 비교적 많이 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 수역에서 빈번히 출현하는 흔들말 종류와 부착규조류, 뗏목말들은 부영양화된 수역을 지표하는 종이므로 (Palmer, 1977), 따라서 모든 조사 수역이 부영양화된 수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sterionella formosa와 Synedra acus같은 종들은 수화될 경우 정수처리시 여과 장치를 막아서 수질을 저하시키는 종류들이다. 그 밖에 Euglena viridis, Nitzschia palea 등은 부영양화된 수역에서 출현하는 대표적인 종들로서 정점 5와 1, 2, 6에서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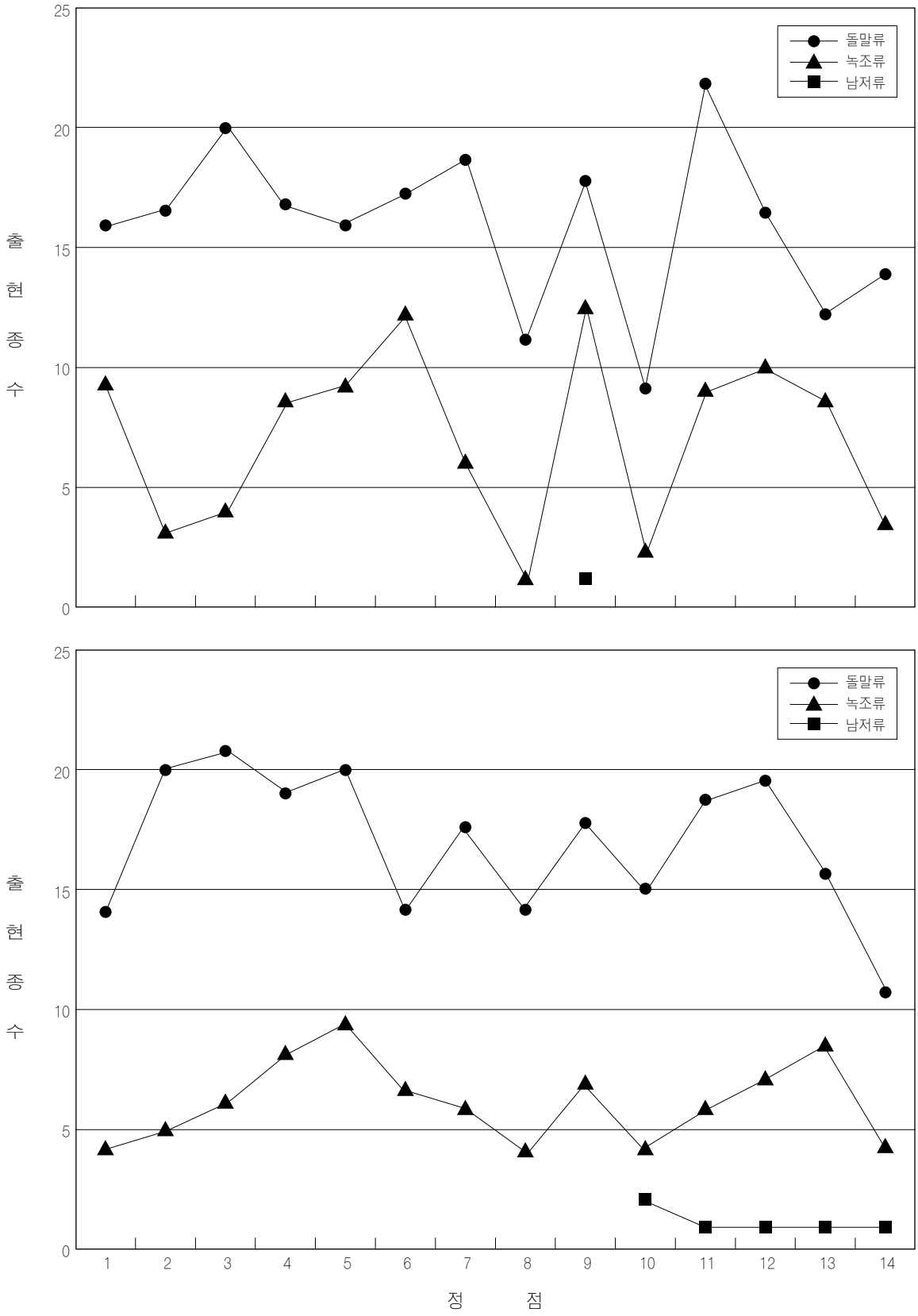
계절별 출현종 수는 하계에 비하여 추계에 더 많은 종들이 채집되었는데, 이는 채집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계에는 부유성과 부착성 조류가 모두 채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추계의 정점별 출현종 수는 정점 1이 47 분류군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점 5인 포천천이 28 분류군으로 가장 적은 분류군 수를 나타내었다.

3) 식물플랑크톤 조사

본 조사 수역에서 봄철에 출현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돌말류 58 분류군, 녹조류 33 분류군 그리고 남조류 1 분류군 등 총 92 분류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20). 돌말류는 20속 56종 1변종 1 미동정종이었으며, 녹조류는 14속 32종 1 미동정종으로 분류되었다. 돌말류의 Nitzschia속과 녹조류의 Scenedesmus속에 각각 12 종류, 돌말류 Navicula속에 8 종류가 출현하여 속 수준에서 이들이 비교적 큰 분류군이었다. 14 개 정점 중 10개 정점 이상에서 출현한 종류는 돌말류의 Cyclotella comta, Gomphonema acuminatum, Nitzschia acicularis, 녹조류의 Actinastrum hantzschii 등 3종류였다.

여름철에 출현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돌말류 40 분류군, 녹조류 20 분류군 그리고 남조류 2 분류군 등 총 62 분류군으로 구성되어 있어(표 21), 봄철보다 훨씬 단조로운 종조성을 보였다. 돌말류는 17속 40종이었으며, 녹조류는 12속 20종으로 분류되었다. 돌말류의 Nitzschia속에 7 종류, Navicula속에 6 종류, 녹조류 Scenedesmus속에 5 종류가 출현하여 속 수준에서 이들이 큰 분류군이었다. 14개 정점에서 모두 출현한 종류는 돌말류의 Cyclotella meneghiniana, Cymbella minuta, Cymbella tumida, Gomphonema truncatum, Navicula cryptocephala, Navicula pupula, Nitzschia acicularis, Nitzschia fonticola, Synedra ulana, 녹조류의 Scenedesmus quadricauda등 10종류였으며, 10개 정점 이상에서는 녹조류 Scenedesmus abundans 1종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봄철의 3종과 여름철의 11종이 출현 빈도로 보았을 때 경기북부 하천의 대표종이라 판단된다.

한편 식물플랑크톤 출현종 수는 계절별로 보아 봄철에 최저 11 종류(정점 10)에서 최고 31 종류(정점



〈그림 13〉 경기 북부하천에 있어서 식물 플랑크톤군집의 종조성 (상위: 봄철, 하위: 여름철)

〈표 20〉 경기북부 하천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종별 세포수(봄철)

(단위 : cells/l)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정점 7
〈Diatom〉							
Achnanthes brevipes	51,086	63,181					
Achnanthes hungarica			11,478				
Achnanthes lanceolata	13,623						
Achnanthes minutissima				27,935			19,675
Aulacoseira granulata	20,434			55,870	267,502	293,583	367,270
Aulacoseira italica				27,935			
Bacillaria sp.							
Cocconeis scutellum							
Cyclotella comta	3,405	7,897	22,956	83,805	60,566	17,269	13,116
Cyclotella meneghiniana	3,405	7,897					78,700
Cyclotella operculata			11,478	65,181	35,330	23,026	
Cymbella affinis		15,795	17,217		20,188		
Cymbella cuspidata			17,217				
Cymbella gregaria						2,878	19,675
Cymbella minuta					10,094	5,756	26,233
Cymbella tumida	3,405	43,437					
Cymbella ventricosa			22,956				
Diatoma vulgare		15,795	11,478	18,623			
Diploneis subovalis							
Eunotia lunaris							
Eunotia minor				18,623			13,116
Fragilaria capucina v. gracilis							
Gomphonema acuminatum	13,623	39,488	5,739	18,623	15,141		
Gomphonema clevei						2,878	6,558
Gomphonema longiceps			5,739				
Gomphonema minutissima							
Gomphonema parvulum					10,094		19,675
Gomphonema truncatum		3,948			20,188	5,756	
Gyrosigma attenuatum						5,756	6,558
Gyrosigma balticum							
Melosira varians	6,811	78,976	51,652	37,246		11,513	13,116
Navicula cryptocephala	13,623	122,413			40,377		19,675
Navicula cuspidata						5,756	
Navicula exigua	6,811						
Navicula pseudolanceolata							
Navicula pupula			91,827	167,610	10,094	5,756	19,675
Navicula radiosa		11,846					
Navicula viridis	6,811	7,897		37,246			
Navicula viridula		35,539	63,131		40,377	2,878	19,675
Nitzschia acicularis	13,623	134,259	17,217	121,052	5,047	8,634	6,558
Nitzschia capitalla			22,956				
Nitzschia denticula			28,695	18,623			
Nitzschia fonticula			17,217	65,181			
Nitzschia frustulum					20,188	14,391	78,700
Nitzschia gracilis	10,217			93,116			
Nitzschia hungarica							
Nitzschia linearis	13,623	27,641	17,217				
Nitzschia longissima							

Nitzschia palea					10,094	11,513	
Nitzschia obtusa							
Nitzschia ricta							
Nitzschia terrestris					20,188		
Pinnularia gibba	3,405		5,739	27,935		5,756	6,558
Stauroneis anceps		7,897	11,478				
Surirella robusta							
Synedra acus		23,692			10,094		26,233
Synedra unla	10,217		34,435	37,246		14,391	
Tabellaria fenestrata							
〈Chlorophytes〉							
Actinastrum hantzschii	34,057			55,870	20,188	86,348	45,908
Ankistrodesmus falcatus				18,623			
Ankistrodesmus gracilis	3,405				25,236	5,756	6,558
Closteriopsis longissina					5,047	2,878	
Closterium dianae							13,116
Closterium hantzschii							
Coelastrum microporum							85,259
Cosmarium constractum			11,478				
Cosmarium sp.							
Crucigenia crucifera					40,377		
Crucigenia tetrapedia				37,246	60,566	46,052	
Golenkinia paucispina							
Golenkinia radiata							
Micractinium pusillum	13,623			37,246			
Pandorina morum						92,104	
Pediastrum botryaum							
Pediastrum duplex	68,115				161,511	92,104	157,401
Pediastrum simplex	27,246						
Pediastrum tetras							
Scenedesmus abundans		15,795	45,913			11,513	
Scenedesmus acuminatus	51,086			27,935			
Scenedesmus acutus			22,956	37,246	60,566	11,513	
Scenedesmus armartus	17,028	31,590					
Scenedesmus bicaudatus							
Scenedesmus brasiliensis							
Scenedesmus ecornis						23,026	
Scenedesmus quadricauda		15,795	45,913	74,493	60,566	46,052	203,310
Scenedesmus qudrispina	27,246						
Scenedesmus longispina							
Scenedesmus opoliensis				37,246	40,377	23,026	
Scenedesmus spinosus							
Tetraedron regulare	3,405						
Westella botryoides						164,061	
〈Bluegreen algae〉							
Oscillatoria limosa							
Number of species	25	20	24	25	25	29	24
Total standing crops(cell/l)	439,333	710,778	614,082	1,247,755	1,069,996	1,041,923	1,272,318

	정점 8	정점 9	정점 10	정점 11	정점12	정점 13	정점 14
〈Diatom〉							
Achnanthes brevipes							
Achnanthes hungarica							
Achnanthes lanceolata							
Achnanthes minutissima				7,729			
Aulacoseira granulata		547,383		258,931			
Aulacoseira italica		13,799		73,428			
Bacillaria sp.				15,458			
Cocconeis scutellum				3,864	3,978	37,913	3,211
Cyclotella comta		18,399		7,729	1,989		
Cyclotella meneghiniana		27,599		11,593	1,989	7,582	
Cyclotella operculata							
Cymbella affinis	9,583	9,199		3,864	5,968		
Cymbella cuspidata							
Cymbella gregaria							
Cymbella minuta				7,729	3,978		9,634
Cymbella tumida							
Cymbella ventricosa							
Diatoma vulgare	4,791						
Diploneis subovalis						2,527	3,211
Eunotia lunaris						5,055	6,423
Eunotia minor							
Fragilaria capucina v. gracilis					3,978		
Gomphonema acuminatum	3,194	13,799		3,864	3,978		9,634
Gomphonema clevei	1,597	18,399					
Gomphonema longiceps							
Gomphonema minutissima				7,729			
Gomphonema parvulum							
Gomphonema truncatum					27,852	10,110	3,211
Gyrosigma attenuatum			2,500				3,211
Gyrosigma balticum					3,978		
Melosira varians		22,999		11,593	9,947	5,055	134,883
Navicula cryptocephala	1,597	18,399	15,000				
Navicula cuspidata	1,597						
Navicula exigua							
Navicula pseudolanceolata						7,582	9,634
Navicula pupula		13,799	12,500			5,055	9,634
Navicula radiosa							
Navicula viridis							
Navicula viridula		22,999	7,500		9,947		
Nitzschia acicularis	3,194	18,399	10,000	7,729		2,527	
Nitzschia capitalla							
Nitzschia denticula				3,864			
Nitzschia fonticula							
Nitzschia frustulum				15,458		5,055	
Nitzschia gracilis							
Nitzschia hungarica		27,599					
Nitzschia linearis							
Nitzschia longissima		13,799			7,957		

Nitzschia palea	3,194	22,999	17,500	11,593	9,947		3,211
Nitzschia obtusa				7,729			
Nitzschia ricta					9,947		
Nitzschia terrestris				15,458			12,846
Pinnularia gibba	1,597	9,199		3,864			
Stauroneis anceps		4,599					
Surirella robusta			2,500	7,729		2,527	
Synedra acus	3,194		2,500	7,729			
Synedra unla	1,597		2,500	3,864	5,968		
Tabellaria fenestrata					3,978	5,055	6,423
〈Chlorophytes〉							
Actinastrum hantzschii		36,798		23,187	33,821	194,624	186,267
Ankistrodesmus falcatus							
Ankistrodesmus gracilis		45,998	2,500	7,729			
Closteriopsis longissina							
Closterium dianae				3,864			
Closterium hantzschii				3,864			
Coelastrum microporum		41,398					
Cosmarium constractum							
Cosmarium sp.		9,199		3,864			
Crucigenia crucifera							
Crucigenia tetrapedia							
Golenkinia paucispina						10,110	
Golenkinia radiata		36,798					
Micractinium pusillum		18,399			23,873		
Pandorina morum							
Pediastrum botryaum						80,883	
Pediastrum duplex		73,597	40,000			35,386	
Pediastrum simplex							
Pediastrum tetras					31,831		9,634
Scenedesmus abundans		32,199			55,705	10,110	
Scenedesmus acuminatus					7,957		
Scenedesmus acutus							
Scenedesmus armartus							
Scenedesmus bicaudatus						30,331	
Scenedesmus brasiliensis					7,957	20,220	
Scenedesmus ecornis		18,399		19,323			
Scenedesmus quadricauda				54,105		10,110	25,692
Scenedesmus qudrispina							
Scenedesmus longispina					7,957		
Scenedesmus opoliensis		36,798		46,375	15,915		
Scenedesmus spinosus	3,194	36,798			15,915		
Tetraedron regulare							
Westella botryoides		91,997		46,375	15,915		
〈Bluegreen algae〉							
Oscillatoria limosa		55,198					
Number of species	12	30	11	31	26	20	16
Total standing crops(cell/l)	38,329	1,356,943	115,000	707,214	332,225	487,817	436,759

〈표 21〉 경기북부 하천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종별 세포수(여름철)

(단위:cells/l)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정점 7
〈Diatom〉							
Achnanthes lanceolata		4,113	10,333				
Achnanthes minutissima		46,250	4,111				
Asterionella gracillina							35,411
Aulacoseira granulata							
Cocconeis scutellum			2,011	56,411	11,043	20,624	
Cyclotella comta		10,164		256,411			8,701
Cyclotella meneghiniana	4,547	71,127	3,210	364,433	133,130	120,624	70,001
Cyclotella operculata				104,982	21,420	2,062	
Cymbella affinis		20,374	7,241		21,421		104,112
Cymbella minuta	1,241	71,127	14,482	11,400	57,277	2,062	43,003
Cymbella tumida	1,241	4,113	3,210	2,111	10,570	2,062	871
Diatoma elongatum		10,164		11,401	1,104		
Diatoma vulgare						20,624	27,104
Eunotia gracilis			7,241				
Eunotia robusta							
Fragilaria crotonesis				211	1,104		27,104
Gomphonema acuminatum			7,241				
Gomphonema gracile		10,164					
Gomphonema parvulum	1,241			89,129	33,130	41,344	8,721
Gomphonema truncatum	1,241	20,374	7,241	211	11,104	2,062	8,721
Melosira varians		20,374			11,043		
Navicula cryptocephala	5,211	20,374	3,210	50,219	50,214	20,624	8,721
Navicula cuspidata							871
Navicula exigua	20,111			2,111			
Navicula pupula	1,241	20,374	2,011	4,388	1,104	2,062	8,721
Navicula viridis			2,011				
Naviculaplacentula			2,011				
Nitzschia acicularis	21,420	243,442	200,411	522,111	533,130	894,324	26,163
Nitzschia capitatoradiata			10,214				
Nitzschia fonticula	141,528	42,423	10,214	2,111	141,300	434,116	89,498
Nitzschia longissima		100,289	3,210				
Nitzschia palea		20,374			233,130		35,411
Nitzschia ricta	189,274						

	정점 1	정점 2	정점 3	정점 4	정점 5	정점 6	정점 7
Nitzschia spectabilis	21,421	421		2,111			
Pinnularia braunii					1,104		8,721
Pinnularia gibba			7,241	50,499	1,104		
Surirella robusta			7,241		22,421	20,624	
Synedra acus				211			
Synedra unla	1,241	30,443	2,011	11,401	11,043	2,062	8,721
Tabellaria fenestrata	1,241	20,374					
〈Chlorophytes〉							
Actinastrum hantzschii						377,142	
Ankistrodesmus falcatus		10,118	7,241				
Ankistrodesmus gracilis				62,255	88,342	20,324	60,406
Chlorella vulgare				4,388			
Closterium gracile	121				10,570		871
Closterium leibleinii				211			
Coelastrum microporum		421					871
Coelastrum reticulatum					1,104		
Coelosphaerium dubium						20,624	
Cosmarium botrytis			721	211	1,104		
Cosmarium ciculare							
Crucigenia tetrapedia					178,120		
Eudorina elegans		213					
Euglena acus	267,542				1,104		
Micractinium pusillum			721	191,288			
Scenedesmus abundans	32,014	81,315	721	191,288	88,342	293,044	121,812
Scenedesmus armartus					1,104	20,624	
Scenedesmus intermedius				22,439		534,038	174,004
Scenedesmus quadricauda	21,421	81,315	1,442	172,306	132,421	534,038	141,411
Scenedesmus qudrispina			721				
〈Bluegreen algae〉							
Anabaena sp.							
Oscillatoria sp.							
Number of species	18	25	27	27	29	21	24
Total standing crops(cell/l)	733,297	960,240	327,673	2,186,248	1,809,107	3,385,110	1,019,951

〈표 6〉의 계속

(단위:cells/l)

	정점 8	정점 9	정점 10	정점 11	정점 12	정점 13	정점 14
〈Diatom〉							
Achnanthes lanceolata	20,066		3,515				2,311
Achnanthes minutissima				2,018	35,221		
Asterionella gracillina			7,003	20,182	70,442		
Aulacoseira granulata		202		62,499	35,221	2,344	
Cocconeis scutellum					3,522		
Cyclotella comta		56,203				2,344	
Cyclotella meneghiniana	20,066	72,180	17,030	262,066	292,991	9,322	6,933
Cyclotella operculata			10,009	62,499	35,221		
Cymbella affinis	10,033	40,412					
Cymbella minuta	99,443	20,207	7,030	2,018	3,522	2,344	6,933
Cymbella tumida	42,132	10,103	7,030	2,018	3,522	1,622	2,311
Diatoma elongatum							
Diatoma vulgare	42,132	20,207	35,150	2,018	35,221	1,622	
Eunotia gracilis							
Eunotia robusta			7,003			1,622	
Fragilaria crotonesis							
Gomphonema acuminatum	10,033	202					
Gomphonema gracile							
Gomphonema parvulum	10,033	10,103	35,150			4,688	
Gomphonema truncatum	10,033	10,103	35,150	20,182	43,229	23,442	69,332
Melosira varians		274,096			3,522		
Navicula cryptocephala	21,066	10,103	40,004	20,182	35,221	23,442	6,933
Navicula cuspidata						1,622	2,311
Navicula exigua		202					
Navicula pupula	21,066	141,211	3,515	2,018	17,001	2,344	8,211
Navicula viridis				2,018	3,522		
Naviculaplacentula						162	
Nitzschia acicularis	10,033	10,103	17,421	330,442	141,221	23,442	4,105
Nitzschia capitatoradiata				2,018			
Nitzschia fonticula	100,331	10,103	3,515	62,489	70,442	46,884	18,211
Nitzschia longissima							
Nitzschia palea							
Nitzschia ricta							

	정점 8	정점 9	정점 10	정점 11	정점 12	정점 13	정점 14
Nitzschia spectabilis				2,018	3,522		
Pinnularia braunii							
Pinnularia gibba							
Surirella robusta		10,103					
Synedra acus				2,018	3,522		4,105
Synedra unla	20,066	20,207	28,120	2,018	70,442	23,442	19,211
Tabellaria fenestrata							
〈Chlorophytes〉							
Actinastrum hantzschii							
Ankistrodesmus falcatus							
Ankistrodesmus gracilis		202		41,324	105,661	1,622	821
Chlorella vulgare	10,033	2,020				9,322	
Closterium gracile							
Closterium leibleinii		202					8,211
Coelastrum microporum			7,003				
Coelastrum reticulatum						1,622	
Coelosphaerium dubium		2,020	7,003				
Cosmarium botrytis	10,033			2,018	3,522	1,622	
Cosmarium ciculare							
Crucigenia tetrapedia					3,522	2,344	
Eudorina elegans		202				162	
Euglena acus							
Micractinium pusillum				201,326	170,002		48,251
Scenedesmus abundans	21,066	81,427	7,003	150,442	170,002	162,212	
Scenedesmus armartus							
Scenedesmus intermedius				150,442	340,041		
Scenedesmus quadricauda	42,132	40,412	14,006	413,240	510,003	81,106	19,211
Scenedesmus qudrispina							
〈Bluegreen algae〉							
Anabaena sp.			7,003	2,018	3,522		8,211
Oscillatoria sp.			7,003			23,442	
Number of species	18	25	21	25	27	25	17
Total standing crops(cell/l)	519,797	842,535	305,666	1,821,531	2,212,802	454,142	235,612

〈표 22〉 경기 북부 하천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종조성

정 점	봄 철				여 름			
	돌말류	녹조류	남조류	계	돌말류	녹조류	남조류	계
1	16	9	-	25	14	4	-	18
2	17	3	-	20	20	5	-	25
3	20	4	-	24	21	6	-	27
4	17	8	-	25	19	8	-	27
5	16	9	-	25	20	9	-	29
6	17	12	-	29	14	7	-	21
7	18	6	-	24	18	6	-	24
8	11	1	-	12	14	4	-	18
9	17	12	1	30	18	7	-	25
10	9	2	-	11	15	4	2	21
11	22	9	-	31	18	6	1	25
12	16	10	-	26	19	7	1	27
13	12	8	-	20	16	8	1	25
14	13	3	-	16	12	4	1	17

11)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22: 그림 13). 수계별로 살펴 보면 포천천에서 25 종류, 영평천에서 20~25 종류, 한탄강에서 25~29 종류, 차탄천에서 12~24 종류, 눌로천과 사미천에서 각각 20 종류와 16 종류가 출현하였다. 임진강에서는 11종류에서 31종류까지 출현종 수의 변동 폭이 컸다. 여름철에는 최저 17 종류(정점 14)에서 최고 29 종류(정점 5)까지 변화 폭이 12 종류였다. 수계별로 살펴 보면 포천천에서 18 종류, 영평천에서 25~27 종류, 한탄강에서 21~29 종류, 차탄천에서 18~24 종류, 눌로천과 사미천에서 각각 25 종류와 17 종류가 출현하였다. 임진강에서는 21 종류에서 27 종류까지 출현하여 변동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봄철과 여름철 평균 출현종 수를 수역 별로 보면, 사미천에서 17 종류로 가장 적고, 그 다음은 차탄천으로 20 종류였다. 포천천과 눌로천에서는 각각 22 종류와 23 종류였으며, 영평천, 한탄강 및 임진강에서는 25~26 종류로 다양하였다. 즉, 사미천, 차탄천, 포천천, 눌로천과 같이 규모가 작은 하천에서는 출현종 수가 적었던 데 반하여, 한탄강 및 임진강에서는 다양한 종들이 출현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서식 장소가 좁은 작은 하천보다 몇몇 하천이 합류된 규모가 큰 서식처인 강에서 다양한 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밖에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본 조사 수역에서 계절별 변화가 봄철에 최저 0.38×105 cells/ l (정점 8)에서 최고 13.57×105 cells/ l (정점 9)까지 변화 폭이 35배 이상으로 매우 컸다(표 23: 그림 14). 수계별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포천천에서 4.39×105 cells/ l , 영평천에서 6.14~12.48×105 cells/ l , 한탄강에서 10.42~10.70×105 cells/ l , 차탄천에서 0.38~12.72×105 cells/ l , 눌로천 4.88×105

cells/ℓ 그리고 사미천에서 4.37×105 cells/ℓ 을 나타내었다. 임진강에서는 1.15~13.57×105 cells/ℓ 의 범위로 변동폭이 컸다. 여름철에는 최저 2.36×105 cells/ℓ (정점 14)에서 최고 33.85×105 cells/ℓ (정점 6)까지 변화폭이 14배로 봄철보다 적었으나 평균 현존량은 훨씬 높았다. 수계별로 살펴 보면 포천천에서 7.33×105 cells/ℓ , 영평천에서 3.28~21.86×105 cells/ℓ , 한탄강에서 18.09~33.85×105 cells/ℓ , 차탄천에서 5.20~10.20×105 cells/ℓ , 눌로천에서 4.54×105 cells/ℓ 그리고 사미천에서 2.36×105 cells/ℓ 였다. 임진강에서는 연천군 군남면 정점 9에서 최저 8.43×105 cells/ℓ 를,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정점 12에서 최고 22.13×105 cells/ℓ 를 나타내었다.

금번 조사에서 식물플랑크톤의 평균 현존량은 봄철에 7.05×105 cells/ℓ 이었고, 여름철에는 12.01×105 cells/ℓ 로서 여름철이 훨씬 높았다. 봄철에 영평천 하류, 한탄강, 차탄천 상류, 임진강 상류역에서 10.42~13.57×105 cells/ℓ 로서 대발생을 보였으며, 그 외의 수역에서는 0.38~7.11×105 cells/ℓ 이 기록되었다. 여름철에는 영평천 하류, 한탄강, 차탄천 상류 수역에서 봄철에 이어 10.20~33.85×105 cells/ℓ 의 대발생이 일어났다. 임진강 하류 수역(정점 11과 12)에서는 봄철과 달리 18.22~22.13×105 cells/ℓ 규모의 대발생이 있었다.

본 조사에서 봄철과 여름철에 대부분의 수역에서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이 높거나 대발생이 일어났다. 이는 조사 수역이 크고 작은 지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수의 영향과 일조량이 좋아짐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였고, 갈수기에 유량이 적어 유속이 느려 식물플랑크톤의 생육 장소로서 매우 적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표 23〉 경기 북부 하천에서 정점별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단위: ×10^{5}cells/ℓ)

정점 / 계절별	정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봄	4.39	7.11	6.14	12.48	10.70	10.42	12.72	0.38	13.57	1.15	7.07	3.32	4.88	4.37
여 름	7.33	9.60	3.28	21.86	18.09	33.85	10.20	5.20	8.43	3.06	18.22	22.13	4.54	2.36

한편, 본 조사 수역에서 계절별 · 정점별 식물플랑크톤의 우점종은 〈표 24〉와 같았다. 봄철에 정점 1과 10에서 Pediastrum duplex가 각각 15.05 %와 34.78 %를, 정점 2에서 Nitzschia acicularis가 18.89 %를 차지하여 우점종으로 기록되었다. 정점 3과 4에서 Navicula pupula가 각각 14.95 %와 13.43 %를 차지하였으며, 정점 5, 6, 7, 11에서는 Aulacoseira granulata가 25.00~36.61 %를 점유하고 있었다. 정점 13과 14에서는 Actinastrum hantzschii가 각각 39.90 %와 42.65 %를 차지하여 우점율이 비교적 높았다.

여름철에는 정점 1에서 Euglena acus가 36.48 %를, 정점 2, 3, 4, 5, 6에서 Nitzschia acicularis가 25.35~61.16 %로 우점하고 있었다. 정점 7과 8에서 Scenedesmus intermedius와 Nitzschia fonticola가 각각 17.06 %와 19.30 %를 차지하였으며, 정점 9와 10에서 Melosira varians와 Navicula crpytocephala가 각각 32.53 %와 13.09 %로 우점하였다. 정점 11과 12에서는 Scenedesmus quadricauda가 각각 22.69 %와 23.05 %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Nitzschia acicularis가 우점한 영평천과

한탄강 수계는 같은 우점종이 기록되었으며, 임진강 하류역에서도 같은 Scenedesmus quadricauda가 우점종이 출현하였고 나머지 정점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김(1999)은 포천천에서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우점종은 Achnanthes lanceolata, Cocconeis placentula, Gomphonema parvulum, G. pseudoaugur, Navicula minima, N. subminuscula, Nitzschia fonticola, N. palea 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본 조사의 봄철과 여름철에 우점종 Pediastrum duplex, Euglena acus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김(1999)의 조사는 부착조류를 관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유성 플랑크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경기 북부 하천에 있어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우점종

정 점	봄 철		여 름 철	
	우 점 종	%	우 점 종	%
1	*Pediastrum duplex*	15.05	*Euglena acus*	36.48
2	*Nitzschia acicularis*	18.89	*Nitzschia acicularis*	25.35
3	*Navicula pupula*	14.95	*Nitzschia acicularis*	61.16
4	*Navicula pupula*	13.43	*Nitzschia acicularis*	23.88
5	*Aulacoseira granulata*	25.00	*Nitzschia acicularis*	29.47
6	*Aulacoseira granulata*	28.18	*Nitzschia acicularis*	26.42
7	*Aulacoseira granulata*	28.87	*Scenedesmus intermedius*	17.06
8	*Cymbella affinis*	25.00	*Nitzschia fonticola*	19.30
9	*Aulacoseira granulata*	40.34	*Melosira varians*	32.53
10	*Pediastrum duplex*	34.78	*Navicula cryptocephala*	13.09
11	*Aulacoseira granulata*	36.61	*Scenedesmus quadricauda*	22.69
12	*Scenedesmus abundans*	16.77	*Scenedesmus quadricauda*	23.05
13	*Actinastrum hantzschii*	39.90	*Scenedesmus abundans*	35.72
14	*Actinastrum hantzschii*	42.65	*Gomphonema trucatum*	29.43

이상의 연구에서 이 지역의 식물플랑크톤 주요종의 형태 및 생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Aulacoseira granulata* : 세포는 원통상이며 이웃세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슬(chain) 형태를 하고 있다. 세포의 직경은 5~20 ㎛, 높이는 6~15 ㎛이고, 껍질은 두껍고 외종구가 분명하게 있다. 점문 수는 8~10 ㎛이며, 군체의 말단에는 뾰족한 돌기가 있다. 우리 나라의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종으로, 본 조사에서 봄철 한탄강과 임진강에서 많이 출현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임진강에서만 채집되었다.

(2) *Gomphonema acuminatum* : 세포의 뚜껑면은 쐐기형으로 윗부분의 폭이 넓고 아래쪽의 폭이 점차 좁아진다. 세포의 양끝은 아주 뾰족하며, 세포의 길이는 20~50 ㎛, 폭은 5~10 ㎛이다. 뚜껑면의 중심축은 곧고 좁으며 점문이 있다. 절정선문은 10 ㎛에 10~13개 있다. 본 종은 담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봄철에 차탄천 상류, 눌로천을 제외한 전 수역에서 채집되었으며, 여름철에는 영평천 및 임

진강 상류역에서 출현하였다.

(3) *Melosira varians* : 세포는 짧은 드럼형의 원통형으로 이웃 세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군체를 이룬다. 세포의 직경이 10~25 ㎛이고 높이는 10~12 ㎛이다. 뚜껑면의 점문은 광학현미경에서는 알아보기 어려우나, 전자현미경에서는 분명하다. 본 종은 담수 및 기수산으로 알려져 있으나 담수에서 훨씬 빈번하게 관찰된다. 본 조사에서도 봄철에 전 수역에서 관찰되었으며, 여름철에는 영평천, 한탄강, 임진강에서 각각 출현하였다.

(4) *Navicula pupula* : 세포의 뚜껑면 모양은 중앙부는 폭이 넓으나 세포 말단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세포의 양끝에서 혹과 같이 돌출되어 있으며, 중축구는 좁고 중심구는 가로로 긴 장방형이다. 세포의 길이는 20~40 ㎛이며 폭은 7~10 ㎛이다. 절정선문은 방사상이고 그 수는 10 ㎛마다에 약 22~25개이다. 담수산으로 일반적으로 호소에 출현하며, 본 조사에서는 봄철에 영평천, 차탄천, 한탄강에서 관찰되었고, 여름철에는 전 수역에 출현하였으나 빈도는 높지 않았다.

(5) *Nitzschia acicularis* : 세포의 뚜껑면은 양끝이 가늘고 중앙 부위의 폭이 넓다. 세포의 크기는 길이 60~135 ㎛, 폭 3~4 ㎛ 정도이다. 용골점은 10 ㎛마다에 17~20개가 있으며, 절정선문은 광학현미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본 종은 담수 및 기수성이며, 이번 조사에서 봄철과 여름철에 전 수역에서 출현하였으며 특히 영평천과 한탄강에서 여름철 우점종으로 기록되었다.

(6) *Actinastrum hantzschii* : 세포의 외부 형태는 가늘고 길며 방추형으로 윷 모양이다. 세포의 양끝은 잘린 듯한 절형이며 중앙부는 폭이 약간 넓다. 세포는 4개, 8개 및 16개가 모여서 군체를 이루며, 세포는 길이 10~20 ㎛이고 폭 3~5 ㎛이다. 본 종은 담수성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보편적인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봄철에 영평천, 임진강 상류를 제외한 전 수역에서 출현하였으며, 여름철에는 한탄강에서만 출현하였다.

(7) *Pediastrum duplex* : 세포는 16개, 32개의 세포로 둥근 모양의 군체를 이룬다. 군체를 이루는 내부의 세포는 5~6각형이며, 외부세포는 바깥쪽으로 2개의 돌기가 있다. 세포는 크기 11~20 ㎛이고, 군체는 직경 100 ㎛정도이다. 세포와 세포가 인접해 있는 사이에 삼각형의 공극이 있다. 본 종은 호소, 늪지, 강 등에서 출현하는 보편적인 담수종이다. 이번 조사에서 여름철에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봄철에 포천천, 한탄강, 임진강 상류에서 출현하였다.

(8) *Scenedesmus abundans* : 4개의 세포로 군체를 이루며, 군체를 이루는 세포는 사다리꼴로 배열되어 있으며, 양끝의 세포는 활 모양의 돌기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다. 특히 양끝 세포의 바깥쪽으로 1~2개의 가시가 있다. 안쪽의 두 개의 세포는 긴 달걀 모양으로 양끝은 둥근 모양이다. 세포의 크기는 길이가 8~12 ㎛이며, 폭은 4~5 ㎛이다. 본 종은 담수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봄철에 영평천과 임진강 하류역에서 관찰되었으며, 여름철에는 전 수역에서 빈도 높게 출현하였다.

(9) *Scenedesmus quadricauda* : 세포 4개가 군체를 이루며, 간혹 8개의 세포로 된 군체도 있다. 군체를 이루는 세포는 사다리꼴로 배열되어 있으며, 양끝의 세포는 활 모양의 돌기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다. 안쪽의 두 개의 세포는 장방형이고 양측은 둥근 모양이다. 세포는 길이 11~14 ㎛이며 폭 4~6 ㎛이다. 본

종은 담수산으로 분포 범위가 넓은 보편적인 종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봄철에 포천천을 제외한 전 수역에서 채집되었으며, 여름철에는 전 수역에서 빈도 높게 출현하였다.

4. 결 론

이상의 연구에서 전곡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임진강 유역에 생육하고 있는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관속식물은 양치식물이 3과 3속 3종 1변종의 4종류, 단자엽식물은 11과 33속 43종 10변종의 53종류, 쌍자엽식물은 35과 67속 82종 17변종의 103종류로서 구성이 되며 총 49과 103속 128종 28변종의 156 종류이다. 이 결과는 전곡 지역의 관속식물이 양치식물 3과 3속 3종 1변종의 4종류, 나자식물 1과 1속 1종, 단자엽식물 9과 26속 32종 4변종의 36종류, 쌍자엽식물 29과 65속 74종 7변종의 81 종류로서 구성이 되어, 총 42과 95속 110종 12변종의 122 종류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임진강 일대의 식물상은 감악산보다는 종류 수가 적으나 한탄강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본 조사 지역에서 환경부(2000)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이나 보호식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선사시대 유적지 등 귀중한 역사적 증거가 있으며, 그 자연 상태를 비교적 양호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관속식물군이 발견되어 이 지역의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보존이 매우 긴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탄강 유원지의 경우처럼 개발이 불가피한 곳이라도 기존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 지역의 자연성이 보존되도록 행정적인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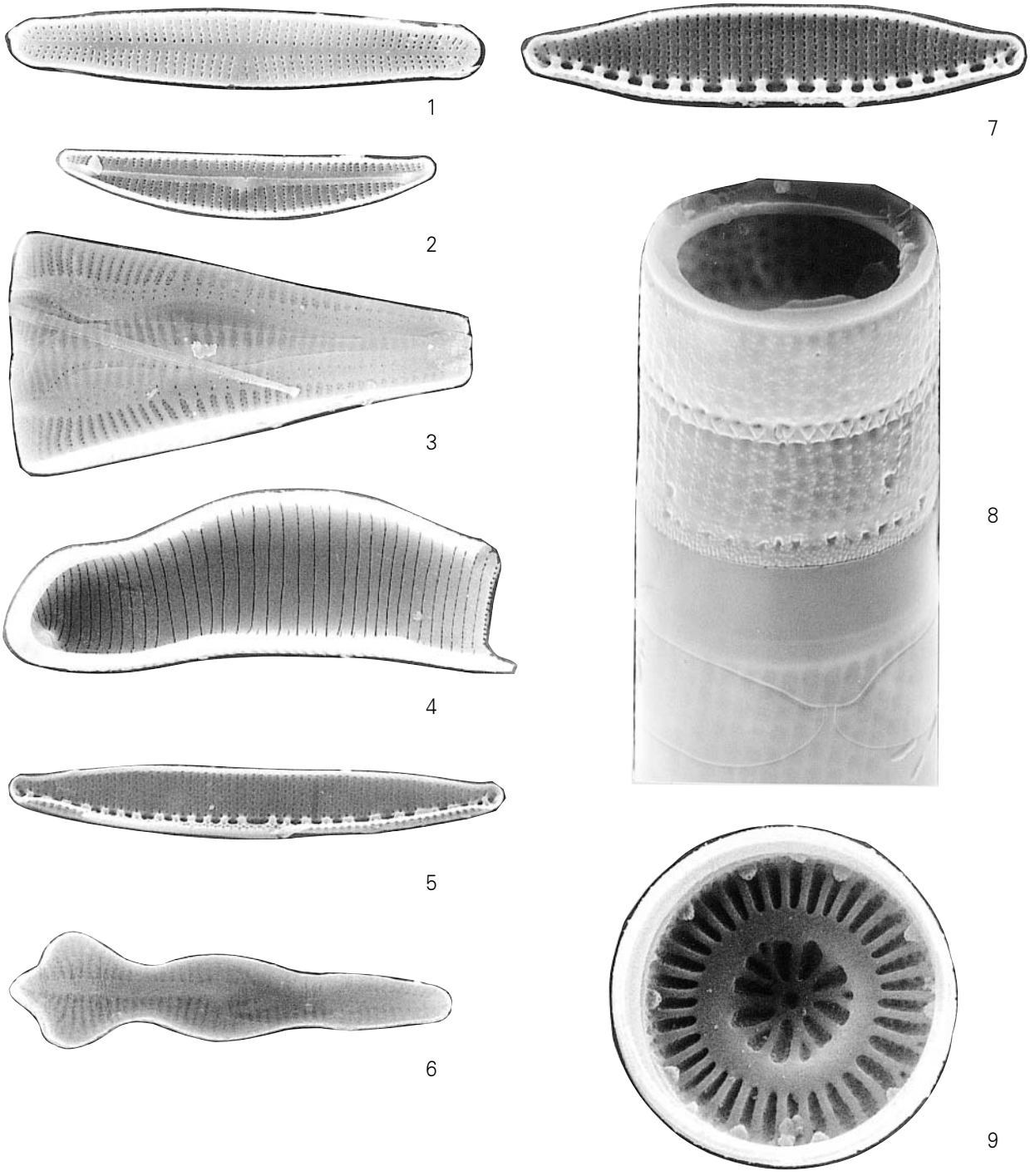
한편, 임진강 유역의 담수조류의 분포 및 현존량을 조사한 결과 담수조류로 분석 동정된 종 수는 총 120 분류군으로 이는 Engler의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면 4문 4강 2아강 12목 8아목 23과 46속에 속하는 104종 15변종 1품종이었다. 이 중 남조식물은 2목 2과 6속에 속하는 17종 2변종이 출현하였고, 유글레나 식물은 1목 1과 3속에 속하는 6종 1변종이 분포하였다. 규조류는 3목 7과 17속에 속하는 46종 9변종이 출현하였으며, 녹조식물은 6목 13과 20속에 속하는 35종 3변종 1품종의 식물이 출현하여 규조류 다음으로 분류군이 다양하였다. 본 조사 수역에서 빈번히 출현하는 흔들말 종류와 부착규조류, 뗏목말들은 부영양화된 수역을 지표하는 종이므로(Palmer, 1977), 따라서 모든 조사 수역이 부영양화된 수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sterionella formosa와 Synedra acus와 같은 종들은 수화될 경우 정수처리시 여과 장치를 막아서 수질을 저하시키는 종류들이다. 그리고 Euglena viridis, Nitzschia palea 등은 부영양화된 수역에서 출현하는 대표적인 종들로서 정점 5와 1, 2, 6에서 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정점별로 빈번히 출현하는 대표적인 종들은 부영양화된 수역에서 출현하는 종이므로 임진강 유역 중 본 조사 수역의 수계는 모든 정점이 부영양화된 수질로써 사료된다. 계절별 출현종 수는 하계에 비하여 추계에 더 많은 종들이 채집되었는데, 이는 채집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계에는 부유성과 부착성 조류가 모두 채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추계의 정점별 출현종 수는 정점 1이 47 분류군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점 5인 포천천이 28 분류군으로 가장 적은 분류군 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포천천의 현존량이 조사 정점 중 가장 높은 값인

7,692 × 103 cells/ℓ 을 나타낸 것과 비교할 때 수질이 부영양화 될수록 종다양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연구 결과는 봄철에 돌말류 58 분류군, 녹조류 33 분류군, 남조류 1 분류군 등 총 92 분류군이 동정되었고, 여름철에 돌말류 40 분류군, 녹조류 20 분류군 그리고 남조류 2 분류군 등 총 62 분류군이 동정되어, 봄철보다 여름철이 훨씬 단조로운 종조성을 보였다. 이 중 돌말류의 Nitzschia 속, Navicula속과 녹조류 Scenedesmus속이 가장 우점되는 큰 분류군이었다. 또한 돌말류의 Cyclotella meneghiniana, Cymbella minuta, Cymbella tumida, Gomphonema truncatum, Navicula cryptocephala, Navicula pupula, Nitzschia acicularis, Nitzschia fonticola, Synedra ulana와 녹조류의 Scenedesmus quadricauda 등은 10개 조사 정점 이상에서 출현하는 경기 북부 하천의 대표종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본 조사 지역의 식물플랑크톤 평균 현존량은 봄철에 7.05×105 cells/ℓ , 여름철에 12.01×105 cells/ℓ 로서 여름철이 훨씬 높았고, 봄철에 영평천 하류, 한탄강, 차탄천 상류, 임진강 상류역에서 10.42~13.57×105 cells/ℓ 로서 대발생을 보였으며, 그 외의 수역에서는 0.38~7.11×105 cells/ℓ 이 기록되었다. 여름철에는 영평천 하류, 한탄강, 차탄천 상류 수역에서 봄철에 이어 10.20~33.85×105 cells/ℓ 의 대발생이 일어났다. 임진강 하류 수역(정점 11과 12)에서는 봄철과 달리 18.22~22.13×105 cells/ℓ 규모의 대발생이 있었다. 이는 조사 수역이 크고 작은 지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수의 영향과 일조량이 좋아짐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였고, 갈수기에 유량이 적어 유속이 느려 식물플랑크톤의 생육 장소로서 매우 적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담수조류 및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에 대한 상기 결과를 다른 수역과 비교하여 보면, 수원시를 통과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역인 원천천, 수원천, 황구지천,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점인 화신교 아래 수역,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한 1 km 이내의 황구지천 수역을 조사한 결과(Lee, 1997)에서는 하계의 평균 현존량이 각 정점에 따라 681 × 103 cells/ℓ 에서 23,900 × 103 cells/ℓ 를 나타냈다. 수원시 수역의 조사가 하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본 조사 정점 중 가장 높은 현존량을 보인 포천천을 제외하면 대체로 임진강 수계의 현존량이 수원시를 통과하여 흐르는 수역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천천의 현존량은 비록 수화 현상을 나타냈지만 수원의 서호천, 원천천 수역보다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천시를 통과하는 굴포천의 현존량은 추계에 평균 2,970 × 103 cells/ℓ 을 나타냈다(Lee, 1998). 이는 부천시를 통과하여 흘러나오는 도시하천인 굴포천에 비하여 본 조사 정점의 수역들의 현존량 값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포천천에 대한 연구에서 부착규조류를 대상으로 수질을 평가한 결과(Kim, 1999), 포천천이 금호강의 가장 악화된 수역의 수질과 유사한 것으로 판정하였다(Chung, 1992).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담수조류 및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조사 수역은 전 수역이 부영양화된 수역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우리 나라의 도심을 통과하는 도시하천의 전형적인 실상이다. 이 수역의 수중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심으로부터 무차별하게 유입되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줄이거나 처리시설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것임을 알게 하였다.



〈사진 48〉 임진강 유역 식물플랑크톤 주요종의 형태
1. *Achnanthes minutissima*(×6,500), 2. *Cymbella affinis*(×2,700), 3. *Gomphonema truncatum*(×3,300),
4. *Eunotia minor*(×3,700), 5. *Nitzschia palea*(×6,00), 6. *Gomphonema acuminatum*(×2,700), 7. *Nitzschia frustulum*(×6,500),
8. *Aulacoseira granulata*(×3,100), 9. *Cyclotella* sp(×9,500)

참고 문헌

1. 육상 관속식물:

Anonymous,『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및 보호야생동 · 식물 화보집』, 환경부, 2000.

김철환, 한미경,「감악산(파주-연천)일대의 식물상(4-14)」,『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2000.

이창복,『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0.

정태현,『경기도지 상권』, 경기도, 1955.

정태현,『한국식물도감 하권(초본편)』, 신지사, 1956.

정태현,『한국식물도감 상권(목본편)』 신지사, 1957.

조무연 · 이은복,「백운산 일대의 관속식물상. 경기도 백운산 일대 종합학술조사보고서」,『한국자연보존협회』, 1985.

조문섭 · 권성택 · 이진한 · Nakamura, E.「연천-전곡 지역에 분포하는 임진강대의 고압 섬암」,『암석학회지』 4(1): 1-19, 1995.

홍석표 · 최한수,「광덕산(포천 · 철원)과 인근 산지의 식물상」,『포천 · 철원(4-5)의 자연환경』, 환경부, 1997.

2. 담수조류:

Bourelly, P. 1966. 1968. 1970. Les algues d'eau douce. Tome I, II, III. Boubee and Cie, Paris.

Chung, J. 1993. Illustration of the freshwater algae of Korea. 496 pp. Academy Publishing Co., Korea.

Franson, M.A.H. 1981.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134pp.

Hirose, H.M., T. Akiyama, K. Imahori, H. Kasaki, S. Kumano, H. Kobayasi, E. Takahashi, T, Tsumura, M. Hirano and T. Yamagishi. 1977. Illusrations of the Japanese freshwater algae. 933 pp. Uchidarokakuho Publishing Co., Ltd., Tokyo.

James, A. 1979. The value of biological indicators in relation to other parameters of water quality. In Biological indicators of water quality. James, A. and L. Evison (eds.), Chapter 1. John Wiley and Sons.

Kim, Y.J. 1999. An assessment of water quality by attached diatoms assemblage in the Pochun stream. Kor. J. Limnol. 32(2):135-140.

Kim, Y.J., Y.H. Kim, M.J. Choi and H.J. Choi. 1999. An assessment of water quality by attached diatoms assemblage in the Pochun stream. J. of 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cience of Daejin Univ. 1:187-203.

Lee, O.M. 1997. The distribution and standing crops of phytoplankton in the streams flow through Suwon-si. J. of Kyonggi basic Science. 10(2): 223-236.

Lee, O.M. 1998. The distribution and standing crops of phytoplankton on the surrounding streams of the treatment facilities for sewage in

Melchoir, H. and E. Wedermann. 1954. Engler's Syllabus der Pflanzenfamilien.

I. 12 Auf. 1 Band. 367 pp. Gebruder, Berlin-Nicolasse.

Palmer, C.M. 1977. Algae and water pollution. Municipal environ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U. 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incinnati, Ohio.

Patrick, R. and C.W. Reimer. 1966. The diatoms of the United States. Vol.I. 688 pp. The Academy of Natural Sciences of Philadelphia, No. 13.

Patrick, R. and C.W. Reimer. 1975. The diatoms of the United States. Vol.II. 213 pp. The Acdemy of natural Sciences of Philadelphia, No. 13.

Prescott, G.W. 1962. Algae of the western great lakes area. 977 pp. Otto Koeltz Science Publishers, Germany.

Prescott, G.W., H.T. Croasdale and W.C. Vinyard. 1982. A synopsis of North American desmids. Part II. Desmidiaceae: Placodermae. Section 4. 700 pp. Univ. Nebraska Press, Lincoln and London.

Prescott, G.W., H.T. Croasdale and W.C. Vinyard. 1975. A synopsis of North American desmids. Part II. Desmidiaceae: Placodermae. Section 1. 275 pp. Univ. Nebraska Press, Lincoln and London.

Prescott, G.W., H.T. Croasdale, W.C.Vinyard and C.E.M. Bicudo. 1981. A synopsis of North American desmids. Part II. Desmidiaceae: Placodermae. Section 3. 720pp. Univ. Nebraska Press, Lincoln and London.

Rim, K.H and S.U. Hong. 1964. Limnological study of Kwangneung river in winter season. Kor. J. Bot. 7(1):15-19.

Sournia, A. 1978. Phytoplankton manual. 337 pp. Unesco.

Yun, H. 1999. A exploratory study for Imjin river basin's development planning. Proc. Pyongteak Univ. 13: 233-243.

3. 식물플랑크톤: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유역조사(1차) 보고서』, 1995.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유역조사 최종 보고서』, 1997.

김용재, 「부착 규조군집에 의한 포천천의 수질평가」, 『한국육수학회지』 32, 1999.

정영호, 「한국동식물도감」, 『제9편 식물편(담수조류)』, 문교부, 1968.

한국수자원연구소, 『댐 저수지의 조류 사진집』, 아카데미서적(주), 2000.

환경부, 『임진강 수계 수질오염 현황과 관리대책』, 1999.

환경부 · 경기도,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 본부 업무편람』, 1996.

환경부 · 경기도,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 본부 업무편람 (II)』, 1997.

水野壽彦, 『日本淡水プランクトン圖鑑』, 保育社, 日本, 1981.

鈴木 實, 『淡水指標生物圖鑑』, (株) 北隆館, 日本, 1991.

Fjerdingstad, E. 1964. Pollution of streams estimated by benthal phyto- microoranisms. 1. A saprophic system on communities of organisms and ecological factors. Int. Revue. Hydro. Biol. 49: 63-131.

Patrick, R. 1973. Use of algae, especially diatoms in the assessment of water quality. In, Biological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water quality. ASTM STP 528, pp. 76-95.

Rawson, D. S. 1956. Algal indicators of trophic lake types. Limnol. Oceanogr. 1: 18-25.



제3장 임진강의 인문환경

제1절 임진강 유역의 인문지리

제2절 교통로 및 시장의 형성과 발전

제3절 임진강 유역의 촌락

제4절 임진강 유역의 집성촌

제1절 임진강 유역의 인문지리*

1. 임진강 유역의 자연환경

임진강과 그 지류의 영향을 받는 임진강 유역은 한반도 중부와 북부지방의 점이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5년 광복 이전의 행정구역에 따르면 연천군 · 철원군 전체와 양주, 포천, 파주, 장단, 개성, 金川, 곡산, 회양, 김화, 평강, 伊川, 덕원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14개 군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유역면적 8,117.5㎢의 대하천유역이다.[1] 임진강 유역은 함경남도 덕원군 풍상면 두류산에서 발원한 임진강 본류와 크고 작은 많은 지류에 의해 관개 · 배수된다(표 25, 그림 14). 하천은 인간의 활동에 제약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자연환경으로서 농경에 필수적인 충적층을 형성하고, 관개수와 식수를 공급하며, 풍부한 식량자원을 제공한다. 하천은 배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범람시에는 부유하중의 형태로 운반된 물질의 일부를 하천 양안에 퇴적시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건설적인 역할도 담당한다.[2] 하천에 의해 형성된 계곡은 전산업시대에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흔히 하천유역권의 규모는 정치력과 경제력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한국사에서 주요 정치세력의 출현을 하천유역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임진강 유역은 규모로 볼 때 한반도에서는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유로연장 254㎞의 임진강으로 유입하는 주요 지류에는 古味呑川, 平安川, 驛谷川, 漢灘江, 南大川, 永平川, 車灘川, 芝皐川(沙彌川), 莘川(江華川), 抱川川, 汶山川, 砂川 등이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은 본

---

*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홍금수(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1)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附表』, 1929, 1111쪽.

2) Edgar Anderson, "Man as a Maker of New Plants and New Plant Communities," in William Thomas (ed.), Man's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773.

〈표 25〉 임진강 유역의 주요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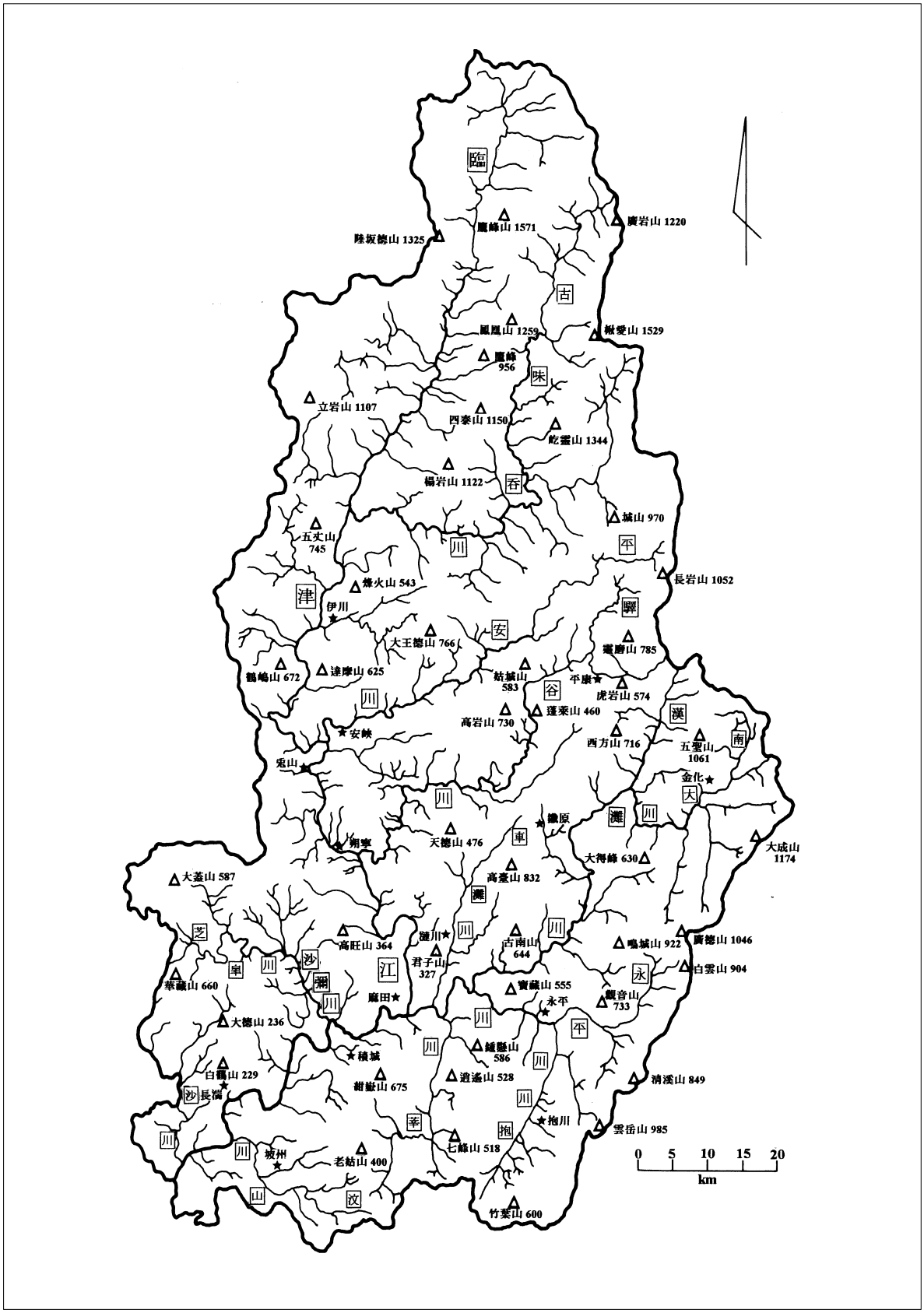
河川	水源	河口	流路延長	流域面積
臨津江	함남 덕원 풍상면	경기 파주 탄현면 / 개성 임한면	254.0㎞	8,117.5㎢
古味呑川	강원 이천 웅탄면	강원 이천 판교면	113.7㎞	1,055.1㎢
平安川	강원 평강 고삽면	강원 이천 안협면	81.0㎞	
驛谷川	강원 평강 평강면	경기 연천 동면 / 북면	78.3㎞	
漢灘江	강원 평강 현내면	경기 연천 군내면 / 영근면	130.0㎞	2,501.7㎢
南大川	강원 김화 근북면	강원 철원 갈말면 / 김화 근북면	39.7㎞	414.4㎢
永平川	경기 포천 이동면	경기 포천 창수면 / 청산면	39.7㎞	561.3㎢
車灘川	강원 철원 철원면	경기 연천 영근면 / 군내면	45.8㎞	186.8㎢
芝皐川	경기 장단 영남면	경기 연천 백학면 / 장단 진남면	68.0㎞	
莘川	경기 양주 백석면	경기 연천 청산면 / 양주 청산면	39.5㎞	
抱川川	경기 포천 소흘면	경기 포천 영중면	30.0㎞	
汶山川	경기 양주 백석면	경기 파주 임진면 / 월롱면	27.1㎞	195.7㎢
砂川	경기 개성 영남면	경기 개성 남면 / 장단 진남면	30.0㎞	366.0㎢

자료: 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地誌資料』, 1918, 92~93쪽;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1929; 朝鮮總督府刊 1:50,000 地形圖

류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발원한다. 지류 가운데 가장 큰 하천은 강원도 평강군 백자산에서 발원하여 약 130㎞에 달하는 유로를 흐르는 한탄강이다. 한탄강은 '아우라지'에서 영평천과, 한여울(大灘, 漢灘)에서는 신천과 만나며 합수머리인 都監浦에서 임진강 본류로 유입한다. 고미탄천은 강원도 이천군 웅탄면에서 발원하여 113㎞의 유로를 따라 흐르다가 판교면에서 본류로 유입한다. 유역면적 1,055㎢의 대규모 지류인데 하천 중상류연안은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산지를 끼고 남북 방향으로 발달해있다. 임진강은 또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흐르는 차탄천을 가지고 있는데 사행구간이 거의 없이 직선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鐵原, 平康, 元山村, 咸興 등지로 가는 지름길로 이용되었다. 임진강은 이 밖에도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여러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아울러 흐르다가 유역 남서부에 위치한 파주시 교하면 오두산성 전방에 이르러 한강과 합류한다. 19세기 『읍지』에 자주 언급되는 연천의 袈裟坪, 삭녕의 江華坪 · 防築坪, 평강의 典中坪, 철원의 栽松坪 · 大也盞坪 등 주요 평야는 유역내를 흐르는 임진강과 지류의 지형형성과정의 결과로 남게 된 지형이다.

임진강 상류지역에는 높은 산지가 즐비해 있으며 지역 전체적으로 해발고도 500m를 넘어서는 고지대는 고미탄천의 하류부인 평강군 북부와 이천군 중부를 잇는 선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 비교적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고지대는 해발고도 200~300m의 회랑인 임진강 하안을 중심으로 동 · 서 양편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서쪽보다는 동쪽의 발달이 탁월하다. 강원도 춘천 · 화천과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유역 남동부 외곽에도 높은 산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강유역과의 분수계가 된다.[3] 유역 중앙에 地藏峰,

3) 國立建設硏究所, 1:250000 地勢圖 南川店, 1961, 서울, 春川 圖葉.



〈그림 14〉 임진강 유역의 하계망

化人峰, 香爐峰으로 구성된 寶蓋山과 같이 고도 600m 이상의 높은 산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고립 · 분산되어 분포할 뿐 하나의 맥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보개산은 NNE-SSW 방향의 楸哥嶺構造谷을 굽어보고 있다. 추가령구조곡은 직선상의 裂谷으로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를 양분하는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천혜의 회랑으로 지역간 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추가령구조곡은 연천단층, 동두천단층, 장탄리단층, 포천단층, 금화단층 등 평행한 일련의 대단층으로 구성된다. 장탄리층은 열곡의 장축으로 중생대 대보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된 철원-연천 단층계의 구조선 중의 하나이다.[4]

이 지역의 산지를 구성하는 주 암석은 쥬라기 이전에 형성된 화강편마암 및 화강암질 편마암이다.[5] 이들 암체는 지각변동기에 화강암의 관입이나 기존 암석의 화강암화작용으로 변성된 것으로 융기한 이후 침식을 받아 지표상에 산지로 남게 되었다. 임진강하류부에는 한반도에서는 연대가 가장 오래된 암석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漣川系의 변성퇴적암류가 주로 분포한다.[6] 연천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27억년 전에 대대적인 廣域變成(漣川變革)을 통해 안정화된 지괴이다.[7] 유역 남부의 지세를 결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또 다른 암체는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이다. 검불랑과 오리산(鴨山, 453m)에서 분출한 현무암은 기존의 하곡을 메워 철원과 평강일대에 너비 6~15㎞, 길이 150㎞ 규모의 용암대지를 조성하였다.[8] 이 용암대지의 표면을 흐르던 하천은 현 하상까지 침식곡을 깊이 파기 전 많은 양의 양토와 식토를 운반해 고원상의 평야지대를 형성하였다.[9] 현무암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都監浦를 지나서도 수직절벽의 형태로 연속되는데 역사시대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防柵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한반도 중부 내륙과 북부지방의 남단에 걸쳐있는 임진강 유역은 기후요소의 계절적 변화가 뚜렷한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한랭건조한 시베리아고기압과 온난한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에 따라 계절의 추이를 느낄 수 있으며 계절의 지속기간은 겨울과 여름이 길고 점이기인 봄과 가을이 짧다. 연평균 기온은 8~11℃ 의 범위에 걸쳐있다. 세분해 보면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은 하구의 -5℃에서 하천 최상류의 -9℃까지 지역적으로 다양하다. 평균기온 0℃이하의 일수는 75~85일로 서울의 70일과 비교하면 추운 기간이 더 많은 셈이다.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은 24℃~25℃정도로 겨울에 비해 남북간의 차이가 작은 편이다. 최고기온 30℃이상의 일수는 30일 정도로 서울과 동일한 기록이다. 임진강 유역은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륙도가 높아 한서의 차이가 크고 기온의 연교차도 같은 위도대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10]

연평균 강수량은 유역 체적으로 1,100~1,300mm의 범위에 속하는데 이는 한반도에서는 다우지에서 볼 수 있는 양이다. 유역내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뚜렷하다.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류점을 기준으로 서부지

4) 원종관 · 이문원 · 우준기, 「추가령구조대의 지형발달과 화산활동」, 『휴전선일대의 자연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87, 25 쪽.
5) 國立地理院, 『한국지지(총론)』, 1980, 143~147쪽, 地質圖.
6) 鄭昌熙, 『地質學槪論』, 博英社, 1986, 585 및 591 쪽.
7) 章基弘, 『韓國地質論』, 民音社, 1985, 126~127 쪽.
8) 權赫在, 『韓國地理(地方編)』, 法文社, 1995, 165쪽.
9) 이선복, 『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52~153쪽.
10) 金光植 외, 『韓國의 氣候』, 一志社, 1973, 附錄 2, 氣候圖(氣溫) 참조.

역이 1,100~1,200mm, 동부지역이 1,200~1,300mm 지대로 구분되어 동부 상류에서 오히려 강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산맥에 의한 지형성강우가 산록의 바람맞이 사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1916년에서 1927년에 이르는 10년에 걸쳐 측정한 강수량을 보면 장단 1,237.7mm, 이천 1,252.8mm, 연천 1,257.8mm, 철원 1,385.2mm, 금화 1,232.1mm로 평균치가 집계되었다.[12] 용암대지상의 철원에 가장 많은 양의 강수가 기록되고 있다. 강수는 또한 계절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앞에 든 다섯 지역의 월별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절별 강수총량을 계산한 결과 겨울(12월~2월) 65.2mm, 봄(3~5) 185.9mm, 가을 201.9mm, 여름 795.8mm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계절별 강수량을 비율로 환산하면 각각 5.1%, 14.6%, 15.9%, 62.5%로 연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치 · 행정의 변천

고대국가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임진강 유역은 百濟의 영토였다. 溫祚王이 이끄는 백제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말갈과 평강 · 적성 등지에서 접전을 벌였던 기록으로 미루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13] 임진강 유역에 買, 屈, 骨, 闕, 押, 珍, 伊 등 백제 前期語가 다양한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도 기원전 1세기경부터 5세기까지 계속된 백제 치하의 상황을 말해 준다.[14] 한편 漢과의 군사 · 정치적인 항쟁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 고구려는 1세기 무렵 태조왕에 이르러 안으로는 국가조직을 정비하여 강력한 왕권에 바탕을 둔 고대국가체제를 달성하고 여세를 몰아 영토확장에 나서게 된다.[15] 고구려는 漢의 전위세력을 몰아내고 平壤城을 탈취하면서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당시 이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백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는데 4세기경에는 정복군주로 알려진 백제의 近肖古王에 의해 평양성이 공략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廣開土王은 이러한 판국을 뒤엎고 백제를 한강 이남으로 물리치면서 이 지역의 맹주로 등장하였다. 長壽王이 도읍을 國內城에서 平壤城으로 옮긴 427년 이후에는 임진강 유역이 고구려의 직접통치권내로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제도의 정비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고구려 지방행정의 기본단위는 하천 상류 산간계곡에 위치한 '谷'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촌락은 변경에 설치된 城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4세기 중반 이후에는 초보적인 郡制의 시행이 있었다. 6세기 중반이 되자 褥薩, 處閭近支, 婁肖 등 지방관이 신설되었는데 郡級 행정단위인 城의 관할은 욕살과 처려근지가, 縣級 城은 루초가 담당하였다. 하급 지역단위로는 小城, 村, 谷이 있었으며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방행정은 일차적

11) 金光植 외, 『韓國의 氣候』, 一志社, 1973, 附錄 2, 氣候圖(降水量) 참조.
12)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附表』, 1929, 18~21쪽.
13) 朴賢淑, 『百濟 地方統治體制 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32~42쪽.
14) 都守熙, 『百濟語硏究(Ⅰ): 前期語를 中心으로』,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87.
15) 震檀學會, 『韓國史 (古代篇)』, 을유문화사, 1959, 236~237쪽.

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계획될 수밖에 없었다.[16] 당시 임진강 유역에는 買肖郡(양주), 牛岑郡(금천), 馬忽郡(포천), 鐵圓郡, 夫如郡(김화), 德勿縣(풍덕), 比列忽(안변), 內乙買縣(양주), 七重縣(적성), 泉井口縣(교하), 述爾忽縣(파주), 坡害平史(파평현), 梁骨縣(영평), 長淺城縣(장단), 獐項縣(장단), 若豆耻縣(장단), 津臨城縣(장단), 功木達縣(연천), 所邑豆縣(삭녕), 僧梁縣(삭녕), 麻田淺縣(마전), 阿珍押縣(안협), 伊珍買縣(이천), 斧壤縣(평강), 烏斯含達縣(토산) 등의 군현이 있었다.[17]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출발이 늦은 신라는 眞興王에 이르러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 신라의 영토확장은 州의 설치와 이들을 망라하는 廣域州의 설치를 수반하였다. 軍主가 파견된 이들 州는 대외팽창을 추진하기 위한 군사 전진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18] 553년 경기도 이천에 南川州를 설치하여 한강유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진흥왕은 4년 후에는 한강 이북 北漢山州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이보다 1년 앞선 556년에는 동해방면을 공략하여 안변에 比列忽州를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19] 임진강 유역은 양 지역으로부터 협공을 받으며 신라 영역으로 편입된 듯하다.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제도는 9州 5小京 단계를 거쳐 州郡縣制로 정착되었으며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영토는 來蘇郡, 牛峰郡, 堅城郡, 鐵城郡, 富平郡, 德水縣, 朔廷郡, 沙川縣, 重城縣, 交河郡, 峰城縣, 坡平縣, 泂陰縣, 長湍縣, 臨江縣, 如熊縣, 臨津縣, 功城縣, 朔邑縣, 宓們 臨湍縣, 安峽縣, 伊川縣, 廣平縣, 兎山郡 등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후삼국의 혼란기를 틈타 弓裔는 철원의 楓川原을 泰封의 도읍으로 정하고 신 왕조의 기치를 높였다. 궁예는 풍천원에 둘레 14,421척 규모의 外城과 1,905척의 內城을 축조하였으며 국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한편 물적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당시 한광지로 남아있던 평야의 개간에 나섰다. 풍천원은 토양이 척박하여 농업생산력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서쪽 식량공급을 담당한 배후지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전술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지형지물이 곳곳에 포진하여 적의 동태를 파악하거나 방어에 유리하며,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발달한 육로와 임진강 수로를 통해 동서해안을 최단시간에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궁예를 이곳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사실 내륙에 이만한 정도의 평야를 가진 지역은 철원이 유일하다고 생각되며 당시 몇 가지 난점만 해결되었더라면 하천 하류의 여러 도읍 못지 않은 중심지로 발전할 수도 있었으나 王建의 등장으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고 말았다.[20]

고려시대에 들어 지방제도의 정비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방행정조직은 성종 2년(983)에 단행된 12牧의 설치와 14년 10道의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開京 인근을 넘어선 지역에서 호족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중앙의 행정력을 발휘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호족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독자적인 지배조직을 갖

16)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221~295쪽.

17) 『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

18)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硏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96쪽.

19)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硏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108쪽.

20) 鐵原府爲泰封王弓裔所都… 邑雖隸江原卽野邑 西與京畿長湍接 壤土雖脊大野孱産評闊明朗 在二江內亦峽中一都會 然野中水深而黑石如蟲蝕是可訝異(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楓川原, 弓裔所都在府北二十七里 外城周一萬四千四百二十一尺 內城周一千九百五尺 皆土築 今半頹落宮殿遺址宛然猶存(『新增東國輿地勝覽』 권47, 鐵原都護府 古跡條).

고 있었으며 중앙정부로서도 그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호족을 회유하거나 其人 · 事審制度를 통해 견제하면서 공무에 협조를 구하고 界首官制를 충분히 활용해 하위의 郡縣을 통솔하는 것이었다.[21] 顯宗 9년(1018)에는 4都護府, 8牧, 56州郡, 28鎭, 20縣의 정비가 있었으며 12세기초 睿宗代에는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도의 5道 광역지방행정체제가 출발하였다. 소단위 지역의 통치는 지방관이 파견된 領군현과 그렇지 못한 屬군현의 이중적인 체제로 대표되는 중앙행정력의 한계를 노정시켰다.[22]

임진강 유역은 交州道에 소속된 일부 군현을 제외한 德水, 江陰, 長湍, 松林, 臨津, 兎山, 臨江, 積城, 坡平, 麻田이 赤畿 13縣에 편성되어 있었다.[23] 여기서 赤畿란 '赤縣'과 '畿縣'으로 구성된 왕도의 외곽지역을 의미하며 훗날 京畿의 기원이 되는 용어이다. 적현과 기현은 唐의 행정체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唐代의 문물을 기록한 『通典』에 따르면 현은 赤 · 畿 · 望 · 緊 · 上 · 中 · 下의 7등급으로 나뉘며, 적현은 경도의 관할구역, 기현은 경도에 이웃한 고을, 나머지는 호구와 토지의 비옥도에 근거한 외곽지역을 지칭하였다.[24] 왕경 중심의 특수 행정구역으로 赤畿縣은 성종 14년에 개설되어 開城府尹의 관할로 편성되었다. 현종 9년에는 경중과 적기현을 분리하여 3개 현을 개성현령이 7개 현을 장단현령이 관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있었으며 이 때부터 京畿라는 명칭이 공식용어로 정착되었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은 목민관인 수령이 관할하는 郡縣(州 · 府 · 郡 · 縣)을 중심으로 위로는 상급 행정구역인 道, 아래로는 面 · 里(洞)로 이어지는 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성읍국가단계의 國 · 城 · 村체제와 통일국가단계의 州 · 郡 · 縣체제의 계승과 최종적인 정비를 의미한다.[25] 고려의 京畿는 道制로 흡수되어 경기도로 개편되었으며 遷都를 계기로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군현의 정비가 진행 중이었던 세종 대에 강원도 伊川 · 平康 · 金化, 황해도 兎山 · 牛峰 · 谷山, 함경도 안변의 속현인 永豊 등을 제외한 楊州, 原平, 交河, 臨津, 積城, 抱川, 鐵原, 朔寧, 永平, 長湍, 安峽, 臨江, 麻田, 漣川 등 임진강 유역 대부분의 군현이 경기도로 편성되었다(그림 15).

흔히 畿內는 왕도를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지역을 지칭한다. 기내는 다시 100리 간격으로 鄕 · 遂 · 稍 · 縣 · 都로 구분되며 鄕은 50리 이내의 近郊와 그보다 외곽의 遠郊로 구성된다.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조선시대 郊의 범위는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수원, 안산, 인천, 통진, 교하, 장단, 파주, 포천을 잇는 환상의 지대로 규정된다. 교지역은 한양의 도시인구를 대상으로 채소, 과일, 어염, 화목, 식량 등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행궁, 능묘, 강무장 등 왕실이 자주 이용하던 특정 시설이 집중 분포하였다.[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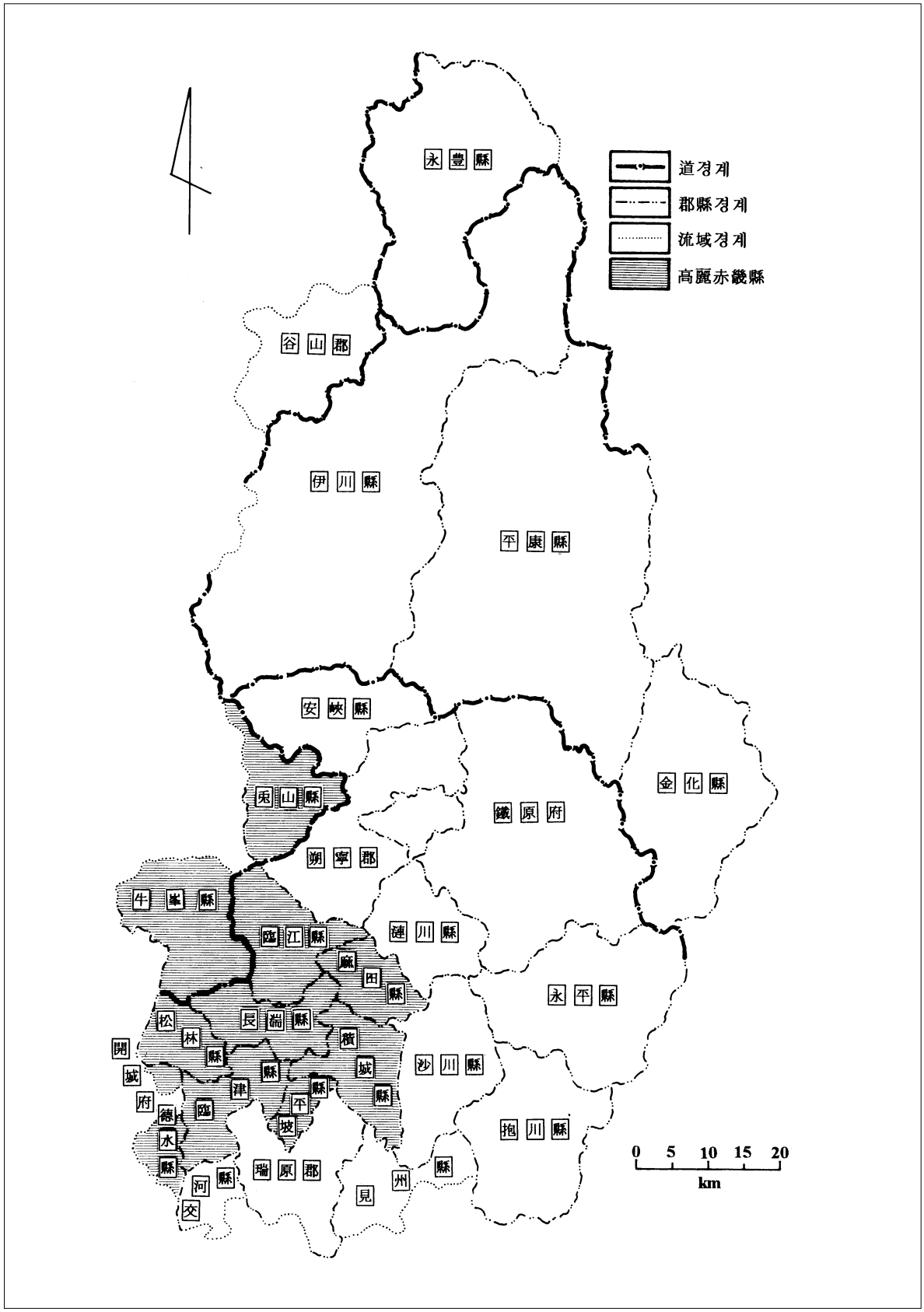
21) 河炫綱,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 1988, 190~194쪽; 李存熙, 「界首官의 運營」,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硏究』, 一志社, 1990, 30~72쪽.

22) 朴龍雲, 『高麗時代史』 (상), 一志社, 1985, 117~1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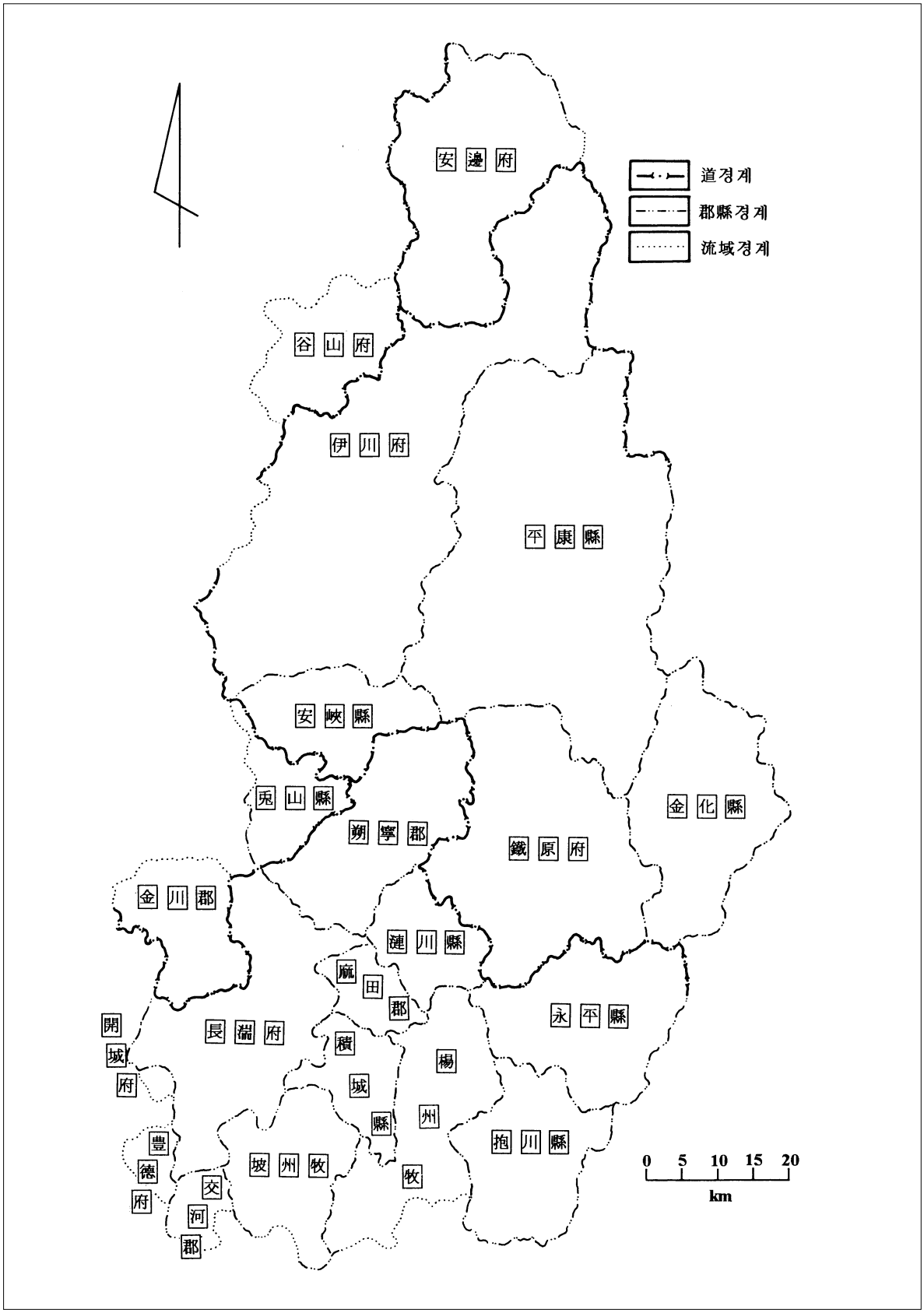
23) 邊太燮, 「高麗時代 京畿의 統治制」,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90, 238~274쪽; 尹武炳, 「所謂 赤縣에 對하여」, 『斗溪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一潮閣, 1956, 235~273쪽; 井上秀雄, 「新羅王畿の構成」, 「朝鮮學報」 49, 1978, 33~53쪽; 朴廣成, 「京畿의 由來와 沿革」, 『京畿道史』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64~67쪽.

24) 大唐縣有赤畿望緊上中下 七等之差(京都所治爲赤縣 京之旁邑爲畿縣 其餘則以戶口多少資地美惡爲差) 凡一千五百七十三 縣令各一人(『通典』 권33, 職官15, 州郡下縣令條, 尹武炳의 논문, 239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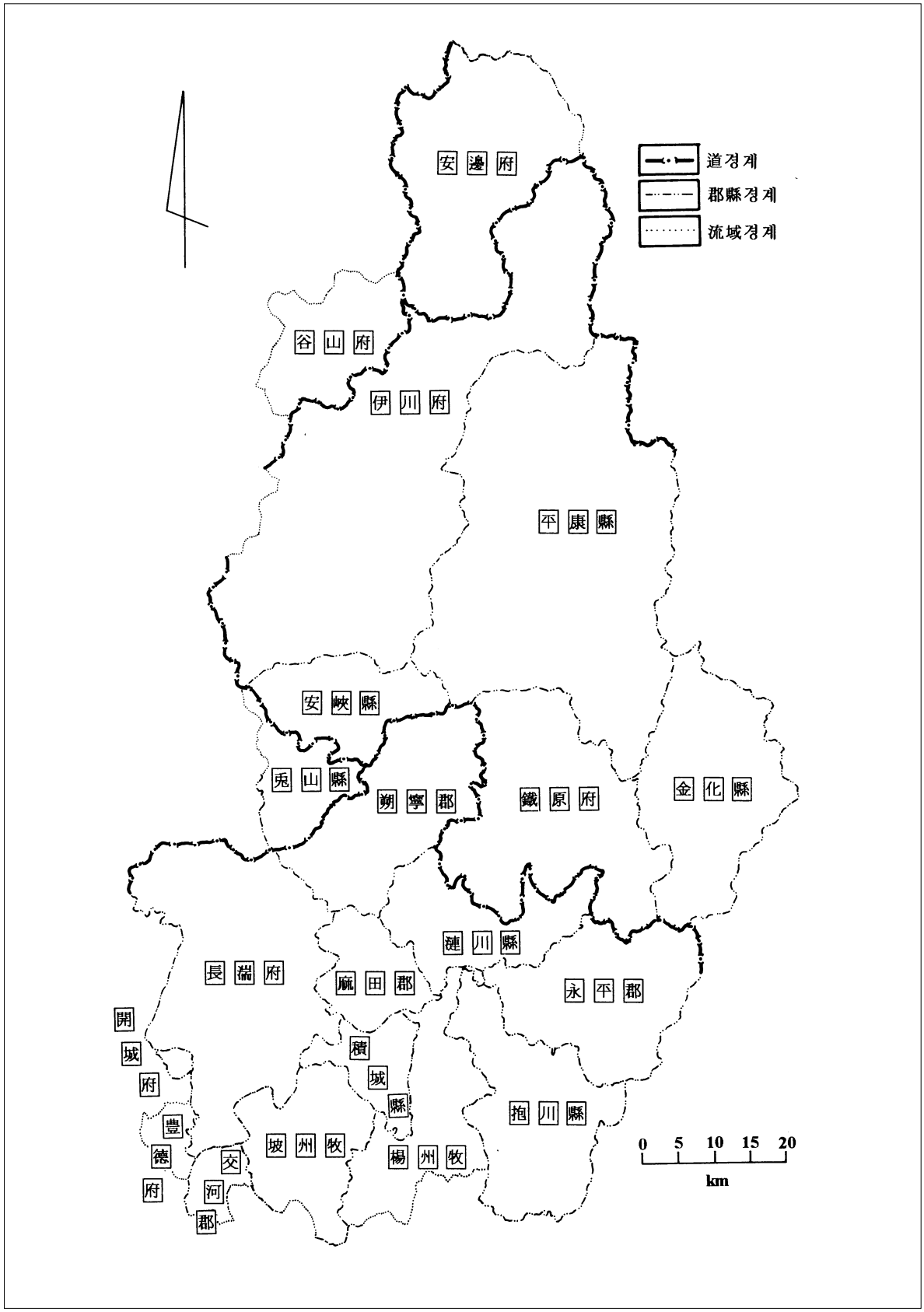
25) 李樹健, 「地方行政區域」,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111~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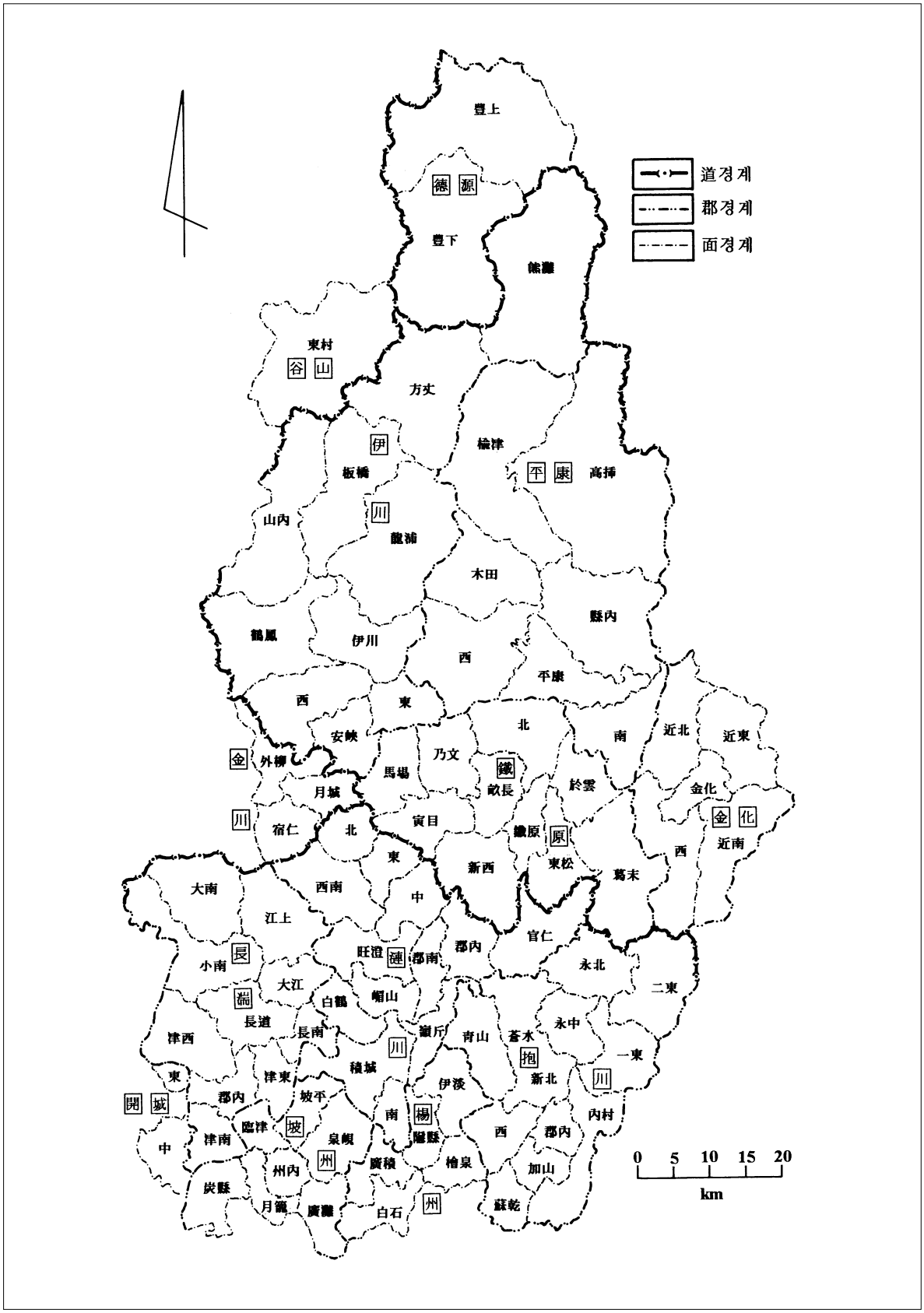
〈그림 15〉 임진강 유역의 행정구역(고려말~조선초)



〈그림 16〉 임진강 유역의 행정구역(18세기)



〈그림 17〉 임진강 유역의 행정구역(19세기)



〈그림 18〉 임진강 유역의 행정구역(1914)

임진강 유역은 선초 이래 수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경험하게 된다. 18세기의 행정구역을 여말 · 선초의 그것과 비교하면 우선 任內의 정비가 이루어져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었으며 철원과 안협이 강원도로 이속되었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山邑보다는 野邑에 집중되어 실시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임진, 장단, 임강, 송림이 장단으로 통합된 사실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삭녕은 승령을 통합하였고, 파평이 서원에 이속되어 파주가 되었으며, 사천현과 견주가 양주로 편입되었다(그림 16). 19세기에 이루어진 개편에서는 철원의 관인면이 연천으로 이속되고 금천의 일부였던 대남면과 소남면이 장단으로 편입됨으로써 도 경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동시에 적성과 장단의 일부 영역이 마전으로, 양주의 산내 · 청송면이 포천으로 각각 이속되었다(그림 17). 그 후 일제식민지강점기인 1914년에 또 한차례의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되었다. 개편의 골자는 교하를 파주로, 영평을 포천으로, 적성 · 마전 · 삭녕의 일부와 양주의 영근면을 연천으로 통합한 데 있었으며 부수적으로 삭녕 동부가 철원으로 이속되면서 도경계가 약간 남하하였다(그림 18).

3. 취락의 발달

연천 전곡리와 인근 여러 지점에서 발굴된 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임진강 유역 정착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그리고 파주와 연천 일대에 흩어져 있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군은 임진강을 무대로 어로와 농경에 종사했을 토착세력의 존재를 추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27] 역사시대 초기의 유적으로 취락의 존재유무와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성채이다. 왜냐하면 백제 · 고구려 · 신라 삼국과 그 이전의 군소 정치집단이 패권을 다투던 邊方(frontier · no man's land)이 바로 다름 아닌 임진강 유역이었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산지와 하천변 단애의 발달이 탁월한 임진강 유역에는 山城, 丘陵城, 平地城, 平山城, 遮斷城, 斷崖型 江岸城 등 형태 · 기능 · 구조가 상이한 여러 형태의 성과 보루가 축조되었다. 성에는 城主(軍主)와 일정 수의 군병이 주둔하였으며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은 성주의 통솔을 받고 있었다.[28] 주민과 대다수의 병사는 평상시에는 평지에서 생활하다가 비상시에 입보하였을

---

26) 崔永俊, 「朝鮮時代 漢陽의 郊地域 硏究」,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1980, 3~22쪽. 경기에 소속되었던 철원에도 국왕의 행차가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도 이 곳에 행차하여 사냥을 하였던 일이 있다{大也盖坪 在府東十里古稱古東州坪 黃等極目與栽松坪具爲講武場 我世宗曾狩于此(『邑誌』 鐵原都護府 山川條); (甲寅)上王及老上王講武于鐵原等處 上從之 是日以國忌不獵..,(丁巳)駕次平康 獲多分賜侍從群臣..,(甲子)還宮(『世宗實錄』 17년 3월); 講武場在府北 地廣人希 禽獸所同 爲講武常所 置守者及網牌九十名(『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27) 韓國考古學硏究會, 『韓國考古學地圖』, 1984.

28) 산성에는 성벽을 산중턱이상의 고지에 쌓아 산정부의 일정한 공간을 둘러싼 형태의 테뫼식山城과 계곡을 성 내부로 포함하도록 설계된 包谷式山城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지에 축조되어 성내부에 넓은 평탄지를 결여하고 수원의 확보가 어려운 테뫼식산성은 장기간 많은 병역의 주둔이 불가능하여 주로 연락용, 감시용으로 이용된 듯하며, 포곡식산성은 수원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병력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平地城은 교통이 편리하고 농경지가 넓게 발달한 지점에 축조되는 것이 보통인데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된 형태의 성곽이다. 丘陵城은 산성의 기능과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평지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민보용 성곽이다. 平山城은 배후의 산에서 내려온 성벽이 평지의 치소지역을 감싼 후 다시 산줄기를 타고 이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遮斷城은 원형 또는 방형으로 축조되는 일반 성곽과 달리 일직선상으로 길게 축조된 형태의 것을 지칭하며 협곡을 가로질러 축조된 차단벽과 통행로에 설치된 關門이 있어 關城으로도 불린다. 斷崖型 江岸城은 용암분출로 형성된 협곡을 따라 축조되며 임진강, 한탄강, 영평천 등의 주요 통로를 내려다보고 있어 적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孔錫龜, 「高句麗 · 百濟城郭의 比較硏究」, 『白山學報』 54, 2000, 39~74쪽 참조).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에는 양주의 水鐵城, 파주의 城山城, 교하의 鰲頭城, 영평의 石城, 포천의 城山城, 적성의 吐呑城, 阿未城, 水鐵城, 이천의 東城, 周音洞防墻, 城山古城, 古城山古城, 평강의 靑龍山城, 城隍堂山城, 금화의 城山城, 안협의 萬景山城, 南山城 등이 유명 산성으로 고적편에 소개되고 있다.[29] 산지가 많은 임진강 유역에는 산성이 많이 축조되었는데 축조 지점은 대체로 칠부능선에서 봉우리를 싸고도는 형태가 많다. 산성은 대체로 평야를 내려볼 수 있는 지점에 축조되었으며 이는 들을 건너오는 적을 한눈에 포착할 수 있고 많은 군병이 진을 치기에 유리하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30] 평야에서는 평시에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으며 평야와 산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방어체제는 淸野入保의 전술을 펴는데 유리하였다. 산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掎角籠城할 수 있도록 인근의 성과 일정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과 거리에 배치되었다.

본 유역의 성은 도하지점, 간선도로, 고개와 같은 전략적 요충에 예외 없이 자리하고 있다. 안전한 병참선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고 적대세력의 움직임을 정찰하여 차단하거나 공격을 사전에 둔화시키는 유리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점에 위치한 교하의 鰲頭城(오두산성)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한다. 삼국이 오두성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사실은 이 지점이 한강이나 임진강으로 진입하는 관문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 준다. 산지 요로에 위치한 關隘의 전략적 중요성 또한 이에 못지 않다. 일례로 이천의 周音洞防墻은 양쪽 산지가 만나는 부분 협착한 통로에 축조되었는데 입지상 '一夫當千' 할 수 있는 요충이었다.[31] 이들 방어목적으로 설치된 성 · 보루 · 진은 초창기 취락발달에서 중핵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유역은 남서부와 일부 용암대지상의 평야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와 산록완산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소하천의 발달이 탁월하다는 말과도 같다. 계류를 따라 형성된 산간계곡은 은은한 풍치와 더불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흐르는 물을 막아 손쉽게 관개에 이용할 수 있어 예로부터 취락입지로는 이상적인 곳으로 간주되었다.[32] 임진강 유역내 고대지명에는 '忽'이라는 어사가 들어간 형태의 것이 많다. 忽은 신라의 '火'나 백제의 '夫里'에 비견되는 고구려계의 대표적인 어휘로 城, 나아가 村落이나 邑을 지칭하는 어사로 발전하였다. 忽은 중기국어의 골(谷 · 洞)에 해당하는데 이는 고구려의 촌락입지가 대체로 산간계곡형이었다는 언어학적 증거가 된다.[33]

이 지역에 조성된 신라의 취락 역시 이러한 계곡 입지형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통일된 이후 부분적인 무장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임진강 본류와 대지류를 따라 취락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곳에 파견된 민간인의 상당수가 잔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분관계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편성과 토지의 국유제 원칙이 고수된 고려시대에 婚

29) 『新增東國輿地勝覽』 古跡條.

30) 申榮勳, 「韓國의 城郭」, 『新東亞』 2월호, 1976, 236~237.

31) 周音洞防墻 在縣北一百十里北通安邊永豊縣西臨大川 東壓大山 一夫當關可 萬兵 昔人築墻防胡遺跡尙存(『新增東國輿地勝覽』 伊川縣 古跡條).

32) 溪居有平穩之美蕭 之緻又有灌溉耕耘之利 故曰海居不如江居江居不如溪居 凡溪居必以離嶺不遠然後平時亂世皆宜久居(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條).

33) 朴玄采, 『古代國語學硏究』,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90, 179쪽.

姻, 官界進出, 流亡, 土地의 賣買, 徙民 등의 이유로 移籍과 寓居가 빈번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라시대에도 상당수의 이주가 있었을 것이고 이주민의 일부가 임진강 유역으로 유입되어 취락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34]

고려시대의 정황은 土姓의 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성이란 地緣과 血緣을 상징하는 복합어로 토박이 姓, 즉 왕건이 고려왕조를 창건하고 후삼국 통일에 적극 참여했던 호족에 대해서 재지 토성을 분정할 때 작성한 '古籍'과 전국 군현의 토성을 기록하고 있는 『世宗實錄地理志』 당시 각 道에서 작성한 '關'에 올라있는 성씨로 성씨분정시 재지 관료층을 구성하던 유력 혈연집단을 의미한다.[35] 토착지를 본관으로 하는 토성 외에도 고적에는 있으나 관에 누락된 亡姓, 고적에는 없으나 관에는 올라있는 續姓, 來姓, 次姓 등의 기록을 통해 당시 이 지역 거주자의 실체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고려말 임진강 유역을 대표하는 토성으로는 호장을 세습하다가 吏族에서 탈피한 楊州趙氏, 현종의 妃父가 되어 득세한 楊州韓氏, 三韓功臣 가문인 見州李氏, 사대부가인 見州宋氏, 여초부터 문벌귀족으로 성장한 瑞原廉氏, 후기에 권문척족이 된 交河盧氏, 무신집권기에 출세한 臨津金氏, 전기 문벌귀족으로 崔瑩을 배출한 鐵原崔氏, 후기의 사족인 僧嶺崔氏, 여초이래 훈척가문으로 명성을 날린 長湍韓氏, 尹瓘의 후예인 坡平尹氏, 崔忠獻 등 무반을 배출한 牛峰崔氏와 무신집권기에 무신으로 출발한 牛峰李氏, 후기에 사족으로 성장한 兎山金氏, 최씨 집권기에 무반으로 출발하여 권문이 된 平康蔡氏 등이 있다(표 26).[36]

토성은 지역간 이동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생성 · 소멸 · 분화하였다. 기존 토성의 유망에서 망성이 생기고, 지역간 이동에서 내성이 발생했으며, 군현간 향리조정책에 의해 속성이 등장하였다. 사회적인 기동성의 증대로 토성이 더 이상 성씨의 본관과 거주지가 동격시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망성의 발생은 후손이 단절되거나 기타 정치 · 사회적인 이유로 재지토성이 몰락하고 가문이 쇠퇴하였음을 말해 준다. 지역적으로 망성은 고려시대의 경기와 같이 상경종사한 토성의 거주지나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변경지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37] 포천, 철원, 안협, 장단, 연천, 토산, 김화, 평강, 이천, 안변 등지에서 다수의 망성이 발견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망성과 함께 내성 · 속성의 발생은 모두 취락 내부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새로 편입된 영토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대안은 주민을 이주시켜 취락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임진강 상류지역과 兩界地域에 대한 徙民策을 대대적으로 계획 · 추진하였는데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범법자를 강제로 이주시켜 流刑植民地(internal penal colony)를 구축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형태의 이민은 자원자를 모집하여 정착에 따른 비용과 각종 잡역을 면제하여 취락 발달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주민의 모집대상 지역은 주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가 부족하여 유민이 발생이 빈번하고 그로 인해

34) 朴恩卿, 「高麗前期의 移住」, 『高麗時代鄕村社會硏究』, 一潮閣, 1996, 8~36쪽.
35)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34~36쪽.
36)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265~336쪽.
37)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93~96쪽.

〈표 26〉 토성의 분포

군 현	토 성
楊州府	토성(韓趙閔申), 망성(鄭艾), 내성〔咸(양근) 朴(춘천) 洪(남양) 崔(수원) 夫(과천)〕 / 見州 토성(李金宋申白尹皮) / 沙川 토성(耿), 망성(李任宋許)
原平府	토성(徐廉), 속성(夜) / 坡平 토성(智尹), 망성(邦白皮)
交河縣	토성(盧金李王朴), 망성(尹)
臨津縣	토성(宋咸邢標宣), 속성(宗)
積城縣	토성(申金崔), 망성(劉盧玄), 속성(趙徐梁)
抱川縣	토성(盧兪奎), 망성(玄桓朴房田尹)
鐵原府	토성(崔宋柳), 망성(張金鄭邢辛高韓曺盧安李祭許朴芳), 속성(邦)
朔寧郡	토성(申金), 망성(宋曺吳), 속성(朴) / 僧嶺 토성(崔), 망성(吳李), 차성(沈), 내성〔宋(인의)〕
永平縣	토성(申榮田), 망성(燕麻), 속성(朴尹) / 亡乳石 토성(徐任何尹)
長湍縣	토성(韓), 망성(田馮許宣金李)
安峽縣	토성(許), 망성(孫尹方耿吳劉裵柳徐)
臨江縣	토성(李鄭), 망성(盧卿史) / 松林 토성(金), 망성(宋田車末), 속성(文)
麻田縣	망성(田宋柳車於), 속성(徐)
漣川縣	토성(李全鄭朴宋金), 망성(井崔房邢曹田孫)
兎山縣	토성(金李), 망성(胡皇甫蒙吉程盧安邢尹許朴高崔林白裵王南河), 속성(孟)
金化縣	토성(宋), 망성(李白成鄭韓楊陽京朴陳柴梁吳安盧)
平康縣	토성(蔡全朴), 망성(許宋瓜鄭石) / 亡史丁 · 新材 망성(李宋崔朴全)
伊川縣	토성(李孫崔), 망성(司馬高朱芳朴邊成吳), 속성〔韓金崔朴李(평창) 李(함안) 高(해주) 林(울진) 李(합천) 嚴(영월) 鄭(현풍)〕
安邊府	永豊 망입성〔赫林吳(개주) 吳(안협, 영평, 이천, 오서, 아금마봉주) 林(동주, 천령) 萬(해주) 赫林(토산) 吳禹(황주) 康韓林(곡주) 赫(견주) 芳(화주) 劉(염주)〕

자료 : 『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사회 · 정치적인 불안의 소지가 많은 下三道였다.[38] 이주 규모를 밝혀줄 수치상의 자료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주자의 행정을 담당할 人吏姓의 이주도 더불어 추진되었다고 본다. 안변 영풍현에 亡入姓이 타 지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은 이를 말해 준다.

고려시대의 북방정책은 다음 왕조로 이어져 조선 초기에는 4郡 6鎭을 확보하는 성과가 나왔다. 북방경계가 압록강 및 두만강으로 정해지자 조정에서는 영토방어와 북방개척의 두 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徙民을 단행하였다.[39] 미개간된 閑廣地에 하삼도 농민을 이주시켜 경지개간과 취락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였다. 그러나 정작 의도했던 '富實多丁戶'의 이주는 소폭에 그쳤고 대신 전란, 역병,

38) 徙江南州縣丁戶 以實象山伊川遂安新恩峽溪牛峰等縣(『高麗史』 卷4, 世家 顯宗 10년 11월 庚申).

39) 邊卒且耕且戍 故地無遺利 兵有餘食 而邊御自實(『成宗實錄』 卷104, 10년 5월 癸酉).

관리의 침학, 흉황을 만나 여러 지역을 방황하던 유리민과 범죄인이 이거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40] 범죄인의 이거는 '全家徙邊律'의 적용을 받았으며 이주자는 가산을 처분하여 도착지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법규정도 마련되었다. 일반 농민의 경우 일정기간 군역이 면제되는 데 반해 범법자는 입거 즉시 군적에 등록되었다.[41] 이주한 농민에게는 노역의 면제를 의미하는 復戶외에도 토지지급, 농구대여, 면세 등의 특혜가 부여되었다.[42] 구체적으로 안협, 곡산, 토산, 이천, 안변, 금화, 철원, 평강 등 임진강 유역으로 이주한 농민에게는 최소 12년에서 최고 15년의 복호, 최소 9년에서 최대 12년의 면세 혜택이 보장되었다.[43] 세조 6년의 예를 보면 경상도지역에서 2,500호, 전라도에서 1,500호, 충청도에서 500호를 합한 총 4,500호 규모의 사민이 계획된 바 있다. 이들의 정착지는 평안, 황해, 강원, 함길도였다.[44]

이민은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는 17세기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삼남에 거주하던 많은 농민이 유민이 되어 산간오지로 피난했으며 산이 많아 숨어살기 좋았던 이 곳 중부와 북부의 접경지대를 찾는 이주민의 규모도 컸다. 조선후기는 또한 인구증가와 지주층의 토지집중으로 인해 만성적인 토지부족과 농민분화가 촉발되던 시기이다. 농민층을 괴롭히는 것은 이 뿐만은 아니었다. 양안에 등록되었지만 자본과 노동력의 부족으로 진전으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荒地徵稅, 白地徵稅, 無主陳田稅 등이 부과되었고 한광지를 개간한다 해도 隨起收稅의 원칙이 적용되어 예전같이 면세의 혜택을 볼 수도 없었다.[45]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의 일부는 한양에 가깝고 산이 많아 노출의 위험이 적으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지역보다 적었던 임진강 유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증거로 1731년의 관문서기록에는 회양, 평강, 양구, 안변, 양덕, 신계, 곡산 등지에 도망한 노비와 유리된 농민이 모여들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면서 수많은 소로가 개통되는 등 변방 방어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하여 진과 관방을 증치하자는 제안이 토론된 일이 있었다. 이유야 어떻든 사민정책과 유이민의 도피성 유입은 이 지역의 취락발달을 촉진하였다.

전통적인 취락입지는 산세, 지세, 물길, 평야, 토양 등 인문 · 자연지리적인 요소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되었다. 이상적인 취락터로는 전방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뒤에는 강한 북서풍을 막아줄 산이 있으며, 관개수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 하나 이상 있고, 마을 안에는 깊게 파지 않아도 풍부한 양의 식수를 제공하는 우물이 골고루 분포하는 지역을 꼽을 수 있다. 마을 뒤편으로 인근 마을이나 시장과 연결되는 고갯길이 나있고 주변의 경치가 빼어난 곳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라 하겠다. 임진강 유역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소위 '名基'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있었다. 경기도에 소속된 有名村으로는 양주의 沙川廢縣 · 柯亭子 · 盤谷, 포천의 花山 · 犁谷 · 樹谷, 영평의 金水亭 · 蒼玉屛 · 周原 · 白鷺洲 · 白雲洞 · 農岩 ·

40) 『中宗實錄』 15년 2월 庚辰(全羅閑曠之地 令道內犯罪人入居事 前已議之 然北方閑曠之地無數 有罪之人當移於此 以實邊境 不當移於此地也 且入居者所以懲有罪之人 而國家因此欲實閑曠之地 若以近官犯罪之人而移入 則是犯罪者無懲戒之心 而亦無國家移人入居之本意也).

41) 李樹健, 「朝鮮 成宗朝의 北方移民政策(下)」, 『亞細亞學報』 8, 1970, 97~100쪽.

42) 平安黃海江原三道 人物凋殘 譬如一家 一面無墻 安得不守 予欲募民 移居三道 若有能應募者 良賤賤良 十年復戶 優給土田 撫育倍他(『世祖實錄』 卷18, 5년 12월 丙寅).

43) 『世祖實錄』 卷22, 6년 11월 辛巳.

44) 李仁榮, 「李氏朝鮮 世祖때의 北方移民政策」, 『韓國滿洲關係史의 硏究』, 乙酉文化社, 1954, 150~151쪽.

45) 宋讚燮, 「17 · 18세기 新田開墾의 확대와 經營形態」, 『韓國史論』 12, 1985, 232~46쪽.

燕谷 · 花峴 · 龍虎洞, 파주의 馬山驛村 · 花石亭 · 牛溪 · 來蘇亭, 장단의 龍山 · 高浪浦 · 亭子浦 · 基一村 · 靈通洞, 적성의 湘水村 · 梅花谷, 마전의 澄波渡, 삭녕의 朔寧邑村 · 三溪亭이 있었으며, 강원도에서는 금화의 松亭, 철원의 仙倉村, 안협의 擧城 · 四堅村, 이천의 廣福洞 · 佳麗洲 · 浦內 · 龜塘 · 古密雲, 평강의 亭淵 등이 이름난 마을로 꼽히고 있다. 황해도에는 토산과 안협의 경계부에 위치한 舟邱가 유명했다. 이 가운데 金水亭은 '近畿溪居之最,' 朔寧邑村은 '近畿峽居之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명촌이었다.[47]

이들 취락이 '八域名基'로 분류될 수 있었던 기준은 단지 산과 계류가 어우러진 빼어난 주변경치 때문만은 아니다. 경관상의 이유 외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보장하는 넓은 평야 또는 비옥한 산전(柯亭子, 盤谷, 犁谷, 金水亭, 白雲洞, 農岩, 燕谷, 花峴, 馬山驛村, 梅花谷, 亭子浦, 澄波渡, 朔寧邑村, 松亭, 仙倉村, 廣福洞, 佳麗洲, 浦內, 龜塘, 舟邱), 깨끗한 식수와 풍부한 관개수(盤谷, 犁谷, 金水亭, 白雲洞, 農岩, 燕谷, 花峴, 梅花谷, 松亭, 仙倉村, 廣福洞, 佳麗洲, 浦內), 아름다운 조경(牛溪, 亭淵), 천혜의 은거지(擧城, 廣福洞[48], 古密雲), 도회로 통하는 도로나 수로(柯亭子, 高浪浦, 澄波渡, 朔寧邑村), 학문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 사대부(柯亭子, 龍虎洞, 馬山驛村, 湘水村, 亭子浦, 佳麗洲, 浦內, 龜塘, 亭淵), 순박한 인심(古密雲), 독특한 풍수형국(花山 瓜藤形, 松亭 落雁形), 활발한 상업경제(高浪浦, 澄波渡, 浦內, 舟邱) 등의 제반 요건이 명촌을 만들었던 것이다(그림 19).

'山明水麗土沃川甘'의 명촌이 되기위한 조건을 구비한 이천의 廣福洞은 15~16리 정도 계속되는 산줄기가 사방을 둘러쳐 천연의 城堞을 이루었다. 마을 한쪽에 트여있는 洞口를 지나 계곡 안으로 일단 들어서면 一望平曠의 땅이 펼쳐진다.

이들 명촌을 포함해 임진강 유역의 취락은 面 · 里(洞)의 행정단위와 自然村의 이원체제로 유지되었다. 산지가 우세한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계곡에 분산된 가옥을 5戶作統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統의 상위단위인 里는 5통에서 10통 규모의 小里, 11통 이상 20통 미만의 中里, 21통 이상 30통 이하의 大里로 나뉘며, 3~6개 리가 모여 한 개 面을 구성하였다.[49]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자연촌은 洞契(洞約)로 통합되어 중심이 되는 里(本里)나 洞(本洞)에 의해 통솔되기에 이른다. 이 체제는 향촌지배질서가 성리학의 이념을 담은 향약과 이의 구현을 책임진 재지사족 중심으로 조정되면서 수령권의 촌락에 대한 통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50]

임진강 유역에는 향촌사회에서 이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토착세력이 친족 단위로 집단 거주하는 동족촌이 상당수 존재한다. 1930년대 초 임진강 유역과 그 인근 지역에는 김화의 130개 촌을 비롯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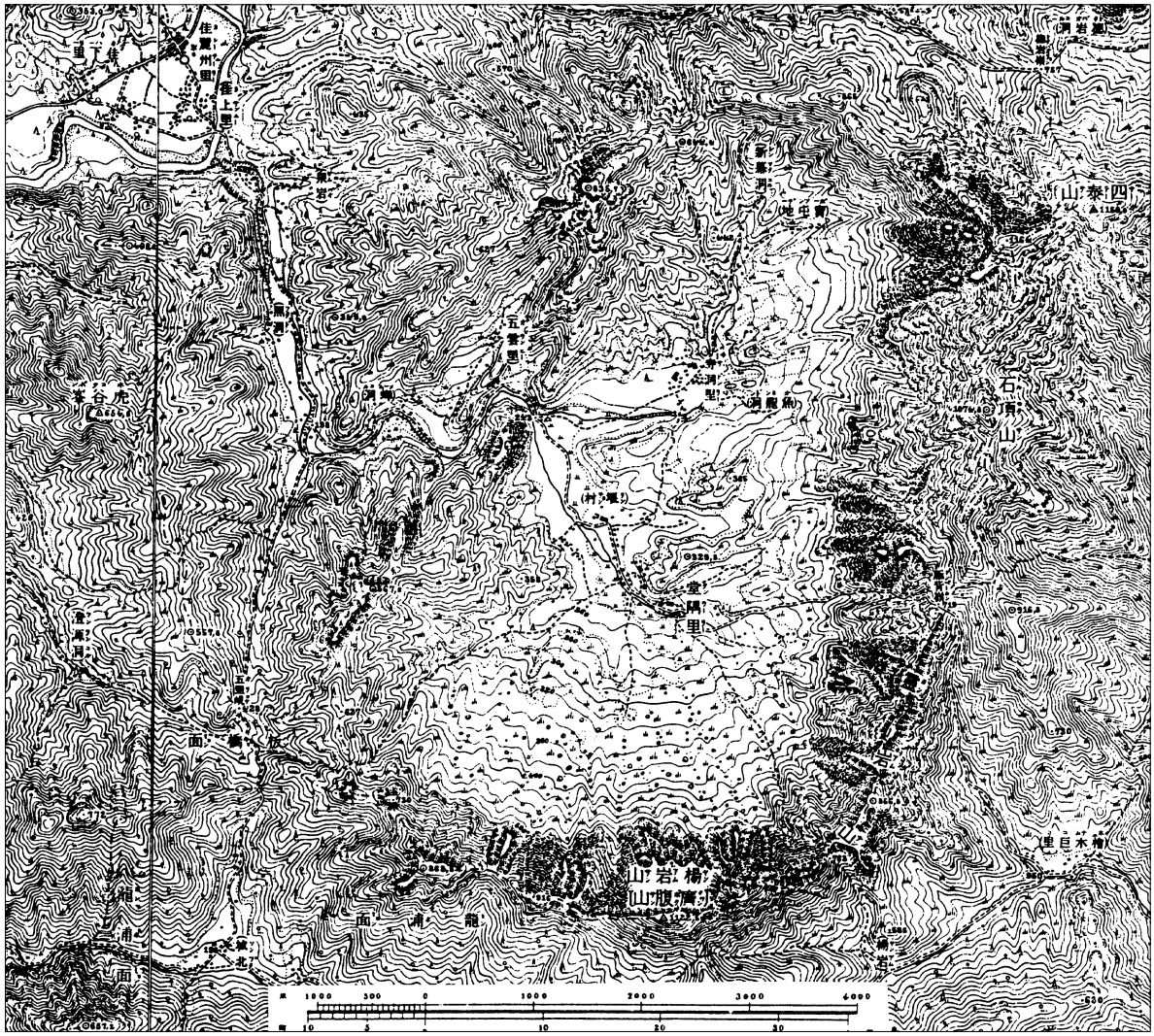
46) 『備邊司謄錄』 英祖 7년 2월 20일.

47) 『林園十六志』 相宅志 卷2, 八域名基.

48) 광복동에 대해서는 이중환도 호평을 하였다(伊川北有廣福村 安邊永豊之水至廣福泓深環繞可以容舟 地皆白石明沙晃然有奇異氣 一邑少水田而有廣福引水灌溉土極饒沃 北有古美灘劒山之深阻 平時亂世皆可居 而但恨處地太僻所居只富民而無士大夫 廣福之水至伊川邑前大而爲江 每春夏水漲直發賦稅之船漕至京師 江水到安峽會古美灘水經兎山至朔寧澄波渡 江山淸遠始有京城士大夫亭臺樓閣矣.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條).

49) 五家統事目, 凡民戶隨其隣聚 不論家口多寡 財力貧富 每五家爲一統 而以五家中有地位年歲者 爲統首 以掌統內之事爲白齊... 每五家作統 而如或有餘戶未准五數 則不必越合他面 以致混錯 只以餘戶添統 亦自不妨爲白齊... 每一里 自五統以上至十統者爲小里 自十一統以上至二十統者爲中里 自二十一統至三十里者位大里 里中 又差里正里有司二人 如統首之制 以掌一里之事爲白齊... 有統有里 以屬於本面 面有都尹副尹各一人 大面則所統里多 小面則所統里小 各隨民戶之多寡殘盛 面稱之以某面第一里 某面第二里 以至三四五六 亦隨其里之多寡爲白齊..(『備邊司謄錄』 31冊, 肅宗 원년 乙卯 9월 26일).

50) 李海濬, 「朝鮮後期 村落構造變化의 背景」, 『韓國文化』 14, 1993, 261~281쪽.



〈그림 19〉 이천 廣福洞

여 철원 77, 금천 70, 양주 57, 연천 55, 이천 55, 포천 51, 평강 46, 장단 43, 파주 24, 덕원 17촌의 동족촌이 분포하였다. 김화, 금천, 양주, 파주, 덕원 등 5개 군에는 유역 밖의 지역이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유역내 동족촌의 수치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분포범위는 유추가 가능하다(표 27). 동족촌이 특정지역에 밀집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철원의 마장면에는 무려 26처의 동족촌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평강 고삽면 18촌, 연천 적성면 17촌, 철원 신서면 14촌, 평강 목전면 11촌, 철원 묘장면 10촌, 이천 판교면 10촌, 이천 웅탄면 10촌 등 몇몇 지역에 편재되기도 하였다.[51]

51) 마장면, 全州李 · 延安玄(각 6촌), 寧城崔(4), 金海金 · 坡平尹(각 3촌), 慶州金(2), 江陵金 · 延安金; 고삽면, 全州李(6), 密陽朴(4), 平山申 · 慶州金(각 2촌), 平昌李 · 淸州金 · 江陵金 · 安山金(각 1촌); 적성면, 全州李 · 順興安 · 慶州金(각 2촌), 綾城具 · 平康蔡 · 蔚山金 · 河洞鄭 · 延安李 · 晋州姜 · 密陽朴 · 東州崔 · 安東權 · 玄風郭 · 淸州慶(각 1촌); 신서면, 牛峰金(3), 金海金 · 全州李 · 密陽朴 · 漢陽趙(각 2촌), 坡平尹 · 順天李 · 延安金(각 1촌); 목전면, 禮安李 · 遂安崔(각 2촌), 安東權 · 水原白 · 金海金 · 密陽朴 · 新昌孟 · 旌善鄭 · 安東金(각 1촌); 묘장면, 全州李(4), 金海金 · 潘南朴(각 2촌), 安東金 · 密陽朴(각 1촌); 판교면, 江陵咸 · 安山方 · 旌善全 · 善山吉 · 礪山宋 · 慶州金 · 晋州張 · 全州李 · 隋城崔 · 東萊鄭; 웅탄면, 全州李(3), 水原白 · 南陽洪(각 2촌), 平山申 · 陽川許 · 淸州韓(각 1촌)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下篇)』, 朝鮮總督府, 1933, 513, 515~517, 539쪽).

〈표 27〉 임진강 유역의 유명 동족촌(1930~1933)

군	면	리 · 동 · 촌	姓氏	호(구)		형성	입향조	내력
				동족	타성			
양주 57	회천면	율정리 · 귀율리	豊川 任	36(163)	14(36)	400	任由謙	이주
	은현면	상패리 沙川洞	金海 金	36(189)	14(68)	300		沙川縣 鄕吏
	이담면	보산리 柵山	江陵 金	44(205)	10(31)	260	金夢祥	이주
	이담면	보산리	全州 李					
포천 51	군내면	좌의리 沐浴洞	延安 車	11(51)	1(4)	70	車道鳳	제월동에서 분가
	군내면	유교리 平村	密陽 朴	30(150)	23(124)	270	朴貴來	이주, 함안
	군내면	직두리	慶州 李	20(120)	18(103)	390	李元南	현감퇴임후 정착
	군내면	상성북리 越村	全州 李	14(81)	5(23)	300	李蒙養	송정촌에서 분가
	군내면	명산리 花岩洞	固城 李	15(89)	10(39)	150	李昌傑	제월동에서 분가
	군내면	하성북리 谷村	淸州 楊	15(85)	14(67)	300	楊照洙	안변부사후 정착
	창수면	운산리 · 설운리	豊川 任	60(324)	40(197)	500		원 馬氏촌
	일동면	사직리 百忍洞	湯川 許	45(350)	10(52)	280	許坪	개간이주, 한양
	영중면	성동리 栢谷洞	淸風 金	48(240)	5(26)	300	金穩	승지의 묘 이장
	영중면	금주리 水日洞	淸州 楊	51(235)	38(145)	180		
	이동면	연곡리 燕谷	安山 金	57(218)	32(104)	340		
파주 24	탄현면	오금리 吾今洞	密陽 朴	33(205)	9(47)	400	密山君	묘터(국가장)
	청석면	동패리 斗溢洞	晋州 柳	26(157)	21(125)	270	柳棟樑	이주, 한양
	파평면	눌노리 書院洞	昌寧 成					파산서원(성혼)
	청석면	동패리 芳谷	長水 黃					
	청석면	신촌리 新村	陽川 許					
철원 77	묘장면	중세리 寺後	潘南 朴	30(168)	63(374)	300		이주
	북 면	회산리 栗木洞	豊川 任	24(131)	37(201)	400		이주, 궁예시대촌
	신서면	도신리 九水洞	牛峰 金	35(175)	6(30)	240	金應奎	이주, 한양
	갈말면	군탄리 豊田洞	昌原 黃					
김화130	근남면	상사곡리	寧海 朴	101(514)	76(380)	500	朴渡외7	단종
평강 46	서 면	문봉리	平壤 金	70(350)	10(50)			
이천 55	서 면	우미리 四見洞	全州 李	65(329)	10(51)婢僕	200	李仁根	원 鄭氏촌, 경기
	방장면	가려주리	平山 申	102(594)	201(1052)	450	申中殉	회령교수, 귀향중
	방장면	귀당리	蔚山 金	128(832)	98(648)	450	金振海	홍원복무, 귀향중
	학봉면	공수탄리	龍仁 李	50(251)	26(109)	330		
	학봉면	노동리	平山 申	55(282)	22(115)	330		
금천 70	외류면	문수리 文修洞	全州 柳	130(610)	37(170)	300	柳氏	이주, 한양
			全州 金	30(150)				
기 타	덕원 17, 장단 43, 연천 55							

* 군명옆의 수치는 동족촌의 총수를 가리킨다.

자료 :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下篇)』, 朝鮮總督府, 1933, 220~225, 249~250, 314, 336, 356, 358, 462, 488, 513, 515~517, 539, 729, 746, 896쪽.

동족촌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토착세력이 토성을 분정받고 그 지역에 남게 된 경우, 유산상속 과정에서 분가한 세력가의 자제가 인근 지역에 새로운 촌락을 형성한 경우, 관료나 문벌귀족이 토지를 하사받아 가문의 근거지로 발전시킨 경우, 산지나 연해지에 개척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집단으로 정착한 경우, 전란과 각종 직역을 피해 은거할 때 조성된 경우, 조상의 묘를 이장한 후 묘지관리를 위해 현지에 남게 된 경우 등 다양하다.[52] 양주 사천동의 金海金氏는 입향조가 속현인 沙川縣의 향리직을 수행한 후 현지에 정착하였으며, 포천 직두리의 李元南도 포천현감으로 재직한 후 귀향하지 않고 남아 慶州李氏 동족촌의 시조가 되었다. 이천 귀당리의 金振海는 본관이 울산이며 원거주지는 전라도 장성인데 흥원에 관리로 임명되어 복무를 마친 뒤 귀향길에 잠시 체류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수백년을 계속해 대가 이어졌다. 금화 상사곡리의 寧海朴氏는 단종의 신하였던 朴渡를 포함한 7명이 폐위사건 후 집단으로 정착하면서 동족촌을 이루게 되었다. 포천 백곡동의 淸風金氏는 승지벼슬을 지낸 金穩의 묘가 이장되면서 이의 관리를 위해 후손이 정착해 조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백인동의 陽川許氏는 한양에서 농지개간을 위해 이주한 許坪이 입향조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형성 · 발달한 사대부의 동족촌은 일반 취락과는 주민들의 이념이나 취락경관의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속성을 내포한다. 내부적으로 조상숭배의식이 강하여 사당, 재각, 분묘 등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가부장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며, 가계 · 혈통 · 인륜 등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 입향조가 정착한 지역은 함부로 떠나면 안된다는 불문율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오래 보존된다. 촌락은 보통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많다. 촌락 내부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宗家를 핵으로 사우, 누정, 정려, 재각, 성황, 장승 등 중요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18세기 이후 향촌은 사족의 물적토대와 지배력이 이완되면서 분화를 겪게 된다. 동족촌의 分村과 分洞, 新村의 등장은 향촌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련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 지리적인 반영이었다. 향촌사회의 다변화추세는 임진강 유역내 취락의 발달에도 반영되어 기존의 도회 · 농촌 · 산촌과는 주민의 구성이나 취락의 기능, 또는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사원촌, 능원촌, 서원촌, 역촌, 산직촌, 휴양촌, 광산촌, 수공업촌, 시장촌, 일본인촌 등의 특수기능촌락의 성장을 초래하였다.

寺院村은 삼국시대 이후 형성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사원은 불교와 관련된 의례가 행해지고 교리가 설파되는 중심 공간으로 비단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도 시대를 내려오면서 사회적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원촌은 佛宇에 기거하는 승려를 포함하여 노비, 사원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 등으로 구성된 촌락을 의미한다. 초기에 佛地村 혹은 僧道(徒)村으로 불리기도 했던 사원촌은 본사, 속원, 시지, 전답이 분포하는 사방에 '長生標' 등을 설치해 경내 · 외를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원촌은 在家僧과 같은 하급승려의 隨院僧徒村, 房, 院 등을 예하에 두고 있었는데 모두 사찰 본당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입지시켰다.[53] 고려시대의 사원은 신왕조의 성립이후 대폭 정리되었으나 유명사찰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

52)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下篇)』, 朝鮮總督府, 1933, 219~220쪽.

53) 배상현, 「高麗時代 寺院村落 硏究」, 『國史館論叢』 87, 1999, 106~107, 115쪽.

조선 전기 임진강 유역내의 주요 사찰로는 양주의 檜岩寺, 奉先寺, 中臺庵, 白雲庵, 逍遙寺, 小雲庵, 高嶺寺, 파주의 金剛寺, 上場寺, 龍床寺, 靈隱寺, 영평의 白雲寺, 圓通寺, 寶藏寺, 포천의 水源寺, 安養寺, 香積寺, 海龍寺, 成佛寺, 적성의 紺嶽寺, 雲溪寺, 神岩寺, 교하의 黔丹寺, 장단의 華藏寺, 昌化寺, 靈通寺, 興聖寺, 聖燈岩, 洛山寺, 安積寺, 證覺寺, 삭녕의 觀音寺, 將軍寺, 연천의 五峰寺, 토산의 石頭寺, 金雞寺 夕陽寺, 上雲寺, 文殊庵, 大寺, 철원의 石臺寺, 地藏寺, 深原寺, 聖住庵, 知足庵, 龍華寺, 雲隱寺, 積石庵, 이천의 葛山寺, 小林寺, 陽陰寺, 평강의 幽寂寺, 圓寂寺, 금화의 普賢寺, 水泰寺, 三申寺, 안협의 巖泉寺, 深谷寺, 修道寺 등을 들 수 있다.[54] 장단 장단군 진서면 大院里에 소재한 華藏寺의 경우 1930년 당시 30호, 78인의 승려로 구성된 사원촌으로 이 가운데 35명은 자신 명의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경지를 가지지 못한 주민은 기존의 관행대로 托鉢로 시주를 받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55] 대원동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는 佛日洞이 있는데 이 역시 사원촌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불일동이 위치한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고려 문종의 景陵이 나타난다. 동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경릉리이다. 陵園村은 대부분 이러한 식으로 형성되고 촌락명도 결정되었다. 마을 바로 옆에는 山直洞이 위치해있는데 능원의 관리를 책임진 '산지기'의 마을인 것 같다. 장단읍치 서쪽에는 고려 肅宗의 능이 소재한 英陵內村이 있고 인접해서 明宗이 잠들어 있는 智陵洞이 위치한다. 유명왕릉과 능의 관리를 위해 조성된 능원촌은 그 밖의 지역에도 다수 존재한다.[56] 마전의 崇義殿은 고려건국과 통치에 공헌한 8왕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선 태조에 의해 건립된 祀廟이다.[57] 사묘가 위치한 곳의 명칭 역시 '陵洞'으로 나와있다.

전산업시대 주요 교통 · 통신시설인 驛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驛吏, 驛保, 驛奴婢의 촌락공동체를 驛村이라고 부른다. 역민은 신분상으로는 양민이지만 직역이 천하여 흔히 身良役賤으로 분류되는 신분계층이다. 다시 말해 역민은 노비보다는 상층이지만 양인보다는 하층에 해당된다. 역과 역촌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소급되지만 당시의 실정을 밝혀줄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역민의 신분상의 위치와 대우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역노가 양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從母法의 예에 따라 양인의 신분으로 역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러한 기회는 많지 않았던 듯하다. 역촌은 1895년 역원의 폐지 이후에도 '천한 사람이 사는 동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를 밝히기를 꺼린다.[58] 특수한 신분층의 집단거주지인 역촌은 馬房이나 馬祖壇과 같은 시설물과 함께 규찰을 목적으로 세워놓은 里門을 경관상의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 驛道의 本驛에는 종6품의 察訪이 주재하기 때문에 지방의 縣級 설비가 마련되는 것이 보통인데 임진강 유역에는 그러한 본역이 없었다. 桃源驛은 본역이었지만 종9품관이 주관한 驛丞道인 桃源道의 본역이었기 때문에 촌락이 일반 역촌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임진강 유역에는 이 밖에도 梁文, 安奇, 馬山, 湘水, 丹棗, 仇火, 東坡, 白嶺, 玉溪,生昌, 乾川, 林丹, 玉洞,

54) 『新增東國輿地勝覽』 佛宇條.

55)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中篇)』, 朝鮮總督府, 1933, 303~304쪽.

56) 朝鮮總督府刊, 1918년 1:50,000 지형도 참조.

5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3 麻田 祀廟條.

58) 驛婢勿論良賤夫所生幷爲驛奴婢, 驛奴娶良妻所生自顯宗朝己酉從母許良後自任子男爲驛吏女爲驛女, 驛吏娶公賤所生自顯宗朝甲辰男女幷從母役, 驛女嫁良夫所生南依弘治受敎爲驛吏而自今甲子六月始爲申明今辛酉式形上案入錄已屬他役者勿爲推尋, 驛女嫁良夫所生女依他良女所生例勿爲屬驛而今辛酉式年形止案入錄已服驛役者仍爲屬驛(版籍司,『度支志外篇』 驛奴婢節目).

龍潭, 豊田 등의 제 驛과 驛村이 있었다. 역촌은 신분세습과 주거지 이동에 대한 제약이 강해 동족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역리의 성씨 중에는 大姓도 있다.[59]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溫泉이 발견되어 일찍부터 휴양촌으로 발달한 곳도 있다. 신분의 구분이 철저했던 전제왕권시대에 온천을 이용했던 계층은 사대부나 득세한 관료층이었다. 이천에는 寺洞溫泉과 仇里項溫泉의 명성이 높았다.[60] 방장면 귀당리 갈산동에 위치한 사동온천은 갈산온천으로도 불리는데 1930년대초의 한 조사에 따르면 13세대 78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근처에는 金剛山 楡岾寺의 分院인 甘露寺가 있어 갈산동민과 함께 온천의 관리와 운영을 맡아 보았다. 4평 남짓한 공간에 널판으로 지붕과 벽을 막아 2평 규모의 욕탕을 만들고 1평을 탈의실로 이용하는 평면구조를 하고 있었다. 욕조는 자연석으로 깊이 약 1.2m 정도가 되도록 축조하였다. 온천수는 큰 변화 없이 연중 48℃의 평균온도를 유지하였으며 木桶을 통해 탕 안으로 떨어지게 설계되었다. 용출량은 분당 70리터 정도였다. 13세대 가운데 9호는 여인숙을 운영하며 한 가구는 음식점이었다. 일용품은 약 10㎞ 떨어진 佳麗洲場에서 조달하였다. 3개년 평균한 수치상으로 이용객은 가을철 1,050명, 봄철 1,000명, 여름750명, 겨울 250명으로 계절적인 차이가 있었다.[61]

광업은 청동기시대를 전후해 초보적인 형태로 지속되다가 영역국가의 출현과 함께 철기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활성화되었다. 한반도 중부내륙에 위치한 임진강 유역은 타 지역에 비해 광물자원이 집중 분포하지는 않지만 철과 금 등 몇 몇 중요한 자원의 채굴역사는 일천하지 않다. 우선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林園十六志』, 『古事新書』, 『輿載撮要』 등의 전적과 조선후기의 각종 지지서, 일제강점기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임진강 유역에는 금, 은, 동, 철, 아연, 석회 등 중요한 자원이 늦어도 조선시대에는 채굴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광물은 영평의 동철과 수철을 비롯하여 금화의 석철, 안협의 석철, 평강의 금 · 은 · 연 · 철, 토산의 수철, 양주 · 삭녕 · 교하의 은, 안변의 은 · 동, 파주의 석회, 철원의 금 · 아연, 장단의 대리석, 이천의 철 등 여러 지역에 걸쳐 분포하였다.

철은 水鐵(무쇠)과 熟鐵(시우쇠)로 나뉘는데 전자가 주로 가마솥이나 농기구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반면, 후자는 창검이나 화살촉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貢鐵 가운데 수철은 繕工監에, 숙철은 軍器監에 납부되었다.[62] 이 지역에서는 주로 무쇠가 출토되었으며 생활용품이나 농기구를 제작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된 것 같다. 鉛銀分離法이 개발된 19세기초 이후에는 은의 채굴이 활성화되었다. 효종 2년(1651)에는 호조에서 파주, 교하, 곡산, 춘천, 공주 등지에 銀店을 설치하고 업자에게 은을 채굴할 수 있는 허가권을 부여한 다음 別將을 차송해 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책을 발표하였다. 은점은 이후에 계속 늘어 68개 읍으로 늘었고 임진강 유역에는 파주와 교하 외에도 안변, 이천, 평강, 삭녕, 양주 등에 설치되었다.[63] 銅의 존재가 확인된 지역은 많았으나 제련법이 발달하지 못해 일본에서 수입해 충당하였다. 그러나

---

59) 호적대장을 구할 수 없어 임진강 유역에 역리동족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타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一研究」, 『朝鮮社會經濟史研究(中)』, 國書刊行會, 1976, 58~59쪽.

60) 溫泉二, 縣北 七十五里 寺洞, 縣北 官門里(『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61)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中篇)』, 朝鮮總督府, 1933, 463~465쪽.

62) 柳承, 『朝鮮時代 鑛業史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宙, 1993, 35쪽.

63) 『萬機要覽』 財用篇 4, 金銀銅鉛: 坡州居前司評李源 以本州有銀穴 上疏請試採之 朝廷令本州發卒掘取 議者皆言穴犯長陵山脈 上遣觀象監提調呂爾徵 率相地官往審之 爾徵圖形以進 上以爲鑿穴寢廣 必傷陵後山脈 命罷其役 仍令本州塡土植木 爲永久禁標之地(『孝宗實錄』 권7, 2년 7월 乙酉).

안변의 영풍에서 출토되는 永豊銅은 품질이 우수하여 통화를 주조할 때 일본동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64] 이들 광물이 채굴되는 지역에는 鑛山村이 형성되었다. 광산촌은 조선시대 광업 발달의 일반적인 추세, 즉 초기의 賦役制에 기초한 官營鑛業에서 設店收稅制를 바탕으로 한 半民營鑛業, 상업자본가인 物主와 현장의 穴主 · 德大간 관리와 경영의 분리를 기초로 한 民營鑛業의 출현과 맥을 같이하면서 발달하였다. 과거 부역의 현장에 불과하던 지역이 이제는 상주촌락이 되었던 것이다.[65]

귀금속을 대표하는 금과 관련된 기록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역마다 활발하게 채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영평의 萬世橋 인근은 사금광으로 알려져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이 채굴해 사용하였는데 열강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한말에는 영국의 怡和洋行이 1883년 묄렌도르프와 계약을 맺고 이 곳의 사금광에 대한 채굴권을 인수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이화양행은 즉시 채굴업자를 파견하고 광업 설비를 장착하여 업무에 들어갔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사금을 채취해 오던 현지주민과 충돌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물러나기도 하였다.[66] 일제 강점기인 1924년 金允玉은 평강에서 3,600톤 규모의 금 · 은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 생산액이 10,800円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장단 장도면 社梅里에서는 5,000평 규모의 綠대리석 광산이 있었으며 여기서 나온 석재는 소달구지에 실려 개성역까지 운반되었다.[67] 양주 이담면 安興里에도 약 4,000평 규모의 대리석광산이 있었으며 선박과 인력거를 이용해 동두천역까지 운반되었다. 1930년대 규모가 큰 광산촌으로는 포천 영중면 金珠里의 永中鑛山을 들 수 있는데 3가구 5명의 일본인이 진출해 있었고, 나머지 210가구 998명의 현지주민 중 상당수가 금, 은, 동의 채굴에 관여하였다. 평강 고삽면 北平里의 佑益鑛山은 금, 은, 납, 아연을 생산하였으며 마을 규모는 259가구 1,373명이었다.[68]

1910년 이후 일본인의 진출은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30년 통계상으로는 115,935세대의 일인가정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총인구 501,867명의 규모이다. 일본인 이주민은 주로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하였으며 이 밖에 상업, 운수업, 공업, 농업, 어업 등에도 상당수가 진출해 있었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식량증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과거 소작인으로 일했던 일인 빈농의 한반도 진출이 본격화되었는데 총 10,505호의 농가가 파악되고 있다. 이주민 대다수는 자유이민의 형태로 유입되었지만 개중에는 東洋拓植株式會社, 不二農村産業組合, 平康産業組合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농업이민의 알선과 서류절차가 처리되었다. 이들 기관에서는 이주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일정 면적의 토지를 저가로 불하해주고 농사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구, 농우 등을 낮은 이자로 대여하는 등 정착을 적극 돕고 있었다.[69] 평강산업조합은 일인 加藤寬治의 주도로 경원선철도 평강역 부근의 용암대지상에

64) 我東亦自産銅 而不知吹鍊之法 公私所需 全用倭銅 英宗辛酉始採遂安寧越銅 其後又採報恩安邊銅 而其所吹鍊 終不如倭銅不得行用 正宗乙巳戶曹鑄錢時參用安邊之永豊銅 自是以後連用於鑄錢(『萬機要覽』 財用篇 4, 金銀銅鉛).

65) 柳承宙, 『朝鮮時代 鑛業史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66) 據怡和洋行 司密哲稟稱 上年朝鮮政府與本行立定合同 前往內地開 現今遵照合同 在京畿道永平萬世橋開辦金 乃是處有朝鮮人民私於 處 四下控採生金 顯係違背合同 致本行有妨 因此稟懇 轉淸朝鮮官府 派一有權委員 率帶一役前往 庶使諸民遵其訓誡(『英案』1, 1884년 8월20일, 李培鎔, 『韓國近代鑛業侵奪史硏究』, 一潮閣, 1989, 131쪽에서 재인용).

67) 善生永助, 『朝鮮の物産』, 朝鮮總督府, 1927, 464~466, 481쪽.

68)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中篇)』, 朝鮮總督府, 1933, 589, 591쪽.

토지 500정보를 매입하였다. 이후 저수지를 축조하여 수리관개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마친 다음 논밭 각각 250정보씩 조성하고 농가 100호를 이주시켰다. 1928년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3년 후에는 논농사가 시작되어 1단보 평균 3석, 한 가구당 75석의 소출을 낼 수 있었다. 이 곳에는 43호 104명의 茨城縣출신 농민이 진출해 있었다. 이보다 앞서 1913년에는 福岡縣에서 10가구 46명 규모의 농업이민이 개풍군 동면 백전리 新村洞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東拓 소유의 경지를 소작하였고 마을에는 公立尋常小學校도 설치되었다.[70]

4. 인구의 성장

취락의 발달은 인구의 성장을 전제로 한다. 인구학에서는 근대적인 의학기술의 도입 이전의 인구변천단계를 높은 사망률과 높은 출생율에 의해 규정되는 저 성장률의 단계로 보고 있다. 문헌기록이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왕조 개창 이후 19세기 말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기근, 풍수해, 한해, 전염병, 전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인구감소로 이어졌다.[71] 그러나 농업생산력이 괄목하게 증대되는 조선 후기가 되면 인구증가 추세가 일층 뚜렷해진다. 고대 이래 임진강 유역은 인구의 자연증가 외에도 지역간 이동에 의한 사회적인 증가 또한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구는 조세와 병역의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왕조의 교체와는 상관없이 인구조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戶口單子에 기초한 호구조사는 매 式年마다 시행되었고 참고할만한 기록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초점이 丁男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국가 전체 혹은 지역 전체의 인구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애로가 많다. 일례로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호수는 3丁1戶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編戶로 개념상 元戶와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편호의 지역간 비교에 의한 조선 초기의 인구상황은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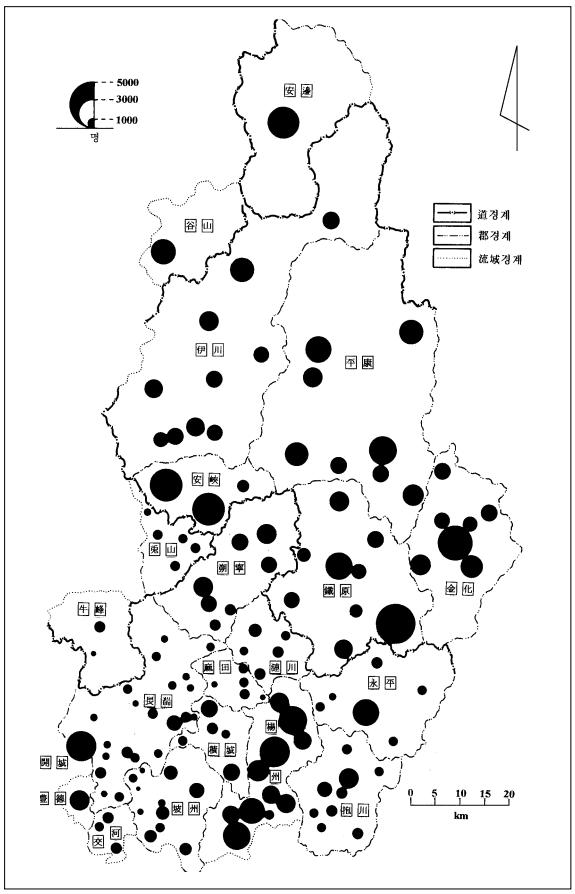
15세기 당시 임진강 유역의 일부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군현의 편호수를 보면 양주의 1,481호가 최대, 영평의 138호가 최소가 된다. 그 중간에 들어있는 군현의 편호 규모는 안변 1,030호, 해풍 792호, 우봉 778호, 교하 590호, 원평 494호, 토산 376호, 포천 371호, 임강 364호, 철원 351호, 이천 333호, 임진 274호, 삭녕 233호, 적성 212호, 연천 186호, 금화 181호, 장단 170호, 평강 163호, 마전 146호, 안협 140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양의 편호는 5부의 17,115호와 성저십리의 1,769호를 합한 18,884호로 기록되었다. 총 4,819호를 보유한 지역중심지 개성과 비교하면 원평의 인구는 개성의 10.3%, 토산은 7.8%, 이천은 6.9%, 삭녕은 4.8%, 마전은 3%, 영평은 2.9%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인구가 유역 동부와 북부의 山邑을 피해 남서부 野邑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보다 구체적인 인구통계는 18세기 말엽에 작성된 『戶口總數』에서 추출할 수 있다. 당시의 기록을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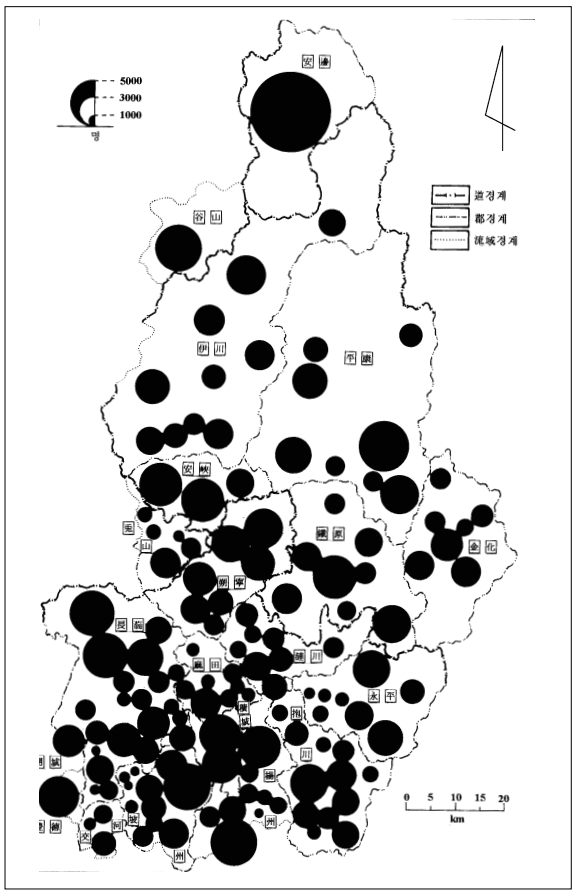
69)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中篇)』, 앞의 책, 1933, 8~12쪽.
70)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中篇)』, 앞의 책, 1933, 14~15, 23~24쪽.
71) 權泰煥 · 愼鏞廈, 「朝鮮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 『東亞文化』 14, 1977, 320~322쪽.

로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임진강 유역에는 총 185,57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인구밀도는 22.2명/㎢로 계산되었다. 유역내에는 총 132개 면이 있었으므로 면당 평균거주자는 1,406명 수준이었다. 면별 인구로는 철원 갈말면의 4,107명이 최다였다. 10위권 내 나머지 9개면은 금화 현내면(3,669), 안협 현내면(3,419), 안협 서면(3,381), 안변 영풍사(3,289), 양주 이담면(3,138), 개성 동면(3,136), 양주 청송면(2,882), 평강 현내면(2,822), 양주 백석면(2,778), 철원 서변면(2,763)으로 대체로 한양과 개성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山邑이라 하더라도 중심지에 가까운 면들이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파주 운천면은 단지 1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 밖에 인구가 적은 면은 김천 소남면(412), 파주 신속면(434), 마전 화진면(436), 적성 현내면(445), 파주 조북면(483), 장단 하도면(508), 장단 고남면(510), 적성 읍내면(529), 마전 서면(538) 등으로 대부분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野邑들로 채워지고 있다(그림 20). 이러한 분포 패턴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하겠다. 전산업시대 동양사회의 행정력은 지역간 경제적인 잠재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농업생산성이 높은 하천 하류지역은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내실있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역대 전제왕권국가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72]



〈그림 20〉 임진강 유역의 인구분포(1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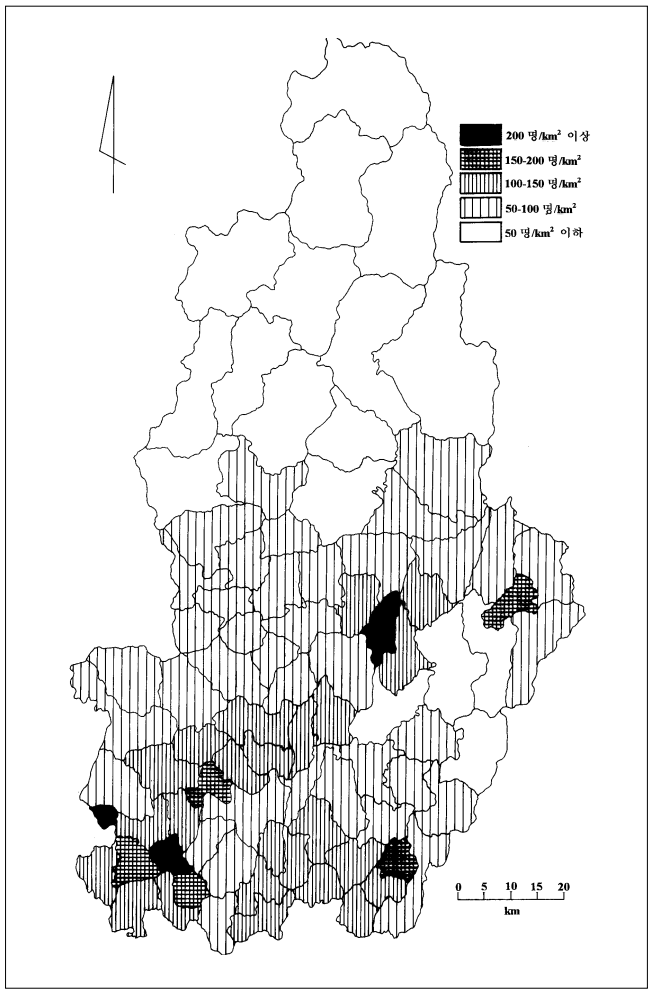


〈그림 21〉 임진강 유역의 인구분포(1910)

72) G. William Skinner, "Cities and the Hierarchy of Local Systems," in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275~351.

1910년의 인구는 약 88% 증가한 349,072명으로 조사되었고 인구밀도 역시 88% 신장된 41.8 명/㎢으로 계산되었다. 일부 지역의 분할로 총 면수는 3개 면이 늘어난 135면이 되었으며 면별 평균인구는 84% 증가한 2,586명으로 나타났다.[73] 18세기 후기의 기록과 비교하면 면별 인구규모에서 약간의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안변 영풍사가 8,675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였고 뒤를 이어 평강 현내면(5,122), 곡산 동촌면(5,087), 파주 천현면(5,080), 양주 백석면(4,889), 장단 소남면(4,771), 장단 대남면(4,741), 철원 서변면(4,693), 안협 서면(4,512), 토산 군내면(4,491) 등이 모두 상위에 올라있다(그림 21).

20년이 지난 1930년의 통계상으로 유역내 총인구는 61% 증가한 564,181명이 되었고 인구밀도 역시 동일 비율로 상승해 67.5명/㎢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라 한다면 1914년 있었던 행정구역개편을 계기로 임진강 유역이 양주, 연천, 포천, 파주, 장단, 개풍, 김천, 곡산, 금화, 철원, 평강, 이천, 덕원 등 13군 87면으로 통합 · 정리된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면당 평균인구가 6,485명으로 151% 성장하였다. 철원의 철원면은 15,458명의 유역내 최다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강의 고삽면이 14,40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북단에 위치한 덕원의 풍상면에도 의외로 12,312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다. 인구 10,000명을 넘는 지역으로는 평강의 평강면(10,650)과 철원의 동송면(10,444)를 추가할 수 있으며 10위권내에 속하는 나머지 지역에는 9,0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동면의 인구는 3,243명으로 최소치이며 김천의 월성면(3,435), 김천의 숙인면(3,486), 연천의 북면(3,578), 이천의 동면(3,601), 개성의 동면(3,820), 포천의 이동면(3,965) 등도 4,000명 이하의 인구를 보유한 소규모 지역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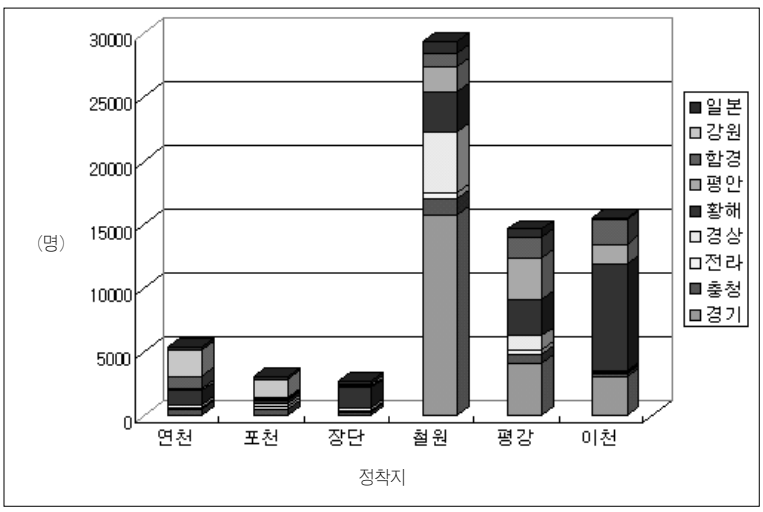
〈그림 22〉 임진강 유역의 인구밀도(1930)

인구밀도를 계산해 면별로 비교한 결과 철원 철원면(336.5명/㎢)이 가장 조밀한 지역이 되었다. 다음은 개풍군 동면으로 275.8명/㎢의 밀도를 보이며 수위인 철원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파주 임진면(210명/㎢)도 밀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 그 이하 장

73) 1910년의 인구상황은 이헌창이 정리한 1910년 민적통계표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되었다(이헌창, 『民籍統計表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7).

단 진남면(183.6명/㎢), 금화 금화면(166.8명/㎢), 장단 장남면(163.9명/㎢), 파주 주내면(154.1명/㎢), 포천 군내면(151명/㎢), 철원 동송면(142.2명/㎢), 포천 소흘면(139.6명/㎢) 역시 상위에 들어있다. 인구밀도 50명/㎢ 이하인 지역은 유역 북부와 동부 산악지대이며 전체적으로 남북간 대조가 뚜렷하다(그림 22). 고밀도지역은 임진강 하류를 따라 대상으로 분포해있으며 양주와 철원에 이차 고밀도지대가 나타나는데 모두 京元線의 통로라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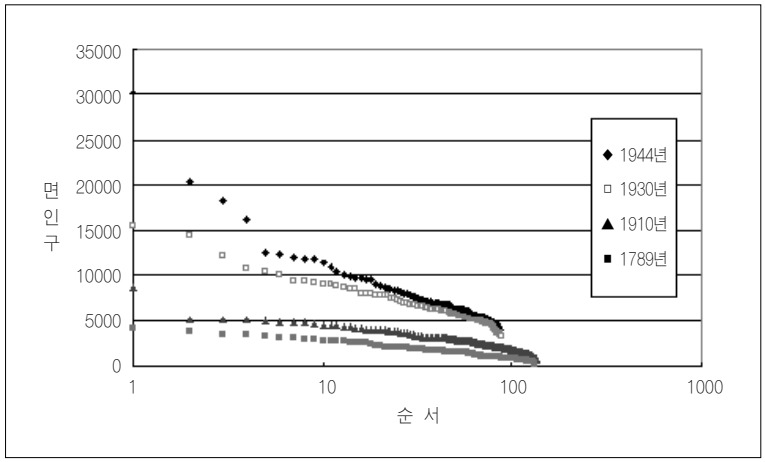
당시 철원에는 많은 수의 외지인이 정착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74] 철원과 함께 군 거의 전체가 임진강 유역으로 분류되는 연천, 포천, 장단, 평강, 이천의 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해보면 철원에는 타도 출신과 931명의 일본인을 포함해 총 29,385명의 이주민이 있었다. 이천에도 15,602명의 타지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평강으로는 이 보다 약간 적은 14,675명이 이주해 있었다. 평강에 거주하는 일본인 647명이라는 수치는 다음으로 많은 연천의 264명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나머지 3개 군의 전입자수는 연천 5,394명, 포천 3,055명, 장단 2,715명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지역의 전입자 70,816명의 출신지를 보면 32%에 해당하는 23,048명이 경기도에서, 24%인 17,102명이 황해도에서 이주해 왔다. 나머지 출신 지역의 비중을 보면 평안도 7,350명, 경상도 6,998명, 함경도 5,719명, 강원도 3,790명, 충청도 3,380명, 일본인 2,285명, 전라도 1,154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은 인근지역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도를 제외하면 남부지방에서는 극히 적은 수의 이주민을 보내왔는데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라는 환경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철원에는 경기도, 경상도, 황해도 출신이, 평강에는 경기도, 평안도, 황해도출신이, 이천은 황해도, 함경도, 경기도 출신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그림 23).



〈그림 23〉 이주 인구의 출신지별 분포(1930)

광복 직전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임진강 유역에는 총 664,84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30년의 인구에 비하면 17.8%가 증가한 셈이다. 인구밀도는 단위면적당 79.5명으로 약 17.8% 높아졌다. 2개 면이 줄어 전체 85면이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면당 거주인구는 7,822명으로 20.6% 늘었다. 철원군 철원읍은 30,186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유역내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평강군 평강읍은 이보다는 적지만 20,347명의 인구를 보유해 역시 타 지역보다 상위의 지역이 되고 있다. 그 뒤로는 평강의 고삽면(18,411)과 현내면

74)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참조.



〈그림 24〉 임진강 유역 취락체계의 변천(1789~1944)

(16,219), 철원 북면(12,637), 장단 장단면(12,378), 철원 어운면(12,088), 철원 동송면(11,943), 김화 김화읍(11,887), 연천 연천면(11,439) 등이 따르고 있다.[75]

이상의 인구변화 추세를 요약한다면 임진강 유역은 1789년 이래 광복 직전까지 절대인구와 인구밀도에서 무려 258% 이상의 증가를 경험하였고, 소속 면의 수치는 출발 당시 134개였던 것이 85개로 줄어 들었다. 상위 행정계층인 면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자연촌의 성장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인구의 성장은 곧 취락범위의 확대와 취락수의 증대를 동시에 수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취락기능과 취락구조의 변화도 이에 수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면별인구에 기초한 취락체계의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작업가설은 소지역단위에서 산전과 수전을 일구어 생활하던 반 자급자족적인 사회가 상품 · 화폐경제의 발달로 취락의 기능이 고도화 · 전문화되면서 취락내부에 계층화와 다변화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24〉에서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래프의 구간별 기울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취락체계가 수평적인 체제에서 수직적인 체제로 바뀐다는 것은 취락의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수위면의 중심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상위 계층에 속한 여러 면의 부상이 확연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를 말해 준다. 철원의 중심성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주목된다.

5. 농·산촌 경제의 발달

한반도에서 농경의 단초가 마련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당시는 어로, 수렵, 채집 등 소위 약탈경제가 주가 되고 농업은 부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정착생활이 심화되는 B.C 1500~1000 경에는 이동경작의 형태로 농토가 활용되었는데 주요 재배작물은 육도의 경작이 이루어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보리, 콩, 팥, 조, 수수, 기장 등 밭작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고대국가의 틀이 확립된 이후 철제농구를 이용한 심경이 보급되면서 休閑期間도 4~5년 정도로 크게 줄었다. 고려시대에는 2년 휴한하는 再易田이 보편적으로 시행될 정도로 농업이 발달하였다. 늘어나는 농업노동력과 시비 · 제초와 관련된 선진농법의 도입으로 조선초기의 농업은 수전에서 1년 1작, 한전에서 2년 3작을 무

75) 朝鮮總督府, 『1944年 人口調査報告』 참조.

리없이 실시할 정도의 수준에 이미 올라서 있었다.[76]

임진강 유역은 기후의 제약으로 농업발달의 일반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속도가 三南이나 기타 연해지에 비해 다소 늦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상류지역은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륙성기후의 전면에 들고 있어 영농에는 극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조선후기까지도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물은 조, 보리, 두류 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류지역에는 벼가 일찍 보급되기는 했지만 벼 1말을 심어 30말 이하의 소출을 거둘 뿐이었다. 삼남 일부지역에서 60말을 생산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저조한 기록이다. 섬유작물의 보급과 재배 또한 늦어 산간 주민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짐승가죽으로 조잡하게 만든 의복을 착용하였으며 무명이나 솜바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산삼이나 짐승가죽을 상인의 옷감과 물물교환하는 것이었다.[77]

이처럼 농경에 불리한 자연환경 때문에 상경연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대부분의 경지는 휴한을 매개로 조방적으로 이용되었다. 인력부족도 농업부진의 한 요인이었다. 앞서 언급한 조선초기의 徙民策은 정치 · 군사적인 취지 못지 않게 한광지 개간이라는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측면도 있다.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민책과 권농책은 이 지역의 농업발달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조정에서는 이거한 민호에게 일정기간의 면세를 전제로 개간을 독려하였고, 삼남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였으며, 경작에 필요한 종자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농기구와 농우 등은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등 임진강 유역을 포함한 북방의 농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권농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元居人의 도움도 컸다. 이러한 시책에 힘입어 임진강 유역은 농경지의 확대와 농업생산성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척박한 토양과 한랭한 기후조건에서 오는 제약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수전보다는 한전농업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고 상경할 수 있는 곳도 유역 남서부에 국한되었다.

한전에서 조방적으로 재배되는 곡물은 풍토상의 이유로 보리, 밀, 기장, 조가 중심이 되었으며 無霜日數가 짧기 때문에 같은 곡물이라도 조생종(早穀)을 주로 경작하였다. 보리와 밀은 전국적으로 춘궁기를 넘기는 데 긴요한 작물이었다. 조는 품종이 다양하지 않고 낱알이 작지만 수확량이 많아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작물이었다. 기장 역시 밭작물의 주종이었다. 한전운영의 초점은 早種早熟한 작물을 수확한 이후 바로 晩種早熟하는 곡물을 심어 경작의 연속성과 수확량 증산을 동시에 꾀하는 데에 맞추어졌다. 주곡인 조의 경우 占勿谷은 5월에, 기장 가운데 姜稷은 6월 상순경에 파종할 수 있는 晩種早熟하는 품종이었다.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콩과 메밀도 晩穀으로는 적격이었다. 정부는 또한 곡물을 單作하여 수해, 상해, 한해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失農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交種 · 雜種法과 같은 作

76) 李泰鎭, 「한국의 農業技術 발달과 문화변천」,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13~25쪽.

77) 故土沃爲上 舟車人物都會可以貿遷有無者次之 土沃謂地宜五穀又宜木棉 而水田種稻一斗收六十斗者爲上 次則收四五十斗者 收三十斗以下者土薄而不堪居矣… 漢北則大抵土瘠 東自江原道西至開城府水田一斗所收不過三十斗 其下者又不及此數矣 江原道之嶺東九縣以至咸境道土尤瘠 黃海道沃瘠參半… 田則峽邑多種粟 海邑只種豆麥 野邑山海俱遠處無所不宜 木棉則兩南爲最無論峽土海土皆宜種 自江原道嶺東北至咸境道俱闕種雖種之不成 江原嶺西則山氣凄寒尤不宜種… 京畿漢水以北山邑則山高水冷亦不宜種(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條); 咸興以北 山川序險風俗勁悍 土寒地脊穀惟粟麥少 稻無綿絮 土人衣狗皮禦冬耐飢寒一如女眞矣 山饒貂蔘民以貂蔘換南商之綿布方得衣袴 然非富厚者不能也(『擇里志』 八道總論).

付方式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섬유작물인 목화의 보급과 관개수원 근처의 한광처를 수전으로 개발하는 방책도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는 수전에서는 한랭한 기후에 적합한 품종이 재배되었으며 특히 早生種과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不畏風種이 널리 보급되었다. 뒤늦게 심어도 50일이면 숙성할 수 있다는 五十日稻나 救荒稻는 좋은 예이다.[78]

평지에 개발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전은 산록이나 산복에 위치한 山田이었다. 경작 당시 熟田인 산전은 대개 화전으로 출발하였다. 화전은 조선 중기가 지나기 전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추세를 반영하듯 成宗은 기존의 방침을 바꾸어 기경된 화전에 대하여 수세하도록 교지를 내리고 있다.[79] 화전은 과중한 부역을 피할 수 있고, 세율이 평전에 비해 낮으며,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개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많은 노동시간이 소요되는 김매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력이 다하면 인근의 땅을 새롭게 일구어 시비를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었다. 안정적인 소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야읍에서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화전민은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화전만이 갖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18세기 이후 화전은 단순히 빈농의 생계유지수단에 그치지 않고 양반사대부, 부농, 궁방의 농경지확대의 표적이 되었다.[80] 수세의 방침이 정해진 이후 화전은 成案되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지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제외하면 각종 부과세가 빠져있어 평전에 비해 전체적인 부담이 훨씬 적었다. 화전작물로는 기장, 조, 메밀, 보리, 밀 등이 있었으며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火焚한 뒤에 조성된 경지에 종자를 살포하는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지개간은 삼림의 남벌, 토양유실, 수원고갈, 민란의 위험 등을 초래할 소지가 많아 일부 식자층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81]

임진강 유역내 화전의 소재와 규모를 밝혀줄 火田量案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제시할 만한 통계는 없지만 1842년에 작성된 『邑誌』에는 영평현에 6結6負의 화전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871년의 기록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郡內面 1結56負5束, 西南面 7結74負2束, 一東面 3結5負7束, 二東面 3結87負4束의 규모로 화전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 『漣川縣邑誌』 전세조에는 山火田 48負에 대한 상납액으로 대두 2斗8升4合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1871년간 읍지에는 官廳式例에 火田米 16石9斗4升2合을 관청납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단 두 곳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화전이 지역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는 1930년 전후한 시기에 작성된 조사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1929년 현재 전국적으로 52,443호의 순수화전농가와 187,948호의 겸업화전농가를 합친 240,390호가 화전을 경작하고 있었다. 화전민은 1,213,16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들에 의해 경작되는 화전면적은 약 393,000

78) 李景植, 「朝鮮初期의 北方開拓과 農業開發」,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Ⅱ)』, 지식산업사, 1998, 61~110쪽.

79) 戶曹據江原道巡察使啓本啓 本道山田多而平田少 雖山上山腰之田 地勢不甚傾側 土品肥厚 累年耕治處 則打量續案施行 其餘年年換耕火田 則勿錄續案 每秋審 隨耕隨稅何如 從之(『成宗實錄』 12년 丙申 10월).

80) 李景植, 「朝鮮後期의 火田農業과 收稅問題」, 『韓國文化』 10, 1989, 161~171, 181쪽; 申虎澈, 「朝鮮後期 火田의 擴大에 대하여」, 『歷史學報』 91, 1981, 57~67쪽.

81)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自數十年前山野皆被開墾爲耕稼場 而村落相接山無寸木 以此推之他邑亦可知其同然可見..聖代生齒之漸繁而山川亦多勞困矣.

정보에 달하고 있다.[82]

이 가운데 임진강 유역에 일부 혹은 전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만을 차출하여 확인해 본 결과, 화전을 전업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이천군의 1,403호를 필두로 금화군 643호, 평강군 421호, 덕원군 338호, 김천군 273호, 장단군 218호, 곡산군 192호, 철원군 111호의 규모로 분산되어 있다. 겸업화전농가 역시 이천의 2,096호가 최대였다. 다음으로는 곡산 1,773호, 금화 1,058호, 장단 807호, 덕원 673호, 김천 513호, 평강 445호, 철원 140호의 순으로 이어진다. 개풍, 포천, 파주에는 화전경작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없는 대신 겸업농가가 각각 318호, 67호, 18호씩 존재하였다.[83]

화전이 개간 후 점차 숙전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는 화전의 비중이 더욱 컷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 지역의 잠재력이 인구와 농업생산력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던 당시 임진강 유역에 화전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자연환경의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취락발달을 위해서는 집약적 농경을 대표하는 수전농업을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대의 인식으로도 연천, 마전, 삭령과 東郊인 포천과 영평, 西郊인 적성, 파주, 교하 모두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많은 사대부가 기회를 노리며 칩거하기 좋은 지역이었지만 농업여건이 좋지 못해 잔반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궁핍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다.[84]

보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진강 유역의 경제력을 대표할 만한 직접적인 지표로 전결수를 활용하여 군현간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시기상으로 가장 앞선 것은 『世宗實錄地理志』에 명기된 墾田의 면적으로 조선초기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이다(표 28). 통계상으로 5,000결 이상의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군현은 양주, 안변, 우봉, 원평 등 4개 지역이지만 이 가운데 원평을 제외하면 군현의 일부만이 임진강 유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교하와 토산도 유역 내외에 경역이 걸쳐있기 때문에 표에 기록된 절대수치만으로는 유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5,325결의 경지를 보유한 원평이 유역내에서는 경제력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잠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뒤로는 철원, 포천, 임강, 삭녕, 평강 등이 이어지며 장단, 안협, 마전 등은 전결수가 가장 미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전결수 보다는 수전면적이 더 의미 있는 수치라고 판단되는데 문헌상에 개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비율로 계산해 파악해 본 결과 원평에 약 2,100결에 달하는 유역내 최대면적의 수전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하는 약 2,250결의 수전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恭陵川 이남의 땅이 한강 유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진강 유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전의 면적은 1,000~1,200결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은 총경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1,280결이 수전으로 분류되어 경지가 가장 내실있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용암대지상에 위치한 철원 역시 내륙에 위치한 군현으로는 이례적으로 1,000결을 상

82)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上篇)』, 朝鮮總督府, 1933, 695쪽.

83) 善生永助, 『朝鮮の聚落(上篇)』, 朝鮮總督府, 1933, 695~700쪽.

84) 李重煥, 『擇里志』八道總論, 楊州抱川加平永平爲東郊 高陽積城坡州交河爲西郊 二郊具土薄民貧少可居處 士大夫家貧失勢下三南者能保有家勢 出郊者寒儉凋殘一二傳之後多夷爲品官平民矣.. 臨津東有漣川麻田北有朔寧直漢陽北百餘里 水道通二京然竝土薄民貧少可居處.

회하는 수전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포천, 임강, 장단, 적성 등 500결 이상의 수전을 가진 군현은 예외 없이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野邑이었다.

〈표 28〉 임진강 유역의 경지분포(15세기)

군현	墾田	수전비율	수전결수	군현	墾田	수전비율	수전결수
양주부	15190결	약 30.0%	약 4600결	이천현	3310결	약 0.3%	10결
안변부	13957결	약 10.0%	약 1400결	김화현	3288결	약 4.3%	143결
우봉군	6820결	약 0.8%	55결	적성현	2663결	약 20.0%	약 530결
원평부	5325결	약 40.0%	약 2100결	임진현	2571결	약 50.0%	약 1280결
철원부	4342결	약 25.0%	약 1080결	영평현	2487결	약 12.5%	약 310결
교하현	3956결	약 57.0%	약 2250결	토산현	2033결	약 1.6%	33결
포천현	3948결	약 25.0%	약 990결	연천현	1939결	약 22.0%	약 430결
임강현	3934결	약 20.0%	약 800결	장단현	1645결	약 33.0%	약 550결
삭녕군	3854결	약 7.4%	286결	안협현	1422결	약 0.4%	6결
평강현	3778결	약 1.5%	58결	마전현	1171결	약 25.0%	약 300결

자료 : 『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조선 후기 경지면적의 분포상황을 담고있는 문헌은 『輿地圖書』, 『海東地圖』, 『大東地志』, 『邑誌』 등 다양하지만 19세기에 편찬된 뒤의 두 자료는 전대의 기록을 그대로 전사하고 있어 시대별 변화상을 전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앞의 두 자료는 元전답, 起전답, 實전답의 어느 하나 혹은 두 가지 사항을 일관성 없이 섞어서 기재하고 있어 지역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원전이란 양안이 작성될 당시의 개간된 토지 일체를 지칭하며 한번 입안된 경지는 다음 번 量田이 시행될 때까지는 양안에서 지울 수 없다. 원전에는 그 해 경작된 토지와 묵힌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일부 군현의 전결로 제시된 수치는 起耕된 것만을 포함하고 있다. 기전답은 한해동안 농사가 행해진 전답을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陳田을 제외한 免稅田과 實田이 포함된다. 면세전은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부과하는 각종 잡세가 면제된 토지로 궁방전이나 재해를 만나 浦落된 경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실전답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지칭하는데 일부 군현의 전결수난에는 실전답에 관한 사항만이 수록되어 있다(표 29).

따라서 元전답, 起전답, 實전답은 규모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례로 1872년 파주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안에 기재된 밭 1,383결 90부 6속 가운데 묵정밭 249결 10부 2속을 제외한 나머지 1,134결 80부 4속이 한해 농사에 이용되었는데 면세된 380결 18부를 제외하면 실전은 원전의 약 54%에 해당하는 754결 62부 4속에 불과하였다. 수전의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입안된 1,138결 75부 3속 가운데 묵은 논이 236결 37부 9속, 기경된 논이 902결 37부 4속이었고 면세된 357결 81부 5속을 제외하면 원답의 약 48%인 544결 55부 9속만이 실결수로 남는다. 이 가운데 군현간 비교를 위해서는 기경된 전답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전의 경우를 보면 포천, 마전, 철원 등 세 군현에서 100결 이상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영평에서도 66결 정도의 수전이 경작되었다. 평강, 김화, 안협에도 수전은

〈표 29〉 임진강 유역의 전답분포(18세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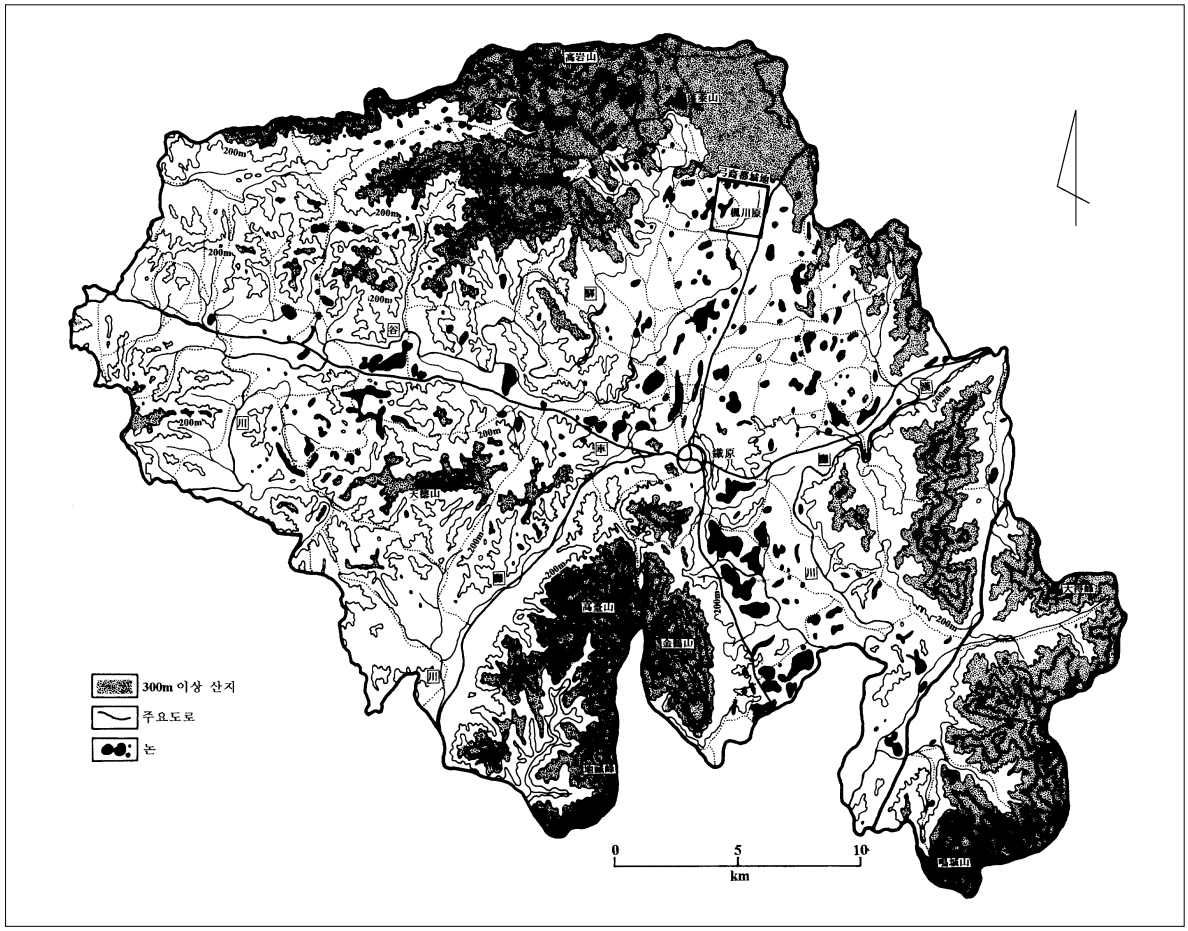
郡縣	旱田(元)	實田	水田(元)	實畓	郡縣	旱田(元)	實田	水田(元)	實畓
양주부	7963.89.2		2199.51.9		철원부		730.69.0起		132.72.5起
안변부	5407.64.1		542.71.2		포천현		608.70.2起 379.12.3		263.11.2起 169.55.9
장단부	4218.73.8		1489.74.1		이천부		530.75.0起		9.48.0起
삭령군	1651.38.8		240.89.7		평강현		448.18.3起		17.24.5起
파주목	1383.90.6	754.62.4	1138.75.3	544.55.9	마전현	651.90.3	364.73.7起	226.21.0	157.29.6起
연천현	1128.87.1		186.14.0	90.60.4田畓	영평현	1210.00.0	323.27.3起 290.00.7	90.32.0	66.37.0起 29.25.1
토산현	843.86.5		5.62.2		김화현		199.26.8起		15.45.4起
적성현	756.88.0	279.77.3	265.94.5	56.92.8	안협현		161.07.6起		2.05.8起
교하군	716.25.5	428.24.2	1232.36.4	656.00.2					

* 전결의 단위는 結 · 負 · 束; 元 원전답, 起 기경전답
자료 : 『輿地圖書』, 國史編纂委員會(1973년); 『海東地圖』, 서울大學校奎章閣(1995년).

존재하지만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파주는 면세전과 포락된 논을 제외한 실결이 무려 544결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작된 논의 규모상으로 장단과 함께 임진강 유역에서는 최상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장단의 경우 기경답이나 실답에 대한 통계는 기록되고 있지는 않으나 입안된 논의 규모에서 파주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된 논의 규모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추측된다. 면적의 약 2/3 가량이 임진강 유역에 소속된 교하도 656결 이상의 실결이 기록되고 있어 기경답의 규모도 상당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적성은 약 57결 정도의 논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데 면세답 비율을 40% 정도를 가정한다면 약 75~85결 정도의 논이 경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전체적으로 수전의 분포는 山邑/野邑의 자연환경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부에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철원이 예외적으로 높은 농업생산력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25).

17세기 이후 수전농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乾耕과 水耕의 형태로 행해지던 直播法을 移秧法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초와 시비에 투여되는 막대한 작업량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여러 모로 효율적인 영농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을 전후해서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일이 대대적인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였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소하천에 洑를 막아 관개수를 확보하거나 제언을 축조해 저수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원되었다. 18세기 당시 유역내에는 많은 수의 제언이 축조되었으며 군현별로 보면, 장단 16, 철원 9, 마전 6, 포천 3, 교하 3, 파주 2, 양주 2, 김화 · 평강 · 삭녕 각 1庫 등으로 분포하였다.[85] 19세기 『邑誌』에는 이전에 밝히지 않은 수리시설이 추가적으로 명

85) 제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양주 馬乙池, 都月池; 포천 西面堤堰, 金峴堤堰, 內北堤堰; 교하 大爲池, 小爲池, 黔山防築; 파주 加麻池, 杜谷堤堰; 장단 栗洞堤堰, 寺洞堤堰, 蛇橋堤堰, 蛇仇里堤堰, 瑞谷堤堰, 昌化堤堰, 酸梨洞堤堰, 魚龍洞堤堰, 瓦草里堤堰, 隔洞堤堰, 元堂里堤堰, 全作洞堤堰, 仇叱橋堤堰, 大位堤堰, 加佐洞堤堰, 松洞堤堰; 삭녕 峯串之堤堰; 마전 長楊堤堰, 日見堤堰, 三和堤堰, 芝乃堤堰, 艾洞堤堰, 盆石堤堰; 금화 栢洞堤堰; 평강 馬谷堰; 철원 先村堤, 栗枝堤, 加乙堤, 牛乭堤, 柳堤, 五利堤, 濟古院堤, 加乙五里堤, 延之峴堤(『輿地圖書』 堤堰條).



〈그림 25〉 철원평야(철원은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의 용암대지상에 자리한 지역으로 지표는 두터은 충적층으로 덮여있다. 용암분출후 하천이 하방침식을 재개해 현 하상에 이르기 전 주변 산지의 풍화토를 운반해 퇴적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의 수전농업을 성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북쪽에 궁예도성지가 보인다.)

기되고 있는데 적성의 大曲堂堰, 松峴里堰, 庚申洞堰, 嚴台井堰, 철원의 垈龍淵洑, 二十潭洑, 長柱坪洑, 長旨洑, 大橋洑, 濱川洑, 五利坪洑, 訥串坪洑, 項襟洑, 김화의 穿峴洑, 沙谷防川, 長林防川, 桃李員防川, 免洞防川, 畓峴防川, 大浦防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지주 계층이었고 대다수의 농민은 소작인이었다. 광작으로 인한 부농층의 성장은 토지의 절대면적의 부족 이상으로 상대적인 부족을 심화시켰다. 국유지의 모경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한때 포천 直洞에서는 32명이나 되는 주민이 光陵내의 국유지를 기경하여 이용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86]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의 진출로 토지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일례로 일본인은 철원과 평강 등 내륙에까지 파고들어 농장을 경영하였는데 1917년 철원에 들어선 富田農場은 논 32정보, 밭 10정보를 확보하여 작물과 과수재배에 활용하였는데, 자 · 소작으로 운영하였다. 2년 늦게 진출한 增田農場은 철원에 논 52정보, 밭 16정보 등 총 68정보의 경지를 매수하

86) 『訓令』 제4冊, 抱川4號 建陽元年 7월 17일.

여 부전농장과 동일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였다. 1920년에는 不二興業株式會社가 철원과 평강에 논 2,352정보, 밭 208정보를 확보해 소작제로 운영하였다.[87]

이들 농장이 이주한 시기를 전후해 임진강 유역은 경지율에서 최소 11.5%에서 최고 37%까지 지역별로 다양하였다. 철원을 제외한 山郡의 대부분이 20% 미만의 낮은 경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토지의 평균지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우선 밭의 경우 1段步(0.1정보) 당 지가가 평야지대에서 10円이상으로 공시되고 있는데 반하여 내륙으로 갈수록 낮아져 4円을 전후한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논은 전체적으로 밭에 비해 10~20엔 정도 높게 책정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내륙과 평야간 차이가 여기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주 1인당 경지면적은 오히려 내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의 세분화가 평야지대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면적당 농작물 생산은 지역간 차이보다는 작황에 따른 지역내 차이가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30).

〈표 30〉 임진강 유역의 농업현황(1918)

	경지율	평균지가(田)	수확고(大豆)	평균지가(畓)	수확고(벼)	지주당경지면적
양주	26.4%	14.18円/段步	1石113合-0.105	32.90円/段步	3石351合-0.705	1.5710町步
포천	23.3	12.20	1.035-0.090	36.29	3.033-0.357	1.8204
파주	37.3	14.38	0.720-0.063	28.07	3.000-0.351	2.1124
장단	29.7	15.06	0.876-0.090	32.90	3.000-0.351	1.9529
개성	34.2	14.21	1.029-0.090	30.22	4.056-1.410	1.2009
연천	32.8	9.78	0.813-0.090	32.16	3.390-0.714	2.1221
김천	29.2	9.52	(粟)1.422-0.135	30.80	3.000-0.750	2.2729
곡산	12.3	4.04	(粟)1.200-0.063	24.19	3.000-0.426	2.1723
김화	17.4	4.52	(粟)1.065-0.054	23.34	3.417-0.567	2.2813
철원	37.0	4.44	0.975-0.036	21.09	3.375-0.561	3.1911
평강	16.6	2.95	(粟)1.065-0.054	21.87	3.036-0.567	3.0514
이천	11.5	4.67	(粟)1.137-0.045	24.62	3.648-0.606	2.0713
덕원	14.1	4.77	0.696-0.030	16.16	2.436-0.375	2.8421

자료 : 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地誌資料』, 大和商會, 1918.

일제강점기에는 수리시설의 확충과 대대적인 농경지 개간이 있었다. 물론 관심은 남부지방에 쏠리고 있었지만 임진강 유역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이 시행되었다. 1920년을 전후해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수리조합의 설치가 그것인데,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몽리면적을 늘리고, 배수를 효과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에서 파주 · 장단은 물론 멀리 이천까지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포천 신북리의 深谷水利組合으로 1919년 한국인 조합장 李載茂가 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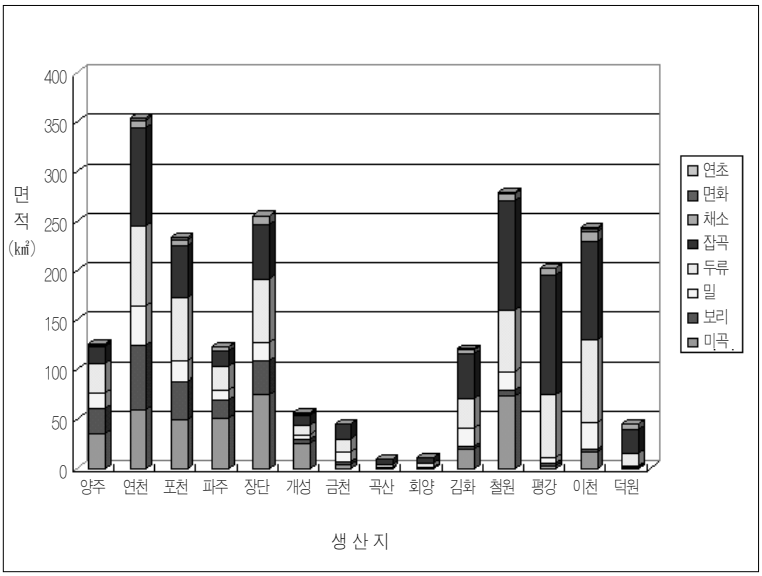
87) 善生永助, 『朝鮮の物産』, 朝鮮總督府, 1927, 278쪽.

를 축조해 79정보의 몽리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조합설립의 취지였다. 이 밖에도 1930년까지 於雲, 臨津面, 永北, 中央, 津南, 亭淵, 金化, 平安川 등의 조합이 순차적으로 설립되었다. 취수를 위해서는 貯水池와 洑가 주로 활용되었으며 임진면 수리조합은 80마력과 15마력의 원동기 2대를 이용해 임진강물을 관개수로 활용하였고, 몽리면적 9,270정보를 계획한 중앙수리조합은 蓬萊堤, 甘屯堤, 馬山堤, 洪浦堤 등 4곳의 저수지와 75마력짜리 원동기를 갖춘 대조합이었다(표 31).

〈표 31〉 임진강 유역의 수리조합

조합명	소재지	사업지	몽리면적	취수	설립	조합장
深 谷	포천 신북 심곡리	포천 신북면	79정보	저수지	1919.12.25	李載茂
臨津面	파주 임진 마정리	파주 임진면	343	양수기	1921.11.4	金允培
永 北	포천 영북 운천리	포천 영북면	677	저수지	1922.1.23	岩永米吉
津 南	장단 진남 거곡리	장단 진남면	268	양수기	1922.10.13	金永玉
於 雲	철원 철원 사요리	평강 남면, 철원 어운면	710	저수지	1920.12.27	藤井寬太郎
中 央	철원 철원 사요리	평강 현내, 철원 동송외7면	9270	저수지	1922.10.14	藤井寬太郎
亭 淵	평강 남정연리	평강 남면, 철원 어운면	208	보	1926.12.3	稻葉顯智
金 化	금화 금화 읍내리	금화 근북 외 1면	1314	저수지	1928.3.31	金詳演
平安川	이천 동 하식참리	이천 동면, 평강 서면	240	보	1928.3.31	稻葉顯智

자료 :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28, 12~13, 18~19쪽.



〈그림 26〉 곡물생산면적(1925)

수리조합이 추진되고 있을 무렵 임진강 유역에서는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1923년에서 1925년간 조사된 농업통계를 바탕으로 농경지면적과 수확량의 지역적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경지면적에서는 잡곡(677.57㎢)에 할애된 토지가 가장 넓었으며 다음으로 두류(541.49㎢), 미곡(408.28㎢), 보리(206.19㎢), 밀(192.03㎢), 채소(63.40㎢), 면화(12.40㎢), 연초(2.30㎢)의 순으로 재배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작물의 재배지 총면적은 2,103.7㎢로 군별로는 연천(353.8㎢), 철원(279.1㎢), 장단(255.1㎢), 이천(242.9㎢), 포천(233.7㎢), 평강(202.3㎢), 양주(126.2㎢), 파주(123.1㎢), 김화(121.2㎢), 개성(55.6㎢), 김천(45.4㎢), 덕원(45.2㎢), 회양(10㎢), 곡산(9.6㎢)의 순서로 면적의 대소가 정해지고 있다.

유역 전체적으로는 잡곡 재배에 이용되는 면적이 군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난다. 논은 임진강하류인 경기도지역에 넓게 발달해 있다. 장단(74.21㎢)이 유역 안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의 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은 철원(72.29㎢)이었다. 보리 재배지역 역시 하천 하류로 갈수록 규모가 증가하며 이는 보리가 미곡의 그루갈이 작물로 이용되던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리경작지는 연천(66.54㎢)에 가장 넓게 존재하였다. 밀과 두류는 지역별로 고르게 재배되고 있으며, 두류의 경우 이천(84.42㎢), 연천(81.43㎢), 포천(65.23㎢), 장단(63.94㎢), 평강(63.45㎢), 철원(60.80㎢) 등이 주요 산지이다. 예상대로 잡곡 산지는 내륙에 집중해 있으며 중심지는 평강(121.06), 철원(112.62㎢), 이천(99.04㎢), 연천(98.99㎢)이었다(그림 2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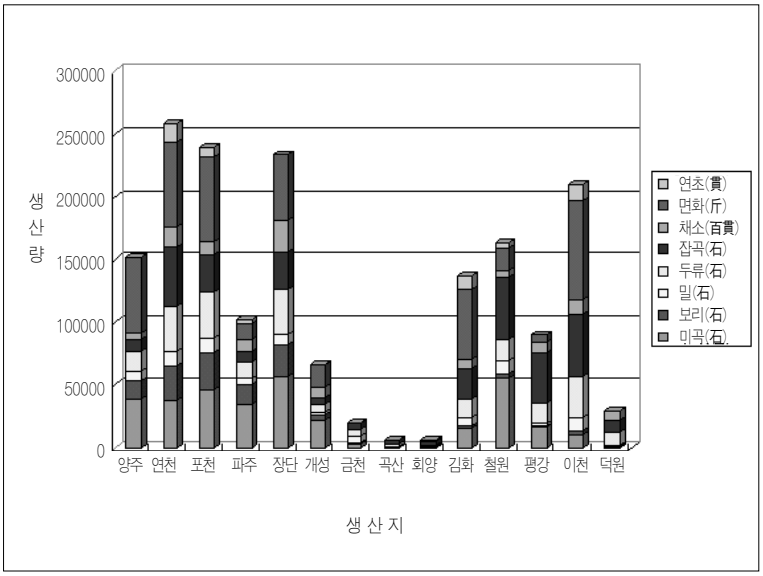
1923년에서 1925년간 각 작물의 연평균 생산량은 미곡 336,890石, 보리 127,090石, 밀 84386石, 두류 243,243石, 잡곡 313,595石, 채소 11,640,486貫, 면화 437,255斤, 연초 55,322貫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작물의 총 생산량은 한강유역의 약 18.4%에 지나지 않지만 작물별로 비교하면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임진강 유역에서 생산된 미곡은 한강유역의 24.4%, 보리는 19.4%, 밀은 45.3%, 두류는 40.0%, 잡곡은 47.0%, 채소는 18.5%, 면화는 16.3%, 연초는 2.1%에 해당하는 양이다.[89] 따라서 밀, 잡곡, 두류는 임진강 유역의 특화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유역내로 돌아와 각 작물의 지역별 생산량을 비교하면 미곡의 경우 장단에서 유역 전체생산량의 16.9%인 57,087석이 생산되었고 철원은 이보다 약간 적은 54,789석(16.3%)을 기록하였다. 포천도 유역내 생산량의 13.5%에 해당하는 45,553석을 생산하여 3개 군에서 전체 생산의 약 절반 가까운 분량이 나오는 셈이다. 보리는 포천에서 30,300석(23.8%), 연천에서 27,252석(21.4%), 장단에서 24,368석(19.2%)이 생산되어 집중도가 미곡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밀은 이천의 11,930석(14.1%)을 필두로 연천 11,304석(13.4%), 포천 11,227석(13.3%)의 차례로 많은 양이 생산되었다.

콩 · 팥 · 녹두 등이 포함된 두류는 포천(36,642석, 15.1%), 장단(35,944석, 14.8%), 연천(35,773석, 14.7%), 이천(32,421석, 13.3%)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잡곡은 4개 군에서 40,000석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철원이 49,963석(15.9%), 48,861석(15.6%), 연천이 47,266석(15.1%), 평강이 40275석(12.8%)을 각각 기록하였다. 채소는 대도시 개성에 가까이 위치한 장단에서 유역내 전체 생산량의 약 21.6%에 해당하는 2,513,842관이 재배되었다. 대도회 근처의 農圃에 파, 마늘, 배추, 오이, 미나리 등을 심어 상품으로 도시에 판매하던 현상은 이미 18 · 19세기에 유행되고 있었다. 원예농업이 生利를 위해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토지이용방법이었다는 사실은 미나리(芹) 2斗落只를 심으면 벼 10斗落의 수확에 해당하는 이득을 볼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도 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도회 근교에서 행해지던 소채농업은 특히 經營型富農의 치부의 수단 중 빠질 수 없는 하나로 정착되었다.[90] 섬유작물인 면화의 최대 생산지는 의외로 78,740근(18%)을 기록한 이천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에서는 연천(68,232근,

88)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附表』,1929, 1112~1115쪽.

89) 한강유역의 통계는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附表』, 1929, 1119~1126쪽에서 추출해 계산하였다.

90) 金容燮, 「朝鮮後期의 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增補版 朝鮮後期農業史硏究(Ⅱ)』, 一潮閣, 313~319쪽.



〈그림 27〉 생산지별 곡물생산량(1925)

15.6%), 포천(67,300근 15.4%), 장단(52,082근, 11.9%)이 위치한 서남부지역에서 두드러진다. 환금작물인 연초는 장단, 김천, 곡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며, 연천(13,794관, 24.9%), 이천(12,896관, 23.3%), 김화(11,258관, 20.3%)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27).

경작과 농경지이용 방식에는 일차적으로 수전과 한전의 구별이 있었다. 수전에서는 벼의 일모작이 행해졌고 한전에서는 돌려짓기(輪作), 섞어짓기(混作), 사이짓기(間作) 등 부족한 경지와 척박한 토양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형태의 경작이 이루어졌다. 토양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전과 한전에 시비가 실시되었으며 퇴비로는 삭녕의 경우 人糞과 豚糞, 평강과 이천은 綠肥와 牛糞, 철원은 落葉, 山草, 牛糞, 김화는 靑草 등에 주로 의존하였다.[91] 犁耕시 淺耕과 深耕을 교대로 실시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었으며, 이랑(畝)과 고랑(畝間)을 두고 후자를 지력의 회복을 위해 휴경하기도 하였다.

작물의 배합을 통해 지력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作付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작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양주에서는 벼와 보리의 그루갈이가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보리는 '畏濕畏風 唯喜乾燥' 한 곡성 때문에 본래 한전에서만 재배되던 곡물이었으나 조선후기에는 벼의 수확이 끝나면 보리를 파종하고, 보리의 추수가 끝나면 벼를 이앙하는 소위 稻·麥의 二毛作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보리가 신구 곡식을 이어주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도작이 흉작일 경우 救荒穀으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농가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모작의 시행은 겨울철에 本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이앙법의 도입과 큰 관련이 있다.[92] 임진강 건너 장단의 한전경작은 콩을 보리밭에서 간작하는 데 특징이 있다. 일회 경작에는 콩을 보리의 이랑 사이에 심어 수확하였고 다음해 농사에는 일년차와 동일하게 보리와 콩을 심거나 콩을 대신해 조를 심는 방법 모두 시도되고 있었다. 旱田二毛作은 임진강 유역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경지이용형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주곡인 보리와 함께 이모작할 수 있는 곡물로는 콩, 조, 기장, 피, 보리, 녹두, 호마 등 다양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두류와 조는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보리는 春麥과 秋麥의 구별이 있었는데 경기 이북에서는 맥류 가운데 밀은 秋播하고 보리를 春播하여 나머지 곡물과 이모작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포천에서는 보리와 들깨를 함께 경작하는 곳이 많았다.

91) 農商工部, 『朝鮮土地農産調査報告(京畿·忠淸·江原)』, 1906, 458~459, 515쪽.

92) 金容燮, 「朝鮮後期의 水稻作技術: 米·麥二毛作의 普及에 대하여」, 『增補版 朝鮮後期農業史硏究(II)』, 一潮閣, 45~76쪽.

영평과 삭녕의 한전에서는 보리, 귀리, 콩이 함께 경작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작물재배는 보리와 귀리를 중심으로 콩을 그 중간에 파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높이 7寸, 폭 1尺3寸 정도의 이랑을 조성하고 그 위에 콩 3~4알을 세 줄로 파종한 다음 고랑에 보리와 귀리를 또한 세 줄로 심는 방식이었다. 다음해 경작은 곡물의 종류에서는 별 차이 없고 단지 파종 전 쟁기질할 때 이랑과 고랑의 위치를 바꾸어 콩을 심어 질소고정을 통해 지력이 회복된 자리를 고랑으로 바꾸어 여기에 보리와 귀리를 심는다는 점이다. 적성에서는 보리를 주곡으로 해서 고랑에 심고 조, 두류, 수수 등을 이랑에 간종하는 방식이 행해졌다.[93]

이와 같이 주곡을 고랑에 심는 畎鍾法은 수전에서의 移秧法이나 한전에서의 稻麥二毛作과 함께 조선후기 농법개량을 대표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畝上에서 點種하던 壟種法을 대신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畎鍾法에서 보리는 畝上 · 壟上 대신 畝間 즉 畎中에 섞어 파종되었다. 견종법은 또한 麥田내의 이랑에는 콩이나 조를 심는 間種法을 의미한다. 견종은 한발에도 出苗가 용이하고, 中耕除草가 용이하며, 穀苗에 통풍이 잘되고, 施肥에 낭비가 없으며, 이랑의 흙을 긁어내려 苗根을 培土하므로 風旱에 강해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用力少而得穀多'의 혁신적인 농법이었다.[94]

유역 동부의 김화에서는 여러 형태의 경지활용 방법이 나타난다. 대마와 무 · 배추와 같은 채소를 윤작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연초를 연작하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에서는 보리를 주곡으로 심고 조를 간작하거나 보리와 귀리를 위주로 해서 팥을 간작하기도 한다. 보리밭에 수수를 간작하는 농가도 있다. 북쪽에 위치한 이천 역시 다양한 용도로 밭이 활용되고 있었다. 우선 보리밭에 콩이나 조를 한 해 걸러 바꾸어가며 간작하는 형태의 이용방법을 볼 수 있으며 이 때 부차적으로 심게되는 작물은 이랑에 두 줄로 심는 것이 상례였다. 어느 곳에서는 보리와 간작작물인 콩 사이에 아주까리를 혼작하였다. 같은 방식인데 작물을 달리하여 보리, 조, 콩의 혼작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오이 · 참외 등 채소와 아주까리 · 콩을 추가하여 혼작하는 경우도 있었다.[95]

앞서 임진강 유역에서는 1920년대에 2.30㎢의 煙草田에서 55,322관의 연초가 생산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17세기 이후 농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각종 특용 · 기호작물의 도입과 재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호작물인 연초의 등장은 농업경영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라 하겠다. 연초와 같은 기호작물은 특성상 상품화되는 기간이 짧아 유통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위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였다. 1609년 일본과의 개시무역을 통해 소개된 연초는 이식 초창기에는 상품수요가 낮아 환금작물로서의 기능이 미진했다. 그러나 점차 연초를 찾는 인구가 계층을 뛰어넘어 늘어나는 18세기가 되면서 곡물을 판매해 얻는 소득보다 높아지자 연초전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96]

---

93) 農商工部, 『朝鮮土地農産調査報告(京畿 · 忠淸 · 江原)』, 1906, 492~493쪽.

94) 金容燮, 「朝鮮後期의 田作技術: 種法의 普及에 대하여」, 『增補版 朝鮮後期農業史硏究(Ⅱ)』, 一潮閣, 112~142쪽.

95) 農商工部, 『朝鮮土地農産調査報告(京畿 · 忠淸 · 江原)』, 1906, 494~495쪽

96) 李永鶴, 「18세기 연초의 생산과 유통」, 『韓國史論』 13, 1985, 188~201쪽.

임진강 유역에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사이 연초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느 시점에 소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래된 이후 담배소비량의 추세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나 그 증가폭은 대단히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 강점기 전반인 1914년에서 1923년간 조사 ·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1인당 연초 소비액을 지표로 조사 첫 해인 1914년의 연초소비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1915년에서 1923년간 지수는 91, 100, 124, 176, 307, 339, 261, 287, 363으로 각각 변화하였다.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97] 조선시대에도 연초소비량은 증가일로에 있었을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1910년(隆熙 4)의 조사에 의하면 임진강 유역에서는 양주, 파주, 장단, 곡산, 김화 등 5개 군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초가 재배된다. 양주의 경우 광석 · 이담 · 회천면의 2.2정보 남짓 되는 연초전에서 5,525貫의 연초가 생산되었고, 파주의 은현 · 광탄면 1.9정보에서 6,477貫, 장단의 대남 · 소남 · 강남 · 강서 · 강북면의 12.8정보에서 63,104貫, 곡산의 동촌 등 8개면 19.3정보에서 46,778貫, 김화의 남 · 군내 · 초동 · 이동서 · 초북 · 원북면 등지의 3.1정보에서 14,900貫의 연초가 각각 생산되었다. 양주산 연초는 파주, 포천, 경성, 과천 등지로 판매되었으며 장단연초는 인근의 개성, 곡산연초는 개성과 평양, 김화연초는 경성과 철원으로 운반되어 거래되었다.[98] 재배되는 연초는 지역에 따라 명칭과 품종이 다르다. 삭녕에서는 西草가 단일 품종으로 재배되었으며 장단은 黑草 · 毒草 · 五十葉草 등 세 품종이 공존했다. 양주는 毒草와 西草, 영평과 토산은 南草, 곡산은 苦草, 김화는 南草와 토종인 金化草가 재배되고 있었다. 적성의 연초는 청갈색의 계란형 잎을 가진 품종이, 토산 방추형의 황갈색을 띤 품종이 있었지만 확실한 종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99]

연초는 지력을 쇠하게 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한 경작지에서 다년간 연작하는 지역은 드물다. 곡산과 같이 연작하는 지역에서도 고량, 조, 메밀 등과 윤작한다. 김화에서는 2년간 연초를 연작하고 3년과 4년차에는 대두와 기장을 심는다. 철원에서는 연초와 채소를 격년으로 돌려짓는다. 양주에서는 3~5년간 조나 기장과 윤작하여 연초를 생산하고 이 기간이 넘어서까지 같은 농지를 연초생산에 이용하지는 않는다. 화전에서도 연초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가내소비를 위한 소규모 재배일 뿐이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 꼴이다. 연초와 윤작되는 작물로는 이 밖에도 육도, 마, 면화, 당초, 호마, 호초, 팥 등이 있다. 연초의 재배는 苗田과 本圃를 이용해 수전에서의 이앙법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본전에 直播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곡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좇아 연초를 재배하였으며 播種, 移植, 摘心, 收穫, 乾燥의 과정을 거쳐 상품화된다. 시기별로 파종은 주로 4월에 시행되며, 이식은 6월, 적심은 7월에 완료된다. 수확은 8월 중순에서 늦으면 9월 상순까지 계속되며 건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상순에 모두 마치게 된다.[100]

97) 善生永助, 『朝鮮の物産』, 朝鮮總督府, 1927, 255쪽.
98) 度支部臨時財源調査局, 『韓國煙草調査書』, 1910, 57, 61~62, 190, 192~193쪽.
99) 度支部臨時財源調査局, 『韓國煙草調査書』, 1910, 77~78, 85쪽.
100) 度支部臨時財源調査局, 『韓國煙草調査書』, 1910, 131, 134~135, 137, 139~140쪽.

6. 교통과 상업의 발달

지역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지역지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대개 교통로와 교통양식이 달라질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양식이 사회 전체적인 기술수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교통로는 그밖에도 정치 ·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도로는 필요에 의해 새로 개통되며 어떤 도로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아 잡초로 뒤덮여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기도 한다. 여행자의 물품을 노리는 도적이 잠복해 있는 곳이면 이용 빈도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물자와 여객의 이동이 많아지면 노폭이 넓혀지기도 하고 관리가 허술한 지역에서는 빗물에 씻겨 노면의 일부가 깍여 나가거나 단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굴곡이 많아 이동에 불편하면 박석을 깔거나 황토를 덮어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교통로는 인간, 자연환경, 기술, 사회 · 경제적인 맥락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하는 실체로서 지리학에서는 한 사회의 역사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도로는 왕조의 흥망과 서민의 애환이 숨겨진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인 것이다.

도로는 인류문명이 만들어 낸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인식된다. 도로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제기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야생동물의 이동로설, 약탈경제시대 부족민의 이동로설, 고대의 교역로설, 병력의 이동로설 등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01] 도로 본연의 기능, 즉 한 지점을 다른 지점과 연결하여 지역을 통합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물이나 소부족의 이동로보다는 상업로와 군사도로의 역할이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도로는 항상적으로 이용될 때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 발달은 영역국가의 등장과 고대국가의 출현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국가의 정립을 전후해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와 백제의 변경이었으며 양 국가간 충돌도 많았다. 近肖古王 재위시에는 고구려군 2만명의 공격을 받자 3만 병사를 보내 평양성을 공략할 정도로 이동이 잦았다.[102] 신라의 가세로 이 지역은 군사적인 충돌의 현장이 되었으며 도로는 군대의 이동로와 병참선으로 이용되었다. 당시 이용되던 노선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임진강 본류와 지류의 양안을 따라 발달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하천 상류의 분수계에는 보통 하나 이상의 嶺路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고개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계곡을 따라 발달한 도로에는 추가령구조곡과 같이 단층선에 의해 형성된 것도 포함된다. 신라의 임진강 유역진출은 수륙 양쪽에서 이루어졌는데 동해를 타고 올라가 比烈忽(안변)을 거점으로 하여 추가령구조곡을 타고 남서방향으로 내려오는 경로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101) 崔永俊, 「길의 歷史 길의 思想」, 『한길역사기행』, 한길사, 5~8쪽. 도로는 또한 사회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새롭게 개설되는데 유이민의 유입에 의한 임진강 유역 북부의 小路 개통은 대표적인 예이다.

10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4년 9월, 26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을 발해와의 경계로 하고 있었으므로 임진강 유역은 여전히 변방으로 남아있었다. 행정상으로는 漢州와 朔州에 편성되어 있었지만 북방경계부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도로도 교역이나 조세수송의 차원에서 이용되기보다는 군사전략적인 측면의 활용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인 경주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있어 문화교류의 통로로 제 구실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는 달리 임진강이남의 제 지역은 이미 5세기경에 수립된 郵驛체제내로 편제되어 행정명령의 전달을 포함한 국가의 중대사가 관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103]

궁예가 꿈꾸던 태봉왕국이 실현되었다면 임진강 유역은 한반도의 결절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궁예의 도성지로 결정된 楓川原 일대는 한반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전략적인 면에서 중요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도읍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운영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이상적이었는지는 미지수이다. 궁예가 꿈꾸던 태봉왕국은 고려왕조의 창건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임진강 유역이 새 왕조의 수도인 개경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의 교통로 발달에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고려시대 驛戶의 존재는 이미 태조대에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104] 고려의 강역이 강동 6주의 확보로 예전 보다 북상했기 때문에 임진강 유역의 취락발달 및 교통망정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교통로의 확충은 행정구역 정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高麗驛制는 驛路의 등급을 대 · 중 · 소로 나누고 驛의 등급을 1~6科로 6분등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등급에 따라 驛丁 · 驛長과 驛田을 차등있게 배정하였다. 고려에는 전국적으로 22驛道와 525驛이 있었는데 개경으로 수렴하는 중앙집권적인 패턴이었다. 임진강 유역을 지나는 도로는 桃源道, 靑郊道, 春州道였다. 총 21개 역으로 구성된 도원도는 장단에서 회양에 이르는 구간으로 桃源驛(장단), 白嶺驛(장단), 臨江驛(仇火, 장단), 玉溪驛(연천), 朔寧驛(삭녕), 烽谷驛(승령), 龍潭驛(철원), 楓川驛(철원), 田原驛(철원), 臨湍驛(林丹, 평강)), 桃昌驛(生昌, 김화), 南驛(新北, 김화), 丹𡸴驛(김화), 洞陰驛(영평) 등을 임진강 유역에 두고 있다. 개성과 양주를 잇는 청교도에는 모두 15개 역이 소속되어 있으며 通波(東坡, 장단), 馬山(파주), 橡林(湘水, 적성), 丹棗(적성) 등이 유역내에 위치하였다. 춘주도는 춘천에 이르는 도로로 24개 역이 소속되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雙谷(포천), 安遂(安奇, 포천), 仇谷(양주), 臨川(沙川, 양주) 등 유역 남부에 위치한 역이 포함되었다.[105]

고려시대의 역로는 정치 · 행정 · 군사 · 경제와 관련된 제반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동시에 문화전파의 통로로서도 중요하였다. 특히, 국교인 불교와 관련된 문화의 전파는 도로변 주요 행정중심지에 위치한 寺院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찰은 본연의 종교기능 외에도 불경연구를 통한 교육기능, 불교예술과 관련된 문화기능 등을 수행하였다. 불교문화는 연등회나 팔관회와 같은 각종 종교행사를 통하여 전

103) 始置四方郵驛 名所司修理官道(『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3, 炤知 9년 3월).

104) 詔曰 泰封主以民從欲惟事聚斂 不遵舊制一頃之田租稅六碩 置驛之戶賦絲三束 遂使百姓輟耕廢織流亡相繼 自今租稅征賦宜用天下通法以爲恒例(『高麗史節要』 卷1, 太祖 元年 7월).

105) 『高麗史』 卷82, 兵志1, 站驛.

파되었다.[106]

고려말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북방과 해안에 홍건적과 왜구가 창궐함에 따라 교통로는 제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교통기능의 마비는 고려왕조의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해 급기야 조선왕조의 개창으로 이어졌다. 신왕조의 개창과 한양천도는 개경중심의 도로망패턴을 한양중심으로 바꾸어놓은 일대 사건이었다. 동서간 도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한양에서 동북부 경흥에 이르는 도로가 지역내 간선으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澄波渡와 같이 고려시대에 東北關大路邊의 주요 취락이었던 많은 곳이 조선시대에는 지선도로변에 남아 조락되었다(사진 49).[107] 임진강 유역으로는 개성, 평양, 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西北義州大路와 양주의 다락원을 빠져나와 덕원 원산촌을 경유하여 서수라에 도착하는 東北慶興大路의 양대 간선이 지나게 되었다.



〈사진 49〉 징파도(연천의 징파도는 조선시대에는 어염을 실은 상선이 주집하던 하안 포구로 유명했는데 고려시대에는 포구로서의 기능외에 동북쪽 영토의 경영에 없어서는 안될 간선도로가 지나던 길목에 위치하여 도하기능을 수행하던 곳이었다. 고려 당시에 이곳에는 도승이 주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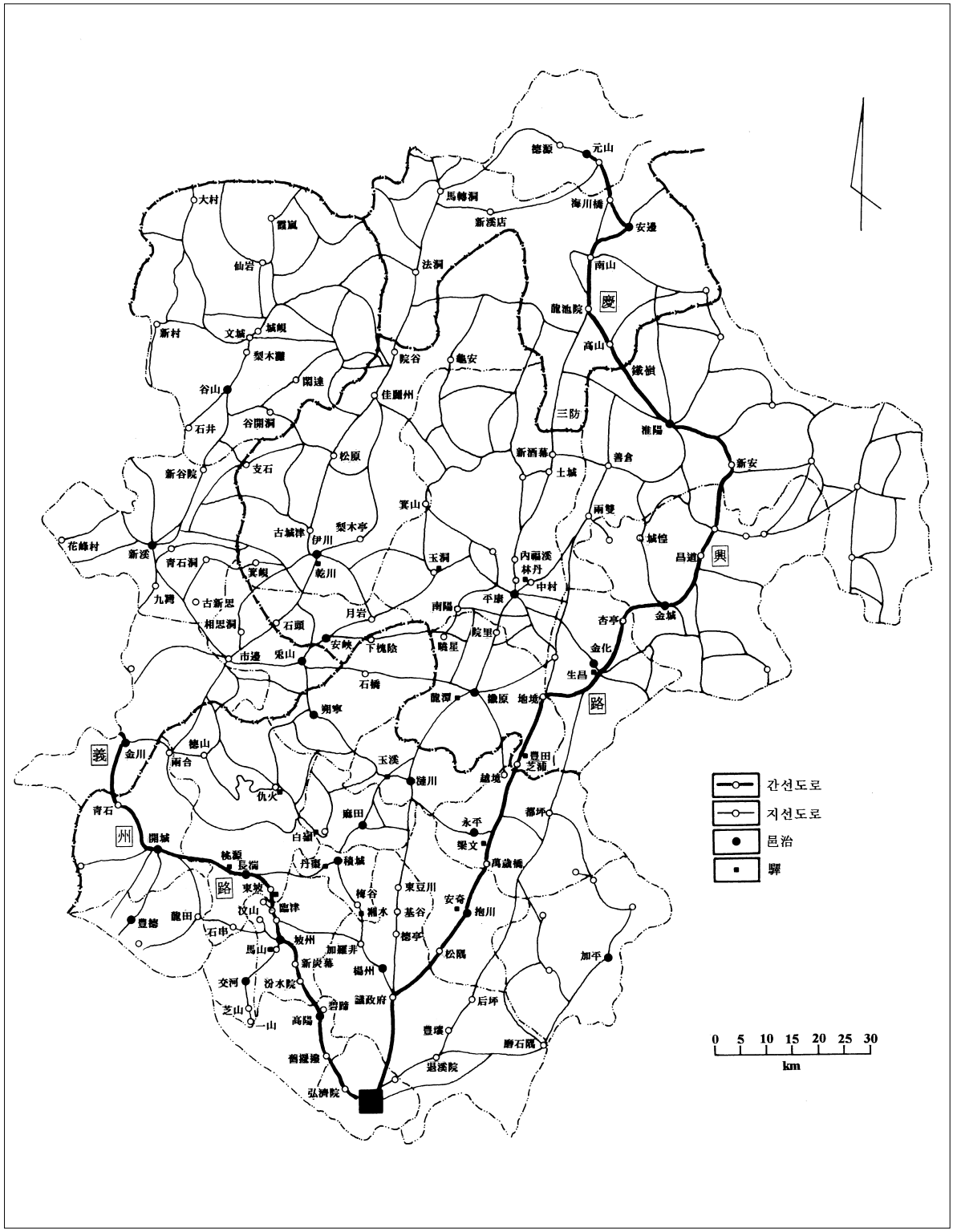
西北義州大路는 都城을 출발해 新院 · 고양 · 파주 · 장단을 거쳐 개성에 이르는 구간이 임진강 유역에 들어 있으며 이 간선도로를 따라서는 지선의 갈림길이 있다. 新院에서 교하에 이르는 지선이 있고 파주에서 高浪津 · 沙尾川 · 甘五里峴 · 朔寧을 경유하여 兎山에 도착하는 지선이 있다. 東北慶興大路에서는 都城을 나와 樓院 · 擺撥幕 · 萬歲橋 · 梁文驛 · 豊田驛 등을 지나 金化에 이르는 구간이 임진강 유역에 포함되고 있다. 다락원은 두 지선의 갈림길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湘水驛 · 間坡店 · 堂浦津을 경유하여 麻田에 이르는 노선이고 나머지 한 노선은 碑立街 · 柯亭 · 漢大灘 · 漣川龍潭 · 鐵原 · 月乃井站을 경유하여 平康에 도착하는 것이다. 중간에 비석거리에서는 楊州 · 光遂院 · 積城 노선이 갈라져 나온다. 연천에서도 升良站 · 安峽 · 鎰橋峴 · 伊川을 잇는 노선이 분기한다. 擺撥幕에서는 포천과 영평으로 향하는 지선이 갈라져 나온다(그림 28). 임진강 유역을 벗어난 慶興大路는 계속해서 金城 · 淮陽 · 鐵嶺 · 安邊 · 北青 · 端川 · 磨天嶺 · 吉州 · 明川 · 富寧 · 慶源 · 慶興을 통과해 종착지인 西水羅에 도착하였다.[108]

조선후기에는 경흥로와 견줄만한 3대 민간도로의 3대 개척이 있었는데 낭천의 주소령, 회양의 법수현, 평강의 삼방협을 넘어 가는 길이었다. 특히 평강의 삼방골은 과거 개성, 한양, 황해지방에서 회양의 철령

106) 崔永俊, 『嶺南大路』, 高麗大民族文化硏究所, 1990, 107~110쪽.

107) 澄波渡, 在前朝時爲東北關大路(『邑誌』漣川縣 山川條).

108) 『增補文獻備考』 卷24, 輿地考 20, 道里條.



〈그림 28〉 임진강 유역의 도로(조선후기)

을 넘어 안변 이북으로 우회하여 통과하는 수고를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샛길이었다. 삼방길은 지세가 평탄하여 고산준령을 넘어야할 필요가 없었고, 함경도로 통하는 첩경인데다, 길마를 몰고 다니는 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어 원산촌을 넘나드는 상려에게는 더없이 좋은 상업로였다. 노변을 따라서는 旅店 7~8호가 들어서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109] 한양으로 들어오는 첩로는 三防 외에도 雪雲嶺을 통하는 길도 있었다. 조정에서는 샛길의 개척에 대해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나머지 두 길을 막고 鐵嶺만을 이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는 있지만 이를 막을 길이 없었다.[110] 관도는 우회도로였고 검문을 맡은 병사들에 의해 많은 상인들이 비공식적인 통행세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도로는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본래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가에서는 도로행정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선을 일정구간으로 구획하고 각 구간마다 관리를 파견해 관장하게 하였다. 파견되는 관리는 도로의 중요성에 맞추어 종6품인 察訪과 종9품인 驛丞의 구분이 있었다. 임진강 유역으로는 平丘 · 迎曙 · 桃源 · 銀溪의 4개 驛道가 통과하였으며 驛丞道인 도원도를 제외하면 모두 察訪道였다. 역도에는 일정수의 역이 배속되어 공문서전달, 공물수송, 사신영송, 관리영송 등 遞驛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역은 소재한 지역이나 소속된 역도의 정치 · 행정 · 군사적인 중요성에 따라 대 · 중 · 소의 구별이 있었다. 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마필, 역전, 역리, 역노비는 이렇게 3등분한 기준에 맞추어 배정되었다. 임진강 유역에는 찰방이나 역승이 주재하는 本驛은 없었지만 마산역, 동파역, 안기역, 양문역 등 4개의 大驛이 있었다(표 32).

임진왜란 중에는 마비된 전근대적 통신수단인 봉수의 기능을 대신해 撥站이 임시방편으로 이용되었다. 변방에서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신속하게 중앙에 통보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擺撥은 騎撥과 步撥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으로 약 25리 떨어진 다음 站까지 懸鈴傳送하였다. 보발은 공문서를 皮角岱넣고 急走卒이 직접 달려가서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11] 임진강 유역에도 梁文撥幕, 萬歲橋站, 松隅站, 擺撥幕, 場街站, 馬山撥站, 下寒井站, 招賢站, 東坡站, 邑站, 豊田站 등 10여개의 발참이 있었다. 일부 발참은 역과 동일한 지역에 설치되었다.

역과 발참은 그 자체가 노변경관을 대표한다. 도로를 따라서는 그밖에도 장승, 돌무지, 정자목, 당집 등과 같이 도로와 관련된 경관구성요소가 즐비하다. 내왕하는 旅行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宿泊施設도 그 하나이다. 대표적인 숙박시설로 院을 들 수 있다. 원은 대개 관에서 지급하는 院主田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관영의 것이 보편적이며 서민보다는 양반들을 주로 상대하였다. 원은 조선시대에 신설된 것을 제외하면 대개는 불교사원의 분원에 기원한다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원의 명칭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에 존재했던 원 중에는 실제로 功德, 焚修, 惠陰, 兜率, 通濟, 蓮花, 石柱, 禪具, 天壽, 寶德, 廣德 등과 같은 불교식 용어를 가진 것이 많다. 그리고 石, 灘, 川, 河, 水, 橋 등의 어휘가 원의 명칭에 포함

109) 『承政院日記』 正祖 11년 9월 29일.

110) 『備邊司謄錄』 192冊, 純祖 元年 3月15일(本道之只存鐵嶺一路 不通他岐者 法意有在 而近來商賈之入北者 或從平康之雪雲嶺 或從平康之三防 昔之一路 今爲三路 若此不已 則嶺 之所恃 無所防限矣 嚴防雪雲三防 只從鐵嶺大路事也 鐵嶺一路外不通他岐 自有法之本意..).

111) 南都永, 「朝鮮時代 軍事通信組織의 發達」, 『韓國史論』 9, 1981, 108~126쪽.

〈표 32〉 임진강 유역의 역원

道	郡縣	驛	大馬	中馬	下馬	驛吏	驛奴	驛婢	院	撥站	撥長	步撥	騎撥
平丘	영평	梁文	3	4	3	47	49	56		梁文撥幕	1	2	
	포천	安奇	9				15	5	碧呑石, 功德	萬歲橋站			
										松隅站			
										擺撥幕	1	2	
										場街站			
迎曙	파주	馬山							焚修, 廣灘, 檜, 梨川, 惠陰, 兜率	馬山撥站			
	교하								冷井, 洛河				
桃源	적성	湘水	10			吏奴	42	7	廣水	下寒井站			
		丹棗	5			吏奴	20	6					
	장단	桃源	1	3	5	32	15	6	通濟, 冷井, 吾目, 藥師, 蓮花, 石柱, 淑川, 禪具, 天壽	招賢站			5
		仇火		2	1	3	8	2					
		東坡	4	6	4	32	15	6		東坡站			5
		白嶺	2	5	2	16	18	11					
	연천	玉溪	2	騎馬2 卜馬6			驛奴 19			松折			
銀溪	금화	生昌	5	騎馬4 卜馬11					寶德	邑站	1	3	
	이천	乾川		1	1	19	42	3	廣德				
	평강	林丹	騎馬1 卜馬2			21	15	3	石橋				
		玉洞	騎馬1 卜馬2			18	13	7					
	철원	龍潭	1	騎馬1 卜馬4		31	16	30	通化, 權化	豊田站	1	3	
		豊田	3	騎馬5 卜馬8		59	202	112					

자료 : 『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 驛院條.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원이 주로 도하지점이나 산간에 위치한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파주의 廣灘院 같이 몇몇 이름난 원에는 행려가 항시 몰려 들었다.[112] 그러나 찾는 사람의 규모나 흥업의 측면에서 관영의 원을 앞서고 있던 것은 店幕이었다. 원은 18세기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주막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는데 원의 쇠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원주인에 대한 공무수행자의 침탈과 원의 취약한 재정구조였다. 주막은 가로변, 시장, 교통분기점, 고개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여행자가 지나는 길목에 터를 잡고 음식과 숙박장소를 제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조선전기의 문헌에 주막의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18세기 이후의 각종 지지서에는 店幕이 예외 없이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되어 있다는 것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김화에는 生昌驛店, 新村店, 境上店, 院洞店, 莊岩里店, 望拜隅店, 畓峴店, 驗石里店, 注字洞店, 乾川

112) 廣灘院, 在兩京間道里適均行旅多憩宿(『新增東國輿地勝覽』 坡州 驛院條).

里店幕, 樹茂亭店, 地境店, 九丁店 등 무려 13개 주막의 이름이 『邑誌』에 등장하고 있다. 그 밖의 유명 주막으로는 파주의 細柳店 · 邑店 · 梨川店 · 下炭幕 · 臨津店, 장단의 東坡店 · 板門店, 마전의 冷井店, 포천의 松隅店 · 場巨里店 · 萬歲橋店, 삭령의 薪峴里店 · 懸壁匡里店 · 石橋場邊店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정보유통의 중심지, 문화전파의 중간 결절지인 이들 주막은 공교롭게도 驛院이 자리한 곳이나 場이 서는 곳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 松隅店만 하더라도 松隅場과 松隅站과 함께 입지해 주막의 교통 · 상업중심지형 입지추세를 잘 말해주고 있다. 場街站과 安奇驛을 옆에 두고있는 場巨里店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막은 나루터에도 들어서 있다. 도로교통에서 하천은 물자와 여객의 이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장애요소이다. 화물을 우마차에서 배로, 다시 배에서 우마차로 옮겨실어야 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 · 노동비용, 물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데 소요되는 거리비용 등이 전체적인 운송비로 추가된다. 渡津과 橋梁은 이와 같은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이다. 국가에서는 나루터를 도로교통의 일부로 보아 역에 역리, 역졸, 말이 있듯이 도진에 渡丞, 津夫, 津船을 두었다. 渡丞은 비교적 크고 중요한 나루터에 파견되는 종9품관으로, 臨津渡의 경우 예하에 54명의 津夫를 두고 10척의 津船을 운영해 임진강도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113] 도

〈표 33〉 임진강 유역의 교량과 도진

	교 량	도 · 진	비 고
양주	加業橋	大灘津	津船 1
영평	萬歲橋, 栢橋(沙近橋), 南大川橋		
파주		臨津渡, 猪浦津, 突巨離津	津船10, 津夫54
포천	高橋, 場街橋, 馬鳴里橋		
교하	高山川橋, 率吾峙橋, 揷橋, 栗浦橋	洛河渡, 金城津, 栗里津, 長串津, 防川津	
장단	板積橋, 沙川橋, 沙彌川橋	高浪津, 德津渡, 龍山渡, 猪浦	津船 각 1
연천	車灘橋	熊淵津	
적성		龜尾淵津, 神智江津, 如意津, 梨浦津, 豆只津	神智浦 · 梨浦津 · 豆只津 津船1
삭녕	後川橋, 山井橋, 度自水橋	朔寧渡, 羽化亭津, 席屯津, 戊灘渡	羽化 · 席屯 · 戊灘津船 각 1척
마전		澄波渡, 朽斤渡(腐淵津), 楡淵津(楡林津), 時郁津, 唐浦津	澄波 · 楡林津 私船, 唐浦津 官船
김화	長林橋, 普德院橋, 土橋		
이천	乾川橋(驛橋),	古城津	有 私津2處
안협	橋項橋, 邊山橋	擧城津(浦里津)	
평강	赤[illegible]院橋, 亭淵橋, 舘[illegible]橋, 石橋, 石岩川橋	長林津	
철원	大橋, 廣橋	[illegible]川津, 檢屹串津	有 津船
토산		東津	

자료 : 『輿地圖書』,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자료 : 『輿地圖書』,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113) 臨津渡, 有渡丞 關防緊要之地 人馬輻湊之衝(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진에는 관선이 비치되는 것이 보통이나 澄波渡와 楡林津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곳에 따라서는 사선이 관선을 대신해 업무를 맡아보았다. 사선업자는 도하에 대한 약간의 통행료를 징수했고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천에도 두 곳에 私津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운영방식은 이와 대동소이했을 것 같다(표 33). 도하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대개 교량을 설치하여 육로의 연속성을 회복하였다. 당시의 교량은 나무를 교각으로 이용하고 그 위에 나무가지 또는 짚을 깐 다음 흙을 덮어 만들었기 때문에 우마의 통행에도 교상이 망가지거나 홍수에 빈번히 유실되기도 하였다.[114] 교량은 수로이용과 상충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로로 활용되는 구간에서는 영구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교량의 축조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이럴 경우 연천 車灘橋의 경우와 같이 '秋冬則成春夏則毁' 하거나, 김화의 長林橋처럼 '水多則置津船渡涉而水落則作橋' 하는 식으로 유동성있게 운영한 듯하다.

전근대적인 도로교통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의 식민화전략의 일부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1906년 統監府는 治道局을 신설하고 1907년부터 도로개수사업에 착수하였다. 강점기로 들어선 1911년 4월 朝鮮總督府는 道路規則을 공포하여 도로를 1~3등 및 등외도로의 4종으로 구분한 뒤 道路修築標準에 따라 치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제1차 사업기간(1911~1917)에는 경성에서 원산에 이르는 일등도로 223.9㎞ 구간에 대해 사업비 37,344圓을 들여 3년간(1912~1914년) 추진되었다. 2차 사업기간(1917~1928)에는 나머지 23.6㎞에 대한 공사가 있었다. 이 기간에는 또한 춘천에서 금화에 이르는 일등도로와 금화에서 이천을 경유하여 시변리에 이르는 이등도로가 완공되었다. 양주에서 연천을 지나 시변리에 도달하는 이등도로도 상당 구간 공사가 진척되었다.[115] 도로정비에 앞서 龍山과 新義州를 연결하는 京義線 527.9㎞의 공사가 1904년 3월 착공되어 1906년 4월에 완공되었고, 6년 후에는 龍山에서 元山을 잇는 京元線 철도의 부설이 있었는데 총 223.7㎞의 연장에 해당하는 공사였으며 1910년 10월 착공하여 1914년 8월에 완공되었다(그림 29, 사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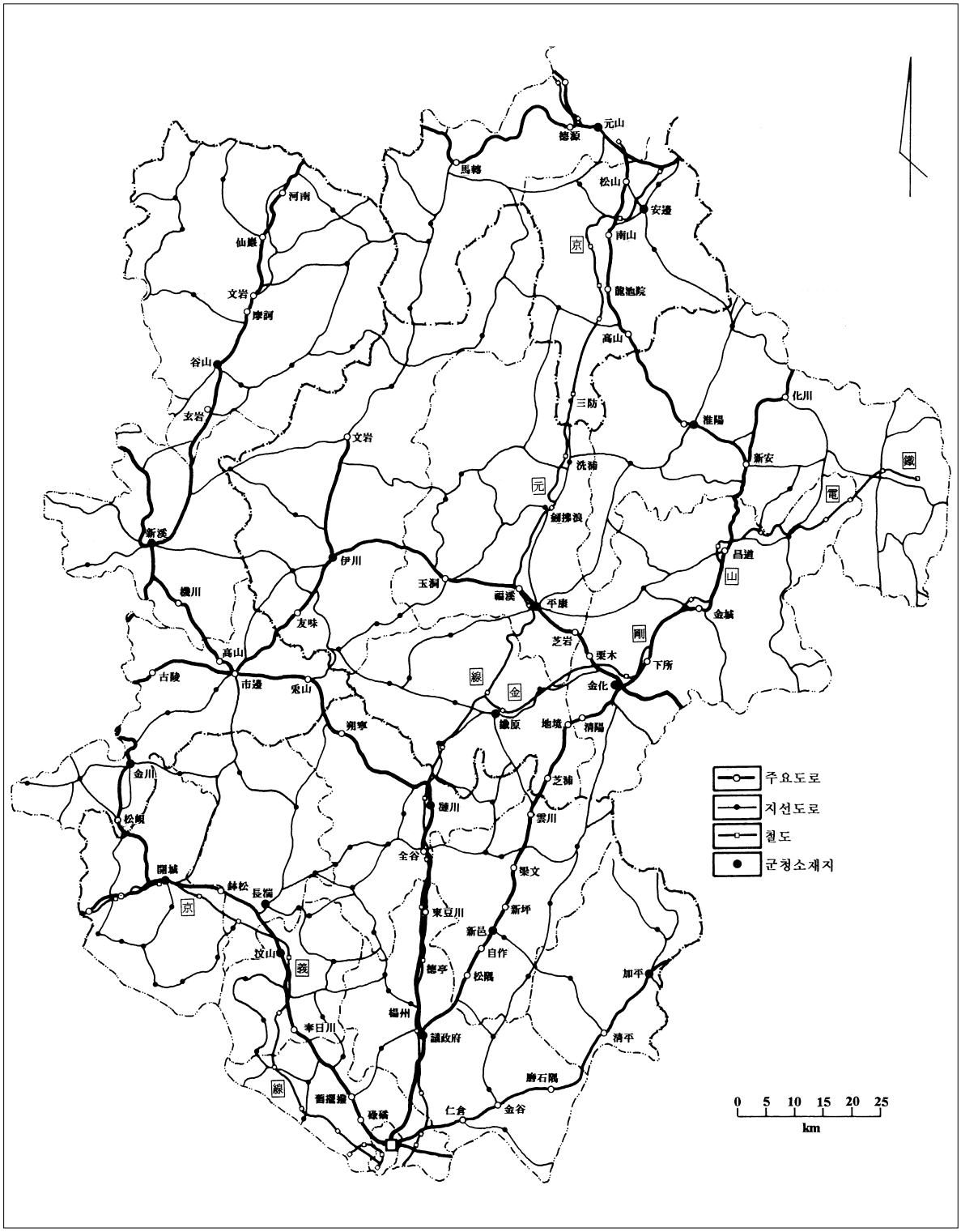


〈사진 50〉 경원선 급수탑(1914년 일제강점기 초기에 완공된 경원선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달리고 있으며 강원도 북동부의 자원침탈과 북방으로의 진출을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연천에 남아있는 이 탑은 경원선열차에 동력용 물을 공급하였다.)

지역의 경제력은 농업생산력과 생산된 재화의 교역에 의해 결정된다. 교역은 지역간 분업을 유도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은 시장경제의 발

114) 金儀遠, 『韓國國土開發史硏究』, 大學圖書, 1982, 380~381쪽.

115) 朝鮮總督府, 『朝鮮土木事業誌』, 1928, 76쪽; 朝鮮總督府, 『朝鮮土木事業誌』, 1937, 117, 137쪽.



〈그림 29〉 임진강 유역의 도로망(1930)

달에 의해 좌우된다.[116]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교통망의 확충으로 임진강 유역은 내부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발전은 지역내 · 지역간 교역에 의해 내실이 다져졌다. 임진강 유역의 상업은 조선후기에 이미 시장권을 형성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 이전 단계의 상업경제, 즉 소상품을 매개로 한 농촌사회 내부의 교역체계는 역사가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고대국가의 출현 이후 고려시대까지 주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넓은 장소에 모여 서로 교역하는 일은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117] 고려시대에는 또한 불교사원과 세가에 의해 곡물 · 직물 · 수공업품 등 잉여생산물의 强賣買 행위도 널리 행해졌는데 이 역시 상업활동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118] 그러나 농민과 수공업자를 포함하는 생산층, 상인, 소비자가 한 장소에 모여 주기적으로 교역할 수 있게된 것은 이보다 후대의 일로 보인다.[119]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경제력의 바탕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사람을 富者라 불렀다. 사대부도 정치일선에 나아가 활동하지 못할 경우 몸소 밭을 갈고 김매기 작업을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농업이었다. 당시의 사회풍조가 末業觀에 입각하여 식리행위를 부끄러운 일로 치부했기 때문에 사회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들면서 식자들의 입과 글을 통해 점차 교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임진강 중 · 하류에 소속된 경기지방은 도성에 가까워 장시의 설립이 타 지역에 비해 오히려 늦은 편이었는데 중종연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장시가 하나 둘씩 개설되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16세기 이후에는 임진강 유역에도 장시가 점차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20] 장시는 일정한 시일에 주기적으로 열리는 定期市였으며 대개 하천이나 도로변의 공지를 교역의 장소로 활용하였다. 1770년 당시 임진강 유역에는 伊川邑內(1 · 6), 佳麗州(3 · 8), 文岩(2 · 7), 安峽邑內(5 · 10), 西面(3 · 8), 東面(2 · 7), 平康邑內(5 · 10), 金化邑內(1 · 6), 鐵原邑內(2 · 7), 外西(4 · 9), 北面(1 · 6), 朔寧邑內(4 · 9), 石橋(3 · 8), 時郁(5 · 10), 水弥時(2 · 7), 漣川邑內(1 · 6), 軍營(4 · 9), 楡林津(3 · 8), 斗日(5 · 10), 長湍邑內(3 · 8), 沙川(1 · 6), 古浪浦(2 · 7), 院隅(4 · 9), 抱川邑內(3 · 8), 松隅(4 · 9), 坡州邑內(1 · 6), 廣灘(4 · 9), 梨川(3 · 8), 長坡(4 · 9), 東道川(5 · 10), 大灘(1 · 4), 加羅非(3 · 8), 笠岩(4 · 9), 등 총 33基의 장시가 있었다(그림 30).[121] 장시의 분포를 보면 유역 남서부에서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하천 상류로 갈수록 낮아져 한 개 시장이 담당해야하는 지역의 범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시의 수는 농업생산력과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1830년의 장시는 수와 분포에서 1770년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장시 가운데 14기가 소멸되었고 13기가 신설되었으며 3기는 장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시일 · 위치 · 명칭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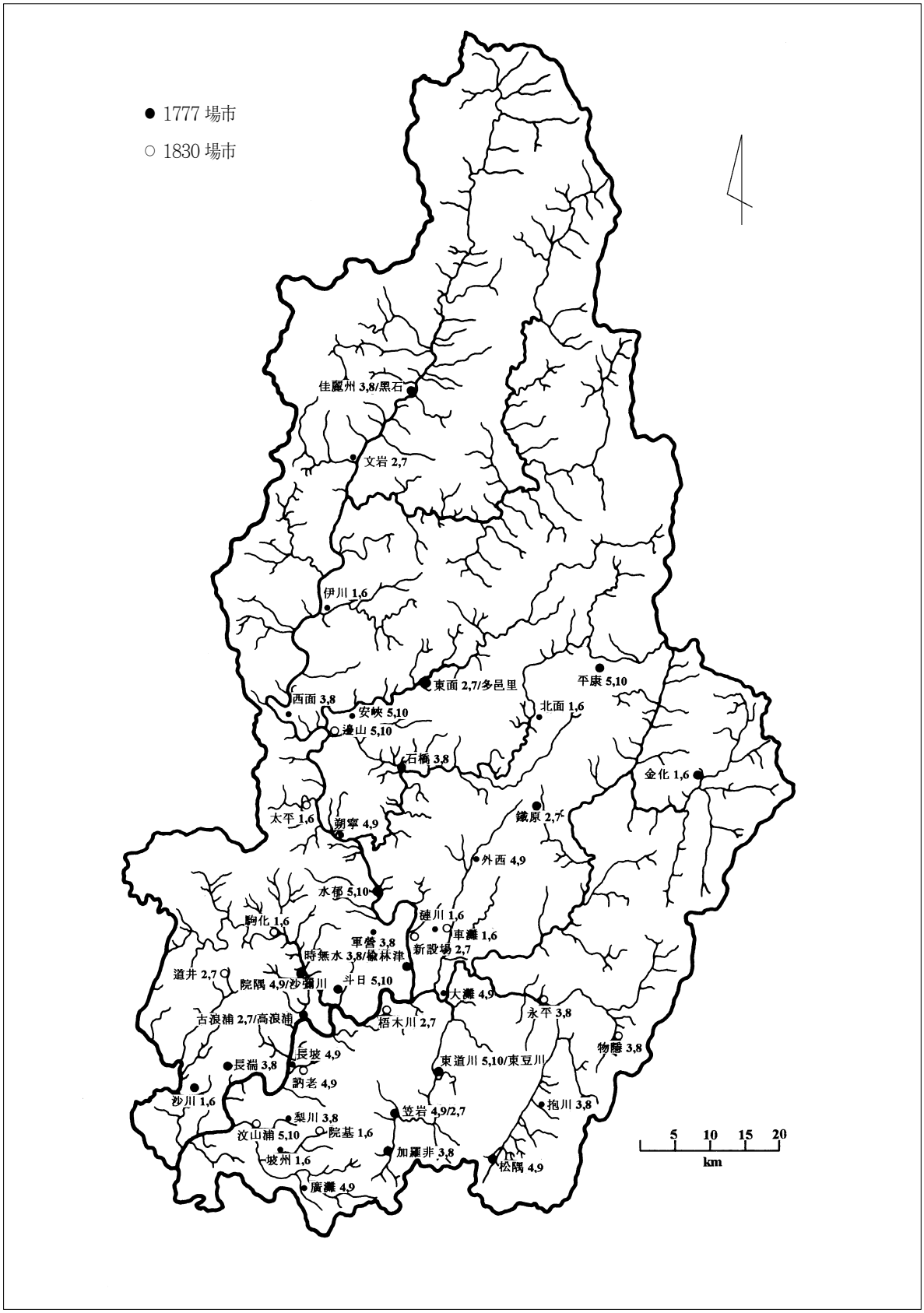
116)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London, 1776; reprint.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 31~36.

118) 道門僧人. 序惡紙布 强與貧民 以取其利(『高麗史』 권85 刑法2 禁令條).

119) 기록상으로는 휴황을 만난 전라도 농민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장문을 열어 물자를 나누었다는 성종연간의 기록이 초기의 언급이라 할 수 있다(庚寅之荒 全羅道人民 自相聚集 以開市鋪 號爲場門, 『成宗實錄』 卷27, 4년 2월 壬申). 이들 장문은 한달에 두 번 열리는 정도에 불과하여 후에 보편화되는 5일장을 성립시키기에는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20) 『中宗實錄』 卷31, 13년 정월 壬子.

121) 『東國文獻備考』 卷72, 市 考.



〈그림 30〉 임진강 유역의 장시(1770 · 1830)

시는 모두 13기로 나타났다. 도회에 위치한 읍장 역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포천 · 이천 · 삭녕 · 안협 · 파주의 읍내장은 1830년 당시 철시된 것으로 장시목록에 빠져있다. 안협과 파주의 경우 개시일이 동일한 변산장과 원기장이 인근에 신설되는 점으로 미루어 위치가 이동된 듯하다. 포천은 인근의 대장인 송우장 때문에 철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시일이 단 하루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이 읍내장에 가기보다는 하루 더 기다렸다가 송우장에 출시하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새로 생겨난 영평과 물은장의 개시일이 3 · 8일로 포천장과 동일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타당한 설명인 것 같다. 삭녕과 안협의 철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다. 개시일이 주변의 장과 중첩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열리는 것이 정상인데 폐기되어 혹시 기록상의 착오로 인한 누락이 아닐까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당시 정치적으로 민란이 많이 발생하던 상황이고 동조자를 선동할 수 있는 주무대가 장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도적인 철시도 생각해볼 수 있다.

17세기말 · 18세기초가 되면 전국의 장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상품 · 화폐경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게된다. 장시내부의 계층적인 분화와 개시일의 조정에 의한 시장망의 형성은 그러한 체계적인 움직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출방식은 흡수 · 소멸 · 통합 · 이거 등의 사유로 인한 撤市나 시장권 · 연계 · 고립기능 · 이분 · 이래 등으로 인한 장시의 新設이다.[122] 개시일조정을 통한 시장권 형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4 · 9일장에서 2 · 7장으로 개시일을 조정한 양주 입암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70년 당시 입암장 주변에서 4 · 9일장으로 열리는 장시는 대장인 송우장을 비롯하여 광탄장, 장파장 등 여럿 있는 반면 2 · 7장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개시일의 조정은 시장권을 형성하는 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830년의 장시 분포를 보면 원기장(1 · 6), 가라비(3 · 8), 송우(4 · 9), 동두천(5 · 10)과 함께 입암장의 2 · 7일 개시는 실질적인 상설시장화를 이끌어낸 셈이다.

1830년 당시 출시된 품목은 미곡을 비롯해 직물, 과일, 가축, 철물, 각종 수공예품, 어염, 임산물 등 다양하다(표 34). 미곡은 금화를 제외한 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상품화율이 무명을 제외하면 가장 높게 기록되고 있다. 곡물시장, 특히 미곡시장의 활성화는 당시 농촌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련의 사건들과 맥을 같이하며 이앙법의 보급, 광작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해, 소농의 도산을 촉진한 도조법의 정착, 삼정문란 등으로 인한 비농업인구의 증대는 자연히 미곡의 상품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123] 직물 가운데 삼베와 명주가 지역적인 편재를 보인 반면 무명은 모든 장시에서 거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실용성과 화폐대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무명의 높은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축과 어염도 많은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가축시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송아지거래를 놓고 흥정을 벌이는 장면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어염은 임진강 유역이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물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산 명태는 제수용으로 희소가치가 커 어느 장시를 가더라도 출시목록에는 반드시 들어있었다. 강화산 소금과 새우젓은 유입된 물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물품을 매입하거나 거래

122) 韓相權, 「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硏究」, 『韓國史論』, 1981, 207~235 쪽.

123) 李世永, 「18 · 19세기 穀物市場의 형성과 流通構造의 변동」, 『韓國史論』 9, 1985, 185~254쪽; 宋贊植, 「朝鮮後期 農業에 있어서의 廣作運動」, 『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一潮閣, 1970, 95~134쪽.

하기 위해 출장하는 인원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며 일년 중 추수가 끝난 후 열리는 대목장은 최대 규모였다.

〈표 34〉 임진강 유역내 주요시장의 출시 품목(1830)

군 현	장 시	시 일	미곡	연초	무명	삼베	명주	과일	견과	소	닭	철물	목기	웅기	사기	유기	종이	자리	신발	임산	꿀	어염	해조
양주	가라비	3·8	○		○	○				○		○	○	○			○	○		○		○	
파주	문산포	5·10	○		○	○	○			○			○	○	○							○	
장단	읍내	3·8	○		○		○			○				○									
삭녕	수욱	5·10	○		○			○		○	○	○		○								○	
마전	유림진	3·8	○		○							○	○					○					
영평	읍내	3·8	○		○	○				○												○	
포천	송우	4·9	○	○	○	○		○		○		○	○										
적성	두일	5·10	○	○	○	○			○	○												○	
연천	차탄	1·6	○		○					○	○	○				○				○		○	
철원	읍내	2·7	○		○															○	○		
이천	흑석	3·8	○		○	○				○												○	○
평강	읍내	5·10	○		○	○	○	○		○		○										○	
김화	읍내	1·6			○	○				○									○			○	
안협	다읍리	2·7	○	○	○		○	○														○	

자료 : 『林圓十六志』 倪圭志 卷4, 貨殖 八域場市.

한편, 임진강 유역에 유통되는 어염과 해조류의 일부는 덕원 元山村에서 삼방로를 타고 유입되었다. 내륙수운의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지역으로는 서해산 수산물의 유입이 있었지만 유역 동부의 경기내륙 및 강원도 북서부 촌락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해안의 교역체계내에 들어있었다. 중심지인 元山村은 어물 · 해초 · 소금 등 해산물의 집결지로 유명하였으며 일찍부터 인근 산촌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물론 멀리 서울의 장사치로 북적거리는 교역의 중심지였다.[124] 원산촌의 영향력은 멀리 한양에까지 미치고 있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사상 도고층의 성장에 기여한 면이 특히 주목된다.

조선 후기의 상업발달은 일반 문학작품에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연암소설에서는 근교 원예농업지역에 분뇨를 공급하던 엄행수를 穢德先生이라 희화하여 등장시키는데 당시 근교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장면은 물화를 독점하여 물가를 농단함으로써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許生이 연출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전해주는 일화로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도성 내외에서는 都賈商業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125] 18세기 이후 전개되고 있던 도고상업은 성격에 따

124)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安邊西北德原境海上有元山村 浦民聚居以漁採爲業 而海道東北通六鎭 六鎭及沿海諸邑商船皆維泊於此 凡魚鹽海菜細布輕笠貂蔘棺槨之材皆於此地出貨 故江原黃海平安京城諸商賈 集貨物委積爲大都會.

125) 宋贊植, 「燕巖小說의 社會的 考察」,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硏究』, 一潮閣, 1997, 673~683쪽.

라 시전상인과 같이 관권과 결탁한 特權的 官商都賈와 민간의 상업자본으로 성립된 獨占的 私商都賈로 나눌 수 있다.[126] 사상도고는 조선시대 최대의 소비시장인 漢陽을 무대로 상업자본을 축적해가고 있었는데, 관권에 의한 통제와 감시, 특권 시전상인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방 배후지에서 생산된 물화가 도성으로 향하는 수송요로에 해당하는 京江邊, 松坡, 樓院店, 松隅店, 仁川 등을 주로 공략하고 있다.[127]

포천의 송우는 松隅場(4 · 9), 松隅站, 松隅驛, 松隅店이 위치하여 물화와 여객의 집결지로 급성장하던 곳이다. 元山村에 수집된 동해의 해산물, 임산물, 전작물 등이 삼방로를 타고 내려와 도성을 지근거리에 두고 휴식을 취하는 길목에 송우가 있었으며 사상도고는 中都兒를 보내 물화가 다락원(樓院)에 당도하기 전 중간에서 매점하고 가격을 농단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128] 18세기 경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송우에는 현지 상인과 생산지인 원산출신의 상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129] 사상도고는 막강한 유동자본과 거미줄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본축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130] 공릉장과 파주읍내장을 무대로 활동하던 파주상인들도 담배를 대량으로 매점하여 도성내 契坊 상인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131]

약 80년이 지난 1914년의 시장분포는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그림 30). 7기의 장시가 신설되고 8기의 장시가 폐기되었으며 8기의 장시에서 개시일 혹은 장시명이 변경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외양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장단의 판문교장은 우시장을 겸하고 있다.[132] 연간거래액을 보면 철원이 140,025円으로 유역내에서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조선시대 번성하던 송우장은 124,190円으로 철원을 바짝 좇고 있으며 그 뒤로 임진강의 일대 포구인 문산포장이 62,212円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액 10,000円이상을 기록한 장시에는 김화(48,166円), 평강(46,926円), 이천(39,890円), 고랑포(28,329円), 입암(20,369円), 양문(10,688円) 등이 포함되고 있다. 1914년은 경성과 원산을 잇는 일등도로와 경원선 철도가 완공되어 시험가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또한 연천, 시변리, 이천, 평강, 김화 등 내륙의 여러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높은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는 장시는 대개 이들 철도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출시품에는 미곡 · 직물 · 가축 · 어염 등 이전부터 거래되어온 품목을 포함해 콩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장시에서 거래된 콩은 인천과 경성으로 직송되었으며 특이하게 이천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강화도로 수출되어 어민들의 어망으로 사용되었다.[133]

일제강점기 후기에 이르러 장시는 임진강의 본류와 지류를 타고 상류까지 확산되었다(그림 31). 25년 동안 4기의 장이 철시되었고 무려 14기의 장이 신설되었으므로 총 10기의 장시가 늘어난 셈이다. 이 만한

126)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168~169쪽.

127)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175쪽.

128) 內外廛等狀內 矣徒等本廛物種 專出於咸境道德源府元山之地 而自國初北商各樣物種 直送本廛 與之和賣… 七牌梨峴居金平心李春澤林聖瑞金汝珍等 稱以貿取冬魚 每年秋冬之際 直入元山 或逗 中路 窺 京市價之高歇 乘時操縱 待期歲末藏牌之時 許多魚物種 積置渠家 恣意亂賣(『各廛記事』 人卷, 嘉慶 2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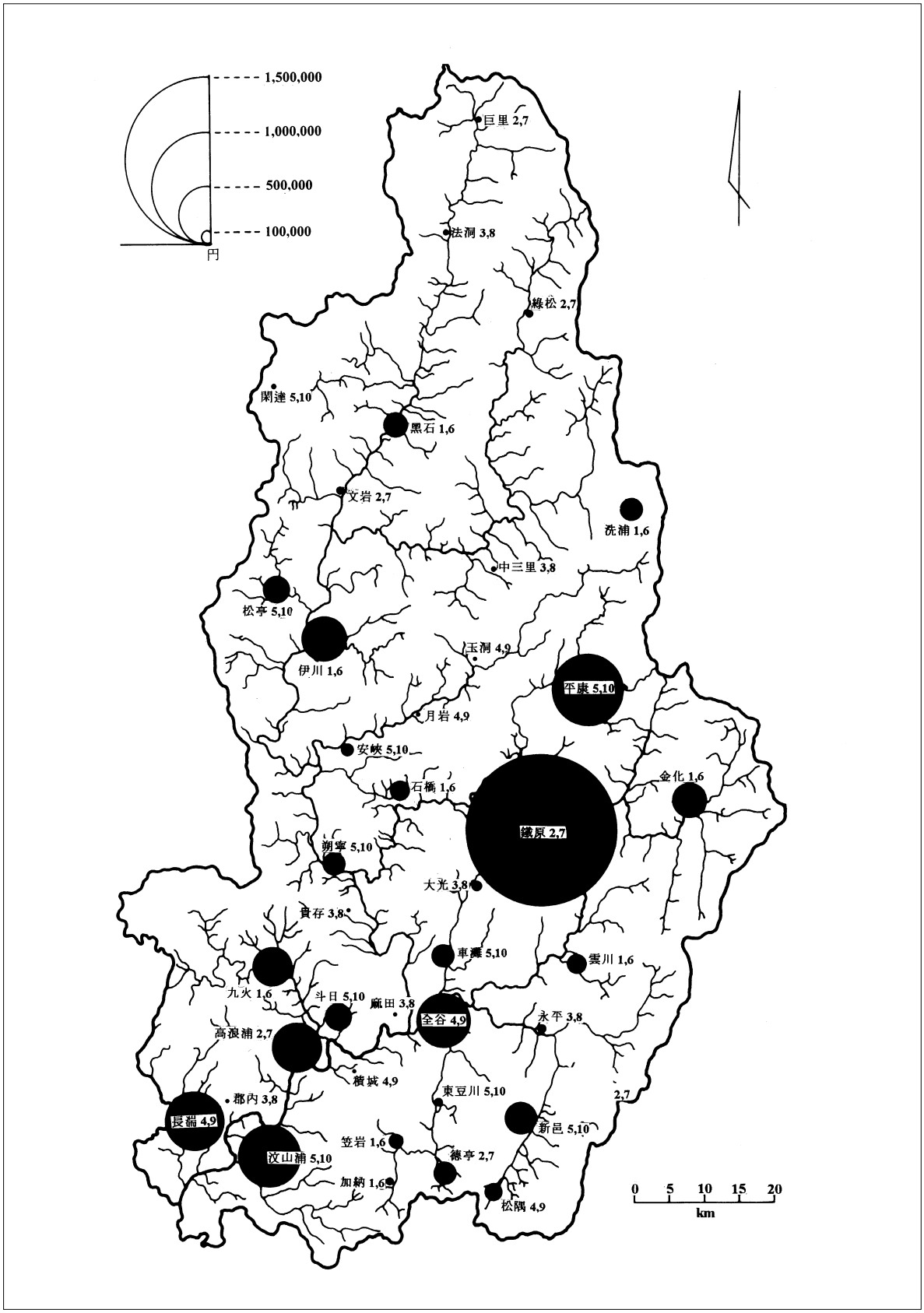
129) 市廛內外魚物廛呈狀內 北關所產 路由於本邑 而松隅店 最多都賈之人 聽聞浪藉 至於近日 日益熾盛 三廛物種 罕到城◯ 廛民守空基… 探問都賈人姓名居住 則第一元山居民南大擧金義敬金成五金致煥金厚若等五人 第二本場居民金雲敬朴貴宗李孝白等 自作主人(『各廛記事』 天卷, 戊申, 4월).

130)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187~1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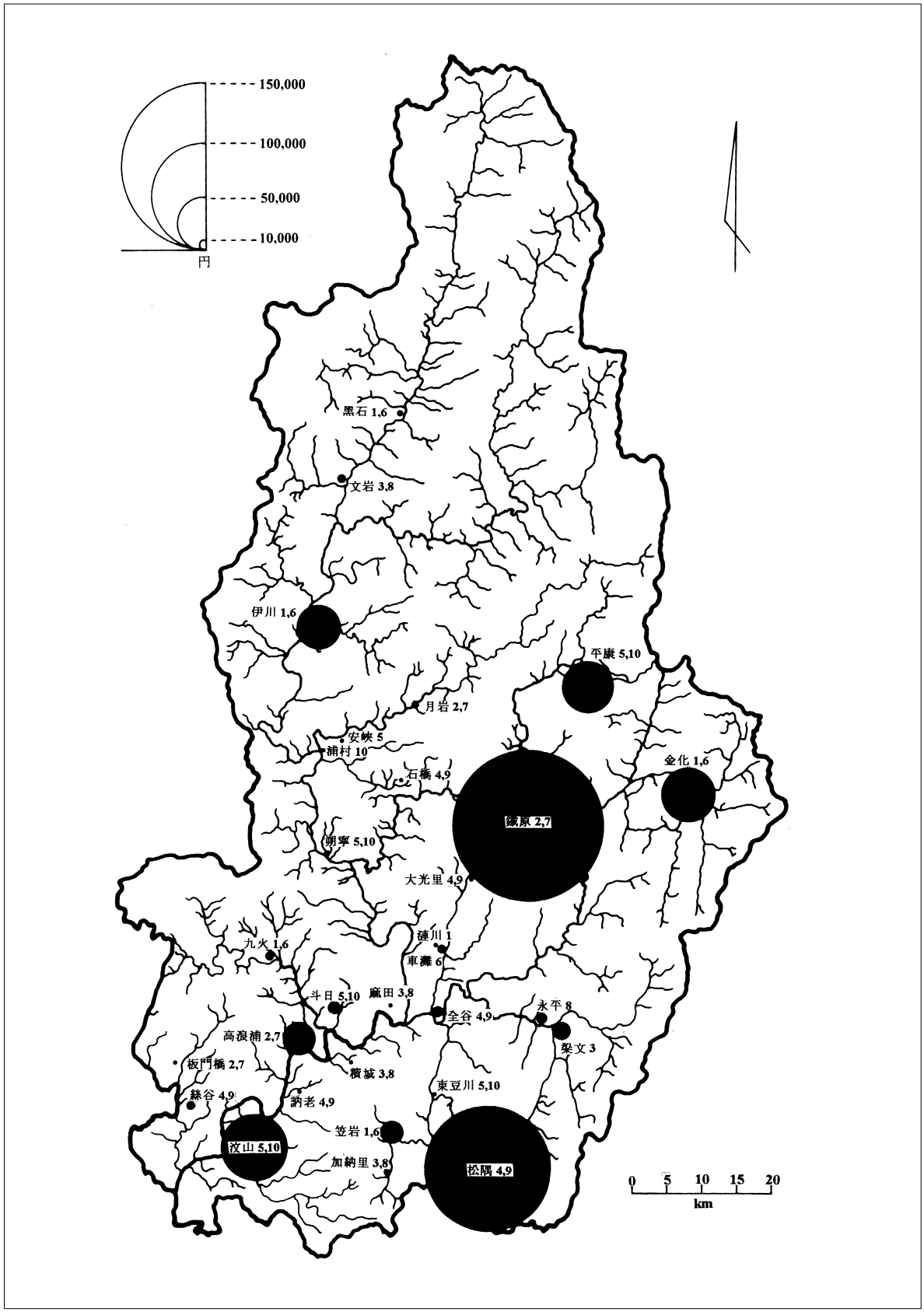
131) 홍희유, 『조선사업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217쪽.

132) 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地誌資料』, 1918, 348~349, 351, 398~399쪽.

133) 農商工部, 『朝鮮土地農產調查報告(京畿 · 忠淸 · 江原)』, 1906, 668, 675쪽.



〈그림 31〉 임진강 유역의 장시(1914)



〈그림 32〉 임진강 유역의 장시(1938)

증가율을 보인 것은 역대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전까지 장시가 없었던 북부와 북동부에 중삼리장, 세포장, 옥동장, 연송장, 법동장, 거리장이 새롭게 설립됨으로써 유역 전체가 기능적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기능적으로 통합된 장시체계는 내부적으로 계층화되었으며 거래액의 수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

유역내에서 거래액 1,000,000圓을 넘는 장시는 철원읍내장이 유일하였는데 무려 1,332,870圓에 이르고 있다. 이는 차위인 평강의 621,300圓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액수이다. 200,000圓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한 장시로는 이 밖에도 문산포(554,250), 장단(510,072), 전곡(467,527), 고랑포(425,200), 이천(374,120), 구화(337,906), 김화(288,848), 신읍(270,600), 두일(228,000), 송정(216,050) 등이 있다. 참고로 송우장은 141,692圓이라는 미약한 실적을 내고 있을 뿐이다.[134] 거래액이 많은 장시는 대개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개중에는 고랑포와 같이 임진강변에 위치하여 포구로 성장한 장이 있는데 그런 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륙수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장시에서 철도나 기타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중계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장시 가운데 신읍장은 抱川舊邑을 대신해 신 중심지로 선정된 新邑里에 들어선 장시를 가리킨다.

지역간 상업인구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1930년대 인구 센서스자료를 토대로 경제활동인구(15~59세)에 대한 상업인구의 비율을 비교해보았다. 87개면 전체에 대한 실질 상업인구의 비율은 37.8의 지수로 나타났다. 평균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총 24개 면으로 집계되었다(표 35).

〈표 35〉 임진강 유역의 지역별 상업인구 비교(1930)

等	군	면	인구	15~59	상업	(상업/경활) *1000	等	군	면	인구	15~59	상업	(상업/경활) *1000
1	철원	철원	15458	8965	1025	114.3	14	연천	북	3578	1923	96	49.9
2	파주	임진	6929	3836	430	112.1	15	장단	진남	8831	4852	235	48.4
3	김화	김화	8009	4405	455	103.3	16	이천	방장	7773	4316	203	47.0
4	연천	영근	4557	2494	251	100.6	17	철원	묘장	6324	3321	155	46.7
5	평강	평강	10650	6083	603	99.1	18	양주	회천	5128	2823	121	42.9
6	장단	장남	5742	3252	303	93.2	19	연천	군남	4632	2425	101	41.6
7	이천	이천	7960	4251	344	80.9	20	평강	고삽	14406	7952	309	38.9
8	연천	군내	7739	4265	345	80.9	21	이천	안협	5327	2904	111	38.2
9	포천	소흘	6258	3537	199	56.3	22	연천	중	5364	2965	113	38.1
10	연천	남	4602	2565	143	55.8	23	장단	군내	5776	3157	120	38.0
11	포천	서	6158	3413	174	51.0	24	파주	주내	4909	2666	101	37.9
12	평강	서	6969	3751	190	50.7							
13	양주	이담	6685	3733	189	50.6	계 (87면)			564181	310670	11753	37.8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134) 文定昌, 『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 1941, 242~243, 246, 288, 308~309, 312쪽.

개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철원군 철원면이 가장 많은 실질상업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시거래액에 투영된 철원의 중심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파주군 임진면으로 바로 문산포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철원이 동북부내륙을 대표한다면 임진면은 유역 남서부의 상업중심지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성과 원산을 잇는 일등도로와 금강산전철의 건설로 부상하기 시작한 김화가 103.3 포인트를 얻어 세 번째로 실질 상업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연천의 영근면은 전곡이 위치한 지역으로 경원선철도역이 위치한 지점인 동시에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내륙수운과 도로 · 철도의 연결성이 높아 상업인구가 많이 거주하게된 것 같다. 상위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평강은 경원선과 김화-이천을 잇는 신작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곳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24개면 전체를 연천을 기준으로 남서지역과 동북지역으로 나누어 본 결과 동북부 산간에 위치한 면이 17, 남동부에 위치한 면이 7개로 나타나 농업중심지대보다는 오히려 내륙의 교통 결절지에 상업인구가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바다와 강이 만나는 부분을 일컬어 浦口라 한다. 산이 많아 도로교통이 불편했던 우리에게 바다와 하천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록에는 연천의 澄波渡를 따라 상선의 왕래가 많았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때의 징파도는 어느 한 촌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臨津江을 지칭한다. 상선의 왕래가 잦았던 임진강에는 상당수의 포구가 발달해 있고 여기에는 旅閣, 旅客主人, 船主人, 船商主人이라 불리는 상인이 해안에서 올라오는 물화와 산지와 평야에서 생산된 물화의 교역을 중계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다.[135] 임진강 유역내 포구상업의 발달과 내륙수로의 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임진강의 수로로서의 특성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임진강은 하폭이 그다지 넓지 않고, 물살이 세며, 상류가 북부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빙이 이르고, 노정에는 여울이 많아 수로로 이용되기에는 그다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임진강의 결빙일수는 81일로 12월 15일 경 얼음이 얼기 시작해 이듬해 3월 5일 무렵 해빙된다.[136] 따라서 선박의 운항은 해빙기인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 증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1919년에서 1927년까지 연천에서 측정한 임진강의 수위와 유량은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년간 평균치를 월별로 보면, 12월(0.35m, 24.2㎥/sec), 1월(0.31m, 19.6㎥/sec), 2월(0.35m, 24.8㎥/sec), 3월(0.40m, 34.3㎥/sec), 4월(0.67m, 55.7㎥/sec), 5월(0.85m, 153.6㎥/sec), 6월(0.61m, 47.3㎥/sec), 7월(1.82m, 515.6㎥/sec), 8월(1.93m, 420.5㎥/sec), 9월(1.28m, 195.7㎥/sec), 10월(0.72m, 69.3㎥/sec), 11월(0.50m, 39.2㎥/sec) 등의 차이를 보여 준다.[137] 수위와 수량은 1월에 최소치가 기록되고 있으며 해빙기를 전후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7 · 8월에 극대치에 도달한 다음 차츰 낮아져 11월이 되면 수위가 50㎝가 된다. 선박의 吃水는 선적된 화물의 중량에 비례하여 깊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135) 故土沃爲上 舟車人物都會可以貿遷有無者次之… 貿遷交易之道乃神農聖人之法也 無此則無以生財 然馬不如車車不如船 我國山多夜少車行不便 一國商賈皆以馬載貨 道遠盤纏之費 得少 是故莫如船運貨財而爲貿遷交易之利…東海風高水悍慶尙東海邊諸邑與江原嶺東咸境一道互相通船… 舟商出入必以江海相通處管利脫貰… 漣川之澄波渡互相通船竝爲商船貰脫之所(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條).

136) 결빙일수는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에서 10년간(1918~1928) 계측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한 수치이다(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1929, 193쪽).

137)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附表』, 1929, 816~824쪽.

최소한의 수심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소규모 범선의 경우 4월에서 11월까지는 운항이 가능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船夫의 갈수기 대처방법에는 최심하상선을 따라 항해하는 방법, 비상시에 뱃골을 파고 목대로 배를 끌어 여울을 건너는 방법, 운반중인 화물의 중량을 덜어주는 방법, 상류에서 마중 나온 소규모 선박에 화물을 나누어 싣는 방법 등이 있었다.[138]

수위는 감조구간과 조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류지역이 다르고 같은 감조구간 내에서도 만조수위와 간조수위가 또한 다르다. 대체로 평균간조위는 조수영향권 밖 여러 관측지점의 평균수위와 비교해 약간 낮은 편이며 평균만조위는 상류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표 36). 지역 전체적으로 평균간조위와 상류지역의 평균수위는 모두 1m 미만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평균만조위는 4곳의 관측지점에서 모두 1m 이상이 되고 있다. 이는 상류보다는 하류지역이, 간조시보다는 만조시가 선박운항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 36〉 임진강 수위표

비감조 구간	갈수위(m)	저수위(m)	평수위(m)	평균수위(m)	최저수위		최고수위	
					년월일	수위	년월일	수위
이천	0.32	0.38	0.49	0.72	26.8.23	0.26	24.7.20	11.03
철원	0.34	0.40	0.54	0.74	17.6.24	0.21	25.7.18	13.50
연천	0.22	0.30	0.52	0.88	25.1.12	0.02	22.8.22	14.22
전곡	0.49	0.53	0.63	0.85	25.3.13	0.39	25.7.18	11.70
현석리							27.7.15	10.86

감조 구간	대조시평균		소조시평균		평균수위		최저수위		최고수위	
	간조위	만조위	간조위	만조위	간조위	만조위	년월일	수위	년월일	수위
고랑포	0.88	2.22	0.52	0.58	0.76	1.38	20.6. 1	0.01	24.7.21	16.81
임진리	0.69	2.24	0.47	1.03	0.59	1.64	27.6. 2	0.16	27.7.14	8.81
문 산	0.67	2.24	0.47	1.03	0.59	1.64	27.6. 2	0.16	27.7.14	8.81
임한면	0.83	6.38	0.76	4.54	0.71	5.51	20.2.25	0.36	25.7.19	8.08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附表』, 1929, 694~695쪽.
이천(1919~1922 평균치), 철원(1915~1927 평균치), 연천(1919~1927 평균치), 전곡(1923~1927 평균치), 현석리(1926~1927 평균치), 고랑포(1919~1924 평균치), 임진리(1927), 문산(1927), 임한면(1919~1925 평균치)

그러나 소조시의 평균간조위는 비감조구간의 평균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항해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감조구간의 상류측 경계에 해당하는 고랑포의 경우 평균만조위(1.38m)는 하류에 위치한 관측지점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나 평균간조위(0.76m)는 높다. 다시 말해 고랑포는 조수와 하천의 접촉부에 위치한 덕택에 수위의 편차가 적다는 이야기이다. 수위가 연중 고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상선의 정박을 위해서

138) 일본 중세기에도 수량이 부족하여 선박운항이 곤란해지면 상류의 하항에서 艀下船이라 불리는 소규모 선박을 보내 화물을 나누어 싣고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방법을 동원해 어려움을 해결하였다(小野寺 淳, 「河川交通の地域的機能」, 『近世歷史地理學』, 大明堂, 1985, 130~131쪽).

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감조항로변에 위치한 고랑포는 임진강 하구에서 약 44.3㎞ 떨어져 있다.

浦口는 해로와 내륙수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주로 발달한다. 육상교통의 발달이 미진했던 시절, 해로와 내륙수로 공히 막대한 양의 물화를 운반하는 천혜의 고속교통로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포구는 일찍부터 상업중심지로 부상하였으나 초창기 농업생산력의 신장이 있기 전에는 대소비시장을 배후에 둔 포구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소포구가 유통의 거점으로 도약하게된 것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가속도가 붙게되는 17 · 18세기이다. 취급품목도 어염 위주에서 점차 곡물과 생활필수품을 포함하는 쪽으로 다각화되었다. 이 단계에 이르러 포구는 일반 장시에 비견할 만한 정도로 기능이 강화되어 흔히 '浦市'로까지 불리게 된다.[139]

포구는 임진강 연안의 많은 지점과 같이 '天成港口便於船泊'한 위치에 접안시설과 여각 등의 부대설비가 마련되면서 등장한다. 접안시설에 출자했던 계층은 주로 재력이 있는 상인들로서 이들은 초기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浦口主人權을 획득해 독점적인 영리활동을 보장받는다. 船主人, 旅客主人, 旅閣主人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포구주인은 船商의 상품유통을 보조하면서 식사나 주류를 접대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점차 선상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가면서 주인권을 독점적 판매를 보장하는 재산권으로 발전시켰다.[140] 주인권은 매매, 상속, 양도가 자유로운 재산권으로 1796년 연천, 마전, 삭녕의 물자를 전담하던 문산포의 한 여객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방매하는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141]

포구상업이 활기를 띠고 주인권의 수익성이 높아가자 관부와 궁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포구를 절수하였고 절수된 포구에는 주인이 차정되었다. 관부나 궁방에서는 都旅閣主人이나 監官을 보내 포구주인세를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였다.[142] 汶山浦에도 차정된 旅閣主人이 기거하면서 포구상업을 주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건양 원년 宮內府 大臣이 파주군수 앞으로 보낸 훈령에서는 관부에서 朴宗奎와 李寅植같은 이를 주인으로 차정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143] 문산포와 같은 임진강 유역의 포구를 출발한 물화는 한강변의 경강상인에게 인도되었는데 이 당시 경강주인은 각기 다른 專管地域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하주인은 玄湖, 연천주인은 土亭里, 장단과 적성주인은 三湖 등지에 여각을 설치하였다.[144] 문산포는 파주 전세미의 선적장이었기 때문에 경강과의 교류는 항상적으로 이루어졌다.[145]

포구에는 16세기 이래 세곡과 양반지주의 소작료 운송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사선업자의 선박이 정박하였는데 바로 地土船이 그것이다. 지토선은 海船과 江船으로 나뉘며 소형이라 기동성은 있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화물을 싣고 바다에까지 나서기란 어려웠다. 지토선은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유통경제의 활성화로 점

139) 高東煥,「18 · 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발달」,『韓國史論』13, 1985, 239~242쪽.

140) 高東煥, 위의 논문, 251~254쪽.

141) 嘉慶元年 十二月十五日 姜遇聖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高泰成處賣得資生 朔寧麻田漣川等三邑 旅客及船隻主人之役果 漣川稅穀主人所納錢三百兩果 右人前 價折錢文七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肆度 立旨壹丈 前後立案節目議送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子孫中 如有是非之弊是去等 此文記告官卞正事財主 鄭龍湖 證人 金得光 朴道膺 金河瑞執筆 倉壽民(旅客主人文記, 奎217489).

142) 韓沽劤,『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 一潮閣, 1985, 180쪽.

143)『訓令』제1冊, 坡州1號 建陽元年 4월 7일; 제2冊, 坡州2號 建陽元年 6월 11일.

144) 李炳天,「朝鮮後期 商品流通과 旅客主人」,『經濟史學』6, 1983, 105쪽.

145)『邑誌』坡州 田稅條(每年自三月初旬間 捧上同月望間發船文山浦口 經蟹踰浦到泊西江納于廣興倉).

차 대형화하였는데 형태는 선수 · 선미 · 선저가 모두 평탄한 平底船이었으며 물자교류가 전문화 · 세분화되자 선박도 곡물선 · 생선배 · 소금배 · 시탄선 · 새우젓배 등으로 분화되었다.[146] 임진강을 오르내리던 선박 역시 평저선이었으며 하구에서 바로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할 필요가 없어 큰 선박으로 화물을 이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었다.

보통 내륙수로는 상류에서 운반된 토사의 퇴적으로 수면이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임진강을 오가던 선박의 규모가 이처럼 증대되고 있지만 어려움 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두 번 반복되는 조류의 영향이 컸다. 고조시에는 수심이 깊어져 대형선박이 쉽게 상류로 소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한 빠른 조류가 하상에 쌓인 토사를 외해로 운반해가기 때문에 굳이 준설하지 않아도 수로가 유지될 수 있었다.[147] 포구상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삼각강의 만입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수리역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강은 汶山浦와 高浪浦를 축으로 都監浦와 楡津을 경유하여 멀게는 安峽과 兎山 등 하구에서 90㎞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어주는 한반도 중북부내륙의 중추적인 수로였다. 감조구간인 하구에서 고랑포까지는 400석 분량의 곡물을 실은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였고 한탄강과의 합리점인 도감포에서 가항종점까지는 적어도 60석 규모의 범선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상류로 올라가는 노정에는 많은 여울을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麻田과 安峽사이에는 약 40여 처의 험난한 지점이 있었다.[148]

수운은 주로 본류인 임진강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지만 지류인 한탄강도 도감포에서 12㎞ 상류에 위치한 전곡까지는 범선의 소통이 가능하였고 문산천을 거슬러 3㎞ 지점에 있는 문산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선박을 통해 이동하던 물화 가운데 수출품은 대두를 비롯한 곡물의 비중이 월등하였고 수입품은 강화산 소금과 같은 서해안의 수산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이 주종을 이루었다(표 37). 신작로와 철도시대가 열리는 20세기 초에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져 내륙수로의 기능이 다소 주춤하였지만 대도시인 경성에 가깝고 목적지까지는 임진강 하구에서 합류하는 한강을 통해 도달할 수 있어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수운의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 汶山浦는 철도 · 수로 · 육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물화의 대집산지로 5천석이 넘는 콩과 연해지역에서 제조된 소금 등을 취급하였다. 이들 화물의 수송에 동원된 선박은 종래 지토선으로 구성된 江船 위주에서, 물화의 규모가 늘고 바다를 거쳐 仁川 등지로의 진출도 있었기 때문에 감조구간에서 海船을 운영하여 다량 수송에 나서는 등 다변화가 시도되었다. 문산포와 더불어 하류의 중심포구로 성장한 高浪浦에는 장단콩의 집산을 책임진 전문 객주 7~8명이 있었다. 대두수출은 음력 9~10월에 시작하여 한강이 결빙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귀항길에는 소금, 직물, 등유 등의 물품이 수입되었다.[149]

---

146) 崔完基, 『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 一潮閣, 1989, 162~168쪽.

147) 내륙수로의 발달이 탁월한 영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山口平四郎, 『交通地理の基礎的硏究』, 大明堂, 1974, 236쪽).

148)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1929, 397쪽.

149) 農商工部, 『朝鮮土地農産調査報告(京畿 · 忠淸 · 江原)』, 1906, 668쪽.

〈표 37〉 임진강 내륙수로의 운영(1915)

河川	渡津	航程	感潮航路	內陸航路	可航船舶	貨物重量	主要貨物(出/入)
本流	河口	-	-				
	食峴浦	2.5㎞	2.5㎞		200~400石		곡물 / 소금
	洛河里	7.5	10.0		同		同
	汶山川口	3.0	13.0		同		同
	水川浦	7.0	20.0		同		同
	臨津里	11.6	31.6		同		同
	斗浦里	2.8	34.4		同		同
	長坡里	2.8	37.2		同		同
	高浪浦	7.1	44.3	-	同	11,600톤	콩/소금 · 석유 · 잡화
	麻田	20.4		20.4	100石		곡물 / 소금
	都監浦	4.3		24.7	60石		
	楡津	5.3		30.0	同		
	三串里	7.2		37.2	同		곡물 / 소금
	兎山	36.0		73.2	同		同
	安峽	5.6		78.8	同		同
漢灘江	都監浦	-		-	同		
	全谷	12.0		12.0	同		
汶山川	合流點	-			200石		
	汶山浦	3.0	3.0		同	10,306톤	
계		138.1㎞	47.3㎞	90.8㎞		21,906톤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1929, 396쪽.

제2절 교통로 및 시장의 형성과 발전*

1. 서 론 - 임진강 유역의 지리적 특징

임진강은 우리나라 중앙부의 서쪽 평야지대를 가로지르는 강이다. 이 강을 건너면 북쪽으로는 개성 일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강은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伊川의 古味呑川, 평강의 平安川, 경기도 철원의 驛谷川, 강원도 김화군의 南大川, 경기도 포천의 永平川, 전곡의 漢灘江, 장단의 芝皐川 등을 합류하고, 한강하류로 유입되어 서해바다로 흘러든다.

여기서 임진강을 중심으로 이 강과 합류하는 주요 하천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임진강은 연천군을 동서로 나누며 흐르다가 군남면 남계리의 都監浦에 이르러 한탄강과 합류한다. 이후 연천군 장남면 石浦에서 파주시를 흘러나가 交河에서 한강과 만난다.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포천군을 거쳐 연천군의 청산면의 아우라지에서 영평천과 만나 21㎞정도를 흘러 임진강으로 유입된다. 차탄천은 철원에서 발원하여 연천읍과 전곡읍의 인구밀집지대를 통과하며 전곡리에 이르러 한탄강으로 유입한다. 역곡천은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연천의 북쪽 경계를 이루며 흐르다가 임진강으로 유입한다. 지고천은 장단군에서 발원하여 연천군 백학면 가여울 앞에서 임진강과 만난다.

임진강은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7개 군을 통과하고, 전체 길이는 254㎞에 달하며, 밀물 때에는 바닷물이 파주군 파평면 장파리까지 올라오고 있으며, 배가 운항할 수 있는 거리는 80㎞에 달한다. 도로와 교통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지는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이에 반해 하천은 대량의 물품운송이나 문화전파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었다.

---

*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 지역은 육로교통이 불편하고 교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교통로 및 운송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18~19세기에는 중요한 하천통상로의 하나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임진강 유역은 많은 나루를 통해 크고 작은 화물선과 인마가 왕래하는 곳이었고, 상류의 강기슭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업중심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연천의 징파나루는 단순한 渡船場이 아니라 강가에 있었던 상업거점으로 발전하였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고랑포까지 큰 배가 드나들었고, 작은 배는 安峽까지도 왕래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해안의 조기 · 새우젓 · 소금 등 해산물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운반되어 경기 북부 지역의 농특산물과 자연스럽게 교역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 것이 임진강이었다.

그리고 임진강은 다른 강물과 달리 강 양안에 수직의 절벽이 연속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양안이 절벽일 경우 강폭은 좁고 유속은 4~5m로 빠른 편이며 단애가 없는 지역은 강폭이 넓어지면서 유속도 2~3m로 느려지고 수심도 1m 이내로 되는 곳도 적지 않다. 이 지역에 많은 여울이 있는 것도 이런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다.

여울이 많은 것처럼 지형적으로 나루터가 많다. 여울은 특별한 장비없이 건널 수 있는 곳이지만 나루터는 간단한 배나 뗏목 등을 이용해야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상류쪽으로 갈수록 여울이 많고 중류와 하류쪽에 나루터가 좀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나루터나 여울은 주로 강 양안이 절벽인 곳에는 발달하지 못하고 양쪽이 비교적 평평한 곳에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넜을 때 내륙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곡이나 하천 등에 나루터나 여울이 많다. 나루터나 여울은 강을 건너기 쉬운 곳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다.

임진강 일대의 대표적인 나루터와 여울을 살펴보면 먼저 서쪽으로부터 수내나루, 장산리나루, 석포나루, 고랑포나루, 재재이나루, 두지나루, 가여울 등이다. 이와 같은 지역에는 대개 적의 침입과 도강을 저지할 목적으로 그 지형에 맞는 형태로 성곽이 만들어졌다. 즉 이러한 지역은 각 시기마다 군사적 목적이든 다른 어떤 목적이든 주요한 교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임진강 · 한탄강 유역은 선사시대 이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다. 그 이유는 음료수의 확보가 손쉬웠고, 주식을 대신할 수 있는 어류의 획득 또한 용이하였다. 그리고 동식물의 수렵과 채집을 통해 식량 확보가 가장 유리하였고, 강물을 통한 이동도 편리하였다는 점 등이 중요한 거주지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거주의 주요 요건은 지금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며, 오히려 더욱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 론

1) 임진강 유역을 확보하기 위한 삼국의 각축

한반도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임진강은 삼국시대 이래 교통의 요지로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어 이곳을 차지하려는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가 많았던 곳이다.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비교적 수량이 적고 강폭이 좁아 다른 큰 강들과는 달리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통로로 볼 때는 좋은 것이지만 군사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취약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임진강 유역 곳곳에는 도강을 저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들이 많이 축조되었다.

임진강 유역이 역사상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시 되었음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백제와 고구려, 또는 말갈 등이 충돌하는 곳이었다. 고구려의 세력하에 있던 말갈은 원산만 방면에서 철원 · 연천 · 파주에 이르는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백제에 자주 침입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남쪽으로도 진출하였다. 광개토대왕은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사망한 것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백제를 공격하였다. 그는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한강 이북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요충지였던 관미성을 함락시켰다. 관미성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고구려는 한강 하구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백제의 한강 이북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은 고구려 · 백제 뿐만 아니라 신라 역시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삼국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라와 백제가 동맹하여 고구려의 남진을 제어하였다.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의 6개 군을 점령하였고, 신라는 죽령 이북의 10개 군을 확보하였다. 이후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체제와는 별도로 철령지역까지 점령하였다. 신라로서는 백제와 동맹하여 계속 북진할 경우 황해도 방면의 진출은 그 영유권이 백제로 편입될 것을 예견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였다. 결국 신라는 백제와 결별한 후 임진강선에서 갈라져 단독으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강원도 회양을 지나 철령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이 지역 사이에 교통로가 존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문무왕 때 말갈병이 임진강 근처의 칠중성을 공격한 직후 강원도 淮陽의 赤木城을 공격한 기록을 통해 임진강유역과 추가령구조곡을 이어주는 교통망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임진강 일대는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연합군이었던 당나라 군대가 이제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673년 당나라는 말갈과 거란병의 혼성부대를 구성하여 신라의 북방인 임진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신라군은 이들을 맞아 9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며, 호로하와 한강 하구의 행주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임진강 유역의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크게 격파한 후 물러가기도 하였다. 675년에는 20만에 달하는 대군이 공격을 감행하자 신라군은 연천군 청산면에 소재한 買肖城을 근거로 대항하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나라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전과를 거두었다.[1] 그 뒤에도 여러 차례의 침략이 있었지만 당나라는 끝내 신라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후삼국시대에도 임진강 유역은 세력확장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곳이었다.

이 지역 일대에 산재한 여러 형태의 성곽과 이들 성을 둘러싼 전투를 통해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살펴보자. 임진강은 그 지리적 위치와 역사상 한

1)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 9월조.

반도의 남북세력간에 국경하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2]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인근에는 평야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 일대에는 대개 적의 침입과 도강을 저지할 목적으로 그 지형에 맞는 형태로 성곽이 만들어졌다. 고구려 · 백제 · 신라는 이들 성을 방어하거나 점령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전투를 감행하였다. 임진강 유역 가까이에 위치한 성곽들의 위치와 그 기능을 이 지역의 교통로와 연결지어 살펴보자.[3]

오두산성은 임진강 하류 최하단에 위치한 산성이다. 이 산성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에서 한강 혹은 임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한다. 즉 오두산성은 해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세력을 막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축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곳은 고대부터 교통의 요지와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성은 백제에 의해 북방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축성되었으나 이후 고구려에 의해 탈취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제는 수도인 위례성이 고구려에 의해 포위되었던 사실만 보아도 이곳이 임진강의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덕진산성은 지리상으로 임진강이 북으로 돌아 초평도를 끼고 서쪽으로 흐르는 임진강가의 북쪽 봉우리에 있다. 이 산성은 특히 삼국시대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 성의 우측에는 수내나루와 猪浦가 있고, 좌측에는 초평도를 거쳐서 강을 건너는 덕진나루가 있다. 즉 이곳은 지형상으로 임진강의 남쪽 지역을 광범위하게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산성 앞의 임진강은 초평도가 있어서 강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비교적 강을 건너기가 쉬운 곳이다. 따라서 이 산성은 북쪽의 덕진나루와 서쪽의 수내나루를 통하여 북상하는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덕진산성은 임진강 하류방면의 도하가 쉬운 지역을 방어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서쪽의 오두산성과 아울러 고구려 · 백제 · 신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칠중성이 위치한 곳은 현재 문산, 파주에서 전곡, 연천으로 이어지는 국도와 개성, 장단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지방도로가 교차하며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지금처럼 삼국시대에도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곳이고, 실제로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던 곳이었다. 칠중성이 위치한 곳은 해발 149m의 비교적 낮은 곳이다. 하지만 성 주변은 대개 낮은 구릉과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산 위에서 임진강변 일대를 조망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이다. 이 산성에 올라 북쪽을 보면 임진강이 한 눈에 들어오고, 오른쪽으로는 서울로 통하는 지방도로가 보이며, 뒷쪽으로는 파주쪽으로 연결되는 국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 임진강변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싸움은 대부분 칠중성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

2) 이중환은 『**擇里志**』 **四民總論** 경기도에서 **臨津渡** 부분을 설명하면서 "강 기슭 남쪽은 마치 천연으로 된 성 모양 같다. 또 서쪽 길의 요새가 되고, 강에 임하여 험하고 절벽이 되어서 참으로 가히 지킬만한 땅이며 성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여 이곳이 군사 요충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1994) · 『경기도 연천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1995)를 주로 참조하였다.

그 이유는 칠중성이 특별한 도하장비 없이 임진강을 건널 수 있는 지역인 중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여울 또는 戍灘으로 불리는 곳은 삼국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중공군이 임진강을 건넌 곳이기도 하다. 고구려를 비롯한 북방 세력이 남쪽으로 진출할 때 주로 이용했던 이동로가 바로 이 부근이었다.

호로고루 성지는 현재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 재미산 위에 있는 성지로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에 있는 고루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호로고루 성지에 대한 기록은 조선후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長湍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호로고루는 장단부 읍치에서 32리 되는 호로탄 위에 있으며, 2개의 壘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대하고 있으며 석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삼국시대의 고루로서 당나라의 劉仁軌가 군사를 인솔하여 호로하를 끊고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였던 곳이 바로 이 루이다"라 하였다.

호로고루성에서 남쪽으로 임진강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는 고랑포, 왼쪽으로는 頭耆津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정면으로는 적성면 장좌리 일대를 굽어볼 수 있다. 이 성의 형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꼭지 부분의 하단이 옛날 紫芝浦라고 불렸던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임진강을 건너다니는 중요한 길목 중 하나였음을 추측케 한다.

당포성지는 임진강 본류와 한탄강이 만나서 북쪽으로 돌아흐르는 강북안의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의 왼쪽에는 자그마한 시내가 임진강으로 흘러들면서 낭떠러지를 이루어 성지와 단절시켜 놓고 있다. 파주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적성을 지나면 좌측으로 칠중성이 보이는데 이곳을 지나면 백학면쪽으로 연결되는 349번 지방도와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우회하여 계속 37번 국도를 따라가면 어유지리마을에 이르는데 마을을 관통하면 당개나루가 있고 그 건너편의 단애 위에 당포성이 구축되어 있다. 당포성의 기능은 호로고루성과 마찬가지로 남쪽 세력의 도하를 저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포성은 양주방면에서 수출성과 아미성이 있는 감악산 동로를 지나 임진강을 건너는 최단거리에 있는 나루터인 당개나루를 감제할 수 있는 임진강의 남쪽으로부터의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쌓은 성으로서, 고구려가 신라나 백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한 성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성을 둘러싼 전투에 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성의 위치가 임진강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진출하려던 세력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별로 없었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육계토성은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에 있는 성으로 임진강의 灣曲部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동쪽으로 개여울과 서쪽으로 호로탄의 중간지대로서 전방으로는 사미천이 합류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임진강의 굴절이 심하고 여기에 사미천이 합류되는 여울이 있기 때문에 어류가 풍부하여 일찍부터 어로생활에 적합한 터전이었다.

2) 고려시대 驛制의 정비와 임진강 유역의 교통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道制의 수용이었다. 물론 이 道는 여러가지 개념으로 사용

되었다. 즉 구체적인 방면을 나타내거나 교통로의 의미, 그리고 행정기구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로정책과 관련된 驛路로서의 도제를 의미한다.

고려의 역제도는 국초부터 상당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태조 왕건의 詔書에 "역에 소속된 民戶에게 絲 3束이나 부과하여 마침내 백성들 중에서 농사와 길쌈을 집어치우고 流亡하는 사람이 잇달았다."고[4] 한 것이나, 성종 원년 崔承老가 올린 시무 28조의 내용 중 "여러 州 · 郡 · 縣 및 亭 · 驛 · 津 · 渡의 세력 있는 자들이 다투어가며 큰 집을 지어 제도를 어겼으니 이는 다만 한 집의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실은 백성을 부린 것이다."라고[5] 하는 내용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어쨌든 고려의 지방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에 이르러서였다.

성종대에는 주 · 부 · 군 · 현 · 館 · 驛에 公須田 · 紙田 · 長田 등의 토지를 지급하고, 또 公須柴地를 지급하여 역의 경제적인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6] 이후 역에 있어서 驛長과 戶長에 대한 칭호를 구분하게 하였고, 전국의 역을 중앙의 통제 아래 두어 개경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역로망을 형성해 갔다. 이러한 정비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 22驛道 525驛이라는 방대한 驛組織網이었다. 고려시대의 각 역은 그 위치나 역도의 크고 작음, 중요도에 따라 대로 · 중로 · 소로의 3등급으로 나누고, 驛丁을 차등있게 배정하였다.

또한 각 역의 역정수에 따라 역장을 2명 또는 3명씩 두었다. 성종대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 역장은 그 역이 대로에 속해 있고 역정이 40정 이상의 경우에는 3인, 중로에 속해 있고 10정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소로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중로의 예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다.

『고려사』 兵志 站驛條에 의거하여 임진강 유역 일대와 관련된 역로망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22개 역도 가운데 임진강 유역 일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桃源道와 靑郊道였다. 도원도는 개성으로부터 長湍 · 麻田 · 鐵原 · 平康 · 淮陽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된 도로이고, 청교도는 개경으로부터 장단 · 파주 · 交河 · 高陽 · 楊州 · 서울 사이에 분포된 도로로서 개경과 서울을 이어주는 주요 도로였다. 도원도와 청교도의 도로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7] 괄호안의 지명 중 앞의 것은 고려시대의 지명이고, 뒤에 것은 조선시대의 지명이다.

桃源道

桃源(松林 : 長湍)-白嶺(湍州 : 長湍)-玉溪(漳州: 漣川)-龍潭(東州 : 鐵原)-楓川(東州 : 鐵原)-臨湍(林丹 : 平康)-松間(嵐谷: 淮陽)-銀溪(交州 : 淮陽)-臨江(臨江 : 長湍)-田原(東州)-桃昌(生昌 金化)-南驛(新化 金化)-丹岾(金化)-洞陰(洞陰 : 永平)-朔寧(朔寧)-烽谷(僧嶺 : 朔寧)-通堰(交州 : 淮陽)-梨嶺(金城)-直木(金城)-熊壤(岐城 : 金城)

4) 『고려사절요』 권1, 太祖.
5) 『고려사절요』 권2, 成宗 원년 壬午.
6) 『고려사』 권78, 食貨志 公田柴.
7) 『高麗史』 권82, 兵志 站驛條.

青郊道

青郊(개성 保定門 밖 5리 파주 부근)-通波(臨津 : 長湍 東坡)-馬山(峯城 : 坡州 남 4리)-碧池(高峰 : 高陽 碧蹄)-迎曙(南京 : 楊州)-平理(德水 : 高陽)-橡林(湘水 : 積城)-丹棗(積城 서 4리)-淸波(南京 : 漢城 숭례문 밖 3리)-蘆原(南京 : 漢城 흥인문 밖 4리)-幸州(幸州 : 高陽)-從繩(守安 : 通津 終生)-金輪(樹州 : 富平 북 13리)-重林(仁州 : 仁川 서 33리)-綠楊(見州 : 楊州 남 30리)

고려시대에 역로를 비롯한 도로의 관할은 兵部가 총괄하고 있었다. 중앙에서 관장하는 驛務행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완되어 고려후기에 이르면 각 도의 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각 역로도 마찬가지였다. 고종 13년(1226)의 기록에 의하면 각 역이 迎送에 따르는 어려움과 폐단이 많아 한강과 임진강내에 있는 青郊 · 邇波 · 馬山 · 碧池 · 迎曙 · 淸波 · 蘆原 · 綠楊 · 丹棗 등의 역에 臨津課橋別監을 두어 撫恤하고 있다.[8] 이와같은 여건은 이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역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왕명이나 공문서의 전달에 있었다. 역참의 설치목적이 무엇보다 군사적인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능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또는 각 군현사이의 연락망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사신 왕래나 공물 또는 조세의 운반에도 이용되었다.

역을 통해 공문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하나는 懸鈴傳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皮角傳送이다. 이것은 변경의 급박한 군사정보나 외교문서의 전달 등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다. 현령전송방식은 문서를 가죽부대에 넣고 방울을 달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달사항의 중요도와 緩急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즉 가장 급한 경우인 3急에는 3개의 방울을 달고, 다음 2急인 경우에는 2개의 방울을 달고, 1急인 경우에는 한 개의 방울을 달아 전송하였다.

피각전송은 말 그대로 뿔통에 문서를 넣어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종이부대에 넣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가 나중에는 현령전송 방식으로 통일되었다. 피각전송의 경우 해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을 고려하여 하루 동안에 전달하는 역수를 정하였다. 즉 2월부터 7월까지 낮이 비교적 긴 계절에는 3急인 경우 6역, 2急인 경우 5역, 1急인 경우 4역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8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낮이 비교적 짧은 때에는 3급인 경우 5역, 2급인 경우 4역, 1급인 경우 3역을 통과하도록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다. 대개의 경우 30리 정도마다 역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1급이라도 하루에 90리 정도는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참은 사신왕래에 따른 迎送과 官物 및 공물과 진상물의 수송 등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망은 漕運制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조운제는 지방 군현의 세곡 수납에 있어서 지역을 구분하여 수납한 세곡을 일단 국가가 설치한 각 漕倉에 집적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선

8) 『고려사』 권82, 兵志 권36.

박에 실어 海路 또는 水路를 이용하여 수도에 있는 京倉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정종대에는 각 지역의 세곡을 수납 · 보관 · 운송을 위한 조창을 13곳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여러 군현에는 개경과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창이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여러 나루에서 인근의 세곡을 모아 수로나 육로를 이용하여 개경의 경창으로 直納하였다.

고려시대에 송도가 수도로 정해졌지만 임진강과 한강은 매우 중요시 되었다. 고려초 지방관제가 정해질 때에는 무엇보다 양계지역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임진강 유역에는 抱州에 團練使가 파견된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나루는 군대 이동과 물자수송에 있어서 유용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이곳이 중요한 교통로였음은 북방민족의 한반도 침입 때에 임진강 유역이 주요 침입로로 이용되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북방 이민족의 한반도 침입로는 대개 개경-장단-문산-남경로였다. 거란의 遺種이 고려를 침입할 때는 방비가 강화된 개경을 공격하지 않고 동북방의 牛峰縣을 공격한 다음 장단을 거쳐 개여울을 건너서 육계토성과 적성을 경유하여 철원을 점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 임진강 유역의 교통

(1) 역참조직과 교통로

조선시대의 역참은 고려시대의 조직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개편하면서 재조직하였다.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도를 강력하게 추구하던 조선왕조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역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개편작업을 하였다. 역마의 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는 병조에서 관장하고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북방 야인과의 외교관계를 중요시하고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역참제도를 정비해 나갔으며, 사신의 왕래나 군사방어, 물화운송 등의 문제도 반영하였다. 한편 경기도와 하삼도 역시 역의 중요도에 따라 역참을 개편하였다. 역은 주요 도로에 대략 30~40리 간격으로 설치하고 마필과 役丁을 배치하여 공문을 전달하는 일 외에 공무수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그밖에 진상하는 官物을 遞送하는 업무까지도 담당하였다.

각 역에는 역장과 驛吏, 역졸을 두어 역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개 내지 수십 개의 역을 한 道로 하여 驛丞 또는 察訪이 이를 관장하는 동시에 교통로상의 정보, 문제점 등을 수합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선초기 경기도에는 찰방 3명과 역승 5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밖에 서울 주변 및 경기도의 주요 渡船所에는 종9품직인 渡丞을 두기도 하였다. 이들 지역은 다음과 같다. 예성강의 碧瀾渡(개성~연안 사이), 한강의 漢江渡(서울~용인 사이), 임진강의 臨津渡(파주~장단 사이), 한강의 路梁津(서울~시흥 사이), 임진강의 洛河渡(교하~개성 사이), 한강의 三田渡(서울~광주 사이), 한강의 楊花渡(서울~인천 사이)였다. 도선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지역은 서울과 각 지방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방지역의 역참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역리 등을 포함한 驛員의 확보였다. 이에 따라 조정에

서는 하삼도에서 역리 등을 확보하여 이들을 이주시키는 정책도 추진하였다. 역마의 사용에는 驛牌라는 증명서가 필요하였는데, 이것은 사용자의 계급 또는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 마필수가 차이가 있었다. 말을 사용하는 수대로 새겨 놓은 표가 馬牌였다.

역참제도의 운영은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역로의 凋弊 원인은 큰 전란을 겪은 뒤이기도 했지만 중앙 감독의 소홀과 역리들의 처우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여러 자료에는 각 도의 驛路가 廢絶되어 파발이나 禁軍으로 명령을 전하려 해도 중도에서 막히는 사례가 많다며 복구대책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경기도의 역참조직 가운데 임진강유역과 관련된 군현의 역참조직을 『증보문헌비고』를 통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임진강유역의 염참조직

察訪道	驛丞道	驛數	驛名(괄호 안은 군현명)
迎曙道		7	迎曙(양주) 碧蹄(고양) 馬山(파주) 東坡(장단) 靑郊(개성) 猴猊(개성) 中連(풍덕)
平丘道		12	平丘(양주) 綠楊(양주) 安奇(포천) 梁文(영평) 奉安(양주) 娛賓(양주) 雙樹(양주) 白冬(지평) 田谷(지평) 仇谷(양주) 甘泉(가평) 連洞(가평)
	桃源道	6	桃源(장단) 仇和(장단) 白嶺(장단) 玉溪(연천) 丹棗(적성) 湘水(적성)

이와 함께 조선시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연해 있는 각 군현의 역명과 위치 등을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여지도서』·『읍지』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장단부에 있었던 역참과 발소는 다음과 같다. 역참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東坡驛이었다. 이 역은 동쪽 10리 津東面에 있으며 延曙驛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등마 4필, 중등마 6필, 하등마 4필과 吏 32명, 奴 15명, 婢 6명이 있었다. 이 역과 관련하여 王敬·董越·唐皐 등의 시가 있다. 桃源驛은 동도면에 있었으며, 역도로서 구화역·백령역·옥계역·단조역·상수역을 속역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도두머리에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지금도 역촌 또는 역말이라고 부른다. 상등마 1필, 중등마 3필, 하등마 5필과 吏 32명, 奴, 婢 6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金克己·安軸·李穀·裵仲孚 등의 시에 도원역을 읊은 내용이 있다. 仇和驛은 북쪽 50리 江西面에 있으며, 도원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중등마 2필, 하등마 1필과 吏 3명, 奴 8명, 婢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白嶺驛은 동쪽 50리 長東面에 있으며, 도원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등마 2필, 중증마 5필, 하등마 2필과 吏 16명, 奴 18명, 婢 11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안축의 시에 백령역을 읊은 내용이 있다.

撥所로는 두 곳이 있었다. 東坡撥站은 동쪽 15리 진동면 동파리에 있었으며, 撥將 1인과 발군 5명, 말 5필이 있었다. 招賢撥站은 서쪽 13리 진북면 造山里에 있었으며, 발장 1인과 발군 5명, 말 5필을 두고 있었다.

교량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石橋는 주의 관아건물 남쪽에 있었다. 大川橋는 臨湍館 동쪽에 있었다. 金陵橋는 松南面에 있었다. 招賢橋는 招賢撥所에 있었다. 板門橋는 송남면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板材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沙川橋는 中西面에 있었다. 三彌川橋는 江南面에 있었다. 물

이 크게 불어나면 선박이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頭峴橋는 長東面에 있었다.

파주목에는 馬山驛이 있었는데 자료에 따라 그 위치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읍치 남쪽 1리쯤에 있었으며, 옛날에 原平郡의 읍치가 있던 곳이었다. 양주목에 있던 驛道인 迎曙驛의 屬驛이다.

적성현에 있었던 湘水驛은 橡林驛이라고도 하였고, 남쪽 27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원역에 소속되어 있다. 吏奴가 42명, 婢가 7명, 말이 14필이 있었다. 公須位田畓이 모두 4결 52부이고, 馬位田畓은 모두 50결이었다. 丹棗驛은 현의 서쪽 7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吏奴가 20명, 婢가 6명, 말이 5필 있었으며, 마위전답이 모두 28결이었다. 下寒井站은 북쪽 25리에 있었으나 『여지도서』의 기록은 이미 폐지되고 遺址만 있다고 하였다.

연천군에 있었던 玉溪驛은 읍치 북쪽 7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원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大馬 2필, 騎馬 2필, 卜馬 6필과 奴 19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車灘橋는 읍지 기록에 의하면 가을과 겨울에는 다리가 놓여지지만 봄과 여름에는 훼손된다고 하였다.

포천군에 있었던 安奇驛은 읍치 서쪽 4리에 있었으며, 역마 9필과 驛奴 15명, 驛婢 5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萬世橋站은 현의 북쪽 20리 白鷺洲의 동쪽에 있었고, 松隅站은 남쪽 20리 石門嶺 동쪽에 있었으며, 場街站은 서쪽 5리 한탄강변에 있다. 步撥所가 한곳 있었는데 남쪽 10리쯤에 있었다. 발장 1명과 발군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남쪽으로 양주의 豆險川 발소까지 50리이고, 북쪽으로 영평의 梁文撥所까지 40리가 된다. 교량은 두 곳이 설치되었는데, 현의 서쪽 4리에 있던 高橋와 북쪽 20리에 萬世橋가 있었다.

삭령에는 나루 두 곳과 교량 3곳이 교통의 요지에 있었다. 羽化津은 남쪽 8리에 있었으며, 席屯津은 군의 서쪽 10리에 있었고, 각각 津船 1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교량은 後川橋가 동쪽 8리쯤인 東面의 경계에 있었고, 山井橋는 동쪽 45리쯤인 寅目面의 경계에 있었으며, 度自水橋는 동쪽 50리쯤인 乃文面의 경계에 있었다.

영평의 梁文驛은 읍치 동쪽 10리 양문리에 있었으며, 대마 3필, 중마 4필, 하마 3필과 驛吏 47명, 奴 49명, 婢 56명이 있었으며, 平丘察訪에 소속되어 있었다. 撥所에는 撥將 1인과 발군 2명이 배치된 步撥所였다. 교량은 세 곳이 있었는데 萬世橋가 남쪽 10리에 있었으며, 北關大路에 포함되었다. 栢橋는 동쪽 5리에 있었으며, 南大川橋가 읍치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에 있어 운송체계는 주로 조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육상교통에는 사람의 경우 騎馬나 轎子를 주로 사용하였고, 화물의 운송에는 人力, 牛馬 이외에 大車 · 便車 · 曲車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량의 물화운송에는 주로 수로나 해로를 이용한 선박수송이 이용되었다. 조운제도는 각 지방으로부터 징수한 전세미 등을 각 지역의 漕倉에 수합하여 京倉에 운송하는 것으로 운송수단의 근간이 되었다. 그렇지만 진상이나 貢賦, 사신들의 卜物은 대체적으로 역마를 이용하여 육로로 운송되는 것이 상례였다.

원래 조운이라고 하면 해로를 이용한 교통을 의미하지만 대개 수로교통을 합쳐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입지적 이유로 조창이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稅穀 등을 조창에 모아 운반하지 않고 경창에 직접 납부하였다. 임진강유역에 있는 군현은 京倉直納 지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邑倉에 집결하여

수로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강원도 철원의 경우 栗梨里의 차탄천 상류에서 대광리지역의 유역을 따라 전곡리에 이르러 한탄강으로 들어서며 전곡읍 남계리에서 임진강을 경유하여 한강을 따라서 경창에 납부하였다. 연천이나 장단 · 파주지역도 임진강을 이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이 수로는 세곡 납부 후 각종 생활필수품과 해산물, 기타 물품을 구입하여 임진강유역과 인접한 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2) 파발과 교통로

통신수단으로 주로 이용되었던 파발도 교통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파발은 통신과 운송의 두 기능을 함께 담당하였던 역제의 한 갈래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발제도는 시설과 조직면에 있어 우역제와 유사하지만 기능면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봉수제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

파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조선 선조대에 이르러서였다. 파발은 변경의 사정을 신속하게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주로 봉수에 의해 군사적인 정세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봉수제는 거의 무용지물과 같은 조직이 되고 말았다. 평소에는 그런대로 운영되고 그 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믿고 있던 것이 정작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자 정확한 변방의 급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개편논의가 제기되었다.

봉수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파발제가 제기된 것은 응원군으로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군대가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는 여러가지 제반 조건들이 준비되어야 했다. 즉 도로의 보수, 각 지역에 배치해야 할 말과 임무를 수행할 인원의 확보 등이었다. 더욱이 왜란을 통해 제분야에서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역로는 파괴되고 역졸들 또한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파발제도가 정착하게 된 것은 17세기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도체찰사 이덕형이 파발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현재 각 역이 피폐되어 있고, 변방의 위급함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단이 없다. 이제 경상 · 전라 양대로에 이전에 명나라 군대가 擺撥幕을 설치한 곳에 다시 파발막을 설치하여 파발군 6~7명을 소속시키고, 도로 옆의 전답을 경작하게 하는 한편 면세하고, 각 고을에 명하여 명나라 군대가 주둔했을 때 지원한 馬匹數를 규례로 삼아 파발마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제안이 왕의 윤허를 받음으로 파발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파발망은 전국적으로 크게 세 선로로 구성되었으며 서울로부터 황해 · 평안도 지방에 이르는 西撥과 강원 함경도 지방에 이르는 北撥, 그리고 충청 경상도 지방에 이르는 南撥이었다. 서로에는 騎撥로 의주까지 45참을 두었으며, 남북로에는 步撥로서 서울에서 동래까지 35참, 서울에서 경성까지 59참을 두도록 규정하였다.[9] 파발은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서 공문 등을 전달하는 기발과 사람의 도보에 의해 전달하는 보발로 구분되었다. 대개의 경우 보발로 공문이 전달되었고, 기발이 주로 이용된 것은 조선시대 중국과의 관계

9) 『續大典』 工典 橋路.

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서북쪽의 서발이었다.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군현의 파발망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교통로 및 운송로의 이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조선시대의 참의 위치나 遺址 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추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읍지와 지도류 등을 통해 사실에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장 중요한 파발로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서발이었다. 기발로 전달되는 서발과 북발의 노선을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군현을 통과하는 노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西撥(서울에서 의주까지 41참, 1,050리)

서울畿營站(敦化門밖)-黔巖站(楊州)-碧蹄站(高陽)-焚修院站(坡州)-馬山站(坡州)-東坡站(長湍)-調絃站(長湍)-靑郊站(開城)……車輦站(鐵山)-良策站(龍川)-所串站(義州)-官門站(義州)

北撥(서울에서 경흥까지 64참, 2,300리)

서울-豆驗川站(楊州)-安奇站(抱川)-梁文站(永平)-豊田站(鐵原)-官門站(金化)……阿山站(慶源)-阿吾地站(慶興)-官門站(慶興)-撫夷站(慶興)-造山站(慶興)-西水羅站(慶興)

파발이 교대하는 곳을 站이라고 하였다. 파발로는 무엇보다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역로와 겹친 경로도 있었고, 때로는 봉수대를 따라 지름길을 택하는 등 가능한 최단거리를 취하였다. 이 참은 보발과 기발에 따라 설치되는 거리와 배치인원 등이 달랐다. 기발의 경우 매 25리마다 1참씩을 두었으나 20리 또는 30리 간격을 두고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 참마다 撥將 1인, 읍리 1인, 군정 5인과 말 5필을 배치하였다. 보발은 30리마다 1참을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40리 또는 50리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보발에는 발장 1인과 군정 2인을 배치하였다.

발소에 배치된 발장은 글을 해독할 줄 아는 자로서 종9품에서 정6품의 遞兒祿을 받고 900일을 근무하면 정6품의 司果에 승진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 그 아래에 속하는 撥軍은 閑雜人 · 潰軍 · 防軍 · 正軍 · 精抄軍 · 壯武隊 중에서 충원되었다. 이들 발군은 파발마를 지급받아 사육하면서 파발에 역마를 공급하는 일을 맡았으며, 때로는 직접 공문서 전달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3) 院의 기능변화와 교통로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해가면서 교통과 통신, 그리고 운수조직을 정비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과 함께 院의 설치도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원은 그 기능에 있어 역과 비슷하였다. 조선시대 원은 고려시대의 寺院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원의 이름 가운데 불교식 이름이 많고, 또 원의 설립자 가운데 승려가 많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10] 원은 조선초 역의 보조기관으로 출발

10) 최재경, 「조선시대 '院'에 대하여」, 『영남사학』 4, 1975.

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들을 비롯하여 평민이나 商旅들의 여행편의를 위해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 주던 곳으로 교통로의 요충지나 인가가 드문 깊은 산속에 설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전국의 院數는 1,30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숫자는 역수 549개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어쨌든 원은 교통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시기에 여행자를 도적이나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휴식 및 숙박처로 활용되었다.

정부에서는 원이 관리들이나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 원은 이용자가 점차 줄어들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 조차 원을 이용하지 않고 관아 부근에 있는 客舍나 驛館 등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주막 또는 점막으로 변해 가는 곳이 늘어났다. 김정호의 『동여도지』에 실린 경기도의 院 · 店은 모두 163개였다. 이 가운데 원은 120개, 점은 43개소였다.[11] 임진강 유역에 있는 조선시대 각 군현의 원을 『신증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대동지지』 · 『읍지』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파주목에 있었던 원은 다음과 같다. 廣灘院은 광탄나루 부근에 있었다. 兜率院은 임진도 남쪽 언덕에 있다고 하였다. 檜院은 서쪽 5리에 있었다. 梨川院은 梨川의 강안에 있었다. 惠陰院은 읍치 남쪽 26리 지점에 있었다. 『여지도서』에는 이들 원이 모두 폐지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焚修院은 여러 자료에 모두 읍치 남쪽 24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는데, 조선후기에 원은 폐지되고 撥站이 설치되었다. 洛河院은 낙하도 언덕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낙하나루터 부근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冷井院은 읍치 동쪽 15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적성현의 廣水院은 읍치 남쪽 25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읍지에는 폐지되어 없어지고 遺址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천군의 松沂院은 읍치 동쪽 10리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개성과 한양의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원이 설치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폐지되었다. 포천군의 碧呑石院은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으나 그 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切德院은 서쪽 5리에 있었다고 하며, 場街站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4) 새로운 교통로의 개발과 店幕의 증가

역이나 원과 함께 교통의 요지에 형성된 것이 주막이었다. 주막은 주점 또는 술막 등으로 불리었으며, 炭幕 · 旅店 · 夜店 · 店幕 등으로도 불렸다. 점이란 행상처럼 이동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서 소비자를 기다리는 상인 또는 건물을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락명을 일컫는 경우도 있다.

店은 철기나 토기 등을 만들어 파는 곳으로 상품생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도 담당하여 숙식을 제공하던 점막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가지 기능을 병행하는 곳도 있었지만 같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점이라고 할 때는 금점 · 은점 · 동점 · 철점 · 옹기점 등을 지칭하는

11) 金大吉, 『朝鮮後期 場市硏究』, 국학자료원, 1997, 186쪽.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막 또는 점막은 대개 각 지방의 시장이 개설되는 부근이나 주요 교통로의 요충지 등에 설치되었다. 주로 보부상이나 장돌뱅이 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술이나 밥을 팔고 숙박업까지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주막이나 점막의 설립은 각 지방의 장시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래 상품유통의 활성화와 함께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에 의해 새롭게 개발되는 것이 지름길 등에 주막이나 점막의 설치가 증가하였다. 시장과 시장사이를 순회하는 상인이 크게 증가하고 교통의 발달과 사회활동의 증가로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을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숙박 및 술과 음식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申景濬의 『道路攷』에는 6대로가 소개되어 있다. 즉 서울-의주로, 서울-慶興 西水羅路, 서울-平海路, 서울-東萊路, 서울-濟州路, 서울-江華路 등이 그것이다. 임진강가에 연해 있는 여러 군현들은 서울-의주와 서울-경흥로의 노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비교적 자세한 노정이 표기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서울-의주로를 살펴보자.

漢城-新院-高楊-惠陰嶺-彌勒-分手院-廣灘-坡州-臨津-東坡-長湍-調弦站-吹笛橋-開城-靑石-豆石隅……所串-箭門嶺-義州

이 경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혜음령에서부터 장단에 이르는 노정이 바로 임진강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다. 점막은 이러한 지역들을 이어주는 중간 곳곳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人馬의 왕래가 활발한 교통의 요충지에 점막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여 店村이 형성되고 있는 사례를 三防路를 통해 살펴보자. 정조대에 동북지방의 요충지인 철령에 새로 생긴 삼방로가 지름길이면서 비교적 평탄하여 상인들이 주로 이곳을 이용하게 되자 도로변에는 점막이 하나 둘 늘어났다. 안변과 평강 사이에는 8~9개의 점막촌이 들어서고, 수백호에 이르는 店民들이 商旅를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삼방로의 개설과 그 중요도 등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한 내용은 『정조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12)]

平康縣監 趙重鎭은 牒呈으로 삼방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三防谷은 평강에서 북으로 1백리 떨어진 安邊과 경계가 맞닿는 곳에 있고 거듭한 산골짜기가 서로 연결되어 좁은 길이 그 가운데로 통하여 안변과 평강은 각각 70리 떨어졌으므로 합하여 1백 40리의 긴 골짜기이며, 國師堂에 옛 성터가 있는데 이것을 一防이라 하고, 국사당에서 북으로 10여 리 떨어진 木防谷에 또 성을 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二防이라 하고, 목방곡에서 10여 리 떨어진 곳에 또 성터가 있는데 이것을 三防이라 한다. 근년 이래로 북에서 오는 상인이 그 길이 빠른 것을 취하여 조금 길손이 다니므로 주민이 다 주막을 생업으로 삼는데, 길을 막으라는 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흩어질 생각을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原春道 관찰사 金載瓚은 "대개 이 삼방곡은 伊川 · 평강의 첫째 關隘이니,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 되는 것은 鐵嶺보다 뒤지지 않는다. 이 1백여 호의 店村이 섞여 들어 흩어져 사니, 여기에 인연

12) 『정조실록』 권24, 정조 11년 9월 계사.

하여 점점 불러 모아 취락을 이룬다면 조금은 防護하는 방도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제 길을 막은 뒤에 의지하여 사는 이익을 끊는다면 鳥獸 또한 흩어져 이 동북의 요충인 곳이 아주 비어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도둑이 모이는 걱정이 골짜기 안에 감추어 있더라도 다시는 막아 지킬 방도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 城의 자취는 명백히 증험할 만한 것이 있거니와, 성이 있으면 본디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이 길이 처음 난 것은 예전부터 이미 그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적을 막는 요체는 오로지 이 길을 열도록 허가하여 주민을 채우는 데에 있을 뿐이니, 예전대로 설치하고 모아 들여보내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이 事宜에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함경도 관찰사 徐有寧은 "關[illegible]의 防守는 두 길이 있는 것을 가장 꺼리지만 삼방로는 곧바로 松都로 통하고 또한 兩京으로 왕래하는 지름길이니, 처음부터 길을 통하지 않았으면 본디 도둑을 막는 데에 합당하겠으나, 이제 와서는 이미 수백 년이 지나 원우를 세우고 봉대를 두어 방수하는 도구를 갖추게 되었으니, 이제 갑자기 막더라도 도둑이 몰래 다니는 발자취를 일체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또 안변에서 평강까지 1백 3, 40리 안에 있는 여덟 · 아홉 점촌에 간간이 의지하여 사는 민가를 합하여 모두 수백 집이 오로지 店業으로 의지하여 살면 그 수백 집의 점촌 백성이라도 혹 방수를 갖추는 데에 도울 수 있겠으나, 길을 막게 하여 그 점업을 끊는다면 한갓 수백 집의 점촌 백성을 잃어서 실로 관방에 이로운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논의된 중요한 문제는 關防重地에 새로운 길이 생기면서 군사방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삼방로의 폐쇄와 점촌을 철거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외적의 방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점촌으로 모여든 백성들로 인해 유리한 점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삼방로는 개성 뿐만 아니라 한양으로 왕래하는 지름길이었다. 이 도로는 현재 연천읍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3번국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도로로 장남면 · 백학면 · 미산면 · 전곡읍을 잇는 322번 도로와 장남면 · 백학면 · 왕징면 · 군남면 · 연천읍을 잇는 324번 도로, 중면과 신서면을 잇고 있는 326번 도로 모두가 이 3번 국도로 이어지고 있다.

18세기 전반까지만 하여도 서울에서 동북지역으로 가는 길은 철령을 지나는 것이 주요 통로였다. 그러던 것이 삼방로가 개척된 18세기 후반 이후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해 오가는 자들조차 이곳을 이용하게 되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원산의 북어가 대량으로 서울까지 운반되어 유통되고 있었는데 삼방로가 이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朴齊家도 원산에서 말에 미역이나 건어물을 싣고 사흘만에 돌아오면 조금 남고, 닷새동안 걸리면 無害無得하고, 열흘간 유숙하면 크게 빚지고 돌아온다고 하여[13] 운송기간의 길고 짧음은 상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새로 개발되는 지름길은 무엇보다 상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서울과 인접한 양주로부터는 함경도로 통하는 길 뿐만 아니라 또다른 길들이 개발되었다. 그 하나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삼방로였고, 다른 하나는 낭천의 주소령으로 통하는 길이고, 또다른 길은 회양의 법수

13) 朴齊家, 『北學議』 內篇 車.

현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또한 북쪽으로는 울대현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평안도 지방으로 직통하는 길이 개척되었다.[14] 또한 삭령지방을 거쳐 황해도로 통하는 새길들이 개척되었다. 점막에 대해서는 읍지나 기타 자료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파주읍지에는 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이 지역에 설치된 점막은 다음과 같다. 細柳店은 광탄면에 있었고, 邑店은 州內面에, 梨川店은 七井面에, 下炭幕은 광탄면에, 臨津店은 新羅面에 있었다. 이들 점막은 驛院 등과 함께 지역간 교통연결 고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장단에 東坡店과 板門店이 있었으며, 마전에 冷井店, 삭령에는 인목면 신현리 懸璧巨里와 마장면 밀암리 石橋場邊에 점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들 지역 이외에도 점막이나 주막 등이 설치된 곳은 더 많았을 것이다.

상인들의 왕성한 활동이 새로운 교통로를 만들고 있으며, 물화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막이나 점막이 늘어났다. 주막과 점막의 증가는 곧 상품유통의 활성화와 상권의 확대, 상품운송로의 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군사요충지로서의 임진강과 교통로

조선초기에는 임진강 유역이 군사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의 국방체제가 鎭管體制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진관체제는 전국적인 방어체제로 일반 행정체제와 중복해서 군사체제를 설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양과 가까이에 인접해 있고, 조선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방어지역에서 일단 제외되었다. 세종대까지만 해도 경기도에는 하나의 鎭도 설치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세조대에 이르러 진관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륙지방에도 巨鎭을 설치하여 주변의 여러 고을을 분속시키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경기도에는 3개의 거진과 3개의 獨鎭으로 군사단위가 조직되었다. 진관체제상 임진강 유역은 4개의 진관 중에서 장단진과 양주진관의 일부가 이에 속하며, 파주는 양주진관의 일부로 속하였다.

조선중기 이래 임진강은 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교통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시에는 선조가 의주로 蒙塵할 때 임진나루를 이용하였다. 선조를 비롯하여 李山海 · 柳成龍 등 1백여명이 임진강에 도달한 것은 1592년 4월 30일이었다. 인조가 왜의 도성 진입을 바로 앞에 두고 의주로 신속하게 피신할 수 있었던 교통로가 바로 임진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선조실록』을 비롯하여 유성룡의 『징비록』, 朴東亮의 『寄齋雜記』 등 여러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임진강을 건너는 선조 일행의 모습을 이들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돈의문을 지나 沙峴에 이르니 동녘 하늘이 겨우 밝아오고 있었다. 사현을 넘어서 石橋에 이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기감사 권징이 달려왔다. 벽제역에 도착하니 빗줄기가 굵어져서 일행의 옷이 모두 젖었다. 혜음령을 지나자 비는 점점 세차게 퍼부었다. 마산역을 지날 때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일행을 바라보며 '나

14)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 · 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339쪽.

랏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니 이제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이냐' 라며 통곡하였다. 임진강에 이르도록 비는 멈추지 않았다. 작은 나룻배 몇 척으로 일행이 서로 먼저 강을 건너려고 다투기까지 하였다. 초경이 되어서야 동파역에 이르렀는데 밤비는 요란스럽게 퍼붓고 사람들은 모두 굶주렸다.

이상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임진강을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로도 역로를 따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서울에서 평양으로 북상하는 길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가 되었다. 1592년 5월 17일과 18일 사이에 도원수 金命元 등이 왜군의 북진을 막으려고 분전한 임진강전투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전투없이 서울을 점령한 왜군은 播遷한 선조를 좇아 선봉대를 파주를 지나 임진진으로 진격시켰는데, 이 때가 5월 10일이었다. 선조 일행이 渡船을 건너편에다 모두 거두어 놓았고, 불어난 강물 또한 급류였기 때문에 왜군은 며칠간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왜군은 조선군을 유인하고 회유하기 위해 주력부대를 파주쪽으로 후퇴시켰다. 이때의 상황을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적병이 이미 임진강에 가까이 왔으니 사태가 진실로 위급합니다. 이곳에 모습을 나타내고는 다른 곳을 통하여 몰래 건너올 염려가 없지 않으니 상류의 얕은 여울을 잘 방어할 것을 다시 엄중하게 명하소서. 하류인 河洛 · 照海 등도 뗏목을 만들어 바로 건너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15]

임진강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울이 많고 수심이 얕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적이 기습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은 임진강 방어에 강한 의지를 보여, 韓應寅을 제도도순찰사로 삼아 대군을 이끌고 왜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임진강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이 거짓으로 일시에 철수하였다. 한응인은 전 병력을 이끌고 임진강을 건너 왜군을 추격하였지만 적의 계략에 빠져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결국 조선군은 임진강전투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이긴 왜군은 임진강을 건넜고, 여세를 몰아 북상하여 6월 18일에는 평양을 점령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임진강 유역은 전기에 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도성방위는 훈련도감과 어영청 · 금위영이 담당하였으며, 도성을 지원하는 경기지역의 방어는 총융청과 수어청이 담당하였다. 이 시기 임진강 유역의 군사적 역할은 江都를 방어하는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다. 임진강 유역에 설치된 진은 임진진과 장산진이었다. 이들 두 진의 규모와 변화과정을 통하여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와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았음을 살펴보자.

임진진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강 초평도 남안의 장산진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임진 나루터에 있는 鎭이다. 이 진은 장산진과 더불어 파주와 장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상의 진으로서 덕진산성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지도서』에 실려 있는 임진진의 시설과 여기에 소속된 구성원을

15)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곽은 진 주위에 석성 133보로 성첩이 28칸이다. 군기로는 조총 180자루, 환도 255자루, 화약 89근, 철환 4,960개가 있었으며, 군량은 원향 1500석, 연천 이전미 184석 4두 2승, 풍덕 이전미 241석 4두 5승, 둔조세 180석 9두, 위전답결복 12결 93負였다. 선박은 津船 10척에 鎭夫 54명이 있었다. 대장 1명, 성문장 1명, 書員 1명, 通引 2명, 庫直 1명, 及唱 2명, 旗手 4명, 吹手 3명, 柴場直 1명, 山直 1명, 水尺軍 1명, 牙兵 3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보아 임진진은 그 규모에 있어서 적은 것은 아니었다.

숙종대의 기록을 보면 서울을 방어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임진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때 柳赫然이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임진강에 赤壁이 있어서 아래 위로 30리 사이는 참으로 天險입니다. 그 아래 洛河 10리 지점에 약간 얼음이 어는 곳이 있고, 낙하의 아래는 바로 큰 바다로 연결된다. 적벽 이상은 대로가 서너 곳에 지나지 않으니, 강원 감사로 하여금 湖西 忠州의 군사를 첨가하여 막게 하고, 낙하의 얼음이 어는 곳에는 忠淸兵使로 하여금 長湍府使와 함께 하면, 적병은 감히 임진강 以東의 땅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金錫胄는 兎山의 길을 막고 임진강의 어구를 막으면 적은 서울을 침범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16] 이들의 주장을 통해 서울 방어에서 임진강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임진강은 상류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루터가 있고,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이 많다. 따라서 임진강을 도강하여 이를 확보하기는 쉬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곳을 방어한다는 것은 몇 배 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쨌든 임진진은 파주-장단-개성을 서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러한 이유로 임진강 방어책이 수시로 논의되었다. 영조대에는 임진진이 군사방어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조 30년 『비변사등록』의 臨津鎭變通節目[17]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임진진은 서로 요충지에 위치하여 언덕을 뒤로 하고 강가에 임해 있어 가장 긴요하여 당초에는 총융청에서 관할하였는데 의도한 바가 있어서이다. 그런데 평화로운 때가 오래되어 도외시하고 별장은 급료가 각박하고 갑자기 충원하는 경우가 많고, 진졸은 수가 적으며 또한 흩어져 있다. 이와 같이 소홀하게 한다면 어려움에 닥쳐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미리 준비하는 방도는 변통하는 것이다.
>
> 1. 본진의 아병 2초의 수는 232명이고 표하군의 수는 23명인데 군액수의 증가는 비록 가볍게 논할 것은 아니지만 부근을 단속하는 것이 실로 긴급한 일이므로 그 중에 장단군은 진북의 가장 가까이 있는 백성들로 옮겨서 정하고, 교하 · 풍덕 · 적성 등의 군인은 파주 속오군으로서 편리한 대로 정하고, 원래 정해져 있던 파주군은 모두 진촌과 부근 4~5리내의 민인들로 정하여 주고 정령을 듣는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16)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11월 임오.
17) 『비변사등록』 영조 30년 10월 16일.

1. 진부 62명과 진부보 124명, 아약진부 20명은 아병 및 표하군의 예에 따라 옮겨서 정하고, 임진촌 제량은 비록 부근에 있는 면이지만 본진 군졸을 모두 충원하기 전에 만약 다른 군인으로 정하면 수령은 논죄하고 색리는 刑推定配하도록 한다.
1. 본진의 지형은 곧 하나의 성과 같은데 진실로 군졸이 있으면 적을 방어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다. 토장 수십 타를 지형에 따라 쌓아 올리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훼손되는 곳이 있으면 곧바로 보수하도록 한다.

이러한 임진진이 1894년 갑오경장 때 전국에 있는 병영과 수영이 혁파될 때 함께 폐지되었다. 더욱이 서울과 개성을 잇는 철교가 세워지면서 나루의 기능도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현재는 이곳에 군의 진지가 들어서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임진진과 관련된 흔적들은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변해 있다.

한편 長山鎭은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일대에 있으며, 임진강이 초평도를 돌아 흐르는 남안에 위치하고 있다. 덕진산성보다는 상류지역에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임진진과 나란히 있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 임진진과 더불어 조선후기 임진강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기능하였으며, 갑오경장 이후 폐지되었다.

『여지도서』에 실려있는 장산진의 시설과 소속된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곽은 鎭舍 주위에 100보의 석성과 8개의 토성 墩臺가 설치되어 있다. 군기는 큰북 1개, 징 1개, 나팔 1개, 號笛 1쌍, 環刀 154개, 조총 159개, 화약 70근, 연환 4,000개, 화약통 50개, 火繩 100대가 있다. 군량은 원향 1,500석, 麻田 移轉米 170석 8두, 長湍 移轉米 275석 10두를 확보하고 있었다. 대장 1명, 좌우초관 2명, 지교관 1명, 기패관 2명, 군기감관 1명, 금송설관 1명, 돈대감관 8명, 서원 1명, 通引 2명, 庫直 1명, 급창 1명, 旗手 4명, 禁山直 1명, 墩臺直 8명, 아병 4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진선과 여기에 소속된 진부를 제외한다면 임진진보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6)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았던 각 군현의 邑治

성곽, 鎭堡 등과 같은 군사시설과 함께 각 군현의 읍치는 교통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현재 임진강 유역에 위치했던 여러 군현의 관아가 있던 지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자.

麻田縣 관아가 있었던 곳은 마전리 113번지 일대였다. 이곳은 1914년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편입될 때까지 마전군의 관아가 있었다. 마전현은 연천현과 함께 현재의 연천군을 이루는 주요한 군현으로서 고구려의 麻田淺縣으로서 泥波沙忽 또는 臨湍으로도 불리었다. 지금은 도로변에 한두 집을 제외하고는 민가가 거의 없지만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월곡마을과 윗단말에 상당수의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당포나루에서 동북쪽으로 1.2㎞지점이며, 322번 지방도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m 지점이다. 홍귀달이 쓴 '마전현중수기'에 의하면 마전현 관아건물은 1558년(명종13) 이전까지는 초가 형태의 볼품없는 상태였으나, 鄭延慶이 군수로 부임하면서 객사와 향교와 衙門을 瓦家로 지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여지도서』의 마전현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公廨로는 客館이 7칸 · 중문 2칸 · 외문 3칸

이 있었으며, 외동헌 8칸과 내아 10칸 · 중문 1칸 · 외문 5칸이 있었으며, 관청 3칸 · 軍器庫 3칸 · 화약고 1칸 등이 있었다. 관원으로서는 군수로 음직 4품 1인이 있었고, 좌수 1인 · 별감 2인 · 군관 15인 · 아전 12인 · 지인 5인 · 관노 7명 · 관비 5명 · 사령 6명이 있었다. 현재 관아가 있었던 곳은 모두 훼파되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마전군 향교 터는 우정리에서 아미리로 넘어가는 도로를 따라 가다가 오른쪽 향교말로 들어가는 작은 길을 따라 조금만 가면 향교가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는 곳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경작지로 변해 있고, 향교와 관련된 부속건물이나 흔적은 거의 없다. 향교가 있었던 이곳은 관아터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연천군의 중심지였고, 교통로의 요충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삭령현 관아 터는 현재의 연천군 中面 大寺里 부근에 있다가 세종 23년(1441)에 朔寧里로 이전하였다. 관아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향교, 서북쪽에는 사직단, 그리고 동쪽에 있는 城山에는 기우제단이 있었다. 삭령의 읍치는 임진강변의 넓은 충적지와 산이 만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앞쪽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연천현 관아 터는 연천군청에서 철길을 넘어 6번 군도를 따라 약 300m정도 가면 좌측으로 연천향교가 보이고 계속 길을 따라 1㎞정도 가면 집단취락지가 나타난다. 관아터는 도로 북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현재 윤교선 씨댁 집터와 주변 텃밭 일대가 관아터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동편으로 논둑길 옆에는 관아로 진입하는 도로의 양편에 세워져 있었던 비석의 대좌들이 흩어져 있다.『여지도서』에 의하면 관아의 규모는 총 79칸이며 공해로는 객사 8칸이 남향으로 있었으며, 동헌이 10칸 · 책방 10칸 · 관수고 2칸 · 공방고 1칸 · 삼문 3칸 · 내아 20칸 · 행랑 7칸 · 산정 3칸이 있었으며, 향청 10칸 · 무청 9칸 · 사령청 8칸이 있었다. 또한 창고로는 사창 16칸 · 남창 12칸 · 칙수고 10칸 · 경창 8칸 · 좌기청 6칸 · 대문 2칸 · 사고 5칸 · 군기고 3칸 · 공세창 14칸 등 79칸의 건물이 있었다.

연천현의 관리로는 현감으로 정6품 1인이 있었으며, 좌수 1인 · 별감 2인 · 군관 15인 · 아전 17인과 지인 9인 · 사령 15명 · 관노 19명 · 관비 13명이 있었다. 연천현 관아는 1910년 일제 강점 후 철도가 부설되면서 지형적 조건이 편리한 차탄리 지역으로 군청사가 새로 건립되어 이곳에 있던 관아건물은 철거되고 지금은 그 터가 농경지와 민가로 변해 있다.

옥계역 터는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616번지에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324번 지방도와 6번 군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역이 소재했던 곳은 대부분 도로에 편입되고,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옥계역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역으로서 개성에서 淮陽으로 연결되는 桃源道에 소속된 역이었다.『여지도서』에는 옥계역이 현의 서쪽 5리 지점에 있으며, 대마 2필 · 기마 2필 · 부마 6필 · 노비 19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작성된『포천현읍지』에는 옥계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는 이미 철폐된 것으로 추측된다.

3. 임진강의 수로와 나루

원래 나루는 수운 곧 물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변화나 연결되는 육로의 개설, 교량의 건설 등에 따라 그 중요도와 이용도가 감소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나루에는 대개 나룻배가 있다. 인근 주민의 많고 적음, 그리고 나루의 이용도 등에 따라 나룻배의 수나 크기 등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지만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인 배가 있었다. 강을 끼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갈 때나 관공서 등을 가고 올 때, 학교를 다닐 때, 농사 지을 때, 상품 운송 등에 나룻배를 사용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룻배를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

임진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여러 개의 나루가 있었다. 나루는 강가나 냇가 또는 좁은 바닷목의 배가 건

〈표 39〉 임진강의 구간별 명칭[18]

구간별 명칭	위 치 및 특 징
德津	伊川郡 板橋面 龍塘里에 있으며, 함경남도 안변군 박달령에서 발원하는 고미 탄천이 합류하는 곳이다.
古城津	이천군 鶴鳳面 城北里에 있으며, 임진강 바로 옆에 城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猪仇里灘	이천군이 있는 安峽 읍내에서 서쪽으로 3km지점에 있는 강 이름으로 평강군의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正山水(平安川)이 합류하는 곳이다.
羽化江	연천군 중면 대사리 부근의 이름으로 평강에서 발원하는 驛谷川이 합류하는 곳이다.
將軍灘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와 중면 삼곶리 사이에 있는 여울 부근의 강 이름이다.
澄波江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부근의 임진강 별칭이다.
楡淵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부근의 강 이름이다.
馬灘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부근의 강 이름이다.
都監浦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의 한탄강이 합류하는 곳의 강 이름이다.
朽淵江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썩은 소 부근의 이름이다.
龜淵江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앞의 강 이름이다.
神智江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앞의 강 이름이다.
戌灘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앞, 사미천이 합류하는 곳의 강 이름이다.
頭耆津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에 있는 강 이름이다.
瓠蘆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호로고루성 부근의 강 이름이다.
臨津渡	파주시 파평면 율포리 부근의 이름이다.
亭子津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부근의 이름이다.
廣灘	파주시 문산읍 서쪽의 임진강 이름으로 문산천이 합류하는 곳이다.
江連浦	파주시 진남면 정동리에 있으며, 개성 천마산에서 발원하는 沙川이 합류하는 곳이다.
祖江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18) 『(연천군)**鄕土史料集**』, 연천문화원, 1995, 53~54쪽 참조.

너다니는 곳을 말한다. 목재나 석재를 사용하여 교량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 나루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나루를 한자로 표현할 때는 渡 · 津 또는 浦라고 하였으며, 대규모의 바닷가나루는 港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강이나 바닷목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군대가 주둔하면서 지키는 것을 鎭이라고 나타내기도 하였다. 임진강 유역에는 조선시대에 임진진과 장산진이 설치되었었다. 따라서 임진진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으며, 교통로 역시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강이라는 명칭은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큰 강이나 하천의 경우 공통적인 특징은 구간구간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임진강 역시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붙여져 있다. 그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표 40〉과 같다.

다음은 임진강에 있었던 주요 나루들을 살펴보자.[19] 高浪津은 가운데 고랑포와 윗고랑포 사이에 있었던 임진강 나루터로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와 연결되었던 곳이다. 옛 문헌에는 '皐浪渡'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임진강 일대에서 가장 번창했던 포구의 하나이며, 또한 서해안에서 조류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조기 · 새우젓 · 소금배들이 장단의 대표적 특산물이었던 콩 · 땔나무 · 곡물 등을 교역하였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경기 북부 지역 농특산물의 집하장 역할을 하여 상권형성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頭耆津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와 파주군 적성면 두지리 사이에 있던 임진강 나루이다. 여러 문헌에는 이곳을 장단나루로 지칭하고 있다. 『高麗樂府』에 의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재위에 있을 때 임진강과 어우러져 병풍같이 펼쳐진 장단석벽과 주위에 빼어난 경관에 매료되어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아 배를 타고 유람하며 이 마을 백성들과 허물없는 유희를 즐겼는데, 뒤에 이 마을주민들이 태조 왕건의 성덕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전해 내려와 이 노래를 '長湍渡曲'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이곳에는 최근에 완공된 콘크리트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澄波渡는 현재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와 군남면 삼거리를 이어 주는 북삼교 가설 전에 있던 임진강의 큰 나루터이다. 다산 정약용의 『대동수경』 권8에 의하면 이곳의 강물은 강바닥의 자갈이 훤하게 비칠 정도로 물 빛깔이 맑다 하여 징파강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사』 오행지에 의하면 고려 우왕 11년(1385) 징파강에 누렇게 흐린물이 3일 동안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어 고려 멸망의 징조를 미리 예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함경도지방을 연결해 주는 대로가 이 나루를 통해 이어졌다. 북삼리 마을에 둔밭이 있었다 하여 둔밭나루로도 불려지고 있다.

唐浦는 당개나루 또는 장거리라 불리었다. 마전리 서남쪽, 임진강에 있던 나루터로 부근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당개나루는 서해안에서 올라온 새우젓 · 소금 등을 실은 배가 정박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교역하는 장이 형성되었던 명소였다. 楡淵津은 군남면 진상리와 왕징면 무등리 사이를 연결하는 나루터로 현재 322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다. 유연진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의 마전현 진도조에는 동쪽으로 7리에 있으며, 연천과 통한다고 하였다.

19) 이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 · 연천군,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을 주로 참조하였음.

朽淵津은 당포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지점에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마전현 남쪽 7리 지점에 있으며, 양주와 통하고 적성과 함께 징파강에 있다고 하였다. 이곳은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임진강이 굽이치며 남에서 북으로 방향을 바꾸는 지점으로서 '썩은소'라고 한다. '썩은소'라고 이름 붙여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고려가 멸망한 뒤 고려 왕들의 위패를 실은 배가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곳에 멈춘 것을 쇠밧줄로 묶어 배를 정박시켰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 쇠밧줄은 모두 썩고 위패를 실은 배는 아미리 잠두봉 아래로 떠내려 와 있었다고 한다. 즉 '썩은소'란 바로 쇠밧줄이 썩은 소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후연진은 전곡읍 마포리와 미산면 동이리를 연결하던 나루터로서 이곳에는 현재 군용 교량이 만들어져 있다.

파주에 있었던 나루들은 다음과 같다. 洛河渡는 교하 북쪽 20리에 있으며, 『대동지지』에 의하면 고려시대 남쪽으로 향하는 큰 도로가 이 나루를 통과하였다고 할 정도로 교통의 요지에 속한다. 탄현면 낙하리에 있었으며, 장단군 장단면 석곶리로 통하였다. 특히 서울과 개성을 잇는 큰 길목이었기 때문에 渡丞을 두어 나루를 관리하였다고 한다. 德津渡는 『장단읍지』에 의하면 읍치 동남쪽 10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데, 임진도 아래에 있었다. 臨津渡는 『대동지지』에 의하면 읍치 북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파주시 파평면 율곡 3리의 성황당고개를 지나 화석정 앞에 있었다. 임진도는 임진강유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루로서 관북과 관서지방으로 갈리는 분기점이기도 했다. 총융청에 소속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임진진에서 관리하였다. 長湍津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읍치 동쪽 33리에 있으며, 頭耆津으로도 부른다고 하였고, 『대동지지』에는 高浪津으로 기록하고 있다.

汶山津은 문산읍 문산리에 있었다고 한다. 문산의 아래 마을인 하동의 서남쪽에 있었다. 神智江津은 『대동지지』에 의하면 북면과 통한다고 하였다. 如意津은 『대동지지』에 의하면 읍치 서쪽 8리에 있으며 장단과 통한다고 하였다. 『적성현지』에는 읍치 서쪽 20리 두기진의 하류에 있으며, 장단부가 관할한다고 하였다. 梨谷津은 『적성현지』에 의하면 읍치 서쪽 7리에 있으며, 장단부가 관할한다고 하였다. 猪浦津은 『대동지지』에 파주 읍치 서쪽 15리에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임진도 아래에 있다고 하였다. 군내면 방목리 북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정자리를 지나 백연리에서 임진강으로 들어가는 강가에 있었다. 지금의 문산읍 마정리에서 장단군으로 건너가는 나루로 독개나루라고도 불렀으며, 자유의 다리가 가설되면서 없어졌다. 江連浦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장단부의 서쪽 1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선을 대는 곳이라 하여 이곳에 서해의 해산물을 싣고 올라온 선박들이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1) 임진강 · 한탄강 유역의 시장과 상품유통

(1) 조선시대 장시개설 상황과 상품유통

지금의 재래시장 또는 5일장, 시골장으로 불리는 정기시장이 형성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상품교환을 위한 시장이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은 아니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시전이 설치되었지만 수도를 비롯하여 극히 일부 한정된 지방에만 있었다. 신라는 京市를 비

롯하여 동시 · 서시 · 남시를 개설하였고, 시장의 감독기관으로 東市典과 西市典 · 南市典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었고 상설시장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설시장 이외에 잉여물품을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 열렸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에 시전이 건립되어 국제무역도 이루어졌으나 지방에서 정기적인 시장이 열렸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는 한양에 수도를 정하면서 관설로 지금의 종로 1가에서 종로 3가에 이르는 길 양쪽에 800여 칸의 시전을 건설하였다. 이 시전에는 국가에 일정한 國役을 담당하는 상인들이 상권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정부에서는 백성들이 상업에 종사하게 되면 농사에 힘쓰지 않고 간사해지는 등 敎化에 어긋난다고 하여 크게 억압하였다. 따라서 상업에 종사할 경우 관의 통제와 관리하에 있어야 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천시되었다.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농업생산력의 증대 등으로 15세기 중엽에 전라도 무안지방에서 처음으로 地方場市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처음 개설된 정기시장은 지금처럼 5일마다 서는 것은 아니었고,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15일장이었다.[20] 이후 장시개설은 충청도 · 전라도지방으로 확산되었고,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정기시장이 열리게 되었다.[21] 지방에서 열리던 시장을 鄕市 또는 場門이라고 하였다.

중앙이 아닌 지방에 시장이 열리자 조정에서는 이를 억압하여 열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이를 계기로 농토가 황폐화되고, 도적이 증가하는가 하면 물가가 오르는 등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서울의 시전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서울에서 100리 이내에 개설되는 장시에 대해서는 특히 엄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흉년타개와 賑恤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장시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장시가 개설되는 곳은 더욱 증가해 갔으며, 16세기 후반에는 경기도내 여러 곳에도 장시가 개설되었다.

장시개설의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 수록하고 있는 자료는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와 1830년의 『임원경제지』가 비교적 자세하며, 주로 18세기 이후에 작성되는 각 지방의 읍지가 많은 참고가 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면 임진강 유역을 끼고 있는 여러 군현에는 적어도 邑治를 중심으로 한 곳 이상의 장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임진강과 한탄강을 끼고 있는 市郡은 파주시 · 포천군 · 연천군 · 철원군이다. 이들 지역이 과거에는 파주목 · 장단부 · 마전현 · 적성현 · 포천군 · 삭령현 · 교하군 · 연천군 · 영평현 · 철원군이었다. 먼저 이들 지역에 개설되었던 장시를 『동국문헌비고』 · 『임원경제지』 · 『읍지』를 통해 살펴보자.

---

20) 『성종실록』 권20, 성종 3년 7월 임술조.

21) 『중종실록』 권31, 중종 13년 정월 임자조.

〈표 40〉 임진강유역의 장시

군현	장 시 명	소 재 지	개시일	동국문헌비고	임원경제지	읍 지	비 고
파주	邑內場	州內面	1·6	○	*	○	
	奉日川場	남쪽 30리 條里洞面	2·7	○	○	○(恭陵場)	
	梨川場		3·8	○	*	*	
	廣灘場		4·9	○	*	*	
	長坡場	坡平面	4·9	○	*	○	
	汶山浦場	북쪽 10리 七井面	5·10	*	○	○	
	訥老場	북쪽 30리 坡平面	4·9	*	○	*	
	院基場	동쪽 10리 泉峴面	1·6	*	○	*	
장단	邑內場	東下里	3·8	○	○	○	
	沙川場	서쪽 20리 中西面	1·6	○	○	○	
	古浪浦場	동쪽 30리 長西面	2·7	○	○	○	
	院隅場		4·9	○	*	*	
	沙味川場	동쪽 40리 江南面	4·9	*	○	○(三彌川場)	
	駒化場	북쪽 60리 江西面	1·6	*	○	*	
	道井場	북쪽 30리 西道面	2·7	*	○	○(西道井場)	
마전	楡林津場	동쪽 10리 北面	3·8	○	○		
교하	新花里場	동쪽 7리 衙洞面	4·9	교하군이	○	*	
	鍤橋場	서쪽 40리 石串面	1·6	없음	○	*	
영평	縣內場	읍치 부근	3·8	영평현이	○	*	
	物隱淡場	동쪽 30리 一東面	3·8	없음	○	*	
적성	笠巖里場	남쪽 30리 南面	4·9	○	○(2·7)	*	
	斗日場	북쪽 20리 北面	5·10	○	○	○	
	梧木川場	동쪽 20리 東面	2·7	*	○	*	
	發雲場	남쪽 30리	4·9	*	*	○(今廢)	
연천	邑內場	읍치 부근	1·6	○	*	*	
	軍營場	서쪽 20리	4·9	○	*	○(今廢)	
	車灘場	남쪽 5리 縣內面	1·6	*	○	○	
	新設場	서쪽 7리 細谷面	2·7	*	○	*	
포천	邑內場	읍치 부근	3·8	○	*		
	松隅場	남쪽 20리 所屹面	4·9	○	○		
삭령	邑內場	읍치 부근	4·9	○	*	*	
	水朔時		2·7	○	*	*	
	時郁場	남쪽 20리 南面 占里洞	5·10	○	○(水郁場)	○	
	石橋場	북쪽 30리 馬場面 蜜巖里	3·8	○	○	○	
철원	邑內場	읍치 부근	2·7	○	○		
	外西場		4·9	○	*		
	北面場		1·6	○	*		

〈표 40〉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군현에 따라 개설되는 장시의 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장시수에 변화가 있으며, 장시명도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같은 시장권내에 있는 장시들 사이에서도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통합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등 질적인 변화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8세기 초반까지는 장시가 수적인 증가에 있다가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그 수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시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인 발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의 경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장시수는 1개가 줄어들지만 기존의 장시가 폐하는가 하면 새로운 장시가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공릉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봉일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봉일천장은 『萬機要覽』에 전국 15대 장시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로 대장시에 속하였다.[22] 장단의 경우 19세기 전반에 3곳에 장시가 신설되고 있어 상품유통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사미천장은 임진강으로 직접 유입하는 사미천 연안에 위치하였는데, 적성의 두일장과 함께 소형선박 운행이 가능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장시가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산포장은 조선시대에 대량 운송수단이었던 선박이 임진강을 통해 올라와 정박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서해와 한양 등지로부터 공급되는 물화들을 파주지역은 물론이고 주변의 장단, 개성, 연천, 포천과 임진강 상류지역인 철원과 평강까지도 연결하는 각종 상품의 중간집산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고종 때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는 문산포장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이 시기에 다른 장에 통합 또는 흡수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산포장은 대한제국시기와 일제시기에 크게 성황을 이루었던 곳이었다.

포천의 송우장은 조선후기에 크게 성황을 이루었던 곳이다. 18세기 이후 서울과 원산사이의 교통로가 개발되고 동북지방의 물화가 서울로 대량 유입되면서 松隅店은 서울 근교의 광주의 松坡 및 양주의 樓院과 함께 사상인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다. 송우점은 동북지방의 상품이 서울로 운반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송우점에 사는 金運敬, 朴貴宗, 李孝白 등이 원산에 사는 南大奉, 金義敬, 金成五, 金致煥, 金厚若 등과 연계하여 동북지방의 魚物과 布物을 대량으로 매점하여 누원점을 거쳐 서울시내 도고상인들에게 넘겨주므로 시전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하였다.[23] 즉 송우장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상인들이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하였던 것이다.

장시는 성립초기에 1개월에 2회 내지 3회 개시하는 보름장 또는 10일장이었는데, 17세기 초에 이르면 대체적으로 5일장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18세기 이후에도 10일장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다. 그리고 장시수가 증가하면서 장시들 사이에 연계관계가 형성되어 국지적인 시장권이 형성되었다. 시장권은 인접한 장시사이에 개시일을 변경하거나 場勢가 큰 장시에 작은 장시가 흡수, 또는 통합되는 형태

22) 『萬機要覽』 財用篇 5, 各廛條.
23) 『各廛記事』 天卷 戊申(1788) 4월.

로 이루어졌다.[24] 그리고 장시가 개설되는 장소를 옮겨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임원경제지』에 실린 경기도의 장시는 모두 92개였으며, 개시일별로 살표보면 1 · 6일장 18개, 2 · 7일장 21개, 3 · 8일장 20개, 4 · 9일장 20개, 5 · 10일장 13개로 나타난다. 5 · 10일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개시일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장시의 양적 · 질적변화와 상인들의 활동범위의 확대, 교통로의 개발, 상품유통의 증대 등으로 각 지역마다 국지적인 시장권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권은 5일장 체계가 형성되면서 대장시 및 교통로 중심지에 위치한 장시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다.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군현에서 개설되고 있던 장시들을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개시일, 거리, 위치 등을 토대로 시장권을 설정해 보면 아래의 〈표 41〉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장시 중에는 두 세곳의 시장권에 중복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장시는 그만큼 지역주민 및 상인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와 개시일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시장권은 상품유통의 내용, 상인들의 商圈, 교통로 등의 요인을 추가하여 면밀히 분석할 경우 또다른 형태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권은 생활권, 상품유통권, 교통의 편리성 또는 운송로의 연결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임진강 유역의 시장권[25]

구 분	시 장 권 내 의 장 시
1	봉일천장 · 문산포장 · 눌노장 · 원기장(이상 파주) · 신화리장(교하)
2	읍내장 · 사천장 · 구화장 · 도정장(이상 장단) · 문산포장(파주)
3	사미천장 · 구화장 · 고랑포장(이상 장단) · 두일장 · 오목천장(이상 적성)
4	차탄장 · 신설장(이상 연천) · 수욱장(삭령) · 유림진장(마전) · 동두천장(파주)
5	수욱장 · 석교장(이상 삭령) · 읍내장 · 외서장 · 북면장(이상 철원)
6	읍내장 · 물온담장(이상 영평) · 차탄장(연천) · 동두천장(파주)
7	사미천장 · 구화장 · 고랑포장(이상 장단) · 두일장 · 오목천장(이상 적성)

조선시대 장시에서는 어떤 물품들이 거래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임원경제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이 자료에는 전국 각 군현별로 대표적인 장시 325곳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있던 군현의 대표적인 장시에서 거래되고 있던 상품들을 도표화하면 〈표 42〉와 같다.

장시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대개 곡물류를 비롯한 농업생산물이 대부분이었고, 직물류인 면포와 마포가 많이 출하되었다. 이외에 수공업품으로 철물이나 목물 · 옹기 등이 거래되었고, 농우거래가 다른 물품에 비해 많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단을 비롯하여 임진강 유역에 있었던 10개 군현의 주요 장시에 콩이 거래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시기의 여러 자료에는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가운데 하나는 大豆로 기록되고 있고, 그 수량 또한 매우 많

24) 韓相權, 「18세기말~19세기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사론』 7, 1981, 207~231쪽 참조.

25) 金大吉, 「조선후기 경기도의 場市」, 『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2,.954~959쪽 참조.

〈표 42〉 임진강 유역 각 군현 주요장시의 거래물품 (자료 : 『임원경제지』)

군현명	장시명	米穀	豆	生麻	棉花	紬緞	明紬	綿布	麻布	果物	魚鹽	牛犢	煙草	席子	雉鷄	鐵物	釜鼎	鍮器	甕器	沙器	木物	柳器	紙地	蜂蜜	松茸	山査
파주	奉日川場	○				○		○	○		○	○		○					○	○	○	○				
장단	府內場	○					○	○				○							○							
마전	楡林陣場	○			○			○						○			○				○					
교하	新花里場	○						○		○	○		○	○												
영평	縣內場	○						○	○		○	○														
포천	松隅場	○			○			○	○	○		○	○				○				○					
적성	斗日場	○						○	○	○	○	○	○													
연천	車灘場	○			○			○	○			○			○	○		○	○			○			○	○
삭령	水郁場	○		○				○			○	○			○	○	○		○							
철원	府內場	○						○																○	○	

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고랑포와 문산포가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임원경제지』에 실린 거래 물품은 모든 거래물품을 망라하여 수록하였다기 보다는 일정규모의 거래량이 있었던 물종만을 수록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들 대표적인 장시 이외의 대부분의 장시에도 거래량은 적었다고 하더라도 도표에 나와있는 상품들이 거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천의 경우 몇가지 산물에 대해 특별히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蓴菜는 熊淵과 澄波江에서 간간이 난다고 하였고, 錦鱗魚와 訥魚는 매년 穀雨 때에 漁戶들이 많이 잡는다고 하였다. 지금도 임진강 강안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민물매운탕이 인기를 끄는 것처럼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辛甘菜과 山芥는 寶盖山에서 산출되었는데 수목이 점차 허술해지면서 채취가 어려워져서 永平과 平康 등지에서 사들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물품 이외에도 장시에서는 많은 농업생산물과 해산물, 수공업품이 거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임원경제지』, 각 군현의 읍지, 『조선지지략』[26]에는 각 지역의 토산물 또는 해산물, 수공업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물들이 많거나 적거나 해당 지역의 장시에 출하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표 43〉에 나타난 생산물들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포천 · 삭령 · 철원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해산물 또는 수산물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수록된 물품의 종류와 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록할 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지지략』에 나타난 내용 중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적성과 삭령의 경우 광물이 등장해 있고, 포천의 경우 사금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물품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주요 산물로 수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 육군참모본부, 『조선지지략』, 龍溪書舍, 1981. 이 자료에는 19세기 말 각 군현의 강역, 연혁, 面名, 인구, 등을 비롯하여 시장, 驛院, 산악, 하천, 봉수, 교량, 물산 등의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표 43〉 임진강 · 한탄강 유역 각 군현의 특산물

군현명	신증동국여지승람	임원경제지	읍지	朝鮮地誌略
파주	銀口魚 蟹 葦魚 秀魚 石菖蒲	石灰 秀魚 銀口魚 葦魚 蟹	銀口魚 葦魚 秀魚 蟹 石菖蒲 卯細魚	銀口魚 蟹 葦魚 秀魚 石菖蒲
교하	秀魚 葦魚 鮤魚 蟹	秀魚 鮒魚 葦魚 蟹	秀魚 細魚 鱸魚 鮤魚 葦魚 蟹	秀魚 葦魚 鮤魚 蟹
적성	陶器 赤土 蜂蜜 訥魚 錦鱗魚 蟹 白花蛇	赤土 錦鱗魚 訥魚 白花蛇 陶器	陶器 赤土 訥魚 錦鱗魚	陶器 赤土 蜂蜜 訥魚 錦鱗魚 蟹 白花蛇 鑛物
마전	絲 麻 訥魚 錦鱗魚蟹	五味子 紫草 錦鱗 魚訥魚 蟹		絲 麻 訥魚 錦鱗魚 蟹
영평	銅鐵 水鐵 磁器 安息香 松石 葦人蔘 五味子 山芥 辛甘菜 蜂蜜	銅 鐵 石灰 人蔘 當歸 石葦 五味子 山芥 松葦安息香	水鐵 辛甘菜 五味子 松茸 蜂蜜	銅鐵 水鐵 磁器 安息香 松葦 石葦 人蔘 五味子 山芥 蜂蜜 辛甘菜 鑛物
연천	絲 麻 陶器 五味子 紫草 蕈菜 錦鱗魚 訥魚	石灰 薯蕷 陶器 錦鱗魚 訥魚 蟹	蕈菜 錦鱗魚 訥魚 辛甘菜 山芥	絲 麻 陶器 五味子 紫草 蕈菜 錦鱗魚 訥魚
포천	沙器 蜂蜜 山芥 辛甘菜 松葦 綠礬	綠礬 當歸葦松 山芥 蜜 蠟	沙器 蜂蜜 山芥 辛甘菜 松葦 綠礬	沙器 蜂蜜 山芥 辛甘菜 松葦 綠礬 沙金
삭령	絲 麻 五味子 蜂蜜 訥魚	綠礬 石灰 蔥 辛甘菜 五味子 錦鱗魚 訥魚 蜜 蠟	絲麻 五味子 蜜蜂 訥魚 錦鱗魚 蔥	絲 麻 五味子 訥魚 錦鱗魚 蔥 綠礬 梨
장단	絲 麻 松葦葦魚 訥魚 錦鱗魚 秀魚 銀口魚 蟹 石菖蒲 綠礬	綠礬 石灰 絲 麻 鯉魚 秀魚 錦鱗魚 訥魚 葦魚 白魚 蟹	絲 麻 松葦葦魚 訥魚 秀魚 白魚 河肫錦鱗魚 蟹 石菖蒲 金銀花 山藥	絲 麻 松葦 葦魚 訥魚 秀魚 錦鱗魚 銀口魚 蟹 石菖蒲 綠礬 綿
철원	磁石 漆 五味子 人蔘 松葦 蜂蜜 茯苓 地黃 白花蛇 錦鱗魚 訥魚	磁石 五味子 漆 人蔘朮 茯苓當歸 芎藭羌活 獨活 松葦訥魚 錦鱗魚 鷹 白花蛇	磁石 柒 人蔘 蜂蜜 錦鱗魚 訥魚	磁石 漆 五味子 人蔘 松葦 蜂蜜 茯笭 地黃 白蛇花 錦鱗魚 訥魚

한편 장시가 지역주민들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이를 중심으로 상품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역의 장시에는 屠肆 또는 庖肆, 즉 도살장이 설치되는 곳이 늘어났다. 17세기 후반 이래 조정에서는 농우확보를 위해 도사의 설치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도사가 설치되는 곳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농우도살과 牛肉 판매를 통한 이익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여러가지 금령을 통해 도살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27]

27) 金大吉, 「조선후기 牛禁에 관한 연구」, 『史學硏究』 52, 1996 참조.

도사의 설치는 개항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28]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사설치에 대한 요구나 도사설치를 둘러싼 분쟁 등이 적지않게 보이는 것으로 도사운영에 따른 이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2년 포천군의 경우 松隅場 · 乾川里 · 蓮峰隅 · 楸谷 · 外北 · 防阿橋 · 萬世橋 · 內洞 · 淸浦에 9개의 포사가 있었다.[29] 이러한 숫자는 이 지역에 개설된 장시수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것이었다. 같은 시기 파주군 칠정면 堂洞의 포사주인은 자신의 포사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문산포에 내장원의 허가를 얻은 포사가 설치되어 자신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30] 포사영업 허가와 관련하여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포사가 설치될 경우 포사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허가기관으로 보아서도 포사세 수납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조정하거나 규제하였다. 1900~1907년 사이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7개 군에 설치된 포사수와 여기서 거두어 들인 포사세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임진강 유역 각 군의 포사세 추이[31]

군 명	연 도	포사수	포 사 세 액	비 고
파주	1901	5	1882냥	3등 1곳, 5등 4곳
	1907	4	1352냥	(1902년 5등 1곳 기로소에 환부함)
적성	1901	4	1352냥	5등 4곳
	1907	2	676냥	
영평	1903	3	1206냥	3등 1곳, 5등 2곳
	1907	3	1206냥	
포천	1902	10	2948냥	2등 1곳, 5등 3곳, 무등 6곳
	1903	5	1978냥	2등 1곳, 5증 3곳, 무등 1곳
	1907	5	1978냥	
장단	1901	4	1352냥	5등 4곳
	1902	5	1546냥	5등 4곳, 무등 1곳
	1907	4	1352냥	
연천	1901	1	338냥	5등 1곳
	1907	1	338냥	
삭령	1901	1	338냥	5등 1곳
	1907	1	338냥	

28) 이 부분에 대해서는 楊尙弦, 「韓末 敍肆 운영과 敍肆稅 收取構造」, 『한국문화』 16, 1995 참조.
29) 訓令存案 5, 1902년 4월 7일, 포천군수에 대한 훈령.
30)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 4, 11쪽, 파주군수 보고서.
31) 양상현, 앞의 논문, 336쪽을 참조하여 작성.

(2) 일제시대 시장의 변화와 상품유통

일제는 한일합방 후 한국경제 침탈을 위하여 토지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시장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시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일제는 1914년 「시장규칙」을 공포하여 시장을 그 관리하에 두었다. 「시장규칙」에 의하여 한국의 모든 시장을 그 형태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였다. 제1호 시장은 재래의 정기시장을 주축으로 하여 그에 병설된 가축시장과 약령시장 등이 포함되었다. 제2호 시장은 주요 도시의 공설시장으로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설시장과 일용품시장을 말한다. 제3호 시장은 경매방법에 의한 수산물 청과물 야채의 집단도매시장을 지칭한다. 제4호 시장은 곡물증권 및 현물 곡물거래소 시장을 말한다.[32]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임진강 유역에 있는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적성 · 마전 · 교하 · 삭령 · 영평지역이 다른 군으로 통폐합 또는 편입되었다. 이 지역에는 10개 군현이 5개의 군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시장의 개설상황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1922년대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연천군에 8개, 포천군에 5개, 파주군에 7개, 장단군에 5개, 철원군에 3개가 개설되고 있었다. 이들 시장은 물론 「시장규칙」의 분류기준에 따라 제1호시장으로 구분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이 4년 뒤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수에서 2개가 적은 것이지만 문산과 봉일천 우시장이 1926년에는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고, 포천의 송우장이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임진강 유역에 있는 여러 지역은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경의선은 1904년 10월 용산과 임진강 사이를 임시운행한 후 1906년 3월에는 전구간에 걸쳐 열차가 운행되었다. 열차의 운행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임진강 유역에 있는 나루였다. 특히 임진나루는 서울에서 서북지방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18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건조한 10척의 배가 여행객과 물화를 운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청일전쟁기를 거치고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임진강 연안에 있던 많은 나루들이 점차 그 위력을 잃어가게 되었다.

한편 개항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을 맺은 浦口와 시장이 성장하였다. 개항장과 배후지를 연결하는 주된 운송수단이 선박이었으므로 포구의 성장이 현저하였다. 파주 · 장단 · 마전 · 적성 · 연천 등 임진강 연안에서 산출되는 대두의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고랑포와 문산포가 성장한 것이 좋은 예이다.[33] 『한국수산지』에 소개된 문산포와 문산역은 임진강 유역의 상품유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산포는 경의선의 요충지로 부근의 농산물은 물론이고 장단의 大豆같은 것도 이곳에서 集散되는 것이 매우 많았다. 5 · 10일장이 열려 이곳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요 거래물품은 포목 · 紬緞 · 綿絲 · 미곡 · 鹽乾魚 · 鐵器 · 煙草 · 果物 · 草物 · 石油 · 生牛 · 닭 · 계란 등이라고 하였다.

문산역은 문산포의 동쪽에 있으며, 파평읍과 적성읍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용산역에서

32) 이에 대해서는 신세계백화점, 『한국의 시장상업사』, 1992, 180~189쪽 참조.

33) 李憲昶 · 金鍾赫, 「경기지역의 시장변동」,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03쪽.

〈표 45〉 일제시대 임진강 · 한탄강 유역의 시장 개설상황

군 명	시 장 명	개시일	위 치	1922년	1926년	분 류	비 고
연천군	車灘場	1 · 6	郡內面 차탄리	○	○	1호 공설시장	
	三串場	4 · 9	中面 삼곶리	*	○	〃	
	古尾浦場			○	*	〃	
	朔寧場	5 · 10	北面 삭령리	○	○	〃	
	貴存場	3 · 8	西南面 귀존리	○	○	〃	
	笠巖場	1 · 6	南面 상수리	○	○	〃	
	邑內場	4 · 9	積城面 읍내리	*	○	〃	
	麻田場	3 · 8	嵋山面 마전리	○	○	〃	
	斗日場	5 · 10	百鶴面 두일리	○	○	〃	
	全谷場	4 · 9	嶺斤面 전곡리	○	○	〃	
포천군	上松隅場	4	蘇屹面 송우리	○	○	1호 공설시장	송우장으로통합
	下松隅場	9	〃	○		〃	
	新邑場	1 · 6	西面 신읍리	*	○	〃	
	邑內場	8	永中面 永平里	○	○	〃	
	梁文場	3	영중면 양문리	○	○	〃	
	雲潭場	2 · 7	一東面 禾垈里	○	○	〃	
파주군	汶山場	5 · 10	臨津面 문산리	○	○	1호 공설시장	
	汶山牛市場	〃	〃	○	*	〃	
	奉日川場	2 · 7	條里面 봉일천리	○	○	〃	
	奉日川牛市場	〃	〃	○	*	〃	
	揷橋場	1 · 6	靑石面 東牌里	○	○	〃	
	金村場	1 · 6	衙東面 금촌리	○	○	〃	
	訥老里場			○	*	〃	폐지된 상태임
장단군	邑內場	3 · 8	군내면 읍내리	○	○	1호 공설시장	
	高浪浦場	2 · 7	長南面 고랑진리	○	○	〃	
	九化場	1 · 6	江上面 구화리	○	○	〃	
	絲谷場	4 · 9	津南面 東上里	○	○	〃	
	渭川里場	5 · 10	大南面 위천리	○	○	〃	
철원군	邑內場	1 · 6	철원면 官田里	○	○	1호 공설시장	
	石橋場	3 · 8	馬場面, 密岩里, 長浦里	○	○	〃	
	大光場	5 · 10	新西面 道龍里	○	○	〃	

29리 정도이고 개성까지는 17리이다. 열차운임은 용산에서 90전이고 개성까지는 95전이다. 적성 동북의 마전 · 연천 등을 경유하여 강원도의 철원읍에 이르는 郵便路線은 문산역에서 연결이 된다. 京元線이 개통될 때까지는 이들 지역 외에 삭령읍과 황해도의 兎山, 강원도의 安峽, 伊川 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

의 요지로 자리잡고 있었다.[34]

일제시대에 봉일천장은 경기도내에서도 손꼽히는 대장시였다. 봉일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물산을 흡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의 우시장은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이곳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였다. 1926년 소의 거래금액은 총거래금액 36만 378원 가운데 31만 5,420원을 차지하고 있었다.[35] 이에 비하여 문산포장은 상품시장으로 유명하였다. 1938년 파주군에 있던 시장들의 거래금액을 보면 봉일천장이 65만여원, 문산포장이 55만 4천여원, 금촌장이 3만 4천여원, 삽교장이 1만여원, 적성장이 1만여원 등이었다.[36] 봉일천장의 경우 가축거래금액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상품만을 거래한 문산포장의 거래액은 이곳에서의 거래규모가 매우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산포장은 각종 물화의 대집산지로 파주군 전역은 물론이고 장단군 지역의 시장과 상업도시로 이름난 개성까지도 상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이었다. 그리고 연천과 포천, 강원도의 철원군과 평강군까지 각종 물화를 공급하는 基地市場으로의 역할을 하였다. 연천군의 삼곶장 · 마전장 · 귀존장은 일제시대 때 신설된 시장이다. 귀존장은 시욱진을 유통거점으로 하였고, 삼곶장은 미포진을, 마전장은 당포진과 연결된 포구장시로 새롭게 등장한 곳이다. 경원선이 통과하기 전까지 임진강 유역에서 물화의 대량운송은 여전히 수운의 몫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장단군에 열리는 읍내장은 3 · 8일에 열리며 각 지방에서 이름난 과물 가운데 장시에서 선별된 대추 · 곶감 · 밤 · 배 등의 집산지로 유명하였다. 장단역부터 개성까지는 4리이고 남쪽 파주군 임진진은 약 2리정도이다. 장단역에서 개성까지의 역운임은 30전이고, 용산역까지는 1원 11전이었다. 임진강의 상류 강안에 위치한 고랑포장은 2 · 7일에 개설되고 있었으며, 조선후기 이래 큰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여전히 물화 집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大豆 · 쌀 · 薪炭 등의 집산지로 매우 유명하였다. 일제시대에도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곳까지 올라오는 선박이 매우 많았는데 고랑포가 限界를 이룬다. 고랑포가 위치한 곳의 수심은 200~400석 규모의 海船도 운행이 가능하였다. 물론 여기서 상류지역으로 더 갈 수도 있었지만 소형의 강배만 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의 물산 뿐만 아니라 장단 동북지방의 적성, 마전, 연천, 철원, 삭령, 토산, 안산, 안협지방의 생산물이 이곳을 경유하여 반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이곳으로 반입되는 주요물품들은 소금과 잡화였다. 소금은 김장철과 장 담는 시기에 특히 많았고, 잡화는 주로 일본제품이나 중국제품이었다. 이러한 상품은 이곳을 경유하여 내륙 산간지역으로 공급되었다.

물화유통이 활발하고 수운을 통한 교통편이 비교적 편리한 이곳을 중심으로 일본인 여러 명이 석유 發動機船을 고랑포를 기점으로 하여 문산과 月串 등을 경유하여 인천에 다다르는 항로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항로가 개설되면 1개월에 15회 정도 운항하며,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양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물량은 대두 15만석, 쌀 20만석, 小豆와 조를 비롯

34)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韓國水産誌』, 1911, 183~184쪽.
35) 朝鮮總督府, 『朝鮮の 市場經濟』, 315쪽
36) 文定昌, 『朝鮮の 市場』, 219쪽.

한 기타 잡곡 9,500석, 木炭 60만貫, 땔나무 90만관, 엽연초 1만駄, 기타 목재 雜品에 이르기까지 그 총가액은 186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곳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식염 60,000圓, 석유 228,000원, 燐寸 3,000원, 金巾 및 목면 30,000원, 綿絲 10,000원, 해산물 30,000원, 기타 곡물류 15,000斗 180,000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다.[37]

1910년을 전후하여 장단에 개설되는 장시는 읍내장과 고랑포장, 동파리장을 비롯하여 江西面의 九化場, 中西面의 西牛場, 津北面의 招賢場 등이 있었다. 거래되는 물품은 장단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大豆와 곡물류를 비롯하여 綿, 麻, 松茸, 밤, 대추, 곶감, 배, 綠礬 등은 예전부터 유명하였다. 해산물로는 葦魚, 訥魚, 錦鱗魚, 蟹, 河豚, 白魚,, 鰕 鮎 등이 있었다.

한편 경원선이 개통된 후 크게 성장한 장시 중 하나는 전곡장이었다. 1938년 장시별 거래액을 보면 연천에서는 전곡장이 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랑포장이 43만원, 구화장이 34만원, 두일리장이 23만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3) 해방 이후 교통로 · 시장의 발달과 상품생산의 변화

임진강 · 한탄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던 지역의 시장 · 교통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이 지역의 상품생산과 그 유통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기서는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강과 합류하는 여러 하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파주지역의 변화내용이다.[38] 임진강에 인접해 있는 시장은 문산장으로 휴전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오일장이다. 한국전쟁 전만 해도 문산장 바로 앞의 임진강가에는 돛단배가 많이 정박하였고, 문산장도 활기를 띠었다. 이곳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출하되는 상품은 파주 일대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하여 각종 농산물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외지로부터 문산포장에 들어오거나 이곳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품으로는 생조기, 굴비 등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과 소금, 직물, 옹기류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문산장은 1950년대 중반까지도 5 · 10일에 개시되는 정기시장이었다. 그런데 장터 주변에 소매상들이 밀집하여 상설시장 형태로 새로운 시장권이 형성되면서 상인들은 기존의 정기시장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66년부터 정기시장으로서의 문산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문산주민들에 의해 정기시장을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 1989년부터는 다시 4 · 9일장으로 개설되고 있다. 종래의 개시일인 5 · 10일장에서 4 · 9일장으로 바꾼 것은 광탄장과 적성장이 5 · 10일장으로 개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근지역의 시장과 개시일의 중복을 피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의 읍내장은 1 · 6일장으로 개설되었다. 그 위치로 보아 문산천을 이용하여 임진강으로 이어지는 수로의 이점과 읍치 부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래되는 상품량은 주변의 어떤 시장보다도 많았

37)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韓國水産誌』, 1911, 187~189쪽 참조.
38)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군, 『파주군지 하』, 1995, 539~553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다. 그러나 일제시기에는 폐지되었다가 해방과 더불어 4 · 9일장으로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1954년에는 공설정기시장으로 허가되었다. 이곳은 휴전 후 대규모의 미군부대가 주내면 일대에 주둔하면서 1970년대까지 크게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정책으로 많은 수의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주내장의 전반적인 상거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번 국도와 경의선으로 연결된 금촌장과 문산장이 커지면서 장세가 크게 줄어들어 결국 1980년대 초반에 와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1993년 상인들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시장을 다시 열었지만 이곳의 거래는 한산한 편이다.

적성장은 조선시대 적성현의 읍내장으로 1 · 6일에 개시되었다. 적성장은 임진강 유역에 있는 어떤 다른 시장보다 많은 변화를 겪은 시장이다. 고종대에는 적성면이 연천군 관할로 편입되었다. 이후 읍내리에는 면사무소가 들어서게 되었고, 일제시대에는 구읍리로 행정구역명도 바뀌게 되었다. 1945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연천군도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연천군의 가장 남쪽에 있던 적성면은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적성면의 주민과 면사무소가 모두 남쪽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다. 휴전 후에도 적성장과 면사무소가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지리에 터를 잡게 되었다. 이곳으로 옮기면서 개시일이 5 · 10일로 변경되었다. 예전의 적성면 구읍리에 있을 때에는 읍내장으로도 불렀지만 지금은 그저 적성장으로만 불린다. 해방 이후 가축시장이 함께 열렸으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1980년대 초에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시장내에는 고정상인들이 있지만 정기시장이 열릴 때면 평일에 볼 수 없었던 외래상인들이 각종 상품을 가지고 모여든다.

訥老場은 지금의 파평면 늘노리에 있는 장시로서 북쪽으로는 규모가 보다 큰 고랑포장과 서쪽으로는 문산과 장단, 동쪽으로는 적성의 읍내장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눌노장은 이후 덕천리에 열리는 샘내장으로 개시장소를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샘내장은 1956년에 가축시장과 함께 공설시장으로 개시되었으나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폐쇄되고 말았다. 梨川場은 옛날에는 파평면에 속해 있다가 1983년 문산읍으로 편입된 현재의 문산읍 이천리에서 열렸던 장시로 배내장으로도 불렸다. 長波場은 현재의 파평면 장파리에서 열렸던 장시로 장마루장으로 널리 알려졌었다. 임진강과 인접한 곳에서 열렸던 것으로 보아 서해안에서 공급되는 해산물을 내륙의 농산물과 교환하는 중개역할을 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곰시장은 법원읍 웅담리에 있는 시장으로 熊潭場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시장으로 1 · 6일에 열리고 있다. 곰시장이 열리게 된 계기는 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시장거래의 주요한 기반이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상거래가 부진하게 되었다. 포천의 시장은 현재 7개의 정기시장이 서고 있다. 1983년까지만 해도 6개의 시장이 서고 있었는데 1984년에 공설시장 한 곳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포천군 관내에 대규모 도매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상설시장은 없고 정기시장만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곡물류와 채소 등은 자급자족하는 상황이어서 장날 출하되는 상품은 대개 생필품을 비롯한 공산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동시장의 경우 인근의 농촌사람들이 주고객이고 시장에 나오는 상품도 대단한 것이 없는데도 이곳을 찾는 사람은 매우 많다. 그 이유는 언제부턴가 이동막걸리만큼 유명해진 이동갈비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은 교통편이 좋아져 서울에서 이곳을 찾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이동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의정부를 지나 포천읍을 통해 이동으로 가는 길이 있으나 망우리고개를 넘어 교문사거리, 서파검문소, 일동을 경유하는 것이 더 빠른 편이다. 휴일이나 공휴일 포천군 일동면과 이동면의 거리는 이곳을 찾은 외지인을 호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포천의 시장에 출하되는 상품들은 이 지역 관내 산업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39] 포천읍은 과거 포천천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했으나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산업의 발달로 많은 금융기관이 들어서 있다. 공업은 170여 개 중소업체가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군내면은 주민의 35%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쌀과 잡곡이 주산물이나 원예와 채소재배가 주 소득원이다. 전국에서 유명한 느타리버섯 종균장과 버섯재배 및 育牛도 활발한 편이다. 신북면의 주산업은 농업으로 쌀 · 잡곡 · 채소재배를 비롯하여 한약재와 인삼재배도 많이 하고 있다. 옛 도요지였던 만세교리 근처 '사기마을'에는 토산품과 민예품 · 자기 등이 생산되어 한국 전통의 원형을 재현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에 응하고 있다. 창수면은 寶藏山을 포함하고 있어 산간에는 잣나무, 밤나무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수작물로 약초를 재배하는 곳이 많다. 청둥오리 · 한우사육과 양돈사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다. 영중면은 농업이 주산업이나 인삼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며, 거사리 金華山의 화강암은 석질이 좋아 가공된 후 국내는 물론 국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국도변에는 38휴게소, 광명휴게소 등이 있어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동면은 각종 곡물 이외에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가 성하고, 최근 개발된 일동유황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동면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갈비집 운영이 크게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산 각종 나물과 약초, 송이버섯을 비롯한 각종 버섯이 많이 생산된다. 영북면은 명성산 줄기가 내려오면서 만들어낸 기이한 봉우리, 울창한 숲과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는 절경이 많다. 그리고 한탄강 유역도 기암괴석과 절벽이 많아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광업이 큰 소득원이 되고 있는 곳이다. 관인면은 인삼재배와 목축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중리에 석탄광이 있고, 삼율리에 철광이 있다.

포천군의 교통로를 포천천과 영평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재 포천읍은 옛부터 한양 · 원산 · 함흥으로 통하는 중심도로로 이용되었다. 지금도 신읍리가 남북을 관통하는 서울-김화가도 위에 있어 경기도 동북부지방의 교통중심지이며, 창수면을 거쳐 연천군에 이르는 동부간선도로가 펼쳐져 있어 교통의 요지를 이루고 있다. 포천천을 경계로 군내면 · 가산면과 접해 있다. 포천천 유역에는 신북면이 위치하고 있다. 신북면 남부 저지대에는 포천천이 흐르고 서부 저지대에는 영평천의 지류인 외북천이 북으로 흐르고 있다. 이 지역은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어 옛부터 주민의 주요한 생활터전이 되고 있다. 영평천이 면의 중심부를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창수면은 북쪽으로 한탄강을 경계로 연천의 관인면과 접해 있다. 교통은 영평천 연안을 따라 37번 국도가 동서로 이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평과 이어지는 지방도와 관인, 철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다.

포천천이 남에서 북으로 면의 중앙을 지나 양문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영평천과 합류하여 부근에 위치한

39)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군, 『포천군지 상』, 1997, 8~35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영중면은 경지가 발달하였다. 서울에서 의정부-철원-김화로 이어지는 43번 국도가 남북으로 뻗어있고, 동서로는 가평과 연천으로 통하는 37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성동 삼거리에는 한국전쟁 때 38선을 돌파하여 북으로 진격한 길이라고 하여 '북진통일로' 라고 쓴 기념비가 있다.

영평천의 상류인 일동천 유역의 평지에 자리잡고 있는 일동면과 이동면은 서울에서 김화로 이어지는 47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다. 일동면의 경우 철원에서 춘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만세교를 지나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 교통의 요지로 이 지역발전을 돕고 있다. 포천군의 북단에 위치한 영북면은 서북단으로 한탄강이 面界를 이루며 흐르고 있고, 영평천의 지류인 夜味川과 한탄강의 지류인 자일천과 부소천이 흐르며 이 유역에는 평지가 조성되어 경작지와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관인면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변천이 심하였던 곳 중의 하나다. 삼국시대에는 이 지역이 백제-고구려-신라-태봉의 영역으로 바뀌었으며, 고종대에는 철원군, 순종때에는 연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에는 포천군으로 편입되었다. 면내의 대부분 지역이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탄강이 평균 30m 높이의 급경사 계곡을 이루며 흐르고 있다. 교통은 운천, 포천과 철원, 김화로 통하는 국도와 중리를 거쳐 연천으로 이어지는 지방도가 교차되어 편리하다.

임진강과 한탄강의 상류지역이 속해 있는 연천군은 최근에 이르러 두 강을 비롯하여 유적지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점차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과거 주곡 중심의 농업에서 채소와 원예작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축산업의 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다. 연천군내에는 현재 2 · 7일에 열리는 연천장과 4 · 9일에 열리는 전곡장이 있다. 전곡읍에는 인구가 집중하면서 자연적으로 상설시장이 형성되었다.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에는 각지에서 생산된 山菜 ·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과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처럼 잡화류 · 의류 · 해산물류 등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연천군 관내 각 면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주요 생산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0]

연천읍의 경우 관개시설이 개선되면서 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는 쌀 · 보리 · 채소 등이 있고, 군납관계로 채소재배가 성행하고 있다. 이 지역 군부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곳이다. 남쪽에 위치한 전곡읍은 연천 남부 지역의 중심지로 곡물과 야채를 비롯하여 근래에는 양돈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탄강의 민물고기와 신답리 · 은대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돌절구와 맷돌이 유명하다. 군남면은 서쪽에 임진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동쪽엔 차탄천이 지나는 곳으로 채소재배가 많은 편이고 대개 군납을 하고 있다. 미산면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강유역에서 생산되는 콩은 품질이 매우 좋은 것으로 이름이 나있다. 백학면은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사미천이 서쪽에 흐르고 있으며, 근래 젖소와 양계 · 양돈을 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장남면은 남쪽으로 임진강, 동쪽으로 사미천이 흐르고 있으며,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서울 등지로 출하되고 있어 농가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연천은 현재 도로교통이 좋아지면서 동두천 · 일산 · 서울 등과 같은 소비도시에 오이 · 호박 · 상치 · 토마토 등의 채소를 재배하는 근교농업이 발달

4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125~127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4. 결 론

임진강과 한탄강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측면이나 교통로의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 지역은 선사시대 이래 어로나 채집, 농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곳이다. 삼국시대 이래로 임진강은 한강과 더불어 남쪽과 북쪽에 자리잡은 세력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둘러싼 전투와 전쟁도 적지 않았다. 북방 이민족의 한반도 침입 때도 주요 이동로가 되기도 했던 곳이다. 그리고 강의 지리적 여건이 나루와 여울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방어의 측면이 강조된 곳이었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 연변에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성곽들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이곳이 교통로의 요충지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의 수도 개성과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과 거리상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 경제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지역이다.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이동하는 교통로의 중요한 지점으로 인식되어 이 지역 곳곳에는 역참과 원, 점막 등이 많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육로교통이 불편했던 시기에 수로를 이용하여 물화의 대량운송이 가능했던 곳이기 때문에 상품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지역이다. 큰 배는 고랑포까지, 작은 배는 그 이상의 상류까지 갈 수 있는 있는 조건으로 인해 산간지역의 생산물과 서해의 해산물이 손쉽게 교역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이래 이 지역에 개설된 많은 장시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고, 잉여생산물과 생활필수품을 교역하는 장소가 되었다. 장시는 개설되는 곳의 지리적 위치, 이 곳을 이용하는 상인 및 주민들의 수, 유통되는 상품의 양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場勢가 좌우되었다. 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에는 대장시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시에 흡수 또는 통합되기도 하고, 아예 소멸되기도 한다. 임진강 · 한탄강 유역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에 개설된 장시 중 봉일천장 · 고랑포장 · 문산포장 · 송우장이 비교적 대장시로 성장했던 곳이다. 이들 장시는 임진강 유역 일대 뿐만 아니라 서북쪽으로는 개성, 남쪽으로는 서울, 동북쪽으로는 원산과도 연결하며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그 외의 장시들도 置廢와 개시일 변경 등의 변화를 겪으며 농촌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 지역의 교통과 산업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일부 도로와 수로가 주요한 운송, 이동수단이었는데,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이 지역은 큰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차 교통 및 산업의 요충지로 자리잡아 갔다. 지금은 도로 교통사정이 좋아지고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관광수입 증대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채소를 비롯하여

약초 · 인삼 재배가 늘어나고 있고, 청둥오리 · 한우사육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향후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더 나아가 분단상황이 해소된다면 이 지역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임진강 유역의 촌락*

1. 서 론

우리 조상들은 국토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흙은 살, 바위는 뼈, 바람은 숨결 등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이 때 하천은 인체의 핏줄로 생각하였다. 하천을 핏줄에 비유하였던 것은 하천이 국토 구석구석을 연결해 주며,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즉 예로부터 하천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의 공급원이었을 뿐 아니라 교통로나 문화전파의 통로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지리학에서는 하나의 하천유역을 동일한 문화권 내지 생활권으로 간주한다. 한반도 가슴 부분을 관통해 흐르며, 유로연장 254km, 유역면적 8,117.5㎢에 달해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 째 규모를 자랑하는 하천인[1] 임진강 역시 그 유역을 통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장은 임진강 유역이라는 하나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촌락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촌락은 한 가족의 거주공간인 가옥이 모여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최소단위이다. 우리가 '마을'이라고 일컫는 촌락의 역사는 인간이 정착생활을 시작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규모는 서너 가구부터 수백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임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곳 중 하나였다. 특히 漣川郡 全谷邑 全谷里 유적을 비롯하여, 연천군의 郡南面 楠溪里 · 旺澄面 江西里 · 中面 三串里 등과,[2] 坡州市의 汶山邑 長山里 · 積城面 佳月里 · 津東面 東坡里

---

* 정치영(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이용석(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1) 權赫在, 『韓國地理- 總論編』, 法文社, 1996, 64쪽.

2) 金聖範, 「軍事保護區域 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 京畿道 漣川郡篇」, 『文化財』 25호, 문화재관리국, 1992, 243~247쪽.

등[3] 임진강 변 곳곳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石器時代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대규모적이고 집중적인 古人類의 점거흔적은 우리 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도 드문 경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4] 뒤를 이어 靑銅器時代에 들어와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음을 청동기시대 유적들의 숫자와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三國時代에 접어들면서, 임진강 유역은 高句麗 · 百濟 · 新羅의 접경지대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컸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또는 백제나 신라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요충인 임진강 유역을 반드시 점령해야 했다. 이렇게 임진강 유역은 삼국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지 않은 城이 분포한다. 이러한 성의 존재는 주변에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는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나,[5] 그 자세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나 유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임진강 유역의 촌락은 계속 성장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나,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장은 시기적으로, 비교적 다양한 자료가 남아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한 조선시대 이후의 임진강 유역의 촌락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임진강 유역의 촌락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눈 다음,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그 입지와 경관, 구조, 그리고 변화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촌락의 유형구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능에 따른 분류를 통해 구읍취락, 동족촌, 교통촌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 邑聚落

조선시대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촌락은 파주 · 장단 · 적성 · 연천 · 마전 · 삭녕 · 포천 · 영평 등 각 군현의 邑治, 즉 읍취락이었다. 읍취락은 조선시대 府 · 牧 · 郡 · 縣 등 지방행정기관의 소재지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에 의한 지방지배기능과 재지세력에 의한 자치기능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 · 행정적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라 읍취락은 군사적 ·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물론, 지역 내 물자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 지역의 최고교육기관인 鄕校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舊邑聚落이란 이러한 읍취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읍에 소재하고 있던 행정기관이 폐쇄 혹은 이전으로 인하여 읍의 행정적 기능을 상실한 취락을 말한다.[6]

---

3) 파주시 · 한양대학교박물관,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파주시 ·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397쪽.

4) 이선복, 「임진강유역 구석기 工作의 고생태적 배경」, 『第四紀學會誌』 2권 1호, 1988, 韓國第四紀學會, 26쪽.

5)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邑治 인근의 산이나 구릉지에 반드시 유사시에 대비한 2~3곳의 성을 축조하는 것이 상례였고, 촌락 주변의 要害處에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성을 쌓고 양식을 보관해 놓아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축성에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며, 그 노동력 동원의 상당부분은 인근 촌락의 주민들에 의존하였을 것이다.

6) 李琦錫, 「舊邑聚落에 관한 硏究-경기지방을 중심으로」, 『地理學』 3권 1호, 1968, 34쪽.

〈표 46〉 임진강 유역 읍취락의 위치

군 현	위 치 (현재의 지명)	비 고
파 주 목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904년 문산읍 문산리로 이전
장단도호부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한국전쟁으로 황폐화 됨
적 성 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914년 연천군으로 편입, 구읍이 됨
연 천 현	연천군 연천읍 읍내리	1910년 연천읍 차탄리로 이전
마 전 군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1914년 연천군으로 편입, 구읍이 됨
삭 녕 군	연천군 중면 삭녕리	1914년 연천 · 철원군으로 편입, 구읍이 됨
포 천 현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1905년 군청이 포천읍 신읍리로 이전
영 평 현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	1914년 포천군으로 편입, 구읍이 됨

坡州牧 · 長湍都護府 · 積城縣 · 漣川縣 · 麻田郡 · 朔寧郡 · 抱川縣 · 永平縣[7]의 읍치는 〈표 46〉과 같은데, 장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20세기 초에 군청의 이전과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모두 구읍취락이 되었다.

이들 읍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첫째, 모두 배후에 해발 200m 내외의 야트막한 산지를 등지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하천을 끼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파주목의 읍취락은 봉서산(215.5m)을 뒤로 하고 연풍천을 바라보며 자리잡고 있고, 적성현의 읍취락은 중성산(147.7m)을 등지고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작은 지류를 앞에 두고 들어서 있으며, 연천현의 읍취락은 君子山(327.8m)을 主山으로, 동쪽으로 車灘川을 바라보며 南東向으로 열린 골짜기 안에 입지해 있다. 이러한 입지는 당시 읍취락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제일의 조건으로 작용했던 風水의 측면에서 검토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입지인 이른바 背山臨水 · 藏風得水에 부합되는 곳이다. 다만 연천 · 마전 · 적성 · 포천의 읍취락은 골짜기 내부의 좁은 공간에 들어서 있어 평지가 협소하며 상당히 폐쇄적인 양상을 띠는 반면, 파주 · 영평 · 삭녕의 읍취락은 배후의 산지와 각각 연풍천 · 영평천 · 임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이 만나는 부분에 들어서 있어 앞쪽으로 비교적 넓은 곡저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개방적인 양상을 띤다는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입지는 나름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방어의 측면에서 주위가 열린 개활지보다는 훨씬 유리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넓은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었다.

둘째는, 조선시대의 주요한 교통로가 읍취락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나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주와 장단의 읍취락으로는 조선시대 6대로 중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던 義州路가 관통해 지나갔으며, 포천과 영평의 읍취락 옆으로는 역시 6대로 중 하나인 서울과 서수라를 잇는 慶興路가 지나갔다.[8] 또한 연천 · 적성 · 마전의 읍취락 옆으로는 경흥로에서 분기한 도로가 지나갔는데, 특히 연천 읍취락을 동쪽으로 우회

7) 이들 부목군현들은 조선시대를 통해 邑號 昇降이 여러 차례가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1432년 발간)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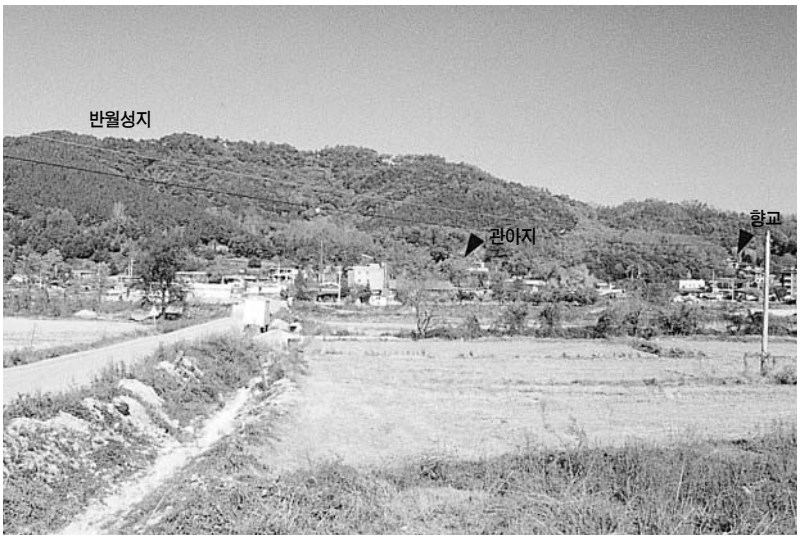
8) 崔永俊 · 金鍾赫, 「京畿地域의 交通路와 交通의 發達」, 『京畿地域의 鄕土文化(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59~163쪽.

해 지나가던 분기로는[9] 동북지역과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였다.

셋째는, 읍취락의 인근에 산성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읍취락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들어서 있는 파주의 鳳棲山城 · 포천의 半月城 · 적성의 七重城 등이 좋은 예이며, 마전 · 연천 · 영평 읍취락의 인근에는 각각 堂浦城 · 君子山城 · 姑蘇城 등이 축조되어 있다. 이들 성은 그 축조연대가 대개 삼국시대로 추정되므로, 읍취락을 보호하기 위해 산성을 축조하였다기 보다는, 읍취락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방어상의 목적을 위해 기존 성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읍취락의 입지선정에 풍수, 교통조건, 방어적 여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며, 결국 수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작용했던 입지조건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10]

마찬가지로, 읍취락의 공간구조 역시 수도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즉 風水地理說과 周禮 考工記[11]에 따라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서울의 예를 그대로 차용하여 읍취락을 건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읍취락은 행정 · 경제 · 군사 · 교육 · 종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어 일반 촌락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시설로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官衙가 있었는데, 관아는 몇 개의 건물로 나누어진다. 수령이 공무를 집행하고 기거하는 東軒, 그 외 관리들이 행정사무를 보는 吏廳, 재지세력들의 자문기관인 鄕廳, 여행하는 관리들을 위한 客舍, 죄인을 수용하는 獄舍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지방경제의 중심이 되는 市場, 군사적 기능을 위한 軍器庫 · 軍糧庫, 교육기관인 鄕校, 종교적 기능을 지닌 城隍壇 · 社稷壇 · 厲壇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읍취락을 구성하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치되었는데, 그 규칙은 바로 수도인 서울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곳, 즉 主山 기슭의 가장 밝고 生氣가 넘치는 이른바 明堂에 궁궐을 건축했듯이 읍취락에서도 가장 명당에 관아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주례고공기의 원칙에 따라 자연조건과 허락한다면 읍취락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前朝後市[12]와



〈사진 51〉 포천현의 읍취락(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관아를 중심으로 동쪽에 향교가 있고, 뒷산에는 성이 있다.)

9) 三防路라 불리었다.

10) 조선조 國都를 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었던 조건으로는, 첫째 산천형세의 풍수, 둘째 조운이 편리한지의 여부, 셋째 사방으로 도로가 고르게 나 있는지의 문제, 넷째 성곽을 축조할 수 있는지의 여건 등이었다(『太祖實錄』 권3, 태조 2년 2월 갑신조 ·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 8월 기묘조).

11) 『周禮』는 중국 西周시대의 이상적인 정치행정제도를 집대성해 놓은 것으로, 그 중 卷10이 「冬官考工記」이다. 「동관고공기」는 국가의 토목 · 공업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의 수도를 설계하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12) 궁궐의 앞쪽에 조정 즉 행정기관을 배치하고, 뒤쪽에 시장을 배치한다는 원칙으로 서울의 경우 뒤쪽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 後市의 원칙은 따르지 못하였으며, 지방의 읍취락도 대개 마찬가지였다.

〈표 47〉 임진강 유역 읍취락의 공간구조

군 현	관아건물의 구성	기 타 시 설	향교와 사직단의 배치	
			향 교	사직단
파 주	衙舍, 客館	厲壇	좌 측	우 측
장 단	아사, 客舍, 軍器庫, 獄, 司倉	氷庫, 여단, 城隍堂	좌 측	우 측
적 성	아사, 객사, 사창, 鄕廳, 武廳, 軍官廳	여단	좌 측	좌 측
연 천	아사, 객사	여단	좌 측	우 측
마 전	아사, 객사	여단	좌 측	우 측
삭 녕	-	-	좌 측	-
포 천	-	-	좌 측	-
영 평	아사	場市, 여단, 성황당	좌 측	좌 측

주1) 향교와 사직단의 배치는 관아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방향을 말한다.
주2) 공란은 지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左廟右社[13]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전국 읍취락의 공간구조는 자연조건과 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였다.

현재 임진강 유역의 구읍취락들은 옛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나, 각종 邑誌와 古地圖를 통해 복원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읍취락의 공간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47〉은 1872년에 발간된 『地方地圖』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임진강 유역 읍취락의 관아건물의 구성, 기타시설과 향교와 사직단의 배치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지도에는 대부분 관아건물로 아사와 객사 등 주요건물들만 표시되어 있지만, 이밖에도 冊房, 官需庫, 工房庫, 三門, 內衙, 鄕廳, 武廳, 使令廳, 司倉, 坐起廳, 軍器庫 등[14] 여러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영평을 제외하고는, 孔子와 유학의 선현들을 모시는 文廟가 있는 향교를 좌측에, 土地神 및 穀物神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을 우측에 배치한 것은 좌묘우사의 원칙을 충실히 지킨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시설로 눈에 띠는 것은 장단의 氷庫와 영평의 市場이다. 장단의 빙고는 다른 곳과 달리 도호부가 위치했던 읍취락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영평의 시장은 전조후시의 원칙에 따라 읍취락 인근에 설치된 邑內場으로, 지도 상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東國文獻備考』 등의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 유역의 읍취락들은 모두 한 때 인근에 장시를 두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읍취락의 공간구조에 풍수적인 요소가 반영된 예로는, 연천과 마전의 읍취락을 들 수 있다. 연천 읍취락의 입구부분에는 '築堌'[15]이라 불리는 수구막이를 위한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 숲은 현재의 읍내리 개천말 부근에서 효자문까지 남북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읍치의 지형이 동쪽에 위치한 차탄천으로 인하여

13) 궁궐의 좌측에 종묘를 배치하고, 우측에는 사직단을 둔다는 원칙이다.
14) 이것은 연천현의 예이다(『京畿邑誌』2冊, 漣川縣, 公廨條).
15) 경기 북부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風水의 裨補法으로, 補虛 · 울타리 · 防風기능 등을 수행한다(최원석, 「경기북부의 풍수신앙」, 『경기민속지』, 경기도박물관, 1999, 428쪽).

재물이 빠져나가는 형국이 되어 水口을 막는 역할의 축동나무를 심었는데, 현재는 아무런 자취도 남아 있지 않다.[16] 마전의 경우에도 읍취락의 입구에 해당하는 현재의 달골과 향교말 사이의 모퉁이에 목장승과 비석들이 한국전쟁 이전까지 서있었다고 하는데,[17] 이 목장승 또한 辟邪기능을 지닌 裨補策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임진강 유역의 정치적 · 군사적 ·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관과 공간구조도 일반 촌락과는 상당히 달랐던 읍취락들은 1910년대를 전후하여 행정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구읍취락이 되었다. 〈표 46〉에서 보듯이, 적성 · 마전 · 삭녕 · 영평 등의 읍취락은 1914년의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군이 폐지되면서 구읍이 되었고, 파주 · 연천 · 포천 등의 읍취락은 일제에 의한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의 부설과 신작로 개수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군청이 이전하게 되어 구읍이 되었다.

그러나 연천의 구읍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소재지가 되었기 때문에[18] 행정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읍취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행정기능이 축소되긴 했으나, 면사무소 · 시장 · 우체국 · 헌병파견소 · 학교 등이 들어서 있어[19] 소규모 지역중심지로서 일제시대 동안 기능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구읍취락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취락이 파괴되고, 그 후 면소재지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일제시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연천의 구읍취락은 과거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마전 · 영평 · 적성[20]의 구읍취락은 평범한 농촌 마을로 변모하였다. 파주와 포천의 구읍취락은 여전히 파주읍과 군내면의 소재지로 남아있는데, 파주의 경우, 한국전쟁 후 기지촌으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포천의 경우, 침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장단의 읍취락은 한국전쟁 중 파괴된 후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속해 있다.

3. 同族村

본절에서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촌락 중 비교적 명확한 공간질서를 나타내는 동족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동족촌은 학자나 학문분야에 따라 용어나 정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21]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동성동본 성씨집단이 한 마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들의 동족결합력이 촌락운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을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동족촌은 地緣이라는 장소적 공유

16) 漣川文化院, 『鄕土史料集』, 1995, 88쪽.

17) 장승백이 또는 비석거리라 불린다(漣川文化院, 앞의 책, 1995, 277쪽).

18) 파주 · 적성 · 마전 · 삭녕 · 포천 · 영평 구읍은 각각 파주군 주내면 · 연천군 적성면 · 연천군 미산면 · 연천군 북면 · 포천군 군내면 · 포천군 영중면의 면소재지가 되었다.

19) 1918년에 간행된 1: 50,000 지형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20) 중성산 기슭에 적성향교가 남아 있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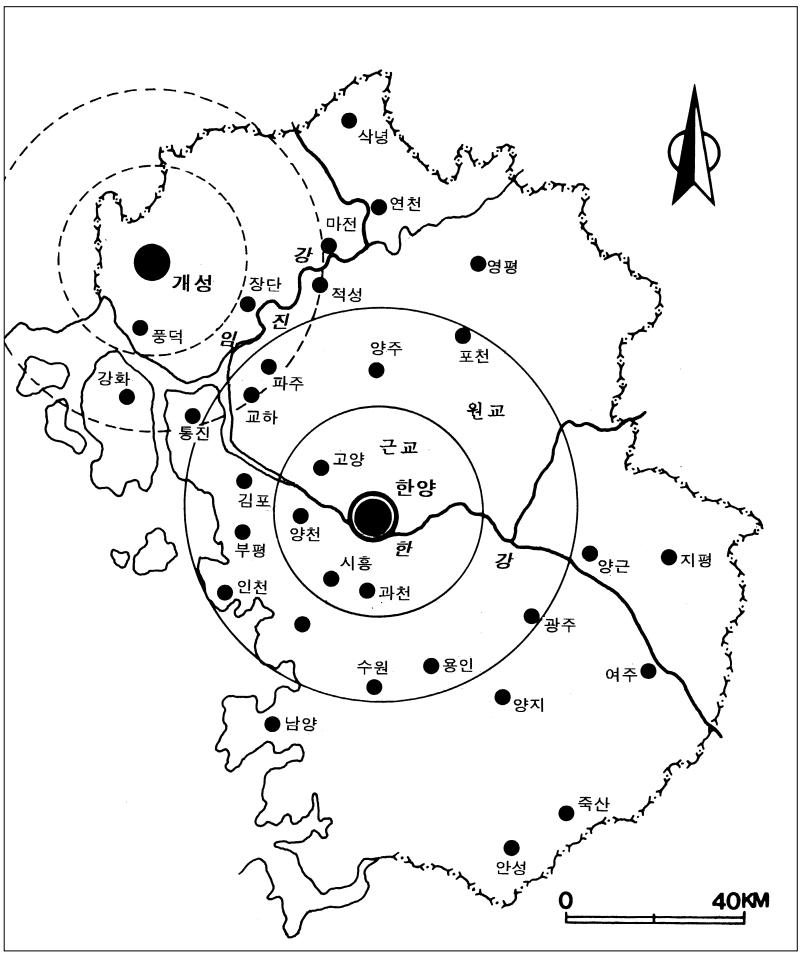
21) 동족촌은 동성부락 · 집성촌 · 동족취락 · 동족부락 · 동성마을 · 씨족촌락 등과 같은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용되는 용어가 다양한 만큼 학문분야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달리 정의를 하고 있으며, 동족호의 비율, 동족촌의 표식인 종가 · 사당 · 재실 등의 유무, 동족결합조직의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위에서 血緣이라는 공동체 의식의 연결고리로 맺어진 기초적 사회단위로서의 삶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독립된 생활의 기초공간으로서 자연촌을 단위로 응집되어 있다.

동족촌의 발생 및 발달의 주된 배경으로는 男系長子 우선의 상속제도, 朱子家禮의 보급과 禮學의 발달, 宗法的 가족제도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들은 대체로 17세기에 보편화되는 현상으로, 이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족촌은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형성되어 18 · 19세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22]

일반적으로 동족촌은 입향조가 정착하면서 바로 형성된다고 보기보다는, 입향조가 정착한 이후 개간과 점유 등을 통해 확보한 농경지를 기반으로 그 후손이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한 동족 구성원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진출이 계속되면서 기존 촌락에서 인근지역으로의 확산과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동족촌이 계속 발전하여 한 지역에서 확실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23]

임진강 유역에서 동족촌을 이루고 있는 성씨들은 크게 土姓과 移居姓氏로 구분되는데, 그 분포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성들이 오랫동안 그 세력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로부터 비슷한 지리적 거리를 지니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경우, 토성들은 조선전기에 이미 쇠퇴의 양상을 보여 동족촌의 형성이 부진하였던 반면, 移居姓氏들이 그 세력을 확장해 저명한 동족촌을 형성하였다.[24] 그러나 임진강 유역은 파주, 연천, 포천 등 이 지역에 관향을



〈그림 33〉 임진강 유역의 지리적 위치(임진강 유역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 모두의 郊범위에 해당된다.)

22) 정진영,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40~42쪽.

23) 경제적 토대는 소유 농경지와 노비 등 노동력의 증대를 통해, 사회적 지위는 중앙관계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유력 사족과의 통혼관계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최영준 외,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문화원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203쪽).

24) 최영준 외, 앞의 책, 2000, 205~209쪽. 여말 선초의 사회변화와 조선초기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토성사족으로 온존한 성씨는 용인이씨 뿐이었고, 족세를 드러냈던 대부분의 성씨는 혼인관계와 학맥에 의해 이거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둔 토성들이 상대적으로 그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였다. 고려시대 개경부근의 군현 土姓으로는 瑞原(峰城)廉氏 · 幸州奇氏 · 交河盧氏 · 심악이씨 · 파평윤씨 등이 있었는데,[25] 이들은 고려후기 정치적 지배세력이 빈번하게 교체되던 시기에 관료로서의 사회적 진출, 통혼관계와 학맥 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경지와 노동력이 주가 되었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온존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과의 통혼관계를 통해 이 지역에 정착한 移居姓氏들은 마을의 형성 초기에는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후손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혼인과 학연을 통해 주변지역의 재지사족층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이 지역 지배세력의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임진강 유역은 사대부의 주거지로 양호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사회적 · 정치적 측면에서, 국가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王都로부터 멀지 않아[26] 기회를 기다려 관료로서의 진출이나 정치적 재기를 꾀할 수 있으며, 학문과 사상,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획득에도 유리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선진문물과 청을 통한 서양의 학문이 유입되면서 이 지역에 세거지를 둔 많은 정치가, 사상가, 문학 · 예술가들은 활발한 교유활동을 통해 그를 수용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임진강 유역은 사대부들이 안분자족하는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중환과 같은 이는 "조선시대 임진강 유역의 양주, 포천 등을 포함하는 東郊와 파주, 교하 등을 포함하는 西郊에 사대부가 많이 거주하지만, 이곳의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정착한 양반들이 남부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비하여 가세가 빈곤하게 되었다"[27]고 주장하나, 이러한 인식은 다른 지방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많은 부를 축적할 만큼의 규모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임진강 유역의 사대부들도 가세를 유지하고 사족계층으로의 예를 지키기 위한 적정규모의 농경지를 임진강과 그 지류의 하곡을 따라 분포하는 충적지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조사된 자료[28]를 살펴보면, 임진강 유역을 비롯한 경기도에 분포하는 동족촌은 다른 지방의 그것에 비해 그 규모나 저명도 면에서 두드러지는 촌락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조선중기 이후 사회적 ·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왕도에 가까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부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 지역 동족촌들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임진강 유역은 고려시대 왕도인 開京과 조선시대 漢陽의 중간지점에 해당되며, 왕도의 정치 · 경제 · 문화적 세력권으로 볼 수 있는 郊지역에 속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土姓 세력과 移居姓氏들의 세력이 복합되면서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점유되기보다는 다양한 세력에 의해 주도권이 분점되

25)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98, 265~277쪽. 개경부근의 군현토성은 주로 재경관인으로서만 나타나고 在地吏族 관계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대체로 토성수에 비해 망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경기도 중 임진강 유역의 적성, 포천, 삭녕, 마전, 연천 등의 소현 혹은 속현들에 대해서는 고려시대를 통하여 사족과 이족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6) 육로를 기준으로 임진강 유역 취락의 상경로 거리와 소요시간을 분류해보면, 교하, 파주, 포천 등 100리 내외의 읍들은 1일권에 포함되었으며, 영평, 연천, 장단 등은 1일반 내지 2일권에 속하였다(최영준, 「조선시대 한양의 郊지역」,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1997, 294쪽.).

27) 『擇里志』 八道總論 京畿道. '楊州抱川加平永平爲東郊高陽積城坡州交河爲西郊 二郊 俱土薄民貧 少可居處 士大夫家貧失勢 下三南者 能保有家世 出郊者 寒儉凋殘 一二傳之後 多吏爲品官 平民矣'

28) 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篇), 朝鮮總督府, 1935.

어 왔으며, 특히 조선중기 이후 사화와 당쟁으로 인한 빈번했던 정치세력의 교체, 상업발달과 인구증가 등 사회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동족촌 형성이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대규모의 동족촌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인물배출과 확고한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요구되지만, 조선후기 정치적 · 사회적 부침 가운데 이 지역에서 顯達한 집안은 京中이나 경기도 내의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이거하였으며, 주로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던 집안들이 선영을 돌보고 본래의 경제적 · 사회적 기반을 지키는 데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임진강 유역은 대규모의 동족촌을 이루는 大姓과 名門巨族의 분포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생활양식과 경제적 · 문화적 수준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중 · 소규모의 동족집단들로 구성된 동족촌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임진강 유역의 동족촌의 분포는, 조선시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던 군 · 현의 읍취락 주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파주의 경우, 과거 파주목의 읍치였던 파주리를 중심으로 연풍천과 문산천이 관류하는 충적지와 구릉지의 경계를 따라 곳곳에 동족촌이 자리하고 있는데, 문산읍 내포리(강릉김씨), 월롱면의 능산리(강릉김씨 · 전주이씨) · 위전리(청주史씨) · 도내리(청송沈씨), 파주읍의 부곡리(진성이씨) · 봉암리(백천조씨) 등이 그 예이다. 포천의 경우에도 포천현의 읍치였던 청성산 아래의 구읍리를 중심으로, 군내면 좌의리 목욕동(연안차씨) · 유교동 평촌(밀양박씨) · 직두리(경주이씨) · 상성북리 건너말(전주이씨) · 명산리 화암동(고성이씨) · 하성북리 골말(청주楊씨) 등이 분포한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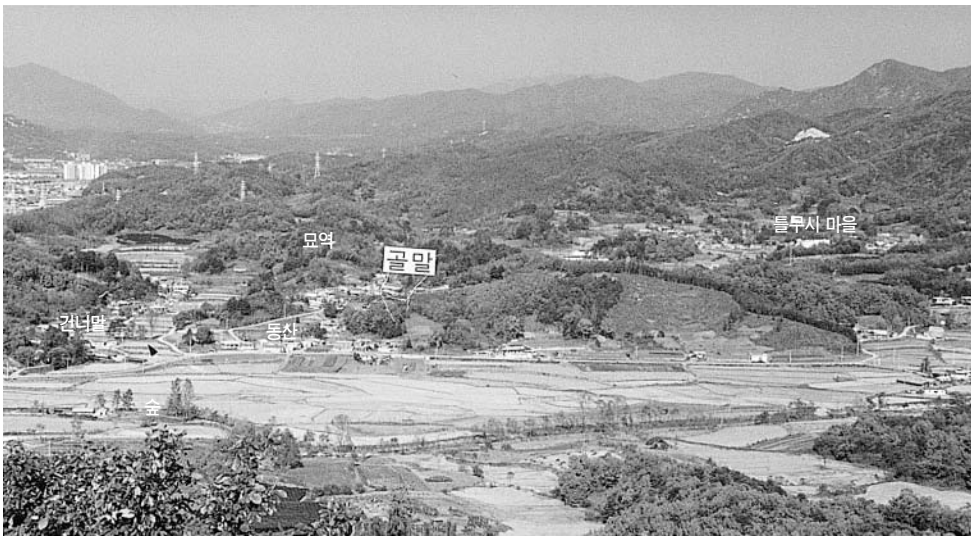
〈사진 52〉 파평 윤씨 성지 龍淵(파주의 토성인 파평 윤씨의 조상 신화와 관련된 곳이다)

임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동족촌의 입지는 소하천이나 계류 변의 골짜기 입지와 임진강과 한탄강 등 하천 본류 양안의 평지에 입지하는 촌락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비중이 후자에 비해 훨씬 크다.

첫 번째 유형의 예로는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도곡동(밀양박씨), 월롱면 위전리(청주사씨) · 도내리 안골(청송심씨), 파주읍 부곡리(진성이씨) · 봉암리(백천조씨), 파평면 눌노리(창녕성씨), 적성면 구읍리 관

29) 위에 열거한 촌락들 중 일부는 현지답사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일부는 일제시기에 발행된 지형도(1:50,000)를 바탕으로 취락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 ) 안은 열거한 촌락 내에서 분포비중이 높은 성씨이다.

골(청주경씨) · 어유지리(전주이씨) · 적암리(하동정씨) 등을 들 수 있다. 연천군에서는 왕징면 귀존리 구진이(전주이씨) · 기곡리(파평윤씨), 중면 마거리 중골(남양홍씨) 등이 있으며, 포천군에서는 군내면의 좌의리 목욕동(연안차씨) · 직두리(경주이씨) · 명산리 화암동(고성이씨) · 상성북리 건너말(전주이씨) · 하성북리 골말(청주양씨), 영중면 성동리(청풍김씨), 일동면 사직리 사당말(양천허씨) 등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능골(강릉김씨),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윗양원(공주이씨),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죽대동(경주이씨),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 양문리 삼달밭 등과 같은 마을은 골짜기가 산지나 구릉지 내부로 깊숙이 파고 들어간 곳에 촌락이 들어서 있는 유형이다.



〈사진 53〉 골짜기 입지인 골말(골말은 통과도로에서 마을 안길을 따라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마을 전면은 포천천의 작은 지류가 통과하고 있으며, 그 지류 양안으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곳들은 대개 물이 흘러 나가는 한 쪽 방향만 트여 있고 나머지 세 방향은 산지나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겨울철의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으며, 마을들이 대부분 평지와 구릉지가 만나는 완경사면에 입지하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 뿐 아니라 지하수면이 낮아서 음료수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곳은 배후산지에서 땔감이나 건축재 등을 채취할 수도 있으며, 마을 앞을 흐르는 계류 변에는 큰 강변에 비해서는 훨씬 좁지만 범람의 위험이 적으며 비옥한 沖積土로 이루어진 평지가 펼쳐져 있어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다. 특히 적절한 물의 공급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벼농사의 경우에는 임진강 변의 넓은 들보다 이러한 곳이 더 유리했다. 큰 강변은 대규모 수리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한 일제시대 이전까지 관개에 어려움이 많았던 반면, 이러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어가 쉬운 계류나 소하천을 이용해 洑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벼농사를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천군 가산면과 군내면에는 포천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계류가 형성한 평탄한 충적지 사이에 소류지나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어 있다. 더욱이 임진강과 한탄강 본류의 상당구간은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고도차를 극복하고 본류의 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지는 사대부들이 삶의 터전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풍수설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명당에도 부합된다. 일반적으로 명당의 形局은 뒤쪽의 主山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이들 산지에서 발원한 계류가 명당 좌우에서 흘러나와 명당 앞쪽의 평지를 흐르는 소하천에 합류하고 그 너머에는 다시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형국은 넓은 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며, 주로 계류나 소하천 변의 골짜기에 나타난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로,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골말과 신북면 기지리 틀무시의 예를 살펴보자. 행정구역은 달리하지만 골말과 틀무시는 이웃해 있는 마을들로, 모두 淸州楊氏의 동족촌이며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들이다. 골말은 현재도 양씨가 전체 약 50호 중 30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0] 이 둘은 모두 천주산(424.4m)에서 뻗어 내려온 지능선로 깊게 파고 들어간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이 들어서 있는 두 골짜기는 모두 남서쪽으로 열려 있어 가옥들은 대개 남서향을 취하고 있으며, 골짜기 전면으로는 비교적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 이를 관통하여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경제적인 기반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하천이나 계류 변의 골짜기 입지는 산지나 구릉지에 의해 지형적으로 분절되어 넓은 농경지의 확보가 어려워서,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촌락의 형성은 상당히 곤란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입지는 50~60 여호 내외의 가구들이 자족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적당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진강 유역의 동족촌이 대개 60호 내외의 중 · 소규모를 보이는 것에는, 이러한 입지조건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유형은 임진강과 한탄강 · 영평천 · 포천천 등 임진강의 주요 지류 변, 즉 규모가 큰 하천에 인접해 촌락이 입지하는 것으로, 임진강에 인접해 입지한 예로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단양우씨) · 오금리(밀양박씨), 문산읍 사목리,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덕수이씨), 적성면 율포리 밤개(동주최씨), 연천군 중면 중사리 수오동(안동권씨), 중면 횡산리 벌말(전의이씨), 왕징면 무등리(공주이씨), 백학면 노곡리(문화유씨) 등을 들 수 있으며, 청산면 장탄리 거저울(반남박씨)은 한탄강 변, 포천군 군내면 유교리 벌말(밀양박씨)은 포천천 변에 자리하고 있다.[31] 李重煥은 이렇게 강변에 거주하는 것을 '江居'라 하고, "農利를 겸한 곳이 드물어, 혹 지세가 낮아서 물에 잠기면 수확을 볼 수 없고 강물이 깊고 크면 관개가 마땅치 않으며, 가뭄과 큰 물이 쉽게 들어 와서"[32] 마을의 입지로는 적당치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에서 열거한 임진강과 그 지류의 하천 변에 위치한 촌락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개 마을 앞에 충적지로 이루어진 강변의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농경이 활발했을 것으로 보이나 수리시설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번갈아 입었었다.[33]

이와 같은 두 번째 유형의 촌락들은 대부분 하천 변의 넓은 충적지에 들어서기보다는 하천의 범람을 우려하여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충적지와 구릉지가 연결되는 경계부분이나 구릉지 상에 자리잡고 있다. 임진강 하구 변의 넓은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는 은계동 · 양지동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400여 년 전 서울에서 낙향한 입향조가 자리잡은 후, 단양우씨 동족촌을 이루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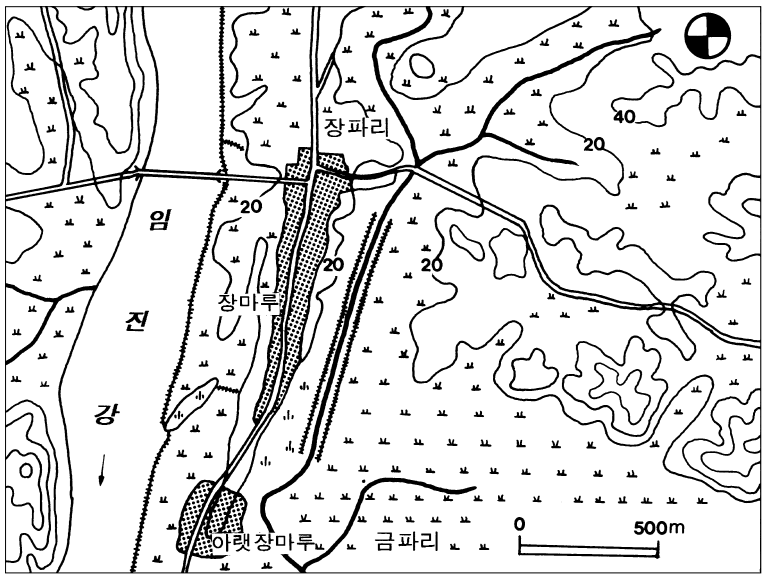
30) 제보 : 양병희(楊炳熙, 81세),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 3리.

31) 임진강 유역의 촌락을 全數調査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위 촌락들 중 일부는 답사를 통해 입지를 확인하였으며, 나머지는 1:25,000지형도(국립지리원)와 일제시기 지형도(1:50,000)를 대조해가면서 입지를 분류하였다. ( ) 안은 『朝鮮の姓』(1935) 및 『京畿道誌』(下)(1957)에 정리된 동족집단 분포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32)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條.

33) 제보: 우종렬(73세),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130 가구 정도가 거주하였는데, 그 중 단양우씨가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입지를 살펴보면, 양지동과 은계동 모두 농경지로 개간되어 있는 충적지 가운데가 아니라, 충적지와 구릉지가 만나는 경계부분을 따라 가옥들이 대상으로 들어서 있다.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탄해천을 사이에 두고 만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오금리 역시 골말 · 도곡동 · 진밭골 · 남약동 · 목동 등 5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밀양박씨 동족촌인데, 만우리와 유사한 입지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도곡동 · 골말은 강변의 충적지에서 구릉지 쪽으로 파고 들어간 얕은 골짜기에 들어서 있어 오히려 첫 번째 유형의 입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 자연제방에 입지한 장마루 · 아랫장마루

한편 하천 변에 입지한 촌락 중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아랫장마루와 장파리 장마루는 자연제방 상에 입지해 있다. 아랫장마루에는 안동김씨와 전주이씨, 장마루에는 현풍곽씨[34]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자연제방은 범람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고도가 높은 부분이므로 홍수의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택하여 촌락이 입지한 것이다. 특히 아랫장마루는 장마루보다 더 고도가 높아 침수되는 경우가 더 드물었다고 한다.[35] 한편 장마루는 자연제방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가옥들이 열을 지어 늘어선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이곳을 '장마루긴등'이라 부르고 있다.[36] 범람원 상의 자연제방과 잔구에 입지한 촌락 중에는 '등'이라는 지명이 붙은 곳이 많은데, '등'은 비탈을 의미하는 한자인 嶝에서 유래된 듯하며, 평평하며 고도가 낮은 범람원 중 주위보다 고도가 높은 지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해 왔다. 그 중 일부는 주변과의 고도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하천범람의 피해가 잦았던 지역에서는 외지인은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차이도 주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지각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등이라는 지명을 붙이고 이상적인 촌락의 입지로 일찍부터 이용해 온 것이다.[37]

---

34) 파주군, 『파주군지』(上), 1995, 635쪽.
1930년대에 조사된 내용으로는 연천군 적성면 답곡리에 현풍곽씨들이 약 40호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제보에 의하면 현풍곽씨들은 적성면 답곡리 일대에 동족촌을 이루고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개되면서 파평면 장파리와 적성면 식현리 일대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현풍곽씨는 고려 때 귀화한 후 벼슬을 한 곽경을 시조로 지금까지 28~29대를 이어왔다고 한다.

35) 제보: 이호복(60세), 파주시 파평면 금파 2리.

36) 제보: 김용식(81세), 파주시 파평면 금파 2리.

37) 정치영, 「경상남도의 촌락」, 『경상남도의 향토문화』(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427~428쪽.

조선시대 동족촌의 주도적 造營者였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유교적 이념과 자연관 · 복거관을 촌락에 실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구체적 결과물이 촌락의 입지와 정자 · 서원 · 사당 · 재실 등의 유교 문화경관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동족촌에서는 사회구조의 질서가 마을 구조에 반영되어 비교적 명확한 공간질서를 가지면서, 전통 마을의 전형을 이룬다.

촌락의 공간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농업활동이 영위되는 농경지, 家屋群으로 이루어진 주거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배후산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곧 촌락은 농경지-주거지-배후산지의 순서를 보이며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어지는 마을축을 형성한다. 마을축의 방향을 따라 농경지에서 마을내부로 진입하는 길이 열리며, 마을 내부에서는 가옥과 각종 기능을 담당하는 마을 공동시설물을 연결하는 안길이 뻗어있다. 마을축은 마을의 입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데, 절대향인 남향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연지세와 視界에 따라 양호한 일조환경이 확보될 수 있는 상대향이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마을축을 중심으로 농경지, 마을, 배후산지의 순으로 마을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진 54〉 빙곡마을의 노거수(빙곡마을에는 수령이 300~500년이 된 노거수가 수 그루 있다. 마을 가운데 위치한 느티나무는 마을회관 앞 광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집회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먼저 농경지는 동족촌의 입지에 따라 그 형태와 규모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골짜기에 입지한 마을의 농경지는 산지를 따라 흐르는 실개천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며, 농경지가 지형의 등고선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경지의 규모나 형태가 일정치 않다. 반면 임진강 등 큰 하천 변의 평탄한 충적지에 입지한 마을의 농경지는 과거 큰 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지류의 물을 이용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큰 하천의 물을 끌어올려 농업용수로 이용한다. 이러한 곳의 농경지는 근래 경지정리작업을 통해 농경지가 규격화되고, 농로도 확장되었다. 농경지는 마을 외곽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며, 마을 내에도 존재하는데, 집의 마당이나 담장 주변 혹은 주민이출로 없어진 집터에 조성되어 있는 텃밭이 그것이며, 집약적인 관리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농경지이다. 농경지소유의 분포범위는 마을의 규모나 경제력이 클수록 마을영역의 범위를 뛰어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은 농촌의 사회구조와 운영 및 토지소유질서가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동족촌에서는 문중이나 종손이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상당량 감소하게 되었다.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민속신앙적인 요소인 당산목, 돌무더기, 장승 등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 외부로부터의 잡귀나 전염병을 막는 동시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임진강 유역의 동



〈사진 55〉 오금리 도곡동(도곡동은 밀양박씨 동족촌으로 골짜기를 나누어 주는 낮은 구릉에는 밀양박씨의 묘역이 자리하며 그 아래 제사를 준비하고 묘역을 관리하는 재실을 두고 있다)

족촌에는 당산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로 앞서 언급한 밀양박씨 동족촌인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38]에는, 마을로 진입하는 동구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느티나무)가 있으며, 과거에는 나무 옆에 돌무더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빙곡[39]에는, 마을의 입구와 중앙에 독립된 노거수가 서 있다. 마을 중앙에 있는 노거수는, 이를 중심으로 작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주민들의 휴식 및 회합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골말의 경우도, 마을입구에 있는 낮은 동산에 老巨樹가 있는데, 5~6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 아래서 매년 음력 10월에 산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또한 마을 안에서 흘러나오는 도랑을 따라서 숲이 조성되어 있어 마을 외부의 큰길에서는 마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과거 마을주민들의 보호를 받던 이러한 마을숲은 허한 곳을 막아주는 풍수적인 역할,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 마을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시각적인 차단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40]

일반적으로 동족촌의 경우, 마을 내부에서는 지배적인 성씨의 종가와 주거지가 풍수나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 즉 그 지역의 가장 높고 밝은 곳이나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고, 하층민 혹은 분가한 후손들은 점차 촌락이 확대됨에 따라 외곽에 자리잡게 된다.[41] 다시 말해서 동족촌에서는 마을 입향조의 주택인 종가가 중심이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취락이 팽창하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 종가는 대체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격식과 규모가 잘 갖추어져 있어 대외적으로도 그 마을의 위세를 과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42] 임진강 유역의 동족촌들도 과거에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으나,[43] 종손이 외지로 나가거나 마을 내부의 다른 곳으로 옮긴 사례가 많아 현재로서는 그 전형적인 예를 발견하기 어려워졌다.

동족촌의 전통적인 공동공간으로는 사당 · 재실 · 정자 등이 있다. 재실은 대개 마을에서 선조들의 묘소

38) 이 마을은 박희의 3형제인 인덕 · 인입 · 인행이 선대의 묘소가 있었던 이곳으로 들어와 삶터로 삼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선대의 묘소를 지키기 위하여 이곳으로 낙향한 것으로 추정되며(제보 : 박관재, 86세,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현재 마을에는 3형제의 지파들이 자연촌을 달리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70여 호 중 80% 가량이 밀양박씨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자연마을들은 낮은 구릉지를 경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계 역할을 하는 낮은 구릉에는 선대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묘비와 재실 · 사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39)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빙곡마을에는 20여 가구 중 창녕성씨가 8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다.

40) 최영준 외, 앞의 책, 용인문화원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190쪽.

41) 이규성 · 김일진, 「한국 전통마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 1993, 17쪽.

42) 이용석, 「동족촌의 입지와 공간구조-경북 봉화군을 사례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8, 57쪽.

43) 전주이씨 동족촌인 포천군 군내면 상성북리 샘말, 전술한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 만우리 등이 모두 그러하였다.

가 모셔진 배후산지로 이어지는 계면부에 자리잡고 있는데, 임진강 유역의 동족촌들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재실이 파괴되거나, 관리 소홀로 황폐화된 경우가 많다. 일부 마을의 경우 최근 들어 재실을 새롭게 건립하기도 하였는데,[44] 탄현면 오금리 도곡동의 묘역 아래에 자리한 재실과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골말의 재실이 그 예로,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새로 조성하였다.

동족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화경관인 亭子는 마을 내부에 자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경치가 수려한 곳에 들어서 있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사대부들이 주거지에서 벌어지는 번잡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임진강 유역 곳곳에는 많은 정자들이 분포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45] 이것은 임진강과 그 지류 가운데 강과 암벽이 수려한 경치를 이루는 곳이 많고 주변지역에 사대부들의 주거지가 많이 분포했던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는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떨어진 江岸에는 伴鷗亭[46]이 있다. 반구정은 황희[47]가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낸 곳으로 그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影堂과 재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사목리 일대는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장수황씨들이 동족촌을 이루고 있다. 사목리는 1990년대 자유로가 마을 앞을 통과하면서 하나의 마을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반구정을 비롯한 재실과 영당 등이 도로에 의해 분절되었으며, 성토 후 10m 가량 높게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 마을에서는 과거와 같이 임진강 일대를 조망할 수 없게 되었다.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花石亭은 임진강을 바라볼 수 있는 강의 南岸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화석정은 吉再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덕수이씨들이 율곡리에 터전을 확고히 굳히게 됨에 따라 그들의 私的空間으로 講學과 휴식의 장이 되었다. 李珥는 관직시절 여가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고, 퇴관 후에는 율곡리에서 여생을 보냈다.[48] 화석정 역시 마을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건립되어 있다.

임진강 유역에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많은 수의 동족촌이 분포하고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49] 그러나 전통적인 동족촌의 공간구조와 주민의식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 이후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최근 동족촌은 전통적인 신분계층구조의 파괴, 동족위주의 주민구성의 해체,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와 생활양식의 근대화 등으로 동족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거나 소멸되면서 해체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44)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주민들 중 바쁘고 고달픈 도시 생활 속에 상실해 가는 자기정체성을 자신의 뿌리인 고향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기도 하고, 재력을 가진 출향인들이 고향을 위해 새로운 상징공간을 조성하거나 쇠락한 기존의 상징공간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45) 지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화석정과 반구정을 제외하고는 명칭만 알려져 있을 뿐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고 위치조차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정자가 임진강과 지류를 따라 경치가 좋고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목의 『미수기언』에는 임진강 하류로부터 李珥의 '花石亭', 成氏들의 '寒壁亭' · '滄浪亭', 林椿의 '晩翠亭', 등의 정자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許穆, 『眉叟記言』 別集 권15, 記行, 戊戌舟行記).

46) 미수 허목은 「伴鷗亭記」에서 그곳의 경치를 "정자는 파주 서쪽 15리 임진강 아래에 있고, 潮水 때마다 백구가 가 위로 모여들어 들판 모래사장 가득하다. 9월이면 기러기가 손으로 온다. 서쪽으로 바다는 20리이다."라고 묘사하였다(파주군, 『파주군지』, 1995, 55쪽).

47) 黃喜(1363~1452)는 고려말 조선초의 대표적인 정승이자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으며, 본관은 長水이다.

48) 파주군, 『파주군지』(중), 1995, 29쪽.

49) 1930년대 조사된 자료와 1950년대 중반에 발행된 『京畿道誌』(1957)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임진강 유역의 파주 · 연천 · 포천 일대에는 많은 수의 동족촌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交通村

조선후기 실학자 李重煥은 그의 저서 『擇里志』에서 촌락의 입지를 논하면서, "재화를 취하기 위해서는 땅이 비옥한 것이 제일이며, 다음은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있고 없는 것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50]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와 수로 변에 들어서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촌락이 교통촌이다. 교통촌은 교통로의 유형에 따라 크게 육상교통로 변에 입지한 촌락과 수상교통로 변에 입지한 촌락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 육상교통로 변에 입지한 교통촌으로는 驛과 院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원취락이 대표적이다. 역은 마필과 역졸을 갖추고 관리 내왕시 편의 제공, 공문서와 공물의 운송, 사신의 영송 등을 담당하였는데, 임진강 유역 驛村의 입지를 살펴보면(표 48 참조),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노변에 입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하여 그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대략 하루 보행거리인 30리 간격으로 비교적 규칙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은 관리와 일반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官營旅館이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고려시대 사찰에서 설립 · 운영하던 것을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국유화한 것이었다.[51] 이 때문에 임진강 유역에 있었던 원들도 불교적 색채가 짙은 명칭이 붙여진 것이 많았는데, 파주의 焚脩院 · 兜率院, 포천의 功德院, 장단의 藥師院 · 禪具院 · 天壽院 등이 그 좋은 예이다. 院村은 조선후기 들어서 대부분 쇠퇴하였기 때문에 그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지명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원들을 입지를 살펴보면, 역촌에 비해 그 입지가 보다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진

〈표 48〉 임진강 유역의 역과 그 위치

군 현	역 명	소 속	현 위 치
파 주	馬山驛	迎曙道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장 단	東坡驛	迎曙道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포 천	安奇驛	平丘道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영 평	梁文驛	平丘道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적 성	湘水驛	桃源道	양주군 남 면 상수리
적 성	丹棗驛	桃源道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장 단	桃源驛	桃源道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장 단	仇和驛	桃源道	연천군 왕징면 구화리
장 단	白嶺驛	桃源道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연 천	玉溪驛	桃源道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자료: 『新增東國輿地勝覽』

50)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51) 崔永俊,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1997, 307~311쪽.

강 유역의 원들은 焚脩院[52] · 石柱院[53] · 松折院[54] 등 도로 변은 물론 각각 澄波渡 · 臨津渡에 들어서 있던 東指院 · 兜率院과 같이 나루터, 惠陰院[55]과 같이 고개 아래 등에 들어서 있었다.

역촌의 구조는 驛館이 중심이 되고, 말을 사육하는 시설과 각종 수레를 보관하는 시설, 그리고 역리 · 역졸 · 역노 등 역의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가옥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역촌의 경제적 기반이 국가에서 지급한 驛屯土에 있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일반 농촌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역촌이 관리와 사신 내왕 시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安奇驛의 예에서 보듯이, "고급관리나 사신들은 주로 읍취락의 객사를 이용하였고, 사적인 여행객이나 잡스런 빈객만 역의 시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56] 그 시설은 보잘 것 없었을 것이다. 원촌의 구조는 파악이 어려우나, 여행객이 숙박하는 원집과 馬房, 그리고 약간의 일반가옥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며, 원집의 경우 일반가옥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리고 廣灘院과 같이 원촌의 경치 좋은 곳을 택해 누각을 지어놓은 경우도 있었다.[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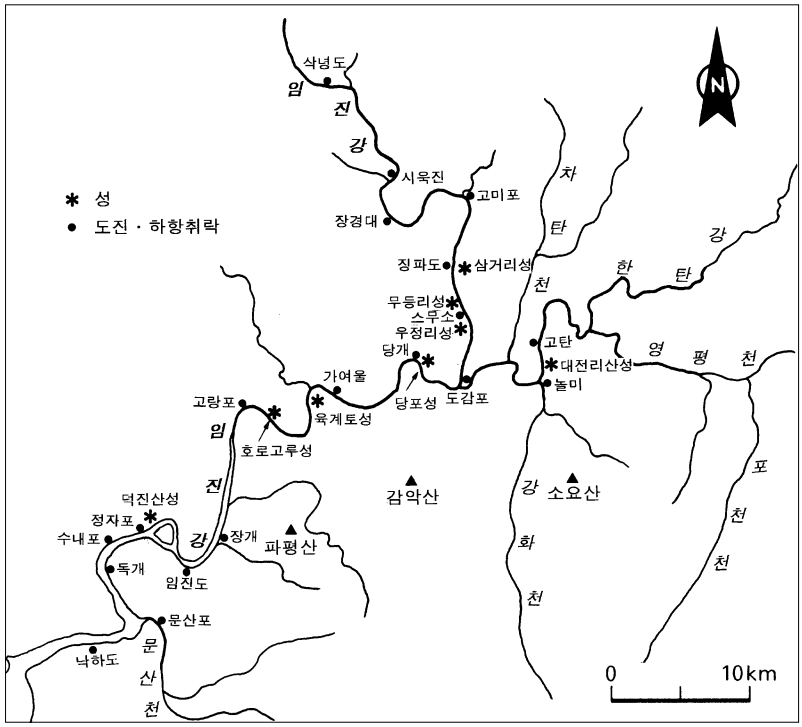
이러한 원촌이 조선후기 들어 쇠퇴하는 대신, 이의 기능을 계승한 주막촌들이 17~18세기 들어 교통로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주막촌은 여행자들에게 술과 식사,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주막이 모여 하나의 작은 마을을 이룬 것으로, 대개 '주막거리' · '술청거리' · '술막' 등의 명칭이 붙여졌으며, 임진강 유역에는 〈표 49〉와 같은 곳들이 있었다. 주막촌의 입지 역시 역원취락과 마찬가지로 모두 도로변에 입지하고 있지만, 역원취락이 관 주도로 그 입지가 결정되어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데 반해, 이들은 민간주도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곳일수록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는 점

〈표 49〉 주막촌 지명의 분포

시 · 군	읍 · 면	지 명 (리명)
파 주	광탄면	새술막(신산리)
	적성면	주막거리(무건리), 주막거리(장현리)
	법원읍	납두리주막거리(가야리), 술청모팅이(갈곡리), 주막거리(갈곡리), 술청거리(법원리)
	파주읍	우술막거리(파주리)
	파평면	주막거리(덕천리)
포 천	신북면	주막거리(만세교리)
연 천	왕징면	주막거리(고잔하리), 주막거리(기곡리), 술청거리(무등리)
	전곡읍	주막거리(눌목리)

자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권, 보진재, 1986.

52) 파주목 소속이었고, 현재의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있었다.
53) 장단도호부 소속으로, 현재의 연천군 백학면 석주원리에 있었다.
54) 연천현 소속으로 현재의 연천군 연천읍 상리에 있었다. 『世宗實錄』 권25, 세종 6년 9월 경자조 · 『世宗實錄』 권27, 세종 7년 3월 경진조 · 『世宗實錄』 권61, 세종 15년 9월 정미조 · 『世宗實錄』 권91, 세종 22년 10월 신미조 등 『世宗實錄』에는 世宗이 연천 일대에서 사냥을 하고 송절원에서 유숙했다는 기사가 13회 등장한다.
55) 혜음령 아래이며, 현재의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었다.
5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포천현, 역원조.
5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파주목, 역원조.



〈그림 35〉 임진강 유역의 도진 · 하항취락과 성의 분포

에서 차이가 있다. 주막촌 역시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나, 역원취락에 비해 역사가 짧으므로 매우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 채의 주막들이 길을 따라 한쪽 또는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街村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임진강과 그의 지류인 한탄강은 예로부터 내륙수로로서의 이용이 활발하였고, 그 결과 배가 오르내리는 강변 곳곳에는 배가 기항하여 물자를 싣고 내리는 河港聚落이 발달하였으며, 또한 도로가 이들 하천과 만나는 곳, 즉 도하지점에는 나룻배가 다니는 나루터가 있었고 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渡津聚落이 형성되었다. 실제로는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까닭은 입지면에서 육로를 연결하는 結節點에 들어선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하항취락 대부분이 도하지점에 위치해 나루터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었으며, 도진취락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상선이 기항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하항 및 도진취락으로는, 임진강 변의 洛河渡(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 汶山浦(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 猪浦津(독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水川浦(수내포: 파주시 군내면 백련리) · 亭子浦(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 臨津渡(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 長浦(장개: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 高浪浦(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 戌灘浦(가여울: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 堂浦(당개: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 楡淵津(스무소: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 澄波渡(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 古美浦(연천군 중면 삼곶리) · 長景臺(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 時郁津(연천군 왕징면 고장리) · 朔寧渡(연천군 중면 삭녕리) 등[58]과,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都監浦(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한탄강 변의 高灘(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 훨味(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등을 들 수 있다. 일제시대에 간행된 자료에 의하면,[59] 伊川郡 安陜面에서 하구에 이르는 임진강 본류 구간에 주요 寄港地가 25개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들 외에도 여러 곳의 하항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낙하도 · 임진도 · 징파도 등은 『高麗史』와 『世宗實錄地理志』에도 언급

58) 임진강 하류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순서대로 열거하였다.
59) 『朝鮮交通及運輸』, 朝鮮事情社, 1925, 163쪽.

되어 있는 중요한 나루터로, 임진도는 "人馬의 통행이 폭주하는 關防 상의 요충으로"[60] 조선 초에는 官船과 이를 관장하는 관리인 渡丞을 배치하였으며, 임진왜란 후에는 譏察捕校를 배치하여 외국의 첩자, 범죄자 등을 검색하는 한편 나루터의 질서유지에도 힘썼다.[61] 또한 징파도는 조선후기 나루터일 뿐 아니라 상선이 모여들어 물자를 교류하던 중요한 하항이기도 하였다.[62]

임진강 유역은 다른 하천에 비하여 도진 및 하항취락이 입지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한탄강의 골짜기를 따라서는 현무암의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한탄강과의 합류점 하류의 임진강 골짜기로도 연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무암은 철원지방에서 한탄강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렸는데, 한탄강과 임진강은 이 용암대지에 다시 10여 m 깊이의 峽谷을 파 놓았다.[63] 주민들 사이에는 '百里長城'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협곡의 수직절벽[64]은 임진강과 한탄강에 배가 접안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도하지점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진 및 하항취락은 대개 다른 곳보다 침식이 많이 진행되어 하곡이 넓고 포인트 바(point-bar: 모래 및 자갈 등이 퇴적되는 부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나, 합류하는 지류에 의해 개석되어 강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공간이 넉넉한 부분에 입지하였다. 이러한 도진 및 하항 취락은 導船場과 배를 묶어두는 繫船場이 그 구조상 주축을 이루었다. 문산포 · 수내포 · 장개 · 고랑포 등 주요 취락의 예를 통해 그 구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변에는 나무를 심거나 돌기둥을 설치하여 배를 묶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가 도착하면 널판을 연결해 사람과 물자가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65] 문산포의 경우, 장날에는 50~60여 척의 배가 정박하였고, 수내포와 장개는 각각 30여 척과 20여 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었는데, 서해안에서 소금 · 조기 · 새우젓 등 해산물을 싣고 와서 내리고, 쌀 · 콩 등 농산물과 땔감 등 임산물을 주로 서울 · 인천 등지로 싣고 나갔다.[66] 그리고 강변의 선착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각지에서 모여드는 상인들과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주막들이 열을 지어 있었고, 상품의 중개 · 매매 · 보관을 담당하는 客主와 旅閣 등이 존재하였다. 문산포에는 일제시대까지도 객주가 10 여 집 있었으며 객주집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딸려있는 것도 있었다. 그 뒤쪽의 언덕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일반가옥들이 밀집하여 있었는데, 여기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상당수가 상업과 어업 그리고 하항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던 이들이었으며, 전성기의 문산포 · 장개 등은 각각 200여 호와 150여 호에 달하는 규모였다.[67] 이와 같이 도진 및 하항취락이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자, 배가 들어올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른바 '갯벌장'이 열리기도 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오면 이것이 발전하여 문산포 · 고랑포 · 유연진 · 시

60) 『世宗實錄地理志』, 임진현.

61) 崔永俊, 『嶺南大路-韓國 古道路의 歷史地理的 硏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204쪽.

62)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條.
『林園經濟志』, 相宅志 卷2, 八域名基, 名基條開條.

63) 權赫在, 『韓國地理-地方編』, 1995, 法文社, 79쪽.

64) 『世宗實錄地理志』 장단현조에는, "靑石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석벽이 수 십 리에 달해 마치 그림과 같아 고려 太祖가 와서 놀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65) 제보: 민복현(79세), 파주시 군내면 백련리.

66) 임진강과 한강을 오가는 배는 두 강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한 '三濤瀑'에서 물때를 기다렸다가 밀물을 이용하여 임진강이나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서해로 나가는 배는 썰물을 이용하였다(제보: 이인효, 73세,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67) 제보: 송한성(63세),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욱진 등에 정기시장이 열리기도 하였다.[68]

한편 임진강 유역의 도진 및 하항취락의 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종교시설과 관방시설이다. 먼저 종교시설로는 도진 및 하항취락 인근의 언덕이나 산에는 뱃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뱃길의 무사를 기원하는 제사를 모시는 당집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許穆의 『眉叟記言』에는 당개나루 옆 언덕에 叢祠가 있다는 기록이 나오며,[69] 정자포나루 동북쪽 언덕에 있던 '德津堂', 고랑포에 있던 '府君堂'[70]도 좋은 예이다. 장개나루의 경우에는 강가의 노거수에 뱃사람들이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진강과 한탄강은 도하지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만 잘 방어하면 적을 침략을 쉽게 격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루터 부근에 城을 축조한 예가 많은데, 정자포나루 옆의 德津山城, 고랑포와 두지나루 사이의 瓠蘆高壘城址, 가여울나루 옆의 六溪土城, 당개나루 옆의 堂浦城址, 스무소나루 양옆의 無等里 城址와 牛井里 城址, 징파도 앞의 三巨里 城址, 뱃나드리 옆의 大田里 山城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도하하는 적을 저지하는 기능 외에 예로부터 중요한 交通路로서 이용된 임진강과 한탄강의 水路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71] 또한 임진도도 1755년(영조 31년) 臨津鎭이 설치되어, 성을 쌓고 문루를 만드는 등 관방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72]

이러한 도진 및 하항촌락 중 일부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여, 문산포는 1904년 파주군의 군청소재지로 발전하였고, 장개 · 고랑포도 일제시대에 각각 파주군 파평면과 장단군 장남면의 면소재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면사무소 · 우체국 · 헌병파견소 등 각종 행정기관은 물론 학교 · 양조장 · 도살장 등이 들어서고, 일반가옥들도 밀집하여 번화한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휴전이후 임진강의 선박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하항취락은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일부 도진취락에는 다리가 건설되어 나루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5. 결 론

지금까지 임진강 유역의 촌락을 읍취락 · 동족촌 · 교통촌으로 나누어 그 입지와 경관 · 구조 그리고 변화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그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읍취락은 풍수지리설 · 교통조건 · 방어상 여건 등이 그 입지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그 공간구조는 풍수지리설과 주례 고공기 등의 원칙에 따라서 건설한 수도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였기 때문에 모든 읍취락이 거의 유사하였다. 이들 읍취락은 대개 20세기 초에 행정기능을 상실하여 구읍취락이 되었으며, 그후 대부분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

68) 徐有榘, 『林園經濟志』 倪圭志 권4, 貨殖, 八域場市條.
69) 許穆, 『眉叟記言』 別集 권15, 記行, 戊戌舟行記.
70) 일제시대까지 존속했다고 한다(제보: 최종수, 62세, 파주시 군내면 백련리).
71) 최영준, 『국토와 민족생활사』, 1997, 한길사, 131쪽.
72) 파주시 · 한양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99, 155~156쪽.

사대부의 주거지로서 양호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임진강 유역에는 일찍부터 많은 동족촌이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서 동족촌을 이루고 있는 성씨들은 크게 土姓과 移居姓氏로 구분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토성들이 오랫동안 그 세력을 유지해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생활양식과 경제적 · 문화적 수준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중 · 소규모의 동족집단들로 구성된 동족촌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된다. 동족촌의 입지는 소하천이나 계류 변의 골짜기 입지와 임진강과 한탄강 등 하천 본류 양안의 평지 입지로 대별되며, 전자의 비중이 후자에 비해 훨씬 크다. 한편 공간구조에 있어서는 한국전쟁과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구조가 파괴되고 훼손되어 그 원형을 복원하기 힘든 상태이다.

임진강 유역의 교통촌으로는 역원취락과 주막촌, 그리고 하항 및 도진취락이 존재하였다. 이 중 역원취락과 주막촌은 대부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대로 변에 들어서 유사한 입지패턴을 지니고 있었으나, 역원취락은 관 주도로 건설되어 비교적 규칙적인 분포를 보였던 반면, 주막촌은 민간 주도로 건설되어 교통량에 비례해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원촌과 역촌은 각각 역관과 원집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주막촌은 길을 따라 주막이 길게 늘어서 있는 구조였다. 한편 임진강 유역의 하항 및 도진취락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특수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입지가 제한되었다. 문산포 · 고랑포 · 징파도 등 몇몇 촌락들은 나루터로서 뿐만 아니라 하항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시장을 갖춘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임진강이 수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황폐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임진강 유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을 받아 다른 지방의 촌락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촌락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원형이 파괴되어 그 모습을 복원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戰禍를 피한 촌락의 경우라도 인구이동과 주민구성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촌락의 기능이 바뀌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지형의 인위적 개변과 거주와 생업에 각종 제한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 일대의 농촌이 공업화 · 도시화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급속히 해체되어 가는 한편,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많지 않으며 도시화의 영향도 적은 편이다.

제4절 임진강 유역의 **集姓村***

□ **조사목적** : 임진강 유역의 전통문화와 사회생활의 諸樣相을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집성촌의 구조형태와 변화과정의 추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조사대상** : 임진강유역에 걸쳐 있는 26개의 집성촌

□ **조사대상 선정기준** : 비교적 入鄕 시기가 빠르고 세대수가 많은 집성 마을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대담 조사

□ **조사내용**

- 집성촌의 世居 범위
- 집성촌의 형성시기(입향시기)와 규모(세대수)
- 집성촌의 틀을 알아보기 위한 班常관계와 姻戚關係 및 인접 마을과의 연계성
- 집성촌의 생활양식과 활동형태를 추적할 수 있는 공동모임이나 행사와 時享관계
- 집성촌의 생활속에서 생성된 문화재자료나 관련 전설
- 집성촌이 와해되어 가는 시기나 현존상태를 고찰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조사

---

* 최근성(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관)
변재웅(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큐레이터학과 재학)

1. 抱川 地域

1) 新北面 加采里 漢陽趙氏

세거 범위는 가채리와 萬世橋里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540년 정도로 추측되는데,[1] 일설에 의하면 조선 仁祖 때 左參贊을 지낸 趙絅[2]이 蓬萊 楊士彦에게 풍수지리상 좋은 곳을 묻자 이곳이 좋다고 해서 묘소를 옮기고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3] 세대수는 번성할 때에 30여 호였으나[4] 현재는 10여 호(40여 명) 정도 된다.

반상관계는 1950년 전까지 咸氏와 主從關係를 맺었으며, 全州李氏와도 소작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姻戚 관계로는 安東金氏, 全州李氏, 東萊鄭氏, 坡平尹氏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정치적으로 南人系列에 속하여 廣州李氏와 친분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인접 마을로는 가채 1리에 全州李氏, 慶州崔氏의 집성촌이 있는데, 유대를 가지고 있다.

時祭는 음력 10월 6일에 龍淵書院(新北面 新坪里)에 配享된 조경을 비롯하여 14대조에서 5대조까지를 祭享하는데, 참여 인원은 30여명 정도라고 한다. 공동행사로는 派宗會(1월 총회)의 모임이 있다. 문화재 자료로는 선현 묘역이 있는데, 齋室, 祠堂과 조경의 神道碑가 있다.

제보자 : 趙秉日(남, 농업, 71세)

2) 郡內面 上城北里 全州李氏

세거 범위는 상성북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410여 년 전으로[5] 임진왜란 때 14대조가 이곳으로 피난하여 세대를 퍼뜨렸다고 한다. 세대수는 50여호(200여명)가[6] 된다.

반상관계는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으며, 타 성씨와 소작관계도 있었다고 한다. 인척관계로는 達城徐氏, 文化柳氏, 慶州崔氏, 豊川任氏 등과 주로 혼인을 하고 있다.

시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 15대조에서부터 7대조까지를 모시고 益安大君에게도 時享하는데, 참석인원은 60여명 정도라고 한다. 공동모임으로는 門會가 있어 양력 12월 중순에 열린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

1) 『포천군지』 하, 592쪽 참조.

2) 趙絅(1586(선조19)~1669(현종10년)) : 仁祖때의 文臣이며 字는 日章, 號는 龍洲, 柱峯, 龜翁이다. 折衝將軍 壽崑의 증손, 工曹佐郎 玹의 손, 奉事 翼男의 자, 柳愷의 외손, 이조판서 金瑬의 서, 尹根壽의 門人이며, 諡號는 文簡이다.

3) 그러나 조경이 양사언이 죽은 후에 태어났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설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양사언이 인접 지역인 신북면 기지리에서 태어났던 점, 그리고 양사언의 墓碣銘을 조경이 지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경과 양사언과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한양조씨가 이 곳에 자리잡게되는 사회적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4) 1934년에는 세대수가 22개였으나 1953년에는 33개로 늘어났다(『포천군지』 하, 589~592쪽 참조).

5) 『포천군지』 하, 591쪽 참조.

6) 1934년의 세대수는 66호였다가 1953년에는 89호로 증가하였다. 『포천군지』 하, 589~591쪽.

묘역과 재실이 있으며, 敎旨와 요요(가마의 일종)가 있다. 그리고 李蓂의 효자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전설이 있다.[7] 이 집성촌은 6 · 25동란 때 동족들의 많은 사망으로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 李元喜(남, 농업, 81세)

3) 郡內面 下城北里 金海金氏

세거 범위는 하성북 4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370년 전으로[8] 임진왜란 때에 이곳에 피난 와서 세거를 하였다고 한다.[9] 세대수는 65호(250여명) 정도[10]이다.

반상관계는 알 수 없고, 인척 관계로는 全州李氏, 密陽朴氏, 禮山宋氏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시제는 음력 10월 7일로 15대조에서부터 지내는데, 참여 인원은 30여명 정도라고 한다. 공동모임으로는 宗中會가 연말에 있다. 인접 마을은 아래로 골말(하성북 3리), 위로 틀무시, 앞으로 상성북리(全州李氏 집성촌)인데,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과 근자에 지은 재실이 있다.

제보자 : 金榮浩(남, 목장주, 66세)

4) 郡內面 下城北里 淸州楊氏

세거 범위는 하성북 3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300여 년 전으로 원래는 新北面 機池里에 楊治[11]가 낙향하여 世居를 하였다가 약 200여 년 후에 그 후예인 安邊府使 楊照洙가 이곳 골말(谷村)에 來住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12] 세대수는 20호(60여명)가[13] 된다.

반상관계는 알 수 없으며, 인척 관계로는 東萊鄭氏, 全州李氏, 慶州李氏(鰲城大君派)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시제는 음력 10월 5일에서 8일까지 지내는데, 17대조에서 7대조까지 모신다. 공동 모임으로는 종친회가 서울 마포에 있어 문중 일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양치의 묘소를 비롯한 선현 묘역이 있다.

이곳은 6 · 25때에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특히 9 · 28 서울수복 때에 인민군에게 負役 행위를 했다고 애매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제보자 : 楊文圭(남, 농업, 69세)

---

7) 전설의 내용은 **李蓂**이 부친상을 당하자 묘에 **廬幕**을 짓고 3년 동안 **朝夕**으로 **哭**을 하며, 음식은 한끼에 묽은 죽 한 그릇만 먹고 지냈다. 어느 날 흰 까치가 둥지를 틀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효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말이 **朝廷**에 전해지자 나라에서 **旌閭**를 내렸다는 것이다. 『포천군지 하』, 735쪽 참조.

8) 『포천군지』 하, 591쪽 참조.

9) 입향 시기가 370년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 때 피난으로 인한 입향 동기의 설은 맞지 않는다. 이는 임진란이 입향 시기보다 약 40년 정도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향 시기와 동기가 어느 것이 옳은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10) 1934년에 세대수가 21호였는데, 1953년에는 27세대로 증가하였다. 『포천군지』 하, 589~591쪽 참조.

11) **楊治**〈1400(정종2)~1483(성종14)〉 : **武臣 · 忠臣**. 호는 **退隱**. **都僉議侍中 起**의 증손, **贊成事 之壽**의 손, **景安公 天震**의 자. 묘가 신북면 기지리에 있으며, 포천의 **忠穆壇**에 **配享**되었다.

12) 『포천군지』 하, 588쪽.

13) 1953년의 세대수는 34호였고 1996년에는 15호(85인)였다. 『포천군지』 하, 588 및 591쪽 참조.

5) 郡內面 稷頭里 平康蔡氏

세거 범위는 직두리(피머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3대조가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낙향하였다고 하는데, 仁祖 때에 司憲府 持平을 지낸 蔡聖龜를 제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략 350여 년 전으로 추측된다. 세대수는 20호(60여명) 정도가 된다.

반상관계는 광복전까지 있었는데, 金海金氏가 常人이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인척 관계로는 全州李氏, 固城李氏, 漢陽趙氏, 東萊鄭氏, 延安李氏, 安東權氏, 光山金氏, 載寧李氏, 潘南朴氏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친인척이나 各姓간의 소작관계도 존재하였다고 한다.

시제는 음력 10월 1일과 11일에 지내는데, 각각 19대조에서 13대조, 12대조에서 7대조까지를 모신다. 참여 인원은 약 60여명 정도가 된다. 공동 모임으로는 종친회와 전국 蔡氏大宗會(양력 5월 둘째 월요일)가 있다. 인접 마을로는 서쪽 鳴山里에 固城李氏, 북쪽 직두 3리에 慶州李氏, 金海金氏 등의 집성촌이 있는데,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과 재실이 있으며 敎旨類가 있다.

이 지역은 李承晩 정권 때에 소작인들에게 농지를 분배하여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도시 이주로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제보자 : 蔡熙榮(남, 농업, 69세)

6) 抱川邑 東橋里 全州李氏

세거 범위는 동교 1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약 380여 년 전인데,[14] 楊州郡 廣積面 우고리에서 이주하였다고 한다. 400여 년 전에 이곳 동교리 木洞(나무골)에 水原白氏가 世居하고 있었는데, 仁祖 때 潭陽府使를 지낸 醉翁堂 李春祺가 水原白氏와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이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세대수는 30호(120여명)가 된다.[15]

소작관계는 다른 各姓이 소작농이었다고 하며, 인척 관계로는 水原白氏, 南陽洪氏, 慶州李氏, 文化柳氏, 淸風金氏 등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나 한말에는 安東權氏와 결혼관계를 자주 맺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老論系列에 속하였는데 후에 南人系列로 갈라진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시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서 한달간 5대조 이상을 모시는데, 참여 인원은 15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인접 마을로는 북쪽의 해룡산 기슭에 수원백씨, 동쪽의 雪雲里에 達城徐氏 등의 집성촌이 있는데,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이 있다. 재실이 있었는데 6 · 25 동란 때 소실되었다.

이승만 정권 때 토지분배로 많은 사람이 토지를 갖게 되자 소작관계가 점차 무너졌다고 한다.

제보자 : 李秉贊(남, 서예학원원장, 46세)

---

14) 『포천군지』 하, 591쪽.

15) 1953년의 세대수는 23호였다(『포천군지』 하, 591쪽).

7) 抱川邑 魚龍里 寶城吳氏

세거 범위는 어룡 1리(어린굴)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약 380년 전으로[16] 12대조인 翰林公이 泰陵 望憂里 신내동 外家에서 살았는데, 그 손자가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세대수는 10호(50여명)가 된다.[17]

반상관계는 광복전까지 계속 존재하였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南人에 속하였으며, 인척관계로는 慶州金氏, 漢陽趙氏, 固城李氏, 坡平尹氏, 淸松沈氏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시제는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에 12대조에서 5대조까지를 모시는데, 참여 인원은 100여명 정도 된다고 한다. 공동모임으로는 종친회가 매년 1월 둘째 일요일에 개회되는데, 문중의 대소사를 맡아보며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한다.

인접마을과의 관계는 특별히 없다고 한다. 문화재자료로는 효자문 2개, 열녀문 2개, 재실, 사당 등이 있으며, 전설로는 龜城都護府使를 지내고 효자 旌閭를 하사 받은 吳伯周의 이야기가 있다.[18]

제보자 : 吳海植(남, 농업, 65세)

2. 漣川 地域

1) 漣川邑 玄加里 南陽洪氏

세거 범위는 현가리(가무사리)와 상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17대조인 李仁恕의 묘소가 있음을 보아 대략 350여 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대수는 6 · 25이전에 30여 호가 되었는데, 1 · 4 후퇴 때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2호가 있으며, 수복 후 新望里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고향에 돌아오면서, 새로이 上 1里에 6호(30여명)가 거주하고 있다.

반상관계는 일제강점기까지 존속되었는데, 당시 종손 顯辛씨가 일본에 잠업공부로 유학을 갔다 온 후 폐지시켰다고 한다. 인척 관계로는 谷城任氏, 晉州姜氏, 淸州韓氏, 坡平尹氏, 全州李氏, 忠州池氏, 禮山宋氏, 原州元氏 등과 혼인을 맺었으나 東萊鄭氏와 陽川許氏와는 친교가 있어도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한다.

시제는 음력 10월 1일에 호원동(장수원)에서 지내고,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에는 가무사리에서 13대조부터 6대조까지 제향한다. 참여인원은 20명에서 60명 정도이다. 공동행사로는 양력 1월 2일과 8월 일요일에 2번 모이는데, 문중의 대소사를 처리한다. 특히 8월 모임에는 가족단위(약 100여명)로 참여하여 서로를 알도록 하며, 경사나 상혼이 있을 때에는 쌀 2가마 정도(시세로)의 위로금이나, 경조사비를 준다고 한다.

인접 마을로는 북쪽 左贊洞 원모루(院隅)에 陽川許氏, 서쪽 밤골에 全州李氏, 파평윤씨, 남쪽 도담골에

16) 『포천군지』 하, 591쪽.

17) 1953년에는 세대수가 23호였다(『포천군지』 하, 591쪽).

18) 전설은 오백주의 효도와 祝石嶺과의 관계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포천군지』 하, 1237쪽 참조.

淸風金氏, 동쪽 車灘川 건너 玉山里 五味에 坡平尹氏 등의 집성촌이 있는데, 유대를 맺고 있다. 문화재자료는 조선 후기 학자였던 梅山 洪直弼 등의 선현 묘역이 있다. 효자문은 1952년 봄에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제보자 : 洪基秀(남, 농업, 65세)

2) 漣川邑 玄加里 晉州姜氏

세거 범위는 中面 合水里, 연천읍 현가리 가재울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400년전으로 추측되는데, 그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대수는 9호(30여명)이다.

반상관계는 전해지지 않으며, 인척 관계로는 金海金氏, 東萊鄭氏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시제는 음력 10월 두번째 공휴일에 15대조에서 6대조까지 모시는데, 참여 인원수는 10여명이다. 공동 행사나 모임은 특별히 없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이 있다.

6 · 25동란 전까지는 이곳에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제보자 : 姜聲燁(남, 농업, 67세)

3) 漣川邑 邑內里 淸風金氏

세거 범위는 邑內里, 玄加里, 車灘里, 玉溪里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약 300여 년 전 肅宗 때인데, 睡窩 金堉이 漣川縣監으로 이곳에 와서 세거를 이루었다.[19] 세대수는 20여호(60여명)가 된다.

반상관계는 알 수 없으며, 여러 姓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정치적으로는 西人과 老論系列과 밀접하였다고 한다. 시제는 음력 10월 둘째주 일요일에 18대조에서부터 13대조까지 모시는데, 참여 인원수는 약 80여명 정도가 된다. 공동행사는 종친회에서 문중의 대소사를 행한다.

인접 마을로는 북쪽 가무사리에 南陽洪氏, 현가리 도담골에 驪興閔氏, 서쪽 읍내리에 密陽朴氏, 남쪽 차탄리 해골(鶴洞)에 谷城任氏, 玉山里 五味에 坡平尹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재실이 차탄리 산 1번지에 있으며 사당은 6 · 25때에 소실되었다. 전설로는 김잠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20]

제보자 : 金裕重(남, 농업, 61세)

4) 漣川邑 車灘里 谷城任氏

세거 범위는 연천읍 차탄리(해골), 東幕里 부물현(復武夷洞)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약 480년전이다. 조선 中宗(1519)때 己卯士禍의 화를 피하기 위해 晩節堂 任繼重[21]이 연천읍 동막리(구 연천현 무이촌)에 은

19) 경기도, 『경기인물지』 상, 경기출판사, 1991, 300쪽.

20) 전설은 김잠이 연천현감 재직시 虎患을 없앴다는 내용이다. 『경기인물지』 상, 300쪽.

21) 임계중(1481(성종12)~1544(중종39)) : 자는 子述, 幹甫의 손자이고 孝源의 아들, 金孟殷의 외손이고 池達河 · 鄭璋의 사위, 金安國 · 金正國과 교류. 중종 때 병조와 호조의 佐郞 및 홍문관 교리를 지냈다. 『경기인물지』 상, 1516쪽.

거하며 후학교육을 위해 朱子書院을[22] 세움으로써 세거하게 되었다.[23] 세대수는 해골에 1호, 동막리에 1호가 있고, 연천읍에 거의 100여 호가 있다.

반상관계는 과거에 존재하다가 광복후에 없어졌으며, 인척 관계로는 淸風金氏, 全州李氏, 晉主姜氏, 坡平尹氏, 禮安李氏(차탄리), 南陽洪氏, 牛峯金氏(대광리)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老論에 속하여 이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시제는 음력 10월 2일에 열리며 첫날은 시조에서부터 司成公(19대~13대조)까지를, 둘째날은 12대에서 5대조까지를 모신다. 공동행사로는 花樹會(종친회)가 있어 수시로 모여 문중 일을 행하며 친목을 다진다.

인접 마을로는 앞쪽 앞시울(전곡동)에 禮安李氏의 집성촌이 있고, 아랫쪽은 부처마을 또는 맨지미라고 하여 하층민이 살았다고 한다. 문화재자료로는 연천읍 동막리에 臨漳書院이 있다.

본래 임씨는 동막리에 많이 모여 살았는데, 한국전쟁으로 거의 과반수가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그 후에는 대부분 연천읍에서 살고 있다.

제보자 : 任尙賢(남, 농업, 72세)

5) 嵋山面 蛾嵋里 開城王氏

세거 범위는 아미 2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400년 전인데, 조선 宣祖 38년(1605)에 崇義殿을 수축하자[24] 13대조인 王薰이 崇義殿監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세거가 이루어졌다. 세대수는 일제시대에 120여 호였는데, 지금은 50여호(150여명)가 있다.

반상관계나 소작관계가 있었는데, 各姓(金氏, 李氏, 皮氏, 尹氏, 吳氏 등)이 수시로 와서 世間을 얻어 일하고 농사짓는 일을 도왔다. 인척 관계는 여러 姓과 맺었으며 특히 가까이에 있는 海州鄭氏와 주로 혼인을 맺었다고 한다. 고려왕의 후예로서 대우를 받았다.

시제는 음력 10월 7일에 16대조에서 14대조까지를 모시고, 10일에는 13대조에서 10대조까지를 모시며 11일에는 9대조에서 6대조까지를 모신다. 참여 인원수는 약 50여 명이다. 인접한 해주정씨는 같이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현재 7~8호가 살고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사적 제223호로 지정된 崇義殿이 있는데, 6·25동란 때에 불에 타 다시 복원되었다.

제보자 : 王永昌(남, 농업, 80세)

6) 嵋山面 栢石里 慶州鄭氏

세거 범위는 백석리(새능, 독쟁이), 廣洞里, 石墻里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500년전이다. 이곳의 옛

22) 주자서원은 현 臨漳書院인데, 조선 肅宗 39년(1713)에 賜額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연천군지편찬위원회, 『연천군지』 하, 2000, 330쪽 참조.
23) 세거 시기와 배경에 관해서는, 『연천군지』 하, 331 및 332쪽 참조.
24) 『연천군지』 상, 602쪽 참조.

이름은 새능인데, 조선 開國功臣 左贊成 鷄林君 鄭熙啓의 증손 石城縣監 守德(1436~1489)이 廣洞里에 안장되면서 후손이 살기 시작하다가 黃山道 察訪 擢(1541~1596)이 이곳에 宗家를 짓고 사당을 건립한 이후부터 世族化 되었다. 세대수는 6 · 25동란 이전에 새능에 100호, 독쟁이에 100호 등 200여호가 살았는데, 현재는 30여(90여명)호 이다.

반상 관계는 오래 전부터 존재였는데, 근자에까지 金氏, 池氏 등이 묘소와 時祭 등을 돌봐 주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나이 드신 분이 집안 일을 돌봐주고 있다. 인척관계는 各姓과 맺었으며 정치적으로는 南人에 해당된다고 한다.

시제는 과거에는 음력 10월 21일에서 24일까지 지냈는데, 지금은 간소화되어 음력 10월 21과 22일 양일간 지낸다. 참여 인원은 약 15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공동행사로는 良景公派 종친회가 있어 문중 일을 맡아보며,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회비를 주고, 대학입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문화재자료로는 임진왜란 때 釜山鎭僉節制使를 지낸 鄭撥 장군의 묘소(경기도 기념물 제51호)를 비롯한 선현 묘역이 있고 한국전쟁 때 멸실되어 근자에 재건된 사당인 永慕祠가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흩어졌다가 그 이후에 흩어진 일족이 점차 이곳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

제보자 : 鄭圭元(남, 농업, 36)

3. 坡州 地域

1) 坡州邑 白石里 南平文氏

세거 범위는 백석 1리(우건동)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1대조 文希元이 전라도 寶城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세대수는 30여 호(100여명)이다.[25]

반상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척 관계로는 全州李氏, 廣州李氏, 光山金氏, 長水黃氏, 淸松金氏, 金海金氏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水原白氏, 寧越辛氏와 가깝게 지냈다. 시제는 과거에 음력 10월 보름에 11대조에서부터 8대조까지를 모시고 음력 10월 16일에 7대조에서 5대조까지를 모셨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양력 11월 셋째 일요일 하루 시제를 지낸다. 참여인원은 30여 명이다. 공동모임으로는 純質公派 牛健洞 종친회가 있는데, 시제, 벌초 때에 열린다.

인접마을로는 북으로 釜谷 1里 아랫가마을에 水原白氏, 서로는 백석 5리 亭子洞에 寧越辛氏, 남으로 月籠面 都內里 都監洞에는 淸松沈氏, 부곡 2리 윗가마울에 眞城李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이 있으며, 조선 英祖 40년(1764)에 정려된 金石夢의 아내 남평문씨의 열녀문이 있다(파주시 향토

25) 1953년의 세대수는 23호였다(파주군지편찬위원회, 『파주군지』 상, 파주군, 1995, 638쪽).

유적). 고문서가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 文贊基(남, 농업, 72세)

2) 州內面 釜谷里 眞城李氏

세거 범위는 부곡 2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미상이다. 원래 경상도 안동에서 살았으나 고조부가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여기에 눌러 앉게 되었는데, 처음 이곳은 안씨가 세거하였으나 이들이 떠나자 진성이씨들이 소문을 듣고 들어와 살게되었다고 한다. 세대수는 약 20호(60여명)이다.[26]

반상관계는 없었다. 인척 관계로는 密陽朴氏, 安東金氏, 金海金氏, 延安李氏 등과 혼인하였고, 가까운 지역의 南平文氏, 靑松沈氏, 達城徐氏, 密陽朴氏 등과도 혼인을 맺고 있다. 濟州高氏와는 같은 마을에 살아보다 가깝게 지냈다. 시제는 옛날에 음력 10월 보름에 삼막골에서, 10월 17일에 부곡 2리에서 지냈다. 지금은 음력 10월 셋째주 일요일에 지내는데, 10대조에서 5대조까지를 모신다. 참여인원은 약 40여 명이다. 공동행사로는 화수회가 있어 문중 일을 하며, 마을제사(산신제)를 보기도 한다.

인접 마을로는 서쪽의 부곡 1리 아랫가마골에 潘南朴氏, 密陽朴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부곡 2리 산수골에 선현 묘역이 있다.

제보자 : 李貴洛(남, 농업, 72세)

3) 坡州邑 烽岩里 白川趙氏

세거 범위는 봉암 2리(봉우재)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종손의 15대조로 楊州牧使를 지낸 趙錫이 임진왜란 때 이곳을 피난처로 삼은 이후부터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세대수는 20여 호이다.[27]

반상관계는 없다. 인척 관계로는 全州李氏, 金海金氏, 坡平尹氏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시제는 광복 후 음력 10월 14, 15일 양일로 지내다가 7~8년 전부터 음력 10월 셋째 또는 넷째 일요일에 지낸다. 참여 인원수는 40~50여 명 정도가 된다. 공동행사로는 종친회가 있어 문중 일을 한다. 인접마을로는 북으로 봉암 3리 방축골에 居昌愼氏, 서쪽으로 월롱면 陵山里(아가매)에 咸安趙氏, 동으로 파주 1리(아산)에 坡平尹氏와 金海金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덕고개와 봉암리에 선현 묘역이 있으며, 趙載鎭과 趙龍祥의 교지가 남아있다.

제보자 : 趙在德(남, 무, 79세)

---

26) 1953년의 세대수는 22호였다(『파주군지』 상, 638쪽).

27) 1953년의 세대수는 21호였다(『파주군지』 상, 638쪽).

4) 坡州邑 烽岩里 居昌愼氏

세거 범위는 봉암 3리(방축동)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알 수 없다. 16대조로 연산군 때 생원을 지낸 愼克孝가 中宗反正시 피난하다가 이곳 海美郭氏의 데릴사위로 들어가면서 세거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세대수는 20여 호인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상관계로는 1960년대까지 행해졌는데, 묘지기가 宗土를 임대 받는 대신 묘역관리와 시향의 제수를 차려 주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척관계는 密陽朴氏, 江陵金氏, 全州李氏, 長水黃氏, 淸松沈氏, 文化柳氏 등과 혼인을 맺고 있다. 다만 中宗反正 때 반대파였던 朴元宗의 집안인 順天朴氏와는 절대 혼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제는 예전에 음력 10월 15일, 17일에 지낸다. 지금은 음력 10월 둘째주 일요일에 지내는데, 17대조에서 5대조까지를 모신다. 참여 인원수는 약 40~50여 명 정도 된다. 그밖에 양력 5월 5일에는 端景王后(中宗의 妃)의 묘에 성묘 간다. 공동행사로는 파주신파회(花樹會)가 있어 2개월에 한번 열리며, 이 곳에서 선조 숭배와 효 사상을 가르친다. 또한 단경왕후 성묘 시는 문중 어린이를 위한 특별행사를 개최하여 조상들의 행적 등을 들려준다. 인접마을로는 북으로 봉암 4리(새말)에 金海金氏, 서쪽으로 능산1리 아가매에 咸安趙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제보자 : 愼重八(남, 농업, 63세)

5) 月籠面 陵山里 咸安趙氏

세거 범위는 능산 1리 아가매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420여 년 전이다.[28] 中宗 때 宗簿寺 主簿를 지낸 玉川 趙堪[29]이 당시 月籠面 德岩里에서 살던 休菴 白仁傑[30] 선생의 門人이면서 사위로 이 곳에서 스승을 모시면서[31] 정착하였다고 한다. 세대수 20여호(60여명) 이다.[32]

반상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묘지기들이 있어 묘역관리, 시제의 제수장만, 상여 매는 일 등을 하였다고 한다. 인척관계로는 全州李氏, 光州盧氏, 長水黃氏, 장원유씨 등과 혼인을 맺고 있었는데, 특히 종손의 18대 祖母가 水原白氏이고 위치적으로 가까워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정치적으로는 노론에 속하여 다른 政派하고는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다.

시제는 1990년대까지 음력 10월 12, 13일 이틀을 지냈는데, 지금은 음력 10월 첫 공휴일에 지낸다. 참여 인원수는 약 120여 명이다. 또한 玉川公을 모신 龍洲書院과 坡山書院에서 음력 3월 中丁이면 봄 제사가 있으며, 특히 용주서원에서는 음력 9월 9일에 儒林이 주관하는 제사가 있는데, 모두 참여한다. 공동행

28) 1953년에 간행된 『경기도지』에 의하면 입향 시기를 600년 전으로 기록하였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29) 『경기인물지』 하, 1679쪽 참조.
30) 『경기인물지 』 상, 595~597쪽 참조.
31) 이는 월농면 덕암리에 있는 **龍洲書院**에 스승 백인걸과 함께 **配享**되어 있음을 볼 때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의 **註**) 29, 30 참조.
32) 1953년에는 세대수가 31호였다(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524~525쪽).

사로는 서울의 花樹會에서 1년에 한번 모여 총회를 가진다. 인접 마을로는 북으로 능산 2리(능골)에 江陵金氏, 서쪽으로 덕은4리(덕고개)에 密陽朴氏, 남으로 덕은 3리(옥석동)에 水原白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이 있는데, 그 곳에는 1993년에 새로 지은 재실과 趙鎰, 趙逢源의 재실이 있다. 그리고 趙重協의 부인 淸風金氏의 烈女碑(파주시 향토유적 제 7호)가 있다.[33]

한국전쟁 이전에는 30호(150여명)가 살았는데, 점차 줄어들어 20호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뿐더러 근자에는 대부분 젊은 층들이 서울로 이주하여 노인들만 살고 있는 형편이다.

제보자 : 趙顯益(남, 농업, 77세)

6) 月籠面 葦田里 淸州史氏

세거 범위는 위전 1리(樓峴洞), 2리(堂谷洞), 3리(社倉洞)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350년 전이다.[34] 사씨는 원래 중국에서 귀화한 씨족으로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에 胡兵이 중국인 歸化者들을 모조리 잡아간다는 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살다가 胡亂이 끝난 후에 점차 파주를 근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각기 지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대수는 80여 호이다.[35]

반상관계는 盆店洞 지역에 거주하는 김씨, 이씨, 방씨 등이 下階로 있었는데 6 · 25이후 점차 없어졌다. 인척 관계로는 各姓과 맺었는데, 특히 水原林氏와 査頓 관계가 많다. 시제는 高陽市 一山區 芝英洞에서 음력 10월 14일에 지내고 위전리에서는 15일, 16일 양일간 23대조에서 6대조까지를 모신다. 참여 인원은 80~100여명 정도가 된다. 공동행사는 대종회가 있어 금촌에서 열린다.

인접 마을로는 남으로 英太 3里에 長水黃氏, 동쪽의 都內里에 淸松沈氏 등의 집성촌이 있고, 동남으로 분점동에 下階 마을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이 있는데, 그 경내에 世居事蹟碑와 史重의 神道碑[36]가 최근에 건립되어 있고, 史克明의 設壇碑도 있다.

제보자: 史亨鎭(남, 농업, 66세)

7) 月籠面 都內里 淸松沈氏

세거 범위는 도내 1리(都監골)와 英太里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200여 년 전이다.[37] 세거는 조선 世祖 때 영의정을 지낸 靑城君 沈澮의 묘를 파주시 우랑동에서 월롱면 영태리로 이장하면서 이루게 되었다. 세대수는 60여 호(120여명)[38]이다.

---

33) 열녀비에 관해서는 『경기인물지』 상, 243~244쪽 참조.

34) 입향 시기에 관해서 『경기도지』에 의하면 대략 200년 전으로 보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다(『경기도지』, 524~525쪽).

35) 1953년에는 세대수가 60호였다(『경기도지』, 524쪽).

36) 史重의 신도비는 원래 仁祖 때 병조판서로 추서되어 파주 條里面 堂山里에 玉돌로 건립되었는데, 丙子胡亂시 胡兵들을 피하고자 하인들을 시켜 先祖의 무덤을 없애면서 신도비를 어딘가 묻어 버리게 하였다고 한다.

37) 『경기도지』, 524쪽, 참조.

반상관계는 金海金氏가 下階로 소작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광복이후에 점차 없어져 지금은 없다. 인척 관계로는 昌寧曺氏, 長水黃氏, 全州李氏 등과 혼인을 맺었다. 세종 즉위시(1418) 영의정 沈溫이 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중, 그를 上王(太宗)의 병권 장악을 비난하는 무리의 주모자라는 좌의정 朴訔의 모함으로 죽게된 사건[39] 이후부터 심온의 유언에 따라 潘南朴氏와 혼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제는 음력 10월 10, 11, 15, 16, 17일 5일 동안 지내는데, 17대조부터 5대조까지를 모신다. 20대조인 심회의 兩位는 봄 한식, 8월 중추, 정월 초하루, 기제사 2번 모두 5차례의 제사를 모신다. 참여인원은 많게는 100여명 적게는 20여명 정도이다. 공동행사로는 종친회가 정기적으로 年初와 年末에 열리고, 일이 있으면 수시로 모인다. 인접 마을로는 북으로 백석리에 寧越辛氏, 水原白氏, 남으로 영태리에 南平文氏(오십정), 昌寧曺氏(해명동) 등의 집성촌이 있다. 한편 윗마을은 유가골인데, 옛날에 황해도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숙식하였다고 한다.

제보자 : 沈養燮(남, 농업, 65세)

8) 月籠面 都內里 全州李氏

세거 범위는 도내 1리(안골)와 津東面 哨里지역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알 수 없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패지였던 진동면에 세거하였다가 6 · 25이후에 도내리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세대수는 3~4호 정도가 된다.[40]

반상관계로는 최씨, 박씨, 이씨, 조씨, 심씨 등의 성씨들이 이곳에 들어와 廟祠에 살면서 묘역관리나 시제, 제사 등의 집안 일을 돌봐 주었다 한다. 정치적으로 西人에 속하였다. 인척 관계로는 安東金氏, 高靈朴氏, 尙州朴氏, 그리고 가까이 사는 靑松沈氏와 자주 혼인관계를 맺었다.

시제는 음력 10월 첫째주 일요일에 지내는데, 바로 전날 저녁 산에서 林堰君 李祿生(定宗의 여덟째 아들)에 대한 시제를 드린다. 참여 인원은 임언군 시제가 40여명, 일요일 시제가 80여명 된다. 공동행사로 임원군종친회가 있어 3월, 7월, 10월, 11월 4차례 열리고, 문중 일을 관장한다. 인접 마을로는 남으로 도감골에 靑松沈氏, 동으로 廣灘面 倉滿里에 密陽朴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과 더불어 재실, 사당이 있으며 20여 년 전에 건립된 이녹생의 신도비가 있다.

제보자 : 李濟國(남, 농업, 71세)

9) 月籠面 德隱里 密陽朴氏

세거 범위는 덕은리(玉石洞), 炭縣面 吾今 2里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대략 230년 전이다.[41] 이 집성촌

38) 1930년의 세대수는 61호였고, 1953년에는 67호였다(『파주군지』 상, 636~637쪽).

39) 『경기인물지』 상, 759~760쪽, 참조.

40) 1930년도에는 세대수가 38호였다(『파주군지』 상, 636쪽).

은 원래 탄현면 오금 2리의 密陽朴氏에서 分派되었다고 한다. 세대수는 덕은리에 30여 호이다.[42]

반상관계는 알 수 없으며, 인척관계는 各姓들과 혼인을 맺고 있다. 시제는 음력 10월 보름에 5대조 이상을 모시며, 世祖 때 左贊成을 지낸 恭孝公 朴仲孫은 한식과 양력, 10월 3일에 기제사를 모신다. 인접마을로는 북쪽으로 陵山 1里 아가매의 咸安趙氏 집성촌이 있으며, 윗마을의 덕은 3리와 아랫마을의 배양동은 동족들의 집성촌이다.

제보자 : 朴榮鈺(남, 농업, 66세)

10) 汶山邑 沙鷺里 長水黃氏

세거 범위는 탄현면 金蠅里(賜牌地)와 사목리(伴鷗亭)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약 250년 전이다.[43] 世宗 때 영의정을 지낸 厖村 黃喜의 8세손인 侃의 부인 南陽洪氏가 할아버지의 유골을 이곳에 옮기면서부터 世居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대수는 30여 호이다.[44]

반상관계는 일제시대까지 있었는데, 崔氏, 元氏, 李氏, 姜氏, 柳氏 등에게 宗土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묘지기를 두어 묘역관리와 時享을 모시게 하였다. 정치적으로 老論에 속하여 南人, 少論하고는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다. 인척으로는 坡平尹氏, 昌寧成氏, 潘南朴氏, 全州李氏, 安東金氏 등과 혼인을 맺었다. 또한 恩津宋氏하고는 世交를 맺었다.

시제는 음력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행해지며, 10대조에서 5대조까지를 모신다. 참여 인원수는 20여 명이다. 그리고 황희 선생은 忌祭祀 , 時享祭祀, 寒食節祀를 지낸다. 공동행사로는 전국적으로 장수황씨 종친회가 있으며, 沙鷺宗中 宗親會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양력 5월 5일에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전체가 모임을 갖는다.

인접 마을로는 북으로 馬井里에 坡平尹氏, 남으로 사목 1리에 昌寧成氏, 堂洞里에 延日鄭氏, 서쪽으로 당산리에 全州李氏와 靑松沈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황희 정승을 비롯한 세조 때 영의정 黃守身(묘역이 경기도 기념물 제 34호), 成宗 때 判中樞府事 黃致身, 宣祖 때 병조판서 黃廷彧, 선조 때 護軍 黃赫 등의 선현 묘역이 있으며, 황희의 반구정(문화재자료 제 12호)이 있다.

제보자 : 黃仁杓(남, 무, 74세)

11) 炭縣面 吾今里 密陽朴氏

세거 범위는 오금 2리(남약동, 십전동, 木洞)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약 350여 년이다.[45] 仁祖의 능이 남

41) 입향 시기에 관해서는 『경기도지』, 524쪽, 참조.
42) 1953년도에는 세대수가 27호였다(『경기도지』, 524쪽).
43) 입향 시기에 관해서는 『경기도지』, 524쪽, 참조.
44) 1930년에는 세대수가 63호였으나 34호로 줄었다(『파주군지』 상, 635, 637쪽, 참조).
45) 『경기도지』, 524쪽, 참조.

쪽 葛峴里에 있는데, 그 당시 이곳을 박씨의 賜牌地로 내리게 되면서부터 세거하였다는 설이 있다. 세대수는 50여 호이다.[46]

반상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척으로는 各姓과 혼인을 맺었다. 시제는 한식, 추석, 음력 10월 보름에 3번 지내는데, 지금은 한식과 양력 10월 3일 두 번 지낸다. 참여 인원은 한식에 20여명이지만 10월 3일에는 약 200여명이나 된다. 한편 세조 때 좌찬성을 지낸 恭孝公 朴仲孫의 忌祭는 충북 옥천군 옥산면에 있는 齋室에서 지낸다. 공동행사로는 친목회가 있어 총회, 임시회를 통해 집안 일을 행한다. 인접 마을로는 북으로 文智里에 坡平尹氏, 남으로 萬隅里에 丹陽禹氏, 錦山 2里에 昌寧曺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이 있다.

제보자 : 朴寬在(남, 농업, 86세)

12) 炭縣面 萬隅里 丹陽禹氏

세거 범위는 만우리(新梧洞) 일대이다. 입향 시기는 약 250여 년 전이다.[47] 제보자의 13대조인 禹鳳瑞가 이곳으로 낙향하면서부터 세거하였다고 한다. 세대수는 35호이다.[48]

반상관계는 30년 전까지도 下階가 있었다. 정치적으로 南人系列이다. 인척으로는 坡平尹氏와의 혼인이 반 이상이었으며, 가까운 昌寧曺氏와도 혼인을 맺었다. 그러나 고려말 靖平公 禹仁烈이 鄭道傳(奉化鄭氏) 세력에 의해 禍를 입은 후부터는 봉화정씨와는 절대 혼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제는 과거 음력 10월초에서 보름에 걸쳐 지냈는데, 지금은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 하루에 지낸다. 참여 인원수는 300여명이나 되며, 시제 후에는 宗中 세미나나 儒敎敎育을 하고 있다. 공동행사로는 단양우씨 서울 花樹會(서울 성수동)가 있어 정기총회(10월), 임원회(일년에 4~5수시로)가 열린다. 또한 파주지역에서는 靖平公派宗中會가 있어 1년에 한번 정기총회가 열리며, 임원회는 4~5회 열린다.

인접 마을로는 북으로 오금 2리에 密陽朴氏, 동으로 금승리(쇠파리)에 長水黃氏 등의 집성촌이 있으며, 남으로 昌寧曺氏 집성촌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문화재자료는 내포 3리와 만우리에 선현 묘역이 있다.

근자에 서울로 많이 이주하였다고 한다.

제보자 : 禹鍾烈(남, 향교전교, 71세)

13) 炭縣面 錦山里 昌寧曺氏

세거 범위는 과거에는 만우리, 城東里(경모공원), 錦山 2里, 大洞里(새우리), 法興 4里에 걸쳐 있었는데, 지금은 대동리와 금산 2리(宗山) 지역이다. 입향 시기는 약 250년인데,[49] 이곳에 賜牌地로 받아 세거를 이

46) 1930년에는 세대수가 37호였으나 1953년에는 67호였다(『파주군지』, 636~637쪽 참조).
47) 『경기도지』, 245, 참조.
48) 1953년에는 세대수가 58호였다(『경기도지』, 524쪽).

루었다고 한다. 세대수는 48호이다.[50]

반상관계는 40년 전까지 있었는데, 印氏, 科氏 등의 下階가 가마를 매는 일과 小作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묘지기가 있어 산, 집터, 전답을 받고 묘역관리와 시제의 제수를 장만하였다. 인척관계로는 各姓과 혼인하였는데, 특히 丹陽禹氏와 혼인이 잦아 밀접한 친교관계를 맺었다.

시제는 음력 10월 보름에 지내는데 10대조에서 5대조까지를 모시며, 대동리에서는 음력 10월 10일에 17대조에서 11대조까지를 모신다. 참여 인원이 예전에는 40여명이었으나 지금은 10여명이다. 공동행사로는 창녕조씨 파주시 宗會가 있어 매달 운영위원회가 열리며 매년 4월 26일에 정기총회가 있다. 또한 마을 공동행사인 洞祭가 있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한다. 이것은 보현산에서 살아있는 소를 도살하여 山祭를 드리는데, 매 3년마다 이러한 행사를 가지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인접 마을로는 남으로 창녕조씨, 동쪽으로 밀양박씨, 法興里(이주단지)에 交河盧氏 등의 집성촌이 있다. 문화재자료로는 선현 묘역이 주로 대동리에 있으며, 재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미군 흑인 병사들이 집들을 불태웠다고 하며, 근자에 서울의 이주가 많아졌다고 한다.

제보자 : 曹秉鎬(남, 농업, 74세)

□ 조사결과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50〉과 같다.

세거 범위는 대부분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 지역에 걸치기도 하며, 분단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래의 세거지에서 인접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집성촌이 형성되는 입향의 시기는 짧게는 200여 년에서 길게는 500여 년 전이나, 대체로 300~400여 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임진강 유역의 집성촌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성촌 형성 배경의 유형은 전란에 의한 피난처나 활동지로, 정치적 상황에 의한 은거지로, 인척관계에 의한 수택지로, 학연관계에 의한 수학지로, 정치적 현상에 의한 사패지나 낙향지로, 가문의 흥망에 따른 이주(분파)지로, 관직생활에 따른 거주지로, 조상을 모시기 위한 선영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대수는 적게는 10여 호에서 많게는 100여 호에 이르는데, 대개 20~40여 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상관계는 대부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체시기는 대체로 광복이후에서부터 한국전쟁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遺習이 특정 가문이나 지역에 따라 미약하게 잔존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소작관계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상도 7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 각 가문의 政治 생활상은 중앙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가문과의 반목관계가 여전히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가문끼리

49) 『경기도지』, 524쪽.

50) 1953년에는 세대수가 56호였다(『경기도지』, 524쪽).

〈표 50〉 임진강유역의 집성촌

집성촌명	성씨	세거범위	입향시기	입향배경	세대수	반상관계	인접마을관계	시제인원	공동모임	문화재	전설	특기사항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조가채리)	한양조씨 (文簡公派)	가채2리, 만세교리	540년	先塋	10호	주종소작	친분	30여명	종회	재실, 사당, 신도비		南人.
포천군 군내면 상성북리(잿뒤)	전주이씨 (益安大君派)	상성북리	410년	피난(壬辰)	50호	소작	인척	60여명	문회	재실, 효자비, 요요, 교지	○	6·25때 동족 다수 사망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자라울)	김해김씨 (橫城君派)	하성북4리	370년	피난(壬辰)	65호		친분	30여명	종중	재실(30년전 건립)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골말)	청주양씨 (退隱公派)	하성북3리	300년	낙향	20호				종중			
포천군 구내면 직두리(피머리)	평강채씨 (忠憲公派)	직두리	350년	낙향	20호	주종소작	인척	60여명	종중	재실, 교지		이승만 정권때 소작인 감소. 최근 도시 이주.
포천군 포천읍 동교리	전주이씨 (茂林君派)	동교1리	380년	인척관계 이주(楊州)	30호	소작	친분	150여명	종중	재실(6·25 소실)		老論. 南人. 이승만 정권때 소작 감소.
포천군 포천읍 어룡리(어린골)	보성오씨 (輸林公派)	어룡1리	380년	이주	10호	주종		100여명	종중	재실, 효자문, 열려문, 사당	○	南人.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가무사리)	남양홍씨 (禮忠公派)	현가리, 상1리	350년	이주	8호	소작	친분,인척	20~60여명	종중	효자문(6·25소실)		6·25때 세대수 격감.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가재울)	진주강씨 (承旨公派)	현가리, 중면 합수리	400년	의병활동 (壬辰)	9호			10여명				6·25때 세대수 감소.
연천군 연천읍 읍내리(아랫산골)	청풍김씨 (睡窩公派)	읍내리, 현가리, 차탄리, 옥계리	300년	벼슬살이	20호			80여명	종중	재실, 사당(6·25 소실)	○	西人, 老論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鶴洞)	곡성임씨 (司成公派)	차탄리, 동막리(부물현)	480년	은거 (기묘사화)	100호	주종	인척		화수회	임장서원		老論. 6·25때 세대수 격감.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개성왕씨 (江陵公派)	아미2리	400년	벼슬살이	50호	주종소작	인척	50여명	종중	숭의전(6·25때 소실, 후에 복원)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경주정씨 (黃山公派 良景公派)	백석리, 광동리, 석장리	500년	선영	30호	주종소작	인척	150여명	종중	사당(재건), 정발장군묘(경기도 기념물)		南人. 6·25때 남북으로 分族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우건동)	남평문씨 (純質公派)	백석1리	미상	이주	30호		친분	30여명	종중	열려문		6·25때 전적 소실.
파주시 주내면 부곡리(가마울)	진성이씨 (松堂公派)	부곡2리	미상	낙향	20호		인척	40여명	화수회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봉우재)	배천조씨 (判尹公派)	봉암2리	미상 (400여년)	피난(壬辰)	20호		인척	40~50여명	종중	교지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방축동)	거창신씨 (參判公派)	봉암3리	미상	피난 (중종반정)	20호	주종소작		40~50여명	화수회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아가매)	함안조씨 (玉川公派)	능산1리	420년	修學 (白仁傑 제자)	20호	주종소작	인척	120여명	화수회	재실, 열녀비, 교지		老論. 6·25때 세대수 감소, 최근 젊은 층 서울이주.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누현동)	청주사씨 (尙書公派)	위전1리,2리(당곡동), 3리(사창동)	350년	피난 (병자호란)	80호	주종		80~100명	종중	설단비, 사적비,신도비(최근)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도감골)	청송심씨 (安孝公派)	도내1리	250년	선영	60호	주종소작	인척	20~100명	종중			6·25때 세대수 격감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안골)	전주이씨 (林堰君派)	도내1리, 진동면 초리	미상	사패지	3~4호	주종소작	인척	40~80여명	종중	재실, 사당, 신도비(최근 증건)		西人. 6·25로 세대수 격감.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옥석동)	밀양박씨 (恭孝公派)	덕은3리, 탄현면 오금2리	230년	分派	30호			20~30여명	종중			6·25이후 오금리에서 덕은리로 이주.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반구정)	장수황씨 (少尹公派)	탄현면 금승리, 사목리	250년	선영	30호	주종소작	인척	20여명	종중	반구정		老論. 6·25로 세대수 격감.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남약동,십천동,목동)	밀양박씨 (恭孝公派)	오금2리	미상	사패지	50호			200여명	종중 친목회			최근 도회지로 이주 증가.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새오리)	단양우씨 (淸平公派)	마우리, 문산읍 내포리	미상	낙향	35호	주종소작	인척	300여명	종중			南人. 6·25로 세대수 격감.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금의)	창령조씨 (知中樞派)	금산2리, 대동리	미상	사패지	48호	주종소작	인척	10여명	종중			6·25로 세대수 감소.

※ • 각 항목의 수치는 절대수치가 아니라 설문조사에 의한 추정치임으로 다소 오차가 있음.
• 문화재자료 중 동산자료는 대부분 설문 응답자의 제보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음.

인척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 가문끼리 지속하여 인척을 맺기도 한다. 한편 인접 마을과의 관계는 대개는 친분이나 유대관계를 가지며, 나아가서는 인척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집성촌의 생활양식은 거의 종친회나 花樹會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기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도 하며 선영의 묘역관리나 시제를 통해 선조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가문의 경우는 문중의 번영을 위해 종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또는 집안 어른들의 복지향상과 敬老思想을 일깨우고자 노인 회비를 지급하여 주기도 한다. 특정 가문의 경우는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전통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특별행사도 갖기도 한다. 일부 동족 마을은 종중에서 문중 일뿐만 아니라 洞祭나 山祭祀와 같은 마을일을 행하기도 한다.

한편 집성촌은 혈연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제(時享)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각 가문에서는 넓게는 전국적인 시제에 참여하기도 하며, 좁게는 자기 마을이나 인근 시제에도 적극 참여한다. 각 집성촌별로 시제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 백 명까지 이다. 그러나 참여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젊은 세대의 직장생활이나 경제생활에서 오는 혈연의식의 희박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저조한 參與率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가문이 예전의 경우와 같이 특정 時祭日을 탈피하여 대개 휴일이나 공휴일을 일정하게 택하여 제향한다.

집성촌의 공동생활에서 생성된 물질문화인 문화재자료로는 거의 대부분 선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내에는 사당이나 제사 준비를 위한 재실이 있다. 또는 가문의 사회(정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정려(효자, 열녀, 충신) 碑나 閣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는 선대가 쓰던 가마 등의 물건이 있으며, 유명 선조의 문집이나 교지류와 같은 고문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품들의 소장은 대체로 조상숭배에서 연유된 것이지만 대개는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소실되거나 없어진 문화재자료들을 복원하거나 새롭게 건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집성촌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지위나 영역을 보여주는 전설(종족과 지역(지명)에 연관된 이야기)의 경우는 일부 집성촌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집성촌은 대체로 한국전쟁을 계기로 점차 와해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란에 의한 분족현상이나 세대수의 감소로 나타난다. 민주주의라는 사상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활성화로 전통구조의 틀을 깨는 반상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인척관계의 변화로 와해의 촉진제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사회적 변혁으로 개인적 사행심이 만연하면서 도시이주에 의한 세대수 감소 및 집성촌의 고령화 현상이 발생되었고, 나아가 문중의 모임이나 행사의 소극적 참여로 집성촌의 와해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제4장 임진강 유역의 민속문화

제1절 조사지 종합개관

제2절 표본조사마을 개관

제3절 민속신앙

제4절 세시풍속

제5절 생활풍속

제6절 민속놀이

제7절 구비전승

제8절 임진강 유역의 어로생활사

제1절 조사지 종합개관*

1. 조사개요

이번 임진강 유역의 조사에서 민속분야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닌 지리적 ·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문화적 특징과 하천관련 민속을 파악하고 상 · 중 · 하류별 민속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뤄졌다. 따라서 조사마을도 경기 서북부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임진강과 한탄강의 본류에 접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의 22개 읍면에 한정하였으며, 22개 읍면을 상류와 중류, 하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본조사마을을 선정을 위해서는 22개 읍면에 속한 행정리의 이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신앙을 중심으로 민속의 전승현황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화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15개 마을을 표본조사마을로 선정하였다. 유역별로는 상류지역 5개 마을, 중류지역 6개 마을, 하류지역 4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표본조사마을 선정은 몇 가지 기준이 따랐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조사가 하천민속과 각 유역별 민속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에 강에 접한 마을을 조사마을로 선정하고, 특히 중 · 하류 경우 포구마을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둘째, 현재까지 마을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한 까닭은 한국전쟁과 그

---

* 이상열(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 조사지 종합개관, 표본조사마을 개관)
김지욱(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민속신앙, 세시풍속)
김준권(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생활풍속)
홍원의(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민속놀이, 구비전승)
이지누(분단문화연구소장 - 임진강유역의 어로생활사)

영향으로 인해 기존 민속의 변화 · 소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마을이 임진강유역 민속의 특성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조사마을간 일정 기리를 유지하고 강의 양안에서 마을을 고르게 선정한다. 이렇게 한 까닭은 유역별 · 조사마을별 민속의 차이와 유사함을 밝히기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본조사마을에 대한 조사는 일차적으로 민속신앙과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타분야의 경우엔 표본조사마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민속지적 현재는 마을생활에서 하천이 차지하던 중요성이 컸던 한국전쟁 이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그래야만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민속의 특성과 변화가 제대로 파악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임진강 유역의 사회 · 문화적 특성

하천은 산과 산 사이를 흘러 넓은 들판을 지나 거대한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저 말없이 쉬지 않고 흐르면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젖줄로서, 그리고 교통로와 문화전파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천은 한 지역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하천이 갖는 경관은 그 지역의 얼굴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한 지역의 문화를 거론할 때 하천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경기도 서북부 남북접경지역의 문화를 거론할 때 임진강을 빼놓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북부를 지나면서 고미탄천과 평안천 등의 지류와 합류한 후에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에 이르러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군 · 연천군을 지나면서 영평천과 차탄천 등의 지류를 합류하며 흘러온 한탄강을 아우른다. 이어서 파주시 적성면에서 서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흐르면서 문산천 등의 지류를 합류한 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통일전망대 부근에서 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빠져나간다. 총 연장 약 254km, 유역 면적 8,117.5㎢에 달하는 한반도 7대 하천이며, 그 중 연장 약 162km, 유역 면적 5,108㎢가 북한에 속해 있다. 그런 만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시되는 하천이다. 임진강 유역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의 격전지였고, 지금도 민족분단의 아픔이 곳곳에 묻어있는 곳이다. 아울러 구석기시대 유물과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한반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임진강 유역은 오래고 슬픈 역사와 함께 곳곳에 많은 秘境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중류지역엔 소위 '長湍石壁'이라 불리는 河蝕斷崖가 발달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비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유역 주민의 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윤택하다 할 수는 없다. 『택리지』에선 "양주 · 포천 · 가평 · 영평은 東郊, 고양 · 적성 · 파주 · 교하는 西郊인데, 두 교 모두 땅이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살기에 좋지 않다"[1] 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임진강 유역을 언급할 때면 어김없이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일찍 추워지며 ……"

라고 하여 사람이 살기에 그리 좋은 땅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처럼 하천과 접해 있으면서도 살기에 좋은 곳이 못된다는 것은 治水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임진강 유역은 홍수피해가 잦은 곳이다. 임진강 상류엔 화전을 일구던 곳이 많고, 많은 산림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되었다. 그로 인해 산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잦은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홍수로 퇴적된 흙과 모래가 바닥에 쌓여 수위를 높이는 것 역시 빈번한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임진강 유역을 조사하다보면 하류를 제외하고는 중상류의 대부분 마을이 수리시설 부족과,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엔 표고차가 커서 벼농사에 적절한 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다할 평야가 없는 점도 그렇다.

지형적인 것 외에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요인도 임진강 유역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임진강 유역의 사회 · 문화적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점은 안보관광이라는 독특한 관광유형을 낳았고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여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는 못하는 실정이다. 임진강은 20세기초까지만 해도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로 및 산물의 운송로로서 중요하게 기능했고, 임진강 유역은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하지만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어로활동과 상업활동이 활발하던 포구들이 모두 사라졌다. 임진강이 다른 강과 같았다면 지금까지 어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한국전쟁 전엔 연천과 포천의 상당 면적이 북쪽에 속했고, 그 후엔 항상 전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 있었기에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부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및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또한 높다. 이러한 현실이니 임진강 유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수가 3천명 미만인 면이 경기도내에 모두 11곳이 있는데, 그 중 임진강 본류와 접한 곳이 5개나 속한다.[2] 그리고 5곳 모두 6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상처로 인해 파생된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한 '기지촌문화'의 형성과 곳곳에 설치된 '대인지뢰'다. 경기도 북부 여러 곳엔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다. 임진강 유역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파주시 관내가 그러하다. 따라서 미군부대와 관련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의 수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기지촌문화'라는 이질적 문화가 형성되었다. '양공주', '미군범죄' 등으로 대표되는 기지촌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미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인지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임진강 유역이 특히 심각하여 수해로 유실된 지뢰가 농경지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곳곳에 지뢰매설지역임을 알리는 경고문과 군부대의 지뢰탐색작업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주민이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은 임진강 유역 민속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 예로 주생활 분야를 들 수

1) 『擇里志』 八道總論 京畿道條, "楊州抱川加平永平爲東郊 高陽積城坡州橋下爲西郊 二郊俱土薄民貧 少可居處".
2)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00, 14쪽 참조.

있다.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곳이 임진강 유역이다. 이곳은 38선이 관통하고 있기에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일부는 남한에, 일부는 북한에 속해 있었고, 전쟁발발과 함께 전역이 포연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임진강 유역에선 1950년대 이전에 지어진 가옥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민간인의 거주가 한동안 허용되지 않았기에 오래되었다고 해야 1960년대 신축된 가옥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1960년대에 지어진 가옥들은 경기도 서북부 일대의 전형적인 가옥형태를 유지한 경우가 많지만, 그나마도 잦은 수해로 파손되어 버렸기에 최근에 신축된 가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가정신앙 전승의 축소 ·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아직까지 농업 위주의 산업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곳에서 家神의 신체가 남아있는 가정을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가신의 신체가 사라져 가는 현상은 딱히 이 지역만의 특수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한국전쟁 및 잦은 수해로 인한 가옥구조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주생활이나 가정신앙에 비해 마을신앙은 아직도 많은 마을에서 전승이 되고 있기는 하나, 어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어업 관련 마을신앙은 거의 사라지고 산신제가 그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주민 가운데 북한태생의 실향민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임진강 유역은 남과 북의 민속문화가 융화되고 새롭게 변화해 가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흔히 세 개의 線으로써 남북 접경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야기하곤 한다. 세 개의 선이란 휴전선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민간인통제선을 말한다.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남북한을 나누는 경계가 되고 있다. 남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 남쪽 2km 지점에 설정된 것으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는 비무장지대(DMZ)로 설정된 채 50여 년간 개발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아 생태계의 보고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민간인통제선은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20km 지점에 설정된 것으로, 그 전신은 민간인의 歸農을 규제하기 위해 1954년 2월 미 8군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한 歸農線이다. 이후 휴전선 방어를 국군이 담당하게 되면서 1958년 6월에 군사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들의 출입영농과 거주가 허용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통제선, 일명 '민통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민통선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드러내주는 상징이자 남북 대립과 긴장의 상징이다. 임진강 유역은 세 개의 선을 모두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이곳에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와 함께, 사라졌던 선이 하나 복원되고 있는데, 경의선이 그것이다. 임진강 유역은 과거 황해도와 경기도의 산물과 문화가 교차하는 길목이었다. 과거에 그랬듯, 남북의 문화와 경제를 하나로 잇는 경의선이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세 개의 선이 긴장과 대립의 선이라면, 다시 복원되고 있는 이 선은 화해와 협력의 선이다. 앞으로 임진강 유역이 긴장과 대립의 땅으로 지속될지, 아니면 화해와 협력의 땅이 될지는 이들 네 개의 선이 어떠한 위상을 차지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 지역의 민속문화 역시 마찬가지 영향하에 있다고 하겠다.

3. 유역별 일반 현황

1) 상류지역

이번 조사에서 조사지로 선정된 22개 읍면 가운데 상류지역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상류 및 두 강의 주요 지류가 속하며, 포천군을 중심으로 연천군 일부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포천군의 포천읍 · 관인면 · 군내면 · 신북면 · 영북면 · 영중면 · 창수면, 연천군 신서면 · 중면이 해당된다. 포천군의 경우엔 한탄강과 그 지류에 속하기에 실제로 임진강 본류에 속한 곳은 연천군 중면 뿐이다. 연천군 신서면은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를 포함하나 두 강의 본류에 접해 있지는 않다.

상류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3] 포천군의 경우엔 한탄강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한탄강 이남에는 포천읍 · 군내면 · 신북면 · 영북면 · 영중면 · 창수면이 속한다. 포천읍은 옛 포천현 서면지역으로, 1937년부터 포천군 포천면으로 불리다가 1979년 5월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9년말 현재 10,513세대에 31,7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22개 읍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주민들의 생업도 다른 곳에 비해 도시화되어서 전체의 3/4 정도가 비농가로, 농업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공업과 상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사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4년제 종합대학이 있는 곳으로, 포천중문의과대학교와 대진대학교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포천군 신북면에는 2년제 대학인 경복대학이 있다.[4]

군내면은 옛 포천현 관아가 있어 현내면으로 불리다가 1905년에 포천군청이 현 포천읍으로 이전함에 따라 군내면으로 개칭되었다. 1999년말 현재 2,321세대에 7,12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의 1/3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쌀과 느타리버섯이 많이 나는 곳이다. 포천읍과 접한 까닭에 중소기업체도 많이 입주해 있다.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임야이기는 하나,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신북면은 옛 포천현 내북면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외북면을 통합하여 신북면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9년말 현재 3,860세대에 11,22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2/3가 임야인 곳으로, 한때 잣산지로도 유명했던 곳이다. 현재는 인삼재배가 활발한 편이다.

영북면은 옛 영평현 북면에 속하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포천군 영북면이 되었다. 1999년말 현재 4,057세대에 12,13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다.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명성산과 산정호수 일대엔 상업이 발달해 있기도 하다.

영중면은 옛 영평현의 읍내면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포천군 영중면이 되었다. 1999년말 현재 2,179세대에 6,472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주 생업은 농업이다. 이곳 역시 전체면적의 70% 정도를 임야

3) 상 · 중 · 하류 현황은 『한국지명총람』 서울 · 경기 · 인천편(한글학회, 1966), 『주민등록인구통계』(경기도, 2000), 임진강 유역 3개 시군의 향토자료 및 현지조사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다.

4) 포천군, 연천군, 파주시 통틀어 3개 대학이 있는데, 그 모두가 한탄강 이남에 위치해 있다. 임진강 유역에 대학이 적은 까닭은 인구가 적음도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에 따른 제약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포천군에 3개 대학이 밀집해 있는 것은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그나마 그런 제약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가 차지한다.

창수면은 옛 영평현 남면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포천군 창수면이 되었다. 1999년말 현재 1,128세대에 3,305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주민들의 주 생업은 농업이지만, 축산업과 임업도 활발한 곳이다. 영평천과 한탄강 사이에 자리하며, 전체 면적의 2/3 가량이 임야이다.

다음으로 한탄강 이북의 관인면과 연천군의 조사지를 살펴보면, 먼저 포천군 관인면은 본래 연천군에 속하다가 1983년에 포천군에 편입된 곳이다. 1999년말 현재 1,618세대에 4,972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한국전쟁 전엔 38선 이북지역이었던 곳이기에 주민구성에서 실향민의 비율이 매우 높다. 주민들의 주 생업은 농업이다. 면의 남북쪽과 동쪽은 산지이며, 서북쪽으로 넓은 평지가 자리하고 있어 논농사가 활발하다.

연천군 중면의 경우는 민통선에서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조사지인 22개 읍면 중에서 주민수가 가장 적은 곳이다. 1999년말 현재 81세대에 244명의 주민의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리안전답 비율이 50%에도 크게 못미칠 정도로 아직까지 농업환경이 그리 좋은 곳은 아니다. 임진강 본류가 지나고 남북접경지역인 만큼 곳곳에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신서면은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경원선 철도중단점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1999년말 현재 1,787세대에 5,15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긴 하나, 수리안전답 비율

〈표 51〉 상류지역 주요 현황[5)]

시군	읍면	면적 (㎢)	세대	인구(명)			행정리(동리수)
				계	남	여	
포천군	포천읍	32.25	10,513	31,715	16,144	15,571	*신읍리(13), 어룡리(3), 자작리(2), 선단리(5), 설운리(3), 동교리(4)
	관인면	69.70	1,618	4,972	2,565	2,407	중리(3), 삼율리(1), *탄동리(2), 초과리(2), 냉정리(2), 사정리(1)
	군내면	36.15	2,321	7,122	3,756	3,366	*구읍리(3), 용정리(3), 유교리(3), 좌의리(3), 명산리(1), 직두리(3), 상성북리(2), 하성북리(4)
	신북면	95.90	3,860	11,227	5,853	5,374	가채리(2), *기지리(3), 신평리(3), 만세교리(2), 심곡리(3), 계류리(2), 고일리(2), 삼성당리(2), 삼정리(2), 갈월리(2), 금동리(2), 덕둔리(2)
	영북면	81.63	4,057	12,131	6,203	5,928	*운천리(9), 자일리(4), 문암리(1), 야미리(2), 산정리(1), 대회산리(1), 소회산리(1)
	영중면	61.34	2,179	6,472	3,376	3,096	*양문리(4), 금주리(5), 거사리(3), 성동리(5), 영평리(2), 영송리(1)
	창수면	71.51	1,128	3,305	1,744	1,561	추동리(3), *주원리(5), 가양리(2), 오가리(3), 고소성리(1), 운산리(1)
연천군	중 면	87.27	81	244	115	129	*삼곶리(1), 횡산리(1)
	신서면	131.79	1,787	5,155	2,627	2,528	대광리(2), *도신리(5), 내산리(1)

※ * 표시는 읍면소재지를 의미함.

5) 상 · 중 · 하류 주요현황표는 『주민등록인구통계』(경기도, 2000) 및 각 시군 『통계연보』를 참고로 작성되었다.

은 50%에도 못미치는 곳이다. 이곳은 예전부터 벌꿀이 특산물이었는데, 지금도 양봉업이 발달해 있다.

2) 중류지역

중류지역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연천군의 연천읍 · 전곡읍 · 군남면 · 미산면 · 백학면 · 왕징면 · 장남면 · 청산면과 파주시 적성면이 해당되며, 연천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이 임진강 또는 한탄강 본류에 접해 있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으며, 지금도 분단의 상처로 인해 모든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므로 주민 수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농업 외엔 지역 주둔 군부대의 소비에 의지하는 소위 '군인경제'가 크게 좌우하는 곳이다. 한편 연천군의 경우 최근에 논이 감소하고 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벼농사로는 더 이상 농촌경제를 지탱하기 어렵기에 보다 경제성 있는 상품작물 재배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천군의 임진강 유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중류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연천군의 경우 임진강과 한탄강 합류지점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북쪽엔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백학면, 왕징면, 장남면이 속한다. 연천읍은 본래 연천현 현내면 지역으로서 1895년에 군내면으로 개칭하였다가 1937년에 연천면이 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하기도 했으며, 1979년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연천군 행정의 중심지이긴 하나, 현재는 전곡읍에 비해 규모가 작다. 1999년말 현재 2,929세대에 8,89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읍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다. 생업은 농업 위주지만, 행정중심지인 만큼 상업도 발달한 편이다.

군남면은 본래 연천현 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전군 화진면 일부를 병합하여 군남면으로 개칭하였다.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하며, 연천군에서 농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다. 1999년말 현재 1,685세대에 4,95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미산면 역시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한다. 본래 마전군 군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에 속하게 되었고 미산면으로 개칭하였다.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했던 지역이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나, 높은 산이 없는 반면에 낮은 산지가 이어져 넓은 농경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다.

백학면은 본래 적성현 북면 지역으로, 1895년 관제를 개정하면서 마전군에 편입되어 하신면이라 불리게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장단군 장신면 일부를 병합하여 백학면이 되었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까닭에 백령리와 두현리는 출입영농만 가능하고, 일부 리는 북한에 속해 있다. 주민들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며, 참외재배 및 잔디경작 농가도 다수 있다.

왕징면은 본래 마전군 북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 · 강신면과 서면 일부, 그리고 연천군 서면 일부를 병합하여 왕징면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했던 곳이며, 지금도 주민 미거주지역이 대부분에 속한다. 1999년말 현재 508세대에 1,54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임진강에 접한 까닭에 면소재인 무등리 일

대엔 음식점이 다소 있고 장이 개설되는 등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장남면은 본래 장단도호부의 장현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남면과 장서면의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장남면이라 칭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일부가 북한에 속했으며, 전쟁 후에도 한동안 민간인통제구역에 속했던 곳으로, 1962년부터 자작리와 원당리에만 주민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 1963년에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에 장남면으로 다시 승격되었고, 1999년말 현재 267세대에 82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며, 잔디 경작과 인삼재배가 활발한 곳이다.

다음으로 연천군 전곡읍과 청산면, 파주시 적성면은 임진강과 한탄강 남쪽에 위치한 곳이다. 전곡읍은 본래 양주군 영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성군 동면 일부를 병합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고, 1941년에 전곡면으로 개칭하였다. 한국전쟁 전에는 일부가 북한에 속하기도 했으며, 1985년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9년말 현재 6,846세대에 20,875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임진강 중류의 중심지인 만큼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읍내에 거주할 만큼 도시화된 곳이다. 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천읍을 능가하는데, 한 예로 1995년 기준으로 연천군 전체 70개 제조업체 중 27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 7개 업체가 입주한 연천읍보다 제조업체 수가 월등히 많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업에서 상업 및 기타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농경지의 경우 수리안전답의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연천군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2〉 중류지역 주요 현황

시군	읍면	면적 (㎢)	세대	인구(명)			행정리(동리수)
				계	남	여	
연천군	연천읍	87.65	2,929	8,898	4,609	4,289	와초리(1), 상리(2), 현가리(1), *차탄리(4), 옥산리(2), 읍내리(1), 동막리(2), 통현리(2), 고문리(2)
	전곡읍	55.22	6,846	20,875	10,721	10,154	전곡리(6), *은대리(4), 신답리(1), 고능리(1), 양원리(1), 간파리(1), 늘목리(2)
	군남면	45.24	1,685	4,954	2,569	2,385	*삼거리(2), 옥계리(3), 선곡리(1), 진상리(2), 왕림리(1), 황지리(1), 남계리(2)
	미산면	40.80	725	2,165	1,113	1,052	아미리(2), 백석리(1), *유촌리(1), 우정리(1), 마전리(1), 동이리(1), 삼화리(1)
	백학면	61.32	1,115	3,350	1,740	1,610	백령리(2), *두일리(3), 노곡리(2), 학곡리(1), 전동리(1), 구미리(1), 석장리(1),, 두현리(1), 통구리(1)
	왕징면	86.04	508	1,547	490	757	*무등리(1), 노동리(1), 동중리(1), 북삼리(1)
	장남면	56.17	267	821	418	403	*원당리(3), 자작리(1)
	청산면	43.72	2, 063	5,757	2,906	2,851	*초성리(4), 대전리(2), 장탄리(2), 궁평리(2), 백의리(2)
파주시	적성면	89.11	3,058	9,397	4,816	4,581	*마지리(2), 식현리(2), 무건리(1), 설마리(1), 적암리(1), 어유리(2), 장현리(2), 율포리(1), 객현리(2), 구읍리(3), 가월리(1), 주월리(1), 두지리(1), 자장리(1)

※ * 표시는 읍면소재지를 의미함.

청산면은 전곡읍의 동쪽, 한탄강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본래 양주군 청송면이었다. 1895년 관제 개정에 따라 포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주군 산내면 일부를 병합하여 청산면으로 칭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일부 지역이 북한에 속하기도 했으며, 1983년에 면의 남쪽 4개 리를 포천군 신북면에 편입시키고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99년말 현재 2,063세대에 5,75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곡읍 다음으로 제조업체가 많이 입주한 곳이다.

파주시 적성면은 옛 적성군 동면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연천군 적성면이 되었다가 1945년에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파주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25% 정도가 농경지다. 1999년말 현재 3,058세대에 9,39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면소재지인 마지리 일대엔 상업도 상당히 발달해 있다. 지역경제는 역시 군인경제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3) 하류지역

하류지역엔 파주시의 3읍 8면 2동 가운데 문산읍 · 군내면 · 장단면 · 진동면 · 탄현면 · 파평면이 속한다. 이들 6개 읍면 가운데 진동면과 장단면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군사지역이며, 군내면의 경우 통일촌으로 불리는 백연리와 대성동으로 불리는 조산리에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이 지척에 있어 분단 현실이 피부로 와닿는 곳이 이 지역이며, 특히 탄현면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어 임진강 건너 북한 마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하류지역은 우리나라 안보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곳엔 한국전쟁 이전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었고, 지금도 중류나 상류에 비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편이다. 하류에서 잡히는 어종은 다양하지만, 어업 가구가 주로 잡는 것은 황복, 민물장어, 참게처럼 경제성이 있는 어종 중심이다.

하류지역의 현황을 임진강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 살펴보면, 우선 남쪽의 문산읍은 파주군의 칠정 · 마전 · 운천 · 신속면에 속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임진면이라 칭하게 되었고 1973년에 문산읍으로 승격하였다. 문산읍 선유리엔 미군부대가 주둔하여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다. 1999년말 현재 9,422세대에 28,44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파주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읍내에 거주하고 전체의 2/3 가량이 비농가일 만큼 도시화된 곳이다. 문산읍 일대는 임진강 유역의 대표적 평야지대이긴 하나, 저지대인 만큼 잦은 수해를 보는 곳이기도 하다.

탄현면은 옛 교하군에 속하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교하군 현내 · 신오리 · 탄포 · 청암면의 일부와 파주군 오리 · 자곡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탄현면이라 해서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999년말 현재 2,366세대에 7,1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임진강 연안으로 넓은 농경지가 자리하고 있어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파평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칠정면과 신속면 일부, 적성군 서면 일부를 병합하여 파평면이라 하여 파주군에 병합되었다. 1999년말 현재 1,977세대에 5,92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의 반 이

상이 농가이고 그중 30% 가량이 민통선 북방영농을 하고 있다. 전체면적의 64% 정도가 임야인 만큼 파주시에서 농경지가 많지 않은 곳에 속한다.

임진강 이북에는 군내면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본래 장단군 진현내면에 속했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북 · 진서 · 중서 · 진동면 일부와 개성군 동면 일부를 병합하여 군내면이라 칭하게 되었다. 1963년부터 파주군 임진면 관할이 되었다가 1979년 군내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군내면은 한국전쟁 후에도 한동안 민간인이 거주하지 못했던 곳으로, 1973년에 전략적으로 통일촌이 건설되면서 민간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1999년말 현재 155세대에 650명의 주민이 백연리와 조산리에 거주하고 있다.

〈표 53〉 하류지역 주요 현황

시군	읍면	면적 (㎢)	세대	인구(명)			행정리(동리수)
				계	남	여	
파주시	문산읍	47.35	9,442	28,443	14,201	14,242	*문산리(5), 선유리(6), 이천리(3), 당동리(3), 사목리(3), 마정리(4), 운천리(3), 장산리(2), 임진리(1), 내포리(4) *백연리, 조산리
	군내면	46.88	155	650	328	322	*백연리, 조산리
	탄현면	60.18	2,366	7,180	3,694	3,486	*축현리(3), 금승리(1), 낙하리(1), 문지리(1), 오금리(2), 금산리(2), 만우리(1), 대동리(1), 성동리(1), 법흥리(3), 갈현리(3)
	파평면	41.93	1,977	5,920	2,969	2,951	두포리(3), 율곡리(4), 마산리(2), *금파리(2), 늘노리(1), 덕천리(1), 장파리(2)

※ * 표시는 읍면소재지를 의미함.

제2절 표본조사마을 개관

1. 상류지역

1) 포천군 군내면 용정 2리

포천군 군내면 龍井里는 포천읍내에서 좌회전한 후 56번 국도와 325번 지방도의 갈림길에서 325번 지방도쪽으로 좌회전하면 나타나는 마을로, 325번 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구읍리와 마주보고 있다. 본래 용물, 요물, 용정 등으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변리와 서변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용정리로 칭하게 되었다.[6] 용정리는 3개 행정리로 이뤄져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건넌말, 복장동, 새말, 샘말, 십호, 양지말, 응달말, 풀무골, 서촌말, 요물동 등이 있다. 3개 리 가운데 조사지



〈사진 56〉 용정 2리 요물동 전경

6) 조사마을의 연혁에 대해선 『한국지명총람』 서울 · 경기 · 인천편(한글학회, 1996) 및 임진강 유역 3개 시군의 향토자료를 참고하였다.

는 용정 2리다. 용정 2리 입구엔 '용정 2리'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으나 워낙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

용정 2리의 자연마을은 크게 요물동과 복장동, 십호로 나뉜다. 그 가운데 중점 조사마을인 요물동은 용물 또는 용우물로도 불리는데, 용정리라는 지명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용정 2리 표지를 보고 마을 중앙으로 향하는 도중에 돌로 둘레를 쌓고 철망을 쳐놓은 우물이 하나 나타난다. 이것을 용우물〔龍井〕이라고 하며, 우물에서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주민들은 용우물에선 겨울이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옻이 올랐을 때도 이 우물물로 씻으면 낫는다고 말한다. 용우물을 농사에 이용하지는 않으나, 지금도 1년에 한번씩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청소를 하고 우물고사를 지낸다. 복장동의 경우는 예전에 복조리 장수들이 많이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십호는 열 채의 가옥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은 자유당정권이 몰락하면서 퇴직한 사람들이 1960년대에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용정 2리엔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총 80세대에 24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남자가 128명이고 여자가 113명으로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 연령별 인구분포는 대체로 고르지만, 4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성씨에 있어선 韓山李氏와 坡平尹氏가 대성을 이뤘으며, 한산이씨는 복장동,[7] 파평윤씨는 요물동에 주로 거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갔다가 귀향하지 않는 사람과 외지로 이주하는 세대가 늘면서 현재는 각성바지 마을이다. 파평윤씨가 대성을 이뤘던 요물동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24세대 가운데 파평윤씨는 다섯 세대에 불과하다.

〈표 54〉 용정 2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8]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80	241	128	113	241	47	41	53	28	51	21

용정 2리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근 명산리에 을미저수지가 있고 좌의리에 능모저수지가 있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은 없다. 요물동의 경우, 표고나 영지 같은 버섯재배 농가가 2세대가 있지만, 대부분 주민이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다. 예전부터 용정리 일대에서 나는 쌀은 인근에서도 최상으로 쳤고, 논이 대부분 고래논이었기 때문에 생산되는 쌀도 '고래쌀'로 불렸다고 한다.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은 직두리에 있는 청성초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청성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4년제 청성공립보통학교로 출발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포천읍내로 통학하며, 고등학생 가운데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은 하성북리에 있는 포천실업고등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 포천읍내와 가까운 까닭에 전반적인 교육을 읍내 교육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생활 역시 포천읍을 중심으로

7) 한산이씨의 경우 1934년 기준으로 용정리에 28세대가 거주했다(**抱川郡誌編纂委員會**, 『**抱川郡誌**』 **下**, 1997, 589쪽 표 참조).
8) 조사마을의 세대 및 인구현황은 『주민등록인구통계』(경기도, 2000), 619~638쪽에서 인용하였다.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생필품 구입도 포천읍내의 상점을 주로 이용하며, 5일장은 포천장(5 · 10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종교분포는 기독교도에 비해 불교도가 많은 편이다. 마을 안에 절이나 교회는 없고, 군내면 전체로는 교회가 8개임에 비해 사찰수가 9개로 사찰수가 다소 많다. 그리고 요물동에선 마을신앙이 전승되고 있는데, 매년 음력 9월 9일 밤에 요물동 뒤편 언덕에 있는 참나무 神木에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예전엔 소나무가 울창했었지만, 1960년대에 외지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이 파평 윤씨들 소유였던 이곳을 개간하면서부터 평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되었다고 한다. 요물동의 산신제는 본래 가을에 날을 잡아서 지내던 것이 가을철 가장 吉日인 중구로 정해서 지내게 된 것이라 한다.

마을조직을 살펴보면, 용정 2리엔 이중계와 추곡계가 조직되어 있다. 이중계는 혼례나 상례 등에 서로 일손을 돕는 조직으로, 적게는 40~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를 내야 계원이 될 수 있다. 이중계원이 되면 상례시 상여를 사용할 수 있고 계원들의 부역도 받을 수 있다. 계원이 喪을 당하면 나머지 계원들은 모두 쌀 한 되씩을 추렴하여 보탠다. 상여는 상여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40년이 넘은 낡은 것이기에 새로 구입할 예정이다. 추곡계는 1년에 여름과 가을에 두번 모임을 갖는데, 이때 이장과 반장, 영좌를 선출하고 있다. 영좌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 중에서 선출하며 이장이나 반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맡아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추곡계는 별다른 구속력을 갖는 조직은 아니며, 주민들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다.

□ 주요 제보자

○ 김옥한 (남, 1930년생, 농업, 용정리 95번지, 용정 2리 영좌)

○ 박춘식 (남, 1941년생, 농업, 용정리 184번지, 용정 2리 이장)

2) 포천군 영중면 거사 2리

포천읍에서 43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보면 백로주유원지가 나타나는데, 백로주유원지에서 포천천 건너 바라보이는 마을이 포천군 영중면 居士里다. 거사리는 본래 영평군 군내면 지역으로서 芝川居士 黃廷彧(1532~1607)이 살았으므로 거사울, 거시울 또는 거사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문리, 천변리 일부를 병합하여 거사리라 하고 포천군 영중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3개 행정리로 이뤄져 있으며, 남산뫼, 느락골, 백로주, 벌백로주, 안백로주, 은자말, 종지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거사리의 3개 리 가운데 조사지는 거사 2리다. 백로주유원지를 지나 양문리를 알리는 도로표지를 보고 좌회전해서 조금 가면 거사 2리를 알리는 표석이 보인다. 백로주유원지 못미쳐 있는 거사교를 통해서 거사 1리로 진입한 후에 마을 중앙의 상점에서 우회전해도 거사 2리로 갈 수 있다.

거사 2리는 크게 거시울, 종지골, 은자말로 이뤄지며, 거시울이 중심마을이다. 거시울은 거사울로도 불리는데, 거사리라는 지명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거시울은 지천거사로 불린 황정욱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나, 제보자 김만석씨는 '옛날에 거지가 물에 떠내려오다가 마을앞 개울에 있는 바위에 걸렸


〈사진 57〉 거사 2리 거시울 전경

다고 해서 그 바위를 거지바위라고 부르고, 그곳에 있는 여울을 거지울이라고 부르던 것이 거시울로 변했다'며 다르게 이야기하였다. 거시울엔 金海金氏 안경공파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제보자 김만석씨는 15대째 뿌리를 내리고 있다. 15대 조상의 묘가 김만석씨 댁 뒤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4일과 15일, 두 차례로 나눠 시제를 올리고 있다. 시제를 나눠 지내는 까닭은 외지로 나간 자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다. 종지골은 양문리에서 거사 2리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한 마을로, 골짜기의 모양이 종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은자말은 달리 숨은재 또는 隱峴으로도 불렸으며, 柳成龍(1542~1607)의 후손이 은거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9]

거사 2리엔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77세대에 23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118명, 여자가 119명으로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인다. 연령별 인구분포에서는 30대가 5명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61명으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30대 연령층이 적은 까닭은 생업문제로 인해 포천읍이나 외지로 전출한 경우가 많음에도 기인하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등록을 포천읍으로 이전해 놓은 것에 근본원인이 있다. 그리고 노년층이 많은 것에 비해 마을내에 노인정은 없으며, 마을회관도 워낙 낡아서 잘 이용하지 않고 잠겨있을 때가 많다. 노인들은 양문리의 노인정을 이용하지만, 그곳 역시 거리가 다소 멀어서 잘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한편 성씨분포를 보면, 앞서 말했듯이 이곳엔 김해김씨 안경공파가 집성촌을 이뤄왔다.[10] 지금도 거사리 전체에 30세대 정도가 거주하며 대성을 이루고 있다.

〈표 55〉 거사 2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77	237	118	119	237	47	52	5	34	38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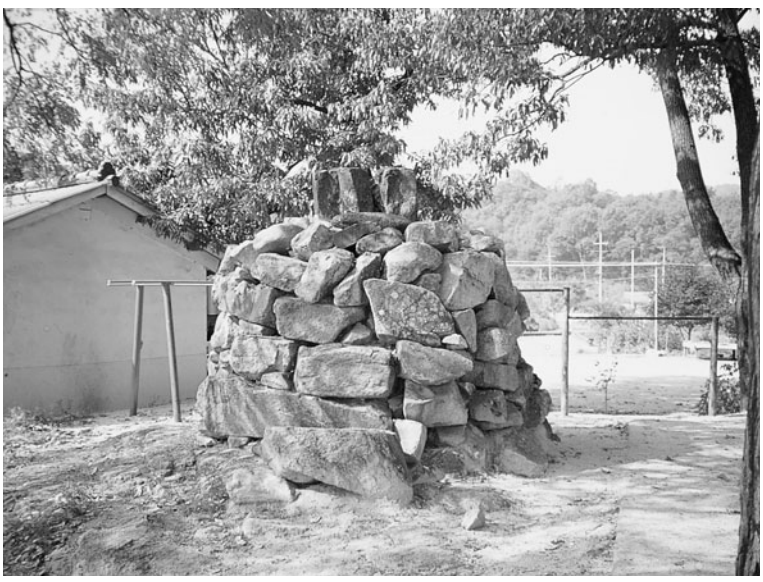
9) 京畿道, 『地名由來集』, 1987, 668쪽.

10) 거사리 전체로 보면, 1934년 기준으로 竹山朴氏가 30세대, 김해김씨가 17세대가 거주했고, 1953년의 경우 죽산박씨가 21세대, 김해김씨가 24세대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抱川郡誌編纂委員會, 『抱川郡誌』 上, 1997, 590쪽 및 593쪽 표 참조).

거사 2리 주민들의 생업을 보면, 주민 대부분은 농업, 그 중에서도 벼농사 중심이다. 기타 축산농가가 3세대, 포도재배 농가가 1세대 정도 있다. 논은 마을 앞으로, 밭은 마을 뒤 錦華峯 자락에 분포하고 있다. 예전엔 주로 산비탈을 일궈서 밭을 경작했고 논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보리가 잘되지 않아서 밀을 많이 심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벼농사 중심이며, 밭농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주변에 대규모 수리시설은 없으나 마을이 포천천과 영평천의 합류지점에 있어 농업용수는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마을앞 포천천은 오염이 심한 상태지만,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이면 개울에서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도 끓여먹을 정도로 맑았고 모래무지와 누치 등이 많이 잡혔다고 한다.

거사 2리에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銅像 제작 공장이 있으나 이곳에 근무하는 주민들은 없다. 그리고 마을 뒤편 금화봉엔 여러 곳에 채석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서 나는 화강석은 재질이 좋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가공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채석장을 드나드는 대형트럭의 출입이 빈번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석장으로 인해 민간신앙의 대상물들도 많이 사라졌다. 채석장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금화봉엔 '애기바위'와 '좀먹은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애기바위는 우뚝 솟은 바위에 조그만 바위가 올라앉은 모양으로, 솟은 바위를 '엄마바위', 조그만 바위를 '애기바위'라고 불렀다. 애기바위는 사람들의 장난으로 떨어져나갔고, 엄마바위는 채석장이 생기면서 없어져버렸다. 좀먹은 바위는 지나가던 여자가 돌을 던져서 바위 구멍에 얹히면 아들을 낳고 떨어지면 딸을 낳는다고 하여 기자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바위인데,[11] 이 역시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거사 2리엔 종교를 가진 주민은 많지 않다. 마을 내에 사찰이나 교회는 없고, 기독교도의 경우 인근 양문리나 포천읍내의 교회에 다닌다. 민간신앙과 관련해서는 거시울에선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매년 정월 열나흘 밤에 '천제사'라는 마을신앙을 행했다. 제를 지내는 곳은 모두 세 곳으로, 먼저 포천천변의 천제사바위에서 제를 지낸 후 마을 내에 있는 병풍바위에서 지내고, 다시 금화봉 자락에 있는 물푸레나무에 제를 지냈다고 한다. 천제사바위 있는 곳엔 이 마을의 바깥축동이 자리하고 있다. 안축동은 마을회관 옆 소나무숲이며, 이곳엔 체육시설과 주민들이 '항아탑



〈사진 58〉 거사 2리 거시울의 돌탑

11) 『抱川郡誌』(抱川郡誌編纂委員會, 1984), 638쪽에선 '좀먹은바위'를 '알바위' 또는 '구멍바위'라고 하면서 아기를 갖길 원하는 여인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뾰족한 돌멩이를 구멍에 맞추고 비비면서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라 부르는 돌탑이 있다. 돌탑은 높이가 약 1.9m, 하단부 둘레가 7m 정도에 탑 상부에 두 개의 입석이 있는 형태다. 허물어졌던 것을 10년 전쯤 다시 복원을 해서 쌓았다고 하는데, 마을신앙이나 개인치성의 대상물은 아니다. 이 탑은 풍수상 허한 곳을 보충하려는 裨補觀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2)]

학생들의 교육은 초등학생의 경우엔 영평리의 영평초등학교와 금주리에 있는 금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본래 영평초등학교로 진학해야 하지만, 금주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줄면서 이곳 초등학생 중 일부가 금주초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는 양문리의 영중중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대개 포천읍내의 포천고등학교로 진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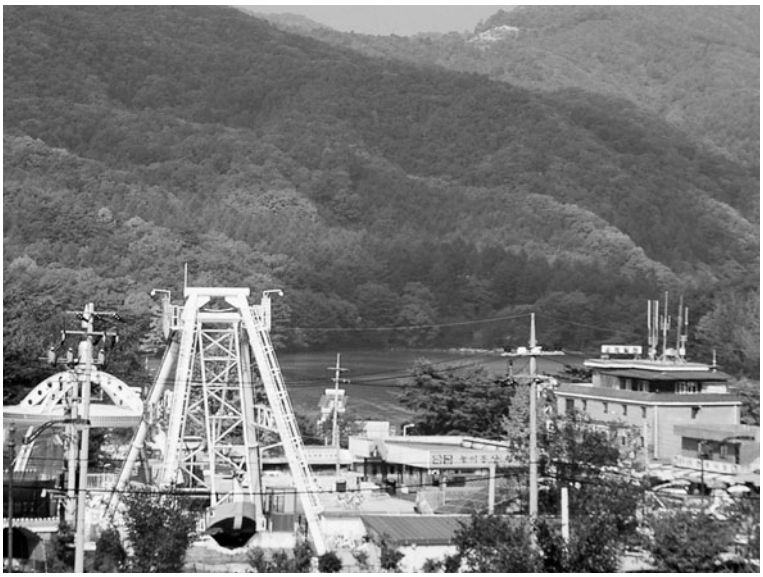
포천읍내에서 가깝기에 거사 2리의 생활권 역시 포천읍을 중심으로 한다. 생필품 구입에 있어서는 과거엔 포천장을 주로 이용했으나, 현재는 교통이 발달한 덕분에 아무 때나 나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포천장은 달리 신읍장으로도 불린다.

마을내 사회조직으로는 혼상례 등을 위해 이중계가 조직되어 있다. 이중계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 상여도 있으나 요즘엔 상이 났다고 해도 상여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한다.

□ 주요 제보자

○ 김만석 (남, 1931년생, 농업, 거사리 597-4번지)

○ 유옥례 (여, 1935년생, 농업, 거사리 597-4번지, 김만석씨 부인으로 포천군 신북면 고이리에서 20세에 시집옴)



〈사진 59〉 산정리 국민관광지 전경

3)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포천군 영북면 山井里는 포천읍에서 43번 국도를 따라 북으로 향하다가 문암리와 운천리의 경계인 문암교에서 우회전해서 316번 지방도를 따라 가다보면 나타난다. 본래 영평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산안, 여우고개, 정항동, 다대울을 병합하여 산안과 정항의 이름을 따서 산정리라 하여 포천군 영북

12) 『抱川郡誌』(1984), 635쪽엔 본래 두 개의 돌탑이 있었고, 거사 2리가 지형상 青龍白虎가 얕아서 좋지 않으므로 탑을 쌓아야 좋다는 지관의 말에 따라 축조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보자 김만석씨는 “그게 아마 힘깨나 쓰는 사람. 항아장수라고 왜 있잖아요. 그 의미를 따서 아마. 그 집 대대로 장수가 났다고 해서 이제 못낳게 하려고 탑을 쌓았다고 옛날말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라고 제보하였다.

면에 편입되었다. 광복 후에는 38선 이북이기에 북한에 속했으며,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다시 포천군 관할이 되었다. 산정리는 표고 약 922m의 鳴聲山과 733m 가량의 觀音山으로 이어지는 산지를 따라 이동면과 일동면, 강원도 철원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산간지역이기에 각 골짜기마다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산안(산내동), 사실골(사신동), 우물목(정항동), 두문동 등의 여러 자연마을이 있다.



〈사진 60〉 산정리 하동 전경

산정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산정호수국민관광지로 유명하다. 산정호수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영북면 토지개량조합저수지로 축조된 인공호수이며, 영북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되었다. 산정호수는 한국전쟁 전엔 산안보로도 불렸다고 하며, 제보자 김수동씨에게서 "산정호수를 예전엔 산안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뭐, 소위 말하는 전설 얘기가 여기도 있어. 보를 막구 나서 용이 될라 그러다가 부정을 타가지고 용이 안되가지고 이무기가 됐다. 이무기가 됐는데, 이 둑에다가 소를 매면은 이무기가 소를 끌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라고 산안보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산정호수 일대는 1970년대의 관광지개발정책에 따라 1977년 3월 31일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호수의 만수면적은 7만 8천평, 수심은 23.5m, 둘레는 2.1km 정도 된다.[13]

산정리는 1개 행정리에 7개 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중 국민관광지에는 하동으로 불리는 2반과 상동으로 불리는 5반, 그리고 산안으로 불리는 6반의 일부가 속해있다. 국민관광지의 중심 마을은 상동이며, 이곳엔 각종 음식점과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상동 주차장에선 해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 축제는 포천군의 대표적 지역축제로 2000년도엔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4회째를 맞이했다. 산정리의 여러 자연마을 가운데 중점 조사마을은 하동이며, 하동은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내의 첫 번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관광지 초입의 주차매표소가 있는 곳이고 한화콘도가 있기에 찾기는 어렵지 않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낮에는 주차장으로, 저녁엔 자동차극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동 뒤로는 표고 약 294m의 望武峯이 있다. 망무봉은 망봉이라고도 부르는데, 궁예가 왕건에게 패하여 명성산에 은신할 적에 왕건 군사의 동정을 살피던 봉우리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망무봉처럼 명성산 주변엔 궁예와 왕건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전해온다. 예를 들면, 명성

13) 『抱川郡誌』 上(1997), 841쪽.

산은 달리 울음산이라고 하는데, '왕건이 정변을 일으키자 부하들과 도망친 궁예는 명성산에 은거하며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왕건의 군대가 산을 포위하자 궁예의 군사들은 절벽에 떨어져 죽고 궁예는 간신히 도망을 쳤다. 궁예는 도망쳐간 곳에서 분노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도망하지 못한 군사와 일족들이 온 산이 떠나갈 만큼 울었다고 해서 울음산이라고 한다' 는 것이다.[14]

산정리는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해 있었다. 경기도 북부가 그렇듯, 이곳 역시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한국전쟁 때는 해 넘어가면 빨치산이나 북한군이 들어오고, 날이 밝으면 유엔군이 들어올 만큼 전쟁의 피해가 심해서 집이란 집은 하나도 남지 않았을 정도라고 한다. 산간지역이기에 생활 역시 궁핍했다. 생업은 주민 모두가 농업에 종사했으나, 워낙 산골이라서 논은 구경조차 쉽지 않았다. 주로 재배하던 작물은 기장, 수수, 조, 밀 등이었고, 삼[麻]도 많이 재배했다고 한다. 중심마을이었던 산안의 경우엔 한국전쟁 전까지는 소달구지도 다니지 못할 만큼 외진 곳이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10여 세대가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고 한다. 산정리엔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262세대에 732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주민 가운데 남자가 374명, 여자가 358명이다. 관광지인 까닭에 전체 인구에서 토박이의 비율은 높지 않으며, 특히 관광지내엔 토박이가 거의 없다.

〈표 56〉 산정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262	732	374	358	732	117	161	114	107	147	86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상권이 형성되고 외지인의 전입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생업도 변화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주민 대부분이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중점 조사마을인 하동 역시 그러하며, 주차장 양편으로 음식점들이 배치되어 있다. 하동엔 모두 40세대 남짓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은 대체로 영북면소재지인 운천리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시장을 이용한다. 운천리엔 매 4일과 9일에 운천리장이 개설되고 있다.

산정리 주민들의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산정리의 종교시설로는 대한불교원효종 소속의 慈仁寺를 들 수 있다. 자인사는 상동에서 산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으며, 산정리 71번지에 속한다. 본래 경기도 장천군 율서면 대범리 출신의 김상수(법명 혜공)라는 스님이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창건했다가 1965년에 이곳으로 사찰을 옮겼다고 한다.[15] 한편 산정리엔 젊은 층이 많고 생업이 상업 중심임에도 마을신앙이 전승되고 있는데, 하동과 상동, 산안에서 매년 중구에 각기 산신제를 지낸다. 중점 조사마을인 하동의 경우 음력 9월 9일 오후에 제를 지내고, 상동과 산안은 8일 밤에 제를 지낸다. 하동 산신제터는 마을을 감싸고 있

14) 명성산과 궁예에 얽힌 전설은 『抱川郡誌』(1984), 728~729쪽에 소개되어 있다.
15) 『抱川郡誌』 上(1997), 1121쪽.

는 망무봉 중턱에 있으며, 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다.

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운천리의 영북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거리가 다소 멀기에 학교측에서 학교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몇 해 전까진 산정리 소재의 산호초등학교에 다녔으나, 산호초등학교는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주민이 늘고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폐교되었다. 중학교는 운천리의 영북중학교로, 고등학교는 운천리의 영북종합고등학교나 포천읍내의 포천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마을조직의 경우 번영회 등의 조직 외에 상포계가 조직되어 있다. 상포계엔 현재 60여 명의 주민이 계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상포계 소유의 상여도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상여는 12명이 멘다.

□ 주요 제보자

○ 김수동 (남, 1935년생, 상업, 산정리 451-15번지, 산정리 이장,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가 고향으로 강원식당 운영)

○ 이기영 (남, 1956년생, 상업, 산정리 451-4번지, 깊은산골식당 운영)

4) 포천군 관인면 중 3리



〈사진 61〉 중 3리 윗심재 전경

포천군 관인면 中里는 연천군 전곡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창수면 오가리삼거리에서 325번 지방도쪽으로 좌회전한 후 영로교를 지나 3km 가량 가면 나타난다. 영로교 부근은 깊은 계곡과 빼어난 경치를 지니고 있다. 포천읍에서 찾아가려면 창수면 양문리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가 오가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면 된다. 중리는 본래 강원도 철원군 관인면 지역으로서 관인면의 중앙이 되므로 중말 또는 중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중하리를 병합하여 중리라 하였다. 1909년부터 1983년까지 연천군에 속했으나 1983년에 관인면이 포천군에 편입됨에 따라 포천군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3개 행정리로 이뤄져 있으며, 늘거리(판거리), 문배뜰, 교동, 신흥동, 약수동, 심재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중리의 3개 리 가운데 조사지는 중 3리다.

중 3리는 표고 약 877m의 地藏山에서 남쪽의 640m 가량의 種子山으로 이어지는 산지를 따라 마을이

자리하고, 도로 역시 남북으로 지나고 있어서 가옥 배치는 동향을 한 경우가 많다. 가옥들은 표고 120~130m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중 3리는 통칭하여 심재로 불리나 내부적으로는 약수동과 윗심재, 아랫심재로 나뉜다. 약수동은 영로교를 건넌 후 늘거리를 지나서 나타나는 마을로서, 약수동이란 지명은 옛날부터 약수가 난 데서 유래했다. 약수동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중 3리 마을회관이 있는 아랫심재가 나타나고, 아랫심재에서 200m 떨어진 거리에 윗심재가 있다. 심재는 深洞이라고도 하며, 사방으로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심재는 본래 중 1리에 속했고 한 마을이었으나 인구가 늘면서 윗심재와 아랫심재로 나뉘게 되었다. 현재는 윗심재, 아랫심재라고 부르기보다는 상심과 하심으로 부르고 있다. 중 3리 3개 자연마을 가운데 중점 조사마을은 윗심재다. 중 3리 마을회관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 200m 가량 가면 좌측편으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윗심재이다. 마을 입구 쪽으로 축동이 위치해 있어 얼핏보아서는 지나치기 쉽다. 도로변에 '중 1리 상심'이라고 쓰여진 표석도 있으나, 글씨는 중 3리가 중 1리에서 분리된 후에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중 3리엔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87세대에 24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자가 127명, 여자가 114명이다. 성씨에 있어선 중점 조사마을인 윗심재의 경우 한양조씨 양절공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 역시 전쟁의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기에 피난 갔다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은 전체 17세대 중 3세대만이 거주하고 있다.

〈표 57〉 중 3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68	241	127	114	241	22	59	33	43	57	27

중 3리 주민들의 생업은 몇 세대를 제외하면 모두 농업, 그 중에서도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축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도 한 세대가 있다. 325번 지방도 건너편으로 논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예전엔 대부분 버려진 땅이었다. 제보자 이정순씨가 시집올 당시엔 마을 바로 앞에만 일부 논이 있고 개울 쪽으로는 모두 버려진 땅이었다고 하며, 논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지난 후에야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68년도에 이곳으로 이주해왔다는 김상용씨도 자신이 이주해왔을 때도 늘거리에서나 양수기로 한탄강의 물을 끌어다가 벼를 일부 재배할 정도였다고 한다. 마을 앞으로 한탄강이 지나고 있으나 농경지와 표고차가 크고 마을 안으로도 변변한 계곡조차 없어서 수리시설이 없던 시절엔 벼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보리, 밀, 귀리, 조 등을 주로 재배했다고 하며, 추수가 끝나도 조밥을 먹기 일쑤일 만큼 빈곤했다고 한다. 논이라도 있는 집에서나 조에 쌀을 섞어서 밥을 지었지만, 대개가 조에 팥을 넣어서 먹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벼농사를 많이 짓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 중 1리에 중리저수지가 축조되면서부터다.

주민들은 마을 앞 한탄강을 '용수께비개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게 된 까닭에 대해 이정순씨는

“옛날에 이무기가 용이 되어 올라갈라고 도를 닦았는데, 사람 눈에 띠여서 하늘로 못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용수께비라 그러는 거야, 원래는 사람 눈에 띠면 안되는데, 띠었기때매래 도를 못 닦아서 하늘로 못 올라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뱀이 크다른 게 있대, 용수에. 그걸 가지고 이무기라 그러대요”라고 제보하기도 했다. 마을에 물이 많지 않아서 빨래를 할 때도 용수께비개울까지 가서 빨래를 했으며, 용수께비는 겨울철에 빨래를 해도 손이 차갑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안에 우물 두 개가 있긴 했지만, 물이 적어서 식수로만 사용했다. 그리고 강에서 아이들이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월이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선 액막이를 위해서 밥을 창호지에 싼 후 용소에 가서 풀어놓았다고 한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은 중 1리의 중리초등학교에 진학한다. 예전엔 늘거리에도 분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교가 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면소재지인 탄동리의 관인중학교와 관인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종교의 경우 아직까지는 불교도가 기독교도에 비해 많은 편이다. 기독교도의 경우엔 중 1리에 있는 중리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마을내 종교시설로는 윗심재에 3년전쯤에 생긴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의 地藏寺라는 절이 있으나, 이 절에 다니는 주민은 거의 없다. 한편 윗심재에선 해마다 정월에 마을 입구에서 ‘노제’라는 마을신앙을 행하고 있다. 노제는 산짐승이 마을의 개를 잡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내게 되었으며, 노제를 지낸 후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졌다고 한다. 제육으로는 개를 사용하며, 제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개머리는 적당한 곳을 찾아서 보이지 않게 묻는다.

중 1리 주민들의 생활권은 행정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을 중심으로 한다. 생필품 구입도 포천장보다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화지리장(5 · 10일)이나 영북면 운천장을 이용했지만, 요즘은 농협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관인면 소재지인 탄동리에도 2일과 7일에 장이 서는데, 장이 서다가 없어졌던 것이 최근에 다시 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규모가 워낙 적기에 이용하는 주민은 많지 않다.

□ 주요 제보자

○ 조언형 (남, 1928년생, 농업, 중리 733번지)
○ 이정순 (여, 1928년생, 농업, 중리 733번지, 조언형씨 부인으로 관인면 삼율리에서 18세에 시집옴)
○ 김상용 (남, 1924년생, 농업, 중리 759번지, 중 3리 노인회장, 강원도 철원군이 고향으로 1968년에 이주해옴)

5) 연천군 중면 삼곶리

연천군 중면 三串里는 임진강 본류의 최북단에 위치한 마을 가운데 하나다. 삼곶리에서 임진강을 따라 더 올라가면 남한쪽 최상류에 위치한 횡산리가 있지만, 횡산리는 위도상으론 삼곶리보다 다소 아래에 위치한다. 연천군 전곡읍에서 322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군남면 진상리에서 324번 지방도를 따라 북쪽으로 7km 가량 가면 군남면 옥계리가 나타나고, 이곳에서 중면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보고 좌회전해서 옥계


〈사진 62〉 삼곶리 전경

리와 삼곶리의 경계인 표고 205m의 옥녀봉을 지나 2km 가량 가면 삼곶리가 나타난다. 옥녀봉은 이곳에 있던 연못에 선녀가 내려와 놀다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삼곶리는 중면 마거리쪽에서 내려오는 마거천과 임진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하며, 구석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산포지와 경기도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된 '돌무지무덤'이 있는 곳이다.

삼곶리는 본래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상삼곶리와 하삼곶리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다시 삼곶리라 하여 중면에 편입되었다.[16]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엔 삼관리로 불렀다고도 하는데, 이는 串이 '관'이란 음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삼곶리는 '삼꼬지' 또는 '삼구지'로도 불리며, 이는 임진강쪽으로 세 개의 산부리가 뻗어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출입영농만 허용되던 민통선지역이었다가 1980년 1월 1일자로 주민 거주가 허용되었다. 현재는 1개 자연마을로 이뤄져 있지만, 한국전쟁 전에는 김촌말, 최촌말, 동촌말, 양촌말, 점말, 고미포 등의 자연마을에 모두 150여 호의 가옥이 있었다고 한다.[17] 김촌말은 김씨들이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최촌말은 慶州崔氏 화숙공파 후손들이 많이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삼곶리 가옥들이 위치한 곳이다. 동촌말은 삼곶리의 가장 동쪽에 있다 해서 그렇게 불렀고, 양촌말은 淸州梁氏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점말은 일제강점기까지도 옹기나 질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여기서 나온 옹기나 그릇은 고미포에서 임진강을 거슬러온 상인들과 거래되었다. 을축년(1925) 홍수 이전까지 고미포는 면소재지와 도축장 등이 있을 만큼 큰 마을이었으며 장도 섰었다고 한다. 고미포장에선 중면 일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임진강을 거슬러 온 새우젓배나 소금배들과 물물교환이 많이 이뤄졌다.

삼곶리는 현재 1개 행정리에 1개 반으로 이뤄져 있다.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39세대에 14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남성이 64명, 여성이 7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1980년 주민 이주가 허용될 당시에 입주한 세대는 모두 20세대로, 그 중 토박이는 5세대가 입주하였다. 현재는 1가구가 외지로 이주했

16) 漣川文化院, 『鄕土史料集』, 1995, 389쪽.

17)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輿地圖書』에는 삼곶리엔 53호에 140명의 주민이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漣川郡誌編纂委員會, 『漣川郡誌』 上, 2000, 130쪽 표 참조).

기에 토박이는 4세대에 불과하고, 그 중 3세대가 경주최씨 화숙공파 후손들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경주최씨 화숙공파는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이주해와서 19대째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다. 한편 마을내의 가옥들도 몇 채를 제외하곤 이주 당시에 지은 3칸 규모의 집들로, 매우 낡은 상태다. 주민들 말로는 새로 집을 짓는 데 대한 규제는 없으나 경제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몇 세대가 새로 입주하기는 했지만, 대개가 군인들이기에 민간인의 전출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58〉 삼곶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39	140	64	76	140	39	30	21	17	16	17

삼곶리엔 곳곳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곳곳에서 지뢰매설을 알리는 위험표지판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앞을 흐르는 임진강 역시 군사적인 이유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어업허가를 받은 주민 외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업은 군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업이며, 농경지는 임진강과 마을 사이에 분포한다. 중면 전체로 보면 밭이 많으나, 마을 내부로만 보면 논이 많고 밭은 적은 편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마을 앞으로만 논이 일부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 밭이었으며, 주로 조, 보리, 밀을 재배했다. 현재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마을 안에 있는 논의 경우엔 농사에 제약이 따르지는 않으나, 마을을 벗어난 논이나 밭을 경작할 때는 제약이 따른다. 기타로 축산업에 1세대가 종사하고 특용작물재배와 관련해서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가구는 1세대가 있는데, 제보자 최기중씨가 그렇다. 최기중씨는 '필승호'라는 이름의 모터보트와 2척의 목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봄과 여름에 어로활동을 했으나 최근 참게를 잡으면서부터 가을에도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잉어와 누치, 빠가사리라고 하며, 잡은 고기는 중간도매상이 직접 와서 수거해간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은 중면에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군남면 옥계리의 옥계초등학교로 진학한다. 중학교는 군남면소재지인 진상리에 군남중학교가 있으나 거리가 멀어서 연천읍의 연천중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 역시 연천읍의 연천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종교분포를 보면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도가 많은 편이다. 주로 마을 앞 군부대내에 있는 교회에 다닌다. 마을신앙의 경우 일제강점기까지 부군굿을 했었다. 마을회관 옆에서 부군굿을 했으나, 부군굿은 일제강점기 후반에 미신이라 해서 못하게 하면서 중단되었다. 부군굿터엔 물푸레나무와 회나무 등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 축동 역할을 했었고, 정월 대보름 달맞이라든지 마을의 각종 행사가 열렸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연천읍을 중심으로 한다. 생필품 구입도 대부분 매 2일과 7일에 서는 연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끝으로 마을의 사회조직을 보면, 삼곶리는 1980년에 형성되어 주민수가 적고 단결력도 다소 떨어지기에 상포계와 같은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상이 나서 상여가 필요하거나 하면 인근 횡산리나 옥계리에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다.

□ 주요 제보자

○ 최주식 (남, 1932년생, 농업, 삼곶리 365번지)

○ 최광식 (남, 1924년생, 농업, 삼곶리 352번지, 삼곶리 노인회장)

○ 최기중 (남, 1944년생, 농업, 삼곶리 351-1번지, 삼곶리 이장)

2. 중류지역

1)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사진 63〉 선곡리 개무더미 전경

연천군 군남면 仙谷里는 전곡읍에서 322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군남면 진상리에서 324번 지방도로 우회전한 후 면소재지인 삼거리를 지나면 나타난다. 선곡리는 본래 연천현 남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세곡리, 선유동과 옥계리, 하심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선유와 세곡의 이름을 따서 선곡리라 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다. 선곡리 앞으로는 임진강이 흐르며, 선곡리 840번지 일대에선 구석기 · 신석기 ·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가 발견되었다. 선곡리 뒤편으로는 표고 327.8m의 君子山이 자리하고 있어 연천읍과 경계를 이루며, 군자산은 연천읍의 主山이자 군자산성황제로 유명하다.

선곡리의 자연마을들은 군자산의 여러 골을 따라 분포하며, 개무더미와 葛墓洞, 뱀바리, 가니골, 선유동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중점 조사마을은 개무더미다. 개무더미는 선곡리의 중심마을로, 지명은 오랑캐가 묻힌 무덤을 '개무덤'으로 불렀던 데서 유래하였다. 개무덤은 겉은 흙이고 안은 돌로 광중을 해놓은 형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라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갈묘동은 갈씨들의 묘가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밀양박씨 15호가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18] 뱀바리는 蛇足洞으로도 불리는데, 옥계리의 옥녀봉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이곳에 와서 뱀의 발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한국전쟁전에

18) 『輿地圖書』에는 갈묘동에 19호에 33명의 주민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漣川郡誌』 上, 2000, 130쪽 표 참조).

는 전주이씨 20여 호가 집성촌을 이뤘다. 細谷洞으로도 불리는 '가니골'은 한국전쟁 전에는 東萊鄭氏 집성촌이었다.[19] 仙遊洞은 군자산 산신이 내려와 바둑을 두며 노닐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달리 풍수적으로 선녀가 춤을 추는 형국인 仙女舞袖形에 속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20]

〈표 59〉 선곡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161	467	252	215	467	51	95	55	56	113	97

선곡리는 현재 1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민등록상 1999년말 기준으로 161세대에 46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주민 중 남자가 252명, 여자가 215명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연령에서는 50세 이상 중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며, 마을 앞 임진강쪽으로 논이 분포하고 있다. 밭은 군자산 기슭을 따라 분포한다. 지금이야 논이 많이 늘었지만, 일제강점기만 해도 마을 앞이 모두 뽕나무밭이었다고 한다. 뽕나무밭은 일본인 소유였다. 지금은 뽕나무를 하나도 볼 수 없는데, 광복 후에 주민들이 모두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임진강변엔 연천군의 대표적인 낚시터 가운데 하나인 조개못이라는 연못이 있다. 조개못은 면적이 약 4,200㎡로 민물조개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민물조개 외에 붕어와 잉어도 많이 잡힌다. 무당의 영향력이 크던 시절엔 조개못에서 '물굿'을 많이 했는데, 물굿은 가족이 물에 빠져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에 웬 만한 집이라면 다들 한번씩은 했다고 한다.

선곡리엔 예전부터 나루터가 없었으나, 임진강을 거슬러온 소금배나 새우젓배가 다니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1914년 경원선 개통 이전은 물론이고 개통된 후에도 소금배와 새우젓배가 다녔는데, '늘배'라고 해서 폭이 좁고 길이가 긴 배들이 주로 다녔다. 배들은 군내면 삼거리와 왕징면 북삼리를 잇는 듬밭나루에 닿았는데, 새우젓배가 오면 가세가 넉넉한 집에서는 한독씩 사다가 먹었고,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몇 집이 힘을 합해서 한독을 사다가 나눠먹었다. 듬밭나루는 일대에서 가장 큰 나루터로, 조선시대 澄波渡가 이 나루터였다. 선곡리 주민들은 경원선이 개통된 이후로는 강을 이용하기보다는 철도를 이용하는 일이 잦았는데, 군자산을 넘어서 연천읍내까지 가서 기차를 탔다. 생필품 구입도 주로 연천장을 이용했으나, 지금은 전곡장을 많이 이용한다.

선곡리의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기독교나 천주교보다는 불교와 무속을 믿는 주민이 많다. 종교시설로는 선곡장로교회가 있으나 신도수는 30여 명에 불과하다. 군자산 자락에 위치해서인지 예전부터 무속이 강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예나 지금이나 치성을 드릴 경우엔 군자산에 가서 굿을 한다. 한편 일제강점

19) 漣川文化院, 앞의 책, 158~160쪽.
20) 『漣川郡誌』 上(2000), 142쪽 표 참조.

기엔 개무더미에 있는 부군나무에서 부군굿도 했었다. 부군굿은 마을에 자꾸 불이 나서 무당에게 물어보니 '부군굿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고 해서 하게 되었지만, 일제강점기라서 크게 놀지는 못했다고 한다. 액막이를 할 때도 짚으로 각시(제웅)를 만들어 부군나무 앞에 버렸다. 부군나무는 참나무였으나 지금은 사라져버렸고, 현재 버스정류장 앞 가게터가 옛 부군나무 있던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물때면 뱀바리 서쪽 임진강 안에 있는 용바위에서 기우제도 지냈다고 한다. 용바위는 용이 나왔고 생김새도 용머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듬밭나루를 지난 배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용바위에 걸려 파손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용바위 기우제는 날이 가물면 결혼한 여자들이 키를 하나씩 들고서 용바위를 둘러싸고 물을 까불러 뿌리는 식이었으며 1960년대까지도 전승되었다.

교육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은 옥계리의 옥계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은 군남중학교, 고등학생은 연천종합고등학교에 진학한다.

□ 주요 제보자

○ 김초동 (여, 1912년생, 농업, 선곡리 527-3번지, 경기도 여주군이 고향으로 17세에 경기도 광주로 시집을 갔다가 23세에 선곡리로 이주해옴)

○ 안홍표 (남, 1945년생, 농업, 선곡리 527-3번지, 선곡리 이장, 김초동씨 아들)

○ 박희서 (남, 1915년생, 농업, 선곡리 523-21번지, 경기도 파주시가 고향이며 10대 후반에 선곡리로 이주해옴)

2)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연천군 전곡읍 薪畓里는 지금은 사라진 연천댐에 접한 마을로서 포천군 청산면 궁평리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마을이다. 전곡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포천군 방면으로 4km 가량 가면 청산면 궁평리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청산우체국쪽으로 좌회전하면 군부대가 나타난다. 군부대 조금 못미쳐 궁평 2리 주민들이 매년 정월 보름에 장승제를 행하는 장승 2기가 서있다. 장승을 지나 조금 더 가면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지점에 일명 잠수교라는 교량이 있고, 이를 건너면 신답리다. 얼마



〈사진 64〉 신답리 쇠촌 전경

전까지 연천댐을 통해서 왕래했지만, 현재 댐이 사라지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중이다.

신답리는 본래 양주군 영근면(현 전곡읍) 지역으로 한탄강이 둘러 있어서 섶과 논이 많으므로 섶논 또는 신답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가마굴, 개안, 회춘리, 새말, 붉은뒤미, 아우라지를 병합하여 신답리라 해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새말로 불리던 곳엔 공병부대와 군부대사격장이 있어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잦은 편이다. 현재 자연마을로는 쇠촌과 아우라지 등이 있다. 쇠촌은 신답리의 중심으로, 회춘리로도 불린다. 쇠촌은 청산면 장탄리에 있다는 도가니혈(穴)과 관련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옛날 어떤 풍수가가 장탄리 능안이란 곳에서 주위를 보니 앞쪽의 산은 풀무와 같고, 남쪽의 숯골은 숯가마, 동북쪽의 쇠촌이는 쇠빛깔이 나고, 북쪽의 연천읍 고문리 느즌모루는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리는 모루 형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쇠를 녹일 수 있는 도가니혈을 찾기 위해 능안을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21] 쇠촌엔 한국전쟁 전에 약 30호가 거주했다고 한다. 아우라지는 임진강과 영평천이 아우르며 흐리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이곳엔 매운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몇 있다. 아우라지 부근에선 청동기시대 유물과 고구려고분으로 추정되는 석실분이 발견되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거주해왔음을 알려준다.

〈표 60〉 신답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116	350	176	174	350	36	90	45	46	69	64

신답리는 1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면적은 4.05㎢이다.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116세대에 3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남자가 176명, 여자가 174명으로 남녀비율은 거의 같다. 연령에 있어선 15~29세 사이의 젊은 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편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64명이 있으나 이들 중 토박이는 거의 생존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생업은 벼농사 중심이며, 마을 내에 정미소도 하나 있다. 신답리는 강 수면과 표고차가 상당히 커서 1960년대까지는 논농사는 엄두도 못내었고 버려진 땅이 많았다. 제보자 오태근씨가 이주할 당시만 하더라도 밭농사를 짓는 외에는 많은 땅이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수리안전답이 되었고, 1984년에 연천댐이 준공되면서 농업용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연천댐이 해체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다소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주민은 댐이 사라지면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어떤 주민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경우엔 손님들이 줄어들어 다소 불만을 갖고도 있다. 논농사 외에 특용작물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20세대 가량 되며,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1세대 정도씩 있다. 또한 신답리는 연천군에서도 포도재배가 활발한 지역

21) 『漣川郡誌』 上(2000) 543쪽.


〈사진 65〉 신답리 아우라지 전경

으로, 10세대 이상이 포도작목반을 구성하여 포도재배에 종사하고 있다.

신답리는 임진강과 영평천이 합류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을 업으로 하는 집은 없고, 매운탕을 파는 음식점이 몇 있을 뿐이다. 매운탕집이 있는 아루라지엔 교량이 생기기 전까지 나루터가 있었다. 나루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통현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했었기에 주민들 대부분이 나루터를 이용했다고 한다. 나룻배는 강 건너 궁평리 주민이 운영했으며, 뱃삯으로 일년에 쌀 한말씩을 걷었다. 나루터를 이용해서 외지로 나가는 경우는 대개 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전곡장(4 · 9일)을 주로 이용한다. 생활권 역시 전곡읍을 중심으로 한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은 연천읍 고문 1리의 고문초등학교에 다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연천읍 현가리의 연천중학교와 연천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한다. 마을내에 종교시설로는 금촌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본래 마을에 주둔해 있는 공병부대에 있던 군인교회였다가 민간교회가 된 경우이며, 신도수는 40여 명 가량 된다. 한편 신답리 주민들은 매년 정월 열나흘 밤에 산치성을 드리고 있다. 산치성을 드리는 곳은 신답정미소 뒤편의 제보자 오태근씨댁 옆이며, 제당은 터주가리 형태다.

□ 주요 제보자

○ 오태근 (남, 1927년생, 신답리 90-5번지, 신답리 노인회장, 경기도 용인시가 고향으로 1956년에 이주해옴)

3)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연천군 미산면 東梨里는 사적 제223호로 지정된 미산면 아미리의 숭의전에서 멀지 않은 마을이다. 전곡읍에서 322번 지방도를 따라 백학면 방면으로 향하다가 마전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폐교된 학교가 나타나고, 이를 지나면 군부대가 보인다. 군부대 앞으로 보이는 마을이 동이리다. 동이리는 본래 마전군 군내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부리와 이동리를 병합하여 동이리라 해서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파주시쪽에서 가려면 문산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전곡방향으로 향하다 적성면 어유지


〈사진 66〉 동이리 큰배울 전경

리에서 좌회전하여 숭의전 방향으로 가면 된다.

동이리는 1개 행정리에 3개반으로 이뤄지며, 면적은 4.45㎢이다. 자연마을로는 큰배울이 있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배울'이란 마을에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지형이 돛단배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달리 '머리'나 '뫼'의 뜻으로 쓰였던 '밭'이 변한 '배'가 골짜기를 뜻하는 '울'과 합쳐진 이름으로, 산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22] 동이리는 임진강에 접해있지만,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강은 보이지 않는다. 마을 동북쪽으로는 표고 195.7m의 金窟山이 있어 동이리와 우정리의 경계를 이룬다. 일제강점기엔 금굴이라는 이름 때문에 금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하여 금광과 철광이 개발되었는데, 제보자들 말로는 금은 나오지 않고 은이 조금 나오다 말았다 한다. 금굴산은 채굴하다만 굴로 인해 산 내부가 텅 비었다고 해서 空窟山으로도 불린다.

동이리는 마전군 당시 가장 큰 마을이었다고 하는 데 비해서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49세대에 145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조그만 마을이다. 주민 가운데 남자가 77명, 여자가 68명으로 남자의 비율이 조금 높다. 한국전쟁 전엔 동이리 전체에 100여 호 정도가 있었고, 그 중 昌原金氏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대성이었다고 한다.[23] 지금도 성씨 분포에서 창원 김씨들이 많은 편이며, 한국전쟁이 끝난 뒤 창원 김씨 문중의 사위들도 많이 이주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활권은 전곡읍을 중심으로 하며, 생필품 구입이나 시장도 전곡장(4 · 9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표 61〉 동이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49	145	77	68	145	27	30	17	19	32	19

22) 漣川文化院, 앞의 책, 273~274쪽.

23) 일제강점기 당시 기록에는 동이리에 창원김씨 47가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漣川郡誌』 上, 2000, 172쪽 표 참조).



〈사진 67〉 동이리 임진강가의 봉바위(교량 양옆으로 보이는 바위들이 봉바위로, 바위 상부는 교량건설로 인해 사라졌다)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이다. 산골마을이라 해도 좋을 마을이기에 예전엔 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밭농사 위주였다고 한다. 지금도 논은 그리 많지 않으며, 논은 마전리에서 동이리로 들어오는 쪽과 금굴산 남쪽의 여러 골짜기를 따라 조금씩 분포한다. 금굴산 남쪽 골짜기를 논고래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래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근 麻田里의 지명이 삼밭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 이 일대에선 대마를 많이 재배했었고 동이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임진강변의 밤여울엔 나루터가 존재했었는데, 한국전쟁 전에는 민물어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거주했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새우젓배와 소금배가 닿았다. 장마가 끝난 뒤엔 강원도에서 벌목된 뗏목들이 내려가던 풍경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마을에 있는 부대 앞을 지나 임진강으로 나가면 전곡읍의 법정리 가운데 하나인 마포리와 연결되는 마포교가 있다. 이곳엔 주민들이 '봉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마포교를 놓을 때 바위 윗부분을 깨뜨리고 다리를 놓았기에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는 없다. 봉바위는 산모양으로 생긴 자연석이었으며, '수구를 막는다고 해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는 제보자들의 말로 미루어 수구막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엔 봉바위 외에도 마을 안을 흐르는 개울 부근에 축동도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높은 산간지역은 아니라도 산골이라고 해도 좋을 마을이기에 장작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도 있었고, 썩은소에 거주하던 주민 가운데 배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장작을 싣고 서울 등지로 나가서 팔았다고 한다.[24] 주변이 모두 산이지만, 일제강점기엔 자기 소유 산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마음대로 못해서 1년생 풀이나 싸리를 꺾어다가 불을 땠다고 한다. 그리고 동이리에선 연천군의 대표적 민속놀이 가운데 하나인 '울어리'도 전승되었다고 한다. 울어리는 주민들이 한데 모여 겨우살이를 대비한 땔나무를 하고 돌아오면서 가장 연장자를 잡목으로 만든 가마에 태우고 노는 놀이로, '아미산 울어리'라는 이름으로 연천군 향토유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유촌리에서 전승되고 있다.[25] 동이리에선 나무를 하러갈 때 20~30명 정도

24) 제보자 서용하씨는 썩은소의 유래에 대해 "썩은소라는 게 왜 생겼나면, 고려 왕씨들 사당을 놀 위패를 돌배에다 싣고 왔대. 돌배가 올라와서 어디 왔느냐면 썩은소라는 데 와서 있는데, 밧줄을 매놨더니 줄이 썩어서 끊어져서 도로 떠내려갔다 이거야. 그래 썩은소래는 데가 숭의전파 거리가 멀지 않거든. 그래서 이름이 썩은소가 되고, 그 안엔 숭의전터가 되었어"라고 제보하였다. 썩은소와 숭의전의 유래에 대해선 『漣川郡誌』(漣川郡誌編纂委員會, 1987), 724쪽에도 소개되어 있다.

25) 아미산울어리에 대해선 『경기도의 민속예술』(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319~323쪽 및 『漣川郡誌』 上(2000), 811~814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가 참여했는데, 이때 영좌를 뽑는다. 나무를 하고 내려올 때는 잡목으로 사람 하나 정도 탈 크기의 가마를 만들어 영좌를 태우고 풀과 나뭇잎으로 만든 수염과 관으로 치장을 한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오는데, 제보자들은 이 행렬을 암행어사 출두 모습이라고 표현한다. 마을로 내려와서는 그날 나무를 부탁한 집으로 가는데, 영좌는 집주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닭을 잡는다. 그러면 주인은 그 닭으로 안주를 마련하고 술을 내어서 대접한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유촌리에 있는 왕산초등학교 마전분교에 다니고 있다. 마전리 삼거리에서 동이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폐교가 본래 마전분교였으나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본교에 통합되었다가 유촌리에 있던 유촌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이를 분교로 격하시킨 후 교명을 다시 마전분교라고 하였다. 중학생들은 군남면 소재지의 군남중학교로, 고등학교는 전곡읍의 전곡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마을 내에 한길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20여 명에 불과하다. 동이리 주민들은 몇 해 전까지도 격년 음력 10월에 산신제를 지냈으며, 산신제터는 금굴산 정상부에 있었다.

□ 주요 제보자

○ 서용하 (남, 1921년생, 농업, 동이리 306-3번지, 동이리 노인회장, 창원 김씨 문중의 사위이며 백학면 통구리가 고향으로 한국전쟁 후에 이주해옴)

○ 김태완 (남, 1920년생, 농업, 동이리 306-5)

4) 연천군 백학면 노곡 1리

연천군 백학면 蘆谷里는 파주시 문산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가다 적성면소재지인 마지리를 지난 후 320번 지방도를 따라 적성면과 백학면을 연결하는 비룡대교를 건너면 나타난다. 본래 적성군 북면의 지역으로서 임진강가가 되므로 갈여울, 가여울, 개여울 또는 술탄포, 노곡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마전군 하신면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노곡중리, 노곡하리, 노곡상리 일부를 병합하여 노곡리라 해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노곡이라는 지명은 갈대가 많았기



〈사진 68〉 노곡 1리 진목동 전경

〈표 62〉 노곡 1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202	605	299	306	605	87	152	75	58	140	93

때문에 붙여졌다.

노곡리는 2개 행정리에 면적이 5.98㎢이며, 조사지는 노곡 1리다. 노곡 1리는 참나무쟁이로도 불리는 眞木洞과 戌灘浦 또는 가여울로도 불리는 개여울로 이뤄진다. 진목동은 참나무가 많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며, 비룡대교를 지나 주유소가 있는 마을이 진목동이다. 개여울은 비룡대교 밑을 흐르는 여울의 이름이기도 하며, 개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얕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두 마을 가운데 중점 조사마을은 진목동이다. 이외에 萬豆米(滿豆米)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병사를 지낸 허씨의 99칸 기와집에 항상 곡식이 넘쳤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만두미엔 군부대가 주둔해 있으며, 한국전쟁 전엔 김해김씨들이 집성촌을 이뤘다고 한다.

노곡 1리는 8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202세대에 605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299명, 여자가 306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15세에서 29세, 5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층이 많다. 성씨분포에서는 주민의 70% 가량이 문화유씨 문중이라고 하며, 이외에 김해김씨가 10%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각성들이다. 노곡리 일대엔 대대로 문화유씨들이 대성을 이뤘는데, 일제강점기엔 노곡리 전체에 110가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26] 한편 노곡 2리 덕골엔 南陽洪氏가 집성촌을 이뤘는데,[27] 이곳엔 고려말의 무신이었던 洪徵(? ~1388)의 묘가 있다.

노곡 1리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이다. 마을 앞 임진강쪽으론 논이 많고, 마을 뒤편으론 논과 밭이 함께 있다. 과거엔 마을 앞도 모두 밭이었고, 논이래야 고래논이 조금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나마도 일제강점기 땐 공출 때문에 쌀을 구경조차 못했고, 공출을 피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면 골짜기에 벼를 감춰두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밭에 삼[麻]과 무도 많이 심었다고 한다. 삼은 업자들이 밭떼기로 사는 경우가 많았고, 삼이 날 때면 품을 파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무 역시 업자들이 밭떼기로 산 뒤 개여울에 있던 강승쟁이나루에서 배에 실어 마포로 내갔다. 강승쟁이나루는 임진강 건너편의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에 降仙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나루터에선 일제강점기만 해도 임진강을 거슬러온 새우젓배와 소금배들이 정박하여 물물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비가 와서 물이 불은 때를 맞춰 벌목한 뗏목이 내려왔고, 뗏목이 내려올 때면 여기에 곡식을 싣고 마포나루까지 가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나루터가 사라지기 전엔 여름엔 보리 한말, 가을엔 벼 한말을 뱃삯으로 주고 나룻배를 타고 적성면으로 건너다녔다. 옛 나루

26) 『漣川郡誌』 上(2000), 172쪽 표 참조.

27) 노곡리의 남양홍씨 문중엔 造山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노곡리의 자연마을 중 하나였던 생기리 북쪽에 있는 造山은 조선 중기에 곡산현감을 지낸 洪碩亨이란 인물과 관련이 있는데, 제보자 홍현숙씨는 "이 조산이래는 데가 유래가 있거든. 우리가 홍서방넨데, 12대 할아버지 산소 쓸 적에 그게 봉우리가 쭉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 그게 전부 하인 풀어가지고, 그 산봉우릴 지게로 져서 모았대는 거야. 모아가지고 고걸 산소로 썼대. 그렇게 맨들면 산소자리가 좋다고 그러니깐 그랬겠지"라고 제보하였다.

터는 요즘엔 여름철 피서객들이 종종 찾는 곳이 되었다. 현재 노곡리엔 참외를 재배하거나 잔디를 경작하는 농가가 다수 있다. 백학면에선 참외재배가 활발한데, 노곡리 일대가 중심이다. 여름철 노곡리 주변을 지나다보면 도로변에 참외를 판매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학면에서 생산된 참외는 주로 동두천과 인천지역으로 출하되고 있다. 잔디는 장남면과 백학면에서 주로 경작하고 있으며, 노곡리에선 9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포도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도 조금 있다.

노곡 1리는 행정적으로는 연천군에 속하지만, 생활권은 파주시에 가깝다. 생필품 구입도 주로 파주시 적성면의 적성장(5 · 10일)을 이용한다. 연천읍이나 전곡읍보다 거리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이곳이 잠시나마 적성면에 속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면소재지인 두일리에 백학장(3 · 8일)이 다시 서고는 있지만, 워낙 규모가 작아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은 마을 내에 있는 노곡초등학교로 진학한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면소재지인 두일리의 백학중학교로, 고등학생들은 전곡읍의 전곡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한다. 종교시설로는 노곡교회와 노곡제일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노곡교회가 120여 명, 노곡제일교회가 75명 가량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기독교 신자가 많은 편인데, 이는 마을에 있는 군부대의 군인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마을에선 매년 음력 8월 첫 丁日에 '산단제사'라는 마을신앙을 행하고 있다.

작목반 등을 제외하면, 마을조직으로는 이중계가 있다. 이중계는 마을의 유물(풍물, 상여 등)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제보자 홍현숙씨가 이중계장을 맡고 있다. 상여는 12명이 메며, 상이 나서 상여를 매거나 달구질할 때 나온 돈으로 마을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 마을에선 지금도 새로 상여를 장만하면 상여놀이를 하는데, 상여를 사온 날 저녁에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를 태우고 풍물을 치며 동네를 한바퀴 돈 후에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마을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 주요 제보자

○ 홍현숙 (남, 1934년생, 농업, 노곡 1리 73번지, 노인회 총무, 이중계장)

○ 민병옥 (여, 1940년생, 농업, 노곡 1리 73번지, 홍현숙씨 부인으로 백학면 백령리에서 22세에 시집옴)

5)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연천군 장남면 高浪浦里는 사적 제244호 경순왕릉이 위치해 있고 장단석벽이 절경을 이루는 곳으로, 이 일대의 경치를 일컬어 臯湖八景이라고도 한다. 파주시 문산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가다 적성면소재지인 마지리에서 적성종합고등학교 표지를 따라 좌회전한 후 3km 가량 가면 조사마을 중 하나인 두지리가 나타난다. 두지리에서 1990년대 중반에 놓여진 장남교를 건너면 원당리가 나타나고, 여기서 경순왕릉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원당 3리와 자작리를 지나면 고랑포리가 나타난다. 장남교가 놓이기 전에는 파주시 파평

면 장파리나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로 돌아와야 했다. 고랑포리 초입엔 군검문소가 있고 검문소 뒤편으로 경순왕릉이 있다.

고랑포리는 본래 장단도후부 장서면의 貫松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관송리를 고랑포리로 개칭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통제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에 '군조례 제266호'에 따라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었다.[28] 지금도 주민의 이주는 허용되지 않으며, 1962년에 인접한 자작리와 원당리에 주민이주가 허용되면서 출입영농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군사지역이기에 고랑포리의 민속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랑포리에 대해선 인근 자작리와 원당 3리 주민들의 제보와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전쟁 직전을 기준으로 장남면 일대엔 총 1,150여 호에 5,700여 명이 거주했고, 그 중 상당수가 고랑포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랑포리 인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 〈표 63〉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고랑포리의 호수가 569호에 달했던 점으로 미루어 장남면 전체 주민의 절반 가량이 거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규모만큼이나 고랑포리엔 상고랑포, 중고랑포, 하고랑포, 갈매울〔渴馬洞〕, 둔전골〔屯田洞〕, 배나무골, 시골〔細洞〕, 안산말, 능동〔陵洞〕 등의 여러 자연마을이 있었다. 이 가운데 상고랑포는 자지포, 중고랑포는 가운데고래이, 하고랑포는 아랫고래이로도 불렸다. 각 골짜기마다 집성촌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전쟁 이전을 기준으로 갈매울엔 慶州金氏, 둔전골엔 文化柳氏, 시골엔 全州李氏가 많이 거주했다. 그리고 배나무골엔 延日鄭氏 20여 호가 집성촌을 이뤘고, 안산말엔 경주최씨 6~7호가 거주했다고 한다.[29]

〈표 63〉 한국전쟁 이전 고랑포리의 직업별 호수[30]

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운수	자유업	기타	계
			미곡	정육점	직물	약품	잡화	여관	음식점				
254	12	2	5	4	13	4	26	5	31	35	28	150	569

고랑포리는 일제강점기까지도 임진강을 거슬러온 상선들이 늘 정박해 있을 만큼 번성했던 곳으로, 임진강의 感潮 구간에 속하기에 큰 규모의 배도 닿을 수 있었다.[31]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업 또한 매우 발달해서 경의선 개통 전까지만 해도 임진강 최대의 상업중심지이자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곡물검사

28) 漣川文化院, 앞의 책, 465쪽.

29) 漣川文化院, 위의 책, 697~704쪽 '6 · 25 이전 연천군 집성촌 일람표' 및 『長南面(高浪浦)의 뿌리와 鄕土文化』(權泰應先生喜壽紀念文集刊行委員會, 1993), 99~100쪽 참조.

30) 權泰應先生喜壽紀念文集刊行委員會, 위의 책, 28쪽.

31) 임진강의 감조구간은 하구에서 47.3km 상류까지 계속되며, 여기서 90.8km까지 황포돛배로 소항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항수로는 전체 131.1km에 달한다. 구한말 당시 10톤을 적재할 수 있는 범선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며, 하천을 통해 교역되는 물품으로는 쌀 · 잡곡을 비롯해 소금 · 생선 · 잡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천연변의 농산물은 멀리 제물포와 서울까지 운송되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연천군,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47쪽).

소, 우편소, 금융조합, 학교 등이 밀집해 있던 행정중심지였다. 고랑포의 중심부였던 현 검문소 부근엔 당시 유명했던 화신연쇄점이 있어 고랑포의 명물이 되었다고도 한다.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상업이 발달했던 만큼 큰 부자도 있었을 법한데, 이봉의씨의 제보로는 당시 馬房을 했고 새우젓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김근여가 대표적인 부자로서, 김근여씨댁은 규모가 100칸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랑포리엔 일반 상점 외에도 매 2일과 7일에 고랑포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시 고랑포장과 고랑포의 상권은 개성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고랑포장엔 우시장이 함께 섰고 임진강 중상류 일대에서 생산된 농산물, 특히 장단콩이 많이 거래되었다. 장단콩의 경우, 1912년부터 1921년 사이에 매년 평균 80,000가마 분량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1914년 경원선이 개통되고 장단역을 통해 농산물이 운송되면서 고랑포장의 거래가 위축되긴 했지만, 고랑포장은 1938년말 기준으로 장단군내에서 두 번째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32]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면서 38선 바로 밑에 위치한 고랑포의 상권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상고랑포, 즉 자지포엔 고랑포나루가 존재했었다. 고랑포나루는 파주시 적성면의 장좌리와 연결되었으며, 면소유의 나룻배 3척이 있어 행인과 우마차, 트럭, 버스 등이 건너다닐 수 있었다. 이곳엔 조류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온 조깃배와 새우젓배, 소금배들이 항시 머무르며 콩, 땔감, 숯, 곡물을 교역하였다. 주민들 중에도 어선이나 운송선을 소유한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제보자 문시옥씨의 장인이 그 중 하나였다. 문시옥씨의 장인은 인천이나 강화에서 새우젓과 밴댕이 말린 것을 한배 가득 싣고 와서 이곳에서 콩 등의 곡물로 교환한 후 마포로 가서 거래했다. 고랑포리엔 어선이 3척, 운송용배로 늘배와 장두리배가 각각 4척과 8척이 있어 임진강 상류와 인천, 강화, 마포 등지로 각종 산물을 운송했다고 한다.

상업이 발달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 중 많은 수는 농업에 종사했었다. 한국전쟁 직전 장남면엔 논이 1,142ha, 밭이 511.8ha로 논이 배 이상 많았지만,[33] 고랑포리엔 몇몇 골짜기의 논을 제외하면 대부분 밭이었다고 한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살림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아서 대개 장리쌀을 빌려먹었는데, 보통 쌀 한말을 빌리면 가을철에 한말 닷되를 갚았다. '곱길'이라고 해서 두 배로 갚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고랑포리의 종교 · 신앙을 살펴보면, 하고랑포엔 감리교파에 속하는 교회가 있었으나, 신도의 수는 30명 정도로 전체 인구에 비해 미약한 교세였다. 그리고 경순왕릉 남쪽 산록에 석불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34] 전체적으로 기독교나 불교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반면, 민간신앙의 영향력이 커서 고창굿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고랑포 고창굿은 인근에서도 상당히 유명했고, 3년마다 음력 2월 중순에 행해졌다.[35]

다음으로 옛 고랑포리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원당 3리와 자작리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원당 3리엔 92세대 275명의 주민이, 자작리엔 23세대 7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특용작물로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인삼은 예전부터

32) 文定昌, 『朝鮮の市場』, 東京 : 日本評論社, 1941, 246쪽.
33) 權泰應先生喜壽紀念文集刊行委員會, 앞의 책, 28쪽.
34) 위의 책, 31쪽.
35) 고랑포 고창굿은 위의 책 52~53쪽에 소개되어 있다.

많이 재배해왔는데, 일제강점기만 해도 개성사람들이 이곳에서 인삼을 재배한 후에 홍삼으로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파주시 적성면과 인접해 있기에 시장은 주로 적성장(5 · 10일)을 이용하고 있다.

〈표 64〉 자작리 및 원당 3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 12. 31 현재)

마 을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원당3리	92	275	131	144	275	37	60	28	40	56	54
자작리	23	71	36	35	71	4	23	7	10	21	6

□ 주요 제보자

○ 이봉의 (남, 1930년생, 농업, 원당 3리 111번지)

○ 문시옥 (남, 1939년생, 농업, 자작리 88번지, 노인회 부회장, 양주군 주내면이 고향으로 1963년에 처가가 있는 자작리로 이주해옴)

6)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사진 69〉 두지리 뒤기 전경

파주시 적성면 斗只里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와 마주한 마을이다. 파주시 문산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전곡방향으로 향하다 적성면소재지에서 적성종합고등학교 표지를 보고 좌회전하여 나아가면 농협 김치공장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두지리다. 두지리는 본래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검바위, 함박골, 약우물과 검상리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두지리라 해서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11월에 적성면이 파주군에 속하면서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두지리는 규모가 매우 작은 마을로 1개 행정리에 1개 반으로 이뤄져 있다. 자연마을로는 약우물, 함박골, 뒤기가 있다. 약우물은 농협 김치공장이 있는 곳으로 피부병에 좋은 물이 나는 우물이 있다는 데서 유

래한 지명이다. 함박골은 한밭골로도 불리며, 이는 큰 삼[麻]밭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 함박골엔 현재 1세대가 음식점을 경영하며 거주하고 있다. 뒤기는 임진강에 접해있으며 두지리의 중심마을이다. 두지리라고 하면 보통 뒤기를 의미하며, 중점 조사마을 역시 뒤기다. 뒤기는 두지, 두기 등으로도 불리며, 마을의 형세가 뒤주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두지리엔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32세대에 10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자가 54명, 여자가 47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다. 연령별 인구의 경우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주민의 8.9%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마을규모가 적고 노인층의 수도 적어서 마을에 노인정은 없다. 두지리는 지금은 매우 작은 마을이지만, 일제강점기만 해도 호수가 70호에 달해 적성면에서도 손꼽힐 만큼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 중 상당수는 河東鄭氏였다고 한다. 두지리는 이웃한 식현리와 한 마을이나 진배없는데, 식현리에도 하동정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36] 현재도 두지리와 식현리는 상여를 같이 쓰고 있다.

〈표 65〉 두지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32	101	54	47	101	18	26	25	23	5	4

주민의 생업을 보면, 아직은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엔 논이 아예 없고 밭도 많지 않은데, 약우물과 함박골에 밭이 다소 있고 뒤기엔 밭조차도 거의 없다. 두지리에서 마주 보이는 가월리엔 논이 상당히 넓게 분포하는데, 두지리 주민들 소유의 논도 그곳에 있다. 두지리와 가월리는 임진강에 접해있어 홍수피해를 많이 보는 곳 가운데 하나다. 1996년 홍수땐 뒤기마을의 중간지점까지 물에 잠겼다고 하며, 1999년에도 마을 초입의 집들이 잠길 정도였다. 2000년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마을 입구까지 물이 찰 만큼 이곳은 홍수피해가 잦은 곳이다. 따라서 예전엔 가월리쪽의 논들도 모두 버려져 있었고, 보리나 서숙을 많이 심었다고 한다. 논이 많아지게 된 것은 임진강 제방을 축조하고 난 후의 일이며, 지금도 제방축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두지리에선 상업 역시 비중이 크다. 중심마을인 뒤기의 경우엔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세대가 서넛에 불과할 정도로 상업의 비중이 크다. 상업인 경우엔 모두 매운탕집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운탕집을 경영하더라도 순수하게 여기에만 종사하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생업도 겸하고 있다. 대체로 여성들이 매운탕집을 운영하고 남성들은 농업이나 어업, 기타 생업에 종사한다. 어업의 경우 두지리 전체에 7세대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 파주시의 5개 船團 중 두지리가 속한 선단의 선단장은 강촌매운탕집을 운영하는 임권상씨가 맡고 있다. 두지리 앞 임진강에선 잉어가 많이 잡히나 상품가치가 없어서

36) 『京畿道誌』 下(京畿道誌編纂委員會, 1957), 526쪽에선 식현리에 하동정씨 30호가 390여 년간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잘 잡지 않고, 요즘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민물장어와 참게를 많이 잡는다. 기타 매운탕거리로 메기도 많이 잡는 편이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두 개 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본래는 식현리에 있는 적서초등학교로 진학해야 하지만, 젊은층 가운덴 주민등록을 마지리쪽으로 옮겨놓은 경우가 있어 마지리의 마지초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다. 규모면에선 면소지인 마지리에 있는 마지초등학교가 크다. 적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뒤기마을과 식현리 염안이를 잇는 염안이고개를 이용하여 통학한다. 중학생은 식현리에 있는 삼광중학교에, 고등학생의 경우엔 마지리의 적성종합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종교의 경우 마을 내에 종교시설은 없고 종교를 가진 주민들도 많지 않다. 한편 뒤기마을에선 매년 중구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산신제는 음력 9월 8일 밤에 마을을 감싸고 있는 표고 약 150m의 국사봉 자락에 닦아놓은 산신제터에서 지내며, 산신제터가 있는 곳을 용머리산이라고도 한다.

두지리 주민의 생활권은 적성면을 중심으로 하기에 시장도 면소재지인 마지리의 적성장(5 · 10일)을 이용하고 있다. 적성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라진 구읍리의 읍내장 후신으로 1959년말에 공식 개설되었다. 마지리 일대는 지금은 번창하지만, 한국전쟁 전만 해도 집이 거의 없던 곳이라 한다. 한편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강건너 장남면 고랑포리의 고랑포장을 주로 이용했는데, 고랑포장을 이용할 때는 뒤기 마을 앞 임진강변의 두지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다녔다. 사공에겐 보리가 날 때 보리 한말, 벼가 날 때 벼 한말씩을 주었다고 한다. 두지나루는 1976년경 군부대 부식운송을 위해 가교가 건설되면서 사라졌다.

□ 주요 제보자

○ 이덕경 (남, 1933년생, 농업, 두지리 88-6번지)

○ 유용종 (남, 1952년생, 상업, 두지리 88-2번지, 경북 구미가 고향으로 적성면에서 군생활을 마치고 1982년에 두지리로 이주했으며 1999년말까지 10여 년간 이장을 맡았음)

3. 하류지역

1)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파주시 문산읍 臨津里는 문산읍내에서 임진각으로 연결되는 1번 국도상의 운천리에서 새로 확장된 37번 국도를 따라 우회전한 후 2km 가량 가면 나타난다. 만약 자유로쪽에서 가려면 임진각에서 문산읍내 방향으로 가다가 운천리에서 37번 국도쪽으로 좌회전해서 가면 된다. 임진리 못미쳐 포부대가 있고 임진리를 알리는 도로표지가 있어 찾기는 어렵지 않다. 예전에는 문산읍내에서 37번 국도를 따라가다 선유리에서 율곡 3리로 들어간 뒤에 화석정을 거쳐서 가야했다.

임진리는 본래 파주군 신속면 지역으로 임진나루가가 되므로 임진골, 임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사진 70〉 임진리 임진동 전경

구역 통폐합에 따라 운천면의 상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임진리라 하여 임진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면서 문산읍에 속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임진리는 1개 행정리에 2개 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임진동과 주남동, 신농촌이 있다. 이 가운데 중점 조사마을인 임진동은 임진나루터가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새로 도로가 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임진나루는 지금은 어로활동을 허가 받은 주민 외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지만, 김신조 침투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매운탕을 파는 집들이 있었고 나룻배도 운행되었다. 주민들이 경작하는 논도 임진강 건너 동파리에 있기 때문에 시 소유의 운반선이 사람과 소, 농기계 등을 싣고 건너다녔다. 그러다가 언젠가 홍수로 인해 운반선이 좌초하고부터는 사람들만 다닐 정도의 나룻배가 운행되었으며, 뱃사공에겐 매년 추수 때 집집마다 일정 정도의 곡식을 뱃삯으로 치렀다. 일제강점기엔 개성과 연결되는 버스가 임진나루를 통해서 왕래했고, 버스 역시 배를 이용해서 임진강을 건너다녔다. 주민들 말로는 당시 이곳에 다리를 놓으려고도 했으나 명주 실타래 하나를 다풀어도 모자랄 만큼 강이 깊어서 포기했다고 한다. 주남동은 주변에 바위가 줄지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신농촌은 새로 조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임진동 위로 최근에 신축된 가옥들이 단지를 형성한 곳이 신농촌이다. 신농촌 주민 대부분은 주택단지 조성과 함께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임진리의 세대 및 인구를 살펴보면, 임진리엔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85세대에 26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주민 중 남자가 130명, 여자가 136명이며, 연령별 인구분포는 고른 편이다. 성씨 분포는 예전부터 각성이었다고 한다.[37] 토박이는 많지 않은데, 임진동의 경우 3세대만이 본토박이들이고, 그나마 노년층은 모두 돌아가셨다. 두지리 주민의 생활권은 물론 문산읍을 중심으로 한다. 시장은 문산장(5 · 10일)을 이용하지만, 교통도 좋아졌고 문산읍도 예전에 비해 커졌기 때문에 굳이 장날을 이용하기보다는 수시로 읍내의 상설점포를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업을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주로 강건너 동파리의 논을 경작하고 있으며, 파평면 두포리 장개마을에 있는 전진교를 이용해서 다닌다. 동파리엔 주민이

3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2, 長湍都護府 姓氏條엔 임진리에 송 · 김 · 함 · 형 · 표 · 선 종씨가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66〉 임진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85	266	130	136	266	43	66	43	41	45	28



〈사진 71〉 임진리 임진나루 전경(멀리 군 경계초소가 보이고, 고기잡이를 하는 작은 배의 모습도 보인다)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민 정착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 중이며 2000년 말에 60세대가 이주할 예정이다. 농업 외엔 상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고,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마을내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엔 매운탕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진동과 신농촌에 10여 개의 음식점이 있다. 임진동의 매운탕집들은 본래 임진강가에 있었으나 김신조 침투사건 이후로 나루를 폐쇄하면서 마을 내부로 옮겨왔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대개 매운탕집을 운영하면서 겸업하는 경우다. 임진리의 어로활동은 봄부터 겨울까지 사철 행해지는데, 주로 봄에 많이 이뤄진다. 얼음이 녹을 무렵부터 메기를 잡고 날이 풀리는 4월부터 한달 정도는 실뱀장어를 잡는다. 실뱀장어는 예전에는 일본으로 수출해서 성어가 된 뒤에 다시 수입했지만, 최근엔 우리나라의 양식기술도 발달해서 대부분 물량을 국내에서 소화시킨다고 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주수입원도 실뱀장어잡이에 있다. 실뱀장어잡이가 끝날 즈음부터는 황복을 잡기 시작하며, 만약 이 무렵에 비가 많이 오면 황복이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 실뱀장어와 황복이 수익성이 가장 좋고, 기타 계절엔 잡다한 고기를 잡아서 용돈벌이 하는 수준이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은 선유리의 문산동국민학교로 진학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등록을 문산리로 옮겨놓은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엔 문산리의 문산국민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는 문산리의 문산동중학교, 고등학교는 당동리의 문산고등학교나 파주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종교의 경우 임진리엔 종교를 갖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다. 이는 마을내에 종교시설이 없고 외부로 나가기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인 듯하다.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은 문산읍내에 있는 교회나 성당에 다닌다. 한편 이 마을에선 매년 음력 10월초에 산고사를 드린다. 산고사는 임진리와 동파리로 나눠 지내는데, 먼저 동파리에서 제를 지내고 난 후 신호를 하면 임진리쪽에서 제를 지낸다. 이는 임진리 주민들 가운데 동파리 출신들이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동파리에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제보자

○ 정정순 (여, 1917년생, 임진리 8번지, 진동면 하포리가 고향이며 동파리로 출가했다가 1960년대 중반 임진리로 이주함)

○ 권순임 (여, 1921년생, 임진리 8번지, 장단면이 고향으로 한국전쟁 후 마포에 거주하다가 1970년대에 임진리로 이주함)

○ 한용순 (남, 1934년생, 농업, 임진리 8번지, 임진리와 마주보는 동파리가 고향으로 1960년대 중반 임진리로 이주함)

○ 김판준 (남, 1954년생, 상업, 임진리 8번지, 전라북도가 고향으로 20년 전에 실뱀장어잡이를 위해 임진리로 이주해와서 15년간 어업에 종사했음)

2) 파주시 문산읍 문산 2리



〈사진 72〉 문산 2리 하동 전경

파주시 문산읍 汶山里는 자유로상에서 임진각 방향으로 향하다 당동 IC를 빠져나와 1.5km 가량 가면 나타난다. 문산북중고교를 지나자마자 삼거리가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부터 문산리다. 자유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23번 국도상에서 임월교를 통해 들어가야 했다. 문산리는 문산천이 임진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마을로 옛부터 홍수피해가 심했던 곳이었다. 문산이란 지명도 조선 초기 홍수가 날 때면 임진강으로 흙탕물이 내려가다 서해의 조수로 인해 산더미처럼 밀려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의 물맛은 서해의 염분으로 짜고 맛이 없어 일제시대에는 물을 사먹을 정도였다.[38]

문산리는 본래 파주군 칠정면 지역으로서 문산개(문산포)가가 되므로 문산개 또는 문산포, 문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창내동 일부와 오리면의 장포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문산리라

38) 京畿道, 앞의 책, 1987, 490쪽.

해서 임진면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면서 문산읍에 속하게 되었다. 문산리는 5개 행정리로 이뤄져 있으며, 조사지는 문산 2리다. 문산 2리는 문산포가 있던 마을로, 문산역 아래쪽에 있다 하여 하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산 2리는 11개 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246세대에 74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남녀로 보면, 남자가 368명에 여자가 372명으로 유사한 비율이다. 현재 마을내 두 곳에서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성씨분포는 예전부터 포구마을로서 상업이 발달했고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기에 대성이 없이 각성들이다. 이곳 주민들의 생활권은 문산읍내를 중심으로 한다. 시장은 굳이 4일과 9일에 개설되는 문산장을 이용할 것도 없지만, 아직도 노인층 가운데는 문산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산장은 본래 1960년대 중반까지 매 5일과 10일에 개설되다가 폐쇄되었고 1989년도에 재개설되었다. 장날은 1989년 재개설될 때 4일과 9일을 택했는데, 이는 인근 광탄면과 적성면의 정기시장이 5일과 10일에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개시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표 67〉 문산 2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246	740	368	372	740	113	182	110	86	149	100

문산 2리는 문산읍내에 속하기에 생업은 농업, 상업, 기타 업종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지만, 아직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세대가 많은 편이다. 문산은 임진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홍수피해가 잦은 곳이다. 지난 1996년의 수해가 대표적이며, 문산 2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가옥 대부분이 침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예전엔 물도 짠물이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다소 애로가 있었다고 한다. 20여 년 전에 마을 앞으로 제방을 축조하면서부터 농경지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전엔 논도 별로 없어서 마을 뒤쪽으로 밭과 논이 조금, 마을 앞 문산천 건너에 논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제방 축조 전에는 장마철이나 사리 때만 되면 잉어나 메기가 마을 앞 논바닥 곳곳에 널려있어서 반찬거리나 매운탕 거리로 사용했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다.

한편 문산 2리는 일제강점기까지 임진강 일대에서 가장 큰 포구였던 문산포가 위치한 곳이었기에 임진강을 오가던 많은 어선과 상선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군청과 경찰서, 곡물검사소, 우체국 등이 밀집한 중심지여서 상업도 발달했기에 개성이나 장단의 상인들이 이곳으로 조기나 어물을 사러 많이 왔다고 한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업이 활발하던 시절엔 많은 중선배들이 정박했고 '조기 천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조기 말리는 광경이 흔했고 조업에 앞서 그물에 갈물을 드리는 광경도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이었다. 하동 주민들 중에도 중선배를 부리던 사람이 셋이 있었고, 연평도로 조기잡이를 떠날 때나 조업에서 돌아올 때 만선을 알리는 깃발을 달고 북을 치며 들어오는 모습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조기 외에 밴댕이나 황새기, 새우잡이 배들도 많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오염되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임진강가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문산 3리의 문산국민학교로 진학한다. 중학교는 주위에 문산동중학교와 문산북중학교가 있어 그곳으로 진학하며, 고등학교의 경우도 문산고등학교나 파주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한다. 마을내에 종교시설은 없다. 민간신앙과 관련해서 문산 2리는 문산도당굿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산도당굿은 기존에도 수 차례 조사된 바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문산도당굿은 '먼 옛날 어느 장군이 전쟁터로 가면서 아내에게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흰기를 꽂을 것이고, 싸움에 져 죽어서 돌아오게 되면 붉은 기를 꽂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매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내가 돌아오는 배를 보니 흰기가 아닌 붉은 기가 꽂혀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내는 당이 있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러나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었고, 본래 흰기를 꽂았던 것이 전쟁에서 흘린 피가 묻어 붉게 보였던 것이다. 그 뒤로 우환이 잦고 배사고도 많이 나게 되면서 그 여인의 혼을 달래는 도당굿을 하게 되었다' 는 유래가 전한다.[39] 당집은 마을회관에서 우측으로 5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번상으로 산 7번지에 속한다. 당집 있는 곳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절벽이었다. 그리고 당시엔 어업이 성해서 중선배를 부리던 선주들은 출어하기 전에 반드시 도당에 가서 치성을 드렸고 도당굿을 할 때도 돼지 한 마리씩을 찬조했다고 한다. 현재 도당 옆에는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어 도당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 이전할 터가 마땅치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전할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 제보자

○ 김동수 (남, 1921년생, 농업, 문산 2리 128번지, 문산 2리 노인회장)

○ 박태하 (남, 1944년생, 농업, 문산 2리 116-47번지, 문산 2리 이장, 문산읍 내포리 출생)

3)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파주시 군내면 白蓮里는 민통선마을로서 통일촌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백연리는 자유로 끝에 새로 건설된 통일대교를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마을인데, 주민이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가려면 일주일 전에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통일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임진각에서 자유의 다리를 통해 출입할 수 있었다.

백연리는 본래 장단군 진현내면 지역으로서 백연, 백연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서상리, 서하리의 일부와 중서면 도라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백연리라 해서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 파주군 임진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통일촌 조성과 함께 군내면으로 복구되었다. 백연이란 지명은 마을에 있던 연못에 흰 연꽃이 많이 피어있었다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백연리는 현재 4개

39) 문산도당굿의 유래는 군내면 정자리 덕진당의 유래와 유사한데, 다만 생사를 판가름해준 깃발의 색이 반대라는 점이 다르다. 덕진당엔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李曙**(1580~1637)와 그의 아내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사진 73〉 백연리 통일촌 전경

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통일촌으로 통칭되고 일정 구역내에 집단 거주하기에 자연마을이라고 꼽을 만한 마을은 없다. 한국전쟁 전에는 공덕동, 조천말, 새텃말, 구생골, 율골 등의 여러 자연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통일촌은 1972년 대통령순시 때 민통선내에 전략적으로 시범농촌을 건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백연리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유곡리에 조성되었다. 백연리엔 중사 이상 대령 이하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제대 군인 40세대, 교사, 목사, 실향민 등 민간인 40세대가 1973년 8월에 처음 입주하였는데, 입주자 선정에는 '군복무를 필한 사람', '5인 가족 이내로 노동력이 2인 이상인 기혼남자', '새마을정신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확고한 사람', '신체 건강하고 영농능력이 있는 사람', '사상이 건전하고 전과사실이 없는 사람', '주벽과 도벽이 없고 채무가 없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었다. 1999년말 현재 백연리엔 주민등록상으로 102세대에 43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남자가 220명, 여자가 213명이다. 민통선마을이기에 주민의 전출입이 쉽지 않지만, 이주 초기에 비해서는 세대와 인구가 꽤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세대가 늘어난 것은 순수하게 외지에서 유입된 경우보다는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이거나 각 세대당 생업을 위해 동거세대를 둘 수 있기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경우에 속한다. 전략적으로 조성된 마을이기에 주소도 번지수가 아닌 백연리 몇 호하는 식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68〉 백연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102	433	220	213	433	51	115	55	58	105	49

이곳 주민들의 생업을 살펴보면, 처음 입주한 80세대 대부분이 농사를 목적으로 이주했기에 주민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다. 입주 당시 주민들에겐 총 200헥타의 농경지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세대당 평균 2.5헥타꼴이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로 버려진 땅이었기에 처음 개간할 때는 애를 많이 먹었고 지뢰를 밟아서 다치거나 죽는 주민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1985년경에 본래 소유주들이 나타나면서 애써 가꾼 농토를 빼앗길 상황에 처했었으나, 다행히 정부 융자를 받아서 원소유주들로부터 땅을 매입



〈사진 74〉 군내출장소 광장의 망향제단

했다고 한다. 현재는 논만 따질 경우에 세대당 적게는 5천평에서 많게는 3만평을 경작하고 있으며, 실제 토지소유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마지기당 벼 한가마 정도를 도지로 내고 있다. 이곳 논은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치며, 100평당 서너 가마의 소출이 난다. 농업용수는 임진강의 물을 끌어다 쓰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밀물에 쓸려온 개흙으로 인해 수로가 막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 그리고 임진강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感潮河川인 까닭에 짠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린 모가 아닐 경우엔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벼농사 외에 밭농사도 많이 짓는데, 이곳엔 대단위 콩재배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나는 콩은 장단콩 혹은 장단대두로 불리는데, 옛부터 장단지역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콩이다. 현재 마을 초입의 통일촌휴게소 옆에 장단콩을 이용해서 장을 담아 판매하는 집이 있고, 휴게소와 군내출장소 광장에선 1997년부터 매년 11월중에 '파주 장단콩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평소엔 출입절차가 까다롭지만, 축제기간만큼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또한 군내출장소 광장엔 북녘을 향해 望鄕祭壇이 설치되어 있어 매년 명절 등에 망향제를 올린다.

통일촌은 농업인구에 비해 농경지가 넓은 마을이기에 이곳 주민들의 생활은 여타 농촌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민 선정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전략적으로 조성된 마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다소간 제한이 있다. 이주 후부터 한동안 세대 모두가 예비군에 속했고, 비상이 걸리면 농사를 짓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꼼짝하지 못했다고 한다. 출입도 특수한 경우 외엔 5시부터 24시까지만 허용되고, 이주 초기 몇 년간은 친지들이 면회를 와도 마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은 상당히 완화되어서 주민의 전출입이나 주택신축에도 큰 제약이 따르진 않는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에 초등학생은 마을내에 있는 군내초등학교로 진학한다. 초등학생 수는 17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폐교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엔 문산읍 문산리의 문산동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엔 문산읍 당동리의 문산고등학교나 파주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종교 · 신앙을 보면, 마을내에 종교시설로는 통일촌교회가 있다. 통일촌교회는 1973년 이주 당시 건립되었고, 현재 이 교회의 신도수는 전체 주민의 10% 가량 된다. 백련리엔 통일촌교회 외에 다른 종교시설은 없다. 한편 민간신앙과 관련해서 이곳 주민들은 장승제를 올리고 있다. 장

승은 자유의 다리쪽과 통일대교쪽 마을입구에 각 1쌍씩 있고, 현 장승은 1997년 경에 새로 세웠다고 한다. 장승제는 부녀회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데,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에는 현 통일대교 밑으로 수내포가 있었고, 수내포가 바라보이는 곳에 당집이 있어서 당굿을 크게 했었다고도 한다. 수내포엔 조깃배, 새우젓배 등 20~30척의 배가 있었고, 20여 호의 주택이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활권은 일제강점기엔 장단을 중심으로 했다. 당시 장단은 교통과 상업의 요지로서 장단역이 있었고 장단장(5 · 10일)이 섰다. 현재는 문산장을 이용하거나 문산읍의 상설점포들을 주로 이용한다. 행정적인 부분의 경우 입주 초기엔 문산읍을 이용해야 했고, 마을내 출입절차도 다소 까다로웠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1979년 5월 군내출장소가 설치되고부터 행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다른 곳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 군내출장소는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을 관할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군내면의 백연리와 조산리(대성동)뿐이라서 규모는 크지 않다.

□ 주요 제보자

○ 최천석 (남, 1932년생, 백연리 39호, 노인회 총무)

○ 최종수 (남, 1939년생, 백연리 55호, 마을이장)

4)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사진 75〉 성동리 큰말 전경

파주시 탄현면 城洞里는 자유로 성동 IC 옆에 자리하고 있다. 성동리는 통일동산 조성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유로의 성동 IC를 나와서 첫 번째 만나는 사거리 우측편 일대가 통일동산 조성지다. 그리고 통일동산에서 임진강변 쪽으로 솟은 산이 표고 119m의 烏頭山인데, 산 정상부엔 통일전망대와 사적 제351호로 지정된 烏頭山城이 있다. 성동리로 들어가기 위해선 성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20m 가량 지나서 성동리를 알리는 표석을 보고 다시 좌회전하여 들어가면 된다.

성동리는 본래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서 오두산성 밑이 되므로 잣골, 작골 또는 성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요풍동, 덜무니, 골말과 법흥리 일부를 병합하여 성동리라 해서 탄현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1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이뤄지며, 자연마을로는 요풍동, 큰말, 샘천말이 있다. 성동IC를 빠져나와서 이어지는 368번 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우측으로 요풍동이 자리하고 좌측으로 나머지 마을이 있다. 중심마을은 큰말이며, 큰말엔 마을회관과 노인정, 레스토랑 등의 음식점이 다수 자리잡고 있다. 샘천말은 큰말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여름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는 샘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요풍동은 임진강에서 항상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요풍동엔 성균관 전적을 지낸 金世愚(1484~1522)의 묘를 비롯한 광산김씨 묘역이 있다.

성동리엔 199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120세대에 353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그중 남자가 177명, 여자가 176명이다. 성씨분포는 각성이지만, 한국전쟁 이전에는 김해김씨와 전주이씨들이 많았다고 한다. 1957년에 발간된 『경기도지』에 따르면, 1953년을 기준으로 성동리엔 김해김씨가 25세대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40] 전주이씨들은 의안대군파 후손들로, 요풍동과 작골에 주로 거주했다. 작골은 통일동산 개발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사라진 마을이다. 현재 주민들의 생활권은 파주시내를 중심으로 한다. 장은 금촌장(1 · 6일)을 많이 이용하긴 하나, 시내엔 상설시장과 각종 상업시설이 있어 생필품 구입을 위해 굳이 장날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예전엔 금촌장뿐만 아니라 문산장과 공릉장(2 · 7일)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표 69〉 성동리 세대 및 성별 · 연령별 인구 현황(1999.12.31 현재)

세 대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소계	남	여	소계	0~14	15~29	30~39	40~49	50~64	65 이상
120	353	177	176	353	56	83	48	50	71	45

이곳 주민의 생업을 살펴보면, 성동리 주민들 중 토박이들은 대체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외지에서 이주해온 주민의 경우는 대체로 음식점 경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최근 자유로가 확장되고 통일동산이 개발되면서 이 일대엔 각종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마을을 망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상업시설은 통일동산 조성지와 성동리 초입, 그리고 큰말에 주로 분포한다. 반면 요풍동엔 음식점 한 곳 외에는 상업시설이 없다. 그래서인지 성동리의 농경지도 대부분 요풍동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성동리는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지만, 이곳엔 포구나 나루터가 없었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큰말쪽엔 어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몇 있었지만, 이 역시 큰배를 부리거나 어업을 주업으로 삼던 이들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전엔 서해의 고깃배와 농산물을 실은 각종 배들이 성동리 앞을 지나다니고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먹던 모습이 주민들 기억에 생생하지만, 지금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기에 강에는 주민들의 출입조차 금지되어 있다.

교육과 종교 ·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에 초등학생은 갈현리의 갈현초등학교, 중학생은 축

40) 『京畿道誌』 下(1957), 525쪽.

현리의 탄현중학교, 고등학교는 금촌동의 문산종합고등학교 등으로 진학하고 있다. 이곳 역시 자녀교육을 위해 시내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주민들이 있긴 마찬가지다. 성동리의 종교시설로는 黔丹寺와 성동교회, 통일기도의 집이 있다. 검단사는 통일동산 남쪽의 표고 152m 가량의 黔丹山 산허리에 있으며, 신라시대 고승이었다는 검단조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진감국사 혜초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성동교회는 신도수 40~50여 명 정도의 기독교회다. 통일기도의 집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소속으로, 성동리 큰말에서 대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산치성터에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 폐쇄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한편 몇 해전까지 큰말에선 산치성을 드렸다. 효령대군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김학순보살이 산치성을 주제했다. 큰말 외에 요풍동 주민들도 별도로 마을신앙을 행했었는데, 이를 본향제라고 부른다. 음력 2월 초하루에 지내던 본향제는 여성만이 참여하고 제의 절차 중에 개성 덕물산의 최영장군당을 바라보고 기원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곳 여성들 가운데는 최영장군당에 가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본향제 가운데 최영장군당을 바라보며 기원하던 것도 아마 이 때문인 듯하다. 요풍동에선 본향제 외에도 마을 내에 있는 대감에게도 제를 올렸는데, 대감을 모신 유래는 虎患과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에 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육으로 날고기를 놓았다고 한다.[41] 하지만 이 역시도 전승이 단절된 상태다.

□ 주요 제보자

○ 임병기 (남, 1924년생, 성동리 259번지)
○ 강순희 (여, 1922년생, 성동리 259번지, 문산읍 사목리에서 19세에 시집옴)
○ 이인승 (남, 1942년생, 성동리 259번지, 강순희씨 아들)
○ 김학순 (여, 1921년생, 양평군이 고향으로 56세 때 성동리로 이주해옴)

제3절 민속신앙

이번 조사에서는 임진강과 한탄강을 상 · 중 · 하류로 구분하고 각 유역별로 조사마을을 선정하였다. 조사마을은 임진강과 한탄강에 접한 포천군 · 연천군 · 파주시의 22개 읍면에 속한 행정리 마을 이장들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모두 15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를 제외한 14개 마을에 대한 민속신앙 조사가 행해졌다. 민속신앙 조사는 크게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으로 나눠 이뤄졌다.

1. 마을신앙

1) 임진강유역 마을신앙의 현황

이번 조사에서는 표본조사마을 선정을 위해 임진강유역의 22개 읍면에 속한 행정리의 이장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마을신앙의 전승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산신제 혹은 산치성 등의 산제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의 대부분은 산제 유형이다. 산제 유형의 마을신앙은 祭次에서 대부분 유교식 제의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상류지역으로 갈수록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도당굿, 대동굿, 부군굿 등으로 불린 마을굿 유형이다. 굿 형식의 마을신앙은 몇몇 마을을 제외하면 마을에 좋지않은 일이 있을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행해지거나 소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을굿은 산제 유형과는 달리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출현 빈도가 높았다.

제의 시기를 보면, 가을철에 행하는 마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상류지역이 특히 그러했다. 가을철에도 음력 10월에 행하거나 행했던 곳이 가장 많았다. 음력 10월에 이어 음력 9월에 행하는 경우도 다수 나

타났는데, 이 경우 역시 상류지역이 대부분이었다. 9월의 경우엔 9월 9일 중구에 집중되었다. 한편 중류지역에서는 봄철에 행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음력 3월에 집중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임진강유역에서는 음력 10월에 마을신앙을 행하는 곳이 많고, 상류지역의 경우 음력 9월, 특히 중구에 행하는 곳도 다수 나타나고, 중류지역의 경우 음력 3월에 행하는 곳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제당의 형태에서는 신목을 모시는 경우와 터만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당집 형태를 지는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제당의 위치는 주로 마을에 있는 산이 많았는데, 이는 산제 유형의 마을신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2) 상류지역 마을신앙의 실제

(1) 포천군 군내면 용정 2리 요물동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용정 2리 요물동에서는 매년 중구(음력 9월 9일)에 산신제를 지낸다. 일제시대까지는 요물동 외에 용정 2리의 자연마을인 복정동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였으나, 그 이후로 요물동 주민들만 제를 올리고 있다. 함께 제를 지내지 않게 된 뒤에도 4~5년 동안은 복정동 주민들 가운데 제에 참여하고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와 참여하기도 했다. 지금은 중구에 제를 지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산신제를 지내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마을의 영좌가 해마다 날자를 정했다. 그런데 祭日을 정한 후에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부정한 일이 생겨서 산신제를 지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가을철의 제일 좋은 날로 꼽는 중구로 날을 정하여 일정하게 지내게 되었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산신제를 지내는 제당은 마을 입구 언덕에 있다. 그곳은 1960년대 초까지는 소나무가 빽빽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유당정권의 몰락과 함께 퇴직한 이들이 마을로 들어와 제당이 있는 언덕을 개간하게 되면서부터 평지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원래 산 주인은 파평윤씨였으며, 마을에서 제당이 있는 곳만을 매입해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제당은 앉은화주댁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神木으로 참나무를 모시고 있다.

③ 제의 개요

중구가 가까워지면 제관으로 선화주, 앉은화주, 축관을 1명씩 선출한다.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선화주라고 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앉은화주라고 한다. 화주는 생기복덕을 가려서 정하는데, 생기복덕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한문을 잘 알고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읍내에 있는 동춘한약방에 부탁해서 생기복덕을 가려 화주를 정한다. 선화주와 앉은화주는 산신제를 사흘 앞두고 정한다.

제일이 되면 아침부터 제물준비를 시작하며, 선화주가 오전에 장을 봐온다. 앉은화주는 새벽 3시에 일어

나서 우선 조라술을 담가서 제당에 가서 묻는데, 항아리를 창호지로 덮고 짚주저리를 엮어 햇빛을 가린다. 주저리를 만드는 일은 화주가 해야 하는데, 올해는 축관이 대신했다. 참나무 아래 조라술을 묻는 구덩이가 있다. 새벽에 조라술을 묻어두면 하루종일 햇볕을 받아 삭게 되고, 밤에 삭은 술을 체에 걸러 제를 올린다. 조라술에 밥알이 노랗게 가라앉아야 앉은화주가 잘 된다고 하며, 정성이 부족하면 술도 잘 익지 않는다고 한다. 제물로는 소머리, 백설기 서대 서홉, 두부 서대 서홉, 조라술 한대 서홉, 진메 한대 서홉, 산자, 북어, 대추 한되, 밤 한되, 소고기산적을 올린다. 제육은 마을형편이 어려웠을 때에는 돼지머리나 쇠족을 쓰기도 했다. 최근엔 인근 공장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돼지 한 마리를 잡는 때도 있지만, 대체로 소머리를 많이 쓴다. 소머리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랜 시간 고아야한다. 진메와 백설기는 모두 앉은화주집에서 짓는다. 백설기는 방앗간에서 쌀을 빻아다가 집에서 손수 찐다. 본래는 쌀을 빻는 것까지 집에서 모두 했지만, 지금은 번거롭다 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외에 창호지가 세 장이 필요하다. 조라술에 한 장, 백설기찔 때 한 장, 예단드릴 때 한 장을 사용한다. 과일의 경우엔 예전부터 제물로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제사에 사용되는 경비는 30만원 가량 들며 동네에서 추렴을 한다. 원주민은 모두 제비를 내며, 제비를 걷는 일은 선화주가 담당한다. 다만 상갓집에 다녀온 사람은 제비를 내지 않고, 제를 올리고 산에서 내려와 음식을 먹을 때 따로 낸다.

요물동의 산신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라술 담그기

앉은화주가 새벽 3시에 밥을 해서 조라술을 만들고, 4시에 산에 올라가서 묻어두었다.

나. 제물준비

오후 6시에 제물준비를 시작했다. 제물준비는 앉은화주 어머니와 선화주의 부인이 함께 했다. 오전에 방앗간에서 찧어다 놓은 쌀로 떡 찔 준비를 했다. 조그마한 떡시루를 꺼내서 무를 얇게 썰어 시루에 난 세 개의 구멍을 막았다. 본래는 소지종이를 사용하지만, 제사에 사용할 소지종이가 부족해서 무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시루에 쌀을 넣고 백소창으로 덮었다.

시루떡을 안친 다음에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두부는 콩을 갈아 불려두었다가 콩물을 받아서 끓인다. 두부는 간수를 사용해서 굳히는데, 두부 맛은 간수에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간수가 중요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소금을 사다가 함지박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걸어 얹어두면 소금가마에서 소금물이 흘러내렸다. 겨울보다 봄이 되면 습기가 많아져서 간수가 많이 모아진다.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간수로 쓰면 좋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간수로 두부를 해야 제 맛이 나는데, 지금은 판매하는 간수를 사다 쓰기 때문에 그 맛이 덜하다고 한다. 콩을 갈아서 물에 담가두었다가 콩물만 받아내서 두부를 만든다. 커다란 그릇에 넣고 끓였다. 끓이는 도중 나무주걱으로 계속해서 저어주는데, 밑에 가라앉아 눌러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울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불을 끄고 간수를 넣었다. 콩이 엉기기 시작하자 구멍이 뚫린 그릇에 부어 물을 짜냈다.

저녁 7시 15분에 두부를 눌러놓고 떡시루를 불에 올렸다. 떡이 쪄질 때 그 자리를 비우면 떡이 선다고 하여 선화주 할머니는 급히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야 시루를 올려놓았다. 솥에 물을 붓고 시루를 올려놓은 뒤, 솥과 시루의 틈새를 밀가루로 본을 만들어 붙였다. 시루는 뚜껑을 덮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렇게 해야 떡이 설지 않는다고 한다. 떡이 익으면 쌀가루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므로, 그 때 남은 쌀을 시루에 붓는다. 이어서 소고기를 넓게 떠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꺼내서 산적을 지졌다. 산적의 크기는 대략 20~25㎝ 정도 되었다. 모두 다섯 쪽인데, 한쪽 상에 두개, 다른 한 상에 세 개를 올린다고 한다. 간장으로 간을 하고 통깨만 뿌렸다. 저녁 8시쯤 메를 짓기 시작했다. 쌀을 불려놓았다가 메를 짓는데, 그 양은 한대 서홉이다.

다. 산 오르기

밤 10시에 산으로 올라갔다. 영좌, 앉은화주, 이장, 선화주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각자 제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라. 제물진설

당에 도착해서 제물을 진설했다. 이장과 앉은화주가 함께 진설했다. 소머리와 진메를 그릇째 상 앞에 차리고, 두부도 그릇째, 양쪽에 촛대, 밤 두 접시, 산적 두 접시, 대추 두 접시를 차렸다. 통밤과 대추는 푸짐하게 담았다. 한 상은 산신상이고, 다른 한 상은 접신을 위한 상을 차린 것이다. 제물을 진설할때는 백설기는 시루째 놓고, 진메도 지은밥 그대로 올린다. 예단으로 올릴 북어 한 마리와 한지는 상 밑에 두었다. 이장이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었다. 앉은화주가 주저리를 벗기고 조라술 항아리에서 술을 꺼내 걸렀다. 술은 필요한 분량만큼만 걸러냈다.

마. 헌작과 독축

앉은화주가 술을 받아서 상에 올리고 절을 두 번 올렸다. 절이 끝나고 축관이 축문을 읽고, 이어서 앉은화주가 다시 절을 두번 올렸다. 축문은 전해 내려오는 것이 없고 일정한 틀도 없으며, 해마다 산신제일 저녁에 동춘한약방에 가서 축문을 지어온다.

바. 예단 드리기

이장이 왼새끼로 꼰 새끼줄, 조라항아리를 덮었던 주저리와 넓게 접은 한지, 북어를 준비했다. 산신님께 드릴 예단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단으로는 창호지 한 장, 북어 한 마리를 왼 새끼로 꼰 새끼줄로 묶어 참나무에 올린다. 왼 새끼는 화주가 꼰다. 조라술이 묻혀있는 바로 뒷나무에 한지와 북어를 함께 묶어 놓고, "동네 탈없이 풍년들게 해달라"고 축원을 했다. 작년에 왼쪽 나무에 묶었던 예단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올해는 예단 드리는 나무를 바꿨는데, 지난해에 풍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 소지 올리기

예단을 드리고 앉은화주가 도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도소지(대동소지)를 먼저 올리고 개인소지를 나중에 올린다. 앉은화주가 "군내면 용정리 용정동 일년 열두달 무고하게 해주십시오"하고 도소지를 올렸다. 도소지는 때에 따라 축관이 올리기도 한다. 한지 한 장을 길게 접어서 불을 붙여 도소지를 올리고 나면 함께 온 사람들이 각기 동서남북을 향해 개인소지를 올렸다. 개별적으로 소지를 올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부탁하면 소지를 올려준다.

아. 푸닥거리

그 사이에 이장은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그릇에 옮겨담았다. 밤 두개, 대추 네개, 산자 등을 골고루 담아 놓는다. 푸닥거리할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개인소지를 올리는 동안 이장은 준비한 제물을 사방으로 조금씩 던져놓았다.

자. 음복

개인소지와 푸닥거리가 끝나면 음복을 한다. 조라항아리에서 술을 떠내 한잔씩 권하고, 술과 함께 소머리, 떡, 밤 등을 나누어 먹었다.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밤, 대추 등을 가져다가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한해 무병했다고 한다.

차. 산 내려오기

음복을 마치고 밤 10시 45분쯤 앉은화주집으로 내려왔다. 마을주민들 대여섯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다시 음복을 하고 산신제를 마쳤다.

④ 주요 제보자

○ 김옥한(남, 71세, 용정리 95번지, 용정2리 영좌, 산신제 축관)
○ 최인수(남, 43세, 용정리 185-4번지, 산신제 선화주)
○ 김영배(남, 43세, 용정리 , 산신제 앉은화주)
○ 김점자(여, 73세, 김영배씨 어머니)
○ 박춘식(남, 60세, 용정리 184번지, 용정2리 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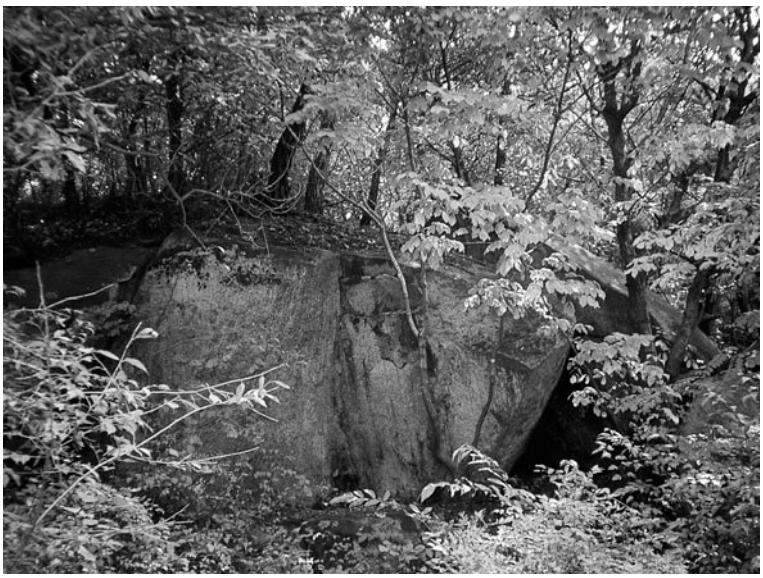
(2) 포천군 영중면 거사 2리 거시울

① 제의 개요

거사 2리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천제사라는 마을신앙을 행했다. 천제사는 매년 정월 14일 밤에 지냈는데, 밤에 지내는 까닭은 부정이 안타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 76〉 영중면 거사2리 천제사 바위



〈사진 77〉 병풍바위('평풍바위' 라고도 함)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천제사는 모두 세 곳에서 지낸다. 제일 먼저 지내는 곳은 마을 앞 개울가에 있는 바위로 이를 '천제사바위' 라고 부른다. 천제사바위는 큰 바위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얹혀 있는 모양이며, 개울과 맞닿아 있다. 이곳에서 제를 마치면 마을 내에 있는 병풍바위에서 제를 지내고, 다시 마을 뒷산 자락의 물푸레나무에서 제를 지낸다.

③ 제의 개요

거사 2리 천제사는 매년 정월 14일 밤에 지냈으며, 제사를 지내기 3~4일 전에 그 해의 일진과 생기복덕을 가려 상하주와 중하주, 각 1명을 선출하였다. 화주를 선출하면, 화주집 대문기둥에 송침을 해두고 조라술을 마련하여 천제사바위 옆에 묻어둔다. 제당에는 송침을 하지 않는다. 천제사는 두 명이 담당하는데, 우선 천제사바위에서 제를 지낸다. 제육으로는 소머리를 과서 쓰는데, 솥째 올렸다. 제육 외에 메와 밤, 대추, 사과, 배를 올렸고, 떡은 백설기를 올렸다. 메 역시 제육처럼 솥째 올렸다고 한다. 조라는 3~4일 전에 바위 옆에 묻어 두었다가 꺼내서 쓴다. 제물은 천제사 당일 오전 일찍 포천읍내로 나가서 구입하였다고 하며, 비용은 집집마다 쌀 한되씩 걷었다고 한다.

제차는 배례-헌작-고축-배례-소지 순으로 진행된다. 축은 매해 일진을 봐서 새로 작성하여 썼다고 한다. 소지를 다 올리고 나면, 천제사 바위 공터에 모여있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음복을 한다. 천제사에서 제와 음복을 마치면 마을 내에 있는 평풍바위로 화주 둘만 와서 다시 제를 지낸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산아래 밭에 있는 물푸레나무에 제를 올리면 끝난다. 나무는 현재 거의 고사해 버리고 말았다. 평풍바위와 나무엔 천제사바위에 차렸던 제물 중 노구메와 일부제물을 그대로 차렸다.

④ 주요 제보자

○ 김만석(남, 70세, 거사리 597-4번지)

(3)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하동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산정리 하동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 오후에 산신제를 지낸다. 예전엔 산안에서만 지냈으나 주민이 늘면서 산정리 안에서만 세 곳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이번에 조사한 하동과 함께 산안과 상동에서도 중구에 산제사를 지낸다. 하동과 달리 산안과 상동에서는 음력 9월 8일 밤에 산신제를 지낸다.



〈사진 78〉 포천 영북면 산정리 신목과 금줄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하동과 접해 있다. 하동의 상점가 입구에 호수가든이라는 음식점이 있으며, 호수가든 선전탑 옆으로 난 좁은 산길을 따라 50여 미터 가량 산을 오르면 나타난다. 제당으로 가는 길은 수풀이 우거져 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동의 산정호수 임시파출소 바로 뒤편으로 20여 미터 위에 있다. 신목으로는 소나무를 모시고 있다. 소나무 아래에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리기 위해 1평 가량 터를 닦아 놓았는데, 워낙 경사가 급해 제를 지내기에는 다소 위험한 느낌마저 든다. 원래 제당은 현재의 자리가 아니라 산 정상부로 더 올라간 곳에 있었지만, 1990년 초반에 현 자리로 이전해서 제를 지내고 있다. 이전하기 전에도 신목으로 소나무를 모셨는데, 바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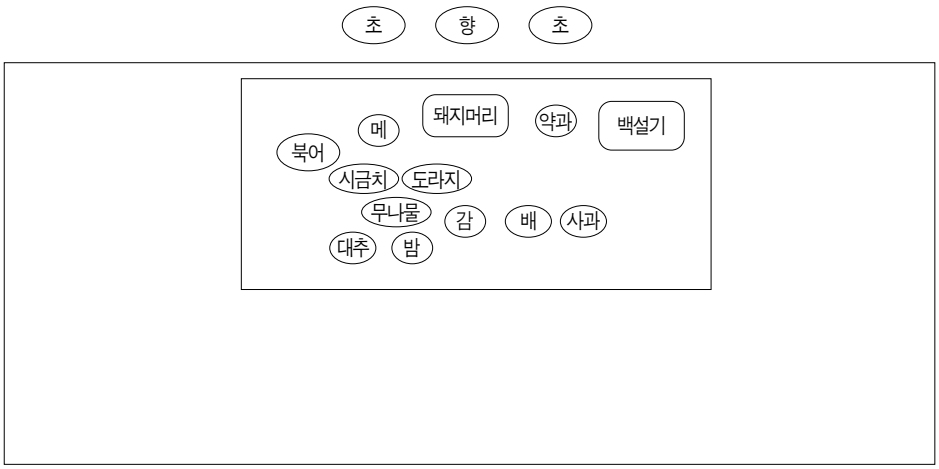
③ 제의 개요

하동 산신제에서는 제관과 화주 각 1명을 선출하며, 제관은 수년째 이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이든 사람이 주로 맡으나 60세 이상이 드물어 이장이 계속 맡는다고 한다. 제물 준비를 담당하는 화주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선출한다. 제를 지내기 2~3일 전에 화주를 선출하는데, 올해는 이틀전인 10월 5일에 선출했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 이기영씨가 맡았다. 화주는 생기복덕을 보고 산신과 궁합이 맞아야 한다고 한다.

산신제 절차를 보면, 우선 제를 지내는 날 아침 오전에 제물준비를 맡은 화주가 운천리에 나가서 제물을 구입해 온다. 제물로는 돼지머리와 백설기, 배, 감, 사과, 대추, 밤, 삼채(무 · 시금치 · 도라지나물), 북어,

메, 약과를 올린다. 돼지머리의 경우 삶아서 올리며, 1980년대 초까진 검정돼지를 마을에서 직접 잡은 후 돼지머리만 올렸다. 떡은 방앗간에서 팥시루떡과 백설기를 각 한말 가량 해오지만, 산신제엔 백설기만 올린다. 조라는 따로 담그지 않고 막걸리를 사다가 쓴다. 이 역시 예전엔 산신제 전날밤에 가서 묻어 두었다가 꺼내서 썼다. 제물 마련 비용은 성의껏 내나 대체로 각 가구당 1만원씩 걷었다. 올해는 모두 44가구가 참여했고, 마을 앞 한화콘도에서 찬조하였다.

〈그림 36〉 하동 산신제의 제물 차림



제물준비가 끝나고 오후 3시에 화주집에 모여 제물 중 빠진 것을 점검한 후 3시 20분경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산제사에는 올해의 경우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산제사터까지는 거리가 150미터 가량 된다. 제당에 도착한 후에는 간단히 제당 주변을 청소한 후 제물을 차리기 위해 돗자리를 깐다. 젊은 사람들은 제물을 차리는 동안 신목 밑둥에 북어를 매달 인줄을 매는데, 기존에 있는 인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인줄을 겹쳐 맨다. 제물 차림이 끝나면 분향을 하고 제관이 절을 하고 헌작을 한다. 그리고 제물준비를 맡은 사람이 축을 읽는다. 축은 과거엔 산신축이 있었으나 한자로 쓰여 있어 읽기도 불편하고 해서 지금은 매년 새로 한글로 써서 사용한다. 축은 제사 당일에 제물 준비하는 사람이 맡아서 적었다.

〈 축문 내용 〉

산정호수 주민이 떡과 술을 정성들여 장만하여
산신령께 바치오니 부디 거둬주시고 주민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주민에게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민 모두에게 사업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정호수 하동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신령님께 바치고
절을 올리는 자를 호명하오니 부디 보살펴 주시옵소서.

※ 이하 비용을 낸 가구의 상호와 운영주를 호명함

축을 읽고 제관이 절을 하고 물러나면 아헌과 종헌으로 이어진다. 아헌은 화주가 담당하고 기타 사람들이 종헌을 담당한다. 올해는 마을앞 한화콘도에서도 참여해서 종헌을 했다. 종헌까지 마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대동소지는 올리지 않고 마을에 있는 각 상점별로 올려주는데, 상점명과 주인의 이름을 부르며 태운다. 올해는 모두 32장의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다 올리고 나면 축문을 불에 사른다. 산제사를 마치면, 간단히 음복을 하고 제물을 준비한 집으로 내려오는데, 올해는 4시반 조금 못되어 마쳤다. 산에서 내려오면 제물로 썼던 백설기와 따로 준비해둔 시루떡을 골고루 나눠서 집집마다 돌린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을 불러 음복을 한다.

④ 주요 제보자

○ 김수동(남, 64세, 산정리 451-15호 강원식당, 산정리 이장으로 자일리가 고향이며,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81년도에 이주해왔음)
○ 이기영(남, 45세, 산정리 451-4번지, 깊은산골식당 운영)

(4) 포천군 관인면 중 3리 상심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중 3리 상심마을에서는 매년 정월에 날을 받아서 노제라는 마을신앙을 행한다. 노제에서는 산신을 모시며, 산신은 호랑이라고 한다. 노제를 지내게 된 까닭은 산에서 늑대나 살쾡이가 내려와 자꾸 개를 물어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개를 잡아서 노제를 지냈더니 개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제를 지내는 시간은 저녁 8~9시 무렵이다.


〈사진 79〉 관인면 중 3리 노제터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중 3리 상심마을 중앙에는 느티나무가 있으며, 이곳은 마을 주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공간을 마련

해 두고 의자를 설치해 놓았다. 느티나무 옆에 마을을 흐르는 도랑 위로 조그만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 위에서 노제를 지낸다. 예전엔 지금 자리에 큰 돌탑이 있었으나 전쟁 후에 돌아오니 없어졌다고 한다.

③ 제의 개요

제를 올리기 열흘 전쯤에 생기복덕을 보고 화주 2명을 선출하는데, 화주는 제물준비와 제관 역할을 담당한다. 제사 지내기 3일전부터 화주집에 송침을 해둔다. 노제 당일 저녁 8~9시 경에 제를 지내는데, 원칙적으로는 화주 둘만 가서 제를 지내고 제를 마친 후에 화주들이 소리를 지르면 주민들이 나와서 음복을 했지만, 요즘엔 구경하고픈 사람들은 구경을 한다. 노제이기 때문에 마을밖 신작로를 향해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낸다. 제물 가운데 제육으로는 개를 한 마리 잡는데, 개는 외부에서 사오기도 하고 마을에 적당한 개가 있으면 값을 치르고 잡기도 한다. 개는 반드시 수캐를 잡으며, 개를 잡으면 각을 떠서 큰 솥에 삶은 후 올린다. 제육 외에 서되 서홉으로 백설기시루를 찌고, 콩 서되 서홉으로는 두부를 만들어 올린다. 그밖에 사과, 배, 대추, 밤, 북어포, 무나물을 차린다. 조라술도 서되 서홉을 한다. 제물비용은 집집마다 만원 정도 걷으며, 동네돈도 일부 보탠다. 제사 순서는 진설-배례-고축-배례-소지 순으로 진행된다. 축은 해마다 새로 적어서 쓰며, 소지는 가구별로 소지를 다올렸으나 지금은 한꺼번에 쥐고 태우거나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각자 올리기도 한다. 고사를 지낸 후 개머리는 먹지 않고 적당한 곳을 잡아서 파묻는다.

④ 주요 제보자

○ 조언형(남, 73세, 중리 733번지)
○ 이정순(여, 73세, 조인형씨 부인)
○ 김상용(남, 77세, 중리 759번지)

(5) 연천군 중면 삼곶리


〈사진 80〉 중면 삼곶리 부군굿터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삼곶리에서는 일제강점기까지 부군굿을 행했다고 한다. 부군굿은 해마다 하지는 않았으며 3~4년에 한번 정도씩 음력 10월경에 행했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부군굿터는 현 마을회관 우측의 낮은 언덕 위였으며, 이곳엔 한국전쟁 전까지 물푸레나무와 회나무

등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서 마을의 각종 행사가 열렸고 쉼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 달맞이도 이곳에서 했다.

③ 제의 개요

부군굿은 하루낮밤을 했으며, 무당의 수는 많지 않아서 3명 정도가 와서 굿을 했다. 부군굿은 일제강점기 후반에 미신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삼곶리의 자연마을 가운데 하나였던 고미포 인근에는 무당소라는 여울이 있었고 그곳에선 무당이 치성을 드리거나 굿을 자주 했다고 한다. 주로 익사한 사람들의 넋건짐굿 등을 했다. 그리고 마을에서 옹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산신제를 지내기도 했는데, 독을 굽기 위해 나무를 하고 흙을 채취해야 했기에 산신에게 지냈다.

④ 주요 제보자

○ 최주식(남, 69세, 삼곶리 365번지)
○ 최광식(남, 77세, 삼곶리 352번지, 노인회장)
○ 최기중(남, 57세, 삼곶리 351-1번지, 이장)

3) 중류지역 마을신앙의 실제

(1)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개무더미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선곡리 개무더미마을에서도 일제강점기까지 부군굿을 행했다. 신격은 부군이었다고 하며, 원래는 매년 10월에 부군굿을 하다가 나중엔 한해 걸러 한번씩 했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개무더미마을에 부군나무가 있어 그곳에서 굿을 했는데, 부군나무는 참나무였다고 한다. 현재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가게 자리가 그곳이라고 한다.

③ 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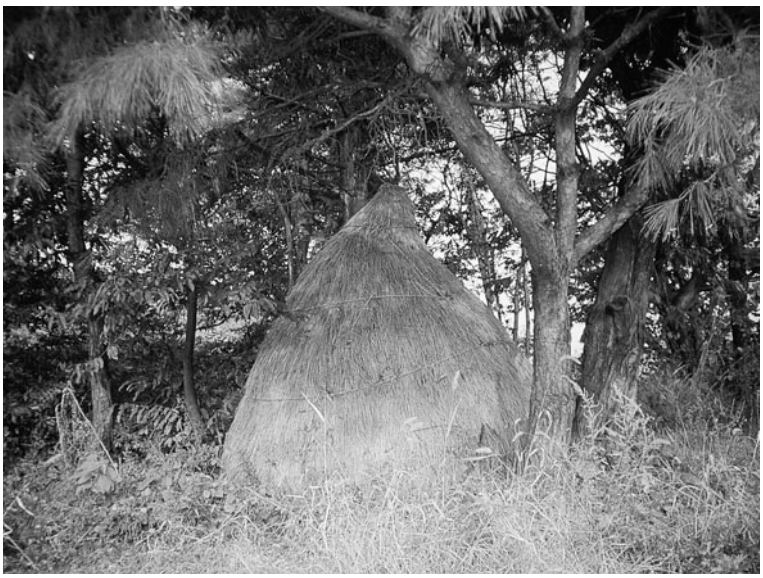
부군굿은 마을에 자꾸 불이 나서 만신에게 물어보니 부군굿을 해야 좋다고 해서 돈을 걷어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라서 크게 놀지는 못했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까지 굿을 했다. 굿을 하면 무당이 3명, 그리고 장구잽이와 징잽이 등이 와서 12거리를 했다. 굿을 하게 되면 상하주와 중하주를 선출하고, 상하주가 제물준비를 맡는다. 무당들은 저녁에 상하주 집에 묵으면서 상하주에게 무당전복을 입히고서 축원을 해주었다.

한편 개무더미마을 앞의 임진강에는 용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용바위라고 하는 까닭은 먼 옛날 이 바위에서 용이 나왔고 생긴 모양도 용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 마을에선 날이 가물면 용바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날이 가물면 동네 어른들이 결혼한 여성들에게 기우제를 지내라고 했다. 그러면 여자들은 키를 하나씩 들고서 용바위로 가서 바위를 둘러싸고 키로 용바위에 물을 뿌렸는데,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꼭 비가 내렸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다시 들어와서도 한동안 기우제를 지냈으나, 수리시설이 잘 갖춰진 이후로는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④ 주요 제보자

○ 김초동(여, 89세, 선곡리 527-3번지)
○ 안홍표(남, 56세, 김초동씨 아들, 마을이장)
○ 박희서(남, 86세, 선곡리 523-21번지)

(2)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쇠촌


〈사진 81〉 전곡읍 신답리 당집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신답리 쇠촌에서는 매년 정월 14일 밤 子時에 산치성을 드린다. 모시는 신은 산신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지내는 산치성 외에 3~4년마다 산신당에서 대동굿도 하고 있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산신당으로 부르며, 터주가리 형태다. 크기는 상당히 커서 높이가 약 2.2m, 밑둘레가 약 7m다. 주저리는 매년 산신제를 지낼 때 새로 하는데, 모두 새것으로 하지는 않고 겉면에 있는 썩은 것만 떼어내고 새로 해서 씌운다. 그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으나 전하는 말로는 내부에 나무 세 개를 엇걸쳐 놓았다고 한다. 산신당은 노인회장인 오태근씨댁 옆에 있다. 마을 초입에 있는 신답정미소 뒤편으로 제보자의 집이 있고, 그 우측을 보면 소나무 사이로 커다란 주저리가 보인다. 산신당이 있는 지번은 신답리 산 7번지다. 제당이 있는 부지는 일제강점기엔 공동소유였다고 하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개인소유가 되었다. 현 소유주가 제당의 이전을 요청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③ 제의 개요

정월 초에 생기복덕을 보고 상하주, 중하주 각 1명을 선출한다. 하주로 선출되면 제를 지내기 일주일전부터 외출을 삼가고 조심한다. 상하주가 제관이 되고 중하주는 보조역할을 맡는다. 상하주 집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일주일간 금줄을 치고 대문 양옆으로 황토를 뿌려둔다. 제일이 다가오면 산신당 주변을 깨끗이 하는데, 당일 낮에는 더욱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제사절차는 일반 제사절차에 따르며, 소지는 상하주, 중하주, 이장, 마을의 연장자들을 각 반별로 집집마다 올려준다. 소를 키우는 집의 경우엔 소을 위해서 소지를 따로 올려준다. 제물은 하주들이 구입하며 제물장만은 상하주 집에서 담당한다. 제육으론 돼지머리를 익히지 않고 올리는데, 산신에게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돼지머리 외에는 소간, 밤, 대추, 사과, 배, 곶감를 올리고, 떡으로는 백설기를 올린다. 조라는 제사지내기 사흘전에 산신당 앞에 묻어두었다가 제사 지낼 때 꺼내서 쓰며, 쌀 석되를 사용한다. 제물구입 비용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3천원씩 걷었다. 한편 제육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검은 돼지를 마을에서 길러서 그것을 제육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돼지를 올릴 때는 돼지간과 통돼지를 그대로 올렸다. 음복은 과거엔 대추, 밤, 떡 등 모두 똑같이 나눠서 주었으나 지금은 그 자리에서 음복후 이튿날 경로당에 모여서 음복한다. 제사가 끝나면 첫닭이 울 때가 된다.

한편 이 마을에선 3~4년 주기로 산신당에서 대동굿을 하는데, 3년 전에 했기에 머지 않아 지낼 거라고 한다. 굿은 이틀정도 진행되며, 무당은 다섯 명이 온다. 굿을 할 때도 상하주와 중하주를 선출해서 하주들이 절을 하고 나서 굿이 시작된다. 굿 비용은 형편에 따라 내며, 많이 내는 가구에선 쌀 한가마 정도를 내기도 한다.

④ 주요 제보자

○ 오태근(남, 74세, 신답리 90-5번지, 노인회장)

(3)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큰배울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동이리 큰배울에서는 격년으로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서 산신제를 지냈으나 4년 전에 지낸 후 지금까지 지내지 않고 있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마을의 금굴산 정상부에 있으며 산신당, 성황당, 객귀당으로 나뉜다. 제당형태는 터로 이뤄져 있으며, 제를 지내기 하루 전날 올라가서 자리를 다져놓는다. 당 주위에 샘이 있어 당우물로 정해놓았다.

③ 제의 개요

제를 지내기 3~4일전에 노인회 임원들이 모여서 날을 잡고 제관을 선출하며, 화주라고도 부르는 집사

도 선출한다. 제관집이라도 황토나 금줄은 하지 않는다. 당이 3개이고 자연마을 역시 3개(큰배울, 작은배울, 학교앞)였기에 각 마을마다 제관과 집사를 1명씩 선출했었지만, 차츰 자연마을 구분 없이 3명씩을 뽑게 되었다고 한다. 즉 당 하나마다 제관 1명, 집사 1명이 담당한다. 제를 지낼 때도 6명만 가서 지냈다. 당이 3개인 까닭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제를 지낼 때는 집사들이 낮에 가서 제물 준비를 하고 제관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올라가서 지내며, 밤 10시경에 제를 지낸다고 한다. 제물로는 소고기, 삼색과일, 북어, 떡, 나물, 메를 올리며, 조라는 당일날 제당에서 만들어서 사용한다. 제물구입은 주로 전곡장을 이용하며, 비용은 집집마다 쌀 한되씩 또는 한되만큼 돈을 걷어서 사용했다. 산신제의 제차는 일반적인 제사절차에 따르며, 산신당, 성황당, 객귀당 순으로 지내고 마지막에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올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을 했다.

④ 주요 제보자

○ 서용하(80세, 남, 동이리 306-3번지, 노인회장)

○ 김태완(81세, 남, 동이리 306번지)

(4) 연천군 백학면 노곡 1리



〈사진 82〉 백학면 노곡 1리 산단제사터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노곡 1리에서는 매년 음력 8월 첫 丁日 밤에 산단제사를 지내고 있다. 만약 날을 미루더라도 8월 중 정일에만 지낸다. 과거엔 인근 노곡 2리와 함께 지냈으나 마을이 1리와 2리로 분리되면서 제사터를 따로 정해서 지내게 되었다. 노곡 2리 역시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마을에 있는 솔밭매운탕 집 맞은 편 소로를 따라 150여 미터 올라가면 나타나는데, 제당으로 가는 입구에 지뢰밭이 있으나 비로 인해 유실된 것도 있어 종종 사고가 난다고 한다. 제당은 산 능선부의 터로 이뤄졌으며 소나무 두 그루와 잡목이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향후 당집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③ 제의 개요

산단제사 날짜는 매년 정해져 있으나, 노인회 임원과 이장, 반장들이 3~4일전에 모여 날짜를 확정하고 화주 1명을 선출한다. 화주는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제관도 뽑는데 제관은 각 반마다 3명씩 뽑으며, 반장들이 제관으로 뽑힌 사람에게 통지를 한다.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삼헌관으로 나누며 젊은 사람과 노인을 반반 정도 섞어서 선출한다. 비린 것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보거나 한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렵기에 참석자는 선출된 제관의 반쯤 된다. 화주를 선출하면 화주집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황토를 뿌려둔다.

화주가 제삿날 낮에 산단제사터에 가서 차양막을 치고 상을 차려놓고, 제를 지낼 때가 되면 제관들이 올라온다. 제사절차는 일반 제사절차와 동일하다. 제물로는 쇠머리, 밤, 대추, 삼색과일, 사과, 북어를 올리며, 과일은 깎지 않고 사용한다. 제물비용은 마을기금에서 충당하는데, 기금은 상이 났을 때 상여를 놀려서 모은 돈을 적립한다고 한다. 보통 제를 지내면 약 30만원 정도 든다. 제사상과 제물을 담는 고무대야는 신에게 바치는 것이기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새로 장만하는데, 제사가 끝나면 화주에게 준다. 제를 지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하고 다음날 아침에 방송을 해서 주민이 모여 음복을 하는데 20~30명 정도가 참석한다.

④ 주요 제보자

○ 홍현숙(남, 67세, 노곡리 73번지, 노인회 총무, 이중계장)

(5)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고랑포리는 현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출입영농만 허용되는 곳이다. 한국전쟁 이전 고랑포리에서는 고창굿이 크게 행해졌다고 하는데, 3년에 한번씩 봄철(음력 2월경)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했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부군당으로 불렸으며, 중고랑포 석벽위에 기와로 지붕을 이은 당집형태였다.

③ 제의 개요

고창굿을 하게 되면, 고랑포에서 배를 부리던 사람들은 뱃기를 만들고, 주민들은 농상기를 만들어 기가 수십 개가 모였다고 한다. 인근에서도 유명했기에 40~50리 밖에서도 구경을 하러왔다고 한다. 무당들은 인근에서 왔으며 10여 명이 왔는데, 무당이 당을 맞으러갈 때나 배송하러 갈 때면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한다.

굿은 웃고랑포에서 굿을 하고 나서 다시 아랫고랑포에서도 굿을 해서 거의 한달간 굿이 진행될 정도였다고 한다. 굿은 부군당에서 신을 모셔와서 고랑포 석벽 위에서 진행되었다. 굿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취군'이라고 해서 남사당패식으로 조직하여 놀았으며, 취군들은 20세가 채 안된 17~18세 정도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달여간 합숙시키며 여러 역할을 맡겨서 연습을 시켰으나 자세한 명칭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무

동만 7~8명에 이를 정도의 큰 규모였는데, 무동 가운데 활옷 입고 중춤을 추는 중아이는 1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광복 후에도 한두번 굿을 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흩어지고 수복 후에도 고랑포에 거주할 수 없는 관계로 명맥이 끊어졌다.

한편 고랑포리 외에 자작리에서도 굿을 했었다. 현재의 원당 3리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한국전쟁 전에는 현 자작리에 30여 호 정도 거주했다고 한다. 그 중 중심 마을은 골안이었는데, 골안마을 입구 양쪽으로 암서낭과 숫서낭이 있었는데, 암서낭은 소나무, 숫서낭은 엄나무였다고 한다. 암서낭이 위에, 수서낭이 조금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골안에서도 서낭에 굿을 했으나 규모는 크지 않아서 하루낮밤을 하는 정도 였다고 한다. 한편 전쟁이 끝나고 이주가 허용된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도 삼년에 한번씩 음력 10월에 산신제를 지냈으나 원당 3리와 분리되면서 점차 하지 않게 되었다.

④ 주요 제보자

○ 이봉의(남, 71세, 장남면 원당리 111번지)

○ 문시옥(남, 62세, 장남면 자작리 88번지, 노인회 부회장)

(6)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뒤기



〈사진 87〉 적성면 두지리 산신제터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두지리 뒤기마을에서는 매년 중구에 산신에게 산치성을 드린다. 중구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매년 음력 9월 8일 저녁에 지낸다. 원래는 11시 넘어서 지냈지만, 최근 들어서 9~10시 경에 지낸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산치성을 드리는 장소는 두지리 입구에서 마을을 바라보고 좌측 산줄기에 있는데, 임진강매운탕집 뒤편 20여m 거리에 있다. 마을 끝 부분에서 우측으로 난 산길을 계속 따라가면 나타난다. 제당은 약 3평 정도 규모로 터를 닦아 놓은 형태이며, 참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 제물을 차리고 제를 드린다고 한다. 지번상으로는 두지리 산 31-1번지에 속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제를 지냈으나 전쟁 후에 마을에 돌아와 보니 사라졌다고 한다.

③ 제의 개요

제관은 대주라고 하며, 제물준비와 제당정리, 비용거출을 위해 소임 3명 선출한다. 3명의 소임 중에서 제물준비를 하는 소임이 가장 중요시된다. 대주는 본래 노인들만 살고 있는 집이나 탈없이 깨끗한 집을 대주로 뽑았고, 젊은 여자가 있는 집도 대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체로 노인분들이 대주를 맡았으나 몇 년 전부터 노인들이 산치성에 참여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장이 대주를 맡는다.

이 마을에선 제육으로 통돼지를 올린다. 원래 통돼지를 사용하다가 한동안 돼지머리를 올리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나 몇해 전부터 이왕 지내는 거라면 정성스럽게 하자고 해서 다시 통돼지를 잡고 있다고 한다. 돼지는 암퇘지를 사용하며, 새끼를 밴 적이 없고 상처가 없는 돼지로 120~130근 정도 되는 놈을 양돈장에 가서 구한다. 돼지는 동네에서 잡는다. 이밖에 떡으로 백설기를 올리는데, 쌀 서말을 사용한다. 메는 서되를 사용해서 짓는데, 큰그릇과 작은 그릇으로 나눠 담는다. 큰 그릇은 산신에게 올리고, 작은 그릇은 7개를 만들어 주변에 놓아둔다고 한다. 작은 그릇을 7개 놓은 이유는 모른다고 하며, 주변에 있는 잡신들을 풀어먹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덕경씨에 따르면 예전엔 나물도 7개를 놓았다고 하나, 유용종씨는 무, 시금치, 도라지 3가지를 놓는다고 한다. 이밖에 북어 2마리, 밤, 사과, 배, 대추, 탕국을 올리며, 과일은 위를 깎지 않고 그냥 쓴다. 조라의 경우 전날 밤에 제당에 묻어두었다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꺼내서 사용한다. 비용은 올해의 경우 30만원 정도 들었으며, 가구마다 2만원씩을 걷었다. 올해의 경우 21가구에서 비용을 내었다. 돈이 남을 경우엔 이듬해 산신제를 지내는 데 사용한다.

산치성에는 제물이 많기 때문에 7~10여 명 정도가 참여하며, 여자들은 참여치 않는다. 산치성을 드리게 되면 우선 작은 그릇에 담은 밥을 나란히 놓고 대주가 절을 한다. 다음 젯상을 향해 대주가 2번 절을 하고 헌작하면 고축을 하고 다시 절을 한다. 재차는 일반적인 제사절차에 따른다. 소지는 돈을 낸 가구의 세대주명을 부르며 하나씩 소지를 올려준다.

④ 주요 제보자

○ 유용종(남, 49세, 두지리 88-2번지, 10여 년간 이장을 맡았었음)

○ 이덕경(남, 68세, 두지리 88-6번지)

4) 하류지역 마을신앙의 실제

(1)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임진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첫 丁日에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산고사라고도 하고 산제사라고도 한다. 원래는 임진리와 마주한 동파리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것이 동파리 주민들이 임진리에 집단 거주하게 되면서 임진리와 동파리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산신제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지내는


〈사진 84〉 문산읍 임진리 산신제터

데, 오래 전부터 아침에 지내왔다고 한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임진리엔 마을 옆의 산 정상부 조금 못미친 곳에 산신제터가 있다. 임진나루에서 신농촌마을 방향으로 신농촌 마을 초입부에서 산신제터로 가는 길이 나있다. 이 터에서 보면 강 건너로 동파리가 보이는데, 동파리의 산신제는 월봉산이라는 곳에서 지낸다. 당집은 없다.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제의 날짜가 정해지면 우물에서 물이 솟았다고 한다. 또한 월봉산이 신령스러운 산이기 때문에 산신제 지낼 날이 정해지고 제사에 쓸 돼지를 정해 놓으면 그 돼지가 신통하게도 산신제터까지 찾아 올라갔다고 한다. 월봉산은 일제강점기 때 장사가 나온다고 해서 쇠말뚝을 박고 쇳물을 부었다고 하며, 아직도 장군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③ 제의 개요

제사 지내기 열흘 전에 마을회관에 이장을 비롯해서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임진리와 동파리에서 제를 지낼 제관, 도가, 소임을 각기 정한다. 선출할 때는 생기복덕을 가리지 않지만, 상을 당했거나 부정한 일이 있는 사람은 피한다. 특히 제관, 도가, 소임의 성이 같으면 안되기 때문에 성이 모두 다른 사람을 선출하며, 먼저 도가를 먼저 선출하고 나서 제관, 소임 순으로 선출한다. 동파리 산신제의 제관은 황표진씨가 계속 담당하고 있다. 제관은 제사를 주관하고 축을 읽으며, 제관을 도와 잡다한 일을 하는 소임은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제관 등을 선출할 때 산신제일도 정하는데, 동파리에 거주할 당시에는 제일을 정하면 어디 다녀오지도 못했고 다른 마을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며칠 자고 가야만했다. 월봉산에도 나이 많은 사람들만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했다. 제일이 정해지면 비린 것은 먹지 못하고, 깨끗하게 목욕재계해야 했다.

임진리와 동파리 산신제의 제의과정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오전 8시

8시쯤 마을회관에서 임지리 산신제의 제관을 맡은 김한식씨와 도가를 맡은 윤종열씨, 임진리 이장 등이 모여 안고사를 준비한다.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회관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 댁의 안고사를 먼저

지낸다고 한다. 제물준비는 항상 그 분이 하시기 때문에, 안고사 또한 매년 그렇게 지내왔다. 마을회관에는 산신제에 사용할 제물을 준비해 놓는다. 도가할머니가 상을 차리는 동안 제관은 옷을 갈아입는다. 장은 이장과 반장이 전날 문산장에 가서 보아온다. 도가할머니는 장을 보시지 않는다. 장을 보는 이는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이장이 본다. 전날 과일, 나물 등을 준비하고 떡은 당일 아침에 방앗간에 가서 쪄온다. 예전에는 제육으로 통돼지를 올렸고 산신제터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를 지낸다. 제보자들은 전쟁 전에는 동파리, 임진리, 저우니 모두 통돼지를 올렸다고 한다. 지금은 임진리에선 돼지머리, 동파리에선 소머리를 올린다. 시루는 모두 3개로, 동파리, 임진리산제와 안고사때 사용되는 시루로 구분되어 있다. 안고사를 지낼 떡은 할머니 재량이기 때문에 맛있으라고 안에 호박을 썰어 넣기도 하나, 산신시루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았다. 안고사의 제물은 산신제의 제물과 거의 같지만, 고기는 돼지고기를 삶아 한덩이 올려둔다. 시루떡은 시루 채로 올린다. 그밖에 북어, 사과, 감, 배, 대추, 밤, 산과, 강정을 준비하며, 조라는 산신제 지내기 전날 묻어놓았다가 제사지낼 때 꺼내서 쓴다.

제물마련에 사용될 경비는 산신제 날짜가 잡히면, 반장이나 총무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얼마씩 추렴한다. 주민들은 성의껏 준비했다가 낸다. 예전에는 쌀을 많이 걷었는데, 1980년대만 해도 쌀 한말이든 반말이든 되는대로 냈다. 지금도 쌀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쌀은 돈으로 바꿔온다. 90만원 정도 제비를 거두어서 제를 지내는데 60만원 정도 사용한다. 소머리는 개당 12만원 정도 된다. 남은 돈은 동네기금으로 적립해둔다.

8시 30분경에 안고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도가댁 할아버지가 절을 두 번 올리고, '마을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하고 기원했다. 안고사에는 소머리 대신으로 돼지고기를 삶아서 조금 올려놓았다. 그 외에 진설된 제물은 시루떡을 시루째로 올리고, 사과 3개, 감 3개, 밤과 대추 몇 알을 차린다. 시루떡 위에는 북어 한마리를 가로로 올려놓았다.

나. 오전 9시

9시 15분쯤 산신제터에 갈 준비를 한다. 제물을 싸고, 전날 사두었던 소머리 2개를 가져왔다. 소머리는 문산장의 소시장에서 사왔다. 소머리는 생으로 올리기 때문에 삶지 않는다. 2개의 산신시루 위에는 백설기 한쪽이 준비되어 있다. 방앗간에서 시루떡을 쪄올 때 시루떡 위에 백설기를 한쪽 얹어 찐다고 한다. 시루는 3개인데, 산신시루, 동네시루, 안고사시루이다.

9시 30분이 되면 동파리쪽으로 산신제를 지내러 갈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출발한다. 동파리쪽 시루는 시루째 가지고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서 떡을 한층 정도 떼어서 가지고 올라갔다. 동파리 산신터로 가기 위해서는 대략 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임진리 사람들은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출발한다고 한다.

다. 오전 10시

10시 20분쯤 임진리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산신제터로 올라가서 제사상을 차린다.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미리 제당 주변의 나무를 베어서 정리를 했으나 올해는 나무를 베지 않았다. 임진리 산신제터에서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앞쪽으로 임진강이 바라다 보인다. 임진강을 바라보고 상을 차렸다. 가운데에 소머리, 왼쪽에 시루떡을 통째로 올려놓았다. 팥시루떡 위에는 백설기 한쪽을 놓고, 북어를 한 개 얹어 놓았다. 산과, 돼지고기, 감 3개, 사과 3개, 배 3개, 강정 한접시, 밤 한접시, 대추 한접시, 술잔 두개, 술따르는 그릇을 올려놓았다. 술은 따로 빚지 않고 이조소주를 한병 사왔다. 상에 메를 올리지 않는다. 소머리는 생으로 올렸다. 제를 지낼 때 생으로 올렸다가 제를 끝내고 마을회관으로 내려와 삶기 시작한다고 한다

제당 위치에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이 월봉산인데, 그 월봉산에 미리 도착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를 지내자는 신호가 오면 동파리와 임진리에서 동시에 제를 올리게 된다. 예전에는 마른나무가지를 태워 봉화를 올리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동시에 제를 올렸다고 한다. 동파리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길 기다렸다.

라. 오전 11시

11시부터 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동파리쪽에서 연기오르는 것을 기다렸으나, 보이지 않고 해서 대략 시간을 짐작해 제를 올리는 것이다. 제관이 절을 두 번 올리고, 술을 두잔 올렸다. 바로 축문을 읽기 시작했다. 축문은 이장이 읽었다. 축을 읽고 젓가락으로 세 번 두드리고, 모두 절을 올렸다. 산에 올라온 사람은 제관, 이장, 소임을 비롯, 마을사람 3명 등 모두 6명이었다. 절을 올리고, 술잔에 담긴 술을 상 앞쪽 산에 뿌렸다. 이어서 이장이 "임진리 마을전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며 대동소지를 올렸다. 미리 한지로 소지 올릴 준비를 해왔다. 대동소지를 올리고, 다음으로 개인소지를 올렸다. 개인소지도 모두 이장 혼자서 했다. 산에 올라온 사람들의 소지를 먼저 올리고, 마을 사람들 이름을 하나 하나 호명하면서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올리는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제를 끝내고 음복을 했다. 가져온 음식을 모두 조금씩 떼어서 나누어 먹고, 술을 돌려 먹었다. 음복을 마치고 산을 내려왔다.

〈임진리 산신제 축문〉

維

歲次庚辰十月戊午朔初丁日丁卯臨津里一同代表

敢紹告于

古蹟臨津名山神靈部落民各姓各僞擇良眞齊沐致

誠推頹所望家家戶戶無安富貴功名子孫昌盛歲歲年年

農商魚祈豊安過泰平農商魚民宿願

伏惟尊靈天地神明府 ?助佑謹以酒果庶老

恭伸尊獻尙

饗

11시 50분쯤에 마을회관으로 내려온 뒤에 이장과 소임이 뱃고사를 지내러 갔다. 뱃고사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 지내는 제사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용왕에게 비는 것이다. 뱃고사의 제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산신제에 사용하였던 제물을 조금씩 되가져와 제를 지낸다. 산신제에 사용했던 시루를 놓고, 그 위에 북어는 새것으로 갈아 올렸다. 밤, 사과, 대추, 감, 사과 배는 각각 하나씩, 술도 한잔을 올린다. 이장님이 절을 하고 술을 강에 뿌리고, 떡, 대추, 고기 등을 조금씩 떼어내서 "고기 잘 잡게 해주세요" 하고 강에 던졌다. 북어도 북어머리를 잘라내서 강에 던졌다. 바로 음복을 했다. 뱃고사에 참석한 사람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올해는 이장과 소임, 마을주민 네 분이 참여했다. 참석자 가운데 이장과 소임을 포함해서 세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 정오

뱃고사를 지낸 이들이 고사를 마치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왔고, 곧이어 동파리로 제를 지내러 갔던 사람들이 도착했다. 동파리는 모두 다섯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동파리의 월봉산 산제는 본 제사였지만, 현재는 동파리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만이 제를 지내러 들어간다고 한다. 동파리 쪽의 소임은 따로 뽑지 않았다.

동네사람들이 모두 마을회관에 모였고, 마당에서는 제를 지낼 때 사용했던 소머리 두 개를 각각 도끼로 네 조각을 내서 솥을 두 개 걸어 소머리를 삶기 시작했다. 소머리는 하루 종일 삶아서 저녁 9시 정도가 되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④ 주요 제보자

○ 정정순(여, 84세, 임진리 8번지)
○ 김한식(남, 80세, 임진리 8-47번지, 산신제 제관)
○ 윤종열(여, 69세, 임진리 산신제 도가)
○ 최영선(남, 52세, 임진리 8-11, 임진리 이장)

(2) 파주시 문산읍 문산 2리 하동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문산 2리는 하동으로 불리는데, 이곳은 문산도당굿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동의 문산도당굿은 원칙으로는 3년에 한번씩 긴진승(뱀)이 나오기 전인 음력 3월(양력 4월)에 날을 잡아 지낸다. 과거엔 보름 정도 굿을 했지만, 최근엔 3일간 한다.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문산 2리 산 7번지에 있으며, 내부엔 巫神圖와 巫具, 祭器 등이 보관되어 있다. 옛날에 큰 홍수가 난 뒤 당이 떠내려와 자리잡은 곳이 현재의 도당 자리라고 한다. 도당엔 10여 년 전만 해도 큰 당나무가 남아있



〈사진 85〉 문산읍 문산 2리 도당 정면의 아파트공사현장



〈사진 86〉 도당 내부

었는데, 이 나무는 한국전쟁때 폭격으로 일부 소실되었다가 10여 년 전에 아주 죽어버렸다. 예전엔 도당굿터를 신사마당이라고 했는데, 굿을 하게 되면 씨름판이 벌어지고 활도 쏘고 그네를 매어서 그네도 탔다고 한다.

③ 제의 개요

문산도당굿은 한국전쟁 후에도 굿을 하다가 18년 정도 굿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을 앞 임진강에서 죽는 사람이 여럿 생기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기자 노인들이 굿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하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굿을 다시 하게 되었고 당시 3년마다 하기로 했다. 그후 몇 차례 3년마다 굿을 했지만, 중간에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의해 5년마다 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시 마을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생기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물어보니 3년마다 굿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3년마다 하자고 했으나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서 5년째 한 번 한 후 3년이 되던 1999년에 굿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이 있는 임야가 안동김씨 종중 소유인데 이 땅이 아파트 건설부지가 되었기 때문에 굿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작년에 당을 이전하고 굿을 하기로 했으나 홍수가 나면서 굿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을 이전하고 굿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부지만 마련되면 당을 지어준다고 했으나 강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여야 하고 부지를 살 기금도 없어서 시도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굿을 하게 되면, 이장이 자금마련 등으로 거의 한달간 매달릴 정도 힘들며, 굿을 하는데 1,500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굿을 하면 파주관내의 만신들이 10여 명 이상 참여한다. 요즘은 3일간 굿을 하는데, 첫날엔 주민들이 풍

물을 치고 무녀들은 춤을 추며 함께 신을 모시러 가는데, 반구정 부근에 있는 터주가리로 갔다. 자유로가 나면서 터줏가리가 있던 자리가 없어지자 도당굿을 하면서 자리를 옮겨놓았다. 주저리는 도당굿을 할 때마다 새로 한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아놓았다가 신을 모시러 가서 제물로 사용한다. 터줏가리에는 소머리, 떡시루, 통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그리고 저녁에 굿을 시작한다. 굿은 12거리를 한다. 굿이 끝나면 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치성을 드린다. 예전엔 굿을 시작하면 개가 와서 빙빙 돌며 자리를 맴도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산다. 그래서 마지막날 개를 잡아서 호영산대감놀이를 하는데, 개를 잡아서 개머리를 당이 있는 산 어딘가에 주민들이 묻어두면 그것을 만신이 찾아낸다. 군웅옷을 입은 만신이 개머리를 찾는다고 한다.

④ 주요 제보자

○ 박태하(남, 57세, 문산2리 116-47번지, 내포4리가 고향, 이장)

○ 김동수(남, 80세, 128번지, 노인회장)

(3)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요풍동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성동리 요풍동에서는 대감고사와 본향제라는 마을신앙을 행했었다. 본향, 호대감, 순력대감, 깨비대감 등의 신들을 모셨다고 하며, 본향의 경우 요풍본향이라고 부른다. 제사는 음력 2월 초하루에 지내는데, 부정이 껴서 못하게 되면 그해에 아주 하지 않았다고 한다. 2월이 지나면 긴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2월이 지나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87〉 요풍동 대감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본향은 마을 뒷산 정상부근에 터가 있다. 한국전쟁 전엔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참여한 여성들이 각자 나무를 정해서 한지를 묶어놓고 기원했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중에 나무를 마구 베서 다 사라졌다고 한다.

대감은 철릭과 벙거지를 싸서 주저리 안에 넣어둔 형태인데, 주저리 안에는 호대감과 순력대감의 옷과 벙거지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대감은 강순희씨댁 집앞에 있는 창고 바로 앞에 있으나 제를 지내지 않은지 오래 돼서 넝쿨에 뒤덮여 있다. 넝쿨을 걷어내도 안에는 주저리를 갈지 않아서 모두 썩은 상태이다. 대감

이 있는 자리엔 대감나무라고 해서 원래 큰 느티나무가 있었으나 죽어버렸고, 다시 나무가 자라고 있다.

③ 제의 개요

성동리의 여러 마을 중 요풍동 주민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만 참여한다. 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관과 소임을 선출하는데, 정월 초에 모여 제관을 선정했다. 제관 집에는 인줄을 걸고 황토를 뿌려둔다. 소임은 제물 구입을 맡는데, 물건을 사면 절대 땅에 내려놓아서도 안되고 오는 도중에 다른 사람과 말도 삼간다고 한다. 본향제에선 개풍군 덕물산에 있는 최영장군당을 보고 기원한다. 분단 전에는 여자들이 단골과 함께 덕물산에 가서 기원을 많이 했으나 분단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서 그곳을 바라보고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제를 지낼 때는 남자는 못올라가고 여자들만 집집마다 한명 정도씩 올라가며, 몸부정이 있는 여성은 올라가지 못한다. 남자는 소임이라고 해서 떡시루를 나르는 사람만 올라가는데, 이 역시 떡시루만 내려놓고 곧바로 내려와야 된다고 한다. 한편 본향에 고사를 지낼 때는 만신이라도 올라가지 못하며, 참가한 여성들은 깨끗이 빤 흰 옷을 입어야 하고 화장실에 신고 갔던 신발이나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 목욕재계하고 머리도 깨끗이 감고 간다. 한편 고사를 드릴 때 참가한 여성들은 각자 정해진 나무에 한지를 묶고 촛불을 켜고 기원한다. 제물로는 흰무리떡(백설기)과 과일, 나물, 메를 올리는데, 메는 솥째 놓는 것이 있고 몇 개는 종징에 퍼서 놓았다. 이는 본향 주변에 모여든 여러 잡신을 풀어먹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향에는 비린 것은 일절 올라갈 수 없기에 포나 제육도 차리지 않는다.

대감에게는 굿을 한다. 이를 '대감놀린다' 고 하는데, 대감을 놀릴 때 만신이 대감에 있는 벙거지와 옷을 꺼내서 입고 굿을 한다. 대감에는 삼년에 한번씩 굿을 하고 새로 주저리를 해서 씌웠다. 대감엔 시루떡을 올리고 호대감을 모시기에 제육은 돼지머리를 날 것으로 올린다. 만신을 불렀을 때는 5명 정도 왔다. 본향에 제를 지내고 나서 다음날쯤 대감에게 굿을 하는데, 1박 2일간 굿을 했다. 굿은 한동안 하지 않다가 1990년대 초반쯤에 한해 겨울동안 아홉명이 다치고 애들도 죽자 무당을 불러서 대감굿을 했으나 잠잠해지자 다시 하지 않는다. 그 이후부터 본향이든 대감에든 모두 고사를 드리지 않는다.

④ 주요 제보자

○ 임병기 (남, 77세, 성동리 259번지)
○ 강순희 (여, 79세, 성동리 259번지, 본향제를 주관했었음)
○ 이인승 (남, 59세, 강순희씨 아들, 본향제에 소임역을 담당한 경험이 있음)

(4)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큰말

① 제의의 명칭과 시기

성동리 큰말에서는 3년마다 음력 2월 초순에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에서는 산신을 모시며 산신은 호랑이라고 한다. 산신제는 큰말에 거주하는 김학순 보살이 주관을 했다.[1)]

② 제당의 위치와 형태

산신제당은 큰말 뒷산 정상부에 터를 닦아놓은 형태다. 큰말에서 대동리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통일기도의 집 표시를 보고 약 100m 가량 가면 정상부에 군부대 벙커와 터가 나타난다. 예전엔 벙커 옆 터에서 산신제를 지냈으나 3년 전쯤에 통일기도의 집이라는 종교시설물이 생기면서 산신제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 88〉 탄현면 성동리 큰말 산신제터

③ 제의 개요

큰말 산신제는 명맥이 끊겼던 산신제를 김학순보살이 이주하면서 다시 지내게 되었다. 김학순씨에 따르면 자신이 화성에 있을 때 섣달 그믐날밤 꿈에 산신할아버지가 바깥에 앉아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며 산신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곳(성동리)으로 불렀다' 고 말했다 한다. 이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지 않아서 동네에 불이 났었다고 하며, 그래서 산신제를 다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3년전쯤 산신제터 옆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통일기도의 집이 생기면서 지내지 못하고 있었고, 올해 지낼 차례지만 역시 지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진 89〉 김학순 보살 불당 내부

1) 김학순 보살은 효령대왕(효령대군), 관세음보살, 나반존자 등을 모시고 있다. 51세 되던 해에 효령대왕이 자신에게 내렸는데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고 산기도를 다니라고만 해서 산기도를 8년간 다녔다. 59세 되던 어느날 산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네가 가면 죽는 놈이 있을테니 빨리 가라"는 계시가 있었다. 그래 집에 와 있었더니 새벽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겨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두 다리를 못쓰고 드러누워 있는 29살 처녀를 살려냈다고 한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너희 집에 18살 먹은 처녀 죽은 거 있고, 이 새악시 앞에 언니가 28 먹어 죽은 게 있구나"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처녀를 고치기 위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북을 두들기는데, 나반존자가 실렸다. 그리고 산신도 실렸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낼 때가 되면 정월부터 산신이 순행을 다닌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내기 전 일주일 전부터 산신제터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일주일째 되는 날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를 지내면, 자신 외에 스님 두 분도 함께 참여한다. 제를 지내면 마을 주민도 10여 명 올라오며, 개인적으로 축원하러 오는 사람들은 쌀 한 말 정도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들에게 축원을 해준다. 산신제에선 칠성맞이를 위해 소창 30자를 소나무가지에 걸어두고, 무지개발(다섯 가지 색상의 천)을 열두마씩 끊어다가 걸어둔다. 산신제에선 천상과 산신을 모두 모시고 제를 드린다고 하며, 산신은 호랑이라고 한다.

제를 지낼 때는 아침 일찍 올라가서 8시에 공양을 드리고 낮 2시가 되어서야 마친다. 제물로는 소머리, 소족 앞뒤 하나씩, 돼지머리 하나를 모두 날로 올리고 삼색과일, 과일, 떡을 올리며, 산신군웅을 풀어먹이기 때문에 술과 포도 올린다고 한다. 비용이 70~8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마을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말 정도씩 내곤 했다. 가을엔 돼지머리 하나만 제육으로 쓰고 과일 일곱가지를 사용한다. 칠성산신이기에 7가지를 올리는데, 생오이, 생미나리를 포함해서 올린다. 제를 시작하면 우선 관세음보살과 산신에게 축원을 한다. 이어서 나라 축원과 본향축원을 올리고, 부군과 도당축원을 올린다. 그리고 나서 이장과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축원을 올려준다. 제를 마치고 주위에 모인 귀신들에게 풀어먹이고 내려오면 치성을 드리는 날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큰말에서는 김학순 보살의 주관으로 매년 음력 10월엔 햇곡맞이를 위해 가을고사도 드렸다고 한다.

④ 주요 제보자

○ 김학순 (여, 80세, 김보살로 불리며 산신제를 주관)

5) 임진강유역의 마을신앙 현황표[2)]

(1) 파주시

□ 문산읍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내포2리	농업	대동굿		마을중앙			음력10월	1980년대 중반 소멸		
내포4리	농업	노제	당	마을중앙	신목 (느티나무)	산신	격년 음력 7월	소멸		
마정2리	농업	대동굿 치성		마을주변 4개처 마을회관(굿당)	신목 (향나무,참나무)		3~5년주기 추수후	부정기전승 (1999년 시행)		1999년 수해 후 겨울철에 대동굿을 함.

2) 마을신앙 현황표의 내용은 임진강 유역 22개 읍면의 마을 이장과의 전화인터뷰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는 기존 조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기존 조사보고서에 조사된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전화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은 마을은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문산2리 하동	농업 기타	도당굿	도당	하동	당집	도당	3년주기 양력 4월 중순 3일간	전승	『경기민속지 Ⅱ』(1999), 153쪽.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341쪽. 『파주군지』 중권(1995), 368쪽.	현재 아파트 건립 부지에 포함되어 1999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당집을 옮긴 후 시행할 예정이며, 문산 1~5리 주민이 참여
이천1리	농업	산치성	산지사터	마을북쪽 산정	터	산신	음력10월 중	한국전쟁 후 소멸		
이천3리 당리동	농업	산신제		마을내 당골	터		추수후	전승		과거 산신제터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터를 산중턱으로 옮김
임진리	농업 어업 상업	산신제		마을앞산 임진강 건너 동파리(진동면)	터	산신	음력 10월10일경	전승		정착촌이 없는 동파리 원주민과 임진리 주민들이 지내며, 동파리에서 연기로 신호하면 임진리에서 동시에 제를 지냄

□ 군내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백련리 통일촌	농업 기타	장승제		마을입구(통일대교와 자유의 다리 방향)	장승			전승		두곳에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각 1쌍이 있음

□ 적성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가월리	농업 하우스	마을고사	성황당	마을안	신목(엄나무, 아카시아)		정월 대보름경	전승		1990년대 초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시행하며, 엄나무는 소멸했고 한국전쟁 전까지는 도당굿을 했음
객현2리	농업 특용작물(인삼)	산신제		마을앞산	제단 (울타리를 침)	산신	음력 9월9일	전승		
구읍1리	농업	산신제		마을 주둔 군부대 내부	신목 (느티나무)		가을	전승		군부대와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냄
두지리	상업 농업	산신제		마을뒷산	터	산신	음력 9월9일	전승		
식현 1 · 2리	농업	산치성		마을뒷산 국사봉	신목(소나무, 느릅나무)터		음력 10월1일	전승		소나무는 소멸했고 느릅나무는 도둑맞음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어유 1 · 2리	농업	산신제		마을 서북쪽 산	터		3년주기 양력1월	전승	『파주군지』 중권(1995), 382~383쪽.	
율포리	농업	도당굿 (대동굿)		마을입구	신목 (참나무)		음력 10월중	1980년대 이전 소멸		
적암리	농업, 상업	산신제		마을앞산 (마차산줄기)	바위		음력 10월중	1990년대 이전 소멸		
주월리	농업	도당굿	서낭당	마을서쪽 국유림 안	신목(상수리나무)	부군	3년주기 추수후	한국전쟁 직후 소멸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경우는 있음

□ 탄현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갈현1 · 2 · 3리	농업	산제사 (당산제)		1리 소재 당산	돌 신목 (참나무, 느티나무)	산신	음10월	1990년대 초 소멸		당산밑에 우물을 파고 목욕탕을 만들면서 소멸
금산 1 · 2리	농업	산치성	제당	보현산 중턱 (과거:산정 상부)	터	산	2년 주기 음력11월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1권(1995), 506~507쪽.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343쪽.	군부대 벙커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과거엔 바위를 모셨고 보현사 밑의 우물에서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사용
금승리 무덕동	농업	대동굿		마을입구	신목 (느티나무)		추수후	소멸		
낙하리	농업	도당굿		마을중앙	신목 (개죽나무)		3년주기 추수후	20여년전 소멸		신목 소멸
대동리	농업	도당굿	도당	큰골	느티나무		3년 주기 양력1월중	전승		
문지리	농업	대동굿	도당	마을 경로당	신목 입석		부정기	부정기 전승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347쪽.	3년전 시행했으며, 신목은 소멸
법흥1리	농업	도당굿 (대동굿)		마을 남쪽 약산	터		3~4년주기 음력3~4월 또는 10월	1990년대 초 소멸		
성동리 큰말	농업 상업	산신제 가을고사		마을 앞산 정상	터	산신	3년 주기 음력2월 음력10월	소멸	『파주군지』 중권(1995), 386쪽.	기도원 건립으로 인해 소멸
성동리 요풍동	농업 기타	본향제 대감고사	본향 대감(호대감, 손혁대감 등)	마을 뒷산 마을 안	터 주저리		음력2월 초하루 본향제 다음날	소멸	『파주군지』 중권(1995), 387쪽.	

□ 파평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놀노리 개석동	농업	마을고사		파산서원 우측 산모퉁이	신목 (느티나무)		추수후	한국전쟁 전 소멸		기지촌으로 형성된 마을
율곡 1리	농업 음식업	산신제		마을 중앙산	바위		음력 9월3일	전승		음력 9월9일에 시행하다가 9월3일에 시행, 9월 1~2일에 부정이 있으면 10월 1일 또는 10월 3일에 시행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율곡 3리	농업 음식업 기타	마을고사		화석정 마을회관	정자 터		양력 3월 첫 일요일 (생활주기 변화로 휴일에 함)	전승		과거엔 3년 주기로 대동굿을 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시행했음

(2) 연천군

□ 연천읍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고문2리	농업	산신제		오봉산 자락	제단		정월 3일	전승		
읍내리	농업	산신제		마을앞산	터			한국전쟁 전후 소멸		
차탄2리 햇골	농업 기타	성황제	할머니당 산신당	마을 뒤 군자산 자락	당집(철제 구조물)	당할머니 산신 미륵 장군	음력 4월20일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 1권 (1995), 409쪽. 『경기민속지』 Ⅱ (1999), 156쪽.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161쪽. 『연천군지』 상(2000), 763~765쪽.	산정상부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제당을 이전

□ 전곡읍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간파리 간패골	농업	산신제		마차산 자락	돌무더기		음력3월	소멸		
간파리 송산골	농업	산신제	산지당	마차산 자락	신목 (소나무)터	감악산신 마차산신	음력 3월3일	소멸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178쪽.	20여년 전까지 매년 지냈고 그후로 3년 주기, 현재는 개인적으로 지냄
궁평2리	농업 상업	장승제		마을입구			정월 보름	전승	『연천군의 역사와문화유적』 (2000), 165쪽. 『연천군지』 상 (2000), 757~760쪽.	마을에 우환이 있어서 1994년부터 장승제를 지내고 있으며, 궁평 1 · 2리가 함께 참여
늘목1리	농업	산고사 (산신제)	곰패당	감악산	제단	산신	음력3월	전승	『연천군의 역사와문화유적』 (2000), 180쪽.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늘목2리	농업	산제	곰패당	감악산	제단	산신	음력3월	10여년전 소멸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181쪽. 『연천군지』 상(2000), 760~763쪽.	현재는 개인치성 차원에서 지냄
대전1리	농축산업, 기타	산치성		종현산	제단(창돌)	산신	음력8월 초	전승		한국전쟁 전에는 당이 있었음
신답리	농업	산치성 산제	산제당	신답정미소 옆 강신터	터주가리	산신	정월보름	전승		

□ 군남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선곡리	농업	기우제	용바우	마을앞 임진강변	바위		부정기	소멸		
옥계1리	농업	산신제		마을동쪽 산정상	신목(참나무,소나무)		정월	전승		

□ 미산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동아리	농업	산신제	산신당 성황당 객귀당	금굴산	터	산신	격년 음력10월	1990년대 중반 소멸		
마전리	농업	산제						한국전쟁 전후 소멸		

□ 백학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노곡1리	농업	산단제사		마을앞산 자락	터	산신	양력 8월	전승		
노곡2리	농업	산단제사	산신당	마을뒷산 정상	당집(철제 구조물), 제단	산신	음력 8월 첫 丁日	전승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171쪽.	10년전까지는 1 · 2리가 함께 참여
		부군제	동네부군	마을회관 옆	단지	부군	부정기 (굿할때)	전승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176쪽.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두현리	농업	산치성	서낭당		신목 돌탑		음력정월	15년 전 소멸		용수무지라는 우물에서 기우제를 지냈음
두일1리	농업 축산업	대동굿						30여년 전 소멸		
백령 1 · 2리	농업	산신제					음력10월	10여년전 소멸		
전동리	농업	산신제		마을 야산	터	산신	양력 11월20일	1990년대 중반 소멸		
학곡리 돌마을	농업	산단제사 (산고사)	산단 제사터	마을 앞산	터	산신	2년 주기 음력10월초	전승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1), 176쪽.	

□ 신서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대광리	농업	산제사		마을야산	터		음력 3월	10여년전 소멸		
도신3리	농업	산제						20여년전 소멸		

□ 왕징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동중리	농업	대동굿		마을회관 기타			부정기	80년대초 소멸		
무등리 가골	농업	산신제 부군굿					음력10월 음력 3월	한국전쟁으로 소멸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170쪽.	

□ 장남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고랑포리		고창굿	부군당	임진강변	당집	부근	3년 주기 음력 2월	한국전쟁으로 소멸	『장남면(고랑포)의 뿌리와 향토문화』(1993), 52~53쪽.	
원당1리 배골	농업	산제사		매봉재 정상	터	산신	3년 주기 음력10월초	한국전쟁으로 소멸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 169쪽.	
원당3리	농업	대동굿		마을중앙	신목 (느티나무)		추수후	70년대 중반 소멸		

(3) 포천군

□ 포천읍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동교1리	농업	산신제		마을동쪽산	터 제단		음8월초	전승		
동교3리	농업	산제사		마을뒷산	터 제단		동짓달 초	전승		
선단1리	농업 상업 가내공업	산치성	산치성 나무	왕방산 (대진대학교 내)	신목 (소나무)		봄	40여년 전 소멸		
신읍4리	농업 (약60%)	치성		마을중앙	터		음력 2월초	전승		제물로 개고기를 사용
어룡1리	농업 공장	산제사		마을뒷산	터		음력10월	10여년 전 소멸		과거엔 마을 냇가에서 키를 쓰고 물을 끼얹으며 기우제를 지냈음
자작 1 · 2리	상업 농업	산신제		왕방산 중턱	터 바위	산신	음력10월	30여년 전 소멸		1 · 2리가 분리되기 전 산에 나무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산신제를 지냈으며, 제물로 통소를 하나 잡아서 각 부위별로 바쳤음. 나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산신제도 사라짐

□ 관인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냉정1리	농업	산신제	서낭당	마을 뒷산	신목		음력9월9일	전승		
사정리	농업	산제사	서낭당		신목		가을	전승		4개반 중 3반은 격년, 4반은 매년 제를 지냄
삼율리 보릿골	농업	산제	산제당	고남산	당	산신	정월 초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 1권 (1995), 396쪽.	
삼율리 밤나무골	농업	산신제		마을입구	터	산신	음력 3월3일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 1권 (1995), 397쪽.	
중1리 신흥동	농업	산제 (산신제)	산신당	지장산 정상	산신당 신목	산신	음력 1월3일	전승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351쪽.	과거엔 소나무 신목이었으며 당집은 10여년 전에 신축
중2리	농업	산제사						20여년전소멸		
중3리 상심	농업	산제사		마을정자터	터	산신	음력 1월	전승		개를 잡아 제를 지냄

□ 군내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구읍1리	농업	산제사(산정성)		반월산 정상부	신목(소나무)		음력 10월	전승		
명산리	농업	산신제		마을 뒷산	신목 (소나무)		음력 11월	전승		통소를 바치다가 소머리로, 지금은 돼지 한 마리를 바침
상성북 1 · 2리	농업	산천기도		마을 뒷산	신목 (참나무)		음력 9월14일	전승		옛날 누군가 신목을 베어서 호랑이가 마을의 개를 모두 잡아먹었다고 함
하성북 3 · 4리	농업	산치성		화봉산 중턱	신목 (소나무)		3년 주기 음력 10월	20여년전 소멸		2리 일부도 참여하며, 마을이 분리되기 전에 모두 함께 지냄
용정1리	농업직장	산신제	서낭당	마을 뒷산	신목(벚나무)		음력 10월	전승		
용정2리	농업	산치성	치성나무	마을 뒷산	신목 (상수리나무)		음력 9월9일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 1권 (1995), 558쪽.	
유교1리	농업직장	대동굿	도당	마을 뒤편	신목 (버드나무)		봄(농사전)	30여년전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 1권 (1995), 559쪽.	
직두3리	농업	산신제		마을 뒷산	터			20여년전 소멸		
좌의3리					신목		음력 1월15일, 10월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 1권 (1995), 562쪽.	

□ 신북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가채2리	농업	산제사		덕령산	터 (돌로 표시)		음력 10월 1일	전승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인근 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함
계류2리	농업	산신제		마을야산	터		부정기 이른 봄	전승		마을에 우환이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지냄
금동 1 · 2리	농업	산제		마을내부	신목 (은행나무2본)		부정기	전승		1 · 2리가 함께 지냄
기지1리 유촌	농업	산치성 (산신제)	소질 안터	마을 뒤 천주산	터	산신	음력 9월초	전승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8), 349쪽.	
기지2리	농업	산신제		마을산	바위		음력 8월 그믐	전승		
덕둔2리	농업			마을내부	돌탑 3기		부정기	소멸		
신평1리	농업	산신제		덕룡산	터		음력 9월 15일	전승		
신평2리	농업	산치성		마을 뒷산	터		음력 8월초하루	전승		
심곡2리	농업	산제사 (육산치성, 소산치성)	산신장	안장골	바위 (할아버지) 당집 (할머니)	육산치성-할아버지 소산치성-할머니	소산치성 - 음력 3월3일, 9월9일 육산치성 - 추석 직전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 1권(1995), 584-585쪽.	국사봉에 국사봉할머니가 있었고 미군이 통신시설을 설치했다가 재앙을 당했다고 하며, 안장골의 소산치성에서 모시는 할머니가 국사봉 할머니임. 소산치성에선 고기를 안쓰고 떡과 과일만 진설하고, 육산치성에선 소머리를 씀

□ 영북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대화산리	농업	산치성		금장산	신목		음력 9월9일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1권 (1995), 586~587쪽.	전쟁전에는 동네어귀 소나무('왕소나무' 로 부름)에서 도당굿을 했음
문암리	농업	산치성		신성봉 골짜기	신목 (소나무)		음력 9월9일	소멸	『한국의 마을제당』 1권 (1995), 589쪽.	한국전쟁으로 신목 소멸
산정리 하동	상업	산치성 (산제)		망무봉 기슭	신목		음력 9월9일	전승		
산정리 상동	상업	산치성 (산제)					음력 9월9일	전승		
산정리 산안	상업 농업	산치성 (산제)					음력 9월9일	전승		
소회산리	농업	산신제		마을앞 산	바위	산신	음력 9월9일	전승	『포천군지』(1987), 134쪽.	과거엔 바위가 아니라 소나무신목을 모셨음
야미1리	농업	산제		불무산 (광산골)	터		음력 9월9일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1권 (1995), 590쪽.	1 · 2리가 나뉘기 전엔 함께 제를 지냈음
운천 1·2·3· 6·7·8리	농업	산제(산제사, 산치성)		각흘산	터	여산신	음력 9월9일	전승	『포천군지』 하(1997), 134쪽.	1 · 2 · 3 · 6 · 7 · 8리가 함께 지냄
운천4리	농업	산제		마을내부	신목		음력 8월	전승		
운천5리	농업	산치성		마을야산	터		음력 9월9일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1권 (1995), 591쪽.	
자일1리	농업	산제		마을야산	터		음력 9월9일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1권 (1995), 592쪽.	과거엔 삼짇날에도 지냈음
자일3리	농업	산제		각흘봉	샘(명성 약수터) 신목		음력 9월9일	전승		약 40여년 전부터 연고지 없이 죽을 분들을 위해 산제를 지냄
자일4리	농업	산제	서낭당		신목		음력9월9일	전승		

□ 영중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거사2리	농업	탑제		마을중앙과 하천변	탑		음력1월 음력10월	소멸	『포천군지』(1984), 636쪽 및 638쪽.	
성동1리	농업	산신제			바위		추수후	전승		
성동3리 삼산	농업	산신제 (산치성)	산제당	풍혈산	신목 (참나무)	산신	음력 10월1일	전승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350쪽.	
성동4리	농업	산제		마을야산	신목 (소나무)		음력 9월9일	전승		20여년 전에는 제를 지내는 터가 있었으나 이후 신목을 모심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양문2리	농업	산신제		능원산	터		음력 10월3일	전승		
양문3리	농업	산신제		화악산	터		음력3월1일 9월 중	전승	『한국의 마을제당』 1권 (1995), 593~594쪽.	연 2회 시행

□ **창수면**

동리명	주요 생업	마을신앙 명 칭	제 당 명 칭	제 당 위 치	제 당 형 태	신 격	제 의 일 시	제 의 전승현황	관 련 문 헌	비 고
주원1리	농업	산제		마을뒷산	신목 (밤나무)		음력 10월	한국전쟁 직후 소멸		
주원5리	기타	산제사		마을뒷산 정상부	터		격년 음력10월	4년전부터 단절		산제사터를 외지 사람이 사서 밭으로 만들면서 소멸
추동1리	농업	산제사		마을 뒷편 종현산 초입	신목 (소나무)		음력 2월초	전승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353쪽.	
추동2리	농업	산제 (산제사)	산제당	마을 뒷산 정상부	신목 (소나무 4개)		짝수년 음력 9월9일	전승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353쪽.	제단을 동서남북과 중앙에 5개 마련하며, 도화주(시중꾼), 화주, 제관 각 5명이 원칙
추동3리	농업	산제사		면화골 (마을 앞)	바위 신목 (소나무)		음력 11월	한국전쟁 직후 소멸		

2. 가정신앙

1) 임진강유역 가정신앙의 현황

임진강유역의 가정신앙에서 가신의 유형은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상 · 중 · 하류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가신의 유형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신체의 형태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나고 있다. 우선 상류지역의 가정신앙을 살펴보면, 가신의 유형은 성주, 터주, 제석(지석), 업, 대감, 조왕 등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신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주는 그 형태가 한지를 접어서 실타래를 두른 후에 성주기둥에 걸어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한지 속에 쌀을 넣거나 실타래 외에 북어를 함께 걸어두는 형태가 나타난다. 터주의 경우엔 쌀을 넣은 항아리에 주저리를 씌우거나 터주항아리 대신에 터주막대기를 꽂아둔 형태도 나타난다. 업의 경우엔 대체로 터주와 모양이 동일하며 솔가지를 쌓고 위에 주저리를 씌운 유형도 더러 나타난다. 제석(지석)은 항아리나 바가지에 쌀을 넣은 형태가 일반적이며, 여기에 실을 함께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 대감을 모신 가정은 찾지 못했으나 벙거지와 철릭을 모신 가정이 있다고 한다.

중류지역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신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주의 경우 한지를 접어서 대들보나 성주기둥에 붙이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베를 함께 붙여두는 사례가 나타난다. 한편 터주나 업의 경우엔 상류지역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석의 경우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상류지역에서 항아리나 바가지에 쌀을 넣은 것이 기본적인 형태인 반면, 중류지역에서 나타나는 제석의 모습은 항아리나 바가지에 쌀을 넣은 형태와 제석주머니에 쌀을 넣고 한지로 고깔을 만들어 씌운 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제석주머니에 고깔을 씌운 형태는 한강 이남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석의 모습이다. 대감의 경우엔 대감독에 쌀을 넣거나 벙거지와 철릭을 대감으로 모신 경우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하류지역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신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주의 경우 한지와 베를 접어서 대들보에 붙이고 실타래를 걸어둔 형태를 기본으로 여기에 북어를 함께 매달아둔 형태가 나타난다. 제석의 경우엔 제석바가지에 쌀을 넣어둔 형태와 제석주머니에 쌀을 넣고 고깔을 씌운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터주의 경우 쌀을 넣은 항아리에 주저리를 씌우거나 터주막대기를 꽂고 주저리를 씌운 형태가 나타나며, 업의 경우엔 터주처럼 항아리에 쌀을 넣고 주저리를 씌운 형태이다. 김창숙씨댁의 경우 주저리 하나에 업항아리 두 개를 모시고 있는데, 이를 '쌍업'이라고 한다. 한 항아리엔 콩을, 다른 항아리엔 쌀을 넣어두었다고 한다. 콩을 넣은 까닭은 업이 돼지업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벼를 넣은 까닭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대감의 경우엔 대감항아리에 벼를 넣어두는 경우도 있고 벙거지와 철릭을 대감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다. 벙거지의 경우 임진리에선 '안을님벙거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임진강유역 가신신앙조사에서는 가신의 신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상류지역이 그러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임진강 상류지역이 전쟁의 피해를 많이 받았고 새로 신축되는 가옥들이 늘어난 것에 원인이 있는 듯하다. 아울러 젊은 층 사이에서 가정신앙에 대한 전승의식이 약화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하겠다. 신체의 형태는 상 · 중 · 하류가 크게 다르진 않았다. 다만 제석의 신체가 상류지역에서는 제석항아리나 제석바가지에 쌀을 넣은 형태가 두드러진 반면, 중류와 하류에선 제석주머니에 쌀을 넣고 고깔을 씌운 형태가 함께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2) 상류지역 가정신앙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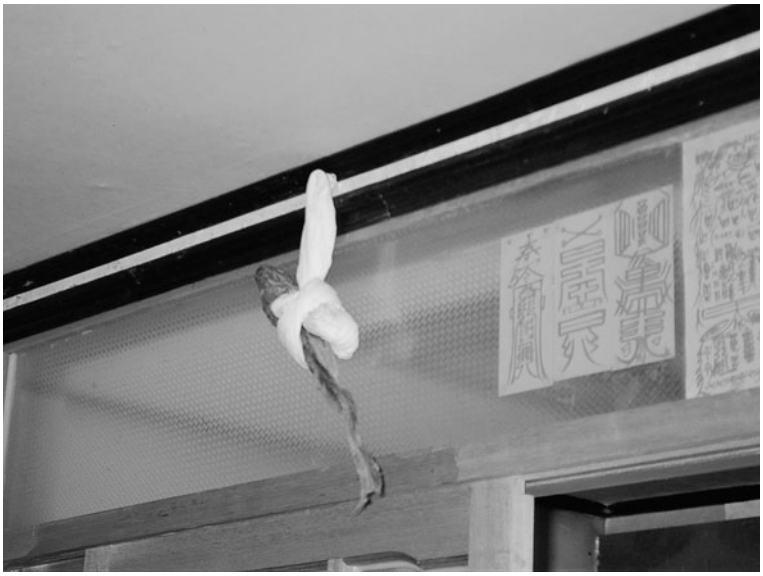
(1) 포천군 영중면 거사2리 유옥례씨댁의 사례

① 가신의 유형과 신체형태

유옥례씨댁에서는 성주, 터주, 제석를 모시고 있으며, 업이나 대감은 모시지 않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신체가 남아있는 것은 없다. 성주는 창호지에 쌀을 넣고 싼 후 실을 감아서 대들보에 매달아놓은 형태였다고 하며 집을 새로 지으면서 없앴다. 대신 현관 위에 북어에 실을 감아서 매달아 놓았는데, 이는 좋지않은 일이 생겨서 만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한다. 북어에 실을 감아 현관에 달아놓은 모습은 요즘들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딱히 성주의 역할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북어에 실을 감아 현관에 걸어두는 경우가 이사를 하거나 집을 새로 지어서 입주할 때 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성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터주의 경우는 항아리에 쌀을 넣고 주저리를 해놓은 형태였다고 하는데, 터주항아리의 쌀은 가을 고사를 지낼 때 쏟아서 밥을 해서 고사상에 차린 후 먹었다. 제석은 조그만 항아리(제석항아리)에 쌀을 넣어둔 형태였으며, 안방구석에 모셨었다. 제석항아리의 쌀은 필요할 때 꺼내서 밥을 해먹고, 햇곡이 나면 새로 쌀을 넣었다고 한다. 이 댁에서는 업은 모시지 않았으나 이 일대 가정에서 모시던 업의 형태나 크기는 터주와 동일했으며, 이를 업낫가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감을 모신 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고사굿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사진 90〉 유옥례씨(김만석씨 부인)댁 현관문의 부적과 북어

② 유옥례씨댁의 가을고사

이 댁에선 상달에 고사를 드리고 있으며, 시월에 못지낼 경우엔 동짓달이나 정월에 지낸다. 고사순서는 성주, 제석, 터주 순으로 놓고 우물 등 집안 곳곳에 떼어서 놓는다. 제물 중 떡은 팥시루와 백설기시루를 각각 하나씩 했다. 성주엔 팥시루와 북어, 막걸리를 놓는다. 성주에 놓았던 제물은 그대로 터주에다 다시 차려서 고사를 드린다. 제석의 경우엔 백설기시루와 정한수를 놓는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시루를 찌지는 않고 방앗간에서 떡을 해온다. 집에서 고사를 마치면 신령(서낭)에 떡을 놓아두거나 그곳을 바라보고 제물을 놓았다. 신령은 천제사바위로 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돌을 쌓아놓은 형태였으나 지금은 공사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③ 제보자

○ 유옥례(여, 66세, 거사리 597-4번지, 포천군 신북면 고이리에서 20세에 시집옴)

(2) 포천군 관인면 중 3리 이정순씨댁의 사례

① 가신의 유형과 신체형태

이정순씨댁에서는 성주와 터주, 지석, 칠성, 주왕(조왕)을 모셨다. 고사를 지내지 않기에 현재 가신의 신체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현관 입구에 엄나무가지를 매달아 놓은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성주는 한지를 접고 북어 한 마리와 함께 실타래로 걸어서 성주땅에 붙여놓은 형태였다. 성주땅이란 집을 새로 지어 상량

할 때 성주기둥을 세우는데, 이를 성주땅이라 부른다고 한다. 매년 농사를 지어서 고사지낼 때면 성주를 새로 하는데, 이때는 한지를 접어서 기존 성주에 덧붙였다. 그리고 쌀 한 섬씩을 성주땅에 갖다가 놓았다가 그것을 퍼다가 찧어서 고사를 지냈다. 성주를 새로 하지 않게 되면서 성주를 갔다가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터주는 뒤꼍 장독대 근처에 터주낫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쌀을 넣은 항아리를 넣어두고 주저리에 한지를 걸어뒀었다. 지석은 신체가 없었으며 여자가 지석이라고 해서 안방에서 그냥 모셨었다. 칠성은 용궁이자 물을 의미한다고 하며 장독을 깨끗이 닦고 고사를 지내는 날 밤에 정한수를 한 사발 떠다놓고 서되 서홉으로 백설기시루를 만들어 놓고 빌었다. 주왕 역시 신체가 없으며 부뚜막이 주왕이라고 한다.

② 이정순댁의 가을고사

자식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고사를 지낼 의미가 사라졌기에 현재는 고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예전에 고사를 지낼 때는 성주, 칠성, 터주, 지석, 주왕, 외양간의 순서로 지냈다. 시루는 성주, 터주, 지석, 칠성에 각각 시루를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지석에도 팥시루를 올렸다. 성주엔 성주시루와 북어, 술 등을 제물로 차렸으며, 터주엔 성주에 놓았던 것을 그대로 올리는 적도 있었다. 주왕 역시 새로 시루를 놓는 적도 있었고 성주에 놓았던 것을 그대로 놓은 적도 있었다. 이 댁에선 소에게도 제물을 따로 차렸는데, 성주에 놓은 떡시루를 소머리 있는 곳에 놓고 막걸리를 한잔 부어놓고 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한편 산을 모시는 곳에선 산신노구메를 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신은 하지 않았다. 고사가 모두 끝나면 먹기 전에 한 조각씩 떼어서 밥과 술을 각각 세 개씩 마련해서 마당에 가서 사방을 보고 빈다. 이는 사방의 객귀를 풀어먹이는 것이라고 한다.

③ 제보자

○ 조언형(남, 73세, 중리 733번지)

○ 이정순(여, 73세, 조인형씨 부인, 포천군 관인면 삼율리가 고향으로 18세에 시집옴)

3) 중류지역 가정신앙의 실제

(1) 연천군 백학면 노곡 1리 민병옥씨댁의 사례

① 가신의 유형과 신체형태

민병옥씨댁에서는 성주, 터줏대감, 대감, 제석, 칠성을 모시고 있다. 성주는 마루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현재는 신체가 남아있지 않다. 과거엔 대들보에 베와 한지를 접어서 붙여두었다고 한다. 터줏대감은 뒤꼍에 터주막대기를 꽂고 주저리를 씌워둔 형태였으나 이 역시 신체가 남아있지 않다. 이 댁에서는 업은 모시지 않았으나 다른 집들의 경우 솔가지를 꺾어다가 쌓아두고 맨 위에 주저리를 해서 씌워둔 형태였으며, 이를 업양가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한편 뒤꼍 장독대에 칠성이 있다고 여기는데, 칠성은 자손을 점지하는 신이기에 어느 집이나 모신다고 한다. 만약 굿을 하게 되면 칠성을 먼저 해야 제석거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91〉 민병옥씨댁 대감

안방에 쌀을 바가지에 담아서 얹어두었으며, 다른 집들도 대개 이 형태였다. 주머니에 쌀을 넣어두는 형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애 못낳는 집에서나 그렇게 한다는 소릴 들었다고 한다.

민병옥씨댁에서 신체가 남아있는 가신은 대감이 유일하다. 그 형태는 벙거지와 철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상자에 넣어 광에 모셔두었다. 광에 모신 까닭은 대감을 모실 때는 대감이 원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만 모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벙거지와 철릭은 자신이 직접 사다가 모셨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것을 대감을 텃대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감독을 하는 경우를 물으니 그것은 몸주대감이라고 하며 이 댁에선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 벙거지와 철릭 형태의 대감유형은 경기 서 · 북부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다.

② 민병옥씨댁의 가을고사

매년 가을고사를 지내고 있다. 예전엔 공년(홀수년) 가을이면 만신을 불러다가 가을고사를 드렸으나 최근엔 만신을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 댁에선 면소재지인 두일리에 거주하는 한보살이라는 만신이 단골무당이다. 만신을 부르게 되면 우선 집밖에서 초부정을 치고 난 후에 남이 보면 부정탄다고 해서 칠성에게 가장 먼저 제를 올린다고 한다. 다음에는 제석, 성주, 대감, 터주 등의 순서로 지냈다. 혼자 가을고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로 순서로 한다. 제물로 사용하는 떡으로는 차(찹쌀)시루와 백설기를 찌는데, 백설기는 지석에게만 바치고 성주시루, 대감시루, 터주시루를 각각 준비한다. 하지만 현재는 방앗간에서 해온 후에 조금씩 나눠서 차릴 뿐이다. 이밖에 사과, 배, 귤, 밤, 대추, 북어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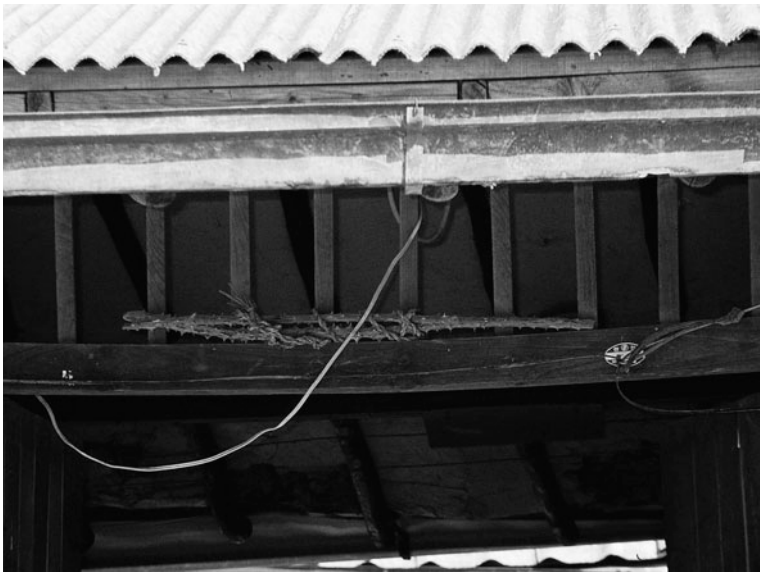
③ 제보자

○ 민병옥(여, 61세, 노곡리 73번지, 백학면 백령리에서 22세에 시집옴)

(2)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김초동씨댁의 사례

① 가신의 유형과 신체형태

김초동씨댁에서는 성주, 터주, 업, 지석, 칠성을 모셨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성주의 형태는 한지를 접어서 대들보에 붙여둔 형태였으며 해마다 새로 성주를 했다고 한다. 처음 성주를 받을 때는 굿을 하고 받는


〈사진 92〉 군남면 선곡리 이영궁씨댁 대문의 엄나무

다. 터주는 터주가리 안에 벼를 넣은 항아리를 넣어둔 형태였으며, 벼는 필요할 때 꺼내서 찧어서 먹고 가을고사를 지낼 때 햇벼를 다시 넣는다. 업의 경우엔 항아리에 벼를 넣고 솔가지를 쌓은 후 주저리를 덮어두었다고 한다. 지석은 자손을 위해서 모시며 주머니 두 개에 쌀을 넣고 고깔을 씌운 형태였다고 한다. 칠성은 장독대에 있으며 신체는 없다고 여긴다. 고사를 지낼 때 정한수를 떠놓고서 빈다.

한편 이 댁에선 모시지 않았으나 대감이라 하여 철릭과 벙거지를 모셔둔 집이 있었다. 대감을 모시는 집에서는 무당이 굿을 하고 나서 모시게 된다. 불사의 경우에도 모시는 집만 모신다고 한다.

② 김초동씨댁의 가을고사

지금은 지내지 않으나 예전엔 시월에 고사를 지냈다. 햇곡이 나면 첫물을 따로 놓아두었다가 고사에 사용했다. 고사 순서는 우선 터에 지내고 다음으로 성주에 지낸다. 성주도 터가 있어야 하므로 터주부터 놓는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지석에 하는데, 지석엔 백설기를 놓았다. 굿을 할 때는 터주, 성주, 지석 모두 따로 대를 받았다. 한국전쟁 전에는 개인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은 군자산에 가서 많이 굿을 했다고도 한다.

③ 제보자

○ 김초동(여, 89세, 선곡리 527-3번지, 경기도 여주군이 고향으로 17세에 경기도 광주로 시집을 갔다가 23세에 선곡리로 이주했음)

4) 하류지역 가정신앙의 실제

(1) 파주시 문산읍 문산 2리 김창숙씨댁의 사례

① 가신의 유형과 신체형태

김창숙씨댁에서는 성주, 터줏대감, 업, 제석 등을 모시고 있다. 성주는 신체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마루 천장에 한지를 접어서 붙여둔 형태다. 막걸리를 바른 후 천장 모서리에 붙였다고 한다. 성주는 집안의 가장이 일곱수가 드는 해마다 하는데, 57세에 마지막 성주를 받으면 그 뒤로는 아들나이에 맞춰서 성주를 받


〈사진 93〉 김창숙씨댁 성주

는다고 한다. 성주를 새로 할 때는 만신이 와서 해주는데, 맨 처음에 성주를 받을 때는 대를 내려서 대가 가는 곳에다 모셨다. 자리를 잡을 때는 주부가 대를 잡는다. 신대는 소나무 가지를 사용했다. 현재의 성주 이전엔 한지에 베를 넣고 접은 뒤 북어와 함께 실타래로 묶어서 대들보에 걸어둔 형태였으나 지붕에 반자를 내리면서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터줏대감은 신체는 없으며, 집터가 곧 터주라고 여기고 있다. 업의 경우엔 신체가 남아있는데, 이 댁에선 쌍업이라고 해서 항아리 두 개를 놓고 그 위에 주저리를 씌운 형태다. 항아리 하나엔 벼를 넣어두고, 다른 하나엔 콩을 넣어두었다. 콩을 넣어둔 까닭은 돼지업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벼를 넣어둔 항아리와 함께 모시는 이유는 알지 못한다. 업은 집 뒤 장독대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있다. 벼와 콩은 매년 가을에 새로 갈아넣고 주저리도 새로 한다. 터줏대감은 따로 모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터주와 업을 함께 모시는 경우로 보인다.

제석 역시 신체가 남아있으며 주머니에 쌀을 넣고 한지로 고깔을 씌우고 실을 매어둔 형태로 안방다락 구석에 모셔둔다. 제석주머니에 든 쌀은 고사를 지내고, 떡을 하는데 사용하고, 가장 먼저 난 햇곡을 찧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넣는다. 제보자는 제석은 아이들을 위해 모시는 것이고, 제석이 곧 삼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사를 지낼 때 제석에게는 밤, 대추, 삼색 (배, 사과, 감), 백설기, 정한수를 놓고 기원한다. 주머니는 새로 만들지는 않고 깨끗이 빨아서 사용하며 고깔 역시 깨끗하면 그대로 둔다. 주머니나 고깔은 주로 만신이 왔을 때 새로 한다. 그리고 이 댁에서는 대감은 모시지 않으나 예전엔 벙거지와 철릭을 싼 것을 대감으로 하여 모셔놓은 집이 많았다고 한다.

② 김창숙씨댁의 가을고사

김창숙씨 댁에서는 10월에 날을 받아서 고사를 지낸다. 제물 중 떡은 백설기와 차(찹쌀)시루떡을 하며, 백설기는 지석에게 바친다. 이 댁에서는 백설기를 일곱켜를 앉히는데, 창호지를 깔고 한켜를 앉힌 후 다시 이를 반복한다. 백설기는 제석에 두개, 업에 세개, 장독에 두개를 놓는다고 한다. 시루떡은 성주시루와 대감(터주)시루, 도당시루, 산시루 도합 네개를 찌는데, 산시루를 찌는 이유는 감악산 등에 있는 산치성에 다니기 때문이다. 시루를 찔 때는 각각의 시루를 어디에 바치는지를 먼저 정해놓는다. 제육은 돼지머리, 돼지족 네개를 삶아서 올린다. 족 네개를 올리는 까닭은 네발 달린 짐승이기에 족 네개를 올리면 돼지 한 마



〈사진 94〉 김창숙(박태하씨 부인)씨댁 제석

리를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 성주, 업, 터주엔 북어도 하나씩 올린다. 성주엔 막걸리 두잔을 놓는다.

고사 순서는 우선 백설기를 지석에 놓고 제를 지내고 업, 장독대에 백설기를 나눠 놓는다. 그리고 성주에 성주시루와 막걸리 두잔, 북어를 한 마리 놓고 제를 올리고, 다음으로 마루에 도당 · 산신시루를 놓고 도당과 산이 있는 방향으로 놓고 제를 지낸다. 도당과 산에는 북어는 놓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터주는 마당에서 제를 지내는데, 이 때는 성주 앞에다 적당한 방향으로 나눠 놓고 제를 지낸다. 그 뒤에 우물 등 집안 곳곳에 떡을 떼어다 놓고 막걸리도 뿌려둔다.

③ 제보자

○ 김창숙(여, 57세, 문산리 128번지,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이 고향임)

제4절 세시풍속

세시풍속 조사는 민속신앙과 마찬가지로 임진강 상 · 중 · 하류로 나눠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계절별로 기술하였으며, 봄은 음력 2~4월, 여름은 음력 5~7월, 가을은 음력 8~10월, 겨울은 11~1월로 하였다. 이렇게 계절을 나눈 까닭은 대체로 양력과 음력이 한달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과 차이가 나거나 다른 제보자에게서는 듣지 못하는 등 특징적인 세시풍속에 대해서는 문장 끝에 제보자를 병기해 두었다.

1. 임진강 유역 세시풍속의 현황

임진강유역의 세시풍속은 경기도의 일반적인 세시풍속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상 · 중 · 하류의 세시풍속 역시 별다른 차이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단오 그네를 사월 초파일에 매서 단오에 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고루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문화권 구분에 있어서 참고로 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세시음식으로 만두와 관련된 세시풍속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설 차례에서는 떡국과 떡만두국을 올리는 경우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남부와 북부의 설 차례풍속이 이 지역에서는 혼재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보름날 아침 만두를 먹고(연천군 장남면 자작리 이봉의씨 제보), 소에게도 한해 동안 일 잘하고 탈나지 말라고 소에게도 만두를 먹였다(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정정순씨 제보). 그리고 대다수 마을에서 여름철 두레패의 호미씨세 때 장만하던 음식도 만두였다고 한다. 한편 액막이와 관련해서 강에다 밥을 풀어서 액을 막는 것은 강에 접해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익사사고를 막기 위해서 행해지던 세시풍속이라고 하겠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세시풍속을 조사하지는 못했다. 이미 전승이 단절된 세시풍속이 많아서 제보자들의 기억 속에서조차도 점차 희미해져가기 때문이다. 조사에서도 내용은 기억하면서 세시풍속을 행하던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그나마 노년층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세시풍속도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잊혀지고 전승이 단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민의 전출입이 늘고 젊은 층들은 부모세대에 행해온 세시풍속을 이어가려는 의식이 약화됨으로 인해 기존 세시풍속의 단절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상류지역의 세시풍속

1) 겨울철의 세시풍속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먹는데, 애동지에는 팥죽을 쑤지 않고 시루떡을 해먹었고 노동지가 되어야 팥죽을 쑤어 먹었다(김점자씨 제보). 또한 팥죽을 쑬 때 옹심이를 넣었는데, 애동지엔 옹심이를 넣지 않고 노동지에만 옹심이를 넣었다(이정순씨 제보). 또 이 무렵에 엄나무를 해서 대문간에 걸어두기도 했다. 이는 귀신이 엄나무를 싫어하기 때문이며, 만약 귀신이 있으면 엄나무에 잡아넣는다고 해서 구멍을 메밀떡으로 막은 후 강에 띄운다고 한다(김수동씨 제보).

섣달은 썩은 달이라고 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다만 그믐날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선 정월 열나흘이라는 제보가 대부분이었다.

정월은 세시풍속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달이다. 우선 설날에는 차례를 지내는데, 떡만두국을 차례상에 올리는 경우와 떡국만 올리는 경우가 고루 나타났다. 정월 열나흘엔 오곡밥을 해먹고 같은 일을 아홉번 반복해야 좋다고 여겼다.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고 또래나 가족들끼리 모여 밤새 놀았다. 그리고 그 해 농사의 풍년을 위해 저녁에 수수깡으로 조이삭이나 벼같은 곡식모양을 만들어 놓고 도리깨질하는 시늉을 했다(김만석씨 제보). 이 날은 여름날이라고 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안먹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해야 한다고도 한다(김수동씨 제보). 그 이유는 여름철 밭고랑에 김을 맬 때 숟가락으로 먹으면 맨날 밭고랑이 넓은 곳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월 보름에는 아침 일찍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어먹었으며 이를 '용알 뜬다' 혹은 '용물 뜬다'라고 한다. 이날 액막이도 많이 행하는데, 굿을 하거나 제웅을 만들고 그 안에 동전을 넣어 삼거리 등에 버려 액을 막는다. 액막이 연이라 하여 연을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줄에 담배불을 붙여서 매달면 연이 높이 올라갔을 때 담배가 타서 줄을 끊는다(김수동씨 제보). 이것은 자신에게 든 액을 연에 띄워서 날리는 것이다. 또한 아침에 밥을 하면 아이들의 수대로 나이만큼 밥을 떠서 창호지에 넣은 후 산 밑에다 놓고 나서 밥을 먹은 후 다시 창호지에 싼 밥을 가지고 마을 앞 냇가로 가서 풀어버리기도 했다(이정순씨 제보).

이는 아이들이 나무를 할 때나 물놀이를 할 때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뜻에서 행한 것이다.

정월 보름날 밤에는 달맞이를 하고 달점을 보았다. 달이 내뜨면 풍년, 들여뜨면 흉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횃대를 만들어 주어서 달님다리기를 하게 했다. 싸리나무나 다북이로 홰를 만들어 달이 떠오를 때 불을 붙여 달을 보고 절을 하며 '달님보고 절합니다' 라고 한다. 이는 한해 운수와 무병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인근 마을 아이들과 횃불싸움을 하기도 한다. 주부들은 잣불을 켜 가족들의 신수를 점치기도 했다. 이 날 콩점을 치기도 하는데 수수깡을 반을 쪼개서 열두달을 상징하는 콩 열두개를 넣고 칭칭 동여매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 후 그것을 우물에 담가놓았다가 이튿날 꺼내보면 어떤 것은 불어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다. 그것을 보고 어느 달에 비가 오는지를 알았다고 한다. 또한 정월 보름을 개보름이라고 하는데 이날 개를 굶기는데, 개가 먹을 것을 먹으면 주인을 몰라보거나 사람의 식복을 뺏어간다고 한다. 보름엔 가래떡이나 섬떡을 먹기도 했다. 가래떡은 달맞이를 하고 들어와서 먹는데, 가래떡을 먹으면 명이 길어진다고 여겼다. 섬떡의 섬은 볏섬을 의미하며, 찹쌀을 넓적하게 밀어서 콩이나 팥을 넣어서 둥그렇고 주먹만하게 만들어 먹었다. 떡 안에 곡식이 차듯 풍년이 들라는 의미로 먹었다고 한다(김수동씨 제보).

정월 열엿새를 귀신날이라고 한다. 이날 밤에는 집안의 신을 모두 감춰두고 대문이나 마루에 체나 키를 걸어두었다. 남의 집에 가면 귀신이 치마꼬리에 붙어서 온다고 해서 귀신날에는 일찍 남에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며(이정순씨 제보), 귀신대가리 깬다고 해서 널을 뛰기도 했다(김수동씨 제보).

2) 봄철의 세시풍속

2월 초하루에는 나이떡을 해먹었다. 나이떡은 가족들의 나이를 합한 만큼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송편을 만들어 먹는데, 각자의 나이만큼의 떡을 먹어야 좋다고 여겼다. 또한 이 날 콩을 볶아 먹으면 곡식 풍년이 든다고 해서 콩을 볶아 먹기도 했고 밤에는 좀생이별을 보고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이 무렵에는 장을 담그는데, 장은 말날 담궈야 좋다고 한다. 한식날에는 한식차례를 지낸다. 봄철에 처음 나비를 볼 때 흰나비를 먼저 보면 초상나기 쉽다고도 한다.

3) 여름철의 세시풍속

단오 무렵에는 그네를 많이 뛰었다. 그네는 사월 초파일에 매서 단오날 끊는데, 그네를 맬 때면 동네 젊은 이들이 모여 짚으로 동아줄을 틀어서 매었다. 끊은 줄은 태워버린다. 또한 단오에는 취를 넣어서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떡이 굳지 않았다고 한다.

칠석에는 밀떡을 부쳐서 고사를 지냈다. 밀농사를 지은 후에 먼저 수확한 것을 깨끗이 씻어서 두었다가 맷돌에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 호박을 넣거나 그냥 밀 부침개를 부치기도 한다. 부침개를 부치면 사방에 놓고 고사를 지낸다. 백중날은 '호미씻이' 라고 해서 일꾼들을 둔 사람들은 돈도 주고 하루를 놀았다. 일이

다 끝나갈 때니까 고생했다고 하루 놀게 해주는 것이다. 백중 무렵에는 여름농사를 마치고 호미씨세를 했다.

4) 가을철의 세시풍속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10월엔 시제를 지낸다. 요즘 들어서 시제는 외지로 나간 친족들을 위해 일요일에 지내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또한 10월에는 집집마다 가을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낼 때 터주나 제석에 있는 쌀을 꺼내서 떡이나 밥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 쌀을 갈아넣기도 한다. 가정에 따라서는 이 때 성주를 새로 하는 경우도 있다.

5) 윤달의 세시풍속

윤달은 무엇을 해도 좋을 달이라고 하여 수의를 만들거나 변소를 고치는 등 평소 꺼리던 일을 많이 했다.

6) 주요 제보자

○ 김점자(여, 73세, 포천군 군내면 용정 2리)
○ 김옥한(남, 71세, 포천군 군내면 용정 2리)
○ 김만석(남, 70세, 포천군 영중면 거사 2리)
○ 유옥례(여, 66세, 포천군 영중면 거사 2리)
○ 김수동(남, 64세,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 조언형(남, 73세, 포천군 관인면 중 3리)
○ 이정순(여, 73세, 포천군 관인면 중 3리)
○ 최주식(남, 69세, 연천군 중면 삼곶리)
○ 최광식(남, 77세, 연천군 중면 삼곶리)

3. 중류지역의 세시풍속

1) 겨울철의 세시풍속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다. 그러나 조상 중에 나쁜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선 쑤지 못한다. 김초동씨댁에선 동지차례를 지냈다고 하는데, 팥죽을 쑤고 과일을 사다가 마루에 상을 차려놓고 아침에 동

지차례를 지냈다. 하지만 최근엔 절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섣달은 은달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정월 설날에는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떡만두국을 올리는 가정도 있고 떡국만 올리는 가정도 있다. 초사흘을 넘기면 지신밟기를 한다. 농상기를 갖고 집집마다 다니면 소리를 울려주었는데, 이들을 맞은 집에서 쌀 한말이나 돈을 내면 그것으로 보름날에 달맞이를 하고 놀 때 사용했다(이봉의씨 제보). 또한 정초에는 액막이를 위해 짚으로 각시(제웅)를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정초 上子日에는 그 해 농사에 쥐가 끓지 말라고 '쥐알 볶는다' 고 하며 콩을 볶아먹었고, 上丑日에는 탈나지 말고 한해 농사 잘지어 달라고 소한테 잘해주었다.

정월 열나흘엔 나무도 아홉짐을 하고 마당도 아홉번 쓰는 등 같은 행동을 아홉번 반복해야 좋다고 했다. 저녁에 오곡밥을 먹는데, 가장 먼저 동네사람을 불러서 오곡밥을 먹이면 그 해 농사를 가장 먼저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저녁이 되면 서로 불러다가 먹이곤 했다(민병옥씨 제보).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어서 밥부터 먹으면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았고, 잠을 자는 사람에게 밀가루를 칠하고 눈썹이 셌다고 놀리기도 했다. 밤에 만두를 빚어서 보름날 아침에 먹었다고도 한다(이봉의씨 제보).

정월 보름에는 새벽에 우물물을 가장 먼저 길러다가 밥을 지었으며, 이를 용알뜬다고 한다. 이른 아침에는 농사철에 새가 끓지 말라고 논이나 밭에 나가 새를 쫓았다. 또한 두더지가 땅속을 뜰쑤시지 말라고 아침에 땅바닥을 두들겼다(이봉의씨 제보). 나무를 장가들인다고 해서 유실수의 경우 가지 사이에 돌멩이를 끼워두는데, 이는 열매가 많이 열리라는 의미에서 행했다. 그리고 아침에는 복쌈이라 하여 밥을 김에 싸먹었다. 보름에는 널뛰기도 많이 하는데, 이 날 널을 뛰어야 산에서 일할 때 부러진 나무뿌리에 찔려서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김초동씨 제보). 정월에는 연날리기를 많이 하며, 보름에는 연을 끊어서 날려보낸다. 이는 연에다가 액을 담아서 날려 보낸다는 의미에서 행하며 자기 소원을 써서 끊어 날리는 경우도 있다.

저녁에는 싸리로 홰를 만들어 달이 떠오를 때 불을 붙이고서 달을 보고 절을 했다. 이를 '대님(달님) 다린다' 고 한다. 달맞이를 하면서 달점도 치는데, 달빛이 엷은 방향으로는 흉년이 들고 두텁고 붉은 방향으로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한편 저녁에는 이웃마을 아이들과 돌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동네아이들끼리 자기 마을 축동에서 상대편을 바라보고 돌팔매질을 한다고 한다(홍현숙씨 제보).

정월 열엿새는 귀신날 혹은 귀신닭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집밖 출입을 하면 귀신이 붙는다하여 출입을 삼갔고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좋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귀신이 싫어한다고 하여 목화씨와 고추씨를 태워 냄새를 피우고, 귀신이 신을 신으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신을 감춰두기도 한다.

기타 입춘에는 밭에 나가 보리뿌리를 캐서 뿌리의 갯수를 보고 점을 치기도 했다. 뿌리가 세 개 이상이면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2) 봄철의 세시풍속

2월 초하루엔 나이떡을 만들어 먹었다. 이날 '일본놈 볶는다' 고 해서 검은콩을 볶아먹기도 했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검은 복장을 많이 입었기 때문이라고 한다(홍현숙씨 제보). 또 이 날 좀생이별을 보고 점을 쳤다고도 하는데, 좀생이가 달을 바짝 좇아가면 흉년이 들고, 천천히 가면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해서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경칩에는 도룡용알을 떠서 먹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한다. 한식에는 한식차례를 지냈으며, 한식날 비가 오면 '물한식'이라고 해서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홍현숙씨 제보). 한편 봄철에 가장 먼저 보는 나비가 노랑나비면 그 해 운수가 좋고 흰나비면 상재가 든다고 여겼다.

3) 여름철의 세시풍속

단오에는 그네를 많이 탔다. 그네는 사월 초파일에 매서 단오에 잘라서 태우는데, 줄을 맬 때도 한바탕 모여서 놀고 단오에 줄을 끊고 나서도 놀았다. 단오에 줄을 끊는 까닭은 '이제 그만 놀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성에선 단오놀이라고 해서 그네 잘 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도 많이 했다고도 한다(이봉의씨 제보). 또 하루 전날 창포를 베다가 장독간에 두어 밤이슬을 맞히고 단오에 창포를 삶아서 그 물로 머리를 감고 댕기를 드리웠다.

칠석에는 밀떡을 부쳐서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서 풀이를 한다. 백중에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었다고 한다(민병옥씨 제보). 7월에는 호미씨세를 많이 했다.

4) 가을철의 세시풍속

추석에는 송편으로 차례를 드리고 성묘를 한다. 그리고 10월이면 가신을 모신 가정에서는 가을고사를 지냈다.

5) 윤달의 세시풍속

윤달은 '이름 없는 달'이라고 하여 무엇을 해도 좋게 여겨서 평소에 꺼리던 일들을 많이 했다.

6) 주요 제보자

○ 김초동(여, 89세,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 박희서(남, 56세,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 서용하(남, 80세,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 김태완(남, 81세,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 홍현숙(남, 67세, 연천군 백학면 노곡 1리)
○ 민병옥(여, 61세, 연천군 백학면 노곡 1리)

○ 이봉의(남, 71세,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
○ 이덕경(남, 68세,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4. 하류지역의 세시풍속

1) 겨울철의 세시풍속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서 먹었는데, 애동지에는 안쑤고 노동지에만 쑤었다. 그리고 병에 걸려죽은 조상이 있는 가정에서는 팥죽을 쑤지 않았다. 요즘은 절에 가서 팥죽을 쑤어서 불공을 드린다. 섣달은 썩은 달이라고 하며, 섣달 그믐날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고 모여서 놀았다. 또 이 날을 귀신날이라고 하며, 밤에 귀신이 온다고 해서 체를 걸어 놓고 신발도 안에 들여 놓고 잤다. 그러나 눈썹세기는 정월 열나흘, 귀신날은 정월 열엿새라고 제보가 더 많았다.

정월 설날에는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떡국을 올리는데, 떡은 길게 썰지 않고 동그랗게 썰어서 올린다(정정순씨 제보). 가정에 따라서는 떡만두국을 올리는 가정도 있다. 설날이 지나고 정초에는 홍수맥이를 하는데, 그 해에 가족 중에 삼재가 든 가정에서는 만신집에 가서 제웅을 만들어 대수대명을 써서 태운다. 또한 사당패들이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사당패들이 부잣집 대문 앞에 오면 그 집에서는 쌀을 주어 한바탕 놀게 했다(임병기씨 제보). 풍물을 치며 덕담을 해주는 정도였다. 정초 12지일의 풍속으로 상자일에는 쥐불놀이를 했고, 上卯日에는 집밖출입을 삼갔다. 나무하러 일찍 가지 말라고 해서 10시 안에는 나무를 하러 가지도 않았다고 한다(정정순씨 제보).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서 오줌을 누면 좋지 않다고 했다(윤종열씨 제보). 그리고 上辰日에는 칼질을 하지 않고, 上巳日에는 머리를 빗지 않았다고 한다.

정월 열나흘에는 같은 행동을 아홉번 해야 좋다고 해서 나무도 아홉짐을 하고 마당도 아홉번 쓸고 짚신을 삼아도 아홉켤레를 삼았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열두번 해야 좋다고도 한다. 또 오곡밥을 해먹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었다. 또한 이 날 액막이를 하는 가정이 있는데 바위나 강에 오곡밥을 바치고 만신에게나 절에 가서 액막이를 하기도 한다. 밤에는 잣불을 켜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고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밤을 새기도 했다. 이 날을 귀신날이라도 하는데(임병기씨 제보), 밤에 장대에 체를 걸어두고 신발을 숨겨두면 귀신이 내려와서 체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서 돌아간다고 한다.

정월 보름날 새벽에는 용알 뜬다고 해서 아침 일찍 우물물을 길어서 밥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복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새벽부터 시래기를 삶아서 냄새를 풍겨야 좋다고도 했다(정정순씨 제보). 아침에는 액막이를 위해 짚으로 제웅을 만들고 동전을 넣어서 버리면 아이들이 주어갔다. 과일농사가 잘되라고 유실수 가지에 돌멩이를 끼워두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많이 했다. 논에 나가 새를 쫓기도 했다. 섬만두라고 해서 두부속을 넣은 만두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를 농사짓는 만두라고도 한다. 만두를 만들면 아침에 한 해 동안 일 잘하고 탈나지 말라고 소에게도 먹였다(정정순씨 제보). 이 날은 김치를 먹지 않고 나물만 먹으며 김

에 밥을 싸서 복쌈이라고 해서 먹었다. 밥도 남보다 일찍 해먹어야 좋다고 했다. 이 날 머리를 빗으면 논에 김이 많이 난다고 해서 머리를 빗지 않았다. 윷놀이를 해서 윷점을 치는데, 점수대로 콩을 가져가고 열두 달을 세어서 콩이 남는 집은 농사가 잘된다고 하고 모자란 집은 뀌먹어야 한다고 했다. 모가 나면 다섯 개, 개가 나면 두 개 하는 식으로 콩으로 농사짓는 시늉을 했다.

정월 보름 저녁에는 보름달이 뜨는 모양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 만약 달이 일그러져서 뜨면 흉년, 동그라면 풍년이라고 점치기도 하고 달을 봐서 뒤 쪽이 두꺼우면 뒤 쪽이 풍년이 들고 앞쪽이 두꺼우면 앞쪽이 풍년이 든다고 점치기도 했다. 조나 수수의 대 또는 싸리, 짚 등으로 홰를 만들고 달이 떠오를 때 불을 붙여서 태우고 절을 하며 한 해 소원을 빌었다. 아이들에게 자기 나이만큼 횃불을 뛰어넘게 시키기도 했고, 어른들도 토정비결을 봐서 그 해 신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했다.

정월 열엿새는 귀신날이라고 하여 외출을 삼가고 남자들은 나무하러 가는 것도 삼갔다. 이 날 귀신이 많이 나타나는 까닭은 보름날 이밥을 해서 버리고 부럼도 버리기 때문에 이 날 귀신들이 많이 나온다고 여겼다(윤종열씨 제보). 밤에는 집안의 신을 모두 숨기고 체를 걸어두었다.

입춘에는 시를 보아서 입춘시가 되면 밭에 나가 보리를 뽑아서 점을 쳤다. 보리를 뽑아 보리뿌리가 길게 나면 풍년이 들고, 짧으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입춘날에는 입춘대길이라고 대문간에 써 붙이고 입춘고사를 지냈다. 입춘시가 지나면 떡을 해먹었다.

2) 봄철의 세시풍속

2월 초하루엔 나이떡을 해먹었다. 나이수대로 쌀을 떠서 그것을 모아 송편을 해먹었다. 콩도 볶아먹었는데, '좀 볶는다' 고 해서 집안의 벌레를 없앤다고도 하고 왜놈들 망하라고 콩을 볶아먹었다고 한다(김한식씨 제보). 3월에는 장을 많이 담그는데, 말날, 닭날이 좋다고 해서 많이 담그고 뱀날은 장을 담그지 않았다. 장날에 맞춰 장을 담그기도 했으나 장날이라고 해도 뱀날이 되면 담그지 않았다.

한식날은 산소일 하는 날이다. 송편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편을 찌기도 했다. 한식날은 빨래를 하지 않았다(윤종열씨 제보).

사월 초파일날 절에 가서 영등하고 소원성취를 빌었다. 그네도 많이 탔는데, 그네는 사월 초파일부터 그네를 매서 오월 단오까지 놀다가 그네를 끊었다.

3) 여름철의 세시풍속

단오에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여자들은 아침 일찍 상추이슬에 분을 개서 발랐다. 이 날 초파일에 맨 그네를 끊는다. 단오에는 약쑥을 베어다가 말리기도 하고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창포로는 머리를 감기도 하지만 가시나무와 함께 길게 엮어서 대문 앞에 걸어두면 귀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들 그렇게 했다(윤종열씨 제보).

6월에 아이들과 처녀들은 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많이 들였는데, 복이 되기 전에 물을 들여야 좋고 겨울까지 오래갔다. 6월은 썩은달이라고 여겼다. 복날이 되면 개장국을 끓여먹었는데, 열 가구 정도가 모여서 돈을 걷어 개를 사서 잡고 함께 끓여먹었다. 지금도 그렇게들 한다. 복날 비가 오면 대추가 열리지 않는다고도 한다(강순희씨 제보).

칠월 칠석에는 밀떡을 부쳐서 칠석고사를 드린다. 절이나 만신을 찾아가서 고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다. 저녁에는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별이 몇 개나 보이는가에 따라 점을 치기도 했다(정정순씨 제보). 백중에는 절에 가서 조상을 위해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이 무렵이면 여름농사가 마무리되기에 농기패가 모여 호미씨세(호미걸이)를 했다. 막걸리와 만두국을 장만하여 다른 마을 농기패를 초청하여 놀았다.

4) 가을철의 세시풍속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서 차례를 지냈으며, 모양은 반달모양으로 만든다. 10월이 되면 집집마다 고사를 지낸다. 말날, 돼지날이 좋다고 해서 날을 받아서 했다. 스무날은 '손돌이가 죽은 날'이라고 해서 몹시 추웠다고 한다. 입동이 지나면 김장을 했으나 지금은 김장하는 시기도 점차 늦어지고 그 양도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5) 윤달의 세시풍속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했다. 산소(허묘)를 만들고 이장을 하는 일도 윤달에 날을 잡아서 했다.

6) 주요 제보자

○ 김한식(남, 80세,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 윤종열(여, 69세,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 정정순(여, 84세,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 박태하(남, 57세, 파주시 문산읍 문산 2리)
○ 김동수(남, 80세, 파주시 문산읍 문산 2리)
○ 김창숙(여, 57세, 파주시 문산읍 문산 2리)
○ 임병기(남, 77세,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 강순희(여, 79세,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제5절 생활풍속

임진강은 254km의 길이에 걸쳐 차탄천, 한탄강, 문산천 및 한강과 연결되어, 이들 하천과 강이 합류한 유역에서는 비옥한 평지가 만들어졌다. 예전부터 쌀을 비롯한 밀, 조, 옥수수, 고추, 담배, 콩, 채소류, 배 등의 생산이 많았다. 특히 임진강 하류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지역에 걸쳐서는 비옥한 경기평야를 이루고 있다.

임진강은 주요 생업인 농사와 함께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중하류 유역은 비교적 큰 규모의, 상류 유역은 작은 규모의 내수어업이 발달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일이 한가할 때 틈을 내어 강의 수산물을 취하는 정도였고, 마을 마다 거의 전적으로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1950년대 초반의 한국전쟁 이전이나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은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강 일원에는 생산활동 연령층의 타지역 이주, 경작 가능한 토지의 대폭 감소, 배의 운항 제한, 어장 축소에 따른 어획량과 어종의 감소, 상권의 쇠퇴, 내수어업용 시설물의 파손 등과 같은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에 따라 대대로 이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해온 사람들은 의식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생활에서도 이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 글의 내용들은 조사자가 현장조사시 직접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면담대상이 된 주민들은 임진강 일원에서 태어나 줄곳 이곳에서 계절에 따라 달리 와닿는 강내음을 맡으면서 생활을 해 왔다.

이 글은 강 일원의 주민들이 생활해온 모습들을 강을 이용한 시설물 및 어족자원과 관련하여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중 생활은 논외로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만 언급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것들을 주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 활동, 어족자원의 포획관행과 도구, 배부리기와 관련된 신앙 및 고기잡이배 등은 전쟁 이후 현재까지의 것들

도 포함하였다.

1. 강과 함께한 연중 생활

강을 끼고 있는 마을이나 강에서 비교적 가까운 마을의 사람들은 농사일에 힘쓰면서 짬을 내어 가외소득으로 혹은 먹을 거리로 잉어, 붕어, 미꾸라지와 조개류 등을 잡았다. 여기에는 한 두 개의 작은 그물, 반도, 낚시, 투망, 통발 등 비교적 간단한 어로도구를 사용하였다. 겨울철은 일기가 고른날이면 빈번히 여러 명이 쓰리로 얼음을 깨고 그물과 뭇을 써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긴 겨울을 넘겼다. 마을 사람들은 잡은 고기를 모여서 함께 먹기도 하고 어부들은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한국전쟁 전까지 임진강에서 물품의 대량운반은 육로보다 수상을 이용한 운반이 훨씬 성하였다. 배의 운항은 한강을 낀 서울의 마포와 서강에서 임진강 상류의 강원도 안협까지 이루어졌다. 늘배나 작은 배들은 한탄강과 차탄천이 합류하는 연천 전곡 위의 상류까지도 운행을 할 수가 있었다. 문산읍 하동 포구와 장단군 고랑포 포구는 수심이 깊어 배의 입출항이 아주 편리하였고 그에 따라 시장이 발달하였다. 유역의 산물이 모여드는 중심지인 문산읍의 경제권은 분단이나 한국전쟁이 있기 전에는 문산 일대 뿐만 아니라 개성, 연천, 동두천, 철원, 강화 등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번성하였다. 당시 문산장(5 · 10일장)은 조기를 비롯한 수산물로 유명하였고, 고랑포장(2 · 7일장)은 개성상인들이 생필품을 많이 공급하였다. 고랑포와 인근의 5일장들은 우시장이 활성화하였다.

임진강에 드나든 배들중 규모가 가장 큰 중선배들과 주요 물품을 수송한 배들은 위의 양 포구를 이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중선배가 바다에서 갓 잡은 어물을 싣고 오면 어시장 상인들이 싱싱한 것은 형편이 부유한 집에 바로 넘기고, 행상상인들은 소금에 절이거나 냉동시킨 고기를 동네주민들에게 팔러 다녔다. 예나 지금이나 임진강에서 주로 잡은 고기는 잉어, 붕어, 숭어, 뱀장어, 메기, 빠가사리 등으로 계절에 따른 어획량은 예전이 훨씬 많았다. 소라, 다슬기, 제첩 등의 패류는 상류에서 하류에 걸쳐 채취가 가능하였다. 오늘날 이 패류들은 상류의 1급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행해진 강과 함께한 연중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자. 새해들어 1~2월의 겨울 동안은 어업활동의 휴식기이다. 하류에서 상류까지 강 전체가 얼어 붙어 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시기를 틈타 어부들은 헌 그물을 수리하고 새 그물을 장만한다. 2월 중순경 하류에서부터 얼음이 풀리기 시작해 말경에는 상류까지 다 풀린다. 고장난 배는 수리하고 새 배가 필요한 어부들은 서울 마포의 선장편수(배목수)에게 부탁해 제작한 배를 실으러 가기도 한다. 파주 파평면 율곡리와 섭조리, 적성면 두지리, 연천군 전곡읍 고릉리의 독가마에서는 연중 많은 옹기를 구워내 수로와 육로로 공급을 했으나 겨울 동안은 땅이 얼어 생산을 중단하였다.

겨울이라지만 얼음이 덮힌 강위에서 여럿이 합심하여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풍경들이 도처에서 목격되곤 하였다. 강이 넓고 유속이 완만한 중하류의 마을에서는 직업적인 어부들과 농사일을 쉬는 마을 사람들

이 함께 고기잡이를 하는데, 어부들은 배를 띄울 수 없는 철에 다량의 고기를 잡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배고픈 시절에 먹을 거리도 마련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였다. 이 일은 강이 얼고 일기가 고르면 거의 매일하다시피 하였다. 어부들은 그물을 제공하고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에 힘을 보탠다. 어부가 몇 안되는 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가진 그물을 있는대로 모아 작업을 한다. 힘든 그물작업을 주로 하는 어부들을 '그물쪽패', 얼음구멍을 뚫고 얼음을 건져내는 사람들을 '조리질패', 고기를 몰아 오는 사람들을 '몰이질패'라 하였다.

얼음이 덮힌 강의 한복판에 〈그림 37〉과 같이 먼저 사방을 각각 80~90m 정도의 길이를 정해 일정한 간격으로 얼음구멍을 뚫는다. 이어서 한쪽당 한 채 50m 길이의 그물을 두 채씩 붙여 사방 여덟 채의 그물을 연결해 사각형의 방그물(네방집)을 짓는다.

방그물을 짓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물에 길을 인도하는 연로줄을 매달아 얼음밑으로 흘려 보내면 물을 타고 내려오던 그물이 미리 파놓은 얼음구멍(벌구멍)에 담가둔 연로장대에 걸리게 된다. 이 그물을 순서대로 그 다음 얼음구멍에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사람들이 여러 얼음구멍에서 일직선으로 거의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방그물을 만들려고 하는 안쪽의 곳곳에 뚫어 놓은 얼음구멍을 통하여 방그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방그물을 완성하면 고기떼를 몰아올 방향과 양편으로 울타리 구실을 하는 중방그물과 후릿그물(울타리그물)을 만든다. 방그물의 삼면은 막혀 있고 중방그물과 중방그물쪽의 방그물은 고기떼가 들어오기전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그물을 짜는 작업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3~4시간 걸려야 끝낼 수 있는 힘든 일이었다.

그물짜기가 끝나면 고기떼를 그물속으로 몰아 넣는 작업을 시작한다. 몰이질을 하는 여럿이 〈그림 37〉의 왼쪽 중방그물의 수십 미터 앞에서부터 굵고 기다란 통막대기를 가지고 얼음위를 쿵쿵쳐서 고기들을 놀라게 해 그물쪽으로 몬다. 그러면 중방그물 바로 앞에서 우장을 덮어 쓰고 엎드려 얼음구멍으로 강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몇명이 고기떼가 화살표 방향에서 중방그물안으로 몰려든 것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앞뒤로 휘젓는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은 중방그물을 들어올려 고기떼를 다시 방그물안으로 몰아 넣고 중방그물쪽의 방그물을 막아버린다. 사람들은 방그물을 순서에 따라 얼음밑으로 바짝 들어올려 고기잡이를 시작한다. 방그물안의 얼음구멍으로 몰려가 어부들은 주로 사면 귀퉁이의 얼음구멍인 쳇구멍에서 뭇으로 고기를 잡고, 마을 사람들은 나머지 얼음구멍인 벌구멍에서 고기를 잡았다. 잉어, 눈치, 초어가 많이 잡히는 어종이었다. 고기잡이가 끝나면 어획량의 2/3는 그물을 제공한 어부들이 가져갔다.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이 있기전까지 성행하였으나 전쟁이후에는 없어졌다.

오늘날에는 어촌계가 있는 지역은 선단별로, 없는 지역은 어부 개개인이 알아서 배를 수리하거나 그물을 구입한다. 특히 파주 어촌계에 속한 어부들은 한해의 진수에 앞서 3월 하순경 선단별로 뱃고사를 지내고 어업활동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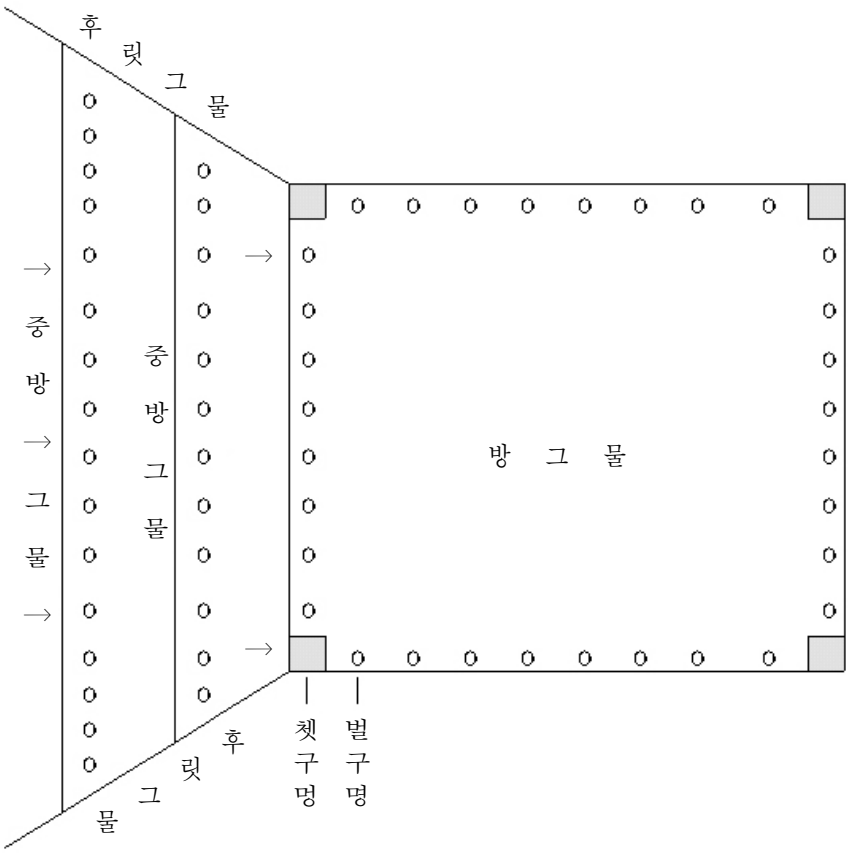
어부들이 강에 나가 먼저 만나는 고기는 실뱀장어이다. 임진강 및 합류하는 하천들에서는 3월 하순경부터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이다. 예전부터 실뱀장어의 포획은 명주실로 모기장처럼 촘촘하게 짠 그

물을 썼다. 6월 중순경이면 실뱀장어의 포획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오늘날은 이 기간중에 실뱀장어의 포획허가를 얻어 나일론 모기장 그물을 써서 잡는다.

4월이 되면 하류에서는 잉어, 붕어, 메기를, 상류에서는 모래무지, 찬마자, 어름치, 불거지, 눈치, 잉어, 붕어, 빠가사리, 쏘가리, 황쏘가리를 잡는다. 특히 4월 하순이 시작될 때(곡우 무렵) 눈치를 아주 많이 포획한다. 이런 현상은 7, 8, 9월까지 계속되며 1년생 고기는 살리고 2~3년생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큰 그물을 쓴다. 상류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봄의 곡우와 가을의 처서 무렵에 빠가사리, 메기, 참게의 포획도 높은 편이었다.

이 시기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임진강에 서식하는 어종들의 대부분이 산란을 위해 상류까지 이동하기 때문이다. 상류로 이동한 고기들은 백로를 전후하여 다시 하류로 내려간다. 해에 따라 8월 하순(처서 무렵)에서 9월 초순(백로 무렵)에 비가 많이와 강물이 불어나면 고기들이 미리 하류로 내려가게 되어 수확량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겨울 동안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준비한 문산 하동포구의 중선배들은 4월이 되면 한달이나 한달반 가량 서해에서의 조기잡이를 위해 출항을 한다. 이때 잡은 조기는 서울로 공급되기도 하고 문산에 와서 거래되기도 하였다. 일부의 중선배들은 조기를 고랑포로 싣고가 팔았다. 조기잡이를 끝내고 포구로 들어온 배들은 잠시의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조기잡이 그물 대신 새우잡이 그물을 준비해 다시 서해로 나간다.



〈그림 37〉 겨울철 언 강에서 고기잡이를 위해 짠 그물 구조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걸쳐 황복어가 바다에서 민물로 와서 산란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황복어를 포획하기 위한 어부들의 손길이 다시 바빠지는 시기이다. 한국전쟁전에는 황복어의 포획량이 상당하여 임진강의 어부들 뿐만 아니라 강화도의 어부들까지도 강으로 와서 황복어를 잡아갔다. 황복어가 나는 철에 어부들이 소쿠리에 황복어를 담아 지게에 지고 팔러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주로 황복어를 팔고 대신 보리쌀을 얻어 생계를 연명하였다.

황복어를 잡는 철에 하류에서 까나리도 잡을 수 있었다. 까나리는 젓갈을 담거나 끓여서 먹었으며 전쟁이후에는 잡지 못하였다. 중선배들은 6~9월중에 서해에서 새우잡이를 하여 문산과 고랑포로 싣고와 팔았다.

5월로 접어들면 숭어잡이로 강 유역이 술렁술렁하였다. 특히 강 하류의 숭어잡이는 임진강의 어부들 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부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강화도의 어부들은 자본력을 갖추고 보다 크고 좋은 그물과 고기잡이배를 타고 와서 숭어잡이를 하였는데 그들이 타고온 숭어잡이배를 사람들은 '이리지기배' 라고 불렀다. 한 번 작업시 보통 두 척의 배에 10명 내외의 어부들이 달려들었다. 이들의 숭어잡는 광경은 강 유역의 주민들에게 더없이 멋진 구경꺼리여서 여름 내내 숭어잡이가 있을 때는 강변이 시끌벅적하였다.

썰물이 되면 어부들은 먼저 강이 넓고 뻘이 있는 곳에다 갯땅을 파고 그물을 빙 둘러서 살짝 묻는다. 이 작업은 잘못하여 그물이 많이 노출되면 숭어가 그물 냄새를 맡고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솜씨가 필요하였다. 그물 밖으로는 지름이 3~4cm, 높이가 3m 가량 되는 대나무를 몇미터 간격으로 빙 둘러 꽂아 두었다. 밀물이 들면서 숭어가 그물안으로 걸려들면 어부들은 배를 타고 그물 주위를 돌면서 갯땅에 묻어놓은 그물을 들어 올려 대나무 위에 걸친다. 이런 식으로 그물 안에 걸려든 숭어를 못빠져나가게 하고 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잡은 숭어는 즉석에서 구경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거래되기도 하였다. 양력 8월이 되면 강화도 어부들에 의한 숭어잡이는 거의 끝나게 된다.


〈사진 95〉 1940년대에 사용한 새우젓독(높이 47cm, 입지름 28cm)

오래 전부터 임진강 일원의 주민들은 제사상에 숭어적을 많이 올려왔다. 강에서 나는 여러 어종중 유독 숭어를 중시한 까닭은 숭어가 뻘의 미생물을 먹고 살아 고기가 깨끗하여 조상신에게 바치기에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6~8월에 걸쳐서는 잉어가 산란을 위해 조수를 끼고 올라오는 시기이다. 잉어는 고랑포를 지나 상류까지 이동하는 어종으로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잡

힌다. 또한 예전의 이 시기에 제첩도 많이 잡았으나 요즈음 와서는 거의 안보인다.

여름이면 강 유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배에 두 사람씩 타고 문산읍 일대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까지 내려가 민물고기를 잡거나 강화도 근방까지 가서 가오리와 바다꽃게를 잡기도 하였다. 이때는 배의 중간칸에 튼튼한 나무막대기를 세우고 그 위에 띠나 밀짚을 우산처럼 엮어 올린 지붕을 만들어 비와 햇볕을 피하였다. 배에는 쌀 몇되와 찬거리, 화덕, 땔나무를 준비하여 여러날 동안 강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기를 잡았다. 낮에는 두 사람이 그물이나 주낙을 이용해 고기를 잡고 밤에는 물살이 약한 강의 한켠에 배를 정박시키고 잠을 잤다. 잡은 고기는 배 앞쪽에 칸막이를 만들어 물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물빵'이라는 시설에다 산 채로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고기를 마포, 강화, 문산의 음식점에 파는데 이런 음식점들은 평소 여러 어부들과 단골관계에 있었다. 문산포구로 들어와 제때 고기를 팔지 못했을 경우는 집옆에다 우물처럼 시설을 만들어 며칠간 고기를 보관하면서 사러오는 사람들에게 팔았다.

또한 이 시기에 중선배가 서해에서 잡은 쌀새우젓(육젓)을 싣고와 임진강 일원의 포구들에서 판매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쌀새우젓은 새우의 알과 살이 통통하게 여물어 최고의 맛을 자랑하였고, 여름의 끝무렵에 잡은 새우는 독에 넣어 숙성을 시켜 가을 김장 때 사용하엿다. 이 때를 타서 강화도 사람들이 물물교역을 많이 행하여 갔다. 즉 여름에는 쌀새우젓을 보리쌀로 바꿔 갔고 가을에는 김장새우젓(추젓)을 팔고 대신 먹는 배로 바꿔 갔다. 또한 문산읍 일대와 아래쪽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여름에 농사꾼들이 빈 새우젓독에 오이지를 가득 담아 새우젓배에 딸려 보내면 이 배가 새우를 잡아 들어올 때 독에 새우젓을 가득 넣어 농사꾼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일종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

이 시기는 여름인 만큼 주요 포구마다 독에 담아 나르는 새우젓 냄새와 어시장 주변에서의 생선 말리는 냄새가 가득하였다. 1930년대 당시 파주 적성면 두지리 일대는 수십 호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사금채취, 옹기독 운반, 배화물의 하역에 관련된 일꾼들이 들끓어 음식점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매일 큰 돼지 한 마리를 도살할 정도였다.

여름철에 강의 수심이 깊을 때는 임진강과 한탄강의 상류나 강원도 접경지대의 산림에서 나무를 베어 뗏목에 실어 하류로 띄워보내는 일이 많았다. 뗏목은 곧게 뻗은 나무를 통째로 잘라 등태목을 대고 단단히 묶어 그 위에 많은 통나무를 실어서 대개 두 사람이 타고 운반하는 것이었다. 통나무를 대고 묶은 뗏목은 폭 6~7m에 길이 20m 정도의 규모이며,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운반하였다. 간혹 운반중에 큰비나 장마를 만나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서 뗏목을 탄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뗏목은 하류에서 한강을 거쳐 서울의 마포나 서강으로 운반되어 뗏목 채로 팔려 목재나 땔감으로 쓰였다.

새우젓을 팔러 들어온 작은 중선배나 상인들의 늘배는 가을에 수확한 곡식, 무, 배추, 콩 그리고 옹기, 장작 등을 한강을 거쳐 서울로 실어 날랐다. 특히 장단지역의 무는 '장단무', 콩은 '장단태'라 부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옹기는 독가마가 있는 마을의 일꾼들이 지게짐을 지거나 우마차에 실어 포구로 운반하였다. 임진강에서 난 산물을 서울의 마포와 서강으로 실어나르는 배주인이나 상인들은 서울의 상인들과 단골을 맺고 위탁판매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았다.

8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참게잡이를 많이 한다. 다 자란 참게는 하천변에 퍼져 살다가 8월 하순경

(처서 무렵) 산란을 위해 강 상류로부터 기수지역(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염도가 아주 낮음)인 강화도 부근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때를 틈타 잡으며, 특히 9월 중순경에는 장이 꽉찬 참게(환갑참게)가 가장 많이 잡힌다. 임진강 참게는 팔참게라고도 부르며 조선시대부터 왕실에 진상할 정도로 유명하였다. 기수지역으로 내려간 참게는 산란을 하고 12월 중순께 새끼들이 얼음밑으로 해서 다시 강으로 올라온다.

예전에 유기질 퇴비를 많이 쓸 때 강과 하천에서 논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미꾸라지와 보리새우가 많았다. 그래서 추수 직전 논물을 빼면서 논고랑에 채를 걸어두면 다량의 미꾸라지와 보리새우를 잡을 수 있었다. 10월이 되어 여전히 눈치, 잉어, 붕어, 피래미, 마자를 잡고, 11월 들어 강에 살짝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배와 그물을 가진 어부들은 숭어새끼인 동어를 많이 잡는다. 동어는 어른 손가락 굵기의 몸체를 갖고 있는데 베를 짜서 만든 '햇가락'이라 부르는 그물을 사용해 잡는다.

12월초에 숭어와 잉어의 포획이 줄어드는 대신 모래무지와 쏘가리가 많이 잡힌다. 이후 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고기들의 움직임이 뜸해지다가 추위가 엄습하면 강에 얼음이 덮히며 배를 이용한 어족자원의 포획은 이듬해 3월까지 중단하게 된다.

2. 임진강의 배들

1) 중선배

중선배는 보통 선주 외에 4~8명의 일꾼들이 타고 다닌 배로서 임진강에 다닌 배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전쟁전까지 강의 주요 물품의 운반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손되고 또한 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라졌다.

중선배 중에서 일중선은 조기와 새우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큰 배였다. 일중선이란 명칭은 바다에서 거센 파도를 해치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배의 길이는 20m 정도이고 돛대 3개와 키 1개를 갖추고 8명 내외의 일꾼들이 타고 다녔다. 배의 규모로 봐서 곡식을 500가마 이상 실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조기와 새우잡이 외에 곡식은 싣고 다니지 않았다. 한국전쟁이전에 부산과 인천의 조선소에서 만들어 임진강에 다닌 일중선은 3~4척이 있었다고 전한다. 바다에서 채취작업을 할 때는 주로 안강망을 쓰며, 강에서는 배의 무게 때문에 문산 하동포구까지 운항할 수 있었다.

일중선의 뱃길은 문산 하동포구와 서해 연평도 사이였다. 4~5월 중에 조기잡이를 끝내고 문산포구로 들어온 배들은 잠시의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조기잡이 그물을 풀고 새우잡이 그물을 준비해 다시 서해로 나갔다. 6~9월중에 새우잡이가 끝나 다시 포구로 들어온 배들은 그물을 바꿔 서해로 나가 10~2월의 겨울 동안 꽃게와 다른 생선을 잡는다. 그러다가 3월이 오면 조기잡이 그물을 준비해 바다로 나갔다.

일중선이 서해 항구 부근에서 머무를 때 배에 하늘색 깃발이 펄럭이면 잡은 조기가 있다는 표시였고, 다

팔면 깃발을 내렸다. 장사꾼들이나 임진강의 어부들은 작은 규모의 중선배나 짐배를 타고 일중선으로 가서 조기를 구해 마포나 문산시장에 가져다가 판매하곤 하였다.

일중선보다 작은 중선배들은 돛대가 1~2개, 키 1개를 갖추고 선주를 포함하여 3~4명의 사람이 타고 다녔다. 이 배는 조기, 새우젓, 소금 등의 수산물을 직접 싣고 강으로 들어와 문산 하동포구나 고랑포의 어시장에 판매하였다. 가장 작은 규모의 중선배는 한탄강이 임진강과 합쳐지는 지점까지도 수산물을 운반하였다. 사리때 강을 따라 올라와 수산물을 여러 포구에서 판매를 하고 빈 배에 곡물, 채소, 과일, 옹기, 목재, 장작 등을 싣고 다음 사리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불어난 강물을 타고 다시 하류로 내려가 한강을 거쳐 서울의 마포나 서강으로 들어갔다. 서울로 실어간 물산중 쌀은 고두밥을 쪄서 술을 만들기 위한 현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2) 늘배

늘배는 강배, 한선, 조선배라고도 부른다. 주로 소나무를 이용해 만들며 낮은 돛대 1개, 노는 좌우 각각 1개, 배꼬리에 방향조정 키가 1개가 달렸다. 보통 4명이 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전체 모양이 좌우 폭은 2m 정도로 좁고 앞 뒤 길이는 7~8m 정도로 기다랗다. 배머리는 약간 뾰족하고 앞보다 뒤쪽이 조금 넓게 되어 있다. 늘배는 서울 마포에서 한강을 거쳐 임진강으로 들어와 고랑포를 지나 상류까지 다녔으며 강 유역의 물자 운송에 요긴하게 쓰인 배였다. 배의 구조상 짐을 많이 실어도 물에 잠기는 면이 적어 수심 1m 정도의 얕은 물에서도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바람에는 약해 배를 부리는 사람의 기상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였다. 상류에서 장작, 화목(대개 여름에 풋나무를 잘라 말렸다가 가을에 서울로 싣고가 땔감으로 판매함), 숯, 목재, 볏짚, 옹기 등을 싣고 하류로 내려와 파주 탄현면 오금리나 낙하리 일대에서 밀물 때를 기다렸다가 한강을 거쳐 마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고랑포에서 마포까지 가는데만 3~5일 정도 소요되었다. 서울에서 임진강으로 되돌아올 때는 빈배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늘배는 임진강 유역에서 장작이 대량으로 필요한 독가마가 있는 마을 - 율곡리, 섭조리, 두지리, 고릉리 - 에다 장작을 공급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경 임진강에 다닌 늘배는 80척 정도였다고 한다.

3) 짐배

임진강의 짐배들은 외형상의 형태와 하는 일에 따라 몇 종류가 있었다. 크기는 배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고, 재질은 주로 소나무, 낙엽송, 왜송을 썼다. 짐배들은 서울 마포의 배목수에게 부탁해 제작하는 일이 많았고, 일부는 임진강 유역의 목수들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작하였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돈이 여의치 않을 때 고기를 잡아서 선물하는 형식으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두대배기, 곱배선, 장도리배, 달거루(된마), 나가사끼 등이 주민들의 기억속에 남은 짐배들이다. 이 배들은 한국전쟁이전까지 바다와 강을 오가며 운송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전쟁후에는 보기가 어려워졌

다.

두대배기는 돛대가 두 개 달려 있는 배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 배는 주로 중선배가 잡은 수산물을 임진강과 한강으로 운반하는 데 쓰였다. 곱배선은 북한지역의 강에서 자주 사용한 통나무배 모양으로 만든 목선이었다. 보통 조기를 확보하고자 바다에서 조기잡는 중선배의 근방에 자리를 잡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곱배선 또한 바다에서 확보한 수산물을 임진강과 한강으로 많이 실어 날랐다. 강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는 임진강 일대의 산물들을 한강을 거쳐 서울로 실어 날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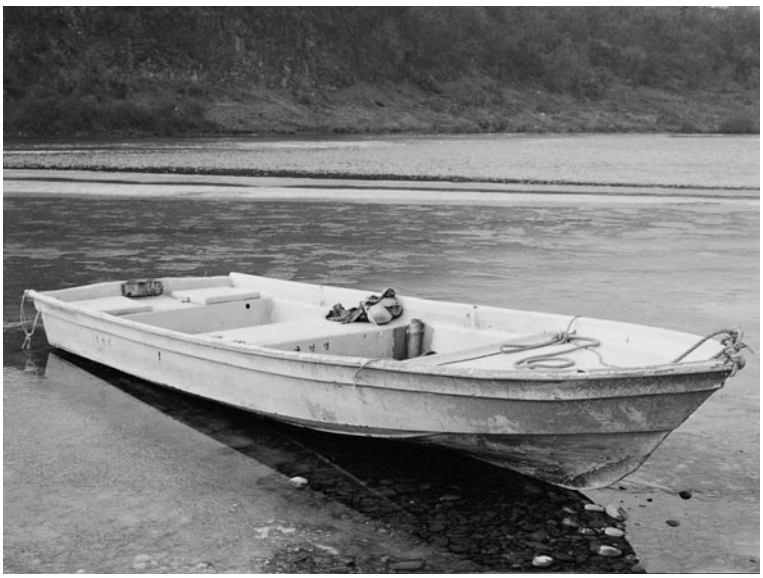
달거루는 된마라고도 하며 중선배가 1~2척 싣고 다니면서 위급시에 인명구조를 위해 쓰는 배였다. 그리고 강에서는 조수가 줄고 늘 때 중선배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까지의 운반을 달거루가 담당하였다. 물품의 운반외에 부분적으로는 고기잡이에도 쓰이다가 전쟁후에는 대부분 고기잡이 목선으로 바뀌었다. 배의 길이는 5~6m 정도이고 돛대가 없이 노를 저어서 움직였다. 뱃머리는 뾰족하나 뒷부분은 뭉툭하게 되어 있다.

나가사키라는 짐배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에서 들여와 임진강에서 쓴 짐배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체의 윗부분이 다른 짐배보다 밖으로 많이 퍼지게 만들어 물 위에 떠다닐 때 비바람에 잘 견뎠다고 한다.

4) 고기잡이배

고기잡이배는 '생선거룻배', '쌈판'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며 강 전역에 걸쳐 그물이나 주낙과 같은 어로도구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하던 배였다. 쌈판이라는 이름의 배는 보통의 어선보다 뱃머리가 더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고기잡이배의 재질은 주로 소나무를 쓰고 부분적으로는 낙엽송과 왜송을 썼다. 짐배와 마찬가지로 서울 마포나 임진강 유역의 배목수들에게 부탁을 하여 만들었다. 때로는 어부 자신들이 재료를 구해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제때에 더 많은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서 어부들에게는 잘 만든 배가 필수적이었다. 배가 물을 잘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선체의 물위로 떠오르는 부분과 물속으로 잠기는 부분의 면적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했다. 배는 선체를 구성하는 송판을 이어서 만들며, 이것이 다 되면 선체 안쪽 송판 사이의 틈새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검붉은 색이 도는 삼나무 껍질을 가늘고 길게 말아 망치로 쳐넣어



〈사진 96〉 현재 사용하는 0.5톤 고기잡이 동력선 (길이 530cm, 폭 150cm, 선체깊이 52cm)



〈사진 97〉 고기잡이배의 송판 틈새 막음질 재료인 삼나무 껍질

막음질을 하였다. 그런 후에 배를 뒤집어 바깥쪽 송판 사이의 틈새 또한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막음질을 하였다. 송판 틈새의 막음질 재료로 삼나무 껍질을 쓰기전에는 대나무 껍질을 썼던 까닭에 사람들은 삼나무 껍질 재료를 '대끌'이라고 불러왔다. 배를 완성하여 띄우면 선체가 물을 머금어 탱탱하게 불어나면서 송판의 틈새를 꽉 막아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된다.

배의 길이는 5~6m 정도여서 규모로는 늘배보다 작고 짐배나 나룻배와는 비슷하였다. 전체 모양은 뱃머리가 뾰죽하고 배꼬리는 뭉툭하게 되어 있어서 짐배중 달거루와 많이 닮아 있다. 실제로 전쟁전의 짐배인 달거루가 전쟁후에 고기잡이배로 많이 바뀐 까닭에 1980년대까지 쓰였던 고기잡이 목선을 달거루라고 부르는 어부들이 많다. 강의 고기잡이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돛대는 없고 노를 저어서 움직인다.

1950년대 초반의 한국전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고기잡이배는 대부분 파손되었다. 또한 이 배는 강물에 띄우는 일이 많다보니 4~5년 쓰면 부식되거나 암초에 파손되어 수명이 짧았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는 미군부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베니다판으로 전쟁전의 고기잡이배와 같은 모양으로 배를 만들어 썼다. 그러나 이 재료로 만든 배는 바람이 세게 불면 노를 젓기가 힘들고 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소나무와 낙엽송으로 예전 방식으로 만든 고기잡이배가 다시 쓰이기 시작하였다. 배는 길이가 6m 내외, 폭은 160cm 내외, 배 안쪽 깊이는 50cm 정도였고, 노는 1개를 사용하며 대개 참죽나무로 만들었다. 1980년대 중반 제대로 만든 배 한 척의 가격은 노 1개를 포함하여 120~135만원이었다.

고기잡이배는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제작에 돈이 많이 들고 수명이 짧고 충격에 약한 면이 있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1980년대부터 섬유강화플라스틱제(FRP)를 사용하여 만든 고기잡이배가 조금씩 보급되다가 마침내 1990년대 들어서는 이전의 배를 대체해버렸다. 따라서 오늘날 임진강에서 예전의 나무로 만든 고기잡이배는 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임진강 일원의 고기잡이배는 0.2톤에서 0.5톤 규모의 무동력선과 동력선이 있으며, 대개는 0.5톤의 배를 많이 쓴다. 무동력선은 강 하류의 군사작전구역 내에서 노를 저어 어업활동을 한다. 동력선은 군사작전구역 밖에 속하는 파주 적성면 일대로부터 연천 전곡 일대에 이르기까지 쓰이고 15~40마력의 휘

발유 엔진을 장치하였다.

5) 나룻배

나룻배는 '거룻배', '거루', '도선'이라고도 하며, 뱃사공이 강 양편을 오가며 사람과 짐을 운반하는 데 쓴 배였다. 소나무나 낙엽송을 이용해 지역의 배목수가 만들기도 하고 서울의 마포에 가서 구하여 큰 배에 싣고 오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전 뿐만 아니라 1960~70년대까지 쓰인 임진강의 나룻배는 뱃머리는 뾰족한 편이고 배꼬리는 약간 뭉툭하였다. 나룻배에 달려 있는 시설로는 삿대와 노가 있었다. 배의 앞뒤 길이는 4m 내외, 좌우 폭은 2m 내외로 어른 열 명 가량이 한꺼번에 탈 수가 있었다.

3. 어로도구

예전에 임진강에서 어부들이 사용한 도구로는 각종 그물류 및 주낙, 통발, 뭇, 쓰리, 그물빗 등이 주종이고, 어부들 외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작은 그물, 뭇, 쓰리, 그물빗 정도는 사용하였다. 오늘날 어부들은 각종 그물류와 주낙, 통발을 이용해 고기잡이를 한다.

1) 그물

그물은 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주된 어로도구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대나무로 만든 그물빗을 이용해 명주실로 그물을 떴다. 작업시 말뚝을 박아 놓고 그물실을 거기에 고정시켜 뜨는데, 먼저 굵은 마룻줄에다가 그물을 연결해 떠나가다 완성이 되면 아래쪽의 벼리에 벼리톳이라 부르는 단단히 구운 둥근 찰흙덩이를 달았다.

전쟁전후의 겨울 휴식기에 한 달 보름 동안 솜씨있는 한 사람이 뜰 수 있는 그물은 1채 정도였다. 그물 1채의 규모는 폭이 5m 내외, 길이가 50m 내외였다. 어부들은 새 그물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썼던 그물은 실과 그물빗을 가지고 수리를 해 다시 쓸 준비를 하였다. 어업이 전업인 사람들은 보통 두 채 이상의 그물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들면서 공장에서 나일론으로 짠 튼튼한 그물이 대량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해 지금은 모두가 이런 그물을 여러 채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강의 고기잡이에 사용해온 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물은 그물눈이 촘촘하고 재료의 굵은 정도에 따라 몇가지가 있다. 순서대로 보면 10절, 9절(단사), 8절~7절(2합 그물), 3지(3합 혹은 3합 5절 그물), 4지(4합 혹은 4합 5절 그물), 5지 그물 등이다. 10절 그물은 그물눈이 너무 촘촘하여 현재 임진강에서는 거의 안쓰인다. 9절 그물은 어른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촘촘한 그물로 예전에는 바느질실보다 가늘고 질긴 실로 만들었고, 8절, 7절 그물은 그물눈이 좀 더 크다. 주로 빠가사리, 모래무지 등을 잡을 때 사용한다. 3지에서 5지까지의 그물은 손가락이 3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물눈을 가진 그물로 3지 그물은 그물실이 가는 반면, 4지와 5지 그물은 그물실이 보다 굵고 뻣뻣하다. 이 그물로는 주로 붕어, 잉어, 숭어, 눈치, 황쏘가리 등 강에서 가장 큰 고기를 잡는다. 예전에는 5지 이상의 그물도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했으나 지금은 별로 쓰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예전부터 실뱀장어 그물은 모기장 그물(낭장망)이라고 하여 잠자리채 마냥 좁게 튀어나온 그물 입구에서 뒤쪽으로 길게 그물이 뻗어 있는데 그물눈을 세 단계 크기로 만들었다. 즉 그물의 입구에서 약간 뒤쪽으로는 작은 모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물눈이 있고, 그물의 중간부분은 가정에서 쓰는 모기장 크기의 그물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물의 가장 깊숙한 안쪽은 물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한 그물눈을 가지고 있다.

그물은 강에 던져 물결이 흘러가는대로 두면 강바닥에 가라앉아 깔리게 된다. 사전에 그물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물 양 끝에 줄을 매어 부표를 띄워둔다. 이렇게 해 두면 배 위에서 쉽게 그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물은 대개 一字형으로 물결을 따라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르던 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된다. 그물을 거둘 때는 두 사람중 한 사람은 노를 젓고 한 사람은 큰 고기가 잡혀 올라오면 '테' 라고 부르는 도구로 그물에 갖힌 고기를 미리 떠 올린다. 그러지 않고 그냥두면 큰 고기는 튕겨나가거나 그물을 찢는 경우가 더러 있다.

2) 주낙

주낙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넣어 두고 물살에 따라 거뒀다 놓았다 하면서 고기를 잡게 되어 있는 낚시를 말한다. 어부들은 고기잡이배에 주낙을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넓은 구역에 걸쳐 설치하여 고기를 잡았다. 계절로는 5월에서 11월 사이에 계속 놓으며 6월중에 가장 잘 잡힌다.

주낙 바늘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먼저 바느질 바늘을 한꺼번에 100~200개 가량 함석 위에 올려 놓고 달군다. 이것을 물에 넣었다가 꺼내 망치로 톡톡 쳐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불에 달구면 시퍼렇게 변하는데, 이때 물에 다시 넣었다 구부리면 안부러지고 쉽게 휘어져 낚시 만들기가 쉽다. 마지막으로 불에 빨갛게 달궈 낚시 모양으로 구부린 후 미늘을 만든다. 낚시 한 쌈은 스무 개로서 아주 숙달된 사람은 하루에 스물 다섯 쌈(5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으나 서툰 사람은 다섯 쌈(100개) 정도 밖에 못만든다.

예전부터 주낙은 강물이 적고 물살이 약할 때를 타서 주로 하였다. 조수의 영향이 미치는 강 하류에서는 썰물 때 수심이 얕아지면 강 한복판이나 양편으로 2~4km 길이로 주낙을 설치한다. 강 한복판을 따라서 주낙을 놓는 것을 '골장질' 한다 하였고, 양편으로 놓는 것을 '여가리' 라고 하였다. 주낙은 긴 장줄에다 끝에 낚시를 매단 70cm 정도 길이의 샘줄을 한발 반 간격으로 계속 매달아 낚시와 낚시끼리 엉키지 않게 살아 움직이는 미끼를 씌우고 모래를 덮는 식으로 설치하였다. 장줄은 요즈음 사용하는 낚시줄 스무 올을 합한 굵기의 실이고 샘줄은 가는 명주실을 약 70cm 길이로 끊어 끝부분을 끓는 물에 넣었다가 꺼내면 끝이

안풀리게 처리되었다.

주낙을 풀 때는 장줄에다 5개 정도의 샘줄을 매달고 다음 샘줄을 달기 전에 주먹만한 돌을 매달아 낚시가 물결에 쓸리지 않게 설치하고, 다시 낚시가 달린 다섯 개 정도의 샘줄을 앞서 한 것처럼 매단다. 이렇게 하여 대략 1,000개에서 1,500개의 샘줄을 매는 것이다. 미끼를 씌운 낚시가 달린 샘줄은 강바닥에 드리울 때 미끼 부분만 모래를 살짝 덮는다.

어종에 따라 메기, 뱀장어, 빠가사리, 자라 등을 잡을 때는 미꾸라지 미끼를, 그리고 눈치, 붕어, 잉어 등을 잡을 때는 돌거머리 미끼를 썼다. 계절에 따라서는 5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중 5월~8월은 돌거머리 미끼를, 9월 이후 날씨가 추워지면 미꾸라지 미끼를 많이 썼다. 때로는 개구리와 지렁이를 미끼로 쓰기도 하였다.

설치가 끝나 잠시 짬을 내어 휴식을 취하다가 물이 들어오면 배를 타고 나가 주낙을 거두면서 걸린 고기를 잡았다. 조수와 상관이 없는 상류에서는 오후 해질녘에 놓아 다음날 아침 일찍 거두었다.

3) 뭉치질대

뭉치질대는 주로 장마철에 뱀장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어로도구였다.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하여 뱀장어를 잡는 것을 뭉치질이라고 불렀다. 먼저 장대처럼 긴 두 발 길이의 나무를 깎아 끝에 구멍을 뚫어 여기에다 몸통속으로 실을 꿴 여러 마리의 지렁이를 한 뭉치로 꽉 붙들어 묶어 매단다. 강으로 배를 타고 나가 물속에 이것을 담그면 곧 뱀장어가 와서 물고 잡아당긴다. 손맛을 느끼는 순간 재빨리 배 위로 뭉치질대를 잡아당기는데 미처 지렁이 뭉치를 뱉지 못한 뱀장어가 딸려 올라와 배 위로 떨어지게 된다. 어부들 사이에서 뱀장어는 치아가 옹니처럼 생겨 실이 이에 걸리면 잘못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뭉치질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야 잘하지 미숙한 사람은 잡아 올리던 뱀장어를 놓치는 일이 허다하였다.

4) 통발

통발은 고등어 미끼를 써서 주로 자라와 참게를 잡으며 강과 하천이 연결되는 지점에 해질녘에 놓았다가 해뜨기전에 거둔다. 통발로 참게를 많이 잡기 때문에 '게통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 뭇



〈사진 98〉 1930년대에 사용한 뭇 (전체길이 62cm, 괴집길이 13cm, 괴집입지름 4cm)

뭇은 연중 주로 겨울에 강의 얼음을 깨 얼음 밑으로 떠오른

잉어나 눈치를 찔러 잡을 때 쓰는 도구이다. 세 개의 미늘창이 달리고 뭇대를 끼우는 괴집이 있는 60cm 정도 길이의 쇠에 4~5m 길이의 나무를 끼워 사용한다. 뭇의 자루인 뭇대는 박달나무로 만들며, 여름 동안 박달나무를 베어 직경 4cm 내외로 깎아 들기름을 여러 번 칠한다. 그런 후 나무끝에 무거운 돌을 묶어 휘지 않게 높은 나무에 오랜 동안 거꾸로 매달아 둔다. 뭇대에 들기름을 칠하여 두면 뭇대가 물속에 들어갈 때 거품이 거의 일지 않는다고 한다. 이 도구는 전쟁전에는 집집마다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나 전쟁 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6) 쓰리

쓰리는 겨울에 고기를 잡기 위해 언 강의 얼음을 깰 때 쓰는 도구이다. 직접 얼음에 닿는 쇠부분인 쓰리날, 나무자루를 꽂는 쓰리괴집, 나무로 된 쓰리자루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쟁전에는 어부들 뿐만 아니라 강변의 주민들도 집집마다 한 두 개씩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나 전쟁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진 99〉 1930년대에 사용한 쓰리날 (길이 32cm, 폭 5cm, 두께 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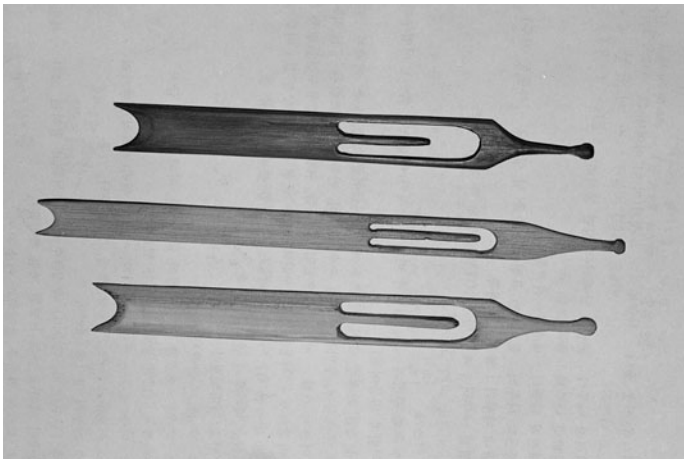


〈사진 100〉 쓰리날의 옆면

7) 그물빗

그물빗은 그물바늘이라 부르기도 하며 그물을 손질하거나 새로 만들 때 사용하는 대나무로 만든 도구이다. 그물을 손질하거나 만들시에 그물빗 끝의 둥근 코에 가는 실을 걸어서 사용한다. 보통 3개를 가지고 작

업을 하며, 3개 중 가장 짧은 것은 그물빗의 앞뒤로 오가는 공간이 좁은 데서 쓰고, 이 보다 약간 긴 것은 큰 그물눈을 뜰 때 쓴다. 그리고 가장 길고 좁은 그물빗은 작은 그물눈을 뜰 때 쓴다.(사진 101 참조) 그물빗은 전쟁 후에도 많이 쓰였으나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사진 101〉 1930년대에 사용한 그물빗

4. 배부리기와 관련된 신앙

임진강을 중심으로 중선배나 늘배, 짐배를 부리는 선주들과 일꾼들, 그리고 고기잡이배를 부리는 어부들은 연말연초에 한해의 무사고에 감사하고 새해의 성공과 풍어를 축원하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가져왔다. 부정기적인 의식으로는 새로 배를 구입한 경우 배를 띄우는 나루터에서 진수에 앞서 고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의식은 강을 배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생활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마을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관념 세계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비교적 큰 배의 선주들이나 작은 배를 가진 어부들은 자신들의 생활근거지인 강가의 바위가 오뚝 솟은 곳에 마음의 의지처가 되는 터줏가리를 만들어 두는 게 관례였다. 해마다 가을에 새 볏짚이 나오면 햅쌀을 넣고 이엉을 엮어 씌웠다. 섣달 그믐이나 정월 보름에 떡, 북어포, 막걸리를 차려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하였다. 그런 후 떡을 오려내 그릇에 담아 터주가리 앞에 오랜 동안 놓아 두었다.

다른 한편 전쟁 전 파주 탄현면 낙하리에 살던 중선배 선주 두 사람은 매년 정월 보름이면 일을 도우는 선원들과 함께 터줏가리가 아닌 마을에서 당나무로 숭배하는 느티나무 아래에다 시루떡, 돼지머리, 막걸리를 차려 놓고 낮동안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내며 "우리 배가 무사히 왕래하게 약주 한 잔 대접합니다"라고 축원하고 마지막에는 소지를 올렸다. 고사가 끝나면 참석자들과 마을의 구경꾼들은 차린 음식을 함께 먹는다. 남은 음식은 선원들이 싸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들과 나눠 먹었다.

강의 얼음이 풀리고 봄기운이 제법 다가오면 어부들은 배를 띄우기 전에 날을 정하여 터주를 위한 고사를 지냈다. 어부가 한 둘인 마을은 제각기 떡, 북어포, 막걸리를 차려 지내지만 어부가 많은 마을은 음식을 그득히 차리고 만신을 불러와 요란하게 지냈다.

강변에 봄이 오면 요란하던 만신들의 축원소리와 어부들의 배 띄우는 소리는 한국전쟁의 포성과 함께 아득한 과거속으로 숨어버렸다. 그 많던 터줏가리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춘 신무기 앞에서 흔적없이 흩어졌고 터주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어부들의 가슴속에서만 존속하여 왔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일부 지

역의 어부들은 3월에 배를 띄우기에 앞서 예전 터주를 모셨던 자리를 찾아 정성스레 축원을 하고는 현대화된 선단별 뱃고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

오늘날 파주 지역의 어부들은 어촌계의 활성화로 인해 매년 3월 하순경 선단별로 날을 정하여 배를 띄우기 위한 의식을 가진다. 한 척의 배에 돼지고기, 시루떡, 막걸리를 준비하여 놓고 배마다 참가한 어부들이 두 명씩 타고 축원을 한다. 어부들은 의식을 끝내고 나면 인근 주민과 군부대 장병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 연천이나 포천 지역의 어부들에게서는 이러한 집단적인 의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5. 나루터 풍속

나루터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마을들을 이어주는 주된 교통로였다. 임진강 및 연결된 하천들의 상하류에는 오래 전부터 도처에 나루터가 있어 왔다. 뱃사공은 나룻배를 저어 강 양편을 오가며 마을 사람과 행인들을 실어 날랐고 농사나 어업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다. 뱃사공은 연중 강이 얼어붙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나루터를 비우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루터를 비워야 할 때는 대신 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고서야 가능하였다.

뱃사공은 사람들이 나루터에 와서 배를 태워달라고 할 때마다 운행을 하였다. 나룻배는 기본적으로 삿대와 노를 갖추고 있으며, 나루터에서 사람을 태우고 출발할 때와 수심이 1~2m 정도인 얕은 곳을 나갈 때에는 긴 장대로 된 삿대로 강바닥을 눌러 찍어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한다. 수심이 점점 깊어지면서는 삿대질을 멈추고 배 뒷전에 있는 한 개의 뒷노를 사용하여 방향을 조절해 가며 배를 저어 간다. 이윽고 배가 강변에 도착할 때쯤이면 수심이 얕아져 배가 잘 안나가게 되고, 그러면 뒷노 대신에 다시 삿대로 강바닥을 눌러 찍어 배를 강기슭에 바짝 다가댄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양 팔로 두 개의 노를 동시에 젓는 손노가 쓰이기 시작해 강을 건너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 배를 저어가면서 뱃사공은 어여디여차차! 어여디여차차!(탄현 오금리), 어기야디여차! 어기야디여차!(파평 장파리), 이여! 이여!(군남 남계리 단풍동)의 노젓는 소리를 반복하거나 때로는 흥겹게 뱃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이용한 데 대한 보답으로 뱃사공에게 연중 두 차례의 대가를 곡식으로 지불하였다. 즉 여름에는 보리 한두 말, 가을에는 벼 한두 말씩을 주며, 건너 다니는 식구수가 많거나 형편이 아주 좋은 집은 한 말 정도를 더 얹어주었다. 간혹 곡식 대신에 베를 짜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지인이 배를 이용할 때는 배삯을 즉석에서 돈으로 지불하였다.(1960년대에 남계리 단풍동 나루터의 배삯은 한 번 건너는 데 5원이었다)

강이 언 겨울 동안 배를 쉬게 되어 뱃사공은 나루터 주변을 손질하는 것 외에는 긴 휴식기에 들어간다. 뱃사공과 마을 사람들은 언 강위로 길을 내어 겨나 볏짚을 깔아 둔다. 강이 풀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길로 걸어서 혹은 우마차를 이용해 강위를 오가게 된다.

차량을 비롯한 여러 교통수단의 발달로 다리가 도처에 놓여지면서 옛 나루터와 배는 없어졌다. 배를 대라고 사공을 부르는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일상의 땀내를 토해낸 사공의 배부리는 소리는 지난날 한 번이라도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던 사람들의 기억속에만 남아 있다.

6. 사금채취

사금채취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 해방 무렵까지 성하였다. 당시에 사금채취를 하는 사람은 관청의 특별한 허가없이 원하는 지역에다 작업장을 벌렸다. 사업자는 우리 나라 사람이 주였고, 강 유역의 사람들은 주생업인 농사에 열중하면서 틈틈이 짬을 내어 며칠간의 품삯을 벌기 위해 삽질이나 지게질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사유지에서 채취할 경우는 땅주인과 이익의 절반씩을 나눠가졌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서 사금채취에 맛을 들여 금구덩이를 찾아 다니는 데 미친 사람들은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사금은 금 알갱이를 함유한 토사가 큰 물에 쓸려 내려오다가 강의 어느 지점에서 규칙적으로 축적된 층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채취작업은 임진강 유역 중 모래사장이 잘 형성된 비교적 상류에 위치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연천 백학면 일대의 강에 인접한 마을들과 장남면 원당 1, 2, 3리에서 다량의 채취가 이뤄졌고, 파주 적성면의 장좌리와 두지리 등 몇몇 지역에서 소량의 채취가 이루어졌다. 사금이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난 지역은 해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곤 하였다.

강물이 불어나 모래사장을 이용할 수 없는 7~8월의 장마와 홍수기를 제외하고 채취작업은 연중 계속되는 편이었다. 작업장의 기본 일꾼은 7~8명선이고 큰 작업장은 10명이 넘기도 하였다. 일꾼은 굴파는 기술자 1명, 모래를 퍼내는 가래질꾼은 파는 장부꾼 1명, 던지는 양쪽 줄꾼 2명을 합해 모두 3명, 지게질과 삽질, 호미 모양의 도구인 벽채로 땅파기, 어래질하는 일꾼 2~3명, 체질꾼 1명 등이다.

일꾼들의 하루 품삯은 작업능력에 따라 대개 3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였다. '상일꾼' 은 아무 일을 맡겨도 근심걱정끼치지 않고 잘 하는 자로서 특히 굴문을 헐어지지 않게 잘 파고 들어가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사금굴은 통나무를 거의 받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성이 높으며, 만약 무너지면 인명사고가 나기도 하여 숙련된 이들이 굴파기를 전담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하루 품삯은 1원이 넘는 경우가 많았다. '중짜' 라고 부르는 일꾼들은 사금채취작업에 조금 눈을 뜬 사람들로서 하루 품삯은 60~70전 정도였다. 이들 두 부류의 일꾼들은 사금작업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작업자들이었다. 마지막으로 '하급' 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원근의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하루 품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지게질과 삽질, 벽채로 땅파기, 어래질 등의 육체적 노동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 품삯은 40전 정도였다(당시 100전은 1원에 해당하며 송아지 한 마리의 값은 5원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열이틀 한나절의 품을 팔아야 했다).

작업장은 강섶의 물이 흐르지 않는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다 정한다. 먼저 지표면에서 지하로 구덩이를

파내려간다. 이 과정은 금맥을 품고 있는 모래층이 나올 때까지 나쁜 모래흙을 구덩이 밖으로 파내서 양쪽으로 갈라 붙이는 것으로 이를 '버력'이라 부른다. 조금 더 깊이 파 내려가면 대개는 물이 스며나오는데, 그러면 구덩이 밖 양쪽으로 나무 기둥을 설치하고 가로목을 대어 밧줄에 용두레를 묶어 물 퍼내는 작업을 한다. 지표에서 두 길 깊이, 즉 약 3~4m 파내려가면 금맥이 나오며 이것은 붉으스레한 색을 띠는 모래층이다. 금맥은 지표면에서 지하로 얕게는 1m 지점부터 깊게는 4m 지점에 걸쳐 나온다. 이런 모래흙이 나오면 "감색이 좋다"거나 "감 좋은 흙이 나온다"고 표현한다. 약 4m 깊이까지 파 내려갔는데 감색이 좋은 모래층이 나오지 않으면 작업장을 거두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감색이 좋은 모래층이 나왔을 경우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사금장 시설을 보강한다. 금맥이 나타나면 이것을 따라 상일꾼이 조심스럽게 양옆으로 굴문을 내고 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도 물을 퍼내는 작업은 계속 되며, 양철로 만든 어래라는 삼태기 모양의 도구로 모래흙을 담아내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금맥을 다 찾은 후 금을 채취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모래흙을 모두 들어내고 터를 다 닦는 과정을 '굿짓는다'고 하였다.

금맥에서 거둬낸 모래흙은 굴문 밖의 '복구'라고 부르는 시설에서 분류작업을 한다. 복구는 미끄럼틀처럼 테두리가 있는 판자를 경사지게 놓고 양쪽에 받침다리를 만든 것으로 판자의 윗부분에는 빈 설탕포대를 고정시키고 아래쪽으로는 흰 광목천을 깔았다. 캐낸 모래흙을 포대입구에 부어 물을 쏟으면 쓸려 내려가던 비교적 큰 금조각은 포대에 달라 붙고 잔금은 광목에 가 달라 붙는다. 포대와 광목에 붙은 금조각을 피나무 함지박에 담아 쌀을 일듯이 하여 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나무 함지박을 쓰는 까닭은 피나무가 무거운 물질을 나무표면에 붙들고 있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었다. 작업이 되풀이 되면서 포대와 광목은 2~3일 마다 새 것으로 바꿔 준다. 또한 피나무 함지박에 물을 가득 담아 반투명의 '시운'이라는 물렁물렁한 재료와 금맥의 모래흙을 함께 넣어 두면 금조각이 시운에 달라붙어 이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었다.

여러 날의 채취작업이 끝나 사업주가 작업시설을 거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 주민들은 농사일을 살피러 들녘으로 향하였다.

7. 어촌계 활동

어촌계는 어부들끼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어촌계는 규정상 법인 어촌계와 비법인 어촌계로, 구역상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안 어촌계와 내륙의 강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 어촌계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법인 어촌계는 자체로 여신, 신용대출, 판매업무를 할 수 있는 어촌계이며, 비법인 어촌계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어촌계를 말한다. 임진강 일원에서 파주 어부들의 어촌계는 비법인이며 내수면 어촌계이다. 파주 어부들은 어촌계를 조직하여 수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연천과 포천의 어부들은 어촌계 조직이 없고 한 달에 한 번 자체의 친목모임을 갖고 있는 정도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최근에 들어

생산물의 판로와 가격 경쟁에서의 불리한 조건을 해결하고 어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기서는 수협의 정관에 따라 활동하는 파주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촌계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전쟁 전에 강 중하류의 어부들간에 고기잡이계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다. 당시 어업조합은 개성에 있었으며, 전쟁을 겪은 후부터 1978년까지 어업과 관련하여 어부들의 특별한 활동이나 모임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78년에 이르러 파주 어촌계는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활동이 부진하다가 1996년에 12명의 어부들이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였다. 1999년까지 문산 어촌계라는 명칭으로 활동였고 2000년부터 파주 어촌계로 바뀌었다. 2000년 5월 현재 파주시의 전체 어부 176명중 68명이 수협과 어촌계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경기북부 수협의 관할인 연천, 포천의 어부들은 수협에만 가입하고 있다.

어부면허인 어업허가권은 내수면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0.2톤에서 0.5톤 사이의 배를 한 척 이상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어업허가권을 받으면 강 일원의 군사작전구역은 관할부대장의 통제를 받아 무동력배를 사용하며, 그 외의 구역은 동력모터를 갖춘 배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어로도구는 대부분 자망과 주낙이다. 현재 파주의 적성 일대에서 연천, 포천 지역까지는 동력배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한다. 또한 파주의 어부들은 부대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선단조직과 강의 출입허가증을 받아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내수면 어업에서 선단조직은 파주 지역이 유일한 것이다. 어업활동을 하면서 어부들은 어업허가권을 발급한 관청이나 수협으로부터 계절에 따라 불법어로를 단속당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일반인들의 불법어로, 즉 전기모터나 독극물 등을 사용한 고기잡이를 감시할 수 있다.

〈표 70〉 임진강의 선단별 현황(2000. 5 현재)

선단명	선박수(척)	선주(명)	종사자(명)	조업구역(길이)	사용 선박
계	88	88	88	약 46.5km	
적성1선단	15	15	15	약 15km	동력선
파평1선단	13	13	13	약 12km	무동력선
임진2선단	13	13	13	약 11km	무동력선
장산3선단	16	16	16	약 10km	무동력선
사목4선단	10	10	10	약 8km	무동력선
내포5선단	15	15	15	약 5km	무동력선
자유6선단	6	6	6	약 0.5km	무동력선

어업허가권을 받고 수협의 조합원이 된 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어촌계에 가입하고자 하면 먼저 어촌계가 입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하자가 없고 어부들의 모임체인 파주어민협의회 이사회가 동의를 하면 정식 어촌계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합이나 어촌계에 가입을 한 경우 영어자

금 대출, 어획물의 판로 확보, 정부 권장 양식업을 할 기회 등이 많이 보장된다. 그러나 어부가 수협이나 어촌계와는 무관하게 어업에 종사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기대하기가 힘들게 된다.

파주 어촌계의 조직을 살펴보면 전체 계원 68명중 임원진은 계장 1명, 대의원 1명, 간사 1명, 감사 1명 등 총 4명이다. 계장과 대의원은 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계장이 4년, 대의원이 2년이다. 임기 중이더라도 계원들이 불신임안을 내면 계장을 중도에 바꿀 수 있다. 간사는 계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가 동의하여 뽑고, 감사는 총회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일을 맡기는 식이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대의원은 수협의 대의원회의(총대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주로 예산편성, 심의, 결산의 업무를 처리한다.

어촌계의 연간 운영은 어민협의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이루어진다. 해마다 3월 하순경에는 어촌계 선단별로 배의 진수에 앞서 무사와 풍어를 위한 고사를 치르고 어업활동을 시작한다. 최근으로 오면서 간혹 선단의 사정에 따라 고사를 치르지 않고 배를 띄우기도 한다. 어업기간중 계원은 어획물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수협이나 어촌계에 수수료로 내는 일은 없다. 계원이라도 어업규정을 어기면 이사회가 몇 차례의 경고를 하여 고쳐지지 않을 경우 탈퇴를 유도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해를 넘겨 회계 년도가 끝나는 2월 말 직전에 개최한다. 여기서 당해의 전체사업에 대한 결산보고, 차기 사업계획 논의, 임원 선출, 새로운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임진강 유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동두천 일대에 피혁공장들이 들어서서 강 하류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어장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여 왔다. 오염물질의 증가는 특히 강 하류 서식지의 파괴를 가져와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어족자원들이 상류로 못올라가게 된다. 예전에 많았던 어족자원들 중 현재 하류 뿐만 아니라 상류에서도 멸종 지경에 이른 것들은 황복, 쏘가리, 쉬리(싸리치), 다슬기, 모래무지, 찬마자 등이 있다. 어족자원이 줄면서 강과 하천이 연결되고 자연수가 원활히 공급되는 지점에서는 메기, 빠가사리, 뱀장어, 자라, 가물치, 참게 등의 양식이 보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는 1996년에는 한 피혁공장이 많은 양의 오폐수를 무단방류하여 파주와 연천의 어부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파주 어촌계의 어부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결과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다.

□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조남홍(84세, 파주시 적성면 식현1리 1)
임종수(81세,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88-5)
권오원(81세,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239)
유기경(81세, 파주시 탄현면 오금1리 424)
김기돌(78세, 파주시 문산읍 마정2리 545-3)
최종학(71세, 파주시 문산읍 사목1리 198-1)
심호섭(63세,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외기노조 1동 103호, 어촌계 대의원)

김순호(52세,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44-18호, 파주 어촌계장)
조선철(68세, 연천군 전곡읍 삼리 16반 131)
이윤찬(62세, 연천군 전곡읍 고릉리 134)
이형배(43세,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단풍동)

제6절 민속놀이

1. 머리말

동물과 사람과의 큰 차이점으로 놀이를 들 수 있다. 동물들은 생리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으며 설령 한다고 해도 그 활동이 극도로 적다. 그러나 인간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는 놀이를 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고 다음 활동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놀이를 연구 · 조사하는 것은 인간활동의 사상과 삶의 원동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마을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금번 조사의 목적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민속놀이를 조사함에 있어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고 강유역에서만 볼 수 있는 놀이를 발굴함이 목적이나, 특별히 변별력이 있는 민속놀이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전반적인 민속놀이를 기술하며 특별히 차이가 있는 놀이는 상세히 기술하려고 한다.

조사에서의 민속지적 현재는 일제 강점기에서 현재까지이며, 현재 전승되는 민속놀이보다는 주로 60~80대까지의 노년층에서 젊었을 때 행한 놀이를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 조사에서는 기존의 민속놀이 문헌을 검토하여 조사목록을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실시되는 민속놀이가 빈약하기 때문에 주로 마을 원로들의 기억을 더듬어, 과거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연행이 단절된 시기는 제보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제보자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하여 틀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노인정이나 마을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조사지로 선택하였으며, 제보자마다 기억이 다를 경우에는 평균치를 내어 단절 시기를 추정하였다. 조사지는 임진강과 한탄강을 끼고 있는 마을로 각 면마다 1곳 이상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로 마을회관이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개인별 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지와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제 보 자

문옥임(여, 67세,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조흥례(여, 78세,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이순우(여, 71세,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현종선(남, 78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최두식(남, 69세, 연천군 중면 삼곶리)
서용하(남, 83세,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김병섭(남, 66세,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이순애(여, 63세, 연천군 장남면 원당1리)
조옥순(여, 69세, 연천군 장남면 원당1리)
유화용(남, 63세, 연천군 백학면 노곡1리)
이석종(남, 84세,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정해주(여, 66세, 연천군 전곡읍 교문1리)
강종순(여, 77세, 연천군 전곡읍 교문1리)
유보영(남, 70세,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박근식(남, 78세,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김정홍(남, 70세,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황기연(남, 66세,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차상각(남, 77세,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지동윤(남, 77세, 파주시 금천동, 어렸을 적 통일촌 거주)
정　균(남, 59세, 포천군 관인면 중1리)

2. 세시풍속에 따라 연행되는 놀이

1) 복조리걸기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복조리장수가 집으로 찾아오면, 복조리를 사다가 처마 밑이나 마루에 걸어 놓는다. 그러면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부자가 된다고 한다. 이는 쌀을 일 때 조리 위에 쌀이 불어나듯이 재물이 불어나라는 의미이다. 약 20년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일반적 풍습이었으나 지금은 간혹 행한다.

2) 편싸움

음력 上子日에 쥐불 놓으러 갔다가 싸움을 한다. 이날 해가 지기를 기다려 불을 담은 깡통을 돌려 신호를 보내면 양쪽에서 사람들이 나와 싸움을 시작한다. 지역에 따라 보름날 하는 곳도 있다(포천군 관인면 중리). 깡통에 담은 불을 상대편에게 던져서 한사람이라도 쓰러지거나 마을사람들이 도망가는 편이 지게된다. 이때 도망가는 편을 따라가서 치지는 않고 그걸로 승부는 결정나게 된다. 싸움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단지 서로의 마을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시풍속적인 의미를 가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기는 편이 풍년이 든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저 이유없이 싸웠다고 한다. 맞아서 다치는 일도 많았으나 모든 부상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사라졌다.(연천군 군남면 황지리↔남기리,북삼리↔뒷면, 중면 합수리↔삼곶리,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등)

3) 아홉가지 행동하는 날

정월 열나흗날은 '일꾼 위하는 날'이라고 하며, 나무 아홉짐을 하고 밥도 각기 성씨가 다른 사람들 집에서 아홉그릇 또는 세그릇 이상을 얻어먹고, 묵은 나물로 여러가지 반찬을 해서 먹는다. 또한 일꾼들이 힘이 나서 일을 잘하라고 술과 두부, 고기 등을 푸짐하게 준비하여 먹인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4) 타작놀이

주로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로 정월 열나흗날 수수대의 껍질을 벗기고 보리, 콩 등의 곡식을 만들어 저녁에 잿간에다가 꽂아둔다. 다음날 첫 새벽에 그것을 뽑아다가 마당에서 타작하는 시늉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일년 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농사꾼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체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연천군 등)

5) 야광귀쫓기

정월 첫 귀신날(초엿샛날) 밤에 야광귀가 내려와서 집에 어린이가 있으면 신발을 신어보고 맞으면 그냥 신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신발을 잃어버린 어린이는 불길하다고 하여 신발을 모두 감춘다. 또 야광귀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 싸리발을 걸어 놓는다. 야광귀가 싸리발의 빈틈이 몇 개인가를 세어보다가 날이 새서 그냥 간다고 한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6) 콩점치기

정월 열나흗날 밤에 수수깡을 한뼘만하게 잘라서 세로로 반을 갈라 콩 하나가 들어갈 크기로 12개의 구

멍을 판다. 거기에 콩을 하나씩 채워 넣고 다른 편의 수수깡을 뚜껑 마냥 덮고 실로 묶은 다음 물에다 담궜다가 꺼내어 추녀에다가 달아놓고 이튿날 열어본다. 구멍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12월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비가 많이 오는 달은 콩이 물에 퉁퉁 불고, 적게 오는 달은 쪼글쪼글하고, 비가 오지 않는 달은 그대로라고 한다. 윤달이 들은 해는 13개의 콩을 채운다. 약 20~30년 전까지 행하였다.(전지역)

7) 지신밟기

정월 보름날 집집마다 고삿반을 차린다. 쌀에다가 촛불을 꽂고 실타래를 걸어놓고 고사를 지내면 지신밟기 패들이 와서 지신을 밟아주고 음식을 대접받고 간다. 따로 쌀을 몇 되에서 한두 말까지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보통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8) 쥐불놓기

정월 보름날 낮에 동네 일꾼들이 논둑에다가 불을 놓는다. 이는 동면하고 있는 해충이나 쥐의 서식처를 없애고, 그 재로 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름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마을에 따라서는 쥐불싸움을 하기도 한다. 이웃한 마을끼리 쥐불을 놓아서 빨리, 많이 태우는 편이 이긴다. 이긴 편은 쥐로 인한 곡식의 피해도 없고 풍년이 든다고 한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9) 더위팔기

정월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개야"하고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며 돌아보면 "내 더위 사가라"라고 말한다. 그러면 더위를 파는 것이 되고 더위를 판 사람은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 이때 더위를 사지 않으려면 대답도 하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아야 한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10) 부럼깨기

정월 보름날 밤, 호두, 땅콩, 엿 등을 깨물면서 "부럼 깨자"라고 외친다. 이렇게 하면 부스럼이 나지 않으며 두창 등을 앓지 않는다고 하다. 또 귀밝이술이라고 하여 청주나 막걸리 등을 마신다. 귀가 순해져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신다. 또 이 날 만두국을 끓여 먹는다. 또 이 날 아침에 쌀밥을 해서 김을 싸서 먹고, 무사통과 하라고 무를 먹는다(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지금도 전국적으로 잘 전승되고 있다.

11) 달맞이

정월 보름날 달을 제일 먼저 보면 임신부는 得男을 하는 등 한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달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려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달을 보고 기원했다. 정월 보름날 달이 뜰 때를 기다렸다가 싸리나무와 다북대라고 하는 쑥과 비슷한 풀을 한웅큼 베어다가 자기 나이 수에 맞게 묶어서 불을 다리고 소원을 빈다. 지역에 따라서 짚을 한웅큼 베어다가 나이수 만큼 매듭을 묶는 곳도 있다. 홰에다 불을 붙여 "망월이요, 망월이요"라고 하면서 소원을 말했다. 약 2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12) 보름밥 훔쳐먹기

정월 보름날 동네 어린이들이 모여서 남의 집에 밥이나 엿, 떡 등을 훔쳐먹으러 간다. 이날 주인은 일부러 대문도 닫지 않고 밥을 훔쳐먹게 그냥 둔다. 아이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기집 밥을 훔쳐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며, 지역에 따라 정월 열나흗날 하는 곳 있다. 약 2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13) 나이떡 먹기

이월 초하루에는 숟가락으로 식구의 나이를 모두 더한 나이만큼 쌀을 퍼서 떡을 해먹는다. 이것을 나이떡이라고 하는데 노인이나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자연히 떡의 양도 많아진다.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전승되고 있다.

또 보름날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먹는다. 밭고랑은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숟가락으로 먹으면 큰 이랑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작은 이랑이 돌아온다. 예전에 일하던 머슴들이 일하는 분량을 덜어보려는 방도에서 나온 풍습이다. 약 40~5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연천군)

14) 콩볶아먹기

2월 초하루에는 옷이나 책, 장롱 등에 좀이 쓸지 않게 하기 위하여 콩을 볶아먹는다. 콩을 볶아서 아침에 마당에 한줌뿌리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다. 약 30~4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15) 윷놀이

정초에는 '척사대회'라고 하여 윷놀이 대회를 개최한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푸짐한 경품을 걸어놓고 하며 민속놀이 중 가장 전승이 잘되는 놀이이다.(전지역)

16) 좀생이별점

2월 초하룻날 좀생이별이 내려온다. 좀생이별이 똑똑하게 잘 보이면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들 징조이고, 희미하게 보이면 날씨가 궂어 흉년이 들 징조이다. 이 날 콩을 볶아 먹는다. 또 정월 보름날 좀생이별점을 본다. 좀생이별이 달보다 빨리 가면 풍년이 들고, 달과 같이 가면 평년작, 달보다 늦게 가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이런 별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조사자의 말을 듣고 들어 본 적이 있다고 기억하는 정도였다. 약 50~60년 전에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전지역)

17) 그네뛰기

단오날 큰 고목나무에 그네를 매달고 남녀노소가 그네를 뛴다. 내외가 엄격한 마을에서는 남녀가 번갈아 그네를 뛰었고, 덜 엄격한 마을에서는 남녀가 어울려 같이 놀았다고 한다. 10~20년 전 까지 행하였다.(전지역)

18)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대추나무나 과일 나무의 갈라진 틈새에 돌을 끼워 놓거나 오곡밥을 뭉쳐서 올려놓는다. 시집보내기란 말과 갈라진 곳에 무엇인가를 끼우는 형태로 보아서 模擬性行爲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하면 과일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한다.(전지역) 연천군 군남면에서는 어린 아이가 잘 때 이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한다. 또 아이의 엄마나 여자가 잘 때 왼손으로 왼뺨을 힘껏 3대 때리면 이를 갈지 않는다고 한다.

19) 복놀이

강 주위에 사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유일하게 마을단위로 강을 매개체로 하는 놀이이다. 복날 동네사람들이 여름철 보양을 위하여 개를 잡아서 개장국을 끓여 먹는다. 강가 서늘한 곳에 자리잡아서 음주가무로 하루를 보내며 농사일에 지친 피로를 풀기도 하며, 영양 보충을 한다. 일꾼들을 많이 부리는 집에서는 일꾼들만 모아서 특별히 개장국과 술등을 대접하기도 한다. 지금도 마을에 따라서는 전승되고 있으며, 마을단위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집안 식구들끼리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영양보충을 한다.

20) 칠석

밀전병을 부쳐먹는다. 터주가리에 바치기도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간다. 이 날은 칠성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곡식의 열매를 맺는 양)을 정하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은 논이나 밭에 나가지 않는다. 칠성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일찍 나가면 곡식의 섬을 줄여서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도 간간이 행해진다.(전지역)

3. 노동에 따라 연행되는 놀이

1) 씨름

남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놀이로 주로 단오나 백중 때 씨름대회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동네 청년들끼리 한다. 강가에는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이 많아서 씨름을 하기에는 제격이다.(전지역) 약 20~30년 전까지 행하였다.

2) 두레싸움

농촌에서는 보통 마을마다 두레가 조직되어 있어서 농사의 어려움을 흥으로 푼다. 두레를 시작하는 것을 '두레가 난다' 고 표현하며, 5~6월 논 맬 때 두레싸움을 한다. 두레패 간에는 위계질서가 엄격하여, 선후배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인근 마을에서 가장 높은 두레를 '상좌두레' 라고 부른다. 두레품앗이를 할 때 아침에 논으로 향할 때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두레패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면서 다니는데, 두레패끼리 길에서 만나면 아우두레는 형님두레에게 절을 해야한다. 이때 아우들이 절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있으면 싸움을 하게 된다. 상대편 깃대의 꿩장목을 먼저 뺏어오는 편이 이긴다. 이 싸움에서 진 두레는 이긴 두레를 형님으로 모시고 각별히 대접하여야 한다. 이긴 편은 진 편의 악기를 뺏어오기도 한다. 험하게 싸울 때에는 호미로 찍는 등 불상사가 일어날 때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 바로 옆마을 두레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옆마을을 피해 멀리 있는 두레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3) 낫치기

동네 청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각자의 나무를 한 짐씩 걸고 내기를 한다. 흙밭에서 낫을 던져 날 부분이 땅에 꽂히면 이기고 쓰러지면 진다. 이긴 사람은 나무를 모두 갖고 진 사람은 또 나무를 하러 간다. 놀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낫이 땅에 꽂힌 사람들만 모여서 결승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여 순서대로 던져 맨 먼저 꽂히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다른 하나이다. 처음 던지는 사람이 꽂히면 뒤의 사람은 던질 기회도 없이 지고 만다.

또 지게 작대기를 모래나 흙에다 깊게 박아놓고 멀리서 낫을 던져서 쓰러 뜨려 승부를 가리는 방법도 있다. 좀처럼 잘 쓰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4) 꼴치기

꼴을 비어다 직경 20~30㎝ 정도 되게 묶어놓고 멀리서 낫을 던져 쓰러뜨린다. 낫치기와 마찬가지로 쓰러뜨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꼴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차지한 꼴은 흙이 많이 튀어서 소가 잘 먹지를 않아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5) 울어리

연천군 미산면에서는 울어리가 40~50년 전에 아주 성행하였는데 여기서는 『연천군지』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한다. '울어리' 라는 것은 산에서 나무숲을 쳐 나가며 땔나무하는 것을 일컫는데, 울어리 소리는 이때 불렀던 노래였다. 다시 말해, 그 해 농사지은 벼를 베기 전인 음력 8~9월에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준비할 때 부르던 노래인 것이다. 울어리를 할 때에는 20~30명의 인원이 모여서 두 세 패로 나뉘어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고, 마을로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남여행차와 싸움놀이가 시작된다.

울어리를 비롯해서 남여행차, 싸움놀이에 대한 문헌기록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영좌 · 부사 등의 명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까지 그 역사를 소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은 불확실한 점이 많이 있어서 좀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울어리와 남여행차, 싸움놀이는 8 · 15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면 · 미산면 · 신서면 등의 지역에서 전승되었다. 한국전쟁과 산업화 · 도시화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이재순을 비롯한 미산면 유촌리 원로들의 노력으로 1980년대 초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 '아미산 울어리' 라는 이름으로 재현되었다. 아미산 울어리라고 한 까닭은 아미산이 땔감을 하러 다니는 여러 산중에서 연천군을 상징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이름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울어리 놀이는 해마다 추수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겨우살이에 대비한 땔나무를 하고 석양이 들 무렵에 잡목으로 가마를 만들어 연장자(좌상)를 태우고 몰면서 마을로 돌아와, 풍물과 농요에 맞춰 마당놀이를 벌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화평 단합을 다지며 풍년을 감사하는 농민들의 놀이이다. 하지만 울어리 놀이는 놀이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 공동 노동 조직의 생업 활동에 근간을 둔 노동 활동에 놀이가 결합된 형식이고 노래가 많이 삽입되어 있다. 울어리의 전체적인 구성은 놀이와 그에 따른 노래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다. 울어리는 풋나무베기, 남여행차, 농기싸움, 마당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울어리와 남녀행차 · 싸움놀이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 아침에 농악 소리에 맞추어 마을 일꾼들은 감발을 하고서 낫과 숫돌 등의 연장을 들고 산에 오른다.[1] 일꾼들이 모이면 상겨리 · 중겨리 · 하겨리와 같이 두 세 개의 편으로 갈라 나무 베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때 상 · 중 · 하겨리는 번갈아 '풋나무베기소리'[2]를 메기고 받으며 일을 한다. 풋나무 베는 일이 끝나면 몇몇 사람이 잡목과 칡을 베어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남여를 만든다. 그리고 일꾼 중에서 최고 연장자(영좌 또는 사또)에게 기새미풀로 수염을 만들어 붙이고 망태기를 머리에 씌우고 칡으로 안경을 만들어 쓰게 하고 담뱃대를 만들어 물게 하여 사또로 분장시킨다. 4명의 남여꾼들이 영좌를 남여에 태워 '남여부사'라 칭하고 양반 행세를 하면서 마을로 내려간다. 내려가면서 길놀이를 벌이는데 맨 앞에 농기를 앞세우고 길라잡이가 남여를 인도하고 한 사람이 소리를 메기면서 남여행차를 한다.[3]

남여행차를 하면서 마을에 내려온 일행은 부농가 또는 풋나무베기를 했던 산의 주인집으로 들어가 음식을 마련하게 하고 남여부사는 일행에게 실컷 놀 것을 명한다. 이때 부농가나 주인집에 도착을 하면 길라잡이와 그 집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길라잡이 : 이리 오너라.
머 슴 : 부르셨습니까?
길라잡이 : 사또께서 행차 도중에 조금 쉬었다 가잔다고 아뢰어라.
머슴이 집주인에게 아뢴다.
머 슴 : 사또가 행차 중에 잠깐 쉬었다 가잔다고 합니다.
집 주 인 : 무슨 사또냐고 아뢰어라.

---

1) 산에 땔나무를 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는 '올라가네', '여네연방 올라가네', '이삼년 묵은 무좌라기(작대기 높이 만큼 자란 나무)가 비리 핑핑 막 돌아가네', '상겨리에서 올라가면 하겨리에서도 올라가네', '일천 저 기러기 짝을 지어 날아가네', '상상봉대마루로만 올라가네', '울어리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막걸리 동이가 두둥실 떴네', '산에 올라 도라지를 캐니 이름이 좋아 산삼이라네', '일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녘에 저 달이 솟네' 와 같은 가사의 노래가 있다.

2) 풋나무베기소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메김 소리와 받음(후렴)소리로 이루어진다.
매김 : 올라가네 사앙봉 대마루턱으로 올라가네. / 받음 : 오오오 · · · 오오오
매김 : 상겨리서 올라가면 하겨리로 올라가네. / 받음 : (같음)
매김 : 잡목은 무성하고 잡풀은 돌아가네. / 받음 : (같음)
매김 : 금년에도 풍년이니 농가마다 풍요하네. / 받음 : (같음)
매김 : 아들 나면 효자 되고 딸을 나면 열녀 되네. / 받음 : (같음)
매김 : 일가대소 무고하고 만수무강 출원하네. / 받음 : (같음)
매김 :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출동녘 달이 솟네. / 받음 : (같음)
매김 : 어기어차저 또 다시 올라가네. / 받음 : (같음)
매김 : 서해용상 고래 타고 우리 농부 남녀 타세. / 받음 : (같음)
매김 :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들에서 일하세. / 받음 : (같음)

3) 남여행차를 할 때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한다.
메김 : 에헤라 끼루끼루 남녀부사 잘 모셔라. /받음 : 에헤라 끼루끼루
메김 : 에라 이놈 물러가라 칠라가라 남녀부사 행차시다. /받음 : (같음)
메김 : 식전 팔십 리를 왔으니 헛헛증도 나는구나. /받음 : (같음)
메김 : 한양이 몇백 린가 어서어서 아뢰어라. /받음 : (같음)
메김 : 에라 그 들판 오곡이 풍성하다. /받음 : (같음)
메김 : 일락서산 해가 지고 저녁연기 자욱하다. /받음 : (같음)

머 슴 : 무슨 사또냐고 아뢰라옵니다.
길라잡이 : 남여부사라고 아뢰어라.
머 슴 : 남여부사라고 아뢰라옵니다.
집 주 인 : 마당놀이나 실컷 하고 가라고 하거라. 술과 음식을 실컷 대접할 테니…….

그러면 일꾼들은 남여를 메고서 집안으로 들어가 우선 닭장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닭장쪽으로 남여부사를 밀치면 남여부사는 닭장으로 들어가 닭을 한 손에 한 마리씩 붙잡고 나온다. 그러면 길라잡이가 둥계타령을 부르고 남여부사는 닭을 손에 든 채로 어깨춤을 춘다. 이렇게 마당을 돌면서 1년 열두 달을 엮어 '둥계타령'[4] 을 메기고 받으면서 마당놀이를 한다. 꽹과리(상쇠, 부쇠) · 징 · 북 · 장고 · 호적 등의 악기로 구성된 농악에 맞추어 한바탕 놀이가 끝나면 주인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고 일동이 장단 맞춰 술상을 치며 잡가로 노래한다.

한편 남여행차를 하면서 마을로 내려올 때 그들 이외에 다른 패거리들로 구성된 일군 농악대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남여 · 농기싸움이 시작된다. 서로 다른 두 패거리는 멀리서 서로를 확인하고 나면 징을 '꽝, 꽝' 쳐서 기세배를 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렇지만 상대편도 절대 이에 응하지 않는다. 징을 세 번째로 '꽝꽝꽝꽝 꽝꽝꽝꽝' 쳐서 신호를 보냈는데도 기세배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로 싸움을 벌여서 농기와 남여를 넘어뜨리고 농기 꼭대기의 꿩이장목을 뽑아 가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결판이 난다.[5] 그래서 진 쪽의 농기를 비롯해서 이 싸움에서 진 패거리의 부사는 남여에서 내려 상대편 부사에게 큰절을 한다. 그러면 승자의 부사는 아량을 베풀어 남여에 오르기를 권하고 남여에 오른 두 부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4) 일년 열두 달의 명절을 중심 내용으로 한 둥계타령의 가사는 대략 다음가 같다.
후렴구 : 둥계야 둥계야 울어리 소리에 둥계야
정월이라 대보름엔 북망산천에 둥계야 / 후렴구 반복
이월이라 한식날엔 북망산천에 둥계야 / 후렴구 반복
삼월이라 삼짇날엔 제비가 떠서 둥계야 / 후렴구 반복
사월이라 초파일엔 석가모니의 둥계야 / 후렴구 반복
오월이라 단오날엔 그네를 뛰며 둥계야 / 후렴구 반복
유월이라 보름날엔 유두명절에 둥계야 / 후렴구 반복
칠월이라 칠석날엔 견우와 직녀가 둥계야 / 후렴구 반복
팔월이라 한가위엔 청춘남녀가 둥계야 / 후렴구 반복
구월이라 구일날엔 기러기 떠서 둥계야 / 후렴구 반복
시월이라 상달엔 무시루떡 범범이 둥계야 / 후렴구 반복
동짓달엔 동지팥죽 범벅을 보니 둥계야 / 후렴구 반복
섣달이라 희떡범벅 가래떡을 들고 둥계야 / 후렴구 반복
너도나도 서로서로 땀흘리며 짓는 농사
올 가을 풍년정에 노적가리 쳐다보고
콩섬 묶어 장에 넣고 벼를 찧어 독에 붓네
사랑방에 지적메고 안방에서 베를 짜네
길쌈해서 옷을 짓고 지적메어 배석허라
이댁 인심 풍부하니 만수무강 비나이다

5) 농악대에는 반드시 농기가 있게 마련이며 이 농기는 마을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또한 농기에는 급이 있어 하급 농기는 상급 농기를 보면 절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승자쪽의 부농가나 산 주인의 집으로 행진을 계속 한다. 그러면 이긴 쪽은 진 쪽과 함께 마을에서 제일 부농가나 풋나무를 벤 산의 주인집에 가서 남여행차와 마당놀이를 질펀하게 하면서 그 날 하루를 즐겁게 놀게 되는 것이다.

4. 의례와 관련된 놀이

1) 돌

연필, 돈, 실타래 같은 것을 돌상에 올려놓고 돌잡이를 한다. 아기가 연필이나 책을 잡으면 장차 학자가 될 것이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살 것이며,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점친다. 부모들은 보통 책이나 연필을 잡으면 제일 좋아한다. 또한 크면서 잘 넘어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팥단주(수수경단)를 먹인다.

2) 혼례

혼례 때는 東床禮라는 신랑 다루기를 행한다. 처남이나 동서, 이웃집 젊은이들이 모여서 재행날 신랑의 다리를 광목으로 묶어 벽이나 옷걸이로 쓰는 횃대에 매달고 발바닥을 방망이로 때린다. 때리면서 이 집안의 예쁜 신부를 데려 갔으니 그 대가로 술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신랑은 많은 술과 안주를 약속한 후에야 풀려나게 된다.

신랑이 초례를 치르러 가마나 말을 타고 오면 말에서 내리자 마자 부엌의 재나 심지어 잿간의 똥거름까지도 집어던진다. 또 대문을 타넘어 올 때 문턱 밑에 가마니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신랑이 문턱을 넘어 숨어있는 사람의 등을 밟으면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넘어뜨린다. 엄숙하고 딱딱한 혼례식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가지며, 신랑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 약 40~5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3) 환갑

환갑은 한 집안에서 가장 큰 경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의례적인 의미보다는 한바탕 신명나게 노는 놀이적인 의미가 더욱 강하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돈을 준비해 가지 않고 각자 술이나 떡, 국수, 감주 등 음식을 여러 집이 나누어서 준비해 가지고 갔다. 노래하는 색시들을 초청하여 공연도 하고, 두레패들이 와서 한바탕 흥겹게 두드리고 논다. 요즘은 대부분 뷔페식당이나 대형음식점에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한다.

4) 장례

장례놀이로는 '걸거리'가 있는데, 이는 장례식 때 행상 나가기 전날 밤 빈상여를 꾸며 평소에 고인과 친분이 두텁던 사람이나 친척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마지막으로 가는 저승길에 못다 이룬 정을 풀고자 하는 뜻에서 한 놀이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주들은 모두 나와서 곡(哭)도 하고 슬픔을 표현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상여꾼들이 여러 사람의 집을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하루를 놀려는 의미도 있다. 행상 전날 미리 발을 맞춰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상주 측에서도 적극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에서는 '재돋음'이라고 하고, 경상도 안동에서는 '빈상여놀이'라고 하며 好喪 때에만 한다. 진행과정은 상여꾸미기 · 회심곡 · 行輿 · 門前儀式 · 마당놀이 등으로 꾸며진다.

호상일 경우 상주들이 조상꾼하고 절을 할 때 상주를 넘어뜨려서 조상꾼과 부딪히게 한다. 일반적으로 문상을 한번만 하는 것이지만 문상을 한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문상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한다. 상주는 죄인이라 고개도 제대로 들지를 못했고 불빛이 어둡던 시절이라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하여 잘 속았다고 한다.

또 상여를 나가다가 다리나 험한 길을 만나면 잠깐 쉬었다가 가는데 출발을 할 때 돈을 주지 않으면 절을 하는 상주에게로 상여가 밀고 나가서 자빠지게 만든다든지 위협을 가한다. 이렇게 해서 상주에게 돈을 받아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상장례의 놀이는 호상 때에만 행하는 것으로서 고인의 만수무강과 유족들의 복덕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5. 무속과 관련된 놀이

1) 굿

우리네 조상들은 재수굿, 병굿 등과 같이 마을에 우환이 있거나 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큰 굿을 행하였다. 마을에 별다른 놀이가 없던 시절에는 그것이 동네 사람들의 큰 구경거리였으며, 또 참가하여 술도 먹고 춤도 추고하는 등 놀이감이 되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라는 속담도 생기게 된 것과 같이 굿은 단순한 무속적인 의례 자체만이 아니라 온 마을 주민들의 잔치였다.(전지역)

2) 춘향아씨내리기

한 사람을 뽑아서 가운데 세우고 반지를 양손에 쥐고 합장을 하게 한 다음, 여러 사람이 손을 모으고 "남원골 춘향이 생일은 사월 초파일" "춘향아씨 춘향아씨 나이는 18세 살살 내려주세요" 라고 반복하여 합창을 하면 춘향이가 신을 받는다. 춘향이가 반지를 쥐고 두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모은 손이 저절로 벌어

지면서 신을 받는다고 한다. 신기가 있는 사람만이 신을 받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을 받지 않으면 차례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춘향이로 세운다. 신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모으고 있던 손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거나 엉엉 울기도 하고 때로는 공수를 하는 등 강신무들의 행태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던 놀이이다.

3) 제웅치기

정월 보름날 제웅직성이 든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속에 동전을 넣어 새벽에 사거리에 갖다 놓는다. 이를 모르고 발로 찬 사람에게 직성이 옮겨간다고 한다. 동네 꼬마들은 이를 주워서 동전만 꺼낸다. 약 20년전까지 행하였다.(전지역)

6. 기타놀이

1) 수건돌리기

10~20명 가량이 둥글게 안쪽을 향하여 모여 앉아,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뽑는다. 술래는 원 바깥쪽을 돌면서 자기가 점찍은 사람의 등 뒤에 몰래 수건을 놓고 원 주위를 달린다. 만약 도망가는 술래를 잡지 못하여 술래가 먼저 와서 자신의 자리에 앉거나, 술래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와서 수건이 놓인 사람을 손으로 채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그때 자신의 등 뒤에 놓인 수건을 들고 도망가는 술래를 잡으면 술래는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야외에서 하는 방식이며 실내에서 부녀자들이 할 때에는 종지 또는 비녀 돌리기를 하기도 한다. 술래를 원 가운데에 있게 한 다음, 치마로 가려진 무릎 밑으로 종지(비녀)를 돌린다. 술래는 누구의 손에 종지(비녀)가 있는가를 알아맞히는 놀이이다. 알아맞히지 못하면 벌칙으로 노래를 시키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행해지던 놀이로서 요즘도 유치원생들의 소풍에서 간혹 볼 수 있다.

2) 진돌이

양쪽편이 진을 구성해서 서로 뺏는 놀이다. 마을 아이들이 단체로 행하는 놀이로서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신수양에 좋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3) 물장구치기

물동이에 물을 떠놓고 가운데 박바가지를 엎어놓는다. 그것을 손이나 막대기로 치면서 이것을 반주로 노

랫가락이나 민요를 부른다. 주로 부녀자들이 집안에 모여서 하는 놀이다.

열양세시기에 보면 '4월 8일날 아이들이 등간 아래에다 자리를 깔고 느티나무 잎으로 만든 떡과 소금을 뿌려 볶은 콩을 먹으면서, 동이에다 물을 담아 바가지를 덮어놓고 돌려가면서 두드린다. 이 놀이를 물장구〔水缶〕라 한다' 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세시놀이였던 것이 후에 부녀자들의 일반놀이로 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스페어깡(휘발유통)을 가슴에 메고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추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논다. 약 30~4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4) 박매점

빨래방망이를 세워서 넘어뜨리며 넘어지는 방향을 보고 한 해의 운수 또는 하루의 운수를 점친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5) 호박따기

방안에서 뒷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껴안고 줄줄이 늘어선 다음 술래가 제일 뒷사람의 허리를 힘껏 당겨서 떨어지게 한다. 중간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술래가 되고 술래는 제일 앞으로 가서 우두머리가 되는 놀이다. 방안이나 야외에서 아무런 도구없이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다. 약 30~4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6) 투전

종이에다 숫자를 써서 간단하게 투전을 만들어서, 성냥개비 내기를 한다. 나중에 돈으로 환전을 하는 수도 있고 그냥 끝내는 수도 있다. 약 20~3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전지역)

7) 손목시림방지

동네의 처녀총각 동갑 되는 사람끼리 서로 손목을 끈으로 묶어준다. 서른 살이면 스물아홉번을 매듭짓고 마지막에 묶는 식으로 나이 수대로 묶는다. 반드시 동갑이 되는 사람의 이성끼리 묶어주면 일년 내내 손목이 시리지 않는다고 한다. 약 30~40년 전까지 전승되었다.(연천군 중면 삼곶리)

8) 물고기 잡기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의 민속놀이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전문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주낙이나 그물로 잡지만 여기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다.

가. 겨울에 얼음이 얼면 그 밑에 고기가 다니는걸 보고 있다가 떡메로 얼음을 내리친다. 그러면 고기가 기절을 하는데 이때 얼른 건진다.

나. 얼음에 구멍을 뚫고 두루마기를 입고 가서 두루마기를 뒤집어 쓰면 그늘이 지는데 이때 지나가는 물고기를 작살(무시)로 잡는다. 작살끝에는 끈을 묶어 두어서 끈을 잡고 작살은 물 속에 던지는데 물고기가 맞으면 철퍼덕 물고기 소리가 나고 안 맞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다. 얼음을 2~3m 가량 간격으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그물을 쳐놓고 여러 사람이 다른 쪽에서 물고기를 몰고 온다. 떡메 같은 걸로 치기도 하는데 이걸 '방드린다' 라고 한다. 방에 가둔다는 뜻인데 방에 드리워지면 띠풀로 만든 우장 같은 걸 뒤집어쓰고 그늘을 지게 만들어 물 속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물고기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물에 걸쳐져 움직임이 둔한 것을 작살로 찔러서 잡는다.

라. 삼봉낚시 - 낚시 바늘이 3가닥이 있다고 삼봉낚시라고 한다. 미끼를 쓰지 않으며 고기떼가 지나갈 때 후려쳐서 옆구리 등 아무 데나 걸리면 잡히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다. 옛날 고기가 많을 때는 잡혔다고 한다.

마. 삼봉낚시와 같은 방법으로 잡는데 조선가위를 구부려서 줄을 메달아 낚아채서 잡는다. 잉어나 숭어 같은 어종들을 주로 잡는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에서 백여 호 가운데 단 1명만이 잡을 수 있는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한다.

바. 뭉치질 - 지렁이를 여러 마리 잡아서 막대기 끝에다 대고 짚이나 명주실로 묶어놓고 흙탕물 속에 담궈놓으면 뱀장어가 지렁이를 무는데 이때 재빨리 막대기를 꺼내 삿갓을 거꾸로 놓고 담는다. 뱀장어는 이빨이 옹니라서 한번 물면 잘 빠지지를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잘 잡힌다고 한다.

사. 거이(참게)잡이 - 가을이 되면 참게가 논으로까지 올라온다. 이때 논의 수로를 막아놓고 밤에 그물을 쳐놓고 횃불을 켜서 밤새도록 잡는다. 수수이삭이 필 때 수수이삭을 꺾어서 동아줄에다 매달아 강에다 놓아둔다. 그러면 밤에 관솔불을 피워들고 수수이삭을 따먹으려고 매달려 있는 거이 밑에다 그물을 받쳐놓고 잡아들인다.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전 마을에서 잡았으나 수질이 나빠지면서 계속 참게가 없어 졌으나 최근 들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파주시, 연천군 수협 등 관계기관에서 참게를 되살리기 위하여 치어를 방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 주로 얕은 여울이 지는 강가에서 잡는 방법으로, 한쪽 편에서 사람들이 강가로 고기를 몰고 나온다. 거의 강가까지 나오면 몽둥이로 후려치는데 때로는 맞는 고기도 있고 물결에 밀려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고기도 있다.

자. 복어잡이 - 서해안 물이 역류하여 임진강 하류까지 올라오면 복어가 많이 나오는데 낚시, 통발 또는 물이 얕은 데서는 족대를 이용하여 잡는다.

차. 새우잡이 - 대하를 족대를 사용하여 잡는다.

7. 마무리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민속놀이를 조사함에 있어서 강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행해지는 놀이가 중점적인 조사의 목적이었다. 일반 평야지대와 달리 강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지역과 다른 주된 놀이는 역시 물고기잡이였다. 일반적으로는 낚시나 그물 또는 통발을 이용하지만 작살을 이용하거나 뭉치질로 장어를 잡고, 얼음이 얼었을 때는 얼음 위로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잡는다. 또 서해안 물이 역류하는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참게, 새우, 복어 등 갖가지 생선이 나는데 이것을 잡는 것 또한 큰 오락이었다.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낚시 등 개인적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협동하여 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 잡은 물고기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남은 것은 분배를 하여 각자 집으로 가져가는 등 마을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력, 친목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고랑포나 장남면 원당리에서는 여름에 40~50여 명이 탈 수 있는 큰 목선에 마을 주민들이 타고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제보를 수집했다. 강을 매개체로 하여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놀이인데 일부 부유한 마을이나 포구라서 배가 있는 마을에서나 할 수 있는 놀이였다. 임진강 배의 특징은 마포나루까지 물자를 싣고 운반을 하려면 물이 얕은 여울이 많이 나오는데 이곳을 지나가기 위하여 배의 밑바닥이 편편한, 바다에서 다니는 배와는 다른 마상이배 형태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한다. 한탄강은 물살이 급하고 협곡이 많아서 뱃놀이는 할 수가 없다. 고랑포는 임진강에서 가장 큰 포구였다고 할 만큼 번화한 포구이며 고창굿이 유명하였다. 약 10일 정도 계속되는 고창굿은 아직도 임진강 유역의 사람이 잊지 못하고 있으나 고랑포는 민간인출입통제지역이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외 세시풍속에 따른 놀이라든지 노동에 따른 놀이 등은 전국적으로 봐서 대동소이하고 경기 남부지역과의 다른 점은 경기남부지역에서 아주 성행하는 줄다리기, 거북놀이, 다리밟기 등을 하지 않으며 횃불싸움이 아주 성행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적인 놀이는 아미산울어리라고 하는 울어리가 연천군 미산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행해졌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전승이 끊어진 것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복원을 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민속놀이 중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강주변의 놀이가 아직도 전승되는 것은 거의 없었으며, 참게잡이 등 어로활동은 임진강 수질이 되살아나 옛날과 같이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면 다시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제7절 구비전승

1. 전 설

1) 자살바위 전설


〈사진 102〉 자살바위

그전에 자살바우가 있는데 저쪽에 큰 개와집이 있었대. 근데 하루는 주인영감님이 두엄을 치고 있는데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그러드레. 그냥 쇠똥을 한사발 쇠스랑으로 떠서 이거나 가주가라 그랬다 거든. 그러자 며느리가 그걸 보니까 안됐으니까 쌀을 한말 퍼가지고 나와서 중보고 받아가라고 그래서, 그러니깐 뒤도 돌아 보지 말고 날 따라 오라 그러드래, 날 따라오라고. 그래 몇발죽 따라가니깐 그냥 집이 훌렁타, 타버려 그냥. 다 타는데 중이 "아가씨 저기 건너가서 산이나 지키시우" 그러드래. 그래서 지금까지 건너다 보면 노랑치마에 빨강치마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그렇게 얘기가 있어.

□ 제보자 : 이석종(남, 84세,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2반 거주)
□ 조사지 : 신답리 마을회관
□ 仙峰이라고도 하며, 고종때 의병이 자살바위 일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여울을 건너다 많이 죽었다고 자살바위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 해방 후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살바위라고 이름붙여졌지 설화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듯하다.

2) 재인폭포 전설

연천읍에 있는데 거기 광대 여편네가 있는데 광대 여편네가 맘에 드는데 맘을 어떻게 할수 없어. 원이 광대 여편네를 보고 싶은데 볼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그 재인폭포 깎아진 데에다, 물론 가봤겠지. 거기에서 줄을 타보라고 하는데 썩은 동아줄을 하나 매고서 그걸 타라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무술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 원이 무서워서 죽었다는 애기가 있거든 그래서 무술이야. 떨어져 죽으니까 그 원이 광대 여편네를 볼려고 정 말하자면 강탈을 할려고 하는데 코를 물었어. 여자가, 원의 코를 물었어. 그래가지고 고문리가 원래 코문리야. 그리고 재주부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재인폭포야.

□ 제보자 : 이석종(남, 84세,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2반)
□ 조사지 : 신답리 마을회관

3) 조개못 이야기

옛날에 저 성동리 사람이라고 소를 개창반에다 맸는데
(조사자) 어디에 매요?
개창반, 여기 들에 맸는데 일하고 와서 소를 끌어갈려니까 소가 없는거야. 그래 어디로 갔냐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거지 뭐야. 그래 나중에 가보니까 조개못으로 들어가서 코뚜레만 버티고 있는거야. 그 이무기가 잡아 먹었지 뭐야. 그래서 소임자가 발동기란건 모조리 모집을 한거야, 발동기. 예전에 발동기라고 있어, 발동기. 방아찧고 하는 것. 그걸 열두채를 디밀고서 물을 폈어. 근데 물이 줄어야지. 강물하고 합탕한 물이 줄어야지, 안 줄지.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인천 가서 머구리를 사왔어. 물 속에 들어가서 뭐가 그랬는지 봐달라고. 그래서 또 사람을 사오는데 그 쌀 두가마값을 주고서 데려 왔어. 그래 인제 그 연못에 들어가니까는 조금 있으니까 나오더니 발동기 빨리 실으라고 말이지. 저 구름이 도니까 소낙비가 올테니까, 발동기가 물속에 들어갈테니까, 빨리 건지라고. 그래 발동기를 그냥 죄다 끌어얹어 실고 난리 났지 뭐야, 열두채가 다. 끌어내고 난 뒤에 조금 있으니까 비가 막 퍼 붓는 거지 뭐야. 그래 막 퍼부니깐 이무기가 가로 막고 있으니까, 이무기가 잡아먹었으니깐, 이건 할 도리가 없다고. 그래 뼈다귀 두개만 끌고 나와선 갖다 대고선 간거야. 그 사

람이. 쌀 두가마 값만 받고,

□ 제보자 : 현종선(남, 78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1반, 임진강 뱃사공 출신)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4) 물귀신 이야기

어떤 사람이 물을 건너는디 배를 대라 하더래. 그래 우리 형님이 나가 안 건내 준다고 야단을 쳐 말이여. 와서 배를 건너가니까 사람이 없어, 근대 도로 뒤집어서 건너는데 세상 건너다니는 배가 안다니는 거야, 선창에 안 간다는 거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떠내려가는 거야, 그냥 계속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 안 내려가니까 우리 형님이 하두 안 들어오니깐, 나와보니까 배가 없거든. 그래 이상하니까 큰배를 가지고 내려오니 물가운데서 배가 빙빙 도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붙들어 가지고서는 배를 꺼내다가 놓고 나도 내 정신도 모르지. 그래 옛날 노인들이 하는 말이 물귀신한테 홀리면 그냥 드러누워 있으래, 들누워 있으면 안 딸려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 내가 형님한테 업혀 들어왔어, 사흘이 되도록 안 깨어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신을 불러다가 뚱땅땅하고 굿을 하니까 물귀신이 저거 한다 말이지. 그래 인제 만신을 데려다가 물굿을 한다고 강에 가서 배를 타고 물귀신을 저거한다고, 그래 얼마 안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은 깨어날거라고. 그래 나도 내정신도 모르고 어느 때가 됐는지 깨어보니까 한 나절 좀 됐것어. 그러니까 "너 정신나냐" 그러니까 "왜요 내가 뭐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죽을 뻔했다" 그래. "왜요" "너 물귀신하고 싸웠잖니?" "아 나는 물귀신인줄 모르는데요" 아 그러더니 일어나서 밥을 차려 줘서 먹는데 마을 사람들이 죄 오는 거여, 살아났다고. 그담서부터 배를 대라면 안 나갔어.

□ 제보자 : 현종선(남, 78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1반, 임진강 뱃사공 출신)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5) 범바위 전설

여기 두지리 가면은 거기 용의머리라고 있다고, 용의머리가 있고 거기서 좀 올라오면은 보토재라는게 있어. 거기서 쪼끔 올라오면은 범바위가 있어 범바위. 그래 호랑이 바위, 범바위라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보토재냐. 보토재 요쪽으로 산소자리가 하나 근사한게 있는데, 거기다 산소를 쓰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른데 그 어느 지관이 지나가다가 거기다 쓰면 부자가 되겠거든. 여기가 이제 노루가 있는 명당자린데, 여긴 용의머리고, 여긴 범바위고. 요 노루를 잡아먹으려고 용하고 범이 근접을 하고. 그런데 어느 지관이 지나가다가 이 고개를 왜 보토재냐. 여러사람들이 지개를 져다가 그 고개를 막았어.

그래서 용이 쳐다보니까 호랑이가 보이질 않아. 성을 쌓았기 때문에. 길 넘어 다니는걸 같다가 보토를 해서 막았어. 그래서 노루를 잡아 먹은거야. 호랭이가 잡아먹었던 용이 잡아먹었던 잡아먹고 나니까 이 산소자리가 명당이 된거야

□ 제보자 : 박근식(남, 78세, 연천군 적성면 가월리 375)
□ 조사지 : 가월리 마을회관

6) 설윤기(설인귀) 전설

그 당시에 고려적에 왕건이 시절에 지금, 궁예적에 성을 갖다가 임시 피난성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 임시 도읍을 했더래요. 그래 정자를 짓고 달밤에 술을 마시면서 뱃놀이를 했다고 해서 주월리가 그 유래를 따서 주월린데, 요앞에 산이 백옥봉이예요, 백옥봉. 흰백자(白) 구슬옥자(玉) 봉우리봉자(峰) 백옥봉. 그게 어느 역사에 나와있어. 백옥봉 기슭에 설씨가 아주 그 당시에 옛날에 한 집이 살았을까, 두 집이 살았을까 그런데 생활이 워낙 어려우니까 산밑에다가 조그마하게 당을 파고 움풀이라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참 짚새기를 삼아서 팔아서 생계유지를 하구, 그 당시에도 짚신를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식으루 해서 움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유지를 했는데, 그 안에서 설윤기를 낳았다구 그래.

이 설윤기가 한살 두살이 자꾸먹어 일고여덟살이 되니깐, 워낙 장사니까 말[斗]밥을 먹구, 밥을 먹는데 우리네 밥그릇처럼 그런것이 아니고, 큰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게 벌어서는 한놈의 입도 못대겠다는 거여. 그래서 설윤기 아버지가 자기네 처가가 어디사냐면 여 감악산 밑에 객현리라고, 객현1리에 설윤기 외가집 거기 사는데, 거기는 그래도 잘살았던 모양이여.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놈 도대체 밥을 먹여 살릴수가 없으니 외가로다가 보내가주구, 힘이 장사니까 외삼촌의 일을 거들어주면서 너 배불리, 니나 가서 밥을 잘먹어라 그래서 글로 보냈다는거여.

얘가 그래가주고 외삼촌의 일을 돕구 농사를 짓는데 아 이눔이 점점 커서 십여 살이 넘어가니까 도대체 거기서도 살기는 괜찮게 살지만 감당을 못하겠어서, 야 이거 이래서는 안돼겠다하구 이 사람을 죽일려고 객현리 등새 한참 올라가면 밭이 있는데, 그 밭 가운데 각담이 큰게 있는데, 바루 설윤기 외가집 밭이래요. 그 밭이 아 그전엔 잘해먹었는데 그 이전에는 백호가 나와서, 호랭이가 나와서 왕왕거리는 바람에 그냥 묵혔었는데, 설윤기를, 아 저놈 거기 가서 호랭이나 물려 죽여야 겠다고 하고서. 거 왜 소 두마리가 밭가는데 끄는 쟁기가 있잖아요. 그 쟁기를 짊어지고 거기다가 보리씨하구 이런걸 웬장 다 짊어지구, 힘은 장사니까. 소 두필을 끌려서 내보낸거여. 너 가서 거기 가서 밭을 갈아라. 그래 소 두필을 끌구, 왠만한 사람을 쟁기를 지지도 못해요, 약골은.

그래 소 두필을 끌고 그걸 다지고 가서 거기 가서 탁 내려놓고는 소에다 모가지 멍에를 엊고는 이제 쟁기를 채리는데, 아닌게 아니라 각담에 큰 대호가 나와 가지고서는 팔을 흔들면서 잡아 먹을거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은 장사겠다 저놈이 왜 와서 지랄을 하냐고. 쟁기가 혼자 왠만한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그런걸 괭이처럼 생겼잖아요, 쟁기가. 그걸 꺼꾸루 지고 둘러미고선 백호를 따라간거야 그냥. 그래 그걸 찍어죽인다고 끌고가니깐 이놈이 각담속으로다가 쏙 들어가버렸어요. 각담이라는건 밭에 산골에는 돌밭이거든, 밭을 해먹기 위해서는 돌맹이를 줏어다가 한짝에다가 자꾸 쌓아놓은 돌맹이 테미야. 그래 글루 쑥 들어가니깐 그눔으건 오늘 일은 못해두 이놈의걸 잡아야 되겠다구, 그걸로다가 괭이처럼 푹푹 각담 돌맹이를 걷어내고는 파 헤치니까 그 위에서 이만한 궤짝이 나왔데요. 그거를 꺼내놓고 뜯어서 확 벌려보니까 거기에 장수들이 입는 일절 옷이 갑옷허구 투구허구 신발까지 일절 장수들이 입는 옷 있잖아 왜 비늘 달린 거 같은거 그게 나왔어. 이 사람이 이제 때로구나 하구서 다 파헤치고서 옷을 갖춰 입고 나도 인제 갈때를 가야지 여기서 이러면 안되겠다. 거기서 고개 하나를 넘어 가면은 칼바위라는 우리 종중밭인데 거기를 돌아가니까 칼, 장검이 커다란게 그래서 칼바위인데 큰 장수들인 차고 다니는 큰 칼이 하나 걸려있더라 그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하나 뜯어서 옆에 차고 거기서 고개 하나를 또 넘어가면은 솔말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옛날에 설윤기가 말타고 달렸다고 해서 솔마치, 솔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길 넘어가니까 그 골짜구니가 상당히 길지. 지금도 글로 나가면 다리가 열둘인가 되요. 거기서 나와 서 있으니까 백마가 또 나와 가지고 그 길을, 이런 신작로 길이 아니고 소로길이거든. 글로 그냥 올라 뛰고 치뛰고 올라 갔다 내려갔다 자꾸 뛰어 댕기니까 이제 내가 때를 만난거다 하고, 옷 얻어 입었지, 칼 하나 장검하나 옆에다 찼지. 백마가 그냥 임자도 없는 백마가 뛰어댕기니까, 그걸 올개미로 해가지고서는 그걸 쫓아 댕기면서 잡아서 굴레를 맹그러서 잡아서 그 백마를 타고 거기서 계속 훈련을 했다는 거야.

감악산 꼭대기에서 남면짝으로 설윤기 굴이 있는데 옛날 전설에는 설윤기 굴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인제 훈련을 했다는 설윤기의 전설이 그 당시에 말이, 말을 멕이고 말을 달리고 했다는, 적성 소재지 그 부근에는 거기에 얽힌 전설이 많다고. 말우물이니, 식현리니하는게 그게 다 설윤기가 다 말을 멕였다는 이런 전설이 많은데 거기서 그렇게 뛰고 훈련을 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 사람이 그 훈련을 다 닦아서 설윤기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싸움을 했다는 건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당나라 사람이래, 설윤기가. 설윤기 아버지가 아마 당나라 사람이었다는 모양이지.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쟁을 틀림없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어느 나라 어느쩍에 했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어요.

□ 제보자 : 김정홍(남, 70세,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154-8), 제보자는 짚공예를 전문으로 하여 전시회도 여러번 개최하였으며, 장차 박물관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조사지 : 제보자의 집

7) 아기장수 전설 1

그 저 3리에 머슴을 뒀대, 남서방네서. 머슴을 뒀는데, 그 머슴의 마누라가 애기를 가졌대. 애기를 가졌는데, 가져서 이제 낳은거야. 낳았는데, 여기 날개쭉지가 겨드랑이에 났다지 뭐야. 낳는데 그냥 옆에서 아이 애가 그랬다나 누가 그랬는데, 보니까는 날개쭉지가 있어서 막 이렇게 날라다니드래. 횃대, 왜 옛날에


〈사진 103〉 주람산

옷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횃대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이상해서, 그걸 그냥 놔둬야 제대로 되는건데 주인 마님한테 가서 일렀다지 뭐야. 일르니까는 아차 이걸 그냥 둬두면은 자기네가 벼슬을 못해 먹겠으니깐 이 애를 죽일라고 주춧돌을 갖다, 이 저 바깥에다 두고선 주춧돌을 놨대. 그러니까 지질른거야 죽으라구. 그냥 지질른거야. 그런데도 죽지를 않아서 뭐 그 돌루다 맨든 주춧돌 그걸루 갖다 지질러 갖구 죽었대. 그런데 그 애가 한 닷새나 일주일 있으면은 인제 벼슬을 할건데 고 동안에 죽은거야. 그러니깐 죽어서 이제 갖다 버렸는데 닷새만인가 엿새만에 백말이 나왔다지 뭐야 주람산에서. 주람산에서 나와가주고서는, 그애가 장성을 하면은 타구 후방으루 나갈건데 그애가 죽었으니까 못타고 나간거야. 그러니까 그 백마가 그냥 울면서 그냥 몇번을 울더니 저리 나가드래잖아. 그러니가 이 산이 주람산이 전설이 있는 산이예요

□ 제보자 : 이순애(여, 63세, 연천군 장남면 원당 1리)
□ 조사지 : 원당 1리 마을회관

8) 아기장수 전설 2

강서방네가 거기 많이 살았거든. 근데 그 강씨네가 어린애를 낳았는데 3일 만에 시렁 꼭대기에 올라 앉더래. 그러니까 그전엔 장사를 낳으면 죽였대. 그래서 그 애를 갖다가 콩 석섬을 갖다가 올려 놓으니까 사흘 된 애가 들먹들먹 하더래, 애가. 그래 거기다 팥 한가마를 올려다 놓으니까 죽었대.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아이가 장산데, 걔가 다 쓸건데 환두골에서는 환두가 찌렁찌렁 울리고 그래 그때 환두골이라고 이름 진 거래, 골짜구닌데. 그리고 또 문바위라는데 북바위가 있는데 북소리가 북북북북 나고 그래서 바위가 있어. 그래서 그때 북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용마, 그전에 장수가 말 타고 다녔어. 그게 치뛰고 하다가 그 먹적골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그 먹적골 바위가 큰게 있어. 고 밑에 물이 나와 그 물을 먹고 죽었다고 해서 먹적골이라고 거기도 이름을 짓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 제보자 : 유보영(남, 70세,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조사지 : 연천군 백학면 노곡 1리 마을회관

9) 장자못 전설

장마루에 장자못이 있었는데, 아니 못이 없었대요. 큰 부자집인데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부자로 사는데 인제 중이 시주를 하러 왔는데, 이제 그 동냥을 좀 달라고 인제 스님이 와서 그러니까는 그 시아버지가 왜 그전에는 쇠똥을 마당에다 널어서 거름을 했대요. 그래 그 거름을 쇠스랑으로 푹푹 뜨면서 "아 시주할게 있으면은 내가 먹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표주박에다 쇠똥이나 한주박 가지고 가라고, 시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시주는 안 하고 쇠똥을 널다가 쇠똥을 퍼서 그러니까 중이 그거라도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제 돌아서서 중이 인제 고맙다고 그리고서는 가는데 뜰밖에서 며느리가 쌀을 씻다가 이리 오시라고 며느리가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거를 버리고서는 동냥 바가치를 몇 번을 씻고서는 그걸 버리고 바가지를 씻고 거기다 자기가 씻던 쌀을 하나 가득하게 주면서 미안하다고 이걸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 그래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러드래. "내가 여기서 동구밖에쯤 갈테니까 뇌성벽력을 해도 집을 돌려다 보지 말라고, 절대 집을 돌려다 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그러더래.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서 벼락을 치는데 나 살던 데서 그러는데 어떻게 안 돌려다 봐요. 그래서 돌려다 봤더니 아주 그냥 큰 연못이 됐대요 금새. 연못이 되 가지고 그냥 그래서 장자 연못이 됐는데 이무기가 됐대 그여자가.

(청자Ⅰ : 아니 그 여자가 된게 아니고 그 주인이 이무기가 되었지)

맞아 지 아부지는 이무기가 되고 그 여자는 비석이 이렇게 섰는데 지금도 있대. 6 · 25 나기 전에도 있었대요. 돌려다 보면 비석이 되서 거기서. 안 돌려다 봤으면 거기서 그게 좋았을텐데 돌려다 봐가지고 거기서 돌비석이 됐대요. 그래 인제 거기 연못이 되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이무기가 되서 그 강가에다가 소를 갖다 매면 끌어다 잡아먹었대요. 가물면은 그 집이 망한 물건이 나온대요, 보인데. 그래서 인제 가물면은 물건이 뵐만하면은 (물이)채워지고, 그래서 이무기가 된 시아버지가 강가에다 소를 끌어매면 갖다 먹었대요.

(청자Ⅱ : 6 · 25때 비행기가 떨어져서 구경갔더니 비행기 잔해를 꺼내는데 그 집 망한 물건은 나오는걸 못봤어)

□제보자 : 조옥순(여, 69세, 연천군 장남면 원당1리)

□조사지 : 원당 1리 마을회관

※ 이곳에서는 너무 가물면 장자못 이무기 잔등이 보여야지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10) 썩은소 전설

여기 올라가면 숭의전이라는거 알아? 거기 올라가면 썩은소가 있어. 왕건태조가 이성계한테 정권을 내

주구 자기네 위패, 자기네 조상들의 위패를 다 배에다 싣구 올라오다가 임진강부근에 어디가서 정착을 해야 될텐데 정착을 할 데가 없어, 그래 썩은소까지 간거야. 갔다가 거기서 정착을 헐려고 했는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닻을 내려다 놓고 줄을 내려다 놨을거 아냐, 줄을 못떠내려 가게. 근데 거기서 하루저녁에 동아줄이 었어. 어서 인제 떠내려 간거야. 그래서 거기가 썩은소구, 지금 저 아미리 숭의전 거기와서 가라앉아서 숭의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왕서방네 위패를 모두 거기다 모신거지. 그래 왕건 태조 마나님이 수궁공주래. 그래 수궁공주라서 수궁에서 모셔갔다 그래.

□ 제보자 : 서용하(남, 83,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 조사지 : 제보자의 집

11) 화석정 전설

율곡선생이 알고했는지 모르지만 임진왜란이 나니까 알았다 이야기지. 화석정을 지어놓고 무어라고 써 붙여 놓았냐면은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장사꾼은 한지 이런 기름먹은 종이를 갖다가 놓고서 치성을 드리면 장사가 잘 된다' 그렇게 써 붙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가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선 황지 기름을 집어넣어서 꽉 찼다는 거야, 종이가 그안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렀던 거야. 불길이 개성까지 가서 불이 환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름이 화석정이라고 붙여졌다는 얘기야.

□ 제보자 : 지동윤(남, 77세, 파주시 금촌동, 통일촌에서 성장하여 후에 서울생활을 거쳐 지금은 금촌동에서 지주협회 운영)
□ 조사지 : 파주시 금촌동 지주협회 사무실

12) 반구정 전설

황희 정승이 여기서 적성면에서 진사를 지냈는데 이성계 때부터 벼슬을 줬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세종때에 가서 왜 반구정이 생겼냐면요. 이 저 황희 정승이 세종의 세째아들 아닙니까? 그전에는 양반가에서는 큰아들이 대를 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세종이 임금 되는 걸 반대를 한거야. 황희 정승이 반대를 한거야. 그래도 세종이 영특해서 임금을 시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이 술도 먹고 나쁜 짓은 전부 하고 댕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신들이 인제 그걸로 해서는 반대를 하고 파직을 시켜서 반구정에 은거를 했다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부르니까 세종때 올라 가신거야. 세종을 반대를 했는데 세종임금이 거시기 하니까 다시 부른거에요. 그때부터 영의정을 하신 겁니다.

영의정을 20년을 하셨는데 역대 청백리로써 황희정승을 맹사성, 맹정승하고 황희정승을 청백리로써 모범으로 치더라구요. 하두 집이 비가 오면 샙니다. 빨래를 하면 옷을 갈아 입을 게 없어요. 정승집이 비가

막 새는 거에요. 임금으로서 세종이 임금인데 말이에요. 비가 새고 그러니까는, 오늘은 하루 서울 장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전부 황희 정승댁으로 모셔라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옛날 어떻게 되서인지 연락도 않했겠지 말이야. 통신망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연락을 했겠습니까? 일 들어 온 것이 곤달걀 한 꾸러미 밖에 안 들어 왔단 말입니다. 방촌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은. 노비끼리 싸움을 하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들어 와서 하는 말이, 들어 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씩 부르는 거야. 혹시 둘이 부르면 의견이 거시기 될까봐 하나씩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니가 옳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여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그럼 니 얘기도 맞다. 그 아들이 보고서는 아들이 그건 어찌 된게 사리 판단을 아무가 잘 했던지 못 했던지 해야지, 잘 한 놈이 있어야 못한 놈이 있을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래 니 말도 옳다 이거라. 그랬다구 그러시더라구요.

□ 제보자 : 황기연 (남, 66세, 파주시 문산읍 사목1리 271)
□ 조사지 : 사목 1리 마을회관

13) 오두산 전설

요기 조금 넘어가면 통일동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뭐냐하면 오두산이예요, 오두산. 까마귀오(烏)자 머리 두(頭)자 뫼산(山)잔데, 먼데서 보면은 까마귀가 앉아 있는것 같다고 해서 오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이북으로 말하자면은 동강에, 이북군인들이 스피커 달아놓고 하는 그게 무슨 산이냐 하면은 덕무산(덕물산)이라고 있어요, 무녀들이 모여 사는 덕무산. 개성 못미쳐, 장단서 조금 위. 거기서 오두산을 볼거 같으면 이제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하면은 지네하구 두꺼비하구 싸움하는게 이제 보인다는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게 안보인다는데 거기 있는 사람 눈에는 그게 뵌대요.

그래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몰래 몇번을 와 본 모양이야. 와봐야 거기있는 그산이 임진강하구 한강하구 만나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 당집이 하나 있어요. 오고가는 배들 무사히 저거하게 해 달라구. 이제 춘추로다가 무녀들이 가설라무네 뭐허는 당집밖에 없는데. 여기 사람이 이제 지금에는 탄이랑, 석유랑, 전기랑 해가주고 난방들을 했지만 옛날에는 꼭 산에서 나무들을 깎아가지고 온돌방에다 인제 때서 그 난방을 했는데, 여기사람이 오두산에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서울 마포로다가 팔러가면 말이야, 그 나무 있는게 서울사람이 오면은 삼 잎사귀가 있대지 뭐야. 근데 헌(나무를 한)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모르고 인제 그걸 이 나무 어디서 해왔냐 그러니까 이제 파주 산에서 풀나무 뜯어가지고 팔려고 온 거거든. 그런 얘길 해줘서 서울사람들도 아마 암암리에 몇번이나 와서 탐사를 했던 모양이야.

두꺼비하고 지네하고 싸움하는데 이제 예전엔 이제 그랬데, 삼이 무슨 사람들을 못오게 하구 산삼같은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매년 거기서 나무를 해설라무네 배에다 싣고선 마포에 갖다가 팔구 팔구, 근데 여전히 해마다 그렇게 나무에 삼잎사귀 같은 것들이 더러 있는걸 서울사람들이 때면서 본거지. 하루는 그 사람이 나무 장사하고 그러니까는 뭐 쌀밥이고 그런것이 예전에는 없지, 이제 조밥 순 쌀로다 밥을 안하고 조

로다 밥을 해가주고 가서 나무를 깎구 점심때 되면은 조밥을 먹구 또 나무를 깎아 가주고 그거를 인제 배에다 싣고 마포에 다가 나무를 팔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사람이 나무를 깎으려니까는 점심때가 다됐는데 오두산 통일전망대 있는데 그옆에 지금도 절이 있지만, 쬐끄만 금산사라고 절이 하나 있는데 뭐 절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중들도 많지 않고 중 둘이 있는데 중이 하나 오더니 나무를 깎는데 와서 오드니, 나무 깎는 사람을 보고서 "아휴 이거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갈 길이 먼데 중이 하는 말이 배가 고파서 못 가겠으니 이거 먹을 게 없냐" 하고 나뭇꾼한테 물어 보는데, 나무 깎는 사람이 조밥 한 덩어리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무던하고 좋았던지 "자 딴 거는 없고 이거 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먹구설라무네 허기를 면하고 길을 떠나게 하라"고. 아무 말도 않하고 중이 앉아서 조밥 한덩어리를 다 먹더래지.

거기서 이 나무하는 사람은 지가 먹을 게 없단 말이야. 깎다가 시장기가 나니까는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그 날은, 일찍 들어와 가지고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현몽을 하기를 인제 낮에 나무 깎을 적에 지나가던 중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이구 당신이 그렇게 만날 나무 장사나 하고 이렇게 해서 사냐고 말이야. 내가 뭘 꼭 한마디 아르켜 줄테니까는 고대로 실행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중이 하는 말이 "내일은 풋나무 깎으려 올라 가는데 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 가서 삼에다가 절을 하고 가재기에 있는 삼만 뽑아서 팔아도 말이지 당신은 한평생 나무 장사 안하고도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인제. 그러니까 그 이튿날 나무를 가서 보니까 아 그전에 없던 게 그냥 시퍼렇게 한무데기가 있드래지.

그 중이 얘기 해 준대로 가서 보니까 삼이, 삼인데. 사람이란게 욕심이 그래. 조그만 것을 뽑아서 팔으라는 것을 그냥 가재기것은 두고 제일 큰 놈을 욕심이 말이지. 뽑으려니까 뽑히지 대강이만 똑 떨어지더래이제. 그래 똑 떨어진 것을 보니까는 그 떨어진 거기로다가 조밥이 나오더래는 거야, 조밥이. 머리가 떨어지니까 그걸로다가 인제 그러더니 인제 시퍼렇게 많던 삼이 뵈지도 않고 그냥 그날 밤에 와설라무네 참 잠을 자는데 또 꿈에 "내가 아르켜주는대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냐, 사람이 욕심을 너무 내고 탐을 내면은 인제 못 쓴다. 당신은 인제 나무 장사나 해 먹고 살아야 할 팔자지 편안히는 하지 못할 저거니까는 아예 나무 장사나 하고 마음을 착하게 먹고 살아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네하고 두꺼비하고 싸움 한 것이 삼이 인제 변신을 해 가지고 싸움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

□ 제보자 : 차상각(남, 77세,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46)
□ 조사지 : 제보자의 집

14) 궁예에 얽힌 전설

요기 가마솥골은 자연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장사가 나오고, 고 밑으로 내려 가서 용수깨비라는 데는 명주실이 다 들어가서 있었다고 해서, 용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용수깨비라고 하는 데가 있걸랑, 이 밑에, 가마솥골이 밑에 용수깨비라고 있고, 용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굴이 저 아래 보름소로 뚫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무기가 있었다고. 용이 안된걸 이무기라고 하걸랑. 이무기가 있었고, 그래 그게 실이 명주실

을 집어넣으면 저 아래 보름소에서 나온다고 하고 절구깨비를 집어 넣으면 저 아래 보름소에서 솟는다고 하거든. 저 아래 한탄강 밑에 거기 가서 나온다는 전설이 있고 그리고 이 큰골 안에 큰골이 유원지야.

큰 산속인데 궁예가 점령을 해가지고 성을 쌓아 가지고 있었어요. 성을 쌓아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성터가 그대로 있다고 지금도. 그대로 성터를 보존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궁예가 거기서 피신을 해 가지고 거기다 인제 대궐을 지어 가지고서 여기서 인제 철원 이 일대를 점령해 가지고 있으면서 쌀뜨물, 부하들을 데리고 밥을 해 먹고 그러잖아. 그 쌀뜨물이 이 한탄강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추적을 해 가지고 궁예를 죄 친거야. 치니까 궁예가 도망가 가지고선 저 용예라는 데로 도망가 가지고 울음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울고 한탄강에 가서 한탄하고 그리고서 철원으로 들어가서 철원 그 궁예터 있잖아. 거기 가서 인제 도읍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복귀라는 데 가서 만백성들한테 돌덩이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무덤이 돌무덤이라고 해.

□ 제보자 : 정균 (남, 59세, 포천군 관인면 중1리, 지장산유원지 회장)
□ 조사지 : 중 1리 마을회관

15) 보가산 전설

여기 산이름이 보가산이야, 보가산. 이쪽은 궁예가 있던 성터고, 이쪽 계곡으로 건너가서 이쪽 건너는 지금 여기 보이는 산이 있어. 그거는 궁예가 점령해 있었고 이쪽 계곡 너머는 보가산이라고 그러는데, 보가산이라고 그러는건 옛날에 강원도 금강산에서 산돼지로 변장을 해 가지고 산돼지가 이리 뛴거야. 그때 포수꾼들이 산돼지를 보고 추적을 해 나오는 거야. 추적을 해 나오다가 길이 어두우면 잔다고 주막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또 산돼지 발자국을 쫓아서 또 나오는 거야. 근데 돼지가 한번 뛰면 30리를 나간다는 거야. 30리를 나간다고 해 가지고서, 30리를 나가 가지고서 사흘을 먹는다는 거야. 그 근방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고 또 뛰면은 30리를 나가고 이렇게 해서 추적 추적 해온 것이 보가산까지 나온거야.

그래가지고 이 보가산에 와서 떨어졌는데 그걸 두 형제가 사냥꾼으로서 그 전엔 먹총 있잖아 먹총, 불댕겨서 쏘는 총. 그걸 먹총이라고 그래. 그 총을 가지고 하고 활로 쏘고. 그런데 동생은 활을 가지고 있고 형은 먹총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추적을 해서 쫓아가지고 이 기장골이라는 데 와 가지고서 거기 와서 산돼지가 막 먹는걸 보고 활로 그냥 쏜거야. 근데 맞은거야. 맞으면서 배창자를 피를 토하면서 산으로 뛰어서 그 너머로 가서 목이 마르니까, 피를 토하니까 목이 마를거 아냐. 무릎을 푹 꿇고 있는 걸 또 쫓아가서 디리 갈겨 버렸어. 그래가지고선 맞아가지고선 거기에 웅뎅이가 있었는데, 그 개울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물 먹는 걸 쐈는데 거기 가서 풍덩 빠져 버렸어. 빠져 가지고선 거기 가서 있는 거를 쫓아 가서 건질려고 보니까는 부처님으로 탁 변장을 한 거야, 돼지가.

그래가지고 그 두 형제가 거기서 만백성들한테 "내가 시주를 해다 바치고 암자를 하나 지어 줄테니까는 여기 이 돌바위가 있는데 돌바위에 앉아 계십시오" 하고선 이제 집개를 데리고 온 거야, 길이 어두우니까.

내려와서 하루밤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니까는 그 돌바위에 탁 올라 앉아 있더라는 거야,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백성들한테 시주를 해다 바치고 절을 하나 진거야.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지장암이야. 그래 돌석(石)자 돌 위에다가 돌바위에다가 지었다고 해서 석대암이라고 해, 그걸.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지어 놓고 있었는데 그 절이 하두 용하고 영험하고 그 부처님이 하니까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저 연천으로 돌아서 그 산중에를, 연천와서 내려가지고 대광리라는데 거기와 내려 가지고 개나리 보따리를 걸머지고 신도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거기 기도 드리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 가서 그 신도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드니까 거기다가 99칸을 지었어, 절을. 절을 99칸을 지어 가지고 그 전에는 나라의 임금님 집이나 100칸을 채우지 이 신하들 집은 99칸 밖에 못 짓는다는 거야. 100칸을 못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99칸을 지어가지고 신도들이 모여 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정성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스님들이 한 300명쯤 끓은 거야. 그래 가지고 한 300명쯤 끓었는데 그때 거기에 인제 거 뭐야 하두 절이 영검하니까 무학대사님이 거기서 수도를 하시고, 수도를 하시고 가면서 그때 하시는 말이 그땐 그 산을 보가산이라고 불렀어. 보가산이라고 불렀는데 보가산이라고 부른 걸 갖다가 무학대사님이 보가산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니 그땐 보가산이라 부른게 아니라 영주산이라고 불렀어. 영주산이라고 했는데 구슬영자, 법문이 가득 들어 있는 산이라 이거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산을 갖다가 무학대사님이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가 되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덮을 개자 개뚜껑으로 덮어놓는, 보물을 감춰 놓는다 이거야, 법문을. 산에서 법문 나오는 걸 갖다가 감춰 놓는다고 해가지고 덮을 개자 개뚜껑으로 눌러 놓아서 감춘다 이거야. 감춰서 보개산이라 불러라 이거야. 때가 되고 시가 될 때 다시 개뚜껑을 열고 그때 영주산이라 부른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선 여태까지 전설이 내려 온 것이 보가산이야. 그거를 뚜껑을 열 날이 곧 돌아온다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 절에 그 법문을 따고 거기에 와서 그 법문 정취를 받으려고 절이 그때 39개가 그냥 들어오기 시작한거야, 보가산에. 보가산일대에 절이 39개가 들어 와서 그냥 꽉 들어와서 법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때가 되고 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법문을 안 내준거야.

그러한 전설이 여기 돌아가고 궁예도 여기 와서 부처를 믿어가며 자기가 철원일대를 도읍을 할려고, 그래 와서 궁예가 도읍을 하는데 그 부처님이 지금 계셔. 그 부처님이 지장 보살님이야. 그래서 그 지장 보살님을 어디서 모시고 있느냐면은 관인 삼거리 절에서 모시고 있어.

□ 제보자 : 정균 (남, 59세, 포천군 관인면 중1리, 지장산유원지 회장)
□ 조사지 : 중 1리 마을회관

16) 향로봉 전설

여기 종자산과 향로봉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그 향로봉이라는 종자산이라는 건 옛날에 천지 개벽을 할 적에 종지끝만큼 물이 안 차고 남아 있었고, 그래서 천지개벽이라는 물이 그렇게 다 찰 적에 고만큼 남아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종자봉이라고 하고 또 여기 향로봉이라는 건 거기서 배 타고 건너 와서 향불을 피워 놓고 그 모든 보가산 쪽에다 드리대고 정성을 했다고 해서 향로봉이라고 해.

□ 제보자 : 정균 (남, 59세, 포천군 관인면 중1리, 지장산유원지 회장)
□ 조사지 : 중 1리 마을회관

17) 북바위 전설

옛날에 궁예가 도읍을 할 적에 여기에 요 위에 올라가면 북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북바위라는 데에서 북을 치면서 요 관인봉에다가 신호를 해준거야. 신호를 해줘서 그걸 듣고 병력들이 궁예의 병사들이 움직였다는 전설이 그렇게 돌아가고 또 여기 할미각담이라고 있어. 그건 할머니들이 치마폭에다가 돌을 지다가 거기다가 모아 쌓아 가지고 궁예가 무기 삼아 쓸려고 돌을 쌓았다고 해 가지고 각담이 할미각담이라고 있어.

□ 제보자 : 정균 (남, 59세, 포천군 관인면 중1리, 지장산유원지 회장)
□ 조사지 : 중 1리 마을회관

2. 민 요

1) 장기타령

장이야 군이야 장받아라
이 장기를 띠면은 논밭을 파느냐~
장을 받아야 장기지 장을 받아라
상이 뛰면 포가 떨어지고
차가 뛰면은 말이 떨어진다
이 장을 받아라
- 중략 -

□ 제보자 : 허건 (남, 75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2) 노랫가락 1

달뜨자 배 떠나가니 인제 가면은 언제오나
만경창파 지수나중에 나는 빨리를 다녀를 오소
가시다 동남풍 불거던 내가 온줄을 알아주소

□ 제보자 : 허건 (남, 75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3) 노랫가락 2

배가 고파 지어논 밥에 미도 많고 돌도 많다
미 많고 돌 많은 것은 님 없는 탓이로다
언제나 좋은 님 만나서 미 없고 돌 없는 밥을 먹어나 볼까나

□ 제보자 : 원재준 (남, 80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3반)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4) 노랫가락 3

창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 술 빚어 놓고
술 빚자 국화 피자 임 오시자 달이 뜨니
동자야 국화주 걸러라 마실음(飮)자라 얼간주라

□ 제보자 : 원재준 (남, 80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3반)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5) 그네타령

제천당산목 긴 낭게(나무) 높다르게다 그네를 메고
님이 뛰면은 내가 밀고 내가 뛸적에 님이 밀어
에~ 허~ 야~ 줄 밀지 말아라 줄 끊어 지면은 정 떨어진다

□ 제보자 : 허건 (남, 75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6반)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6) 베틀가

오늘날두나 하심심하니 벼틀에 다리나 노~를 볼까
에~헤~야~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뜰창밖에나 나리는 길은 가신 누님의 눈물이라
에~헤~야~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낮에 짜는건 일공단이요 밤에두 짜는건 야광단이라
일광단 야광단 꽉조여 놓아서니 정든님 와이샤스를 미여나 볼까
에~헤~야~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 제보자 : 우종만 (남, 70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6반)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7) 한강수타령

한~강~수라 깊고 얕은 물에
소상선 타고서 에루와 뱃놀이 가잔다
에~허~야 어허야 에해야 에해야
얼삼마 둥게 디여라 내 사~랑아

□ 제보자 : 정범일 (남, 70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2반)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8) 뱃노래

에야 노야 노야 에야 노야노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파도치는 소리에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리가 처량도 하구나
에야 노야 노야 에야 노야노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 제보자 : 정범일 (남, 70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2반)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9) 어양더야

어양더양 더어야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안방 건너방 가르다지 완자무늬면 국화생이로다
좋구나 매화로구나
어양더양 더어야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남의 집 가는걸 잔소리를 말고 비로봉 꼭대기다 집을 짓고 살아라
어양더양 더어야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물길러 가는걸 잔소리 말고 부뚜막에다 쌍숯을 묻어라
좋구나 매화로다

□ 제보자 : 허건 (남, 75세,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6반)
□ 조사지 : 북삼리 마을회관

3. 마무리

임진강유역에서 수집되는 전설로는 역시 강을 배경으로 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자살바위 전설, 재인폭포 전설, 반구정 전설, 화석정 전설 등과 같이 강가에 자연적인 특이한 지형이나 인공의 건조물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전승되어 오는 아기장수 설화나 장자못 전설 같은 것도 수집되었다. 특히 조사과정 중에 아기장수 설화와 장자못 전설은 여러번 들을 수가 있었는데 모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다른 이야기들이다. 예를 들면 파주시 장남면에서는 "남서방네에서~"로 시작하고 연천군 백학면에서는 "강서방네~"로 시작을 한다. 또한 이 글에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그외의 지역에서도 자기의 조상이라든지 누구네로 시작하는 아기장수 설화가 많이 수집되었다. 전국적으로 전승되어오는 장자못 전설 역시 수집할 수 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자살바위 전설과 이야기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시주하러온 중을 박대한 것과 며느리(혹은 딸)가 몰래 도와 준다는 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뒤를 돌아봐서 구제 받지를 못했다는 점 등 기본적인 구조는 같으나 자살바위는 임진강이라는 강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못이 되지 않고 바위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또 조개못 이야기와 물귀신 이야기 같이 뱃사공이 실제로 겪은 경험담을 말하여 준 경우와 썩은소 전설, 오두산 전설 등 지명유래와 연관되는 얘기들을 많이 수집할 수가 있었다. 범바위 전설과 같은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한 설화, 설윤기 이야기와 같은 장군이야기(아쉽지만 장군이 되어가는 과정만 나와있지 그 뒤 활약상에 대해선 전혀 들은바가 없다고 하였다) 등 여러가지 종류의 설화가 수집되었다. 한탄강 유역 설화의 특징은 역시 궁예와 관련되는 것이다. 철원을 도읍으로 삼았던 궁예는 역시 한탄강과 관련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낳고 있다. 고석정, 삼부연폭포, 산정호수 등 많은 전설들이 포천, 연천으로 이어지면서 후삼국시대와 고려말기의 역사를 민초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

이번 조사의 성과로는 기암절벽, 폭포, 소(沼) 등 특이한 절경이 있는 곳에는 전설이 있고 그 외에도 민담, 유래담, 체험담 등 갖가지 설화들이 전승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곳과 민통선 안에서의 설화, 지금은 북한땅이 되어 가볼 수 없는 곳의 설화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8절 임진강 유역의 어로생활사

1. 임진강 유역의 어로생활사 조사에 들어가며



〈사진 104〉 철새 청둥오리(장파리)

지리학적으로는 북으로 개성시 판문군과 남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사이를 흘러 서해로 가는 임진강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지역인 마식령 산맥 줄기에 자리한 강원도 법동군 龍浦里의 두류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며 길이 272.4km, 유역면적 8,129.5㎢을 지닌 남북한을 통 틀어 7번째로 긴 강이다. 임진강은 그 자



〈사진 105〉 고랑포 나루에서 본 풍경

체로 한강의 가장 큰 지류이기도 하지만 임진강이 스스로 포함하는 주요 지류는 古味呑川(114km), 平安川(81km), 漢灘江(130km) 등이며, 5km 이상의 지류는 250여 개다. 이를 대략적으로 보면 강원도 이천에서는 고미탄천을, 평강에서는 평안천을 만나며 철원에서는 역곡천, 그리고 김화에서는 남대천을 포함하여 경기도로 들어와 포천에서는 양대천을, 전곡에서 한탄강을 거느린 채 문산 평야를 지나며 문산천을 흡수하여 한강과 합류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난 후 민간인출입통제선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북한 지역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남쪽으로 유입되는 임진강의 모습을 처음 볼 수 있는 지역은 현재 군사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의 남방한계선상인 태풍전망대이다. 이 지역은 임진강 전체로 보았을 때 중류쯤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북한지역을 갈 수 없는 남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태풍전망대 지역이 임진강의 상류인 셈이기도 하다.

이는 문화인류학적으로 관심을 기울일만한 일로 장기간 고착화되어 온 분단이 지리적인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령 학교의 교과서나 백과사전에서는 발원지가 앞서 기술한 강원도 법동군의 두류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임진강 유역에 대한 방송의 아나운스 멘트 같은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연천군 일대의 임진강을 임진강의 상류라고 부르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발원지와 상류가 북한의 법동군이겠지만 현실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발원지나 상류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 경기도 연천군 지역이니 그곳을 상류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는 분단이 가져 다 준 독특한 현상일 것이다.

5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분단은 그것 뿐만이 아닌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그것은 남한을 흐르고 있는 임진강유역 전체가 군사지역 혹은 접적지역과 인접해 있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 많다는 것이다.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명력을 잃어 간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임진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취락구조도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강의 남쪽에만 마을의 형성이 원활했을 뿐 강의 북쪽은 최근 들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 해제된 몇몇 지역을 제외한 곳은 사람의 자유로운 발길이 끊어진 채 겨우 영농출입자만 드나드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 뿐 아니라 아예 강으로의 출입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 강에서의 생활과 강을 오가며 이루어지던 경제와 문화생활들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렇게 독특한 현실을 안고 있는 임진강변에서 강과 관련하여 살아가거나, 살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채록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은 경기도 연천 쪽에서 나룻배 사공을 했던 유흥렬씨와 아직 참게잡이로 생계를 꾸려 가는 이형배씨, 그리고 경기도 파주 쪽에서는 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했던 최영선씨와 배를 타고 다니며 무역업을 했던 김기돌씨였으며, 또 무역업을 했던 장수봉씨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조사 당일 노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러나 그 아들인 장석진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조사할 수 있어 다행이었으며, 대상자들은 크게 어부와 뱃사공 그리고 무역이라고 부르는 商船을 부렸던 장사꾼이나 지금으로 보면 물류 수송업자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토박이는 찾기 힘들었지만 태어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옮겨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것 또한 한국전쟁으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 생겨나면서 원래의 취락구조가 해체되면서 발생된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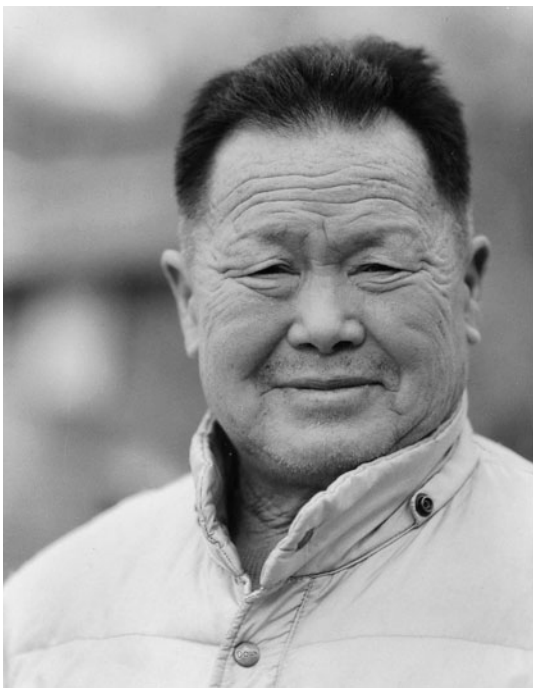
본 고는 조사대상자 중 가장 고령이며 앞서 기술한 한국전쟁 이후 임진강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현실을 어느 것 하나 빼 놓지 않고 고스란히 겪었으며 무역과 어로생활,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부대 잡역부를 거쳐 다시 고기잡이와 농사를 반반씩 하는 반농반어로 생활했으며, 지금은 구멍가게를 하며 대물림으로 아들에게 어로 생활을 전해 준 김기돌씨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 조사자들의 이야기

1) 김기돌씨(78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 2리

파평면 장파리에서 강 건너로 보이는 진동면 모래동 용산마을에서 아버지 김범산씨와 어머니 김금순씨 사이에 태어난 김기돌씨는 올해 78세이다. 언양김씨인 그의 집안은 모래동에서 14대를 이어 왔으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아버지 代에 고향 마을에서 쫓겨나 파주군 일대를 전전하며 생활하다 삼십 년 전 쯤에야 지금 살고 있는 마정리로 옮겨 자리 잡았다. 모래동 고향마을이나 지금 사는 문산읍의 마정리나 모두 임진강을 끼고 있는 강변 마을일 뿐 더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곳 저곳 떠돈 곳 또한 모두 임진강변을 벗어나지 않은 곳들이어서 김기돌씨의 삶은 자연스레 강과 밀접하게 맞닿



〈사진 106〉 김기돌씨(올해 일흔 여덟인 김기돌씨는 일제 강점기에 서울을 오가는 商船을 운행하다가 고기잡이를 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통제선 구역이 되어 버린 고향에서 강제로 소개되어 미군부대 잡역부와 농사일을 전전하다 마정리에 정착하면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한 어부이다)



〈사진 107〉 김기돌씨댁 우편함(김기돌씨는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부인 하장순씨와 둘이서 산다)

아 있었다.

마정리는 본디 1번 국도 상에 있었던 마을로 한국전쟁 전에는 번성했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남북으로 오가는 길이 막히고 나서 급격히 쇠락한 마을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임진강을 건너는 나루로는 수내나루가 있으며 이 나루는 대동여지도에 水川浦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임진강을 건너는 철교가 있는데 요즈음 들어 복구가 한창인 경의선 철교이며 철교가 놓이기 전 그 곳에는 독개나루라는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을축년, 내가 올해 칠십팔이거던, 음력으로 일월 이십삼일생이라 말여, 그때여 그때 물난리가 났어, 요우에 장파리라고 있는데 거기로 강 따라서 가다 보면 양수장 있는 데 있어요. 고 딱 맞은 핀이 내 고향이여. 거기서 강 건너다 보이는 그 쪼끄만 골짜기 안에 거기가 용산이여, 내가 태어난 데라 말이지, 그런데 그 해 여름에 물난리가 났어, 그란데 그 집이라는기 요새 집하고 달라서 그때는 강물이 크게 나면 집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했나 봐, 내가 살던 집이 그 물난리에 떠서 떠내려 가다가 저 어디 살피 가서 걸렸는데, 거기다가 또 집을 짓고 거기서 자라났어, 지금 들으믄 웃기는 이야기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밑천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래도 그 동네 떠나믄 죽는 줄 알았거던, 물난리가 나도 거기서 살고, 굶어도 거기서 굶고……. 지금 생각해 보면 미련하다 싶어도 그때는 다 그랬거던……. 우리가 저 웃대 할아버지 적부터 원체 가난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고상고상 했는데 그때 배 하나만 가주고 있다고 하믄 지금 저 추럭 한 대 가주고 있는거 보담은 나아, 더 많이 벌었지. 고기도 잡고 무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배를 한 대 장만했는데 그걸 어째



〈사진 108〉 김기돌씨와 부인 하장순씨(부인인 하장순씨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고랑포 너머 대강면 북상이라는 곳이다. 그이와는 김기돌씨가 열여덟, 하장순씨가 열 아홉에 만났으니 올해로 육십 년을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장만했는지는 몰라도 그거 가주고 우리 식구 전부 먹고 살았지. 배도 시원찮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부 육 남매지, 그런데 이젠 나 혼자만 남았어, 큰형은 전쟁 때 여기로 피난 나왔다가 죽고 둘째형은 왜놈들 망할 때 만주로 끌려가서 길 닦는데 가서 일만 하다가 거기서 죽고, 내가 시째고 내 밑에 동상들도 다 죽었어, 누이도 하나 있었고 우리가 전부 남자 다섯에 여자가 하나에 육 남매라."

한국전쟁 이후 임진강이 곧 민간인출입통제선 역할을 하여 분단 이후로 그 곳엔 농사를 짓는 영농출입자들의 출입과 군인들만 있을 뿐, 김기돌씨가 태어난 진동면 모래동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그이는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은 자꾸 강 너머 남쪽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일사후퇴 직후까지도 그 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어디 딴 곳으로 가서 농사 지을 땅도 마땅히 없으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거나 말거나 반 강제로 소개되어 파주로 갈 때까지 일, 이년을 더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건진 나락이라도 몇 섬씩 있었으니까 근근히 겨울을 지났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살아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이는 학교라고는 근처에도 가보지 않아서 자조 섞인 말투로 스스로 "무식쟁이야"를 연발하였다. 할아버지가 배를 장만해 밥 벌이는 어떻게 해결했지만 육 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보낼 형편은 되지 않으니 아예 아무도 보내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김기돌씨는 배와 관련된 무역이나 고기잡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무역도 하고 고기도 잡는데 그거 거들었지요. 공부는 할 생각도 안 했고, 부모네들도 돈 벌어도 양식이나 장만 해 놓고는 맨 날 술이나 마시고. 아, 옛날 어른들은 약주 좋아들 하시잖아. 애들이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뭐 그런 거는 생각도 안하고 호랑방탕 하고 댕기시니 나도 공부는 생각도 없었고, 뭐 그래 된 거지. 그라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일 나갈 때 되면 집에 사내자식들이 다섯이나 되니 모두 칸칸이 일 거들고, 그때가 왜정 때라, 그라다 내가 열 여덟에 결혼했나, 마누라는 이름이 하장순이여, 그때는 다 중매지, 내가 연애 걸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 기양 어른들이 너, 이 사람하고 살아라 하믄 기양 사는 거지, 그땐 다 그랬어. 그래 놓고 떡 스무 살이 되니 징병 나왔다 말이야. 그래 애라 모르겠다 만주로 도망을 가 버렸어, 피안북도 신의주로 가서 압록강을 건너고 그래 중국에 가서 구경 다니다가 몰래 몰래 다시 도망을 온 거야. 그러니 공부할 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 우로 둘째 형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맏형은 고기잡이를 많이 했지,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한 배타고 바다로다도 댕기고 하다가 난중에는 다른 배를 타고 다니민서 바다에 가면 새우젓 같은 것도 받아다가 팔고 그라다가 임진강에서도 고기 잡고 그랬는데 나도 그때는 거들었지. 처음 우리들이 고기 잡을 때는 엄청 나왔어, 그것도 농사하고 똑 같아서 가을이라야 고기들이 마이 잡힌다 말이야. 가을만 되면 숭어고 농어고 뱀장어고 말도 못하이 잡았어, 그란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씨가 말라, 물도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니까 그때는 고기 잡을 때, 참게 있잖아. 그것도 강에 나가서 수수 이삭을 저 끄나풀에다 쭉 매달아 가지고 강 이 짝에서 저 짝까지 그물 치듯이 걸쳐놓으면 그 게란 놈들이 수수를 쳐먹을라고 까맣게 매달려, 그러면 밤에 불을 키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것들이 미련해 빠졌다 말이여. 그 수수 이삭이 뭐 그리 맛있다고 그거 쳐먹느라고



〈사진 109〉 숭어를 보는 김기돌씨(행주산성 앞에서 대를 이어 고기를 잡는 둘째 아들 순호가 숭어를 3마리 가지고 왔다. 지금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지만 예전에는 귀한 축에 들었던 생선이다)

지 잡혀가는 것도 모르고 수수를 붙들고 죽으라고 먹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기양 감나무에서 감 따듯이 따서 주어 담으면 된다 말이야, 하룻밤에 저런 포대자루로 두 개도 잡고 세 개도 잡고, 그때는 강가에 돌멩이들 들썩하믄 돌멩이 밑구영에 게 새끼들이 우글우글하다 말이여 그것들이 커믄 참게가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믄 저 아래 깊은 데로 내려갔다가, 홍수가 나고 큰물이 들고 그라면 다시 올라오고 또 가을이믄 내려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들도 그 때는 숱하게 잡았는데 요새는 보기도 힘들어"

그이는 당시 혼자 힘으로 배를 몰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어른들이 항상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당시 그이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타고 다니던 무역선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배의 모양이 기보다는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게 만든, 평평하며 널다란 형태의 것이었다고 한다.

"그때 배가 좋아야 됐단 말이야. 흐지부지한 배는 바람도 씨고 파도도 씨고 그란데 베겨 나기나 하는가. 그래도 새 배 맹글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내가 쓰던 배는 팔아 묵고 또 다른 데서 남이 쓰던 배가 내 배보다 좋으면 그거 사다가 쓰고 그랬지. 지금 치믄 중고 배를 사서 썼다 말이야. 왜정 때에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대에는 큰 참나무를 켜 가주고 구녘을 뚫어서는 거기다가 기양 참나무로 만든 못 같은거를 때리 박아서 배를 만드는데 그런 걸 전부 목선이라고 했다 말이야. 그건 무겁기는 엄청 무겁고 배가 둔해, 근데 저 아랫녘에서 배를 맹글었는데 돛대도 한 서넛 되고 잘 지었다 말이야. 그런거는 전부 대장간 가서 못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곱다랗게 쳐서 오고 구녘 뚫은 데도 나무 껍질인데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 잘 썩지 않는거야, 그런 걸로 못을 다 말아서 쳐박아 놓으믄 나무들이 서로 꼼짝도 안 해, 그래 잘 지 놓으면 좋지 보기도 좋고 타는 사람도 좋고. 배도 집 짓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짓는다고 했지 만든다고는 안 했다 말이야, 그라고는 틈틈이 전부 대패 밥 같은 거 있어 그거하고 잘 안 썩는 나무 껍질 같은 거 하고 해서 박아 놓으면 물도 안 새고 좋지. 그래 막는 그거를 박이라고 하고 때리 박는 거를 박 친다고 했다 말이야. 그래도 우리 배는 뭐 그렇게 좋게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짐만 많이 실으면 되니 기양 널다랗고 크게 맹글어 가주고 쌀을 한 사오백가마는 너끈하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를 맹글었다 말이지, 쌀도 싣고 장작도 싣고 섶이나 이런 것도 갖다 팔았으니까. 여게서 나가믄 요 밑에 오두재라고 있어, 요새 그 뭐, 전망댄가 하는 거 생긴 데 거기. 거기에 삼섬이라고 있어, 강 한가운데 있는데 서울 가는 것도, 황해도로 가는 것도 하여튼 어디를



〈사진 110〉 생선을 손질하는 김기돌씨(배를 가르고 생선 손질하는 것은 일도 아닐 정도로 익숙한 일이다. 김씨가 고기를 잡을 때만 해도 숭어 같은 것은 알을 빼서 따로 팔았기 때문에 숭어를 가마니로 쌓아 놓고 배를 갈라도 힘든 줄 몰랐다고 한다. 숭어는 알을 팔아도 좋고 고기를 팔아도 한 몫 하는 일석이조의 효자 고기였다고 한다)

가더라도 그 삼섬을 거쳐야 하는데, 늘 거게서 닻을 주고 섰다가 인자 물이 밀면 닻을 올리고 한강으로 올라가, 안 그러면 강물이 내리 미는데 올라 갈 수가 있나, 그러니 거기서 물이 나오면 인자 인천으로도 가고 황해도로도 가고 물이 밀면 서울로 갔단 말이야. 그 밑에 가서 가마이 보면 갈래가 다 있어, 뱃사람들한테는 그기 다 보인다 말이야. 황해도 옹진 그짝, 이북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 저기 뭐야, 연평도로 가는 강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섬이 있으면 그 섬을 끼고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물때를 잘 보고 닻을 올리고 배를 놓는다 말이야. 그러이 그때 그 고상은 말로 다 못해. 그라고 여게서 한강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달에 두 번 밖에 없었거던, 만 사리가 돼야, 한강으로 그 큰 배를 끌고 올라가지 안 그러믄 가지를 못했어, 한 달에 딱 두 번이라. 초여드레 조금하고 스무 사흘 조금하고 그게 보름사리하고 그믐사린데 그때라야 갈 수 있었다 말이야. 음력으로 그렇게 사리 때 인제 한번씩 서울에 다녀 오는데 갈 때는 쌀도 사 오백 가마 싣고, 장작 뽀갠거 있잖우, 그것도 한 오백 단 싣는데, 한 단이 장작 백 가치라. 그래 싣고 가서 서울 마포 같은데 가서 풀어놓으면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한 돈 백 만원은 되지, 그 정도씩은 늘 했으니까. 그것도 일년이믄 한 열댓번은 댕기니까 수입이 다른 것 보다 못한 편은 아니었다 말이야. 바람만 잘 불어 주면 단물에도 서울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흘 거릴 때도 있고 해도 그래도 그기 괜찮은 돈벌이였거던. 그래 먹고 살 걱정은 없어도 우리 어른들도 나도 그렇고 전부 술만 기양 먹고는 돈을 모을 줄 몰랐단 말이야. 자식들 공부시킬 줄도 모리고, 그때는 사람 손 하나가 전부 돈인데 공부보다야 눈앞에 돈벌이가 더 빠르게 급한데. 그러이 공부들 안 시키고 전부 일을 시켰단 말이야. 그렇게 사시다가 다 돌아가고 나니 내가 인제 전부 책임져야 되는데 배운 거는 농사일하고 뱃일밖에 없는데 배는 전쟁 끝나고 나서는 못 댕기지 땅은 전쟁 끝나고 나니 전부 군인들이 차지 해 버렸지. 그러이 참 한심한 노릇이지"

김기돌씨가 샀던 중고 배가 쌀이 이십 가마 정도 들었고, 배 한 척을 좋게 짓는데 드는 비용은 지금 돈으로 하면 삼사백 만원은 족히 들었을 것이란다. 그렇지만 김기돌씨는 직접 배를 한 번도 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 하였다. 또 그이가 이야기하는 삼섬이라는 곳은 임진강이 한강에 합류되는 지점에 있는 섬으로 보통 사람들이 섬이라고 여기지 못할 퇴적물이 쌓인 모래톱 정도의 것이다. 그나마 썰물이 되어야 드러나기 때문에 물길을 이용하는 뱃사람들만 알 뿐이다. 자칫 생각하면 강에



〈사진 111〉 김기돌씨댁의 가축(고기잡이를 그만 두고는 인근 군부대에서 나오는 잔밥을 받아다가 돼지를 많이 길렀으나, 지금은 소일거리로 개 4마리와 거위 2마리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고 있다)



〈사진 112〉 김기돌씨의 상점(집과 맞붙어 딸이 하던 구멍가게가 있다. 말이 가게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저 하루에 소주 한 두 병이나 팔고 나면 그만이지만 문 닫아 놓으면 뭐 하나 싶어 계속 한다)

무슨 들물이나 날물이 있을까 하지만 임진강이나 한강 모두 서해의 조수간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특히 두 강이 합류되는 지점에서부터 서해로 향하는 祖江은 바다와 매 한가지로 물이 들고날 때마다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났다가는 다시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이는 무역 일을 하는 동안 별 위험 없이 순탄하게 해 왔으나 징병을 피해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 온 직후, 해방되기 임박해서 큰 위험에 빠졌었다고 한다.

"팔일오 되기 전에 한번은 장작을 이빠이 싣고 서울의 마포까지 갔었다 말이야. 그걸 다 나루에다 풀어놓고 돌아서는데 비바람이 때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거는 뭐, 도저히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 마포에서 북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서강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영저영 왔는데 배를 대기가 마땅치 않아, 나루가 있기는 있어도 우리 배를 댈 자리가 없어, 비빌 데가 있어야 엉덩이라도 디민다고 이건 뭐 꼼짝 할 수 없이 강변에다 배를 대고 있는데 기양 저 나무 만한 미루나무들이 뚝뚝 부러져 나가고 굉장치도 않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이놈의 배가 강변을 막 기어올라가, 바람이 부니 물결 파도가 생겨 강변에 있는 집 마당으로 배가 올라가더라고, 희안치도 않은 일이라, 닻을 줘도 그 까짓 거 소용도 없고, 그때 내하고 같이 다닌 사람은 나 보다 좀 더 나이가 들은 사람이랐는데 뭐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어, 오후 한 두 세시부터 그래 난리를 시작했는데 깜깜한 밤이 되도 멈출 생각도 안하고 집채만한 배는 파도가 들이치면 남의 집 마당에 올라섰다가 다시 또 기우뚱하고 내리 서고, 올라서면 올라서는대로 밀어내고 내리가민 내리 가는 대로 떠내려 갈 꺼 같으니까 붙잡느라고 낑낑거리

고. 하이고 그때 살아 남은 게 다행이지. 그렇게 한 새벽 댓시나 됐나, 희여끄름하게 날이 밝아 오는데 바람도 자고 비도 멈추더라니. 아침에 오면서 보니 우리 배 있는 데서 좀 떨어져서 소금 실은 배들이 줄 서서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 어데로 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더라 말이야. 생전 그런 비바람 처음 봤으니 당하는 수가 있어, 그 배들 있는데 옆에 석축이 있어 노니 기양 거기다 부딪친 거지, 박살이 나서 형체도 찾지를 못했어. 그래도 우리는 다행스럽게 땅바닥이 있는 데 배가 걸쳐 있어서 살아 남은 거라 말이야. 그때가 해방되던 그핸데 내가 스물 서넛 됐을 때라. 그 전에는 한번 장작을 한 배 이빠이 싣고 가다가 아까 삼섬이라고 한데 있잖아, 거기에 당도를 했어 썰물 때니까 빨리 강으로 닻을 줬다 말이야. 썰물 때는 배가 쌩쌩 떠내려 가거던, 그란데 닻을 주는데 이놈의 배가 도착해서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나서 그걸 강으로 줘야 되는데 아, 같이 댕기던 사람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배가 서지도 않았는데 고만 닻을 강으로 주니 배가 고만 휙 하고 돌아가면서 물을 이기지 못하니까 닻이고 돛이고 와장창하면서 다 뿌러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 그것들이 홀랑 물에 들어 가 버리고 배가 이리저리 뒤흔들려 놓으니 그만 앞을 잊어버리잖아. 요새처럼 불이 환한 것도 아니고 그 깜깜한 밤에 아무리 배를 오래 타도 뭐 용빼는 재주가 있어, 기양 떠내려가는 거지. 그래도 키, 배 방향 잡는 것 있어, 그거는 말짱하니 그거 하나로 요리조리 틀어서 가상으로 살살 들어갔더니 배가 개펄에 턱 닿더라구, 저 보이는 저게가 물이 있을 때는 강이지만 물이 빠지믄 벌판이야. 큰일이지 뭐야. 날 밝기 전에 물이 들어오면 꼼짝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 아예 옷을 벗고 지금 새로 만든 자유론가 뭔가 하는 길로 오다 보믄 저 북한 사람들 보라고 글씨로 불 켜 놓는 거 그거 있는 데로 걸어 나올려고 뻘로 내리 서는데 아, 이 놈의 뻘이 얼마나 깊은지 가슴패기까지 쑥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네, 그래 배에 있는 사람보고 삿대를 달라고 해서 그걸로 용을 써서 빠져 나와서는 삿대로 앞을 찔러 보니 물이 찰랑찰랑 남아 있는 데는 뻘이 단단해, 그래 그것만 찾아서 겨우 나와서는 문산 아래 또 작은 배 터가 있었어 그래 거길 갔지, 아는 사람을 찾아서 작은 배를 빌려 타고 물이 들어올락 말락 할 때 처음에 닻 잊어 버린 데로 가니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 아직 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래 그럭저럭 그거 다 줏어 담고 이래 해 놓으니 물이 쏵 솔이치며 배를 밀기 시작 하는거야, 아휴, 그 고상, 밤잠도 하나도 못 자고 그 고상을 하며 댕겼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그이는 농사를 짓는가 하면 강으로 고기잡이를 나가거나 서울로 무역을 하러 다녔으며 곧 이어 한국전쟁을 겪게 된다.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삶의 변화를 남겼지만 김기돌씨가 받은 상처와 변화는 임진강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남다를 수밖에 없다.

"왜정 때는 쌀을 함부로 싣고 다니지 못하게 했거던, 전부 공출 나가니까 통제가 심했단 말이야. 그러니 함부로 운영을 못하지, 그래도 우리들은 배를 가주고 있으니 서울로 갈 때 배 밑바닥에다 쌀을 쫙 깔고 그 위로다 섶이나 장작 같은 것들을 산대미처럼 쌓아서 간다 말이야. 그러니 그 놈들이 봐도 그 산더미 같은 장작 단을 다 들출 수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이야. 야매 장사꾼이지, 몰래 장사를 한다 말이야.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거, 그게 돈이 숱하이 됐지, 제대로만 하믄 돈을, 큰돈은 못 벌어도 야매로 하는 거 그거는

한 가마 실어 주믄 넝마씩 받고 그랬거던, 배에서 내릴 때 먼저 돈을 받고 주니 돈 떼일 염려도 없고 좋았지. 그때 열 가마 실어 주면 한 가마를 삯으로 받았으니 돈이 크지. 그래도 소는 안 싣고 댕겼어, 쌀은 못 걸어 다니지만 소는 지가 혼자 걸어댕기잖아. 그러니까 소는 다 걸어 댕겼어, 몇 마리씩 모아서 팔러 가도 소장수 그 사람들은 자동차에도 안 싣고 걸어서만 댕겨, 요새 하고는 틀렸다 말이야. 여러 마리를 묶어서 가도 앞에 놈만 끌믄 다 따라 오거던, 추럭을 탈래도 그때는 전부 목탄으로 가는 차래도 타기도 힘들고 비쌌거던, 그러니 소장수들은 전부 걸어 댕겼어, 독하지. 요새는 추럭 저런 거 한 대 가주고 있으믄 짐도 날라주고 뭐 이래해서 밥은 먹는가 보더만 그때는 추럭 보담 배 한 척 가주고 있는게 훨씬 나아, 왜정 때는 여게 배가 꽉 찮다 말이야. 다 돈이 되니까 너도나도 몰린 거지. 해방되고도 강에서 고기 잡거나 무역 댕기는 일은 별 지장 없었지, 이북으로만 안 가면 됐거던, 그러니까 강에서 고기를 못 잡을 일도 무역을 못할 일도 없기는 했지만 해방되기 전에 저 문산이나 장단에서 서울로 댕기는 기차길이 만들어지고 자동차 길도 좋아지니 배로 뭐 하는 일이 줄어든 거는 인정해, 그래도 그때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놈의 전쟁이 터졌다 말이야. 여기는 넘어지면 개성이니까 바로 이북이라. 금방 들이닥치지 뭐, 그러니 어디로 갈 데가 있나. 그것들이 이 짝에서 저 짝 파평면 장파리 있는 데로 마주 보면서 기양 쿵탕 거리는데 꼼짝 할 수도 없었어, 기양 산 골짜기에 가마이 숨어 있었지. 그라다가 인민군들한테 잡혔는데 우리 어머이하고 아버지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풀려났지, 그것들도 싸움하기 바쁜데 뭐 우리 같은 것들 데리고 다닐라고 하나, 인민군들 들어 와서 강제로 끌고 가구 하는 거 테레비전이나 영화에 많이 나오던데 여게는 안 그랬어, 싸우니라고 저것들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우리 같은 것들 데려다가 뭐 하겠어, 그러이 기양 놔주는 거지"

피난도 가지 않고 무난하게 전쟁은 끝이 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부터 남북으로 2km씩 서로 물러나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더 물러나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 만들어지면서 그이는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강으로의 출입 또한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서울로 그리고 인천이나 황해도로 다니던 무역 일 또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겨우 장만했던 식구들의 살림 밑천이었던 배마저도 전쟁통에 박살이 나 버렸다. 이 시절부터 그이는 고향을 떠나 파주군 일대를 떠돌게 되는데 한 때는 마군 부대에서 잡역부 일을 하기도 했다. 분단이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깊숙이 개입한 것이다.

지금 김기돌씨 정도의 나이를 지닌 사람들은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한국전쟁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던 시절에 고향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활발한 산업사회가 아니었으며 고향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형성된 혈연과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런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되었던 것이다.

"아, 생각 해봐. 거게가 뭐, 이북 땅도 아니잖아. 강 건너믄 바로 내 고향인데 거게를 못 가게 하니 한심하지. 강이 크기를 하나 배 타믄 십분도 안 걸리는 데다 고향을 놔두고 못 가니 말이야. 농토도 있고 집도 있고 친척들도 다 거기 있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밖으로 쫓겨 나와서는 어디로 갔는지 다 뿔뿔이 흩어

져 버렸어. 뭔 일인가 싶었지, 아 생각해 봐. 요새야 들어가서 농사들도 하고 그라지, 처음에는 농사고 뭐고 없었단 말이야. 아예 눈에 보이지를 않으믄 생각이라도 안 하지, 빤히 보이는데 그것도 이북도 아니고 남한인데도 못 들어가 살게 하니 사람 미치는 일이지. 첨에는 여게를 한국군이 지킨게 아니고 미군들이 지켰단 말이야. 그 때 이 동네에 미군 해병대가 와 있었더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쏠라쏠라 하면서 못 가게 하는데 당할 재주가 있간디. 밉기도 했지,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뭐 살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다시 쫓겨 나오고 미군들하고 싸우고. 그래도 저 장파리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학교도 맹글고 그랬어, 지금은 그 학교가 무슨 창고로 쓰인다고 하던데 요새는 또 모르지, 그 학교 담벼락에 저것들이 그 학교를 만들었다고 글씨도 박아 놓고 그랬어, 그 사람들 때문에 술집하고 양공주들도 들끓고 이 촌 동네가 굉장치 않았지, 뭐 그러긴 했어도 그 때야 그 사람들이 정말 고맙은 사람들이지, 학교 만들어 공부시켜 주고 먹을 것 주고 그거면 더 바랄게 뭐가 있어, 나도 이것저것 다 못하게 됐으니 어떡해, 그 사람들 부대 쓰레기장에서 일을 했지. 일 하게 됐으니 일단은 그 어려운 시절에 그나마 다행이랐지. 그때 다른 사람들 고기 구경도 못할 때 나는 고기 먹기 싫을 정도로 먹어댔으니까. 집 식구들도 숱하게 먹었지. 그래 한 육 칠년이나 미군부대를 댕겼나. 그렇게 다니고 나니까 그래도 소짝이나 몇 마리 장만이 되더라고, 그래 그걸로 남의 논도 갈아주고 달구지 만들어서 짐도 나르고 뭐 기양 그렇게 살았지. 지금 와서 가마이 생각해 보면 이거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고라. 묵고 살거, 고향도 땅도 다 뺐어 놓고 또 사람 데려다가 밥 묵고 살게 해 주니 말이야, 그때 내 한티 딸린 식구가 모두 몇이냐 하면 우리 식구하고 애들 여섯에다가 큰집 애들 다섯도 내 한티 딸려 있었다 말이야. 말도 못해, 그때 고상한 것 생각 하믄. 나만 그런기 아니고 우리 저 사람도 없는 걸로 그 많은 식구들 밥 멕여야 되니 끔직한 일이라. 그래도 그럭저럭 살다 보니 아이들이 크고, 그때 순호라고 우리 둘째가 국민학교를 18살에 졸업했는데, 그거 마치자 마자 내가 데리고 강으로 다시 나갔다 말이야. 소 한 마리 팔아서 배 만들어서 강으로 나갔는데, 둘째는 그때부터 계속 고기잡이를 하는 거지, 나는 환갑 지내고부터는 기양저양 심심하믄 하고 안 그러믄 말고 그래. 그란데 그 둘째가 손이 빨라, 그때는 복이고 뭐고 고기들이 많았어, 왜, 요새 강 옆으로 대니다 보믄 황복이라고 써 놓은 것들 말이야. 그게 일본 사람들이 찾기 전에는 줘도 안 먹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돈이 좀 됐거던, 그래도 고기들이 지금처럼 그래 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던, 그러니 시들해지고 말지, 뭐"

이때부터 김씨는 다시 강으로 나가 전에 익혀 놓은 솜씨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둘째 아들과 같이 했는데 둘째는 워낙 눈치가 빠르고 손이 빨라 일을 금방 익혀, 그렇게 둘이서 이삼년 "두드리니까" 금방 남의 돈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수입이 괜찮았단다. 그렇게 일을 배운 둘째는 혼자 독립해서 따로 나가서 배를 타고 제 밥벌이를 하니 김씨는 다시 군대 다녀와서 마땅한 일자리 없이 놀고 있던 첫째와 강으로 나갔단다.

"둘째는 지금 저 문산에 사는데 어촌계장을 해요. 내 아들이긴 하지만 뭐, 어떡해요. 놀고 있으니 그걸

데리고 강으로 나갔죠. 그런데 또 그때는 고기 잡아서는 별로 소득을 못 보고 뱀장어 새끼, 실장언지 뭔지 꼭 지렁이 만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기 또 돈이 돼요. 전부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잡았는데 거 괜찮았어요. 물이 밀고 들어 올 때 한 두어 시간 나가서 그물 대여섯 개를 쳐 놓으면 성냥개피만한 뱀장어 새끼들이 말도 못하게 걸리는데 그냥 그물을 툭툭 털면 되는데 그걸 최고로 많이 잡을 때는 한 두 시간 만에 빠께쓰로 두 개는 잡았다니까. 그래도 그것도 통제를 했어요. 한번에 많이 씩 못 팔게 하는 거야. 한번에 한 빠께쓰 이상은 못 팔게 하니 두 빠께쓰 잡은 날은 하나는 배에다 놔두고 내린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다음 날 아침에 가 보면 다 죽어 있어, 그것들도 새우하고 똑 같에서 성질이 급한 모양이지. 그래도 그것만 잡아서도 생활이 되더라 말이야. 그런데 그것하고 나서는 잠도 못 잤어, 이게 물거리 마다 나가야 되니, 물이 뭐 사람 사정 봐 주면서 들고나고 하는게 아니라 말이야.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하다가 또 그때 바람이 세게 불고 물발이 쎄면 큰 일이라 말이지. 그게 꼭 옛날에 새우 받아다가 팔 때 그때 하고 비슷했어, 새우 받아다 팔 때도 그랬거던. 그때도 시도 때도 없어, 전부 물거리 시간에 맞춰서 다녀야 하니까, 여게서 인천이나 강화 같은 데가 가까운 데가 아니거던, 장어새끼 잡을 때는 배가 크기라도 작았지만 새우 받아다 팔 때 그때는 전부 돛 세워서 가는 풍선이라 말이야, 그러니 그게 좀 커. 거기다가 오지 독하고 소금만 싣고 나가면 새우 잡은 거를 가지고 있는 배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자리서 돈을 주고 독에다가 새우하고 소금하고 해서 절이는 거지, 그렇게 한 몇 백개 씩은 해서 돌아오는데 그 배가 장파리에서 강 따라 더 올라가면 고랑포라는 데가 있어, 그 큰배가 그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우로는 턱이 있어 갖고 잘 올라가지를 못 해, 여울이 크다 말이야, 고랑포 거게가 큰 데였다 말이야. 바다에서 오는 배들이 일단 거게서 멈추는데 거게서 부터는 또 다르게 생긴 배들이 저 강원도 이천이나 안협 같은 데까지 올라 댕겼으니까. 그 배들은 바닥이 다른 강 배들처럼 좁지를 않고 바닥이 넓었어. 우리야 그 까지는 가도 그 배타고 위로 올라 갈 일은 없으니까 상세하게 보지는 못 했어도 이 쪽의 강 배하고도 다르고 바다 배하고도 달랐어, 거게서 적성 지나면 연천이라고 있어, 거기까지 가는 배가 따로 있었다 말이야, 배 하나가 쭉 댕기는게 아니고 구간마다 다니는 배들이 달라서 요새 버스 갈아 타듯이 배를 바꿔서 물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지. 고랑포는 한번씩 가서 보면 늘 풍선들이 여남은 척씩 서 있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 거게가 임진강에서 제일 큰 포구거던,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 장사치들도 많았고, 돈이 흥했지,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한 해 걸러 굿을 했다 말이야. 그거 할 때면 우리도 죄 구경 갔지, 그게 하루에 끝나는게 아니고 며칠 씩, 어떤 때는 보름도 했어, 암사낭하고 수사낭하고 한 오리나 떨어졌나. 그게를 이제 총 하러 갈 때면 그 패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그랬어, 돈도 마을에서 다 걷어 가주고 했다는데 큰 장사꾼은 많이 내고 형편에 따라 조금씩 내고 그랬던 모양이라. 그런데 그것도 사변이 나니까 다 묵사발이 되더라구, 그 다음에는 한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라고는 끝이지 뭐. 그도 요새는 사람이 들어가 살지만 전쟁 끝나고는 전부 쫓겨나서 아무도 안 살았었거던. 고랑포는 상설로다 장이 있었다 말이야. 우리 용산이라는 그 동네도 장은 고랑포장을 다녔어. 한 십리나 되나, 배로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래. 지금은 고랑포를 걸어 갈라믄 적성으로 해서 가지만 그때는 강을 안 건너고도 다니는 길이 있었어"

김씨의 둘째 아들이 어촌계장으로 있다는 汶山浦는 지금의 선유리 동초등학교 자리에 술이홀현, 서원군 원평군 원평도호부 청사가 있을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사목리 포구를 통하여 장단을 왕래했던 곳이며 임진강의 강 흐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문산읍 하동에 포구를 설치했던 임진강 水運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풍덕, 김포, 강하, 고랑포, 연천, 송도와 한양 등지를 황포 돛대로 왕래하면서 지역 사람들이 무역선이라 부르는 상선과 농산물 그리고 물물교환의 집결지로 큰 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인근한 당동리에는 무당들이 모여 해마다 호대감 놀이를 베풀어 배를 부리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았던 곳이며 고랑포와 더불어 임진강을 대표하는 河港이었다.

문산포나 고랑포는 모두 하항으로 내륙의 화물을 물길을 이용해 처리하던 시대에 번성했던 곳이며 지금 우리가 도심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다운타운(downtown)이라는 말은 화물의 집하장이었던 하항에 형성되었던 환락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하항은 경의선이나 경원선 등의 철도가 개통되고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기차와 자동차로 옮겨가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사라졌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항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문산포와 고랑포 그리고 삼랑진, 영산포, 하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 그 뱀장어 새낄 잡아 가주고 토지를 많이 샀지. 한 칠팔 천 평 될 꺼나. 나중에는 만평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그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어, 없는 집안에 재산이라고 조금 있으니 집안에 분란만 생기고 지금은 사그리 망해 먹고, 이제 농사나 우리 두 식구 먹을 양식 정도 나오는 땅 그게 전부라. 이 가게는 딸이 하다가 말고 여게서 나가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건데 장사는 안되지, 뭐 겨우 술이나 몇 병 팔고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둘째는 요새 이 강에서는 고기잡이를 하지 않고 한강에 가서 해, 배는 일산 있는데 이산포라고 있어 거기다 두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전에는 숭어고 잉어고 한강 고기는 냄새가 나서 못 먹었는데 요새는 정부에서 물 좋게 한다고 단속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안 나. 그라고 요새는 게, 그 참게라는게 비싸. 한 마리에 육천원까지 한다는데 좋은 날은 하루에 사오십 만원도 벌고 그러나 봐, 첫째는 고기잡이 좀 해 가주고 돈 모아서 땅 사주면 장사한다고 홀랑 들어먹고 하다가 지금은 저 운천이라고 철원 가는 길에 있는 데서 장사하고 있어, 그게 전부지. 셋째는 죽어 버리고 딸들은 다 서울로 시집가서 살고 그라야, 사는 게 뭐 별거 없지"

지금 김씨는 부인과 함께 두 식구 먹을 만큼만 농사 지으며 작은 구멍가게를 한다. 한때는 잡은 고기를 일산이나 능곡 그리고 금촌으로 장이 서는 날에 나가거나 "무생시"에도 같이 팔러 다녔다는 김씨의 아내 하장순씨는 올해로 일흔 아홉이다.

"같이 팔러는 다녔어도 잡으러는 안 댕겼지, 여자들은 배에 가도 할 일이 없잖아. 배에서 불 때고 밥은 해도 남자들이 다 하지 여자들은 배를 타지를 못했어. 그런데 요새는 일 손도 없고 하니 부부들이 같이 댕기기도 하더라구. 그래도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배에서 고사도 지내고 저 부엌에 성주신 모시듯이 배 식당에도 고사를 지냈는데 그럴 때도 음식이고 뭐고 다 남자들이 했어. 그라고 우리 아버지대에나 고사 섬겼지

우리 때는 기양 하나 마나 생각나면 술이나 한잔 붓고 그걸로 그만이야, 요새야 여자들이 모두 밖으로 다니고 그러지 그때만 해도 전부 집에서 살림들 하기 바쁘고 여자들이 나서면 일이 안 된다고들 했었다 말이야. 그래도 저 사람은 고상 많이 했지, 원체 없는 집에 와서 고상이라는 고상은 다 해 봤을꺼야, 젊어서는 힘도 좋았고 뭐던지 수월하게 잘 하고 그랬는데 인제 저도 늙고 나도 늙고 그래도 아직은 훅훅하게 일들은 다 잘하지만 우리들이 뭐 언제 갈지 어떻게 알어, 아무도 모르지"

앞서 기술한대로 김기돌씨의 삶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청년기까지 형성되었던 고향에서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전쟁 이후 군사지역으로 급격하게 달라진 임진강과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어 한국전쟁 이후 빠르게 확장된 도로와 자동차의 보급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水運의 영향을 받아 청년기 이후는 半農半漁와 동시에 미군부대의 잡역부로 일하는 다양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강으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반감을 가지지는 않고 있었다.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군인들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예전과는 달리 남북관계의 긴장이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통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군 당국에 감사하고 있었다. 최근의 일은 스스로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아 파주의 어촌계장으로 있는 아들을 통해 알고 있다고 했으며 빨리 통일이 되어 죽기 전에 예전처럼 배를 타고 강화나 황해도 쪽으로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피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다.



〈사진 113〉 이형배씨의 식당(이형배씨는 민물고기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니 잡은 고기는 내다 팔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단골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족관에 모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당 운영은 부인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자신이 나서기도 한다)

2) 이형배씨(43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임진강나루터

이형배씨는 어머니 신옥순씨와 아버지 이복희씨 사이에서 4형제의 막내로 1958년 5월 29일에 태어났다. 그이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대에는 황해도에 살다가 이주해 왔으며 형제들이 모두 임진강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형배씨는 참게를 전문으로 잡는 어부이면서 자신이 잡은 고기를 되팔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강가에서 매운탕 집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업 허가를 84년도에 냈으니까 현재로 16년째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도 그 때만 해도 대한민국 민물고기 종류들은 여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부

터 고기들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구요.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때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하면 우리들은 안 해 봤는데 노인들 보면 오리발이라고 있어요, 요런 여울에서는 나무를 요만하게 오리발처럼 깎아서 끈에다 묶어서 두 사람이 저 우에서부턴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 나무로 깎은 오리가 물에 떠



〈사진 114〉 이형배씨와 딸(딸과 함께 나루터에 나갈 때면,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생각이 절로 난다. 그렇지만 요즈음 강물의 오염이 심해 자신이 어릴 때처럼 아이들이 강에서 뛰어 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사진 115〉 이형배씨(이형배씨는 강변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갓 마흔을 넘긴 젊은 어부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참게잡이만 20년을 넘게 해온 탓에, 물 속을 들여다보면 참게가 지나다니는 통로며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웃었다)

서 끌려 내려 오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정말 오리가 온 줄 알고 도망을 가요. 물밑에서 보면 그게 그림자가 비쳐서 정말 오리처럼 보일 거라 말이죠. 그래서 고기들이 물가로 쫓겨오게 몰고 오더라구요. 그렇게 해 놓고선 투망을 던져요. 그때 가서 보면 투망에 고기가 사람이 들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거진 들고 오지 못할 정도였다 말이에요. 그때가 내가 어릴 때니까 전부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랬으



〈사진 116〉 배 한척 있는 풍경사진



〈사진 117〉 이형배씨가 잡은 참개(10년전만 해도 참게를 잡기 위해 수수를 미끼로 사용했지만 요새는 수수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수수낚으로 하려면 몸에 물을 묻혀야 하니 그 수고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요새는 수수낚 대신 그물이나 통발을 사용해 잡는다)



〈사진 118〉 이형배씨의 식당 표지판(매운탕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의 이름을 내걸고 장사를 한다. 그만큼 그이는 임진강 어부, 참게 잡이에 자부심을 느낀다)

니까 그렇게 나와서 고기 잡는 날은 마을 잔칫날하고 똑 같아요. 눈치나 모래머지 이런 거 전부 모아서 한번 크게 먹는 거죠, 동네 어른들 모시고"

이씨는 어릴 적 보았던 모습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강변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아와서인지 강가에서 어른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이나 자신이 강가에서 놀았던 기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이가 어부가 된 것은 어릴 적부터 눈으로 보아 왔던 모습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씨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도 서너 가지가 더 있었는데 나무오리로 고기를 잡는 것은 스스로 해 보진 않았지만 강가에 즐비하게 자라던 쑥대를 꺾어서 낚시를 직접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때는 뭐, 보리밥만 겨우 먹고 살았잖아요. 이럴 땐데 우리들은 강가에 나가면 쑥대라는게 쫙 있었단 말이죠. 그 쑥대가 한길도 더 넘었어요. 그러면 그걸 꺾어서 낚시대로 쓰고 끝에는 깻망아지라는거 있어요. 참깨나무에 요새는 다 약을 치지만 그때는 약이라는기 귀해서 치지 않았거던요. 그러니 깻망아지가 버글버글했어요. 그걸 한 마리씩 낚시 끝에 끼워서 미끼로 쓰는 거지요. 그래 낚시를 던지면 거짓말이 아니라 메기가 한 육십에서 팔십 센티가 넘는 것들이 숱하게 올라 와요. 가물치도 올라오고 모래머지도 올라오고 모래머지가 얼마만하냐 하면 맥주병 만 해요. 한 일 킬로씩은 나갔을꺼야. 그만큼 씩 컷어요. 가을되면 또 괭이 들고 강에 요 우에 여울이 있어요. 거기 무릎 팍 정도 되는 데로 가서는 구뎅이를 파요. 강바닥을 긁어서 파고 또 한 패는 짚단



〈사진 119〉 이형배씨의 배(가까운 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면 작은 배로 노를 저어 가지만 물살이 세거나 멀리 잡으러 나갈 때면 모터가 달린 배를 이용한다)

을 갖다가 새끼 꼬듯이 얼기설기 꼬고. 수수 있죠, 그걸 가마솥에다 푹 쪄서 하루를 볕에다가 말려 놓은 거 있어요. 그 수수를 새끼 꽈 놓은 거에다 끼우고 새끼는 강바닥에 구뎅이 파 놓은 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로, 영어로 W자처럼 해 놓고는 밤에 횃불을 들고 나간다 말이요. 그러면 이 게라는 것들이 과일나무에 열매 달리듯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 한번 건너가면서 게를 따고 다시 오면서 보면 또 그새 게가 그만큼 달려 있어요. 그렇게 밤새 잡으면 하루밤새 한 천 오백 마리도 넘게 잡았지요. 그런데 그것도 팔십육년 기준으로 슬슬 없어지더니 그 담부터는 하루에 열 마리 잡기도 힘들었고 점점 없어져서 씨가 말라 볼 수도 없었다 말이죠. 그런데 구십육년에 여게 큰 홍수가 나서 연천에 한탄강 있는데 그 현대댐이라고 있는 거 무너져서 물이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게가 살아났어요. 댐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물하고 말간 물하고 합치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게들이 살아나고 문산 쪽에서는 참게 방류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게가 많아졌어요. 그래도 저 동두천하고 저 포천 대진리 그 쪽에 있는 피혁공장에서들 워낙 더러운 물을 많이 버리니까 한탄강에 고기들은 다 죽어요"

이씨에 따르면 곡우 때부터 겨우내 웅크렸던 물고기들이 활동을 활발히 시작해 산란을 하는데 그 때 피혁공장에서 폐수를 버리니 다 죽어 버린다고 주장하였다. 그 뿐 아니라 물가에 나와 놀던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없어져 강가에 살면서 강의 추억을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지금의 아이들은 이씨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성장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컴퓨터 오락과 같은 실내 오락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씨는 자신이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의 본능은 강이 있으면 그 곳에 나와 미역도 감고 물고기도 잡고 썰매도 타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전부 이 강물로다 밥 지어 먹었어요, 생수는 무슨 놈의 생수고 수도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날만 좀 괜찮다 싶으면 남자고 여자고 해만 지면 강으로다 나와서 전부 빨개 벗고 목욕하고 그랬지. 남자는 멀리 나가고 여자들은 가까운 데로 저만치 떨어져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 어데 그래요. 여름에 보면 놀러 온 사람들은 혹간 물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있어도 우리들은 절대 안한다 말이죠. 물 속을 다 아는데 거길 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문제는 문제라 말입니다. 아, 낚시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 한번씩

왔다 가면 강변이나 바닥이나 전부 쓰레기장이 되니 문제는 문제지요. 요새는 닭 사료나 소 사료 이런걸 가지고 미끼를 쓰고 그래요. 그것들이 다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니, 참"

강물이 더러워 진 것이 못내 아쉽기만 했던지 환경보호와 수질보호에 무척 신경을 쓰는 이씨는 임진강 물은 어쩔 수 없이 한탄강 물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제 한탄강은 '똥탄강'이라며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건 수질환경이 곧 이씨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주로 참게를 잡아 왔는데 15년 전, 물이 맑아 참게가 버글버글하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란다.

"환경보호고 뭐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이예요. 나는 전에도 보고 요새도 보니 다른 거 금방 알잖아요. 하여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강물도 그렇고 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 게 잡는 것만 해도, 전에는 게 잡을 때 전부 수수낚으로 했는데, 새마을 운동이고 뭐고 해서 나라가 먹고사는 게 괜찮아 지니까 이제 수수를 심지 않잖아요. 그거 심어서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수농사가 없다 말이죠. 그러고 요새 사람들이 누가 물에 들어갈라 그래요.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짚으로 새끼 꼬고 수수 삶고 물에 들어가서 그믈 치듯이 새끼를 W자로 친다고. 그런 일을 아무도 안할려고 하죠. 배 타고 다니는 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몸에 물을 적실려고 안한다 말이죠. 그라고 인제는 그물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걸로 해 보다가 그걸로도 안되니 이제는 통발로 잡아요. 닥치면 해결 한다고, 이것 저것 해봐도 안되니 다 머리를 써서 개발한 거죠. 통발로 게 잡는거는, 전에 수수낚 하던거 처럼 통발을 물 속에 가라 앉혀 놓는거죠. 게라는 것들이 추울 때, 음력으로 한 이월쯤이나 되면 바다에서 새끼로 올라와요. 얼음 밑으로 오는거죠. 이놈들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올라오면서 성장을 해요. 음력으로 사오월이나 육칠월이면 한 참 더울 때, 그때 이놈들이 허물을 벗기 시작하는데 이놈들이 허물을 한 까풀씩 벗을 때마다 성장을 해요. 그러다 이놈들이 백로 때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바다로 알 까러 가는데 그렇게 내려가는 놈들은 살도 포동포동하니 찌고 그러니까 그걸 잡는거지. 게란 놈들은 재미있는데 이놈들은 북한까정 갔다 오는 놈들도 있어요, 멀리 북한까지 갔다 온 놈들은 발이 짧아요. 그 멀리까지 갔다 오니 발이 닳아서 밴질밴질하니 닳아 있어요. 그 놈들이 굼뜬거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그래요.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막 웃었는데 내가 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고 이놈들이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이 수놈부터 먼저 내려가요. 그것들 다 내리가고 난 다음에 암놈들이 내려가요. 가을에 며칠 동안은 해보믄 수케들만 잡히는데 그때는 수케 백마리면 암케는 열마리도 안돼요. 그래 수케들 다 내려가고나야 암케들이 내려온다 말이야. 이건 박사들도 몰라요. 게들도 내려가는 골이 있어요, 길이 있다 말이죠. 새 날라 가는 거나 군인들 행군할 때 길 양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렇게 게들도 한 줄로 서서 먼저 놈이 내려간 골로 계속 따라 내려간다고. 이건 다른 어부들은 모르지, 참게만 잡아야 아는 거죠."

이씨는 부인 이화섭씨와 같이 강으로 배를 몰고 나가 고기나 게를 잡는다. 앞의 김기돌씨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씨는 품삯 나가는 것도 그렇고 둘이 나가면 재미도 있고 하다지만 김기돌씨의 경우는 여자들은

배에 와서 할 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요사이는 바다에서도 부부가 같이 배를 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는 힘든 뱃일을 할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에게는 아홉살인 현아와 네살인 현경 자매가 있는데 이씨는 임진강 물이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강물로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조사를 마칠 때까지 계속 피력했다.

3) 유흥렬씨(67세)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둔밭나루

뱃사공일을 하다가 지금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유흥렬씨는 충북 단양의 기곡에서 1933년도에 태어났다. 1954년 군대 갈 때 까지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지냈고 12살에 국민학교에 들어가 1학년



〈사진 120〉 북삼리 느티나무(매년 정초가 되거나 봄에 날이 풀리면 배를 띄우면서 이곳 느티나무아래에서 동제와 고사를 지낸다)



〈사진 121〉 북삼교(유흥렬씨가 걷고 있는 다리는 북삼교다. 1978년도에 이 다리가 놓이면서 뱃사공일을 그만두고 농사꾼으로 전업을 해야만 했다)



〈사진 122〉 유흥렬씨의 배(여름에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용돈이라도 벌어 볼양으로 조그만 배를 두 척 마련해 놓았지만,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도 노젓기도 힘이 들고 하여 아예 마당까지 끌어다 놓고 묵히고 있다)



〈사진 123〉 게이트볼을 하는 유흥렬씨(게이트볼은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다. 유난히 솜씨가 좋은 유씨는 군이나 도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다)



〈사진 124〉 둔밭나루(예전 운송수단이나 교통수단이 배를 이용하던 시절에 둔밭나루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기 그지 없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황폐하기 그지없다)

1학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한다. 1959년 군에서 제대하면서 서울로 상경하여 삼흥제작소라는 이름을 가진 철공소와 제재소를 전전하다 5 · 16 군사혁명이 일어나 사회가 어수선해지자 지금 살고 있는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둔밭나루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황치주라고 이북에서 온 영감님이 있었는데 그 영감이 나룻배를 하고 있었고, 나는 여기 포 사격장 있어, 거기 댕기며 파편 캐서 먹고살았지. 그런데 그 양반이 나이도 많고 배로 고기 잡다가 사람들 오면 건네다 주고 하는 적은 배였지. 그러니까 나를 지목해서 동업을 하자고 한거지, 배도 큰배로 다시 만들고. 그래서 사공 일을 하게 된 거지. 새로 만든 배는 한 칠십명이 탈 수 있는 큰배라"

과거 농경사회에서 사공 일을 한다는 것은 농사 지을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이거나 땅이 있더라도 그것을 경작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씨의 경우 타지 사람이었으며 농토도 한 평 가지고 있지 못하니 사공으로는 적격이었을 것이다. 그 바쁜 농사철에 배 보랴 농사일 하랴 할 수 없는 것이니 고정으로 사공을 하는 경우에는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63년부터 했지, 5 · 16 나자 바로 여게로 왔으니 61년, 그러고 한 이년 살다가 시작해서 78년까지 한 15년 했나 보네. 78년에 저 다리, 저게 생겼거든. 다리 생기니 누가 배를 탈려고 하지를 않지, 그러니 자연 배가 없어지는 거지 뭐. 내가 사공 일을 처음 볼 때 북한이고 남한이고 가릴 것 없이 큰 홍수가 났어, 우리 배, 아까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배, 그 배가 떠내려 가버리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 그 배 말고도 5 · 16 나고, 북삼리 이 마을이 그 때 생긴 마을인데 마을 생긴 거 축하한다고 도지사가 배를 한 척 해준 게 있는데 그것도 떠내려 가 버렸지. 그런데 여름에 북한에서 배가 떠내려 와서 저 밑에 화이트교라고 있잖아, 거기에 걸려 있는 거를 정월 달인데 얼음이 사람 키만큼이나 얼었는데 그 위로 배를 끌고 올라와서 다시 전부 손을 봤지. 흠 난데 다 뜯어고치고 해 가지고 그 배로 또 사람 실어 날랐어, 폭이 한 4미터나 되고 길이가 16미터나 됐는데 우마차를 옆으로 다섯 대를 실었으니까 큰배지. 그래도 뭐 동력이 있나, 그때 보면 남한



〈사진 125〉 유흥렬씨(유씨는 북삼리 노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그에게 하루는 바쁘기만 하다. 마을 대소사가 끊임없이 있고 면이나 군에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발벗고 나서지만 그래서 늙지 않는다고 활짝 웃는다)



〈사진 126〉 북삼교(지금은 북삼교가 생겨 강 건너 마을을 편하게 오갈 수 있지만, 종종 북삼교를 건너다닐 때면 뱃사공을 하던 옛 추억이 되살아난다)

배들은 전부 못을 때려 박고 그랬는데 북한 배는 나무를 뚫어 가지고 껴 맞춰서 배를 지었더라고. 그 배는 다른 나무는 하나도 안 쓰고 밤나무로만 만들었는데 솜씨가 있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때 배는 전부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 거지, 보통 그리 큰배는 사공이 여섯은 됐는데 앞뒤로 하나씩 그리고 양옆에 둘씩 그러면 여섯이잖아. 그래야 배가 움직였어. 앞 사공은 황치주라는 영감이 보고 뒷 사공은 내가 보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랬고, 옆 사공들은 특별히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새 말로 알바이트 하는 사람이나 그것도 없으면 배타고 건네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그랬지. 그때 배 삯이 한번 건네는데 5원 하다가 10원 하다가 그랬는데 저 건너 삼거리 저 짝 땅 한 평이 7원이나 8원이나 했나 그래. 그때 여게 정기 노선 버스는 없었고 합승이라고 버스보다 작은 차가 다녔는데 북삼리에서 전곡이나 연천으로 한 번 타고 나가는데 그것도 5원이야. 그러니 배 삯이 싼거는 아니지"



〈사진 127〉 오토바이 타는 유흥렬씨(오토바이는 그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다리 신경통이 심해 걸음걸이가 불편한 그이가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마을에 다니러 갈 때는 이만큼 좋은 것이 없다)

북삼리는 5 · 16이 난 후 전략적으로 생긴 마을이다. 정부에서 집을 100호를 지어 사람들을 이주시킨 것이다. 민북지역이나 접적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일촌 같은 전략마을인 셈이다. 현재는 180호 정도가 살지만 토박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생겨난 마을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이곳에는 주로 강원



〈사진 128〉 유흥렬씨와 부인 박순복씨(직접 농사지은 메주콩을 내다 팔고 남은 찌꺼기를 부인과 함께 골라내고 있다. 이것을 골라내어 메주를 쑨다고 했다. 먼저 부인이었던 이순옥과 사별하고 난 후 지금의 부인인 박순복과는 12년 전 재혼을 했다)

도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고 살던 독가촌 주민들이 많이 이주해 왔으며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에 강원도나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화전민 소개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민통선 북방 지역의 땅을 고향에서 기존에 농사 짓고 있던 땅의 규모와 맞바꾸어 代土로 주고 했던 것이다. 민북지역 안에서는 이런 마을을 자립안정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임진강은 한국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경의선 철교 이외에는 다리가 없는 강이었다. 유씨가 북한에서 떠내려 온 배를 건졌다는 화이트교나 리빙교, 틸교 같은 이름의 다리가 있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공병대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토목공사를 해서 완성된 다리이며 '화이트' 라는 이름은 바로 공병대의 대장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지금은 다리가 다시 놓이며 비룡교와 같은 우리 이름으로 개칭 되었지만 임진강에 유난히 미국식 이름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른 분단의 상처이기도 한 것이다.

"아니, 돈은 하나도 못 모았지, 내가 뭐, 천성이 그런지, 그때만 해도 여기 눌러서 이리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말이야. 그러니 땅을 사지를 안했어. 그 때 땅만 사 뒀어도 지금 한 호강은 하고 살 수 있지. 그때나 지금이나 맨 날 돈 없어 죽는 소리지 뭐, 뱃삯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 군인들하고는 아예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뭐 종이에다 쓰는 건 아니고 중대장이나 대대장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일년 동안 마음대로 건너다니게 해 주고 우리들 일손 딸릴 때 그 때 대민지원으로 해서 군인들 불러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어. 여게는 군인지역이니까 군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됐어. 한번은 면회 나갔다가 돌아오는 놈이 늦게 와서 아무리 날 불러도 꼼짝을 안하니까 헤엄쳐서 오다가 그만 빠져죽어 버린거야. 수영을 잘 했는데도 깜깜하니 용빼는 재주가 없지. 그래 그걸 다음 날 건져 줬는데 그때 여기 대대장을 잘 사귀었어. 그래 친해지고 나서 부탁을 했지. 저 노는 땅에 출입경작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출입경작이 시작 된 거야.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던 이 짝이 전부 지뢰밭이니, 군인들이 처음에 전부 우리들하고 같이 댕기며 개간을 했어. 그 때 그 땅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묵은 땅이니까 그냥 농사를 지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농토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구십년인가 그때 노태우가 대통령 할 때, 갑자기 땅 주인이라고 등기장 들고 사람들이 나타나 다 뺐겼어, 죽을 쒀 놓으니 먹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말이지"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대토를 받아 이주해 온 타 지역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노태우 정권이 북방개발 정책을 발표하고 난 직후였다. 민통선 안의 농토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자 너도나도 묵었던 재산을 찾으려고 안달이었고 그 땅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아무 걱정없이 이십년 넘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토지점유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했다. 유씨도 그 피해지 중의 한 명이었다.

"여게는 일년에 한 번씩 배 띄울 때 크게 굿을 하지는 않았어도 저 나무, 저기 큰 거 저 나무 밑에 가서 떡하고 돼지머리하고 차려 놓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문 읽고 선주하고 사공하고 사고없이 잘 댕기게 해 달라고 절하고 고사를 지내고 그랬지. 겨울이면 강이 땡땡 얼어 배가 안다녀도 얼음 위로 걸어댕기도 되거던, 달구지도 얼음 위로 댕기도 되고. 그러니 이제 음력으로 한 2월말이나 3월이래 돼서 봄이 오면 동네 사람들 전부 모여 배도 들이 밀어서 강으로 띄우고, 고사 지내고 음식 나눠 먹고 그랬지. 그때 드는 비용은 선주가 다 댔어, 내가 사공은 했어도 배 주인은 아니었거던. 그러니 배 주인이 돈을 대서 음식도 장만하고 그래"

배 고사를 위해 특별히 정해놓은 날은 없었으며 그해 그해 날을 봐서 고사날을 잡았고 아직까지 전해져 오는 당시의 축문 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마을사람 서넛에게도 같은 조사를 해 보았지만 유씨의 기억과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런 것들 또한 북삼리가 전래되어 오는 혈연이나 지연으로 형성되어 온 전형적인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 같았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객관자 혹은 방관자로서 마을 행사에 구경꾼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누구하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싶었지만 유씨는 사공 일을 그만 두고는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3년 전, 경운기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크게 두 번이나 받은 상태여서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였다.

4) 최영선씨(52세)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임진리 임진나루

해주최씨인 최영선씨는 1949년 8월 29일, 아버지 최윤선씨와 어머니 박복례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 대 물림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전형적인 어부이다. 최씨의 고향은 임진강이 아닌 한강에 잇닿아 있는 경기도 고양군의 능곡, 행주대교 아래 행주외리 200번지이며 그 곳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자 1968년에 임진강으로 이주해 와 32년 째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최씨는 한강에서도 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그 기간이 2년밖에 되지를 않아 짧기도 할 뿐더러 최씨의 말대로 머리 크고는 줄곧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임진강 어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진 129〉 최영선씨(최씨는 공부가 짧아 마을 이장직을 3년째 보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한다. 그래도 요사이는 고기를 잡는 시간보다도 마을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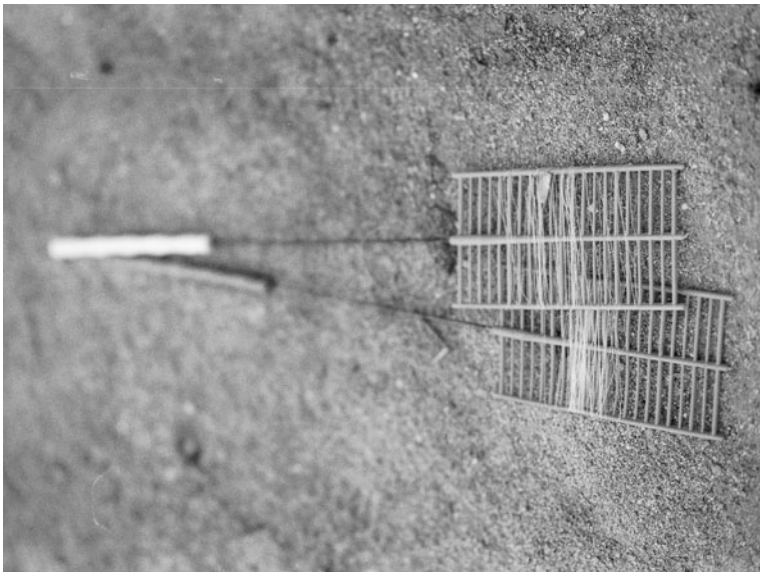


〈사진 130〉 최영선씨 어업허가증(임진강에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어업허가증이다. 7~8년 전만 해도 사람을 두고 고기를 잡았지만 어획량이 줄면서 부인과 함께 나가 고기를 잡으니 허가증이 두 개다)

것처럼 얇다랗게 어니 이제 그만이지 뭐"

"고기잡이는 돌아가시긴 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빠삭하지, 한 오십 년을 한강, 임진강, 아산만이나 인천 같은 데로, 그때는 38선이고 휴전선이고 이북이고 없었다 말이야. 그러니 그런 데로 안간 데 없이 다 다니며 잡았어, 여게만 해도 임진강에서만 잡던 사람은 한강에서 잡다가 온 사람들 보다 더 못 잡아, 한강 배하고 임진강배 하고 틀리거던, 한강 쪽 배가 더 날렵하고 빨라. 그래 인제 그런거만 보고 자랐으니까 국민학교만 졸업 맞고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심부름도 하고 그래 뱃일을 배운거지, 그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배는 무지 큰 배였어, 배가 크니까 아예 배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고기가 잡혀 배에 꽉 차면 포구로 와서 고기만 부려 놓고, 우리는 내리지도 않고 다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대녔다 말이야. 집에 오면 우리가 전부 칠남매라 말이야. 방이라고는 두 개 밖에 없어 부모네들 한 방에서 자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전부 한방에서 복닥거리는데, 생각해봐 집이 크기나 했겠어, 토담집이 다 그렇지. 그러니 바다나 강에 나가 배 위에서 사는게 더 편하지. 나도 처음부터 고기 잡을려고만 했던 건 아니지, 어째 하다가 한진통운에 취직해서 운전을 배워 보겠다고 따라 대니는데, 하루는 서울역에서 차를 빠꾸시키라는 거야, 전에는 트럭마다 조수들이 다 있었거던, 내가 조수 할 때 이야기야. 그래 빠꾸 하다가 잘못해 뒤에 있던 차를 박았어,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그렇게 밖에 못하냐고 따귀를 때리더라고, 그래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와서 아버지하고 고기 잡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고향은 행주니까 추억은 거게 다 있어, 겨울만 되면 강에 얼음이 차가 지나가도 괜찮을 만큼 얼었다 말이야. 그러니 그 위에서 저 김포 애들하고 편갈라서 축구도 차고 썰매 시합도 하고 얼음 위에 불 피워 놓고 고구마 구워먹고 그런거 이제 할 수도 없어, 강에 얼음이 얼지를 안 해, 얼어도 올라서면 무너질

최씨는 충청도 아산으로도 고기 잡이를 다녔다는데 숭어를 잡기 위해서였다. 임진리로 이사 오기 전 2년 동안 아버지를 따라 아산만으로 차에다 배를 싣고 다녔는데 그때는 아직 아산만을 지금처럼 막기 전이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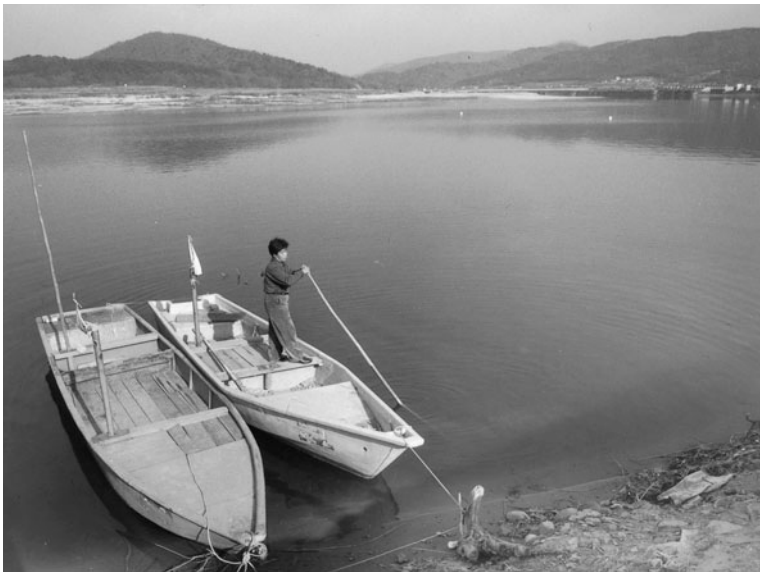


〈사진 131〉 찌 낚시(겨울에 강이 꽁꽁 얼 때면 얼음을 깨고 찌낚시로 고기를 잡곤 했지만, 추운 겨울에 놀이로 하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어져 낚시를 창고 한켠에 처 박아 놓았다)



〈사진 132〉 그물을 손질하는 최영선씨(지금은그물을 사다 쓰기 때문에 편하지만, 예전에는 겨울이 되어 농한기와 같은 어한기에는 최씨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셋이서 명주실을 사다 겨울 내내 그물을 짜는 것이 일이었다)

"내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 큰아버지하고는 아산만으로 고기 잡으러 같이 대니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숭어를 잡아 가지고 알을 딴다 말이야. 그 알을 일본 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전부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거야. 음력으로 4월에서 6월까지 하는데 여기 사람들도 아산으로 많이 갔지. 그렇게 몰리는게 알을 알대로 따서 팔고 고기는 고기대로 파니, 이게 두 배 장사 거던. 물이 만조가 되면 물이 선다 말이야. 그러면 그물을 있는대로 다 던져 놓고 막대기를 들고 물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 고기들이 놀랜다 말이야. 토끼 모는 거 하고 똑 같애, 그래 몰아서 그물 있는 데로 오면 배를 끌고 가서 잡아 올리면 그만이야.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그랬지. 이제 숭어가 끝나면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잖아, 그 준치 철이 온다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또 숭어 잡는 거 하고 방법이 틀려. 그 준치 맛이 끝내준다 말이야. 그것도 여기서는 삼중망을 쓰는데 거기서는 홑망을 쓰더라고, 배에서 닻을 놓고 꽁무니에서 그물을 내린다 말이야. 그래 물이 서면 준치 주둥이가 전부 그물에 끼어 있는 거지. 이래저래 재미도 많이 봤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는 그 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 어떡해, 그물 놓고 하는 건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니 그것도 못하고 맨날 노만 저었지. 그거 하다가 다름 사람, 노 잘 젓는 사람 들어오



〈사진 133〉 최영선씨의 배(임진강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 북과의 경계가 가까운 탓에 배에 모터를 다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장마 때면 강 하류에서는 배가 떠내려가 북쪽 땅까지 가는 일이 있다)

면 밥만 했지, 내가 배에서 제일 쫄짜거든. 그러니 맨날 허접한 일만 맡아 놓고 했는데 그래도 일하는 날 보다 노는 날이 더 많고 내 돈 안들이고 돈 벌면서 구경도 하고 재미도 있으니 따라 댕긴거야. 그때 배에서 일하고 돈 받는 거는 전체에서 먼저 주인이 5할을 먹어, 그리구 나머지 가지고 배에 일한 사람들이 나누는데 다른 비용, 일체는 다 주인이 내는 거지, 그래 있다가 음력으로 6월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고 그랬지. 그렇게 하는 게 한강에서 하는 거 보다 곱은 더 남았다고들 하더라고"

최씨의 뱃일은 순전히 아버지에게서 이어 받은 것이다. 아산으로 갈 때도 그랬고 문산의 임진리로 옮길 당시도 사실 집안 전체가 옮긴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와 둘이서 방을 얻어 놓고 5년간을 생활했었다고 한다. 최씨는 아버지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은 것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최씨의 아버지가 제주도로 피난을 갔었다는 것이다. 전쟁이 날 무렵 최씨는 두살배기라 기억은 못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말로는 최씨와 다른 식구들은 모두 큰집이 있었던 안산으로 가고 아버지와 행주 마을 사람 열 명 정도가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임진으로 왔을 때,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왔지, 집 같지도 않은 하꼬방을 만들어 놓고 거적대기 같은 걸로 지붕 덮어놓고, 지금 저 마정초등학교 있는 그 근처야. 어머니는 반찬만 날라다 주고 그랬어. 요새는 그래도 차도 있고 오토바이나 그것도 없으면 자전거나 리어카라도 있잖아, 그런데 그때는 그런게 어디 있어, 아침마다 송판으로 만든 사과 궤짝 있어, 거기다가 그물하고 넣고 멜빵으로 묶어서 등짐을 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점심도 전부 해 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고기는 늘 잡히니까 다른 양념만 가지고 가면 배에서 매운탕 끓여서 점심 먹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해만 지면 돌아와야지. 그라다가 겨울 되면 이제 강에 얼음이 일미타도 더 두껍게 어는데 고기를 못 잡잖아. 그래도 심심하면 나와서 얼음에 구녕 뚫고 그물 쳐서 고기를 잡아. 다 방법이 있어, 말로 해 가지고는 모르고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뱃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 일 하는 걸 봐야지 아, 저래 하는구나 하면서 금방 알지, 안 그래고 말로만 들어 가지고는 절대 모른다 말이야. 그래도 이야기 해 줄까. 얼음에 10미타 간격으로 구녕을 쭉 뚫는다 말



〈사진 134〉 임진나루 입구(임진강 하류로 올수록 북한과의 경계가 가까워 항상 군의 통제를 받으며 고기를 잡지만 요즈음은 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전에는 해만 지면 강에서 나와야 했으나 요즈음은 신고만 하면 24시간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야. 그래고 구멍마다 끈으로 연결시켜 놓고 대나무를 그 줄에다 매 달아서 강 건너까지 연결을 한다는 거지. 그래 놓고는 그 밑으로 그물을 바닥으로 내리는데 끝에다가 돌을 달아야지 이게 바닥까지 얌전히 내려간다 말이야. 그래고는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물을 올리면 되는데 구멍마다 또 얼음이 두껍께 얼어 있거든, 그러면 그거 깨고 건져 올리면 되는데 요새는 얼음도 안 얼고 춥고 귀찮으니까 아예 나가지를 않어. 그래도 겨울이면 그 재미는 있었어, 돈벌이로 안 하고 재미로 하면 재미있지, 그런데 그게 돈벌이가 되면 힘만 든다 말이야. 그라고 또 그때는 겨울만 되면 그물 짜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버지도 짜고 어머니도 짜고 나도 짜고 그렇게 세 명이서 부지런히 짜 놔야 다음 해에 쓸 수 있거던. 임진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나이론이 잘 없었거던, 그러니 그물이 전부 명주지 뭐야. 명주실로 그물을 짜고 그물 끝에다가 추를 달아야 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아무거나 달면 안 된다 말이야. 요새는 납으로다 다 하지만 그때 납이 어디 있어, 그래고 그걸 조정을 잘 해야 된다 말이야. 납은 너무 무거워, 그물이 전부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되니, 적당하게 떠 있어야 하거던. 그렇게 위아래 비율을 맞추고 중심을 제대로 해 놔야지 안 그러면 밑으로만 가라앉던지 물위로 떠버리면 안 되는 거 아냐, 그러니 그물 위에 물에 떠 있는거는 참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짤라서 하고 밑에 거는 저기 옹기 굽는 흙 있어, 그걸 퍼다가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맨들어 구워서 추를 달아 놓는 거야. 그래야 이게 아래 위 중심이 잘 맞거던"

최씨는 임진리로 이사온 후 1975년 11월에 현재의 부인 임순연을 중매로 소개를 받아 다음 해 1월 15일에 결혼을 했고 지금의 화석정이 있는 아래 마을에 방을 얻어 신접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당시엔 지금 최씨가 사는 임진리에는 통틀어 4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아예 두 칸 짜리 방을 얻어 아버지와 함께 집을 옮겼다. 그즈음 들어 임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강 건너 마을이 '수복' 되었기 때문이었다. 최씨가 임진리로 처음 옮겨 간 1968년도만 하더라도 강 건너는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민간인통제구역이었으나 1971년 출입 영농이 허용되었고 이 곳 주민들은 출입이 허용된 것을 두고 수복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출입영농인 만큼 농지와 거주지역의 거리가 있어 가능한 한 농지 가까이 거처를 마련하여야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한 점이 많았던 관계로 강을 건널 수 있는 임진리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그들은 마치 군대 막사 같은 콘센트 건물을 짓고 그 안을 다시 칸을 나누어 하숙 생활과도 같은 생활을 했었다고 한다.

최씨가 기억하는 사람들의 수는 당시 20여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살았고 그들과 함께 최씨는 1977년 정부에서 각 호수 별로 100만원씩의 융자를 받아 현재의 자리에 집을 지어 입주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임진리 또한 앞서 다루었던 뱃사공 유흥렬씨가 살고 있는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마을이 형성된 것과 같이 접적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적으로 생겨난 마을이다. 그러나 임진리는 타지 사람들과 토박이들이 섞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특이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껏 전래되는 마을 고사가 남아 있기도 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예요. 나만 교회를 안 다니지, 우리 막내는 지금 전도사고, 둘째하고 마누라는 철저해,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나가는 건 진짜 철저해. 그래도 우리 마을에는 일년에 한번씩 대동고사를 지내거던, 내가 아무리 기독교 집안 이래지만 그래도 유교는 남아 있지, 우리야 제대로 배우지는 못 했어도 동네 어른들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다 알지, 그렇잖아. 그러니 고사는 절대적으로 지내, 전통이기도 하고 그걸 해야지 마음이 편해, 마을도 편하고. 날은 음력으로 시월인데, 시월 일일부터 십일 사이에 '갑을병정' 중에 첫 번째로 '정' 자가 들은 날을 잡어, 해마다 그래 해왔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올해는 시월 일일이 첫 정자가 들은 날이더라고, 양력으로 십일월 오일이야. 그래면 그 날 모여서 상 차려 놓고 제를 올리는데 제 지내는 거는 다른데 똑 같지 뭐, 다른 거 하나는 상 차려 놓고 절하기 전에 연기를 크게 피우거던, 그거는 왜냐하면 이 동네에 실향민들은 별로 없어도 요 가까이 장단에 살다 온 사람들이 있거던, 그 사람들이 아직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고사 지내는 날이 되면 강을 건너 가거던, 건너가도 고향은 아닌데,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러니 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연기를 피우면 그쪽에서도 준비가 됐다고 연기를 피워, 그러면 그때부터 고사를 같이 지내는 거지. 합동으로 고사를 지내는 거야. 그 사람들도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까이는 가서 한다고 강을 건너가는 거야. 그걸 그래 해 놔야 일년 동안 물에서 사고도 안 나고 교통사고도 없고 다 잘 되는 거지. 절하고 나면 집집마다 소지를 올리고 그래 끝나는데 한 한 시간이나 걸리나. 돈은 집집마다 조금씩 내고, 마을 돈 있고"

최씨는 임진리의 이장이어서 고사 준비는 하지만 제주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해 마다 돌아가면서 모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고사는 임진리라는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제의가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전통적인 마을이 해체되면서 전래되어 오던 마을 풍습이 사라졌다가 1977년 마을이 다시 형성되면서 다른 마을의 풍습이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최씨의 말대로 장단군에 살던 사람들이 임진리에 자리잡으면서 수적으로 우세한 장단군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향에서 지내던 고사 날을 택해 그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했으며 그것이 공통적인 마을 문화가 사라졌던 마을에 마치 전래되어 오던 것처럼 자리 잡은 형태인 것이다. 그것은 고사를 올릴 때 임진리에 살고 있는 장단군 출신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 지금은 북쪽이 되었거나 민통선 혹은 비무장지대가 된 지역과의 연계성을 꾀하려 한다는 것과 연기를 피워 현존하는 임진리와의 동질성을 획득하려는 것에서 증명되는 것으로 접적지역에서 새롭게 생성되어 유지되어 오는 민속문화의 특이성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85년까지는 강을 건너다니는 나룻배가 있었고 최씨의 아버지가 힘든 뱃일에서 손을 떼고는 강을 건너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건네다 주는 사공 노릇을 3년 가까이 했다고 한다. 그 뱃삯으로는 한 집씩 따로 받지 않고 모두 거두어 일년에 벼 50가마를 받았다고 했다.

"여게는 다른 지역하고 많이 다르다 말이야. 강만 넘으면 북한이니까, 배에다 모타도 못 달고 전부 노 저여서 다닌다 말이야. 그러고 선단을 다 나눠나서 구역마다 그 사람들만 고기잡이를 하지 다른 데 가서는 고기잡이를 못 해. 문산읍에서 임진강만 가지고 따지면 선단이 전부 다섯 개라. 우리 임진리는 2선단이고 내가 동네 이장이니까 선단장 일을 보기도 하고, 1선단은 요 위에 파평군 그쪽이 1선단이고 장산이 3선단, 반구정 알지 그 쪽이 4선단, 저 외포리가 5선단 요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만든기 아니라 군인들이 그래 정해 놨어, 군인들 작전하는 데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작전은 무슨 작전이 있겠어, 관리하는 데 편하니까 그래 해 놓은 거지. 아니 정하기는 우리가 정했고 군인들이 그래 정해 달라고 한 거야. 이것도 허가가 있어야 고기잡이를 하는데 그 허가증엔 임진강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군인들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본거지, 그게 어로 구역이야. 우리 구역이 임진리 요 앞에 배 대는데 있잖아. 거기 기준으로 한강 쪽으로 2키로고 위로는 2키로 그럴꺼야, 배도 쪼끄맣잖아, 그런 배에 그래도 두 명은 있어야 일을 하니까 배 하나에 2명 씩 전부 26명이 허가를 가지고 있으니 배는 13척이야"

최씨가 처음 임진리에 왔을 때는 선단 구분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군들이 임진강 주변의 경비를 맡고 있어 최씨는 리비교가 있는 장파리에서부터 자유의 다리까지를 왕복하며 고기를 잡았으나 1971년 한국군이 경비를 맡으면서 선단이 나뉘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씨는 올해 마흔아홉인 부인 임순연씨와 같이 배를 탄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사람을 써서 일을 했는데 급격히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예 부인과 함께 배를 타기 시작했다. 판매 또한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 또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최씨는 생선을 잡는 일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두 부인과 함께 하고 있었다. 아버지대에 절대로 여자들이 배를 타지 않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것은 집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동업을 하였을 경우 수입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조금 더 시간이 흘러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일 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팔 년 됐나. 이 사람하고 같이 고기 잡고 장사 시작한지가.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하루는 강에 나가서 고기 잡고 3일은 그거 팔러 다니고 나머지는 그물 손보고 일 준비하면 후딱이야. 그래도 전에 보다는 수입이 좀 나은 편이지. 마누라가 성격이 걸걸해 가지고 장사에는 적성이 맞는 편이라. 그래 전에는 오토바이도 타고 기차도 타고 일산이나 능곡까지 갔어, 일산장이 그래도 제법 있었거던 금촌하고. 그라다가 90년도에 운전면허 따서 화물차에 싣고 다니면서 파는 거지, 배에서는 마누라는 그물 걷고 나는 노 젓고 마누라도 노를 젓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시원찮어, 모타를 달면 그래도 일이 수월해 지는데 전방이라고 못 달게

하니까 힘이 더 들어, 모타 달아 놓으면 뭐 금방 넘어 간다고 군인들이 그러는데 우리도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북한으로 넘어 가기는 뭐 하러 넘어가. 답답한 사람들이라, 일을 편리하게 해 줘야지. 우리 구역에는 우리 선단이 최고 후방인 셈이고 5선단, 저 우에 외포리는 강 가운데 배를 갈라서 반은 북쪽이고 반은 남쪽이거던, 그러이 배가 떠내려가도 북쪽에 가서 걸친다 말이야. 그래도 이제 김 대통령도 북한에 갔다 오고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하니까 내년에 군에 건의를 해서 우리 선단에는 모타를 달도록 해 봐야지. 군인들은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만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야 쉽지, 그래 해 가지고는 안 되거던. 고기 잡히기 시작하면 뭐 시간이 중요한가, 무조건 잡고 보는 거지. 그래도 요새는 신고만 하면 24시간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데 6~70년대만 해도 우리가 강에 나가 보초를 섰다니까. 밤에 배에다 불 밝히고 의무적으로 보초를 서는 거야. 강에서 고기를 잡는거니까 그거라도 할려면 보초를 서라는 거야. 매일 3시간씩 배가 2척씩 이래 나가는데 군인들 한 명씩 태웠지, 실탄 장전해 가지고 3시간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싸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신고하고 군인들이 우리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배에 불 환하게 하고 나가면 24시간 아무 때나 잡을 수 있기는 해. 세상 좋아 진거지. 그래도 전에 미군들이 여게를 지킬 때 그 때도 지금하고 마찬가진데 강폭이 있으면 이북 쪽으로는 10미타 정도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지. 강변으로 가까이 가면 내려서 북쪽으로 달아난다는 거야. 내가 여기 처음 와서 미군들이 71년까지 있었는데 그 때 68년도에 와서 고기를 잡는데 미군들은 헬기를 띄워 가지고 정찰을 한다 말이야. 이 배가 몇 호고 이게 강변으로 10미타를 갔나 안 갔나 전부 사진을 찍고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넘어가기만 하면 헌병이나 CID로 무전을 때린다 말이야. 그러면 그것들이 앵앵대면서 잡으러 오는 거야. 와서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삐삐선이라고 군용 전화줄 있어, 가는 거, 그걸로 손을 뒤로 해서 묶는다 말이야. 그래 아버지하고 내 하고 처음에 몰라서 끌려가고 그랬지. 그래 강 건너간 이유레 대해서 조서 쓰면 그것들이 또 한국 경찰로 넘겨, 그러면 또 조서 쓰고 다시는 안 넘어 간다는 각서 쓰고 풀려 나는 거야. 그 짓을 한 열 번도 넘게 했을꺼야. 지금도 우리 배로는 저기 왜 경의선 철교 있잖아. 자유의 다리 있는데 그 다리 200미타 전방까지밖에 못 가. 다리를 폭파 한다는 거지, 미군들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 미국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건지……."

이것은 농부들도 마찬가지다. 민통선 지역에 입주해 사는 농부들은 그나마 한 여름에 물난리가 나면 밤중이라도 물꼬를 볼 수 있지만 출입영농자들은 한밤중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와 마찬가지로 접적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 또한 눈앞에 고기를 놔두고도 해가 떠야 강으로 들어가고 해가 지면 무조건 강에서 나와야 한다는 군인들이 정해 놓은 일방적인 어업조건 때문에 돌아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완화가 된 것이다.

또 미군들에게 잡혀갈 당시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앞에 고기가 보이니 어쩔 수 없이 고기 따라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에 금을 그어 놓은 것도 아닌데 언제 10m를 넘어 갔는지 안 갔는지 자로 잰 듯이 재가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며 잠시 흥분을 하기도 했다.

"그래도 전에는 참게고 뱀장어고 전부 가마니로 잡을 만큼 많았어, 뱀장어 잡는게 재미있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됐어, 장마철에 이게 하류 쪽에서 강으로 올라온다 말이야. 그러면 지렁이를 잡아 낚시바늘에다 한 열 마리를 쫙 끼운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는 나이롱 실에다 매 달아놓고, 배는 한쪽에 물 좋은 데다가 세워 놔야지, 닻을 주고 세워 놓고는 배 양쪽에다가 통나무를 이래 대며는 물살이 이래 갈라진다 말이야. 그러면 또 나무를 깎아 놓은게 있어 한쪽을 모서리지게 깎아 놓은걸 가지고 물에다 대면 물살이 안 생겨, 이것도 말로 해 가지고는 몰라. 하여튼 그래 물살이 안 생기도록 해 놓는게 중요한데 또 물은 한쪽으로 빠지게 해놔야 하거든. 그래 가지고는 지렁이 달린 낚시를 들었다 놨다하면 뱀장어가 이빨이 옹니야, 한번 물면 안 놓는다 말이야. 그러니 몇 가마니씩 잡았지. 황복은 요새 들어서 황복, 황복 그래지, 전에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 고기랐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 먹는다는 소문 나고는 그래 많이들 찾어. 전에는 그거 잡기가 싫어서 잡지도 않았던 거라 말이야. 그래도 잡힌 거는 버리면 아까우니까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저 마정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옛날에 나무 장이 있었어. 거기다가 갔다가 널어놓고 말리는데 아무도 그거 한 마리 가지고 가지를 않아. 맛이 있는 거면 사람들이 죄 집어 갔겠지. 그런데 희한한 건 임진강 사람들은 그걸 안 먹어도 한강 사람들은 그걸 먹었다 말이야. 그래 어머니가 반찬 가지고 한번씩 오면 그걸 말렸다가 주면 한강 쪽으로 가서 팔아 오고 그랬어, 다들 그거 잘못 먹으면 죽는다니까 아예 먹지를 않은거지.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 그게 돈이 안 돼지, 그래도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그거 잡히면 아버지하고 둘이서 밤새 황복 배를 째서 알을 다 뽑고 그랬어, 그래저래 한 십년 전 까지만 해도 좋았거던, 95년까지도 그럭저럭 할 만했지, 그때만 해도 전부 실장어 해 가지고 배 하나 당 수천 만원씩 벌었으니까. 갈수록 고기들이 안 잡혀, 작년에 황복을 나만 130키로를 잡았는데 올해는 벌써 올해 다 끝나가는데 30키로밖에 못 잡았어. 말도 안되지. 그러니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 올해도 그렇고 내년엔 더 많이 떠나겠지 뭐. 요새 저 강 건너 저기서 골재를 판다 말이야. 정부에서 한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골재 파내면 물 흐르는게 달라지지 진동 생겨서 고기들이 생기지를 않아. 그러니 고기 잡는 사람들이 보상을 해 달라 했더니 올해 배 한 대 당 400만원인가 씩 주더라고, 그래서 택도 없다고 내년에는 1000만원 씩 달라 안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했지. 지난번에 동두천 피혁공장 같은 데서 가죽물 그게 내려 와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단 말이야. 그때도 우리들이 전부 배 한 대에 1000만원도 넘게 수입을 올리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보상을 얼마 준지 알아 40만원이야, 40만원. 기가 막히지. 그것도 정부에서 준게 아니라 업체 사장들이 돈 모아서 그렇게 해서 준거야. 그걸 정부에서 관리를 잘못 한 책임도 있으니 정부 쪽에서도 뭔가 있어야 될텐데 정부는 꿈쩍도 안해"

아직 최씨는 고기를 더 잡을 수는 있지만 생각이 많다고 했다. 어부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세로 1,500만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업허가권을 팔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아 재미 보기는 틀린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통일이 되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모르지만 그때가 당장 닥치는 것도 아니고 막상 통일이 되면 자신의 나이가 많아 어부 일을 하지 못하기가 쉽지 않겠느냐고 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5) 장석진(37세)

＊ 무역상을 하던 아버지 장수봉(78세)에게서 이야기를 들음

장수봉씨는 우선 조사 대상자로 지목되어 있었으나 건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여 조사가 미루어졌으며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조사를 하려 했으나 입원이 장기화되고 아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을 잃어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다만 병 문안으로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그이의 4남 2녀 중 막내아들인 장석진씨와 잠깐 나눈 대화가 전부여서 본격적인 조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것만 기술하기로 한다.

장씨가 살고 있는 적성면 두지리는 앞의 마을들과 다를 바 없이 한국전쟁이후 원주민이 전부 소개되었다가 60년대 후반 다시 마을이 형성된 경우이다. 한국전쟁 전, 일제 당시만 하더라도 두지리의 가구 수만 100가구가 넘어 인근한 고랑포와 함께 임진강에서 번성한 마을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20가구 정도만 살고 있으며 농사와 고기잡이 그리고 민물고기를 재료로 하는 매운탕 집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마을이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북이에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예성강에 있는 포구가 고향이다 이것만 알아요. 아버지는 여기 와서 낳으신 거구요. 아버지가 1923년 3월생이시라 말예요. 근데 아버지를 여기 와서 낳았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먼저 여기를 오셨겠지요. 할아버지가 결혼하시면서 분가를 했어야 됐나 봐요. 그래 기왕 할 바에는 멀리 가자 그래서 배를 가지고 고향을 떠난게 이까지 오게 된 거 라구 해요. 고향은 뭐, 예성강 있는데 포구라고 하니까 벽란진이나 됐겠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일제 때 아버지도 할아버지 따라서 예성강으로 시제 모시러 다니고 그랬다고 해요. 거기에 장보고 장씨, 집성촌이 있어서 매년 시제만 지냈다는 건 알아도 오도 가도 못하니 조상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오셔 가지고 주로 고랑포 포구에서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하신 것은 개성인삼하고 고랑포 지역에 나는 특산물, 주로 곡물하고 돌멩이 있어요. 무덤에 하는 석물 같은 거, 망부석 감도 좀 나오고 해서 그런거 했는데, 그러다가 일제 중기가 되면서 거의 사양화 됐다고 하더라구요. 열차가 놓여지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저 서해바다나 한강 쪽에서 장파리를 거쳐서 고랑포까지 오곤 했는데 그 위까지는 조수 때문에 큰배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여기서 실어서 서울 마포 나루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나가면 가깝잖아요. 요 임진각으로 해서 문산 오두산 전망대로 해서 가는 거죠. 여기서 상당히 가까운 거죠. 여기서 싣고 밤에 출발하신대요, 당일 도착은 힘들고 다음날 저녁이면 도착하죠. 그것도 뱃길이 좋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틀 꼬박 걸리기도 하고 그랬다나 봐요. 물때도 맞추어야 하고 바람도 맞춰서 불어야 하는 거죠. 보통 문산에 임진강하고 한강이 합류되는 데 가서 쉬시다가 조류하고 바람 타고 가는 거죠. 여기서 썰물 때 내려가고, 한강 쪽은 바람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칠 때라야 바람 받고 잘 올라간대요, 그리고 밀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서울 쪽에서 나는 것은 거의 실어 올게 없다고 하시더라고, 소금이나 생활 필수품을 조금 싣고 오는 거죠. 경의선이 생기고

교통이 좋으니까, 점점 수지타산이 안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징병 갈 때, 일제 말기까지 하신 거죠. 젊었을 때 10대 후반 한 3~4년 동안 하신 거죠. 그때 얼마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거의 맞지 않으니까 벌써 신작로 생기고 대중 교통이 생기는 시기니까. 뭐 1년에 많아야 열댓 번 그렇지 않으며 7~8번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배가 거의 유명무실해진 거죠. 할아버님이 일제 개화가 되가지고 고 시기에 재미는 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도 황포돛배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좇아다니며 고기 잡고 그랬죠. 할아버지는 예성강에 계실 때, 거기가 요새로 치면 국제 무역항쯤 됐던 모양이던데 그때 무역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해볼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시절이 좋지 않았던 거고, 나중에 아버지는 무역이 안 되니까 고기잡이를 했죠"

크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맨 처음 기술한 김기돌씨의 무역 일과 다를 바가 없는 듯 하였다. 장수봉과 김기돌의 나이가 같고 두 사람이 경험하며 살아 온 시대가 같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으며 취급하는 물류의 종류 같은 것에서 차이가 날 뿐이었다.

3. 임진강 유역 어로생활사 조사를 마치며

이상과 같이 임진강 유역에서 어로 생활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 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첫째 토박이를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마을 구조가 해체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주민을 찾기가 힘들었다. 지금 형성된 마을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최소한 15년이 지나고서야 만들어 진 마을이기에 기존의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주민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형성되었으며 한번 떠난 원주민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온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임진강 유역의 마을들은 원주민들이 토박이로 고스란히 살고 있기보다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나 전혀 다른 지역 주민들이 혼합되어 형성된 관계로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결같이 분단 이후의 어로생활에 알게 모르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로구역의 설정이라든지, 어로시간 제한, 동력선 운용금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불만으로 그것은 거의 군 당국의 조치와 충돌하는 마찰이었다. 또 과거에는 이들이 무역선이라고 부르는 상선의 운행이 많았으나 해방과 함께 육상교통의 발달과 분단의 영향으로 강에 배를 상설적으로 띄우지 못해 상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지금은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은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배의 모양이나 잡히는 고기가 서로 달랐으며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옥돌내(지금의 월롱면 위전리 냇가)에서 잡히는 참게는 임금에게 진상되던 것이기도 하며 이로 말미암아 참게하면 파주게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으며 임진강의 경우 작은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있었

으나 본격적으로 큰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없어서 주로 서울의 서강이나 행주 그리고 강화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였다. 조사자 중 나이가 들어 이제 뱃일을 하지 않는 김기돌씨나 뱃사공이었던 유홍렬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환경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임진강이 더러워지는 주된 이유로 한탄강의 오염을 꼽았다. 또 한탄강 오염의 주범으로는 동두천 일대의 피혁공장, 포천 일대의 무분별한 축사와 같은 것을 들었는데 이들은 이로 인해 어로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었다.

네 번째는 어로생활을 주로 함에도 그것을 위한 제의나 굿과 같은 전래되어 오는 민속놀이가 없다는 것이다. 고랑포의 경우처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창굿'과 같은 수상생활의 안전과 육상생활의 안전을 동시에 비는 굿이 있었으며 인근한 장단부사였던 이서 장군의 전설이 서린 德津堂에서는 해마다 강을 무대로 살아가는 임진강의 어부들이 제를 모셨으나 당도 사라지고 없을 뿐더러 제의조차 제대로 조사되어 남아 있거나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랑포나 두지리, 문산포와 같은 지역은 일제 시대에도 번성했던 지역이라 사진자료들이 있을 법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마을의 이동이 있었고 그 이후 다시 정착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도 90년대 들어 크게 난 두 번의 홍수에 모두 잃어버려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또한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이성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두를 종합해 보면 임진강 유역에서의 어로생활은 크게 분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단 이전, 조사 대상자들이 기억하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삶은 상선(무역선), 고기잡이, 여객선 등으로 어로생활이 다양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분단 이후에는 고기잡이에 한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 군사지역이라던가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같은 분단으로 인해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른 변화이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막바지에 경의선 철도가 놓이고 서울로 통하는 1번 국도의 정비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으로 상선이나 여객선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지역 대 지역, 가령 고랑포와 문산, 고랑포와 연천과 같은 지역간의 물류 이동이나 여객의 이동조차 사라져 버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앞서 제공된 물리적인 조건의 제재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한국전쟁 이후, 혈연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적 개념의 씨족사회가 붕괴되면서 마을이 해체되어 전통마을에서 유지되어 오던 민속놀이나 집단적 제의가 모두 사라져 임진강 유역에서는 그 흔한 수상안전을 위한 집단적 제의나 수신이나 물을 매개로 한 민속놀이는 잘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전만 하더라도 이는 대단히 왕성한 모습으로 마을 속에 살아 있었다. 이는 임진강 유역의 삶은 농업이나 어업을 가리지 않고 분단과 함께 전체 생활 양식이 크게 바뀌었으며 그로 인해 문화는 파편화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동서로 수평 이동은 가능하지만 남북으로의 수직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립지역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 진 강-

발행일 2001년 2월 일
발행처 경기도박물관
제 작 (주)경기출판사 (031)231-5521~7

449-905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번지
경기도 박물관 TEL.(031)288-5300